ARKO 수시연구 2025-04

2025

문화예술 신규 통계개발 사전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 수시연구 2025-04

문화예술 신규 통계개발 사전연구

2026. 05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예술 신규 통계계발 사전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주 관 기 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 책임자 : 양경학(비욘드리서치 연구위원)
참여 연구원 : 백경현(비욘드리서치 대표이사)
차민주(비욘드리서치 부대표)
차가영(비욘드리서치 연구원)
은세계(비욘드리서치 연구원)
자 문 위 원 : 한근식(한신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연구개요

문화예술
신규 통계개발
사전연구

1. 연구 배경 및 추진 경과

■ 문화예술 통계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 기존 통계의 한계 극복

- 그간의 통계가 공연 건수, 전람회 수 등 단순 '활동 결과(Output)' 집계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창작-유통-향유로 이어지는 예술 가치사슬(Value Chain)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포착하는 '생태계 통계'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함

○ 데이터 거버넌스 변화 대응

- 국가데이터처의 '공공-민간 행정 데이터 통합' 기조에 따라, 공공 지원 시스템 밖의 민간·자생적 영역까지 통계 모집단(Registry)을 확장하여 국가승인통계로서의 포괄적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함

■ 증거 기반 행정(EBPM)을 위한 지능형 데이터 인프라 구축

○ 데이터 주권 확보

- 파편화된 행정 DB(KOPIS, ISBN, 예술인복지 DB 등)를 연계하여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수치(Evidence) 도출이 요구됨

○ 추진 경과

- 본 연구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문예위 내부 검토, 전문가 자문, 유관기관 협의, 예술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7대 신규 통계 및 전략 로드맵을 도출함

2. 주요 연구 결과 : 7대 신규 개발 통계(안)

■ 기초예술 고유 영역의 산업적 가치와 사회적 기여도를 가시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화 지표를 제안함

신규 통계명	핵심 내용 및 방법론적 특징
① 예술 산업 현황 조사	국민계정체계(SNA) 원칙에 따라 기초예술의 총산출과 부가가치(GVA)를 산출, 콘텐츠 산업과의 중복을 배제한 기초예술만의 독자적 경제 지표 구축
② 문화예술 가치 측정 통계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 예술의 상징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계량화하여 정책 예산의 정당성 확보

신규 통계명	핵심 내용 및 방법론적 특징
③ 예술인 노동시장·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플랫폼 창작 및 긱 노동(Gig work) 등 신유형 노동 형태를 정밀 분석, 사각지대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 및 사회보장 체계 설계를 위한 기초 데이터 제공
④ 지역별 생활권 문화 접근성 실태조사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실제 이동 시간 및 도로망 분석. 시설 수가 아닌 '도달성' 중심의 분석으로 지역 소멸 대응 및 문화 SOC 확충 근거 마련
⑤ 공공미술 자산 관리 실효성 실태조사	건축물 미술작품 등 공공미술 자산의 보존 등급을 A~E로 진단, 사후 관리 실효성 지수를 통해 공적 자산의 유지보수 표준 체계 확립
⑥ 디지털 문화예술 참여 실태조사	AI·NFT 등 신기술 활용 창작 및 프로슈머(Prosumer) 활동 측정. 단순 관람을 넘어 능동적 참여가 일어나는 디지털 예술 생태계의 규모 파악
⑦ 문화예술 재원 (민간 기부·후원·메세나) 통계	기업 후원, 개인 기부 등 민간 재원의 유입 경로 및 다변화 지수(HHI-R) 분석. 공공 재원 의존도 탈피를 위한 세제 혜택 및 지원 정책 설계 지원

3. 조사체계 고도화 및 전략적 혁신 방안

■ 통계의 정밀도와 적시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실화'와 '혁신'의 투트랙 전략을 실행함

■ [1그룹] 핵심 내실화 : 기초 품질 및 표준화 확보

○ 행정 데이터 연계 기반 SSOT 구축

- KOPIS(공연), ISBN(문학), 예술활동증명 DB 등을 표준 식별자 기반으로 결합하여, 조사원마다 기준이 달랐던 오류를 차단하고 '단일 진실 공급원(Single Source of Truth)' 체계 완성

○ 수집 자동화 및 문항 최적화

- 행정 DB API 연동을 통해 중복 항목을 제거하고 기초 자료 수집의 80% 이상을 자동화하여, 응답자 및 조사원의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글로벌 스탠다드 정합성 제고

- UNESCO FCS 2025 프레임워크를 전격 도입하여, 국내 통계 지표를 국제 표준 분류와 1:1 매핑함으로써 국제 비교가 가능한 고품질 통계로 격상

■ [2그룹] 전략적 고도화 : 기술 융합 및 영토 확장

○ 웹 기반 예술 동태(Dynamics) 수집

- SNS, 전문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의 디지털 흔적을 실시간 수집(Harvesting)하여, 행정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제도권 예술 활동을 국가 통계 영역으로 포섭

○ 지능형 다차원 속성 태깅 시스템

- 장르, 기술 유형, 활동 공간, 사회적 가치(ESG 등) 속성을 중복 태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갈수록 복잡해지는 융복합 예술 현상을 입체적으로 분석

○ Art-Work ID 및 AI 무결성 검증

- 작품별 고유 식별자 부여를 통해 창작부터 향유까지의 생애주기(Lifecycle)를 추적하며, 수집된 데이터의 오류를 AI 알고리즘으로 자동 필터링하여 데이터의 신뢰성 극대화

4. 정책적 기대효과 및 향후 로드맵

■ 국가 예술 데이터 컨트롤타워로서의 문예위 위상 확립

○ 산재한 유관기관의 데이터 환류 거버넌스를 주도함으로써 대한민국 예술 통계의 종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책 수립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 주권' 실현

■ 수혜자 맞춤형 정밀 정책 실현

○ 지역별 접근성 분석을 통한 문화 소외 지역 집중 지원, 디지털 트렌드에 기반한 신진 예술가 육성 등 '핀셋 정책'이 가능해짐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국민 체감도 비약적 향상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1. 연구 내용 6
2. 연구 방법 7

제2장.
국내외 문화예술 통계 현황 및 타 분야 통계와의 비교 분석

제1절 국내외 문화예술 통계 현황 13
1. 삶의 질 지표를 넘어 생태계 통계로 : 문화예술 통계의 패러다임 전환 13
2. 국내 문화예술 통계 현황 15
3. 해외 문화예술 통계 현황 30
4. 문화예술 통계 간 비교·분석 35

제2절 타 분야 통계와의 비교 분석 43
1. 환경 분야 국가승인 통계 43
2. 보건 분야 국가승인 통계 45
3. 문화예술 분야 통계와의 비교 분석 47

제3장.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고도화 및 신규 통계 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 분석

제1절 수요 조사 51
1. 조사 개요 및 설계 51
2. 조사결과 요약 52
3. 주요 분석 결과 53
4. 주요 시사점 53
5. 수요조사 결과 세부 내용 54

제2절 전문가 자문회의 79
1. FGI 회의 79
2. 통계 전문가 자문회의 84

제4장.
문화예술 신규 통계 과제 도출 및 타당성 분석

제1절 통계 관점에서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할과 책임 91
1. 개요 91
2. 5대 주요 관점별 핵심 기능 91
3. 기능 강화 및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추가 제안 95

제2절 신규 통계 개발의 목적 및 기대효과 97
1. 신규 통계 개발의 배경 97
2. 신규 통계 개발의 목적 100
3. 신규 통계 개발의 기대효과 102

제3절 국가승인통계의 거버넌스와 체계적 이해 104
1. 국가승인통계의 본질적 정의 및 제도적 가치 104
2. 국가승인통계의 다각적 분류 및 방법론적 특성 105
3. 국가승인통계의 관리 106
4. 국가승인통계의 품질보증 프로세스 108
5. 문화예술 신규 통계 개발의 전략적 쟁점 및 고도화 방향 109
6. 결론 : 미래 지향적 국가통계의 비전 110

제4절 신규 통계 후보 과제 발굴 및 체계화 111
1. 현재 국가승인 문화예술 통계의 범위 111
2. 국가승인 문화예술 통계 및 사회· 경제· 산업분야 통계 비교와 시사점 112
3. 신규 통계 개발 후보 과제 발굴 프로세스 114
4. 신규 통계 개발 후보 과제 발굴 116
5. 문예위 신규 통계 개발 제안 : 10개 과제 123

제5절 5대 신규 통계 과제 확정 및 전략적 가치 134
1. 과제 선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검증 134
2. 최종 7대 신규 통계 과제 선정 결과 137
3. 과제별 선정 사유 및 전략적 기대 효과 138
4. 증거 기반 문화정책(EBPM)의 이정표 정립 142

제5장.
문화예술 신규 통계 세부 설계

제1절 신규 통계 세부 설계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체계 145
제2절 예술 산업 현황 조사 설계 146
제3절 문화예술 가치 측정 통계 설계 155
제4절 예술인 노동시장 및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설계 165
제5절 지역별 생활권 문화접근성 실태조사 설계 173
제6절 공공미술 자산 관리 실효성 실태조사 설계 181

제7절 디지털 문화예술 참여 실태조사 설계 189
제8절 문화예술 재원(민간 기부·후원·메세나) 통계 설계 197

제6장.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고도화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제1절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운영 현황 분석 207
제2절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성과 및 개선과제 진단 217
제3절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고도화 비전 및 전략 체계도 227
제4절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고도화 세부 실행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254
제5절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고도화 전략의 현실적 검증 및 실행 동력 분석 383

제7장.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조사체계 혁신을 위한 단기 실행 전략

제1절 조사 체계 혁신의 당위성과 전략적 과제 도출 391
제2절 조사체계 혁신을 위한 단기 실행 전략 394

제8장.
정책 활용 및 제도화 로드맵

제1절 신규 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추진 전략 459
제2절 데이터 거버넌스 및 개방 활성화 467

제9장.
정책 제언

제1절 서론 471
제2절 정책 제언 472
제3절 결론 474

참고문헌 475
〈부록 1〉 신규 통계작성 승인사항 명세서 (7종통합) 477
〈부록 2〉 문화예술분야 분류 체계용어 정의서 480

표 목차

[표 2-1] 국가승인통계 분야별 현황 15
[표 2-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승인통계 16
[표 2-3] 문화예술 분야 국가승인통계 17
[표 2-4] 주요 문화예술 승인통계 비교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18
[표 2-5] 주요 문화예술 승인통계 비교(계속) - 국민독서실태조사,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19
[표 2-6] 주요 문화예술 승인통계 비교(계속) - 공연예술조사, 미술시장조사 20
[표 2-7] 주요 문화예술 승인통계 비교(계속) - 예술인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22
[표 2-8] 주요 문화예술 승인통계 비교(계속) - 콘텐츠산업조사, 지역문화현황통계 22
[표 2-9] 주요 문화예술 승인통계 비교(계속) -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일자리현황조사 24
[표 2-10] 주요 지역통계 현황 25
[표 2-1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나라지표 27
[표 2-12] 문화와 여가 분야 지방지표 28
[표 2-13] 문화예술 관련 나라지표 및 지방지표 29
[표 2-14] 2025 유네스코 FCS 도메인 분류 체계 33
[표 2-15] 2025 유네스코 FCS 도메인 분류에 따른 정의 및 세부 부문 33
[표 2-16] 통계 작성 유형 35
[표 2-17] 정보흐름 단계에 따른 문화예술 국가승인통계 분류 36
[표 2-18] 공급사슬 단계에 따른 산업계 및 유네스코 FCS 분류 체계 비교 38
[표 2-19] 공급사슬 분석에 따른 국내 문화예술 국가승인통계 분류 39
[표 2-20] 국내 환경 분야 국가승인통계와 연계된 국제 통계 체계 및 협약 44
[표 2-21] 국내 환경 분야 국가승인통계 작성 방식별 분류 44
[표 2-22] 국내 보건 분야 국가승인통계와 연계된 국제 통계 체계 및 협약 45
[표 2-23] 국내 보건 분야 국가승인통계 작성 방식별 분류 46

[표 3-1] 응답자 주요 활동 분야 54
[표 3-2] 응답자 분야 종사(연구) 경력 55
[표 3-3] 문화예술 주요 통계자료 인지도 및 활용률 58
[표 3-4] 문화예술 통계 활용 전반적 만족도 59
[표 3-5] 통계 미활용 사유 60
[표 3-6] 현행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국내 예술현장 역동성 반영도 61
[표 3-7] 최우선 해결 과제 62
[표 3-8] 민간 영역 조사대상 확대 필요성 63
[표 3-9] 온라인 예술 활동 현황조사 필요성 64
[표 3-10] 융복합/다원예술 조사 분류 방식 65
[표 3-11] 외부 행정 및 플랫폼 데이터 연계 필요성 66
[표 3-12] 기존 문화예술 통계의 충분성 69
[표 3-13] 문화예술 관련 통계자료 탐색 경험과 그 성공 여부 71
[표 3-14] 최우선 신규 통계 개발 영역 72
[표 3-15] 신규 통계 개발 시 기대효과 73
[표 3-16] 타 분야 통계와의 연계 및 분석 필요성 74
[표 3-17] 응답자 특성 - 세부 전문 분야 77
[표 3-18] 응답자 특성 - 주요 활동 지역 78

[표 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정 업무 수행 관련 법규 99
[표 4-2] 문화예술 신규 통계 개발의 지향점 101
[표 4-3] 문화예술 신규 통계 개발의 목적 및 기대효과 (요약) 103
[표 4-4] 조사-집계-공표 항목 간 비교 및 관계 107
[표 4-5] 국가승인 문화예술통계 현황 111

[표 4-6] 사회·경제·산업 분야 국가승인 통계 현황 112
[표 4-7] 사회·경제·산업 분야 국가승인 통계 현황 112
[표 4-8] 시사점 요약 113
[표 4-9] 문화예술 통계 및 사회·경제·산업 통계 비교 113
[표 4-10] 위원회 법정 업무와 국정과제 부합성 매칭 분석 결과 116
[표 4-11] 법률 및 정관에 규정된 문예위 법정 사업 내역 119
[표 4-12] 신규 통계 개발 시 주요 고려사항 120
[표 4-13] 문예위 법정 사업영역 관련 통계 미비 및 공백 영역 120
[표 4-14] 문예위 신규 통계 개발 필요 항목 121
[표 4-15] 문예위 신규 통계 개발 필요 영역 122
[표 4-16] 문예위 신규 통계 개발 제안 내역 요약 123
[표 4-17] 과제 선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검증 결과 136
[표 4-18] 최종 선정 7대 신규 통계 과제 및 선정 요약 137
[표 4-19] 최종 7대 신규 통계 과제별 선정 사유 및 전략적 기대 효과 요약 141
[표 4-20] 기존 통계 체계와 신규 통계 체계의 차이 142

[표 6-1]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2023 기준) 개요 208
[표 6-2] 최근 10개년 분야별 문화예술 활동 정밀 추이 212
[표 6-3] 연도별 주요 조사항목 변화 일람표 216
[표 6-4] 최근 5개년 주요 성과 지표 218
[표 6-5] 비전 및 전략 체계 관련 용어의 이해 230
[표 6-6] SWOT 분석 요약 236
[표 6-7] PESTEL 분석 242
[표 6-8] PESTEL 분석 요약 243

[표 7-1] 2025년 문화예술활동조사 202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개선과제 411, 423, 432

[표 8-1] 신규 통계 국가승인 및 제도화 단계별 로드맵 459

그림 목차

[그림 2-1] 여가 참여 프레임워크 모델 14
[그림 2-2] 2025 유네스코 FCS 도메인 33

[그림 3-1] 응답자 주요 활동 분야 54
[그림 3-2] 응답자 분야 종사(연구) 경력 55
[그림 3-3] 문화예술 주요 통계자료 인지도 및 활용률 57
[그림 3-4] 문화예술 통계 활용 전반적 만족도 59
[그림 3-5] 통계 미활용 사유 60
[그림 3-6] 현행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국내 예술현장 역동성 반영도 61
[그림 3-7] 최우선 해결 과제 62
[그림 3-8] 민간 영역 조사대상 확대 필요성 63
[그림 3-9] 온라인 예술 활동 현황조사 필요성 64
[그림 3-10] 융복합/다원예술 조사 분류 방식 65
[그림 3-11] 외부 행정 및 플랫폼 데이터 연계 필요성 66
[그림 3-12] 기존 문화예술 통계의 충분성 69
[그림 3-13] 문화예술 관련 통계자료 탐색 경험과 그 성공 여부 70
[그림 3-14] 최우선 신규 통계 개발 영역 72
[그림 3-15] 신규 통계 개발 시 기대효과 73
[그림 3-16] 타 분야 통계와의 연계 및 분석 필요성 74
[그림 3-17] 응답자 특성 - 세부 전문 분야 77
[그림 3-18] 응답자 특성 - 주요 활동 지역 78

[그림 6-1] 비전 및 전략 체계도 22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본 연구는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조사 고도화 과제 및 중장기 비전·전략과 지능형 플랫폼 체계를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함

○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문예연감)』는 1976년 창간 이래 약 50여 년간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창작 및 발표 활동 현황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온 독보적인 사료이자, 문화예술 정책 수립의 객관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대표적인 통계 인프라임

○ 본 조사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국악, 양악, 무용, 연극) 등 예술 생태계 전반의 활동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기록하는 국가승인통계(제433001호)라는 점에서, 개별 사업 단위의 성과 집계나 표본 조사 중심의 일반 통계와 차별화되는 공신력과 시계열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

○ 특히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는 예술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술 생태계의 변화 양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정책의 내비게이터'로서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국가 기록물로서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음

○ 그러나 조사 도입 이후 반세기가 경과하면서, 초기 통계 설계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디지털 전환(DX), 융복합 예술의 확산, 증거 기반 정책(EBPM) 요구 등 거시적 환경 변화가 누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조사 방식과 통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첫째, 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와 사각지대 발생임
  - 실감형 예술, 온라인 공연·전시, 메타버스 기반 창작 등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예술 활동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조사는 오프라인 시설 대관 및 전통적 장르 분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설 밖 활동이나 온라인 기반의 융복합 예술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는 통계적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음
- 둘째,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통계 고도화 요구임
  -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증거 기반 정책(EBPM)' 기조가 강화되면서, 통계의 신뢰도와 적시성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짐
  - 특히 단순 수치 나열에서 벗어나 예술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정교한 분석 모델 도입이 절실한 시점임

- 셋째, 통계 생산의 기술적 환경 및 거버넌스 변화임
  - KOPIS(공연), ISBN(문학) 등 행정 데이터의 축적과 AI·API 기반의 자동 수집 기술이 성숙함에 따라, 수기 조사 중심의 기존 방식을 지능형 데이터 연계 체계로 전환해야 할 기술적 기로에 서 있음
  - 또한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외적 압력도 가중되고 있음
- 넷째, 성과 관리 및 평가 체계에 대한 한계 인식임
  - 현행 조사는 조사 완료 후 공표까지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는 적시성 문제와, 텍스트·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를 정책 수립에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 다년간 축적된 방대한 통계 데이터를 정책 환류와 전략 수립에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

○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는 단순한 '기존 문구의 수정·보완' 단계를 넘어, 통계 생산의 전 주기를 재진단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지능형 구조로 재설계해야 할 전환점에 도달하였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추진 경과와 누적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운영상 한계와 구조적 문제를 진단함으로써, 변화된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중장기 고도화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성과·구조·생산 체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지속가능하고 실행력 있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단기적 조사 항목 개선에 그치지 않고, 향후 5년 이상을 전망하는 지능형 플랫폼 비전과 전략 체계를 중심으로 정책적·기술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누적 성과와 통계 품질을 다층적으로 진단함
  - 지난 50년간의 조사 데이터와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고, 국가승인통계로서의 포괄성, 정확성, 연계성 등 통계 품질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둘째, 통계 생산 전 과정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필요 요소를 도출함
  - 모집단 관리,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방식, 분류 체계, 공표 프로세스 등 조사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행정적 비효율 및 기술적 누락 요소를 분석함
- 셋째, 타 분야(사회·경제·산업) 통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한국은행 국민계정(SNA), 유네스코 문화통계 프레임워크(UNESCO FCS) 등 선진 통계 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문화예술 통계의 격차를 진단하고 적용 가능 요소를 도출함
- 넷째, 조사 주체·데이터 제공 기관·현장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함
  - 정량조사와 정성조사(심층 인터뷰 등)를 통해 현장의 데이터 수집 애로사항과 활용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정책 수용성을 제고함
- 다섯째, 비전·전략 체계와 연계된 고도화 실행 모델 및 성과지표 체계를 개발함
  - 지능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고, 통계 고도화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구조를 제안함

○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가 향후에도 문화예술 정책의 과학적 토대로서 안정적·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근거와 실행 전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조사 고도화 과제 및 중장기 비전·전략과 지능형 플랫폼 체계를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함

○ 타 분야 통계 조사 및 국제 표준 비교 분석
- 문화예술 통계의 제도적 위치와 격차를 진단하기 위해 경제·산업 통계 체계 및 유네스코(UNESCO) 국제 표준을 폭넓게 검토하여 “무엇을 표준화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구축함

○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사업 경과 및 운영 현황 분석
- 1976년 창간 이후의 정책적 맥락과 현재의 국가승인통계 운영 구조를 정리하여, 이후 성과 분석과 고도화 전략 수립의 기초를 마련함

○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누적 데이터 및 성과 분석
- 지난 시계열 데이터를 투입-수집-정제-산출의 구조로 재정리하여, “데이터의 완전성과 정확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며, 진단에서 드러난 구조적 과제를 실행 과제 도출과 직접 연계함

○ 이해관계자 및 조사 협력 기관 대상 설문조사
- 행정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조사 응답 부담, 데이터 누락 원인, 분류 체계의 현장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시설 담당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개선 수단을 도출함

○ 조사 운영 내실화 및 지능형 수집 최적화 방안 수립
- 타 분야 비교 분석과 현장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단기 핵심과제-해결방안-이행계획을 제시함

○ 미래 도약을 위한 중장기 고도화 비전 및 전략 수립
- 본 조사가 지능형 데이터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한 미션, 비전, 핵심가치, 전략목표를 도출하고, 상호 정렬(Alignment) 구조로 체계화함

○ 지능형 플랫폼 성과 관리를 위한 평가 모델 및 지표 개발
- 새로 수립한 비전·전략 체계를 실제로 관리·평가할 수 있도록, 통계 품질 지수와 성과지표(KPI) 체계를 설계하고 환류 방안을 제시함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본 연구는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단편적 개선을 넘어, 통계 생산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능형 데이터 플랫폼으로의 전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에 따라 단일 방법론에 의존하지 않고, 문헌 분석, 정량 데이터 분석, 정성 조사, 비교 연구, 전략 수립 방법론을 결합한 다중 연구방법(Multi-method) 접근을 적용하여 수행함

■ 각 연구 방법은 상호 연계·보완되도록 설계되었으며, 분석 결과가 최종적으로 고도화 실행 방안 및 중장기 비전·전략 체계로 환류될 수 있도록 구조화함

가. 문헌조사 및 정책·제도 분석

■ 조사의 정책적 배경과 국가승인통계로서의 법적 맥락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조사함

○ 분석 대상
- 도서관법(ISBN), 공연법(KOPIS), 통계법 등 관련 법·제도, 국가 통계 품질 진단 결과, 문화예술 정책 보고서 등

○ 분석 내용
- 조사의 도입 배경과 목표 변화 과정, 국가 통계 체계 내 위상, 조사 지침의 변천 등

나. 국내외 및 타 분야 통계 비교·사례 분석

■ 통계 고도화의 준거 틀을 마련하기 위해 타 분야 및 글로벌 통계 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함

○ 타 분야 분석
- 한국은행 국민계정(SNA), 산업 통계 등 고도로 표준화된 통계의 수집 및 분류 기법 분석

○ 국제 표준 분석
- UNESCO FCS(문화통계 프레임워크)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 점검

다. 행정자료 및 누적 성과 데이터 분석(정량 분석)

■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객관적 품질과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시계열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정량 분석을 수행함

○ 분석 대상 데이터
- 최근 20년간의 장르별(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수집 건수 및 비중 변화
- 지역별(17개 시·도 및 기초 단위) 예술 활동 분포 및 인구 대비 활동 밀도
- 데이터 수집 시점부터 국가승인통계 공표 시점까지의 연도별 소요 기간(Timeliness)
- 행정 DB(KOPIS, ISBN 등)와 현장 조사 데이터 간의 일치도 및 매칭률

○ 분석 방법론
- 시계열 분석(Time-series Analysis): 예술 생태계의 팽창 또는 위축 경향을 파악하고, 특정 정책 이벤트(예: 코로나19)가 활동량에 미친 영향을 정밀 분석함
- 데이터 무결성 점검(Data Integrity Check): 중복 데이터 발생률, 결측치 비중, 이상치(Outlier) 추출 등을 통해 현행 데이터 클렌징 프로세스의 한계를 통계적으로 입증함
-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석: 지역별 예술 활동의 편중성을 시각화하여, 통계 모집단 관리의 공간적 사각지대를 도출함

라. 이해관계자 및 현장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 행정 데이터로 파악이 어려운 현장의 데이터 수집 애로사항과 수요를 파악함

○ 조사 대상
- 문화시설 담당자, 지역 주관처 실무자, 문화예술 분야 통계 수요자 등

○ 조사 내용
- 조사 응답 편의성, 분류 체계 적절성, 데이터 활용도 및 개선 요구 등

마. 정성 조사(FGI·심층 인터뷰)

■ 통계 수치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문제점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적 제언을 수집하기 위해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병행함

○ 표적집단면접(FGI) 구성
- 학계 그룹: 문화통계 방법론 연구자, 문화정책 전공 교수 및 연구원
- 공공영역 및 현장 그룹: 공공기관 근무자, 현업 예술인 등

○ 심층 인터뷰(IDI) 내용
- 국가승인통계로서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 지능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예상되는 기술적 제약 및 기관 간 협력 장애 요인
- 정량 지표로 측정 불가능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포착하기 위한 질적 지표 개발 제언

바. 전략 분석 및 중장기 비전 수립 방법론

■ 조사의 고도화가 단순한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국가 문화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인된 경영 전략 분석 도구를 적용함

○ 외부 환경 분석 (PESTEL)

- 정치적(정책 기조), 경제적(예산 구조), 사회적(향유 트렌드), 기술적(AI·Big Data), 법적(통계법·저작권), 환경적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함

○ 내부 역량 분석 (SWOT)

- 조사의 역사성 및 방대한 시계열 데이터(S, W)와 디지털 기술 도입 및 데이터 주권 강조 기조(O, T)를 교차 분석하여 전략 방향을 도출함

○ 이해관계자 가치 정합성 분석

- 데이터 생산자(시설), 관리자(예술위), 수요자(정부·학계) 간의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정책 수용성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함

사. 성과 평가 모델 및 지표 개발 방법

■ 고도화 전략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성과 관리 체계를 설계함

○ 내용 : 비전 연계형 KPI 도출, 투입-활동-성과-결과 구조의 지표화, 통계 품질 관리 지수 설계 등

제2장

국내외 문화예술 통계 현황 및 타 분야 통계와의 비교 분석

제1절 국내외 문화예술 통계 현황

1. 삶의 질 지표를 넘어 생태계 통계로 : 문화예술 통계의 패러다임 전환

■ 사회지표와 삶의 질에 관한 논의

○ 문화예술 관련 통계는 단순히 특정 산업이나 예술 분야나 장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로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사회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사회통계 체계의 발전 과정에서 형성되었음

○ 사회통계란, 사회관계 및 사회현상에서의 합법칙성(合法則性)을 양적으로 포착하여 총계화 하는 작업으로, 사회통계의 산출물로서 사회지표를 작성함

- 사회통계는 경제통계, 환경통계와 달리 개인과 가구를 측정 단위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중요성이 있음

○ 사회지표란, 광의의 사회통계에서 '사회적인 것' 또는 '비경제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새롭게 정의되고 개발된 지표들을 말함

○ 1960~70년대 미국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지표운동'은 과거 GDP나 국민계정 등 경제지표 중심으로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던 것에서, 비경제적인 것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이나 사회발전 수준을 파악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가' 부문을 쉼과 즐김, 어울림을 통해 얼마나 국민들이 삶의 활력을 유지하며, 공동체적 유대감을 증진하고 있는지의 정도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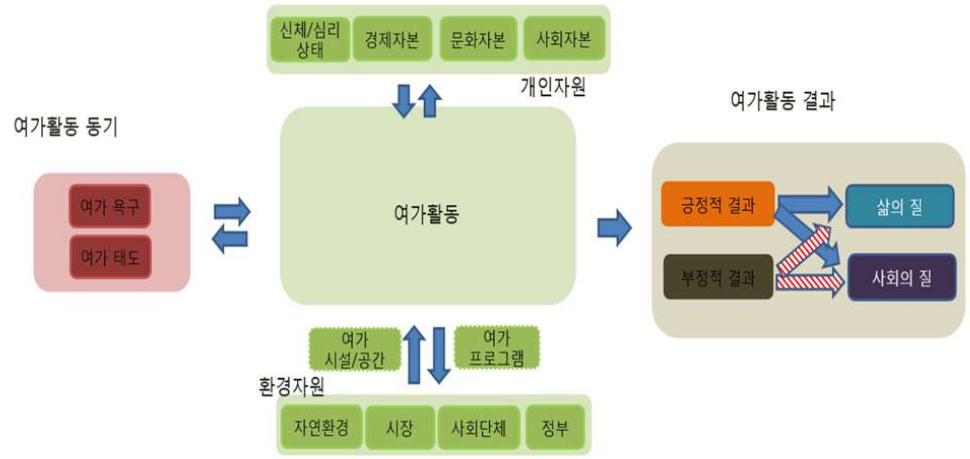
■ 여가 통계 프레임워크

○ 산업화와 노동시간 변화,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여가시간의 증가와 여가활동의 다양화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국민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떠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생산의 필요성을 제기함

○ 여가 통계 프레임워크는 크게 '여가 참여 프레임워크'와 '생활시간 프레임워크'로 구분되며, 이 중 '여가 참여 프레임워크'는 개인 측정 단위를 토대로 하여 개인의 여가 참여 내용에 초점을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과 활동 결과를 하나의 과정으로 도식화함

○ '여가 참여 프레임워크' 모델은 여가활동의 동기, 제약/촉진요인으로서 개인적 자원과 환경자원, 여가활동이 야기하는 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도식으로, 여가동기, 여가자원, 여가활동, 여가활동 결과로 구성함

[그림 2-1] 여가 참여 프레임워크 모델



○ 대표적인 국내 여가 통계로는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국민독서실태조사, 국민생활체육조사,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생활시간조사, 사회조사 등이 해당함

■ 문화·여가 통계의 작성

○ 많은 국가에서 국민의 여가활동 참여 수준과 문화향유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통계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문화예술은 이러한 여가활동의 통계적 측정의 대상으로서 중요한 구성 요소임

○ 대표적으로 국내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독서실태조사 등은 국민의 문화활동 참여와 여가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통계로, 국민의 문화향유 수준과 여가활동 참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는 문화예술 활동을 국민의 여가활동 또는 문화향유 활동의 일부로 파악하여 조사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 이처럼, 문화예술 관련 통계는 문화예술 산업이나 예술 생태계의 구조를 분석하기보다는 국민의 문화향유 수준과 여가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회통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음

○ 이러한 배경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 수준과 문화 향유 환경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창작·제작·유통 등 문화예술 산업구조나 예술 생태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통계체계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 통계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통계적 형성과정과 정책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국내 문화예술 통계 현황

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공공기관 국가승인통계

1) 국가승인통계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전체 1,381종 중 문화·여가 분야 통계는 2025년 12월 기준, 총 32종으로 확인됨

- 국가통계포털(이하 'KOSIS')에 따르면, 인구, 사회일반, 범죄·안전, 노동 등 국내통계 30개 분야 중 지역통계 분야를 제외하고 7번째로 많은 수를 포함함
- 국가승인통계 분야별 수량은 다음 [표 2-1]과 같음

[표 2-1] 국가승인통계 분야별 현황

(단위: 종)

건설		경제일반·경기		과학·기술		광업·제조업		교육·훈련		교통·물류	
18	1.3%	21	1.5%	22	1.6%	20	1.4%	18	1.3%	28	2.0%
국민계정		국토이용		금융		기업경영		노동		농림	
23	1.7%	12	0.9%	17	1.2%	29	2.1%	36	2.6%	50	3.6%
도소매·서비스		무역·국제수지		문화·여가		물가		범죄·안전		보건	
18	1.3%	19	1.4%	32	2.3%	9	0.7%	35	2.5%	64	4.6%
복지		사회일반		소득·소비·자산		수산		에너지		인구	
31	2.2%	32	2.3%	8	0.6%	20	1.4%	17	1.2%	12	0.9%
임금		정보통신		정부·재정		주거		지역통계		환경	
10	0.7%	40	2.9%	21	1.5%	15	1.1%	662	47.9%	42	3.0%
합계 : 국가승인통계 총 1,381종											

○ 문화·여가 분야 통계의 작성기관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17종), 한국관광공사(3종), 한국콘텐츠진흥원(2종), 국가유산청(2종), 한국문화예술위원회(1종), 한국언론진흥재단(1종), 한국저작권위원회(1종),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협회(1종), 사단법인 한국여행업협회(1종), 국립공원공단(1종), 산림청(1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1종)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이하 '문체부 소관 국가승인통계')는 총 36종이며, 이 중 일부는 국가승인통계 분류상 문화·여가가 아닌 도소매·서비스, 복지 등에 속하기도 함

- 문화체육관광 통계포털(이하 '문화셈터')에서는 이들 통계 36종을 다시 문화(10), 예술(3), 문화산업(8), 관광(8), 체육(5), 종합(2)의 6가지 세분류로 별도 구분함
- 해당 통계의 작성기관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24), 한국관광공사(3), 한국언론진흥재단(3), 한국콘텐츠진흥원(2), 한국문화예술위원회(1), 한국문화관광연구원(1), 사단법인 한국여행업협회(1), 한국저작권위원회(1)가 있음
- 문체부 소관 국가승인통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 2-2]와 같음

[표2-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승인통계

순번	문화체육관광분류	통계명	KOSIS분류	작성기관	승인연도
1	문화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1991
2	문화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2007
3	문화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2008
4	문화	전국도서관통계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2008
5	문화	한국수어활용조사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2017
6	문화	근로자휴가조사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2018
7	문화	지역문화현황통계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2019
8	문화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2020
9	문화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2020
10	문화	문화다양성실태조사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2024
11	예술	예술인실태조사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1991
12	예술	공연예술조사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2007
13	예술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문화·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
14	문화산업	콘텐츠산업조사	도소매·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2004
15	문화산업	광고산업조사	도소매·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2005
16	문화산업	신문·잡지산업실태조사	도소매·서비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17	문화산업	저작권통계	문화·여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18	문화산업	어린이·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문화·여가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19	문화산업	소셜미디어이용자조사	사회일반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20	문화산업	콘텐츠이용행태조사*	문화·여가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21	문화산업	웹툰산업실태조사*	문화·여가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22	관광	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1975
23	관광	국민여행조사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1976
24	관광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1980
25	관광	한국관광통계	문화·여가	한국관광공사	2002
26	관광	관광산업조사	도소매·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2008
27	관광	여행사국제관광객유치・송출통계	문화·여가	(사)한국여행업협회	2016
28	관광	국제회의현황조사	문화·여가	한국관광공사	2024
29	관광	인센티브여행현황조사*	문화·여가	한국관광공사	2025
30	체육	국민생활체육조사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1991
31	체육	국민체력측정통계	보건	문화체육관광부	1992
32	체육	장애인생활체육조사	복지	문화체육관광부	2008
33	체육	스포츠산업조사	도소매·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2010
34	체육	체육인실태조사*	사회일반	문화체육관광부	2025
35	종합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도소매·서비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36	종합	문화체육관광일자리현황조사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2020
37	(문화유산)	국가유산관리현황	문화·여가	국가유산청	2006
38	(문화유산)	국가유산(문화재)산업조사	문화·여가	국가유산청	2023

순번	문화체육관광분류	통계명	KOSIS분류	작성기관	승인연도
39	(문화유산)	고고유산조사연구서비스업실태조사	문화·여가	(사)한국문화유산협회	2025
40	(공원)	국립공원기본통계	문화·여가	국립공원공단	2003
41	(공원)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문화·여가	산림청	2020
42	(청소년)	청소년방과후활동수요및현황조사	문화·여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 상기 통계 4종은 2025년 신규 승인 통계로, 본 연구 시점까지 문화셈터 반영 전이므로, 연구자가 임의로 분류하였음

2) 문화예술 분야 국가승인통계

○ 본 연구에서는 위 통계 42종 중 관광, 체육 분야 통계 13종, 청소년 분야 통계 1종, 그리고 문화, 예술, 문화산업 분야 통계 중 특수한 목적이 있는 개별 법률에 근거하거나 본 연구의 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일부 통계를 제외하고, 다음 [표 2-3]과 같이 25종에 대하여만 '문화예술 분야 국가승인통계'로써 후술함

- 한국수어활용조사, 근로자휴가조사, 문화다양성실태조사, 청소년방과후활동수요및현황조사, 관광분야 통계 8종, 체육 분야 통계 5종 — 총 17종 제외

[표2-3] 문화예술 분야 국가승인통계

순번	통계명	승인연도	작성기관	작성유형	작성주기/단위	전수/표본	자료수집방법	세부분야*
1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1991	문화체육관광부	조사통계	1년/개인	표본(확률)	면접조사	문화예술
2	국민여가활동조사	2007	문화체육관광부	조사통계	1년/가구	표본(확률)	면접조사	문화예술
3	국민독서실태조사	2008	문화체육관광부	조사통계	2년/개인	표본(확률)	면접조사	문화예술
4	전국도서관통계	2008	문화체육관광부	보고통계	1년/기타	전수	-	문화예술
5	지역문화현황통계	2019	문화체육관광부	보고통계	3년/기타	전수	-	문화예술
6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2020	문화체육관광부	조사통계	1년/가구	표본(확률)	면접조사	문화예술
7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2020	문화체육관광부	조사통계	3년/사업체	표본(확률)	면접조사	문화예술
8	예술인실태조사	1991	문화체육관광부	조사통계	3년/개인	표본(확률)	면접조사	문화예술
9	공연예술조사	2007	문화체육관광부	조사통계	1년/기타	표본(확률)	인터넷조사	문화예술
10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20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사통계	1년/기타	전수	인터넷조사	문화예술
11	콘텐츠산업조사	2004	문화체육관광부	조사통계	1년/사업체	표본(확률)	면접조사	콘텐츠
12	광고산업조사	2005	문화체육관광부	조사통계	1년/사업체	표본(비확률)	면접조사	콘텐츠
13	신문·잡지산업실태조사	2012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통계	1년/사업체	전수	인터넷조사	콘텐츠
14	저작권통계	2017	한국저작권위원회	가공통계	1년/기타	전수	-	콘텐츠
15	어린이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2023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통계	3년/개인	표본(확률)	인터넷조사	콘텐츠
16	소셜미디어이용자조사	2024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통계	3년/개인	표본(확률)	면접조사	콘텐츠
17	콘텐츠이용행태조사	2025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통계	1년/개인	표본(확률)	면접조사	콘텐츠
18	웹툰산업실태조사	2025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통계	1년/사업체	전수	인터넷조사	콘텐츠

순번	통계명	승인연도	작성기관	작성유형	작성주기/단위	전수/표본	자료수집방법	세부분야*
19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20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가공통계	1년/사업체	전수	-	종합
20	문화체육관광일자리현황조사	2020	문화체육관광부	조사통계	분기/사업체	표본(확률)	면접조사	종합
21	국가유산관리현황	2006	국가유산청	보고통계	1년/기타	전수	-	문화유산
22	국가유산(문화재)산업조사	2023	국가유산청	조사통계	1년/사업체	표본(확률)	면접조사	문화유산
23	고고유산조사연구서비스업실태조사	2025	(사)한국문화유산협회	조사통계	1년/사업체	전수	인터넷조사	문화유산
24	국립공원기본통계	2003	국립공원공단	보고통계	1년/기타	전수	-	자연공원
25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2020	산림청	조사통계	1년/가구	표본(확률)	면접조사	자연공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셈터의 통계 분류 기준과 후술하는 '2025 유네스코 FCS'를 참고하여 세부분야를 작성하였음

3) 주요 문화예술 승인통계 비교(세부 분야별)

[표2-4] 주요 문화예술 승인통계 비교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구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조사대상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
승인연도	1991	2007
조사주기	1년	1년
조사목적	문화향수 및 문화의식, 문화활동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국민들이 여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여 정부의 여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항목	ㅇ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 -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경험 및 만족도 - 복합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경험 및 만족도 -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현황 - 매체를 이용한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 및 만족도 -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 관람 경험 - 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 ㅇ 문화예술교육 -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유아기/아동기) -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청소년기) - 문화예술교육 경험 ㅇ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 -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 경험 - 문화공간의 문화행사 참여 어려움 - 향후 문화공간의 문화행사 참여 의향 ㅇ 문화관련 활동 - 문화관련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활동 -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 - 문화예술행사 참석 시간대 - 문화예술행사 참석 희망 시간대 -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시간적 여건 - 문화예술 관련 지출 - 문화예술 관련 지출 적정성	ㅇ 여가활동 참여 실태 - 여가활동 경험 -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 희망하는 여가활동 - 여가경력 - 여가비용, 시간, 스마트기기 활용한 여가시간 - 휴가 사용 ㅇ 여가공간 - 이용한 여가공간 및 희망하는 여가공간 - 여가 공간 만족도(공공여가문화시설) - 공공 문화여가시설 인지도, 만족도, 여가산업(민간) 만족도 ㅇ 다양한 여가활동 - 동호회 활동 참여 경험, 자원봉사 참여 경험 ㅇ 여가인식 및 만족도 - 여가 관련 정부정책 만족도 - 일과 여가생활 균형, 향우 여가시간 활용 - 여가생활 전반적 만족도, 필수요건으로서 여가활동 인식 - 여가생활의 긍정적 영향, 행복수준, 여가 제약요인 ㅇ 일반적 특성 - 성별 - 연령 - 교육정도 - 혼인상태 - 장애등록 여부

구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 문화예술 관련 지출 적정 비용 ㅇ 일반적 특성 - 본인의 교육정도 - 성별 - 혼인상태 - 나이 - 장애등록 여부 - 전체동거 가구원 수 - 신체 건강 - 정신 건강(스트레스 우울감 등) - 사회적 관계(고립감, 외로움 등) ㅇ 경제활동 사항 - 지난 1주간 경제활동 상태 - 월평균 소득	- 전체 동거 가구원 수 - 동거 자녀 여부 - 주관적 건강상태(신체, 정신, 사회) ㅇ 경제활동 사항 - 지난 1주간 경제활동 상태 - 월평균 소득

[표 2-5] 주요 문화예술 승인통계 비교(계속) - 국민독서실태조사,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구분	국민독서실태조사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조사대상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 및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만3~79세 우리나라 국민
승인연도	2008	2020
조사주기	2년	1년
조사목적	우리 국민들의 독서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만들기 위한 독서환경 문제점을 파악, 바람직한 독서 진흥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 · 연구를 시행하고, 그에 따라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초자료를 생산·마련
조사항목	ㅇ 응답자특성 - 성별 - 연령 - 지역 - 학력 - 직업 - 가구소득 ㅇ 독서생활 - 독서의 범위에 대한 생각 - 여가 시간 - 독서 시간 - 독서 빈도 - 전년 대비 독서 시간 변화 - 독서 선호도 - 독서 장애 요인 - 독서의 유용성 여부 - 독서의 유용성 정도 ㅇ 독서량과 책의 선택 - 독서량 - 본인의 독서량 평가 - 독서 목적 - 독서의 계기 - 독서 장소 - 도서 선택 시 이용 정보	ㅇ 문화예술교육참여여부 - 정규교과/전공과정 외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 여부 -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 여부 - 문화예술교육 분야(장르)별 과정(프로그램) 참여 현황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과정 참여 여부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과정 참여 방법 ㅇ 학교문화예술교육(정규교과/전공과정 외) 참여 실태 - 분야별 현황 - 교육 방식 - 참여 시 고려요인 - 참여 동기 - 만족도 ㅇ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 실태 - 분야별 현황 - 교육 방식 - 참여 시 고려요인 - 참여 동기 - 동반자 - 정보 습득 경로 - 만족도 ㅇ 문화예술교육 인식(참여자대상) - 문화예술교육 관심도 - 문화예술교육 전반적 만족도/미참여 이유 - 문화예술교육 효과 및 변화

구분	국민독서실태조사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 도서 입수 경로 - 도서 선호 분야 - 책 구입처 - 책 구입 권수 및 구입비 ㅇ 독서 환경 - 독서 대화 - 독서 권장을 받은 경험 - 직장의 독서 환경 - 도서관 이용 경험 -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 도서관 이용 빈도 - 도서관 이용 목적 -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ㅇ 독서 활동 및 독서 동아리 참여 - 독서 활동 참여 경험 - 참여해본 독서 활동 - 독서 활동 참여 계기 - 독서 활동 비참여 이유 - 참여 희망 독서 활동 - 독서 동아리 참여 경험 - 참여 경험이 있는 독서 동아리 - 독서 동아리 참여 계기 - 독서 동아리 비참여 이유 - 참여 희망 독서 동아리 ㅇ 전자책/웹소설/오디오북 이용 - 전자책 등의 이용 기간 - 전자책 등의 이용 기기 - 전자책 등의 이용 이유 - 전자책 등의 이용 유형 - 유료 구독 이용 경험 - 구독 경험자가 유료 구독을 하지 않는 이유 - 각색/극화/요약한 오디오북 이용 경험 - 각색/극화/요약한 오디오북 이용자의 원작 이용 경험 - 전자책/웹소설/오디오북에 바라는 점	- 문화예술교육을 처음 받아 본 시기 ㅇ 향후 문화예술교육 수요 관련 - 향후 참여 의향 및 선호 분야 - 향후 참여 시 선호 교육 기관 및 이유 - 향후 참여 시 선호 교육 방식 - 향후 참여 시 선호 교육 기간 - 향후 참여 시 선호 교육 빈도 - 향후 참여 시 선호 교육 기담재 - 향후 참여 시 비용 지불 의향 여부 - 향후 참여 시 선호 동반자 - 향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대상 - 향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

[표 2-6] 주요 문화예술 승인통계 비교(계속) - 공연예술조사, 미술시장조사

구분	공연예술조사	미술시장조사*
조사대상	공연시설, 공연단체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건축물미술작품, 미술관, 미술은행
승인연도	2007	미술시장조사는 미승인통계로 2009년부터 조사 실시
조사주기	1년	1년(2009~2025년 총 217회 실시)
조사목적	본 조사는 공연예술분야의 현황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를 중심으로 하는 유통 영역과 미술관, 미술은행 등 공공영역의 운영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현장 환류의 기초자료로 활용

구분	공연예술조사	미술시장조사*
조사항목	ㅇ시설 기본현황 - 시설 기본현황 - 시설 보유현황 ㅇ 시설 운영현황 - 회원제도 운영 여부 - 입주 공연예술단체 여부 - 인터넷 입장권 판매 시스템 사용 여부 ㅇ 시설 인력현황 - 시설 직원 명 수 - 시설 분야별 직원 수 - 시설 직원 4대보험 가입 여부 ㅇ 시설 재정현황 - 시설의 수입 및 지출 현황 - 시설의 항목별 지출 현황 ㅇ 공연장 규모 및 가동, 공연실적 현황 - 시설 공연장 현황 - 지난해 개별 공연장별 공연 실적 ㅇ 단체 기본현황 - 단체 운영현황 - 회원제도 운영 여부 - 시설별 보유 형태 ㅇ 단체 인력현황 - 단체 직원 명 수 - 담당업무별 직원 수 - 연령별 직원 수 - 단체 직원 4대보험 가입 여부 ㅇ 단체 재정현황 - 지난해 단체 수입현황 - 지난해 단체 지출현황 ㅇ 공연단체 공연실적 현황 - 기획제작 공연 실적	[화랑] ㅇ일반 현황 - 기본 현황 - 시설 현황 ㅇ종사자 현황 - 종사자 세부 현황 ㅇ사업 운영 현황 - 전시 개최 현황 - 관람객 현황 - 아트페어 참가 현황 - 전속작가 제도 운영 현황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ㅇ작품 판매 현황 - 작품판매 세부 현황 ㅇ재정 현황 - 매출 현황, 지출 현황 [경매회사] ㅇ 일반 현황 - 기본 현황 - 시설 현황 ㅇ종사자 현황 - 종사자 세부 현황 ㅇ사업 운영 현황 - 경매 개최 현황 - 경매 외 사업 운영 현황 - 회원 현황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ㅇ작품 판매 현황 - 작품낙찰 현황 - 경매 외 작품판매 현황 - 작품판매 세부 현황 - 매출 현황 - 지출 현황 [아트페어] ㅇ 일반 현황 - 기본 현황 ㅇ 종사자 현황 - 종사자 세부 현황 ㅇ 사업 운영 현황 - 아트페어 참가 현황 - 국제 아트페어 개최 현황 - 관람객 현황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 작가비/기획비/사례비 지급 현황 ㅇ 작품 판매 현황 - 작품판매 세부 현황 : 판매방법 / 장르 ㅇ 재정 현황 - 수입 현황 - 지출 현황

*「미술시장조사」는 '미승인'통계로 국가승인통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내 미술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국내 주요 문화예술 조사통계 자료로서 연구자가 임의로 본 장에 포함하였음

[표 2-7] 주요 문화예술 승인통계 비교(계속) - 예술인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구분	예술인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조사대상	14개 분야별 활동 예술인	국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승인연도	1991	2020
조사주기	3년	3년
조사목적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해 파악하여,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예술인복지법 제4조의3)	공공과 민간 부문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현황 및 정책 분야 전체를 조망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0조)
조사항목	ㅇ 예술활동 분야 및 내용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분야 및 예술작품 발표 현황 - 주 활동 예술분야 데뷔연도 - 주 활동 예술분야 데뷔경로 - 예술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영역 - 외국 예술활동 현황 - 문화예술교육 활동 현황 - 예술분야 자원봉사 참여 현황 - 예술분야 창작공간 보유 현황 ㅇ 고용형태 및 창작환경 - 전업/겸업 예술인 종사 현황 및 직업 고용형태 - 예술활동 외 다른 직업의 업무 내용 및 주 평균 투입시간 - 프리랜서 예술 분야 종사 여부 ㅇ 생활 및 복지 - 예술활동 및 비예술활동 소득 및 지출 현황 - 예술활동 주 수입원 현황 - 저작권(저작인접권) 보유 현황 -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정책 인지도 - 4대 보험 가입 현황 - 실업급여 수혜 경험 및 수혜기간, 금액 - 업무상 상해 발생 경험 및 보상 경험 - 예술활동 경력단절 경험 및 횟수, 기간, 이유 ㅇ 개인 관련 사항 - 성별 - 출생연도 - 현 거주지 및 예술창작활동 수행 지역 - 예술인 단체 및 협회 가입 여부 - 예술활동 관련 도움을 받는 주된 경로 - 학교구분 졸업여부 및 전공분야 - 가구구성 및 일반사항	ㅇ 국제문화교류 사업현황 - 국제문화교류 사업(활동) 수행 경험 여부 - 국제문화교류 사업(활동) 현황(평균) - 전체 사업비 및 국제문화교류 사업비 비중(평균) - 사업(활동)을 하는 주된 목적 - 사업(활동) 수행 시 주된 어려움 -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던 주된 이유 - 향후 국제문화교류 사업(활동) 수행 계획 여부 ㅇ 인력현황 -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하는 부서 수 및 인력 규모 - 전문인력 채용 시 갖추어야 할 역량 - 국제문화교류 사업(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시 가장 어려운 점 - 사업(활동) 수행 인력 대상 자체교육 및 외부교육 실시 여부 - 자체교육 및 외부교육 등의 필요성, 필요교육내용 ㅇ 세부사업현황 - 사업비 및 재원 비중(평균) - 교류 국가, 교류 내용, 교류 영역, 교류 대상 - 교류 주기 - 교류 장소 - 재원 조달 방식 - 추진 방식 - 교류 방법 ㅇ 사업계획현황 - 계획한 국제문화교류 사업(활동) 유무 - 계획한 국제문화교류 사업 현황(평균) - 가장 증가/감소한 교류 내용 ㅇ 환경평가 -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책지원 방식 및 제도 평가 - 지속 발전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ㅇ 사업전망 - 향후 국제문화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이유 - 향후 가장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국제문화교류 내용, 영역 - 국제문화교류내용이 확대될 것이라 생각하는 주된 이유 - 국제문화교류 사업(활동)에 대한 전망 - 국제문화교류 사업이 확대/축소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주된 이유

[표 2-8] 주요 문화예술 승인통계 비교(계속) - 콘텐츠산업조사, 지역문화현황통계

구분	콘텐츠산업조사	지역문화현황통계
조사대상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11개 영역을 영위하는 사업체	전국 17개 광역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
승인연도	2004	2019
조사주기	1년	3년
조사목적	콘텐츠산업 분야의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확보 및 콘텐츠산업 정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표 제공	지역의 제반 문화 환경 및 정책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가공·분석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조사항목	ㅇ 사업체정보 - 사업체명, 홈페이지주소 - 대표자 - 사업체주소,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업형태, 벤처기업지정여부, 사업체구분 - 회계연도 결산 월, 자본금 ㅇ 사업체 현황 - 연간총매출액 - 업종별 매출액 비중 - 재무제표 작성여부, 부가가치액, 납부부가가치액 - 콘텐츠 제작건수, 콘텐츠제작비용 - 업종별 콘텐츠 제작비용 ㅇ 종사자 현황 - 연간 총 종사자 수 - 업종별 종사자 수 비중 - 고용형태별 성별 종사자 수 - 연령별 종사자 수 - 학력별 종사자 수 - 직무별 종사자 수 ㅇ 해외거래 현황 - 연간 총 수출입액 - 업종별 수출입액 비중 - 업종별 수출입액 권역별 비중 - 업종별 해외진출 형태 - 업종별 해외진출 경로 ㅇ 응답자 정보 - 응답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팩스, 소속부서, 직책	[문화정책] ㅇ 문화제도 - 문화 관련 조례 제정 건수 - 문화 분야 행정인력 비율 -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개수 ㅇ 문화예산 - 문화 관련 예산 비율 - 국가유산 보존관리 예산 비율 - 지역축제당 평균 예산 ㅇ 문화사업 -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문화 관련 사업 건수 - 자치단체 지원 문화사업 비율 - '문화가 있는 날' 자치단체 기획사업 건수 - 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수 -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 사회적 소수자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수1 - 사회적 소수자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수2 [문화자원] ㅇ 국가유산 - 문화보급 전수시설 수, 접근성 ㅇ 문화예술 - 문화예술시설 수, 접근성 ㅇ 생활문화 - 생활문화센터 연간 운영프로그램 수 - 생활문화시설 수 - 생활문화시설 접근성 [문화활동] ㅇ 국가유산 - 학예전문인력 및 국가유산 관리인력 수 - 문화관광해설사 수 ㅇ 문화예술 -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 -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수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수 - 문화예술교육사 수 - 문예회관 500객석당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 ㅇ 생활문화 - 법정 사서 확보율 [문화향유] ㅇ 문화예술 경험 - 문예시설 이용객 수 - 공연시장 티켓 판매수 ㅇ 생활문화 경험 - 생활문화시설 이용자 수

[표 2-9] 주요 문화예술 승인통계 비교(계속) -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일자리현황조사

구분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일자리현황조사
조사대상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
승인연도	2016	2020
조사주기	1년	분기
조사목적	문화체육관광산업 영위 사업체의 경영활동 현황, 일자리 현황, 수출입실적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문화체육관광 관련 산업의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여 국정현안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수립, 정책우선순위 결정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항목	ㅇ 문화체육관광 서비스업생산지수 - 문화체육관광 서비스업생산지수 추이 - 문화체육관광 서비스업생산지수 세부항목별 현황 ㅇ 문화체육관광 신용카드 소비지출 - 국내 신용카드 지출액 현황 - 분야별 신용카드 지출액 현황 - 주요 업종별 지출액 현황 ㅇ 문화체육관광 온라인 쇼핑 - 온라인 쇼핑 거래액 추이 - 문화체육관광 온라인 쇼핑 거래액 현황 ㅇ 문화체육관광 고용 동향 - 문화체육관광 고용 추이 - 문화체육관광 산업별 고용 추이 ㅇ 문화체육관광 생산자물가지수 - 문화체육관광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문화체육관광 생산자물가지수 부문별 동향 - 스포츠/콘텐츠 부문 생산자물가지수 동향 ㅇ 문화체육관광 소비자물가지수 - 문화체육관광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 문화체육관광 소비자물가지수 부문별 동향 ㅇ 문화체육관광 수출입통계 - 문화체육관광 수출입통계 - 주요 11개 품목별 수출/수입 동향 ㅇ 공연 시장 - 공연 시장 티켓판매 추이 - 주요 공연 장르별 티켓판매액/판매수 추이 ㅇ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 -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추이 - 지역별 도서대출 추이 ㅇ 영화 시장 - 영화 시장 소비 추이 - 영화국적별 매출액 추이 - 영화국적별 관객수 추이 ㅇ 출입국 - 월간 출입국 추이 - 주요 국가별 출입국 현황	ㅇ 일반현황 - 사업체명 - 전화번호 - 대표자명 - 대표자 성별 - 소재지 - 설립연도 - 조직형태 - 매출액 - 주사업 - 문화체육관광산업 관련 업종 - 주 사업 품목 및 서비스 - 매출액 비중 ㅇ 종사자현황 - 종사상 지위별 전체 인력 총계 - 종사상 지위별 여성 인력 총계 - 35세 미만 인력 총계 - 장애인 인력 총계 - 파견/용역근로자 수 ㅇ 임금 - 실제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수 - 월 임금 총액 ㅇ 근로시간 - 실제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수 - 월 근로시간 총계 - 주25시간 근무제 도입 여부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여부

나. 지방자치단체 작성 국가승인통계

1) 지역통계

○ 지역통계란, 지역단위로 작성되는 통계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함

- KOSIS에 따르면, 국가승인통계 중 지방자치단체를 작성기관으로 하는 통계는 총 678종임(지역통계 662종, 국민계정 16종)

○ 이 중 일부 통계는 표준화, 계정화 된 자료로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작성하며, 그 외에 개별 조례 등에 근거하여 각 지역에 사정에 따라 필요한 통계를 작성함

- 전국의 모든 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로 기본통계, 지역내총생산, 등록인구통계,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경기종합지수, 청년통계가 있음

[표 2-10] 주요 지역통계 현황

연번	통계명	통계종류	작성방법	통계분야	작성기관	비고
1	기본통계 지역의 경제, 사회, 보건, 환경, 교육 등 주요정책 분야의 행정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일반통계	보고통계	지역통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	
2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별 경제규모와 산업구조 등을 파악하여 종합경제지표로 활용	일반통계	가공통계	국민계정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3	등록인구통계 지역별 인구의 변동상황 및 연령구조를 파악	일반통계	보고통계	지역통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4	사업체조사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	지정통계	조사통계	지역통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5	사회조사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지역통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83개 기초자치단체	
6	장래인구추계 출생, 사망, 이동 등 인구변동자료를 이용하여 장래인구를 추계	일반통계	가공통계	지역통계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연번	통계명	통계종류	작성방법	통계분야	작성기관	비고
7	경기종합지수 지역경제 및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종합지표 작성	일반통계	가공통계	지역통계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8	청년통계 지역별 청년의 인구, 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특성과 현황을 분석	일반통계	가공통계	지역통계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 문화예술 관련 별도의 지역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사회조사' 통계의 조사내용으로 문화와 여가 분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사회조사는, 사회지표 작성을 위하여 기존의 각종 조사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해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 및 사회적 관심사와 삶의 질에 관련된 항목에 대한 조사로,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 및 통계를 작성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조사는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함
- 문화와 여가 부문에 대하여 세부적인 조사 지표나 문항 수 등이 지역별로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 공연 및 스포츠 관람,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활용, 여가활동 만족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다. 문화예술 지표

1) 나라지표

○ 나라지표란, 통계표, 그래프 및 의미분석으로 구성된 자료로서 국가정책의 수립, 국정운영상황의 점검 및 정책성과의 측정 등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다루는 주요 지표임

- e-나라지표(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서는 총 747개 나라지표를 제공하며, 경제, 사회, 환경의 3가지 대분류와 중분류 16개, 소분류 61개로 구분함
- 나라지표의 선정, 관리, 폐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름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라지표는 [표 2-11]과 같이 총 26개임(2025년 12월 기준)

- 문화체육관광 통계포털에서는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4가지로 분류함
- 지표 내용은 국가승인통계에서 조사된 주요 항목을 출처로 하거나, 지표 작성기관의 내부행정자료를 추출, 가공한 것 또는 개별 조사를 통해 작성함

[표 2-1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나라지표

순번	문화체육관광분류	지표명	KOSIS분류(대/중/소)			통계출처
1	문화예술	공공도서관현황	사회	여가	여가시설	전국도서관통계
2	문화예술	공연/전시 횟수	사회	여가	여가시설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3	문화예술	공연장/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추이	사회	여가	여가시설	각 시도 자료
4	문화예술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	사회	여가	여가시설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5	문화예술	무대전문인력 배출 추이	사회	여가	여가시설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위원회 자료
6	문화예술	전통사찰 지정등록 현황	사회	여가	여가시설	내부행정자료
7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 추이	사회	여가	여가활동	내부행정자료
8	콘텐츠	광고현황	경제	성장	성장	광고산업조사
9	콘텐츠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경제	성장	성장	방송산업실태조사, 방송영상산업백서
10	콘텐츠	출판현황	경제	성장	성장	콘텐츠산업조사
11	콘텐츠	문화산업 현황	사회	여가	여가시설	콘텐츠산업조사
12	콘텐츠	주요 영화산업국가의 자국영화 점유율 현황	사회	여가	여가결과	한국영화연감
13	콘텐츠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사회	여가	기타	정기간행물 현황 등록일람표
14	관광	관광사업 등록 및 지정 현황	경제	성장	성장	관광산업조사
15	관광	국제회의 개최 현황	경제	성장	글로벌화	「UIA 보고서」
16	관광	국민여행 총량	사회	여가	여가활동	국민여행조사
17	관광	외래관광객수	사회	여가	여가활동	한국관광통계
18	관광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사회	여가	여가활동	관광지식정보시스템
19	관광	해외여행자수	사회	여가	여가활동	한국관광통계
20	관광	관광수지 실적	사회	여가	여가결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순번	문화체육관광분류	지표명	KOSIS분류(대/중/소)			통계출처
21	체육	체육시설업 현황	경제	성장	성장	「전국 등록.신고체육시설업현황」
22	체육	프로스포츠 운영 현황	경제	성장	성장	프로스포츠 경기단체 자료
23	체육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양성 현황	경제	안정	기타	국민체육진흥공단 자료
24	체육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사회	여가	여가자원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25	체육	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사회	여가	여가자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자료
26	체육	국민생활체육 참여현황	사회	여가	여가활동	국민생활체육조사

2) 지방지표

○ 지방지표란, 지역의 발전 정도, 주민의 삶의 질 등 지역현황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나타냄

- e-지방지표란, 지방지표를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가데이터처에서 개발·운영하는 웹기반 통계정보시스템을 말하며, 총 12개 분야 258개 지표를 제공함
- 이 중 '문화와 여가' 분야에 해당하는 지표 11개를 요약하면 다음 [표 2-12]와 같음

[표 2-12] 문화와 여가 분야 지방지표

순번	KOSIS분류		지표명	통계출처
1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활동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현황(시도)	사회조사
2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활동	여가활용 만족도(시도)	사회조사
3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활동	여가활용 불만족 이유(시도)	사회조사
4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활동	국내관광여행횟수(시도)	사회조사
5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활동	해외여행경험및횟수(시도)	사회조사
6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자원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시도/시/군/구)	문화체육관광부
7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자원	도서관 현황(시도)	전국도서관통계
8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자원	국가유산 현황(시도)	국가유산청
9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자원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조성면적(시도)	LX한국국토정보공사
10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자원	인터넷이용률(시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11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자원	인구 십만명당 체육시설수(시도)	문화체육관광부

3) 문화예술 관련 나라지표·지방지표

○ 문화예술 관련 나라지표·지방지표는 다음 [표 2-13]과 같음

- 아래 표의 '세부분류'는, 개별 지표 간 비교 분석을 후술하기 위해 문화셈터의 통계 분류기준과 후술하는 '2025 유네스코 FCS'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표 2-13] 문화예술 관련 나라지표 및 지방지표

순번	나라/지방	지표명	통계출처	세부분류*
1	나라지표	공공도서관현황	전국도서관통계	문화예술
2	나라지표	공연/전시 횟수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문화예술
3	나라지표	공연장/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추이	각 시도 자료	문화예술
4	나라지표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예술
5	나라지표	무대전문인력 배출 추이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위원회 자료	문화예술
6	나라지표	전통사찰 지정등록 현황	내부행정자료	문화예술
7	나라지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 추이	내부행정자료	문화예술
8	지방지표	여가활용 만족도(시도)	사회조사	문화예술
9	지방지표	여가활용 불만족 이유(시도)	사회조사	문화예술
10	지방지표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시도/시/군/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11	지방지표	도서관 현황(시도)	전국도서관통계	문화예술
12	나라지표	광고현황	광고산업조사	콘텐츠
13	나라지표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방송산업실태조사, 방송영상산업백서	콘텐츠
14	나라지표	출판현황	콘텐츠산업조사	콘텐츠
15	나라지표	문화산업 현황	콘텐츠산업조사	콘텐츠
16	나라지표	주요 영화산업국가의 자국영화 점유율 현황	한국영화연감	콘텐츠
17	나라지표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정기간행물 현황 등록일람표	콘텐츠
18	지방지표	인터넷이용률(시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콘텐츠
19	지방지표	국가유산 현황(시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20	지방지표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현황(시도)	사회조사	종합

3. 해외 문화예술 통계 현황

가. 유네스코 문화지표체계(2025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1) 유네스코 문화지표체계(이하 '유네스코 FCS') 목적과 주요 목표

○ 유네스코 FCS는 1960년대 통계의 표준화 흐름에서 시작함(안인자, 2002).
- 1986년 최초 발표, 2009년 1차 개정을 거쳐 지난 2025년 2차 개편안을 발표

○ 2022 유네스코 세계문화정책회의(MONDIACULT 2022, The UNESCO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문화가 수행하는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는 강화된 분석 도구의 필요성을 정책적 우선과제로 강조함

○ 이에 따라, 2009년 FCS를 토대로, 2025 유네스코 FCS는 오늘날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측정하여야 하는 지를 재정의하는 포괄적인 개념적·방법론적 접근을 확립하고 있음
- 2025 유네스코 FCS는 개별 조사항목을 제시하기보다, 국가별 문화통계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즉, 2025 유네스코 FCS는 문화 통계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과 정책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념·정의·분류체계를 포괄적으로 재정립한 통계 프레임워크로, 다음 3가지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첫째, 문화정책의 정책과정 참여자들이 문화통계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의 개념적 토대와 통계적 방법론을 제공함
  - 문화의 측정 범위, 문화·창의 생태계(CCE)의 구조, 문화 가치창출 모델 및 직·간접 기여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
  - 국제 분류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실제 통계 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제시
- 둘째, 경제적·사회적 생산 방식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표출되는 문화(a wide range of cultural expressions)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과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뿐 아니라, 인간의 문화적 실천(cultural practices)을 분석의 중심 단위로 설정
  - 문화유산, 문화지식, 축제, 문화거버넌스, 문화교육 등 경제적 산출이 약하거나 비시장적·비산업적 활동도 통계적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
  - 기존의 산업 중심적 통계 접근으로는 문화의 사회적·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
  - 생성형 AI와 같은 기술의 발전이 문화의 생산과 소비 과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이 아닌 인간의 기여가 통계의 중심을 유지

- 셋째, 국제분류체계를 활용하여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문화통계 생산을 가능하게 함
  - ISIC, CPC, COFOG, ICATUS 등 분야별 국제분류체계를 FCS의 문화·창의 생태계(CCE) 구조에 맞게 재구성하여,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통계 체계 구축을 지원
  - 문화·창의 생태계(CCE), 문화적 실천, 도메인(Domains), 문화적 가치 생성 모델(cultural value-generation model) 등 주요 용어와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는 통용하도록 하되,
  - 통계 인프라, 행정 수준, 문화정책의 세부 사항 등은 각국의 문화적 맥락이나 사정에 따르게 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harmonize data)

2) 유네스코 FCS 주요 개념

■ 문화·창의 생태계(Cultural and Creative Ecosystem, CCE)

○ 문화·창의 생태계(CCE)는 2025년 FCS의 핵심 개념으로, 문화적 가치가 창출·확산·전승되는 총체적 구조를 의미함. 이는 문화를 개별 산업이나 단일 활동 단위로 환원하지 않고, 예술가·창작자·문화기관·중개자·정책 주체·공동체·관객 등 다양한 행위자가 상호작용하는 관계망으로 이해하는 접근이며, CCE는 창작, 유통, 참여, 보존이 고정된 순서를 따르기보다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는 복합 시스템임을 전제함

○ 이 개념은 경제적 생산 체계에 한정하지 않으며, 경제자본뿐 아니라 사회자본, 인적자본, 자연자본, 문화자본 등 다층적 가치의 형성과 축적을 포괄함. 특히 디지털 플랫폼, 공동체 기반 실천, 무형유산 전승과 같은 비시장적·혼합적 영역을 포함하여, 문화가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회복에 기여하는 생태계적 구조를 설명하는 분석 틀로 기능한다.

■ 가치 생성 과정(Value-generation Process)

○ 가치 생성 과정은 문화적 아이디어와 실천이 다양한 유형의 가치로 전환·확장·재생산되는 과정을 설명함. 2025년 FCS는 기존의 선형적 가치사슬(value chain) 모델을 확장하여, 가치가 단일 경로를 따라 생산·소비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순환을 통해 축적되는 동태적 구조임을 강조함

○ 이 과정은 세 가지 상호연결된 시스템으로 구성함. △첫째, 창작 및 생산 시스템(Creation and Production System) :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화상품과 서비스로 구현되는 단계. △둘째, 유통 및 소비 시스템(Dissemination and Consumption System) : 문화적 산출물이 확산·접근·향유되는 과정, △셋째, 전승 및 보존 시스템(Transmission and Preservation System) : 문화 및 자연유산의 식별·기록·보호·전승을 통해 비경제적 가치를 축적하는 구조

○ 이 3개의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중첩되며, 참여와 재해석, 기록과 재창작을 통해 가치가 재순환하는 비선형적 특성을 가짐

■ 문화적 실천(Cultural Practice)

○ 문화·창의 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행위와 과정 전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창작·향유·전승·재해석을 포함하는 포괄적 활동 범주임.

○ 2025년 FCS는 문화를 단순히 산업적 생산물의 결과로 보지 않고, 다양한 행위자가 수행하는 실천의

연속으로 이해함. 따라서 문화적 실천은 시장 거래를 수반하는 활동 외에도, 공동체 내부의 비시장적 활동, 무형유산 전승, 디지털 상호작용 등을 모두 포함함

○ 문화적 실천은 가치 생성 과정의 모든 시스템에서 발생하며, 특히 관객과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한 구성 요소임. 이는 소비자를 수동적 수요자가 아니라, 의미 생산과 가치 형성에 기여하는 주체로 재정의하는 것임. 따라서 문화적 실천을 경제적 산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결속, 정체성 형성, 지식 전승, 창의적 역량 강화와 같은 다층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으로 이해함

■ 도메인(Domains)

○ 문화·창의 생태계(CCE)를 구조화하기 위한 핵심 분류 단위. 문화 활동을 기능적·내용적 특성에 따라 구분한 영역 체계

○ 2025년 FCS는 문화를 총 14개 도메인으로 구성하며, 각 도메인은 다시 세부 67개 세그먼트(segments)로 구체화한다. 이 구조는 문화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국제 비교가 가능한 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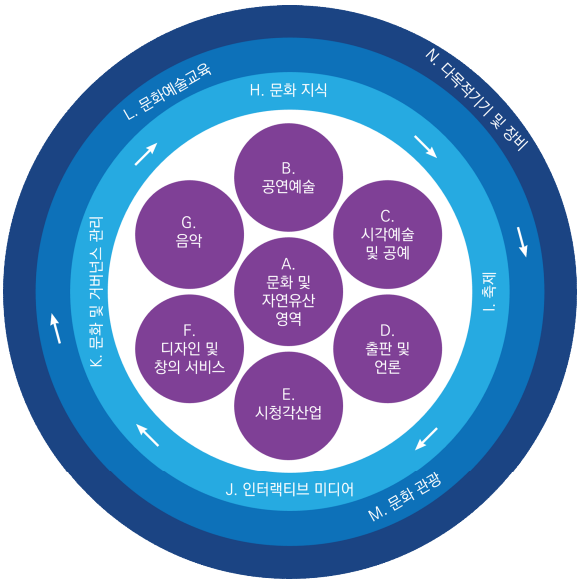
○ 각 도메인은 가치 생성 과정의 3가지 시스템을 교차하며, 창작·유통·전승의 모든 단계에서 활동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또한 문화지식, 거버넌스, 교육, 문화관광 등은 횡단적 성격을 지니며 여러 도메인을 연결함

○ 도메인 체계는 국제표준체계와 연계된 통계적 측정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비시장적 문화 실천과 유산 활동을 포괄함. 이러한 점에서 도메인은 단순한 산업분류를 넘어, 문화 생태계 전체를 조직하는 분석적 틀로 기능할 수 있음

3) 2025 유네스코 FCS 도메인

- 2025 유네스코 FCS는 문화·창의 생태계(CCE) 내 도메인을 14가지로 나누고, 다음 [그림 2-2]와 같이 도식화하였음

[그림 2-2] 2025 유네스코 FCS 도메인



[표 2-14] 2025 유네스코 FCS 도메인 분류 체계

Cultural Domains (문화 도메인)		Transversal Domains (횡단 도메인)	
• 창작, 실연, 향유, 전승 활동에 관한 영역 • 문화적 실천이 직접 발생하는 핵심 영역		• 문화적 실천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환경·조건 • 다른 도메인을 횡단하며 작동하는 인프라 영역	
1(A)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domain (문화 및 자연유산 영역)	8(H)	Cultural knowledge (문화 지식)
2(B)	Performing Arts (공연예술)	9(I)	Festivals (축제)
3(C)	Visual arts and crafts (시각예술 및 공예)	10(J)	Interactive media (인터랙티브 미디어)
4(D)	Books and press (출판 및 언론)	11(K)	Cultural governance and management (문화 거버넌스 및 관리)
5(E)	Audiovisual (시청각산업)	12(L)	Cultural education (문화예술교육)
6(F)	Design and creative services (디자인 및 창의 서비스)	13(M)	Cultural tourism (문화 관광)
7(G)	Music (음악)	14(N)	Multipurpose devices and equipment (다목적기기 및 장비)

[표 2-15] 2025 유네스코 FCS 도메인 분류에 따른 정의 및 세부 부문

순번	도메인 명칭(국문) 및 정의	세부 부문(segments)	구분	
1 (A)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domain (문화 및 자연유산 영역) 유형·무형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호, 전승,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문화적 실천과 활동을 포괄	유물(Artefacts), 역사적·고고학적 유적지, 역사적 건축 환경, 기념물,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해양생태계, 문화경관, 국립공원, 공원 및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Cultural domains (문화 도메인)	
2 (B)	Performing Arts (공연예술) 연극, 무용, 오페라 등 현장 공연을 중심으로 한 예술 창작, 공연 및 향유 활동을 포함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인형극, 서커스, 기타 공연예술		
3 (C)	Visual arts and crafts (시각예술 및 공예) 회화, 조각, 공예 등 시각적 표현을 기반으로 한 예술 창작과 제작 활동을 포괄	순수미술,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공예		
4 (D)	Books and press (출판 및 언론) 저작, 출판, 독서 및 언론 활동을 포함하는 문자 기반 문화 생산과 유통 영역	도서, 신문, 잡지, 기타 출판물		
5 (E)	Audiovisual (시청각 산업) 영화, 방송, 영상 콘텐츠 등 시청각 매체를 기반으로 한 문화 창작·제작·유통 활동	영화, 영상(모든 형태), TV		
6 (F)	Design and creative services (디자인 및 창의 서비스) 디자인, 건축, 광고 등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전문 서비스 활동을 포함	그래픽디자인, 패션디자인, 건축서비스, 산업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광고		
7 (G)	Music (음악) 음악의 창작, 연주, 녹음, 제작, 유통 및 향유 전반의 문화적 실천을 포괄	음향 녹음, 라이브음악, 라디오, 악기, 음악 출판		
8 (H)	Cultural knowledge (문화 지식) 전통지식, 지역지식, 문화적 노하우 등 공동체에 축적된 문화 지식의 생산·전승·활용을 다루는 영역	구전 전통과 표현(언어 등), 음식 문화, 주택 양식, 생물문화적 실천, 전통 스포츠 및 놀이	Transversal cultural domains	Transversal domains (횡단 도메인)
9 (I)	Festivals (축제)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축제, 의례, 행사 등 집합적 문화 실천을 포함	축제, 연회, 박람회, 전통시장		
10 (J)	Interactive media (인터랙티브 미디어) 게임, 디지털 콘텐츠 등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문화 표현을 포함	소셜 네트워크, 위키, 팟캐스트, 비디오게임, 블로그		
11 (K)	Cultural governance and management (문화 거버넌스 및 관리) 문화 활동을 둘러싼 정책, 제도, 행정, 관리 및 조직 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횡단하여 포괄	공공 거버넌스, 문화 조직 및 협회, 민간 및 비영리 부문 관리		
12 (L)	Cultural education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역량 형성과 문화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 공식·비공식 교육 및 학습 활동을 포함	문화 분야 정규 교육, 문화 분야 비정규 및 비공식 교육	Partial cultural domains	
13 (M)	Cultural tourism (문화관광) 문화 자원과 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관광 경험과 관련된 문화적 실천을 포함	문화유산 관광, 예술·창의 관광, 음식문화 관광, 민족전통문화 관광		
14 (N)	Multipurpose devices and equipment (다목적기기 및 장비) 문화 창작, 생산, 전파 및 기록에 활용되는 다목적 기기와 장비를 포함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기기	supporting domains	

4. 문화예술 통계 간 비교·분석

가. 국가승인통계 작성유형에 따른 통계 정보흐름 분석

■ 통계 정보흐름 분석

○ 통계 정보흐름 분석은 통계자료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방법임. 통계의 종류에 따라 내부에서 생성되는 통계자료가 있고, 외부에서 생산되어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정보의 흐름 분석은 어떤 종류의 통계가, 어떤 필요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 수 있어 중요함. (김소혜, 2021)

○ 본 연구에서는 분석 틀로서 통계 정보흐름을 ①정보 생성·수집 - ②정보 축적·관리 - ③정보 가공·연계 - ④정보 활용의 4단계로 재구성하여, 통계의 생산에서 정책 활용에 이르는 경로와 구조를 알아보았음

■ 국가승인통계 작성 유형

○ 국가데이터처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통계는 작성유형에 따라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로 분류함

[표 2-16] 통계 작성 유형

작성유형	내용
조사통계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작성한 통계
보고통계	개인이나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따위와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통계
가공통계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분류, 집계, 편집, 추계 등의 방법으로 내는 통계

○ 각각의 통계 작성유형을 통계정보흐름의 4단계에서 수행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음

- 조사통계는, 특정 정책 수요나 연구 목적에 따라 새롭게 설계·조사되는 통계로, 새로운 사회·문화적 현상을 포착하는 데 강점이 있음. 이러한 특성으로 조사통계는 통계 정보흐름 상 정보 생산의 출발점에 해당함
- 보고통계는, 행정 집행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축적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며, 단순 행정자료와 구별됨. 통계 정보흐름 상 정보가 누적·축적되는 단계로서, 중장기적 변화 분석이나 계정화(accounting)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즉, 보고통계는 이미 존재하는 행정정보가 구조화된 통계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가공통계는, 기존의 조사통계와 보고통계를 재분류하거나 결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통계 유형임. 개별 통계 간 단절을 해소하고 정책 설명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통계 정보흐름에서 정보의 연결과 확장의 단계에 해당함

[표 2-17] 정보흐름 단계에 따른 문화예술 국가승인통계 분류

작성유형	정보흐름 단계				문화예술 국가승인통계
	①정보생성	②정보축적	③정보가공	④정보활용	
조사통계	◎	○	△	○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예술인실태조사 • 국민여가활동조사 • 공연예술조사 • 국민독서실태조사 •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 콘텐츠산업조사 • 광고산업조사 • 신문·잡지산업실태조사 • 어린이·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 소셜미디어이용자조사 • 콘텐츠이용행태조사 • 웹툰산업실태조사 • 국가유산산업조사 • 고고유산조사연구서비스업실태조사 •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일자리현황조사
보고통계	○	◎	△	○	• 전국도서관통계 • 지역문화현황통계 • 국가유산관리현황 • 국립공원기본통계
가공통계	△	○	◎	○	• 저작권통계 •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 : 핵심 기능 / ○ : 부분적 기능 / △ : 잠재적 가능성

○ 통계 정보 흐름 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 통계 작성유형에 따라 정보가 생성되는 출발점, 누적되는 방식, 그리고 다른 통계와 연결·확장되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통계의 작성유형은 단순한 분류 기준을 넘어 통계가 생산·축적·활용되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분석 요소라 할 수 있음

■ 문화예술 국가승인통계 정보흐름 매트릭스

○ [표 2-17]과 같이 문화예술 국가승인통계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 작성유형을 기준으로 각 통계가 정보의 생성-축적-가공-활용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기능적 역할을 매트릭스 형태로 분석하였음

○ 정보흐름 매트릭스는 개별 통계 혹은 작성유형의 품질이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의 생산-축적-가공-활용 단계에서 어떠한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진단하기 위한 분석틀임

- 각 기호 표시(◎, ○, △)는 단계별 상대적 기능의 강도를 나타내며, 우열이나 가치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매트릭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음

- 문화예술 국가승인통계 중 대부분이 해당하는 조사통계는, 새로운 정보를 직접 생산하는 기능이 핵심이며(정보생성 ◎), 조사 주기가 반복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시계열 축적이 가능하지만(정보축적 ○),

타 통계와의 연계나 계정화 등 정보의 가공 기능은 제한적이며(정보가공 △), 통계가 정책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조사 목적 외 활용을 위한 자료 연계 수준은 미약함(정보활용 ○).

- 보고통계는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정보를 직접 생산하는 기능은 조사통계에 비해 제한적이지만(정보생성 ○), 정보의 전수적, 정기적 누적이 이루어지므로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를 형성함(정보축적 ◎). 정보의 가공은 제한적이며(정보가공 △), 통계가 정책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축적된 범위 밖의 활용을 위한 자료 연계는 한계가 있음(정보활용 ○).
- 가공통계는 기존의 조사통계와 보고통계를 재분류·결합하여 산출된 통계이며, 정보의 생성보다는 가공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임(정보생성 △, 정보가공 ◎). 정보의 축적과 가공 단계를 연결하며, 정책 분석을 위한 종합적 지표를 제공함.(정보축적 ○, 정보활용 ○)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작성유형의 우열을 논하기보다는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가 통계 정보흐름 내에서 각각 수행하는 기능적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유형 간 균형과 연계를 고려한 통계 개발 및 작성 전략이 요구됨

■ 조사 의존형 통계체계 문제점

○ 문화예술 국가승인통계 25종에 대하여 작성유형에 따라 분류한 결과, 조사통계가 19종으로 가장 많고, 보고통계 4종, 가공통계 2종 순으로 많았음

○ 이러한 '조사 의존형 통계체계'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음

- 표본 불일치에 따른 자료 간 결합·연계 및 분석 활용 한계 : 개별 목적에 따른 조사 설계로 인하여 가구 단위, 개인 단위, 사업체 단위 등 조사 대상과 분석 단위가 서로 상이함. 이는 통계의 종수는 많으나 조사 결과를 서로 결합하거나 비교·연계하여 정책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자료의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설명함
- 반복 조사로 인한 비용·시간의 증가 : 통계의 생산 자체는 활발하지만, 유사한 개념을 반복적으로 측정하며 조사의 누적을 초래하고, 조사 비용과 행정 소요를 증가시킴
- 표본조사 설명력의 제한성 : 표본조사의 방식 자체는 통계학적으로 타당한 방법론이나, 정책 분석 단위가 세부 사업, 특정 집단, 지역 수준으로 세분되는 경우 전수조사에 대비 설명력 확보의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 이는 통계의 신뢰도 문제가 아니며, 정책 활용 단계에서 요구되는 분석 수준과 실제 통계 설계 간의 간극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임.

○ 조사 의존형 통계체계는 통계 생산 자체는 활발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통계 간 연계 및 종합적 활용이 제한적인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음

나. 공급사슬분석

■ 공급사슬분석

○ 공급사슬은 상품의 실물이 제조업자부터 유통사를 통하여 도매상 또는 소매상을 지나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연속된 단계마다 행위자(actor), 활동(activity), 산출물(output), 관계(linkage)를 통해 흐름을 파악함

○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의 흐름을 일반적인 산업 공급사슬에 따른 생산-유통-소비 구조 및 문화산업의 공급사슬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리하되, 국제 비교를 위해 유네스코 FCS에서 제시하는 문화예술 가치 생성 과정의 관점도 함께 검토하여 다음 [표 2-18]과 같이 정리하였음

[표 2-18] 공급사슬 단계에 따른 산업계 및 유네스코 FCS 분류 체계 비교

<table>
<tr><td>공급사슬
(일반산업)</td><td colspan="2">생산</td><td colspan="2">유통</td><td>소비</td></tr>
<tr><td>공급사슬
(문화산업)</td><td>창작</td><td>제작</td><td colspan="2">유통·배급</td><td>소비</td></tr>
<tr><td>2009
유네스코 FCS
가치사슬 모델
(Value Chain)</td><td>창작
(creation)</td><td>제작·생산
(production)</td><td>유통
(dissemination)</td><td>전시·전달
(exhibition/
transmission)</td><td>소비·참여
(consumption/
participation)</td></tr>
<tr><td>2025
유네스코 FCS
가치 생성 모델
(Value-generation)</td><td colspan="2">창작 및 생산
(The creation and production)</td><td colspan="3">유통 및 소비
(The dissemination and consumption)</td></tr>
</table>

○ 2009년 유네스코 FCS는 문화의 생산활동과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가치사슬(value chain)'로 개념화하여,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와 연계하여 국가 간, 산업 간 비교가 가능한 모델을 채택함

○ 한편, 2025년 FCS는 2009년 모델을 확장하여, '전승·보존(preservation and transmission)'을 추가한 '가치 생성(value-generation) 모델'을 채택함. 이는 문화적 실천이 가지는 비선형적·순환적 특성과 문화·창조 생태계의 구조를 반영하여, 문화가 다양한 형태의 가치를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함

○ 나아가, 2025 FCS는 문화·창의 생태계(CCE)를 횡단하며 문화적 가치 생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서 제도(policy frameworks), 인프라(infrastructure), 재정(funding), 거버넌스(governance)와 같은 지원 및 환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함

■ 문화예술 국가승인통계 공급사슬분석

○ 본 연구는 문화예술 분야 통계의 공백을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문화산업 공급사슬을 ①창작-②제작-③유통·배급-④소비-⑤지원·환경 5단계로 세분하여 설정하고, 아래 [표 2-19]과 같이 분석하였음

[표 2-19] 공급사슬 분석에 따른 국내 문화예술 국가승인통계 분류

	① 창작	② 제작	③ 유통·배급	④ 소비	⑤ 지원·환경
행위자	예술가, 창작자	제작사, 공연단체, 스튜디오	배급사, 플랫폼, 매개기관	관객, 이용자	공립/민간 기구, 기관
주요 활동	개인 창작활동	공연·콘텐츠 제작	플랫폼 유통	관람·이용	재정·인력
활동 산출물	아이디어, 창작행위	작품, 콘텐츠의 구체적 생산	공연·전시 회차, 유통 계약, 배급	관람, 이용, 참여	제도, 인력, 교육, 재정지원, 인프라 등
관련 통계	• 예술인실태조사 • 지역문화현황통계	• 공연예술조사 • 문화체육관광 일자리현황조사 • 지역문화현황통계 •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 공연예술조사 •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 일자리현황조사 • 지역문화현황통계 • 전국도서관통계 •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국민여가활동조사 • 국민독서실태조사 • 국민문화예술교육 조사	•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 지역문화현황통계 •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 웹툰산업실태조사 • 콘텐츠산업조사	• 웹툰산업실태조사 • 콘텐츠산업조사 • 국가유산산업조사 • 광고산업조사 • 신문·잡지산업실태조사 • 저작권통계	• 콘텐츠이용행태조사 • 어린이·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 소셜미디어이용자조사	• 저작권통계
		• 국가유산산업조사	• 고고유산조사연구 서비스업실태조사 • 국가유산관리현황		• 국가유산산업조사 • 국가유산관리현황
			• 국립공원기본통계	•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공백 진단	예술가·창작자 및 창작행위에 대한 표준화, 계정화 부족	조사통계 중심 데이터 수집	개별 조사의 산발적 실시	생산 및 유통 단계 데이터와의 연계 부족	개별 조사의 문항 일부로만 자료 수집, 지원·환경 단계 특화 통계 부존재

■ 공급사슬 분석에 따른 통계체계 문제점

○ [표 2-1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급사슬 분석에 따른 현행 문화예술 분야 통계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창작 단계는 문화예술 가치생성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예술가 및 창작활동에 대한 표준화된 통계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통계는 일부 실태조사와 행정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나, 창작자의 규모·활동 유형·소득 구조·창작 지속성 등을 체계적으로 포착하는 구조적 통계는 부족함. 특히 '창작행위' 자체를 산업적 활동으로 계량화하는 체계가 미비하여, 문화예술 생태계의 기초단계가 통계적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함

- 제작 단계는 상대적으로 조사통계가 다수 존재하는 영역이나, 개별 산업 또는 사업 목적 중심으로 설계되어 통계 간 연계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공연, 콘텐츠 제작, 문화시설 운영 등 다양한 제작 활동이 조사되지만, 표본 설계와 조사 단위가 상이하여 생산 규모·고용·매출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비교·통합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제작 단계의 데이터는 축적되어 있으나, 공급사슬 전체 맥락에서 구조적 해석에는 제약이 있음
- 유통·배급 단계의 통계는 개별 조사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생산 단계 및 소비 단계와의 체계적 연결이 미흡함. 공연회차, 전시횟수, 배급계약 등 일부 활동 지표는 존재하나, 유통 경로별 구조나 플랫폼 변화에 따른 산업 재편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체계는 부족함. 특히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 구조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제한적이어서, 문화예술 생산과 공급 흐름의 입체적 분석이 어려움
- 소비 단계에서는 관람이나 이용 관련 통계가 다수 존재하지만, 생산·유통 단계와 연계된 데이터 분석은 제한적임. 개별 관람률, 참여율, 이용 빈도 등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특정 장르·지역·집단 단위로 세분화하면 표본 한계로 인해 정책 단위 수준에서의 설명력이 낮아짐. 또한 소비 데이터가 산업 규모나 창작·유통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수요 기반 정책 설계에 활용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있음
- 지원·환경 단계에서는 재정지원, 인력, 인프라, 제도 관련 통계가 존재하나, 개별 조사 문항 또는 행정자료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임. 지원 규모와 사업 현황은 파악할 수 있지만, 해당 지원이 창작·제작·유통·소비 단계에 어떠한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는 연계 지표는 부족함. 특히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환경 지표가 부재하여, 정책 효과성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움

다. 표준분류체계 비교 분석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산업 관련 국내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 등 확보를 위하여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가 전체 산업활동을 포괄하는 범용 분류체계임

○ 해당 산업의 생산단위인 사업체 또는 기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공급사슬 중 ①창작, ②제작 그리고 ③유통·배급 단계에서 발생하는 활동들과 연결됨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산출물,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를 기준으로 각 항목을 분류하므로, 문학,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과 같이 개별 예술 장르가 아닌 서적, 공연, 영상물 등 산출물과, 출판업, 시설 운영업, 기획업 등 유통·배급 플랫폼과 연결됨

○ 전체 21개 대분류 중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J)정보통신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가지의 서로 다른 대분류에 문화예술 개별 장르의 생산활동이 분산적으로 위치함

○ 전체 77개 중분류 중 △'(90)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하위 15가지 세세분류, △'(58)출판업',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하위 29가지 세세분류,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하위 소분류 '(732)전문 디자인업', '(733)사진 촬영 및 처리업'의 하위 7가지 세세분류를 포함하여, 총 51가지의 세세분류로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나누고 있음

■ 콘텐츠산업분류

○ 특수분류란, 통계법상 표준분류 준수 의무의 예외를 인정한 분류로,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특정 분야에 대해서 표준분류 항목을 발췌 또는 재분류하여 만든 특수 목적 분류체계임

○ 콘텐츠산업분류는 특수분류 35종 중 하나로서, 국내 콘텐츠 및 문화산업 관련 통계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국제기준으로는 국제산업분류(ISIC) 및 2009 유네스코 FCS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 콘텐츠산업분류는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산업을 단일 체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범용 산업분류인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구조적 차이를 보임

○ 또한, 문화산업 특성을 반영한 12가지의 대분류와 51가지의 중분류, 132가지의 소분류로 나뉘어, 세부 업종을 보다 세분화하고 있어 문화예술 산업활동의 구조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콘텐츠산업 대분류(12개) : 1.출판산업, 2.만화산업, 3.음악산업, 4.영화산업, 5.게임산업, 6.애니메이션산업, 7.방송산업, 8.광고산업, 9.캐릭터산업, 10.지식정보산업, 11.콘텐츠솔루션산업, 12.공연산업

○ 그러나, 콘텐츠산업분류에서는 순수미술, 응용미술과 같은 미술산업 관련 활동을 독립된 범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콘텐츠산업분류는 산업적 생산과 대량복제, 매스미디어 기반 유통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된 분류체계로, 개별 작품 단위의 생산과 거래가 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순수미술(평면, 조각 등)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산업적 유통구조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어, 독립된 범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콘텐츠산업분류에는 응용미술에 해당하는 전문디자인업과 같은 활동은 광고, 디지털콘텐츠, 출판,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 기능 범주에 부분적으로 분산되어 포함된 구조를 보임

■ 신규 문화예술 표준분류체계 정립 제언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의 생산단위를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범용 산업분류체계로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일부 포괄함
  - 그러나 일부 문화예술 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서로 다른 대분류에 흩어져있어, 문화산업 전반 또는 문화예술 전체 활동을 하나의 동일한 영역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다양한 산출물과 서비스 또한 분산적으로 분류되어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임

○ 한편, 콘텐츠산업분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구조와 범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분류체계로서, 콘텐츠 산업의 생산 및 유통구조를 중심으로 문화산업 관련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짐
  - 그러나 대량복제 또는 매스미디어 기반 유통 구조과 거리가 먼 미술작품 관련 활동, 그리고 타 콘텐츠의 기능 범주로 분산되어 나타나는 디자인업 관련 활동은 콘텐츠산업분류의 독립적 범주로 규정될 수 없어, 문화예술의 주축을 이루는 순수미술, 응용미술 활동이 누락되는 한계가 있음

○ 결론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콘텐츠산업분류는 각각 경제활동 전반과 콘텐츠 산업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계된 분류체계로서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일정 부분 포괄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정책 및 통계 생산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범위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를 가짐. 따라서 문화예술 활동의 창작·제작·유통·향유 등 다양한 활동 구조와 정책적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 통계 전용 분류체계의 검토가 필요함

제2절 타 분야 통계와의 비교 분석

1. 환경 분야 국가승인 통계

■ 특징

○ 환경 분야 국가승인통계는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기후변화 등 자연 환경 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하위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통계체계로 형성됨. 또한, 환경산업통계조사, 환경기술실태조사 등 환경산업 관련 통계도 포함하여 환경 분야 다양한 측면을 포괄함

- (대기환경) 대기오염도 현황, 대기오염물질배출량
- (수환경) 수질오염실태보고, 해수수질실태보고, 하수도통계 등
- (토양·지하수) 토양오염도 현황, 지하수 현황 등
- (폐기물관리)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폐기물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 등
- (기후변화) 국가온실가스통계, 기후변화감시통계 등
- (환경산업) 환경산업통계조사, 환경기술실태조사 등

○ 통계작성기관으로는 환경 분야 통계 다수를 환경부가 작성하며, 그 밖에 기상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기관도 함께 해당함

■ 국제 연계

○ 환경 분야 국가승인통계는 다음 [표 2-20]과 같이 다수의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통계 기준 및 환경협약 보고 체계와 연계되어 생산되는 특징이 있음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온실가스 산정 기준, OECD의 환경지표 체계, 세계기상기구(WMO)의 기상·기후 관측체계, 유엔환경계획(UNEP)의 환경 데이터 관리 체계 등과 연계

○ 일부 통계는 유엔 환경경제계정(SEEA)과 같은 국제 통계표준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환경과 경제활동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이러한 통계는 국가 환경정책 수립뿐 아니라 국제 환경협약 이행을 위한 공식 보고자료로 활용되며, 국가 간 환경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는 특징이 있음

[표 2-20] 국내 환경 분야 국가승인통계와 연계된 국제 통계 체계 및 협약

순번	국내 승인통계(작성기관)	연계 국제기구	연계 국제 통계 체계 / 협약	비고
1	국가온실가스통계(환경부)	UNFCCC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National GHG Inventory)	기후변화협약 보고 의무
2	화학물질배출량조사(PRTR) (환경부)	OECD / UNEP	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OECD 환경지표 활용
3	대기오염물질배출량(환경부)	UNEP / WHO	Air Emission Inventory	대기질 국제 비교
4	대기오염도현황(환경부)	WHO	Global Ambient Air Quality Database	도시 대기질 비교
5	국가토지피복통계(환경부)	UN	SEEA Ecosystem Accounting	자연자산 회계
6	환경보호지출계정(환경부)	UN / OECD	SEEA Environmental Expenditure Account	환경경제계정
7	국가온실가스통계(환경부)	IPCC	IPCC GHG Inventory Guidelines	배출량 산정 기준
8	기후변화감시통계(환경부)	WMO	Global Climate Observing System	기후관측 데이터
9	기상관측통계(환경부)	WMO	Global Climate Data	국제 기상관측망

■ 통계 작성 방식

○ 환경 분야 통계는 대기질, 수질, 폐기물 등 환경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측정자료와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생산됨. 환경 측정망 및 행정 관리 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축적되는 데이터를 주요 통계자료로 활용하며, 조사통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표 2-21] 국내 환경 분야 국가승인통계 작성 방식별 분류

(단위: 종)

구분	수량	항목		
합계	42			
조사통계	15	• 환경교육실태조사 • 물산업통계 •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 산업폐수발생및처리현황 • 전국폐기물통계조사	• 수돗물먹는실태조사 • 환경기술실태조사 • 기상산업실태조사 • 환경산업통계조사 • 화학물질통계조사	•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 화학물질배출량조사 • 영농폐기물조사 • 재활용가능자원가격조사 • 수질오염실태보고
보고통계	22	• 환경관련조세및세입계정 • 쓰레기종량제현황 • 상수도통계 • 환경전문공사업수주실적현황 • 가뭄정보통계 • 수질TMS부착사업장배출량현황 • 기상관측통계 •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굴뚝TMS 부착사업장 배출량 현황 • 지하수현황 • 배출시설단속조치현황 • 하수도통계 • 해수수질실태보고 • 댐·하천현황 • 한국수문통계	• 폐기물재활용실적및업체현황 • 연안습지면적현황 • 대기오염도현황 • 주요도시환경소음도현황 • 토양오염도현황 • 기후변화감시통계 • 재활용지정사업자재활용실적
가공통계	5	• 환경보호지출계정 • 국가토지피복통계	• 국가온실가스통계 • 비점오염원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	• 대기오염물질배출량

2. 보건 분야 국가승인 통계

■ 특징

○ 보건 분야 국가승인통계는 국민의 건강 수준, 질병 발생 및 관리,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의약품 및 의료산업 현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통계체계로 형성됨. 주요 통계는 크게 질병 발생 및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및 의료자원 관련 통계, 그리고 의약품·의료기기·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 산업 관련 통계로 구분됨

- (국민건강수준)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
- (질병 발생 및 관리 현황) 암등록통계, 결핵환자신고현황, 법정감염병발생보고, 심뇌혈관질환발생통계 등
- (의료서비스 및 의료보장체계) 건강보험통계, 의료급여통계, 의료서비스이용현황, 지역별의료이용통계 등
- (보건의료산업) 의약품생산및수출수입실적, 의료기기생산실적, 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등

○ 통계작성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주축으로 하며, 통계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도 함께 해당함

■ 국제 연계

○ 보건 분야 통계 중 일부는 다음 [표 2-22]와 같이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보건통계 기준과 연계되어 작성되며 국제 비교 통계로 활용됨

○ 보건 분야 통계는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보건 통계 기준과 국제 감시체계에 기반하여 생산되는 경우가 많음. 세계보건기구(WHO)와 OECD, 세계은행(World Bank), UN 등이 주요 국제 협력 기관으로, 국가 보건 통계는 이들 기관이 제시하는 국제 통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거나 국제 비교를 위한 자료로 활용됨

- 사망원인통계 등 주요 보건 통계는 국제질병분류(ICD) 체계를 기반으로 작성
- 감염병 관련 통계는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른 감시 및 보고 체계와 연계
- 국민건강영양조사, 의료이용 통계, 보건의료 지출 통계 등은 OECD가 구축한 국제 보건 통계 데이터베이스, 「Health Statistics」 및 「Health at a Glance」 등의 작성에 활용

[표 2-22] 국내 보건 분야 국가승인통계와 연계된 국제 통계 체계 및 협약

순번	국내 승인통계 (작성기관)	연계 국제기구	연계 국제 통계 체계 / 협약	비고
1	사망원인통계(통계청)	WHO	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사망원인 국제 비교
2	생명표(통계청)	UN / OECD	Life Table methodology	기대수명 국제 비교
3	국민보건계정(보건복지부)	OECD / WHO / World Bank	SHA (System of Health Accounts)	보건지출 국제 비교
4	암등록통계(질병관리청)	WHO / IARC	Global Cancer Observatory	국제 암 발생 비교
5	결핵환자신고현황(질병관리청)	WHO	Global TB Surveillance	WHO 결핵보고
6	법정감염병발생보고(질병관리청)	WHO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감염병 감시
7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청)	WHO / OECD	Health Examination Survey	건강행태 국제 비교
8	의료서비스이용현황(보건복지부)	OECD	OECD Health Statistics	의료이용 비교
9	건강보험통계(건강보험공단)	OECD	Health expenditure statistics	의료비 비교

■ 통계 작성 방식

○ 보건 분야 통계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감염병 신고자료, 의료기관 보고자료 등 행정자료 기반 데이터가 폭넓게 활용되며, 이러한 행정데이터와 표본조사 기반 통계가 함께 운영되는 복합적인 통계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 이는 국민의 건강 상태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기반 자료로 기능함

[표 2-23] 국내 보건 분야 국가승인통계 작성 방식별 분류

(단위: 종)

구분	수량	항목		
합계	64			
조사통계	19	• 의료기관별급여적정성평가현황 • 아동및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 정신건강실태조사 • 중증손상및다수사상조사 • 청소년건강패널조사 • 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 의료서비스경험조사 • 산후조리실태조사 • 한의약산업실태조사 •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 국민건강영양조사 • 가족과출산조사	• 한국의료패널조사 • 퇴원손상심층조사 • 급성심장정지조사 • 한국인인체치수조사 • 지역사회건강조사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보고통계	33	• 급여의약품·치료재료청구현황 • 의료용마약류취급현황 • 국가정신건강현황 • 건강보험통계 • 위생용품산업현황 • 장기등기증및이식통계 • 비급여진료비용및제증명수수료통계 • 의료급여통계 • 공공의료기관현황 • 식생활관리현황 • 의약품생산및수출수입실적	• 화장품산업현황 • 혈액정보통계 • 건강기능식품산업현황 • 건강검진통계 • 건강보험주요수술통계 • 응급의료현황통계 • 지역별의료이용통계 • 법정감염병발생보고 • 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 • 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 • 국민체력측정통계	•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보고 • 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현황 • 학생건강검사통계 • HIV/AIDS신고현황 • 암등록통계 • 식품수거검사실적 • 수입식품현황 • 전국어린이예방접종률현황 • 의료기기생산실적 • 결핵환자신고현황 • 공중위생영업소실태보고
가공통계	12	•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 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 • 희귀질환등록통계 • 장애인건강보건통계	• 심뇌혈관질환발생통계 • 의료서비스이용현황 • 보건의료질통계 • 사망원인통계	• 국민보건계정 •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 생명표 • 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

3. 문화예술 분야 통계와의 비교 분석

가. 국제 연계 관련 시사점

○ 환경 및 보건 분야 통계는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통계 작성 기준과 국제협약 보고 체계에 연계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일부 통계는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분류체계와 작성 기준에 따라 생산되며, 일부는 국제협약이나 국제 비교를 위해 정기적으로 국제기구에 보고함. 이러한 구조는 국가 통계의 국제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통계 생산의 표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함.

○ 반면, 문화예술 분야 통계는 유네스코가 프레임워크 정도를 제시하고, 각 나라가 자율적으로 통계를 만들도록 할 뿐, 구체적인 통계 작성 매뉴얼이나 분류, 산정 방식을 제공하거나, 국제 정기 보고나 발표를 위한 협약을 맺거나, 유네스코 또는 다른 국제기구가 국가 간 비교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거나 발표하지 않음. 따라서 문화예술 통계는 조사 중심으로 통계가 생산되고, 국제 표준 연계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음

○ 유네스코의 FCS의 최초 발표 시점이 1980년대였음. 이처럼 통계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음에도 국가 간 비교 보고서 하나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쓸모에 대하여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문화예술은 개별성, 다원성, 지역성과 같은 속성이 우선한다는 점, 강제 요인이 없다면 어떤 개인도 기관도 기존 체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문화예술계 내부에서 새로운 체계를 따르려는 자체적·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통계 작성 방식 관련 시사점

○ 환경 및 보건 분야 통계의 체계는 조사통계뿐만 아니라 행정자료 및 상시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통계가 함께 활용되는 구조임. 환경 분야의 경우 다양한 환경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며, 보건 분야의 경우 조사대상 집단의 청구자료, 신고자료 등 행정자료 기반 데이터가 폭넓게 활용되는 특징을 보임

○ 이와 같은 구조는 환경 및 보건 분야 통계가 특정 시점의 조사 결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행정자료와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 체계를 축적 체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통계체계는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계로 연계, 활용함으로써 통계 생산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 반면, 문화예술 분야 통계는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등과 같이 조사통계 중심으로 통계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특정 시점의 표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임

○ 이와 같은 구조는 문화예술 활동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한다는 기능은 수행할 수 있으나,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비용과 시간적인 소모 대비 정책 과정에 필요한 유용한 데이터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 통계는 기존의 조사통계 중심 구조를 보완하고,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행정자료 및 운영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통계 생산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3장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고도화 및 신규 통계 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 분석

제1절 수요 조사

1. 조사 개요 및 설계

가. 조사 목적 및 배경

○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문예연감)』의 개선 및 고도화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신규 문화예술 통계 개발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함

○ 조사 결과는 증거 기반 문화정책(EBPM)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데이터 공백(Data Gap) 영역을 규명하여 통계 개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조사 설계 및 표본 구성

○ 조사 기간 : 2026. 2. 9.(월) ~ 2. 12.(목)

○ 조사 대상 : 예술행정 및 공공기관 종사자, 현장 예술인/단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총 30명
*사전 선발된 전략적 전문가 그룹

○ 조사 방식: 온라인 구조화된 설문조사(Structured Survey) 및 정성적 의견 수합

○ 문항 구성: 일반사항, 활용현황, 문예연감 개선 수요, 신규 통계 수요, 응답자 특성 등 총 20문항

2. 조사결과 요약

가. 응답자 특성 및 통계 활용 현황

○ 고경력 전문가 중심 응답
- 종사 경력 10년 이상이 76.7%(20년 이상 30.0%)를 차지하여 전문성 높은 현장의 의견이 수렴됨

○ 기존 통계 인지도 및 활용
- 「예술인실태조사」(25명)와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24명)의 인지도가 가장 높으며, 실제 업무 활용도 역시 이 두 지표에 집중됨

○ 활용 만족도 및 한계
- 통계 활용 만족도는 평균 4.45점(7점 척도)으로 '보통' 수준임. 비활용 사유로 '업무에 바로 활용하기 어렵게 구성됨(40.0%)'이 가장 높게 나타나 실무 중심의 데이터 재구조화가 필요함

나.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문예연감) 개선 수요

○ 현행 조사 실효성 평가
- 급변하는 예술 현장의 역동성을 담아내는 정도에 대해 평균 4.27점의 유보적 평가가 나타남

○ 최우선 개선 과제
- '온라인/디지털 활동 반영(43.3%)'과 '이용 편의성 증진(43.3%)'이 가장 시급하며, '민간 영역으로의 조사 범위 확대(40.0%)' 요구도 높음

○ 조사 범위 및 범주 확대
- 민간 소극장·독립출판 등 민간 영역 확대(76.7%), 비대면/온라인 활동의 정식 범주 포함(73.3%)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 의견이 확인됨

다. 신규 통계 개발 및 데이터 연계 수요

○ 데이터 탐색 실패율
- 무역·저작권(72.7%), 민간재원(63.6%), 산업규모(64.7%) 등 경제적 지표에 대한 탐색 성공률이 매우 낮아 해당 분야의 데이터 공백이 심각함

○ 신규 개발 시급 영역
- '문화예술 산업규모 계정(56.7%)' 개발이 가장 시급하며, '비정형/플랫폼 노동 실태(40.0%)'가 뒤를 이음

○ 데이터 연계 필요성
- 정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예술 통계를 경제·고용 등 타 분야 통계와 연계·비교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63.3%로 나타남

3. 주요 분석 결과

○ 공급자 중심 통계와 현장 수요 간의 정합성 부족
- 현재 제공되는 통계가 의사결정 지원에 충분하다는 응답은 16.7%에 불과함
- 전문가들은 결과보고서 형태보다 연구에 즉시 활용가능한 'Raw Data'와 세분화된 테이블을 강력히 원하고 있음

○ 기초예술 산업의 경제적 가치 실증 요구 증대
- 신규 통계 개발 시 가장 큰 기대효과로 '정책 예산 확보 및 규모 확대의 근거 마련(46.7%)'을 꼽음
- 이는 예술을 '복지'가 아닌 '산업'과 '경제적 가치' 관점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현장의 절실함을 시사함

○ 장르 경계 해체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분류 체계의 한계
- 융복합/다원예술의 경우 63.3%가 '독립된 대분류'로의 집계를 원하고 있음
- 또한 플랫폼 노동, 온라인 수익 구조 등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지표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4. 주요 시사점

○ 증거 기반 문화정책(EBPM)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승격 등 범정부 데이터 정책 기조에 맞춰, KOPIS 등 외부 행정 데이터와 플랫폼 데이터를 직접 연계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함

○ 통계 분류 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추진
- 공공기관 및 지역 문화재단별로 상이한 분류 체계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시각예술 분야 등 전담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사 항목을 사전에 표준화하여 데이터 연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함

○ 단기적 집계에서 장기적 '종단 데이터' 구축으로의 전환
- 문화예술의 사회적 성과와 장기적 변화를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종단 데이터(Longitudinal Data)' 구축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입증하는 강력한 정책 도구가 될 것임

5. 수요조사 결과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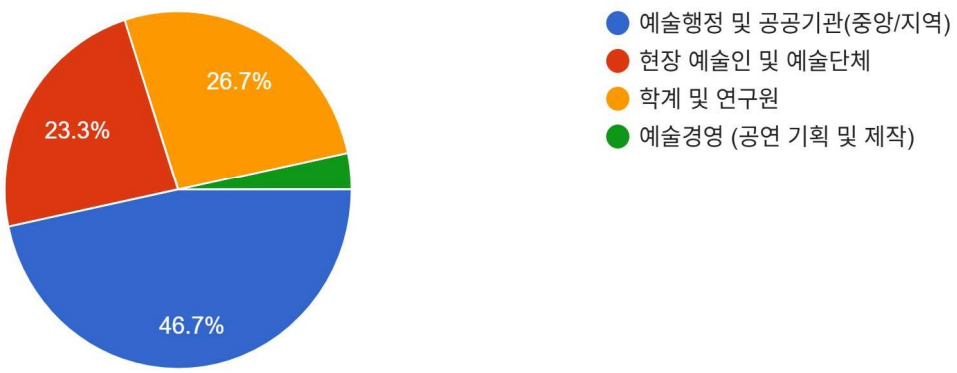
가. 일반사항

1) 주요 활동분야

○ 설문 응답자의 주요 활동 분야를 분석한 결과, '예술행정 및 공공기관(중앙/지역)' 종사자가 4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어 '학계 및 연구원'이 26.7%, '현장 예술인 및 예술단체'가 23.3% 순으로 나타나, 정책 입안자부터 현장 실무자까지 전문가 그룹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그림 3-1] 응답자 주요 활동 분야



[표 3-1] 응답자 주요 활동 분야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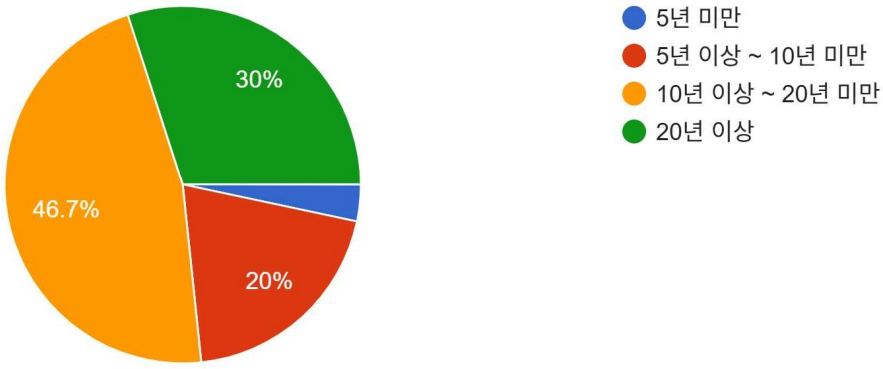
		응답자수	
전체		(30)	(100)
주요 활동 분야	예술행정 및 공공기관(중앙/지역)	14	46.7
	현장 예술인 및 예술단체	7	23.3
	학계 및 연구원	8	26.7
	기타(예술경영-공연기획 및 제작)	1	3.3

2) 분야 종사(연구) 경력

○ 전문가 그룹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력을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46.7%, '20년 이상'이 30.0%로 전체의 76.7%가 10년 이상의 숙련된 전문가로 구성됨

○ 이는 본 조사가 문화예술 통계의 고질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고(高)경력자 위주로 수행되었음을 시사함

[그림 3-2] 응답자 분야 종사(연구) 경력



[표 3-2] 응답자 분야 종사(연구) 경력

(단위 : 명, %)

		응답자수	
전체		(30)	(100)
분야 종사(연구) 경력	5년 미만	1	3.3
	5년 이상~10년 미만	6	20.0
	10년 이상~20년 미만	14	46.7
	20년 이상	9	30.0

나. 활용 현황

1) 주요 통계자료 인지도 및 활용률

○ 주요 국가승인통계 및 문화예술 관련 자료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인지도와 실무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예술인실태조사」(83.3%)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80.0%) 등 기초예술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에 대한 인지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실제 업무 활용도 측면에서도 「예술인실태조사」(15명),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14명), 「지역문화현황통계」(14명) 등이 고르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은 인지도(17명) 대비 활용자(12명) 비율이 70.6%에 달해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이 가진 강력한 실무 효용성을 입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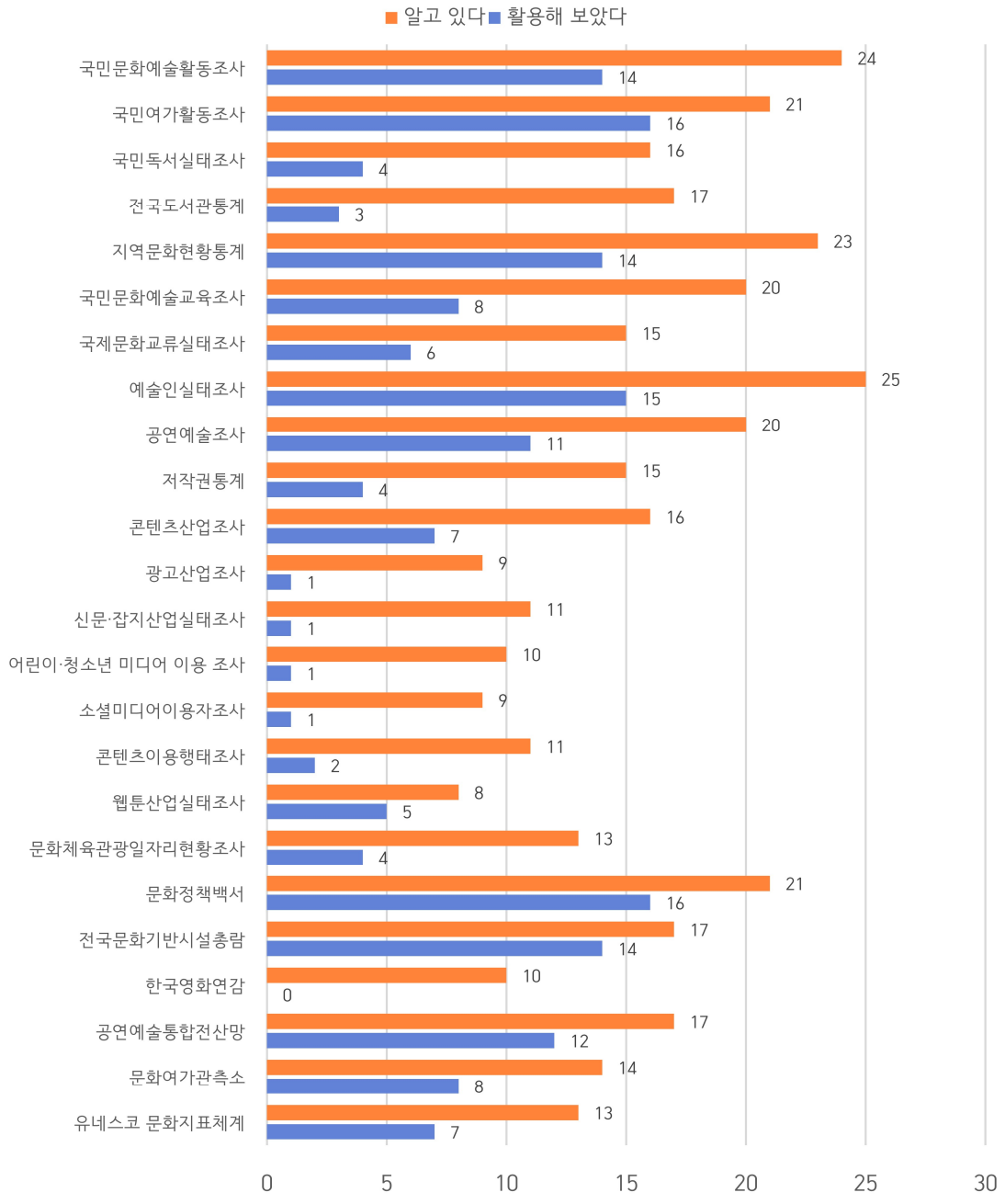
○ 반면 저작권 통계(26.7%)나 일자리 현황조사(30.8%)는 인지도 대비 실제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문가들의 실무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접근성이 낮음을 시사함

○ 주요 국가승인통계의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실무 활용률이 60% 내외에 머물러 있는 결과는, 기존 통계가 정책 현장의 복잡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에는 데이터의 정밀도나 적시성 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 특히 KOPIS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의 높은 활용률(70~80%대)은 전문가들이 단순 설문 기반 통계보다 시스템 기반의 객관적 행정 데이터를 더 신뢰하고 있음을 방증함

○ 이는 향후 신규 통계 설계 시 KOPIS 등 외부 DB와의 직접 연계를 통해 통계적 엄밀성을 확보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증거 기반 정책(EBPM)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예산 당국을 설득할 강력한 정책적 무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줌

[그림 3-3] 문화예술 주요 통계자료 인지도 및 활용률



[표 3-3] 문화예술 주요 통계자료 인지도 및 활용률

(단위 : 명, 복수응답)

		알고 있다	활용해 보았다
전체		(375)	(174)
국가승인통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4	14
	국민여가활동조사	21	16
	국민독서실태조사	16	4
	전국도서관통계	17	3
	지역문화현황통계	23	14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20	8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15	6
	예술인실태조사	25	15
	공연예술조사	20	11
	저작권통계	15	4
	콘텐츠산업조사	16	7
	광고산업조사	9	1
	신문·잡지산업실태조사	11	1
	어린이·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10	1
	소셜미디어이용자조사	9	1
	콘텐츠이용행태조사	11	2
	웹툰산업실태조사	8	5
	문화체육관광일자리현황조사	13	4
간행물·시스템	문화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1	16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예술경영지원센터)	17	14
	한국영화연감 (영화진흥위원회)	10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예술경영지원센터)	17	12
	문화여가관측소 (한국문화정보원)	14	8
유네스코	유네스코 문화지표체계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13	7

2) 통계 활용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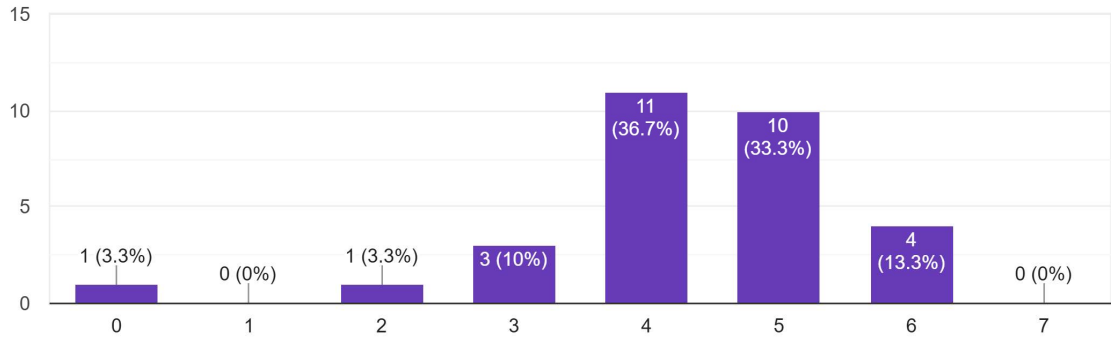
○ 업무 수행 및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통계자료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점 척도 기준 전체 평균은 4.45점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의 36.7%(11명)가 '보통이다(4점)'라고 답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약간 그렇다(5점)' 33.3%(10명), '그렇다(6점)' 13.3%(4명) 순으로 조사되었음

○ 반면 '매우 그렇다(7점)'는 응답은 0%로 확인되어, 현행 통계가 전문가 그룹의 고도화된 요구를 완벽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문화예술 통계 활용 만족도가 4.45점에 정체되어 있고, 특히 '매우 그렇다(7점)'는 응답이 전무한 결과는 현행 통계가 10년 이상의 숙련된 전문가 그룹이 요구하는 정밀한 분석 및 정책 결정 지원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3-4] 문화예술 통계 활용 전반적 만족도



[표 3-4] 문화예술 통계 활용 전반적 만족도

(단위 : 명, %, 점/7점)

	합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③	④ 보통이다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⓪ 이용해본 적 없음	평균
전체	(30)	-	1	3	11	10	4	-	1	
통계자료 활용 만족도	(30)	-	1	3	11	10	4	-	1	4.45
	(100)	-	3.3	10.0	36.7	33.3	13.3	-	3.3	-

3) 통계 활용 미활용 사유

○ 만족도가 낮은 응답자(10명)를 대상으로 심층 분석한 결과, '업무에 바로 활용하기 어렵게 구성됨(40.0%)'이 결정적 요인으로 도출됨

○ 이어 '통계자료 탐색 및 이해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 소요'(20.0%, 2명)와 '다른 내부 자료나 경험적 판단으로 업무 수행 가능'(20.0%, 2명)이 주요 원인으로 도출되어, 데이터의 실무 정합성 및 활용 편의성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줌

○ 특히 불만족 사유의 40.0%가 '업무 활용 정합성 부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기존의 결과 보고 중심 통계 생산 방식에서 탈피하여 연구자가 직접 가공 가능한 원시 데이터(Raw Data)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실무 단위의 세부 지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급성을 시사함

○ 결과적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통계 생산 주기 단축과 데이터 플랫폼화는 증거 기반 문화정책(EBPM)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과제가 될 것임

[그림 3-5] 통계 미활용 사유



[표 3-5] 통계 미활용 사유

(단위 : 명, %, 복수응답)

	사례수	필요한 통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업무에 바로 활용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서	통계자료를 찾고 이해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서	다른 내부 자료나 경험적 판단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해서	통계 활용이 업무 성과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못해서	기타
전체	(10)	1	4	2	2	-	1
통계 미활용 사유	(10)	1	4	2	2	-	1
	-	10.0	40.0	20.0	20.0	-	10.0

다.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문예연감)』 개선 및 고도화

1) 현행 조사의 국내 예술현장 역동성 반영도

○ 국가승인통계인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가 급변하는 국내 예술 현장의 역동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7점 척도 기준 전체 평균은 4.27점으로 나타나 현행 조사 체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유보적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였음

○ 세부적으로 '약간 그렇다(5점)'가 26.7%(8명)로 가장 높았으나, 부정적 응답(1~3점)의 합계가 30.0%(9명)에 달해 긍정적 응답(6~7점)의 합계인 23.3%(7명)를 상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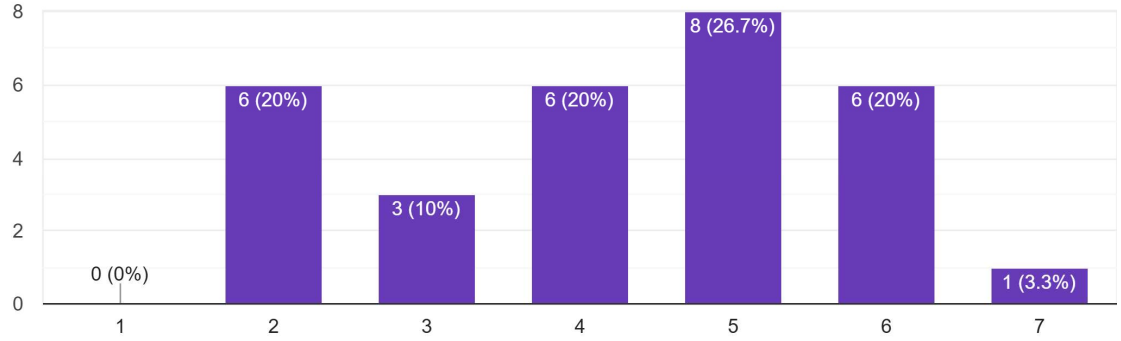
○ 이는 전문가 그룹 내에서 현행 조사가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적지 않음을 시사함

○ 현행 조사의 역동성 반영도가 4.27점이라는 유보적인 수준에 그친 것은, 전통적인 장르 구분과 오프라인 시설 중심의 현행 통계가 디지털 전환 및 장르 간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예술 현장의 '현재성'을 온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함

○ 특히 긍정적 확신(6~7점)보다 부정적 기류(2~3점)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결과는, 전문가들이 『문예연감』을 단순한 과거 기록물이 아닌 정책적 현안을 진단하는 동태적 지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결과적으로 온라인 활동의 정식 범주화와 민간 비제도권 영역으로의 조사 주권 확대를 통해 데이터의 '현장 정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증거 기반 문화정책(EBPM)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전략적 과제가 될 것임

[그림 3-6] 현행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국내 예술현장 역동성 반영도



[표 3-6] 현행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국내 예술현장 역동성 반영도

(단위 : 명, %, 점/7점)

	합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③	④ 보통이다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평균
전체	(30)	-	6	3	6	8	6	1	4.27
현행 조사의 국내 예술현장 역동성 반영도	(30)	-	6	3	6	8	6	1	4.27
	(100)	-	20.0	10.0	20.0	26.7	20.0	3.3	-

2) 최우선 해결 과제 (2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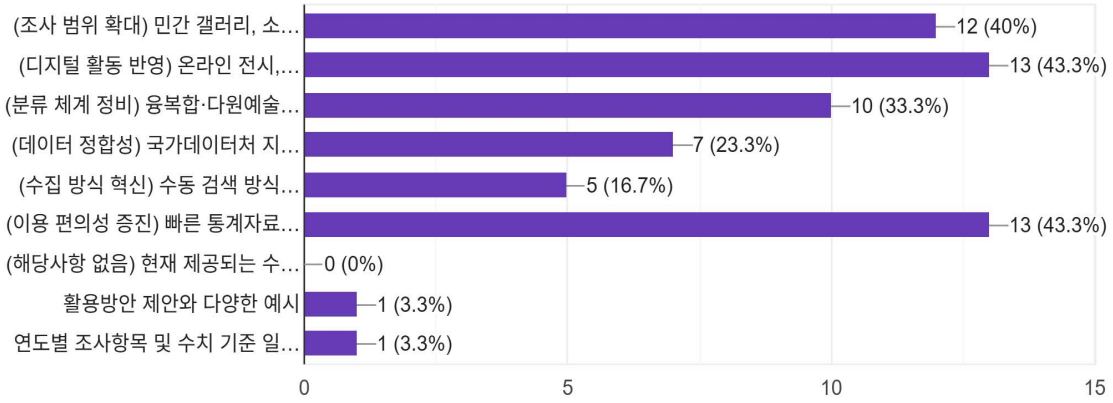
○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디지털 활동 반영'과 '이용 편의성 증진'이 공동 1순위(각 43.3%)로 도출됨

○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활동의 통계적 포착과 데이터 활용의 적시성이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꼽힌 것은, 기초예술 생태계가 이미 '온라인 전이'를 마쳤으며 행정 현장에서는 '기록을 위한 통계'가 아닌 '정책 무기로서의 실용적 통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함

○ 이는 기존의 오프라인·시설 중심 조사 체계를 디지털·플랫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자동 수집(Scraping) 기술 등을 도입하여 데이터 생산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할 정책적 시급성을 뒷받침함

○ 결과적으로 이러한 데이터의 적시성과 현장 정합성 확보는 예산 당국을 설득하고 증거 기반 정책(EBPM)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자산이 될 것임

[그림 3-7] 최우선 해결 과제



[표 3-7] 최우선 해결 과제

(단위 : 명, %)

		응답자수	
전체		(62)	(100)
최우선 해결 과제	(조사 범위 확대) 민간 갤러리, 소규모 공연장 등 비제도권 영역 포괄	12	40.0
	(디지털 활동 반영) 온라인 전시, 공연, 웹출판 등 비대면 활동 포함	13	43.3
	(분류 체계 정비) 융복합·다원예술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 수립	10	33.3
	(데이터 정합성) 국가데이터처 지침에 따른 타 산업 통계와의 연계성 강화	7	23.3
	(수집 방식 혁신) 수동 검색 방식에서 자동 수집(Scraping) 방식으로 전환	5	16.7
	(이용 편의성 증진) 빠른 통계자료의 생산 및 제공, 통계자료 서비스 항목 개선 등	13	43.3
	(해당사항 없음) 현재 제공되는 수준으로 충분함	-	-
	(기타) 활용방안 제안과 다양한 예시, 연도별 조사항목 및 수치 기준 일치 필요	2	6.6

3) 민간 소극장, 대안 공간, 독립 출판 등 '민간 영역'으로 조사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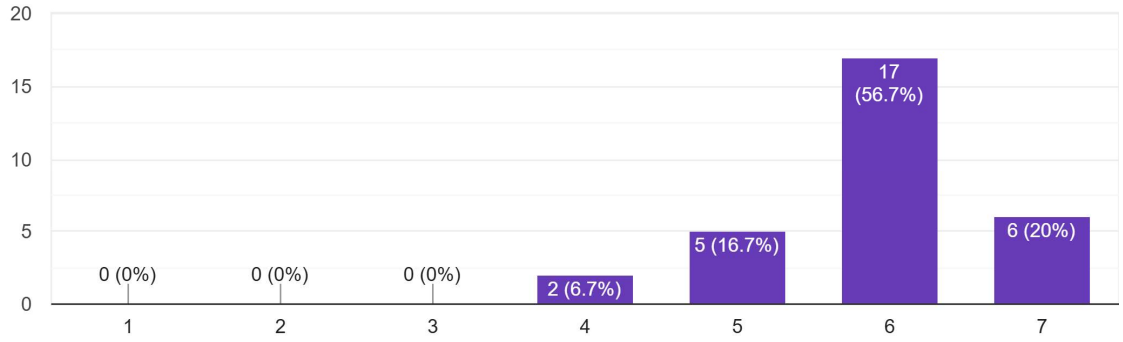
○ 민간 영역 확대(76.7%) 대해 압도적 필요성이 확인됨

○ 민간 소극장, 대안 공간, 독립 출판 등 '민간 영역'으로의 조사 확대에 대해 76.7%의 전문가가 압도적으로 찬성한 것은, 기존 공공 시설 및 공급자 중심의 통계가 현장의 역동적인 예술 생태계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명확히 보여줌

○ 이는 비제도권의 창작·유통 실태를 공식 통계 체계에 적극 편입함으로써 '데이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 수립의 핵심 근거가 되는 원천 데이터(Raw Data)의 현장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를 시사함

○ 결과적으로 민간 영역으로의 과감한 조사 주권 확장은 예술 산업의 실질적 규모를 가시화하고 증거기반 문화정책(EBPM)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임

[그림 3-8] 민간 영역 조사대상 확대 필요성



[표 3-8] 민간 영역 조사대상 확대 필요성

(단위 : 명, %, 점/7점)

	합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③	④ 보통이다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평균
전체	(30)	-	-	-	2	5	17	6	5.90
민간 영역 조사대상 확대 필요성	(30)	-	-	-	2	5	17	6	5.90
	(100)	-	-	-	6.7	16.7	56.7	20.0	-

4) 비대면 공연, 온라인 전시, 웹 출판 등 '온라인 예술 활동' 현황조사 포함 여부

○ 비대면 공연, 온라인 전시, 웹 출판 등 '온라인 예술 활동'을 현황조사의 정식 범주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3%가 '필요함'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압도적인 필요성이 확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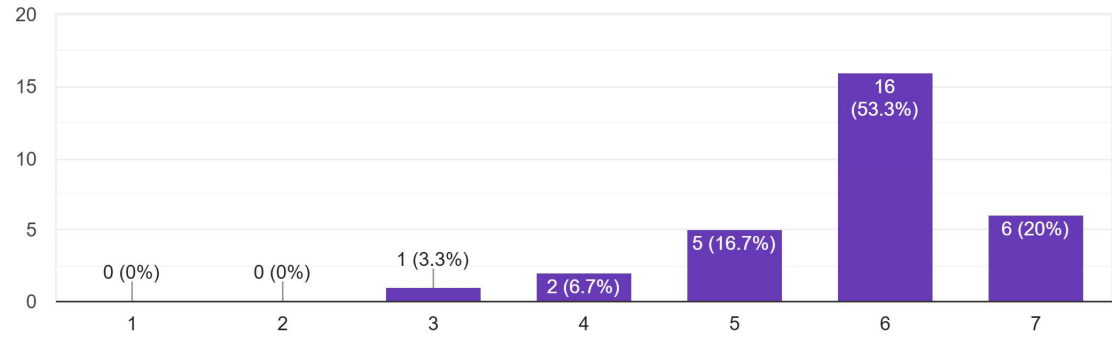
○ 세부적으로는 '필요함'이 53.3%(1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필요함' 20.0%(6명), '약간 필요함' 16.7%(5명) 순으로 조사됨. 반면 '불필요함' 계열의 응답은 3.3%(1명)에 불과하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예술 활동의 실체적 변화를 국가 통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현장의 합의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 온라인 예술 활동의 정식 범주 포함에 대해 73.3%의 전문가가 압도적인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예술의 생산과 소비 무대가 이미 디지털 플랫폼으로 완전히 확장되었음을 통계적 '실체'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함

○ 이는 비대면 창작 및 유통 실태를 공식 통계 체계에 편입함으로써 데이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춘 증거 기반 정책(EBPM) 수립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를 시사함

○ 결과적으로 온라인 예술 활동의 정식 범주화는 예술의 산업적 범주를 재정의하고, 향후 플랫폼 기반의 신규 지원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전략적 근거가 될 것임

[그림 3-9] 온라인 예술 활동 현황조사 필요성



[표 3-9] 온라인 예술 활동 현황조사 필요성

(단위 : 명, %, 점/7점)

	합계	① 매우 불필요함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필요함	평균
전체	(30)	-	-	1	2	5	16	6	5.80
온라인 예술 활동 현황조사 필요성	(30)	-	-	1	2	5	16	6	5.80
	(100)	-	-	3.3	6.7	16.7	53.3	20.0	-

5) '융복합/다원예술'의 분류 방식

○ 장르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반영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융복합/다원예술'의 가장 합리적인 분류 방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3%가 '별도의 독립된 대분류로 집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음

○ 그 외 '활동의 형태(공연, 전시, 발간 등)에 따른 기능별 분류'가 26.7%(8명)로 뒤를 이었으며, '주된 창작 요소가 강한 기존 장르로 귀속'시키자는 의견은 6.7%(2명)에 불과하여 기존 장르로의 편입보다는 새로운 분류 체계 도입에 대한 선호가 뚜렷함

○ 융복합/다원예술을 '별도의 독립된 대분류'로 집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63.3%로 압도적인 것은, 장르 간 경계가 해체되는 현대 예술의 역동성을 기존 통계 체계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비판적 인식을 반영함

○ 이는 다원예술을 특정 장르의 부차적 활동으로 취급하던 관성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격상시키고, 이에 부합하는 세부 통계 스키마를 설계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급성을 시사함

○ 결과적으로 융복합 예술을 위한 독자적인 분류 코드를 신설하는 것은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새로운 예술 형태에 대한 예산 배분 및 지원 정책 수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기제가 될 것임

[그림 3-10] 융복합/다원예술 조사 분류 방식



[표 3-10] 융복합/다원예술 조사 분류 방식

(단위 : 명, %)

		응답자수	
전체		(30)	(100)
융복합·다원예술의 분류 방식	별도의 독립된 대분류 (융복합/다원예술)로 집계	19	63.3
	주된 창작 요소(예: 음악, 미술 등)가 강한 기존 장르로 귀속	2	6.7
	활동의 형태(공연, 전시, 발간 등)에 따른 기능별 분류	8	26.7
	(기타) 작업자(작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항목(음악, 전통, 미술 등)에 등재	1	3.3

6)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등 외부 행정 데이터 및 플랫폼 데이터와의 연계

○ 국가데이터처 승격 등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기조에 맞추어,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등 외부 행정 데이터 및 민간 플랫폼 데이터를 직접 연계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3%가 '필요함' 이상의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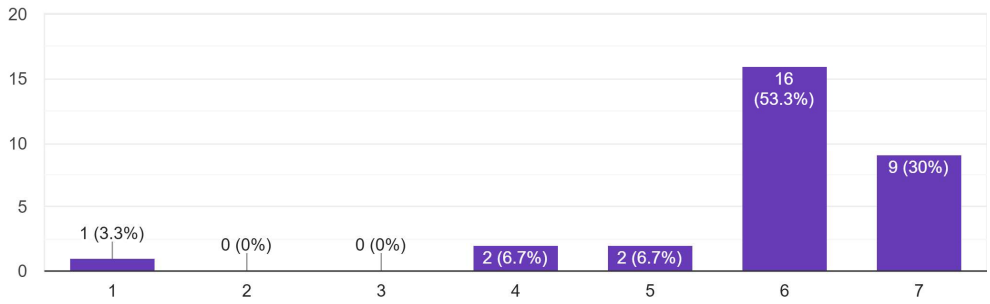
○ 세부 응답 현황을 보면 '필요함'이 53.3%(16명)로 가장 높고, '매우 필요함' 30.0%(9명), '약간 필요함' 6.7%(2명) 순으로 나타남.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3.3%(1명)에 그쳐, 데이터 연계를 통한 통계 혁신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합의가 매우 공고함을 확인하였음

○ 외부 행정 데이터 연계에 대해 83.3%의 전문가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수동 검색 및 집계 방식에 의존하는 기존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계적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최우선 과제임을 시사함

○ 전문가들은 단순한 수치 합산을 넘어 외부 시스템과의 '항목 표준화'와 '자동 수집(Scraping) 방식' 도입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통합미술정보시스템' 등 신규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 시 초기 설계 단계부터 통계적 정합성을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급성을 뒷받침함

○ 결과적으로 이러한 하이브리드 데이터 연계 체계의 확립은 조사 오차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증거 기반 문화정책(EBPM)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임

[그림 3-11] 외부 행정 및 플랫폼 데이터 연계 필요성



[표 3-11] 외부 행정 및 플랫폼 데이터 연계 필요성

(단위 : 명, %, 점/7점)

	합계	① 매우 불필요함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필요함	평균
전체	(30)	1	-	-	2	2	16	9	5.93
외부 행정 및 플랫폼 데이터 연계 필요성	(30)	1	-	-	2	2	16	9	5.93
	(100)	3.3	-	-	6.7	6.7	53.3	30.0	-

7) 전문가 개선안 제안 (요약)

가) 조사 범위 및 항목의 외연 확장

○ 민간 및 비제도권 영역 포괄
- 공공 위주의 조사에서 벗어나 민간 갤러리, 소규모 공연장, 대안 공간, 독립 출판 등 실질적인 예술 생태계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온라인 및 디지털 활동의 정체성 확립
- 비대면 공연, 온라인 전시, 웹 출판 등을 정식 범주에 포함하고 플랫폼 유형, 관객 참여 방식, 수익 구조 등 세분화된 지표를 도입해야 함

○ 기초예술 데이터의 세밀화
- 문학 분야의 경우 단행본 외 문예지 발표 작품(단편, 시 등)까지 실시간 취합 범위를 넓히고, 음악 등 장르별 상황에 맞는 세부 항목을 추가 설계해야 함

나) 수집 방식 혁신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 시스템 간 표준 연계 체계 구축
- KOPIS(공연예술통합전산망) 및 향후 구축될 '통합미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초기 단계부터 조사 항목 및 분류 체계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함

○ 데이터 거버넌스 및 자동화
- 동 검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동 수집(Scraping) 기술 도입과 공공기관의 각종 문화행사 정보에 대한 Open API 구축 및 공유가 필요함

○ 조사 오차 및 변동성 대응
- 플랫폼상 장르와 실제 장르 간 불일치(뮤지컬-연극 등) 문제를 해결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조사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해야 함

다) 지역 현장 중심의 실태 분석 강화

○ 지역적 맥락과 접근성 실증
- 인구수 중심의 집계를 넘어 지방에서의 문화 향유 질과 투입 비용(시간/이동 등) 등 실질적인 접근성 격차를 드러낼 수 있는 지표 설정이 필요함

○ 현장 밀착형 조사 수행
- 지역 활동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추천받아 현장 전문가 방문 조사 및 심층 인터뷰 등 질적 조사를 병행하여 통계의 현장성을 높여야 함

라) 데이터 활용성 제고 및 정책 환류

○ 이용자 친화적 데이터 공개
- 결과보고서 중심의 제공에서 탈피하여 연구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원시 데이터(Raw Data) 형태의 공개와 서비스 항목 개선이 시급함

○ 심층적 해석과 교육 기능 강화
- 단순 수치 나열이 아닌 통계가 가리키는 장기적 흐름에 대한 전문가 해석(강의, 토론 등)과 현장 종사자 대상 계량 지표 활용 사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생태계 모니터링 지표 도입
-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생산·소비 지표와 비상업적 영역의 쇠퇴를 감지하는 '최소 기준점(Minimum Vital Line)' 등 지속가능성 진단 지표 개발이 제안됨

8) 시사점

○ 전문가들이 제안한 개선안의 핵심은 문화예술 통계를 '증거 기반 정책(EBPM)의 핵심 자산'으로 재정의하는 것임

○ 이는 기존의 오프라인·시설·단행본 중심의 협소한 조사 틀을 과감히 탈피하여, 온라인 플랫폼과 민간 소사이어티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기술적 자동화(Scraping/API)와 정성적 분석(심층 인터뷰/지역 전문가 참여)의 결합은 통계적 오차를 줄이는 동시에 수치 이면의 정책적 맥락을 읽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임

○ 결과적으로 이러한 고도화는 예술 현장의 역동성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예산 당국에 '문화예술의 산업적 가치'와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선명한 정책적 근거가 될 것임

라. 문화예술 신규 통계 개발 수요

1) 기존 통계의 충분성

○ 국가승인통계 등 현재 공공에서 제공되는 문화예술 통계가 정책 수립, 연구, 또는 창작 활동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충분한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 이상으로 긍정 응답을 한 비율은 16.7%(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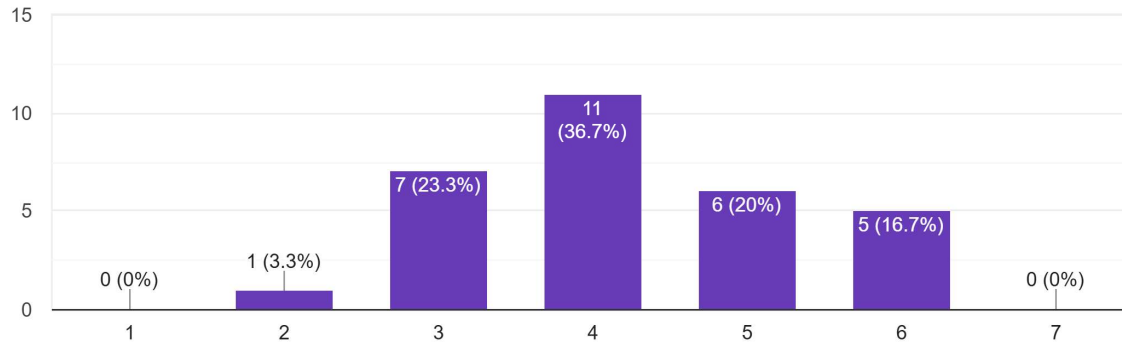
○ 7점 척도 기준 전체 평균은 4.23점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매우 충분하다(7점)'고 응답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반면 '보통이다(4점)'가 36.7%(11명)로 가장 많았고, '충분하지 않다(1~3점)'는 부정적 인식 또한 26.6%(8명)에 달해 전반적인 통계 품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시사함

○ 현재 제공되는 공공 통계가 의사결정 지원에 충분하다는 응답이 16.7%에 불과한 것은, 고도의 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 그룹의 요구와 실제 데이터 공급 간의 심각한 '미스매치(Mismatch)'를 시사함

○ 이는 단순 현황 나열식 통계에서 벗어나 정책적 인과관계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정교한 지표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신규 통계 개발을 통해 데이터의 질적·전략적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증거 기반 문화정책(EBPM)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적 당위성을 뒷받침함

[그림 3-12] 기존 문화예술 통계의 충분성



[표 3-12] 기존 문화예술 통계의 충분성

(단위 : 명, %, 점/7점)

	합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③	④ 보통이다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평균
전체	(30)	-	1	7	11	6	5	-	4.23
기존 통계의 충분성	(30)	-	1	7	11	6	5	-	4.23
	(100)	-	3.30	23.30	36.70	20.00	16.70	-	-

2) 데이터 탐색 실패율 분석

○ 지난 1년간 전문가들이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해 관련 통계자료를 탐색한 경험과 그 성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제 지표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극도로 높은 탐색 실패율이 나타나 심각한 '데이터 공백(Data Gap)' 현상이 실증되었음

○ 특히 국가승인통계 등 기존 통계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에 충분하다는 응답이 16.7%(5명)에 불과했던 결과와 맞물려, 실제 탐색 과정에서도 무역·저작권(72.7%), 산업규모 계정(64.7%), 민간재원(63.6%) 분야의 정보 획득 실패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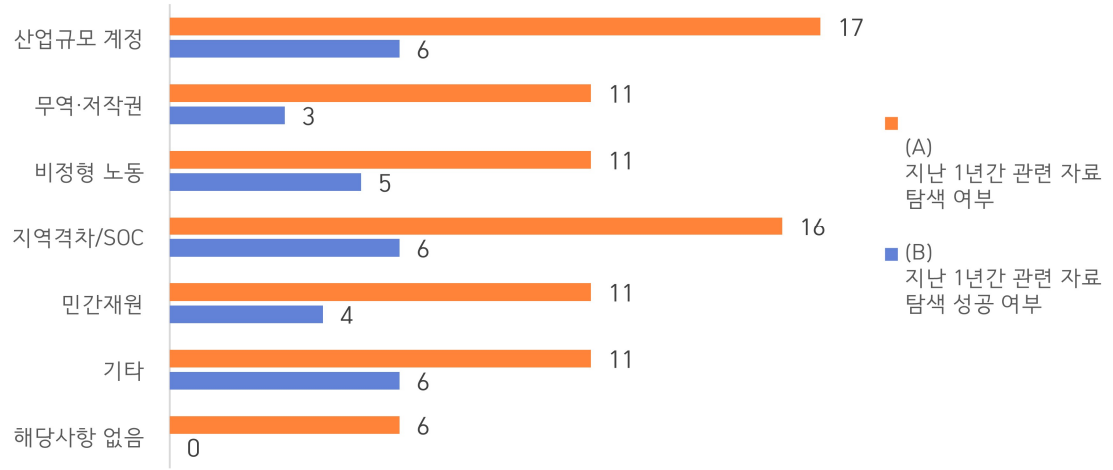
○ 가장 활발하게 탐색이 이루어진 분야는 '산업규모 계정'(17명)과 '지역격차/SOC'(16명)였으나, 성공 인원은 각각 6명에 그쳐 현장의 수요를 공공 데이터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현재 문화예술 공공 통계가 의사결정 지원에 충분하다는 응답이 16.7%에 불과한 상황에서, 특히 무역·저작권(72.7%)과 산업규모(64.7%) 등 경제적 실증 지표의 탐색 실패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증거 기반 문화정책(EBPM) 수립을 위한 핵심 데이터가 부재함을 시사함

○ 이는 전문가들이 예술의 가치를 '산업'과 '경제'의 언어로 입증하고자 하나, 정작 예산 당국을 설득할 원천 데이터(Raw Data)를 구하지 못하는 심각한 데이터 공백 상태에 놓여 있음을 방증함

○ 결과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 통계 개발은 단순히 지표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예술 지원의 경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 투자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전략적 인프라 구축 작업이 될 것임

[그림 3-13] 문화예술 관련 통계자료 탐색 경험과 그 성공 여부



[표 3-13] 문화예술 관련 통계자료 탐색 경험과 그 성공 여부

(N=29*, 단위 : 명, %, 복수응답)

		(A) 지난 1년간 관련 자료 탐색 여부 (탐색률**)	(B) 지난 1년간 관련 자료 탐색 성공 여부 (성공률)	지난 1년간 관련 자료 탐색 실패율 (실패율)
전체				
데이터 탐색 실패율	산업규모 계정 - 문화예술의 경제적 부가가치 및 매출 규모 계량화	17 (73.9)	6 (26.1)	64.7
	무역·저작권 - K-Arts 해외 진출 및 저작권 수출입 수지 파악	11 (47.8)	3 (13.0)	72.7
	비정형 노동 -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예술인 노동시장 실태	11 (47.8)	5 (21.7)	54.5
	지역격차/SOC - 생활권 단위 문화 시설 접근성 및 실질 활용도	16 (69.6)	6 (26.1)	60.0
	민간재원 - 기업 메세나 및 개인 기부·후원 유입 경로 및 규모	11 (47.8)	4 (17.4)	63.6
	기타 - 위 보기 외 업무 관련	11 (47.8)	6 (26.1)	45.5
	해당사항 없음 - 업무수행 등을 위한 통계자료 탐색 경험이 없는 경우	6 (26.1)	-	-

*무응답 1명

**탐색률 = 응답자 중 6가지 데이터 문항 모두에 대한 탐색 경험자 중 해당 데이터의 탐색률

3) 최우선 신규 통계 개발 영역

○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서 데이터 공백(Data Gap)으로 인해 신규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조사한 결과(2개 선택), '문화예술 산업규모 계정'이 56.7%(1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 '비정형 노동(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실태'가 40.0%(12명)로 뒤를 이었으며, '지역격차/생활SOC 활용도'와 '민간재원(기부·후원) 유입 경로'가 각각 36.7%(11명)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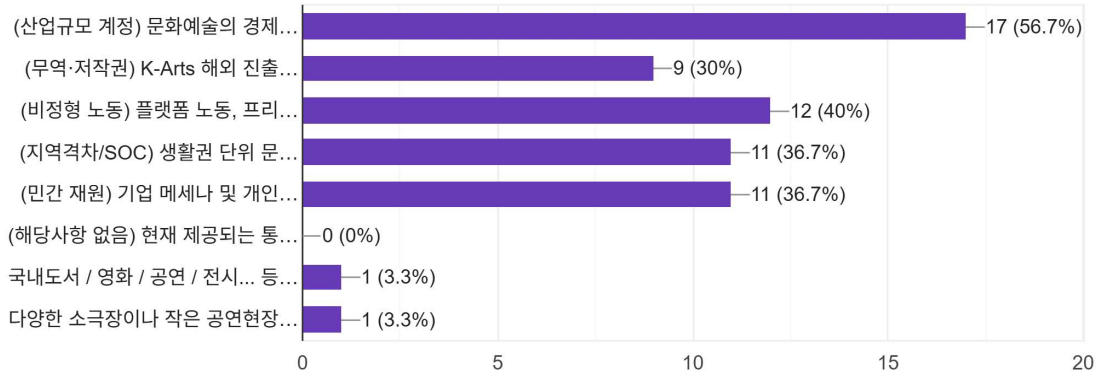
○ 이는 앞선 데이터 탐색 실패율 분석에서 '산업규모(64.7%)'와 '민간재원(63.6%)'의 실패율이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며, 전문가들이 예술의 경제적 자생력과 노동 환경을 입증할 실증 데이터를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음을 보여줌

○ 문화예술 산업규모 계정 개발에 대해 56.7%의 전문가가 최우선 시급성을 부여한 것은, 예술 지원의 정당성을 더 이상 '시혜적 복지'가 아닌 '국가 경제 기여'의 언어로 입증해야 한다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사함

○ 이는 특히 무역·저작권(72.7%)과 산업규모(64.7%) 등 경제 지표의 높은 탐색 실패율을 해소하여 예산 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적 실증 무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함

○ 결과적으로 조부가가치(GVA)와 산업 연관표(I/O Table) 등 거시 경제 지표와 연계된 신규 통계 개발은 문화예술의 산업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증거 기반 정책(EBPM)을 통해 대정부 예산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결정적인 전략적 도구가 될 것임

[그림 3-14]최우선 신규 통계 개발 영역



[표 3-14] 최우선 신규 통계 개발 영역

(N=30, 단위 : 명, %, 복수응답)

		응답자수	
전체		62	100
최우선 개발 신규 통계	(산업규모 계정) 문화예술의 경제적 부가가치 및 매출 규모 계량화	17	56.7
	(무역·저작권) K-Arts 해외 진출 및 저작권 수출입 수지 파악	9	30.0
	(비정형 노동)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예술인 노동시장 실태	12	40.0
	(지역격차/SOC) 생활권 단위 문화시설 접근성 및 실질 활용도	11	36.7
	(민간 재원) 기업 메세나 및 개인 기부·후원 유입 경로 및 규모	11	36.7
	(해당사항 없음) 현재 제공되는 통계로 충분함	-	-
	(기타) 국내도서 / 영화 / 공연 / 전시… 등의 분야별 매출 규모, 다양한 소극장이나 작은 공연현장에서 벌어지는 공연들에 대한 통계화	2	6.6

4) 신규 통계 개발 시 기대효과

○ 신규 문화예술 통계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을 때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7%가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예산 확보 및 규모 확대의 근거 마련'을 꼽았음

○ 이어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 자원 배분 및 인프라 구축의 효율화'가 23.3%(7명)로 나타났으며, '예술 현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설계'(13.3%, 4명), '산업적 위상 제고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10.0%, 3명) 순으로 조사됨

○ 신규 통계 개발의 기대효과로 '예산 확보의 근거 마련'이 46.7%로 압도적인 1순위를 차지한 것은, 현행 통계가 예산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경제적·논리적 소구력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냉정한 진단을 반영함

○ 이는 예술 지원을 단순한 '복지성 경비'에서 '미래 자산 투자'로 재정의하기 위해 화폐적 수익률(SROI)이나 부가가치(GVA)와 같은 실증 데이터가 절실함을 시사함

○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될 고도화된 지표들은 문화예술의 산업적 위상을 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대정부 예산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정책적 무기가 될 것임

[그림 3-15] 신규 통계 개발 시 기대효과



[표 3-15] 신규 통계 개발 시 기대효과

(단위 : 명, %)

		응답자수	
전체		30	100
신규 통계 개발 시 기대효과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예산 확보 및 규모 확대의 근거 마련	14	46.7
	예술 현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설계	4	13.3
	문화예술의 산업적 위상 제고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	3	10.0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 자원 배분 및 인프라 구축의 효율화	7	23.3
	학술적 연구의 심화 및 데이터 기반의 창작/경영 전략 수립	2	6.7

5) 타 분야(경제성장률, 고용지표, 산업통계 등) 통계와의 연계 및 비교 분석

○ 문화예술 정책의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 통계를 경제성장률, 고용지표, 산업통계 등 타 분야 통계와 연계하거나 비교 분석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3%가 '필요함' 이상의 높은 지지를 보였음

○ 7점 척도 기준 전체 평균 점수는 5.63점으로 매우 높게 형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매우 필요함'이 33.3%(10명)로 가장 많았고, '필요함' 30.0%(9명), '보통' 16.7%(5명)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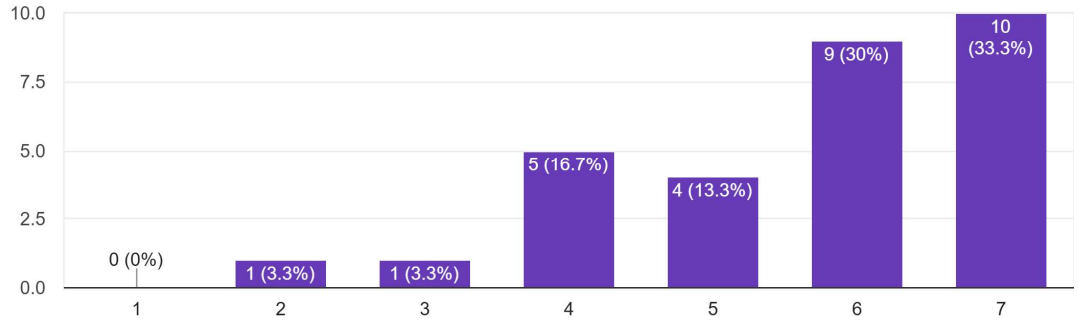
○ 반면 '불필요함' 계열의 응답(1~3점)은 총 6.6%(2명)에 불과하여, 문화예술 정책의 과학화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타 산업 지표와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 그룹의 인식이 매우 공고함을 확인하였음

○ 문화예술 통계의 타 분야 연계 분석 필요성이 5.63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도출된 것은, 예술 정책의 논리적 근거를 더 이상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거시 경제 및 사회 지표라는 '보편적 행정 언어'로 입증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함

○ 이는 증거 기반 정책(EBPM)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이 국가 경제성장이나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화된 수치로 증명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향후 통계 설계 시 국가데이터처의 표준 분류 체계를 준수하여 타 산업과의 직접 비교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예산 확보와 정책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전략적 자산이 될 것임을 뒷받침함

[그림 3-16] 타 분야 통계와의 연계 및 분석 필요성



[표 3-16] 타 분야 통계와의 연계 및 분석 필요성

(단위 : 명, %, 점/7점)

	합계	① 매우 불필요함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필요함	평균
전체	(30)	-	1	1	5	4	9	10	5.63
타 분야 통계와의 연계 및 비교 분석	(30)	-	1	1	5	4	9	10	5.63
	(100)	-	3.3	3.3	16.7	13.3	30.0	33.3	-

6) 전문가 신규 개발 제언 (요약)

가) 경제적·산업적 가치 및 지식재산권(IP) 실증

○ 산업화 지표 활성화
- 공연·전시·축제의 티켓 수입 대비 가동률, 자체 수익 대비 외부 재원 마련 비중(재정자립도) 등 산업적 관점의 지표 도입

○ 지역별 경제 데이터 비교
- 지역별 문화예술 조부가가치(GVA) 및 매출 규모에 대한 데이터 비교 분석 체계 구축

○ 저작권 통계 고도화
- 저작권법에 대한 현장 인식, 저작권료 수익 정산 실태, IP 관련 침해 및 분쟁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마련

○ 시장 실태 파악 범위 확대
- 주요 공연장 위주의 통계에서 벗어나 민간 및 소규모 공연장 데이터까지 포괄하여 기초예술 시장 활성화 지원

나) 예술인 노동 실태 및 고용 안전망 진단

○ 실질 소득 및 고용 형태 구체화
-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예술활동 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연간 실질 소득' 및 전업·겸업·부업(N잡러)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

○ 사회안전망 효과 측정
- 문화예술 투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함께 예술인 안전망 구축이 미치는 영향력 실증

다) 사회적 가치 및 지역 소멸 대응 지표

○ 다차원적 사회성 측정
- 문화예술 활동이 국민의 심리적·사회적 안녕에 미치는 성과 지표 개발

○ 지역 문화 활력 지표
- 문화지표를 활용한 '소멸지수' 개발 및 접근성 격차에 가중치(이동 비용, 시간, 노력 등)를 반영한 실질 격차 측정

○ 미래 세대 참여율
- 초·중·고 학생들의 예술 프로그램 직접 참여 횟수 및 참여율 통계화

라) 통계 인프라 고도화 및 방법론 혁신

○ 종단 데이터(Longitudinal Data) 구축
- 문화예술의 장기적 효과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횡단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한 시계열 패널 데이터 구축(증거 기반 정책 EBPM 강화)

○ 통계 체계의 표준화
- 신규 개발에 앞서 공공기관 및 지역 문화재단 간 상이한 분류 체계와 장르 정의를 국가 수준에서 표준화하는 작업 선행

○ 데이터 거버넌스 효율화
- AI 챗봇 서비스 도입 등 이용자 접근성 제고 및 유의미하지 않은 통계 항목의 과감한 중단과 교체(지속성 판단 프로세스 도입)

마) 장르 특수성 및 생태계 모니터링

○ 문학 분야 아카이빙 고도화
- 단행본 출간 전 문예지 발표 작품 현황 누적 및 소급 아카이빙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활용성 제고

○ 순수예술 보호 지표
- 비상업적 영역의 쇠퇴를 감시하기 위한 '미니멈 바이탈 라인(최소 기준점)' 기반의 모니터링 항목 개발

○ 디지털 및 융복합 대응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융복합 예술 활동 지표의 세분화 및 K-컬처 지원 확대에 따른 순수예술 영향 분석

7) 시사점

○ 신규 통계 개발 제언의 핵심 시사점은 문화예술 통계의 역할을 '단순 현황 집계'에서 '전략적 가치 입증'으로 완전히 재정의해야 한다는 것임

○ 특히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종단 데이터(Longitudinal Data) 구축과 지역 소멸 대응 지표는 문화예술이 국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핵심 변수임을 입증하려는 전략적 시도임

○ 이는 향후 신규 통계 개발 시 경제성장률이나 고용 지표와 같은 거시 지표와 직접 비교 가능한 '하이브리드 지표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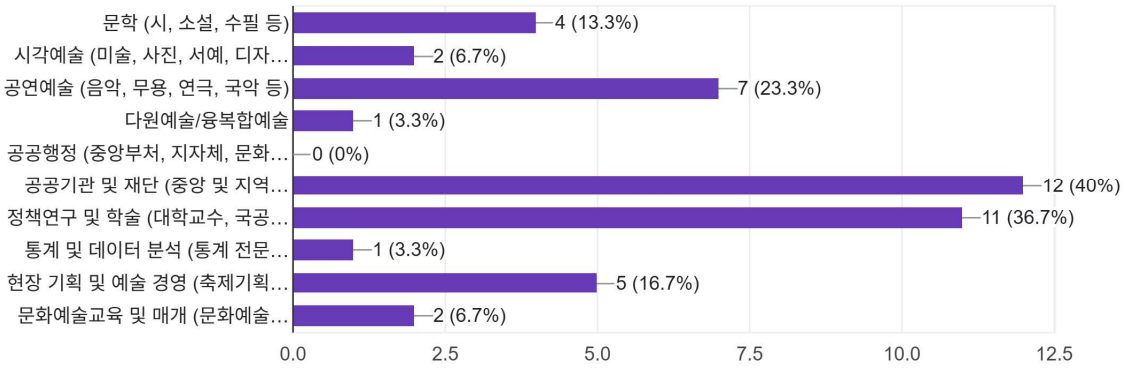
○ 결과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고도화는 예술 지원의 논리를 '시혜'에서 '투자'로 전환시키고, 예산 확보를 위한 가장 강력한 객관적 근거가 될 것임

마. 응답자 특성

1) 세부 전문 분야 (복수 응답 가능)

○ 전문가들의 세부 전공은 '공공기관 및 재단 실무(40.0%)'와 '정책연구(36.7%)'에 집중되어 있음

[그림 3-17] 응답자 특성 - 세부 전문 분야



[표 3-17] 응답자 특성 - 세부 전문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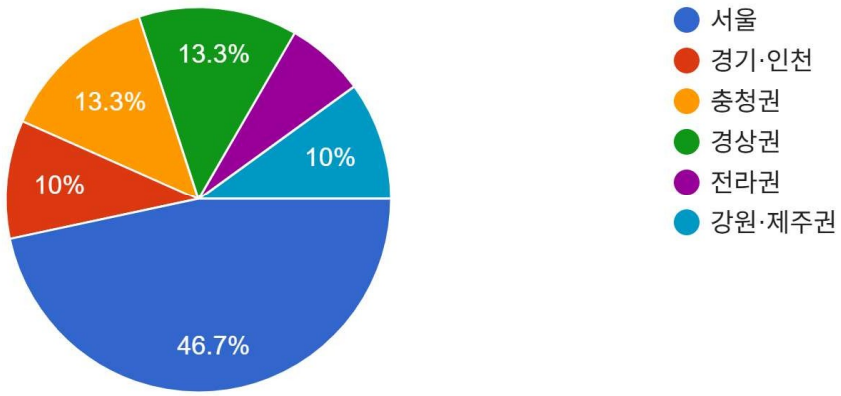
(N=30, 단위 : 명, %, 복수응답)

		응답자수	
전체		45	100
응답자 5세부 전문 분야	문학 (시, 소설, 수필 등)	4	13.3
	시각예술 (미술, 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등)	2	6.7
	공연예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7	23.3
	다원예술/융복합예술	1	3.3
	공공행정 (중앙부처, 지자체, 문화 관련 부서 공무원 등)	-	-
	공공기관 및 재단 (중앙 및 지역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등 공공 기구 실무자)	12	40.0
	정책연구 및 학술 (대학교수, 국공립·민간 연구소 연구원 등)	11	36.7
	통계 및 데이터 분석 (통계 전문 기관, 데이터분석가 등)	1	3.3
	현장 기획 및 예술 경영 (축제기획자, 공연장·미술관 운영, 민간 기획사 등)	5	16.7
	문화예술교육 및 매개 (문화예술교육사, 아르떼 관련 활동가 등)	2	6.7

2) 주요 활동 지역

○ 활동 지역은 서울(46.7%)을 중심으로 경기/인천(10%), 충청권(13.3%), 경상권(13.3% - 원문 표기 수치 준수), 전라권(6.7%) 등 전국을 포괄함

[그림 3-18]응답자 특성 - 주요 활동 지역



[표 3-18] 응답자 특성 - 주요 활동 지역

(단위 : 명, %)

		응답자수	
전체		(30)	(100)
응답자 주요 활동 지역	서울	14	46.7
	경기·인천	3	10.0
	충청권	4	13.3
	경상권	5	13.3
	전라권	2	6.7
	강원·제주권	3	10.0

제2절 전문가 자문회의

1. FGI 회의

가. 회의 개요

1) 목적

○ 문화예술 및 통계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통계 신규 개발 및 『문화예술현황조사』 개선 방향성과 방법론 등에 대한 핵심 의제를 논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논의 방식

○ 연구진이 정리한 본 6가지 핵심 의제 정리 자료 및 앞서 실시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토론식의 질문사항 전달 및 의견 제시

- 핵심 의제 (6가지)
  - ① 신규 5대 통계 후보(안)의 적정성
  - ② 현장 수요 기반의 신규 통계 발굴 및 미래지향적 지표 제안
  - ③ 현행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구조적 한계와 정책 소외 경험
  - ④ 온라인·디지털 예술 활동의 정의와 측정 범위
  - ⑤ '전문예술가'와 '취미활동'의 통계적 경계 및 포용 범위
  - ⑥ 전통적 분류체계의 해체와 재구조화

3) 참석자

구 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전문가 패널	곽○○	경기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김○○	숙명여대 문화관광학과 교수
	김○○	연출가, 무용학자
	도○○	문화데이터연구소 대표
	채○○	국가유산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연구수행처	백○○	㈜비욘드리서치 대표이사
	양○○	㈜비욘드리서치 연구위원
	차○○	㈜비욘드리서치 연구원

나. 주요 논의 결과

1) 신규 5대 통계 후보(안)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

가) 주요 내용

○ 신규 5대 통계 후보안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 신규 통계가 문화예술 정책 수립과 현장 지원 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진행

○ 국가통계로서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 통계 생산 과정에서 자료 수집의 현실성, 조사 부담,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기존 통계체계와의 연계성 확보 필요성 논의
  - 신규 통계가 기존 문화예술 통계와 중복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통계체계 전반 속에서의 역할 설정 필요성 제기

나) 연구 시사점

○ 문화예술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통계 지표 발굴 필요

○ 국가통계로서 지속가능한 조사 방식 및 자료 확보 가능성 검토 필요

○ 기존 문화예술 통계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신규 통계 설계 필요

2) 현장 수요 기반의 신규 통계 발굴 및 미래지향적 지표 제안에 관한 논의

가) 주요 내용

○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수요 및 현재 통계상 포착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데이터 필요성 논의

○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계 지표 필요성 제기
  - 기술 변화, 예술활동 방식 변화 등 미래 환경을 고려한 지표 개발 필요성 논의

○ 행정자료 및 다양한 데이터 소스 활용 가능성 검토
  - 조사 기반 통계 외에도 행정자료, 플랫폼 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한 통계 생산 가능성에 대한 의견 제시

나) 연구 시사점

○ 현장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통계 지표 발굴 필요

○ 기존 조사 기반 통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활용 방안 검토

○ 미래 예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장기적 통계 지표 설계 필요

3) 현행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구조적 한계와 정책 소외 경험에 관한 논의

가) 주요 내용

○ 비제도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예술활동의 통계 포착 한계
  - 카페, 거리, 대안공간 등 비공식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현행 조사 체계에서 구조적으로 포착되기 어렵다는 지적
  - 실제 예술활동 규모가 통계상 과소추정될 가능성 제기

○ 비공식 예술활동을 포착하기 위한 조사 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 기존 조사 방식 외에도 온라인 기록, 자가 보고, 플랫폼 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논의됨

나) 연구 시사점

○ 제도권 공간 중심의 기존 조사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조사 범위 재검토 필요

○ 비공식 공간 및 소규모 예술활동을 포착할 수 있는 조사 방식 다각화 검토

○ 문화예술 생태계의 실제 활동 양상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 포착 체계 개선 필요

4) 온라인·디지털 예술 활동의 정의와 측정 범위에 관한 논의

가) 주요 내용

○ 온라인·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예술활동 증가에 대한 인식 공유

○ 온라인 활동의 예술적 가치 및 통계적 포착 필요성 논의

○ 플랫폼 기반 활동의 통계 반영 기준에 대한 논의
  - 유튜브, OTT 등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가운데 전문 예술활동을 어떻게 구분하고 통계적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필요성 제기

○ 온라인 활동을 기존 오프라인 중심 통계체계에 포함하는 방식 검토 필요

나) 연구 시사점

○ 온라인 및 디지털 기반 예술 활동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지표 개발

○ 플랫폼 기반 창작활동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오프라인 중심 통계체계를 보완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조사 체계 검토 필요

5) ‘전문예술가’와 ‘취미활동’의 통계적 경계 및 포용 범위에 관한 논의

가) 주요 내용

○ 전문 예술활동과 취미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의 필요성 제기

○ 기존 제도 중심 기준 및 제도권 밖 예술가 포착의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

- 예술활동증명 등 제도적 자격 여부만으로 예술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
- 제도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예술가들이 통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 제기

○ 실질적 활동 기준을 고려한 통계 설계 필요성 제기

- 창작물 생산, 공연·전시 활동 등 실제 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통계 포착 방식 필요

나) 연구 시사점

○ 전문 예술활동을 식별할 수 있는 통계적 기준 재검토 필요

○ 제도적 자격 여부 외 실제 활동 기반의 예술활동 판단 기준 검토

○ 독립예술가 및 비제도권 예술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통계 설계 방향 모색

6) 전통적 분류체계의 해체와 재구조화에 관한 논의

가) 주요 내용

○ 기존의 장르 중심 전통적 분류체계의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

○ 융복합 예술 증가에 따른 분류체계 재검토 필요성 논의

○ ‘혼합’ 범주 사용의 한계 지적

○ 디지털 기반 창작, 융복합 예술 등 새로운 예술활동 유형을 반영할 수 있는 분류체계 필요성 제기

나) 연구 시사점

○ 현행 장르 중심 문화예술 분류체계의 재검토 필요

○ 융복합 예술 및 새로운 창작 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분류 기준 모색

○ 정책 및 통계 활용을 고려한 유연한 문화예술 분류체계 설계 필요

다. 종합 시사점 정리

1) 문화예술 통계의 확장적 접근 필요

○ 기존의 활동 규모 중심 통계에서 벗어나 예술가의 창작 환경, 활동 지속성, 소득 구조 등 보다 구조적인 요소를 반영할 필요

○ 문화예술 활동이 사회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확장된 관점의 지표 개발 필요

2) 변화하는 예술 활동 방식 반영

○ 플랫폼 기반 창작 활동, 프로젝트 단위 협업, 다중 직업 구조 등 최근 예술 활동 방식 변화를 반영한 통계 설계 필요

○ 기존 통계 체계에서 포착되지 않는 새로운 활동 유형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

3) 조사 대상 범위 및 조사 구조 개선

○ 제도권 중심 조사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 예술가 및 비제도권 활동 예술가를 포괄할 수 있는 조사 설계 검토 필요

○ 다양한 예술 활동 참여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 범위 재검토 필요

4) 디지털 기반 예술 활동

○ 온라인 공연, 디지털 콘텐츠 창작 등 디지털 기반 예술 활동을 통계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 플랫폼 기반 창작 활동을 반영한 새로운 측정 지표 검토 필요

5) 문화예술 통계 분류 체계 개선

○ 장르 중심의 전통적 분류 체계를 보완하고 융합형 예술 활동을 반영할 수 있는 분류 체계 재구조화 필요

○ 실제 문화예술 현장의 활동 구조를 반영한 유연한 분류 기준 검토 필요

2. 통계 전문가 자문회의

가. 회의 개요

1) 목적

○ 국내 통계 분야 권위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통계 신규 개발 및 『문화예술현황조사』 개선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론 등 핵심 의제를 논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논의 방식

○ 연구진이 정리한 본 6가지 핵심 의제와 그에 관한 질문사항 전달 및 의견 제시

○ 핵심 의제 (6가지)

- 1) 신규 5대 통계 과제 선정 논리 및 적정성
- 2) UNESCO FCS 및 국가표준 매핑 로직의 무결성
- 3) 다기관 데이터 고유 식별자 및 거버넌스 체계
- 4) 문화위성계정 연동을 위한 거시-미시 매핑 로직
- 5) 신유형 예술노동 측정 프레임워크 설계
- 6) C-R 모델 기반 모집단 확대 및 온라인 반영

3) 참석자

구 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전문가 패널	한○○	한신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연구주관기관	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조정팀
연구수행처	백○○	㈜비욘드리서치 대표이사
	양○○	㈜비욘드리서치 연구위원
	차○○	㈜비욘드리서치 연구원

나. 주요 회의 내용

1) 신규 5대 통계 과제 선정 논리 및 적정성

○ (통계 범위의 타당성) 신규 문화예술 통계는 포괄성보다는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범위 설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신규 통계 구축 시에는 핵심 영역(Core) 중심으로 우선 설계하고, 초기 단계에서 신뢰성과 활용성을 확보한 이후 점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의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조사 대상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등록 예술인 또는 제도권 내 단체를 기준으로 한 조사 방식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됨

○ (문화예술 무역 및 저작권 수출입 통계) 국제 교류 및 문화예술 무역 통계는 개념과 범위 설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됨
○ (예술인 노동시장 및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플랫폼 노동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개념이 모호하여 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웹툰·영상·공연 등 플랫폼 기반 예술 활동뿐 아니라 방송·영화 분야의 단기·비정형 노동까지 포함될 수 있어 조사 범위 설정의 어려움이 언급됨
○ 초기에는 음악·미술·무용 등 비교적 정의가 명확한 영역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 제시
○ (콘텐츠산업 통계와 기초예술 통계 간 중복성 배제) 콘텐츠산업과 문화예술 영역은 산업·장르·기술 기준이 중첩되면서 동일 활동이 여러 통계에 중복 집계될 가능성을 지적
○ 동일 콘텐츠의 반복 활용(공연, 해외투어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중복 집계가 아닌 확산·재생산 구조로 이해하고 통계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언급됨
○ 문화예술을 단순 소비 영역이 아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영역으로 설명하기 위해 관련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2) UNESCO FCS 및 국가표준 매핑 로직의 무결성

○ 문화예술 산업 규모를 계정 형태의 통계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정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며,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기존 통계체계는 개별 영역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융복합 콘텐츠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 설명
○ 중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산출물(최종 결과물) 중심으로 통계를 설계하고, 생산·유통·활용 단계별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3) 다기관 데이터 고유 식별자 및 거버넌스 체계

○ (고유식별자 'CA-ID' 제안 관련)다기관 데이터 통합을 위해서는 분야, 지역, 시점 등 주요 속성을 반영한 고유식별자 체계 설계 필요성이 제기됨
○ 고유식별자는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하기보다는 적정 수준의 간결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체계 설계는 단일 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기반으로 추진할 필요성 강조
○ 데이터 통합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명처리, 해시 등) 적용 필요

4) 문화위성계정 연동을 위한 거시-미시 매핑 로직

○ 문화위성계정(CSA)은 문화예술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을 계량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통계 체계로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제시
○ 예술활동에 활용되는 장비·악기 등은 반복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수명 및 감가상각 기준 설정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적용 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됨
○ 세부 항목을 과도하게 세분화하기보다는 통계 정확성과 응답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세립도 설정이 중요하다는 의견 제시

○ 조사 설계 시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 등 핵심 비용 항목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의견 제시
○ 일부 세부 항목은 '기타' 등으로 처리하여 전체 규모 파악을 우선하는 방식도 고려 가능하다는 점이 언급됨

5) 신유형 예술노동 측정 프레임워크 설계

○ 예술 노동 측정 시 기존 취업시간 개념을 기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창작 준비시간 등을 별도 노동시간으로 분리하는 방식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새로운 개념 도입 시에는 기존 통계와의 비교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 플랫폼·긱 기반 예술 노동은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측정 기준 설정 자체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됨
○ 다중 직업(N잡러) 종사자의 경우 주된 경제활동과 부차적 활동 간 경계 설정이 필요하나,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
○ 데이터 편향 문제에 대해서는 가중치 적용 등 통계적 보정 방식 활용 필요성이 언급됨

6) C-R 모델 기반 모집단 확대 및 온라인 반영

○ CR모델은 모집단 추정 및 누락 보완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며, 적용 자체는 비교적 어렵지 않다는 의견 제시
○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나 복잡한 기법보다는 검증된 기본적인 통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강조됨
○ 초기 표본 설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표본 설계 단계에서의 신중한 접근 필요성 언급

다. 종합 시사점 정리

○ 신규 문화예술 통계는 포괄적 범위 설정보다 정책 활용 가능성과 측정 가능성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설계할 필요

○ 통계 구축 시 초기 단계에서는 핵심 영역(Core) 중심으로 설계하고, 신뢰성 확보 이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 필요

○ 기존 통계와의 중복 및 정합성 문제를 고려하여 신규 통계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

○ 콘텐츠·기술·장르 간 융복합 증가에 따라 최종 산출물 중심 및 단계별(생산·유통·활용) 접근을 통한 중복 최소화 필요

○ 플랫폼·긱 기반 예술노동 등 신유형 영역은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기존 통계 기준과의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한 설계 필요

○ 다기관 데이터 연계를 위해 간결하고 확장 가능한 고유식별자 체계와 기관 간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

○ 문화예술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통계 방법론 적용 및 데이터 품질 관리(결측 보정, 편향 보정 등) 필요

○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와 부가가치 창출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문화위성계정 등 거시 통계체계와의 연계 필요

제4장

문화예술 신규 통계 과제 도출 및 타당성 분석

제1절 통계 관점에서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할과 책임

1. 개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을 이끄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문화예술 통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수치를 집계하는 조직 이상의 국가적 데이터 거버넌스 중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또한 단순히 숫자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문화예술의 가치를 숫자의 언어로 번역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예술가에게는 권익을, 국민에게는 고른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지식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증거 기반 정책(EBPM)이 강조되는 현대 행정 환경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 책임을 5가지 주요 관점에서 정리함

2. 5대 주요 관점별 핵심 기능

가. 정책적 관점 : 증거 기반 행정(EBPM)의 내실화 및 정책 정당성 확보

○ 문화예술 정책이 '직관'이나 '관례적 배분'에서 탈피하여,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설계·집행·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제고함

○ 통계를 정책의 '부속물'이 아닌, 예산 확보와 사업 타당성 증명의 '전략적 엔진'으로 격상시켜 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 주도권을 강화함

- 정책적 정당성 입증 및 예산 논리 개발
  - 국가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화예술 지원이 단순한 '소모성 비용'이 아닌 '사회적 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밀한 근거를 마련함
  -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설득을 위해 투입 대비 성과(ROI), 사회적 편익 분석 등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시각화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확보함
- 전략적 자원 배분 및 정책 타겟팅 최적화
  - 장르별·지역별·대상별 통계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와 과밀 지역을 사전에 식별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함
  - 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을 통해 시급성이 높은 분야에 자원을 우선 배치하고, 정책 수혜자의 특성에 맞춘 '핀셋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 체감도를 극대화함
- 정책 성과 환류 및 책임 행정 구현
  - 사업 집행 후의 단순 실적 집계를 넘어,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사후 영향 평가(Impact Evaluation)를 실시하여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측정함
  - 분석된 결과를 차기 계획 수립에 즉각 반영하는 선순환 환류(Feedback)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완수함

나. 사회경제적 관점 : 문화예술의 다차원적 가치 실증 및 위상 격상

○ 문화예술을 '소비'나 '시혜'의 대상이 아닌, 산업·사회·국가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다차원적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함

○ 단순한 재정 투입 대상을 넘어, 경제적 부가가치(시장), 시민의 삶의 질(공공), 국가적 자부심(상징)을 생산하는 핵심 동력으로 통계적 위상을 정립함

- 산업적 가치 : 경제적 기여도 산출
  - 문화위성계정(CSA) 등을 통해 문화예술이 GDP에 미치는 직접적 기여도,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를 정밀하게 계량화함

> * 문화위성계정(CSA, Culture Satellite Account 文化衛星計定)
> - 국가 전체의 경제 활동을 기록하는 국민계정체계(SNA)의 틀 안에서, '문화'라는 특정 분야의 경제적 기여도를 정교하게 산출하기 위해 구축된 보조 계정임
> - 기존의 일반 경제 통계로는 파악하기 힘든 문화예술 분야의 생산, 소비, 고용 현황을 가시화하여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 공공적 가치 : 사회적 성과(SROI) 환산
  - 예술 향유가 가져오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사회적 고립 해소, 지역사회 결속력 강화 등 무형의 성과를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 관점에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함
  - 예술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료비, 범죄 예방비 등) 절감 효과를 데이터로 증명하여, 예술 지원이 '사회적 투자'임을 입증함
- 상징적 가치 : 국가 브랜드 및 존재 가치 측정
  -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등을 활용하여 우리 예술이 국가 브랜드와 정체성 확립에 미치는 '상징적 가치'와 국민들이 느끼는 '자부심의 화폐 가치'를 산출함
  - 시장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으나 국가의 품격과 미래 세대의 유산으로서 지니는 예술의 '존재 가치'를 통계적으로 가시화함
- 전략적 가치 : 민간 재원 유입의 근거 마련
  - 기부, 후원, 메세나 통계와 사회적 가치 지표를 연계하여, 기업과 개인이 문화예술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미지 제고' 및 '사회적 영향력(Impact)'을 데이터로 증명함
  - 이를 통해 민간 자본이 문화예술계로 자발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시장의 투명성과 매력도를 확보할 책임이 있음

다. 복지적 관점 : 예술 노동의 특수성 인정 및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

○ 예술가 개인의 고용 형태를 넘어, 예술 노동만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생애 전반에 걸친 직업적 취약성을 통계적으로 포착하여 제도적 보호를 실현함

○ '복지'를 단순히 취약 계층 지원이 아닌, 예술가의 '직업적 존엄성 유지'와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재정의함

- 예술 노동의 특수성 및 가치 공식화
  -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창작 준비기간(R&D), 연습, 연구 활동 등을 정당한 노동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계적 근거를 마련함
  - 플랫폼 노동이나 프리랜서는 물론, 전업 예술가들이 겪는 '불규칙한 소득 주기'와 '노동의 단절성'을 수치화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및 맞춤형 금융 복지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 생애주기별 직업 안정성 확보)
  - 경력 진입기(청년)의 고립, 활동기(중견)의 번아웃, 은퇴기(원로)의 빈곤 등 예술가의 생애단계별로 나타나는 경제적·심리적 위기 지점을 발굴함
  - 특히 노령 예술가의 전직 및 은근한 퇴장(Exit)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통계화하여, 예술가의 '전 생애 창작 안전망' 구축의 당위성을 제시함
- 창작 환경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저작권 침해, 수익 배분의 불투명성 등을 전수 조사하여 예술가의 '노동 주권'을 보호함
  - 직업병, 심리적 고립감, 창작 스트레스 등 예술 노동 특유의 건강 및 안전 지표를 개발하여, 육체적·정신적 안녕을 포괄하는 현대적 복지 정책의 근거를 마련함

라. 공간적 관점 : 지역 문화 생태계 복원 및 균형적 문화 생활권 보장

○ 지방 소멸 위기 국면에서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이 누리는 예술'을 실현하기 위해, 공간 기반의 다각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계적 책무를 다함

○ 문화 인프라를 단순한 건축적 '시설'이 아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고 인구 유출을 막는 '정주 여건의 핵심 변수'로 설정하여 그 사회적 기능을 데이터로 입증함

- 실질적·다차원적 문화 접근성 정밀 진단
  - 단순히 인구 대비 시설 수를 세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제 이동 시간, 교통 인프라, 심리적 장벽 등을 지리정보시스템(GIS) 및 유동 인구 데이터와 결합하여 분석함
  - 이를 통해 도심과 외곽 간의 '문화 소외 지역'을 핀셋처럼 정교하게 식별하고, 지역별 문화 결핍 지수(Cultural Deprivation Index)를 개발하여 국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함
- 문화 생활권 SOC의 효용성 및 정주 여건 기여도 분석)

- 문화예술 인프라가 지역 주민의 정주 의향,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문화 시설이 단순한 취미 공간이 아닌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SOC'임을 증명함
- 지자체가 지역별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춰 최적의 문화 서비스 모델(모바일 갤러리, 유휴 공간 재생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공간 효율성 가이드라인을 통계적으로 제시함

- 지역 예술가 정주 및 생태계 자생력 지표 개발)
  - 향유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이 지역에 머물며 활동할 수 있는 기반(작업 공간, 협업 네트워크, 지역 시장 규모 등)이 갖춰졌는지를 측정함
  -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예술 활동이 결합하여 창출되는 '장소 애착심'과 '지역 정체성 가치'를 통계화하여,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문화적 처방전의 핵심 데이터를 제공함

마. 글로벌 및 기술적 관점 : 국가 통계의 표준화와 데이터 주권 확보

○ 우리나라 문화예술 통계의 수준을 세계적으로 격상시키고, 미래 지향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관리하는 책임임
- (국제 표준과의 부합) 유네스코(UNESCO)나 OECD 등 국제기구의 기준에 맞는 통계 체계를 구축하여 K-컬처의 위상에 걸맞은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높여야 함
- (데이터 거버넌스 주도) 국세청, 관세청,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등 흩어진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고 관리하는 '문화예술 데이터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

○ K-컬처의 글로벌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 표준 통계 체계를 정립하고, 분절된 문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지능형 데이터 허브'로서의 기술적 리더십을 발휘함

○ 통계를 '과거의 기록'에서 '미래의 예측'으로 진화시키며,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Soft Power)을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객관적 수치로 증명함
- 국제 표준 선도 및 글로벌 데이터 주권 확보)
  - 유네스코(UNESC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기준과 부합하는 지표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극대화함
  - 단순히 국제 기준을 따르는 것을 넘어,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된 통계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여 'K-컬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문화 정책의 담론을 주도함
-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주도 및 허브 기능 강화)
  - 국세청(사업자/소득), 관세청(수출입),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등 부처별로 산재한 행정 데이터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여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함
  - 민간의 신용카드 결제 정보, 통신사 유동 인구, SNS 빅데이터 등과 연계한 '문화예술 데이터 댐(Data Dam)'을 구축하여, 다차원적 분석이 가능한 국가적 데이터 허브 역할을 수행함
- 기술 고도화를 통한 통계의 적시성 및 예측력 제고)
  - 전통적인 설문 중심의 사후 통계를 넘어, AI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Real-time Analytics) 체계를 도입하여 정책 현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민첩한 통계 시스템을 마련함
  -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통해 연구자, 기업, 국민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여 통계의 사회적 활용 가치를 극대화함

3. 기능 강화 및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추가 제안

가. AI 예술 거버넌스 및 데이터 리더십 선도

○ 내용

- AI 예술의 다차원적 범주화 및 통계 표준 정립
  - AI가 단순 도구(Tool)를 넘어 창작의 파트너(Partner)로 진화하는 흐름을 반영하여, 'AI 보조 예술'과 'AI 생성 예술'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국가 통계 체계 내에 공식적으로 분류·편입함
- 기술-인간 융합 가치 측정 모델 개발
  -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대해 **인간의 창의적 개입 정도(Human-in-the-loop)**를 측정할 수 있는 가중치 지표를 개발하여, 기술 융합 예술의 질적·양적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함
- 미래 예술 생태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AI 도입에 따른 예술가들의 직무 변화, 새로운 창작 비용 구조, 플랫폼 유통 실태 등을 실시간 데이터로 추적하여, 기술 격차로 인한 소외 계층(디지털 격차) 방지 및 선제적 창작 지원의 토대를 마련함

○ 목적

- 예술적 가치와 창작자 권익의 균형점 마련
  - AI 기술이 창작자를 대체하는 위협이 아닌 확장된 표현 도구로 기능하도록 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술 변화 속에서 인간 예술가의 독창적 가치와 권익을 보호함
- 데이터 기반의 미래형 지원 정책 설계
  - AI 예술 활동 및 기술 융합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급변하는 창작 트렌드에 맞는 유연한 지원 예산 편성과 맞춤형 사업 기획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함
- 윤리적·사회적 책임이 담긴 지원 표준 수립
  -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AI 예술 사업의 윤리적 기준과 투명한 성과 측정 모델을 제시하여, 신기술 예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함

나. 다문화 공존 시대의 '문화적 시민권' 실현 및 외국인 실태 가시화

○ 내용

- 외국인 문화 향유 및 창작 실태의 통계적 편입
  -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아 단순 거주자가 아닌 '문화적 주체'로 전제하고, 이들의 문화예술 관람·창작·참여 행태를 정규 통계 영역으로 끌어들여 데이터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 지역별·국적별 문화 클러스터 분석
  -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독특한 문화 소비 패턴과 커뮤니티 예술 활동을 조사하여, '로컬 다문화 생태계'의 실질적인 규모와 영향력을 파악함
- 예술 현장 내 외국인 종사자 및 협업 실태 조사
  - 국내 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예술가와 기술 인력의 노동 환경을 조사하여, 우리 예술계의 글로벌 개방성과 인적 자원의 다양성 수준을 진단함

○ 목적

- ‘문화적 경제 주체’로서의 위상 정립 및 시장 확대
  - 외국인을 단순 지원 대상(복지)이 아닌 적극적인 문화 소비자로 인식하고, 이들의 취향과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문화 시장 창출 및 지역 상권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함
- 지역 소멸 대응 및 사회 통합의 동력 확보
  -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상주 외국인의 문화적 정착과 소속감을 높여 지역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갈등 비용 절감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함
- 국가 간 상호주의(Reciprocity) 기반의 데이터 외교 실현
  - ‘우리 안의 타자’를 존중하는 정교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해외로 진출한 우리 국민(재외동포)의 문화적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상호주의적 문화 외교의 논리적 기반을 구축함

다. 지역 소멸 대응형 ‘적정 규모(Right-sizing)’ 관리 및 회복력 통계

○ 내용

- 인구 역성장 단계별 문화 활력 모니터링
  - 인구 감소를 단순한 '위기'가 아닌 '상태의 변화'로 수용하고, 인구 하락 곡선에 따른 지역 문화 활력도(Cultural Vitality)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관찰함
- 방문·체류 기반의 ‘관계 인구’ 문화 실태 조사
  - 정주 인구(Resident) 수치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을 방문하고 체류하는 ‘생활 인구’의 이동 패턴과 소비 데이터를 GIS(지리정보시스템)와 결합하여 분석함
- 유휴 공간의 문화적 전용(Upcycling) 및 기능 진단
  - 인구 감소로 비어가는 공간(폐교, 유휴 공공시설 등)의 물리적 현황을 넘어, 이를 예술가 창작 거점이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했을 때의 공간 재생 효율성을 데이터화함

○ 목적

- ‘품격 있는 축소(Dignified Shrinkage)’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무분별한 신규 시설 건립 대신, 남겨진 인구 구조에 최적화된 '콤팩트 및 네트워크(Compact & Network)' 방식의 문화 SOC 재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비용의 낭비를 방지함
- 지역 소멸 저지선으로서의 ‘최소 문화 기준’ 설정
  - 인구가 급감하더라도 해당 지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 서비스의 최소 임계치를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의 당위성을 데이터로 증명함
- 공동체 붕괴 방지 및 사회적 회복력(Resilience) 강화
  - 인구 감소가 지역민의 심리적 고립과 문화적 상실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술 활동을 통한 사회적 연대감과 장소 애착심의 변화를 측정하여 지역 생존을 위한 '정서적 방어선'을 구축함

제2절 신규 통계 개발의 목적 및 기대효과

1. 신규 통계 개발의 배경

가. 데이터 기반 문화 행정 대전환 및 문화예술의 경제적·사회적 위상 재정립

○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체계로의 대전환과 문화예술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에서 시작되었음

○ 이번 신규 통계 개발은 문화예술을 단순한 지원 대상에서 국가 경제의 핵심 영역으로 격상시키고, 실질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예술인의 삶과 현장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 통계 거버넌스의 전면적 혁신 과정이라 할 수 있음

나.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 증거 기반 정책(EBPM)의 가속화

○ 최근 정부는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직관이나 경험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있음

- (EBPM 수요 증대) 각 행정기관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통계를 생산해야 하며, 문화예술 분야 역시 이러한 '지식 기반 행정'의 예외가 될 수 없음

  * EBPM(Evidence-Based Policy Making)

  • '증거기반 정책 결정'으로 직관이나 관습, 정치적 압력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 결과(증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 집행, 평가하는 체계를 의미함

- (데이터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 정책이 국가 전략산업 및 사회복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기초자료로서의 통계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임

다. 문화예술 분야 기초 통계의 '절대적 부족' 및 '불균형'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국가승인통계는 총 24종에 달하지만, 정작 순수 문화예술을 정교하게 포착하는 데이터는 매우 미비함

- (통계의 편중성) 기존 24종 중 17종이 문화·여가 통계에 해당하나, 대부분 산업·서비스·여가 차원에 집중되어 있음

- (데이터 공백 지대) 순수 문화예술 활동, 예술인 노동 환경, 문화시설 운영 실태 등 정책을 직접적으로 견인할 기초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정책 집행의 근거가 취약한 현실임

라. 현행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구조적 한계와 고도화 필요성

○ 문예위가 생산하는 유일한 국가승인통계인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승인번호 제433001호)는 2016년 승인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다음과 같은 한계에 봉착했음

- (조사 방식의 한계) '인터넷 검색 및 행정 조사 병행' 방식은 소규모 민간 공간이나 비표준 활동을 누락시키거나 과소 계상할 위험이 큼
- (시대 부합성 부족) 현행 3대 분야(문학·시각·공연) 체계로는 최근 급증하는 융복합 예술, 디지털 창작(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 활동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 (외부 데이터 연계 미흡) KOPIS(공연전산망), ISBN(출판) 등 신뢰도 높은 행정 데이터와의 연계 시스템이 부재하여 통계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마. 타 분야(경제·사회·산업) 통계와의 비교·연계성 확보

○ 문화예술이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통계와 동일한 수준의 계량적 분석이 가능해야 함

- (경제적 기여도 측정 불가) 현재의 활동 건수 중심 지표로는 부가가치,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문화위성계정(CSA)' 수준의 거시 지표 도출이 불가능함
- (노동시장 분석의 한계)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조사와 달리, 예술인의 특수한 노동 형태(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N잡러)를 정밀하게 추적하는 패널 조사가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바. 문예위 법정 업무 수행을 위한 전략적 인프라 구축

○ 문예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용도) 및 제30조(위원회의 직무), 정관 제4조(사업)에 따라 창작 진흥, 예술인 복지, 재원 확충 등의 의무를 지님

- (법정 사업의 실무적 뒷받침) 국제 경쟁력 제고, 민간 재원(기부·메세나) 활성화 등 위원회의 핵심 업무와 직결되는 독자적인 통계 체계를 구축하여 기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
- (정책 환류 시스템 완성) 통계 개발을 통해 얻어진 양질의 데이터(MDIS, API 제공)를 학계와 산업계에 개방하여 정책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임

[표 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정 업무 수행 관련 법규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 · 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 ·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 · 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30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 · 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 · 연구 ·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 ·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4조(사업)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 개발 및 교육 · 연수 사업이나 활동
3. 민족전통문화의 보존 ·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4.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법 제4조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재단법인과의 협의 ·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의 교류 사업이나 활동
6.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7.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증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8. 문화예술 재원의 확충 및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이나 활동
9. 공공미술(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미술 작품을 설치 ·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진흥을 위한 사업
10.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시설의 설치 · 운영

2. 신규 통계 개발의 목적

가. 증거 기반 정책(EBPM)의 실현 및 정책 정당성 확보

○ 문화예술 정책이 관행적 배분에서 벗어나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설계·집행·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임

- (의사결정의 과학화) 정책 입안부터 예산 편성, 성과 평가의 전 과정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함
- (전략적 자원 배분의 근거 마련) 한정된 공공 재원을 시급성이 높은 장르나 지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량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예산 확보의 정당성을 증명함
- (정책 효과의 임팩트 측정) 지원 사업 이후의 산업적·사회적 변화를 추적하여 단순 실적 집계가 아닌 실질적 영향력을 진단하고 이를 차기 정책에 환류(Feedback)함

나. 문화예술의 다차원적 가치 실증 및 산업적 위상 정립

○ 예술을 '소비적 복지'가 아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 전략 산업'으로 재정의하고, 타 산업 통계와 대등한 층위에서 비교 가능한 계량 데이터를 산출함

- (거시적 위상 및 시장 가치 산출) 문화위성계정(CSA) 등을 활용해 GDP 기여도(GVA)와 고용 유발 효과를 정밀 계량화하여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함
- (공공 및 상징 가치 가시화)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과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도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 브랜드 제고 등 예술 본연의 무형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환산함
-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증명) 국내 생산, 해외 거래(수출·저작권), 민간 재원(기부·메세나)을 아우르는 데이터 맵을 구축하여 예술 생태계의 선순환과 자생적 투자 유입의 근거를 마련함

다. 노동의 특수성 포착 및 지역 소멸 대응형 복지·공간 전략 수립

○ 기존 통계의 사각지대였던 예술 노동의 고유성과 지역 인구 구조의 변화를 포착하여 실효성 있는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설계함

- (예술 노동의 실재성 인정) 연습·준비 시간 등 '비가시적 노동'과 N잡러·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실태를 통계화하여 예술인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 및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제공함
- (적정 규모 생활권 진단) 정주 인구 외에 '관계 인구'를 포함한 문화 향유 실태와 GIS 기반의 접근성을 분석하여, 인구 감소 시대에 최적화된 문화 SOC 재배치 가이드를 제시함
- (문화 다양성 지표 확대) 상주 외국인 등 '문화적 경제 주체'의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다양성에 기반한 미래 지향적 지역 문화 자치 전략을 지원함

라. 지능형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및 글로벌 리더십 선도

○ 문예위가 생산하는 국가 통계의 품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하고 미래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글로벌 데이터 리더십을 확보함

- (데이터 연계 및 행정 시너지) KOPIS, 국세청, 관세청 등 분절된 행정 데이터를 연계한 '문화예술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여 조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함
- (글로벌 표준 및 AI 거버넌스 선점)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AI 생성 예술의 분류와 가치 측정 기준을 마련하여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창작자의 주권을 보호함
- (지식 생태계 개방 및 활성화) 고품질 마이크로데이터(MD)를 민간과 학계에 개방하여 데이터 기반의 연구와 신산업 창출을 독려하고, 대한민국의 문화 통계 주권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함

[표 4-2] 문화예술 신규 통계 개발의 지향점

구분	주요 목적	기대 효과
행정	과학적 행정(EBPM)	정책 오류 최소화 및 예산 집행 효율화
경제	가치 입증	문화위성계정(CSA) 구축 및 국가 기여도 증명
복지	사각지대 발굴	플랫폼 노동 보호 및 지역 격차 완화
기술	통계 고도화	행정 데이터 연계 및 시계열 신뢰성 확보

3. 신규 통계 개발의 기대효과

가. 정책 의사결정의 과학화 및 행정 신뢰도 제고

○ 정책의 기획부터 예산 편성, 집행, 성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이 데이터라는 객관적 준거 위에 놓임으로써 행정의 전문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됨

- (전략적 자원 배분의 최적화) '증거 기반 정책(EBPM)' 체계 확립을 통해 주관적 판단이나 관행적 지원을 탈피하고, 데이터가 가리키는 실질적 수요처와 사각지대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정책 효능감을 극대화함
-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완성)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함으로써 예산 당국과 국회, 국민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투입 대비 성과를 환류(Feedback)하는 책임 행정 모델을 구현함

나. 다차원적 가치 실증을 통한 예술의 산업적 위상 격상

○ 예술을 '소비적 복지'가 아닌 국가의 '생산적 전략 산업'이자 '다차원적 자산'으로 재정의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우선순위를 확보함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의 시각화) 문화위성계정(CSA)을 통한 GDP 기여도(시장 가치)와 SROI·CVM을 통한 사회적 성과(공공·상징 가치)를 통합 제시함으로써, 경제 부처와의 협상에서 예술의 실질적 위상을 당당히 증명함
- (민간 자산 유입의 선순환 토대 마련) 산업 규모와 가치 지표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민간의 후원과 투자가 단순 사회공헌을 넘어 예술의 무형 자산 가치를 향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자 '가치 투자'로 진화하는 계기를 제공함

다. 예술 노동의 실재성 인정 및 전 생애주기별 안전망 구축

○ 전통적 고용 통계로 포착되지 않던 예술 노동의 특수성을 데이터로 공식화하여, 예술가들이 직업적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비가시적 노동의 가치 제도화) 연습, 연구, 창작 준비 등 '보이지 않는 노동 시간'을 데이터화하여 예술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설계의 정교함을 더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인정을 이끌어냄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 청년 예술가의 진입부터 중견의 활동 지속, 원로의 전직 및 은퇴까지 생애단계별 위기 지점을 통계적으로 특정함으로써, 단절 없는 '전 생애 창작 안전망' 구축을 가능케 함

라. 지역 소멸 대응 및 공간 기반의 문화적 회복력 강화

○ 지역별 문화 인프라의 실질적 접근성과 지역민의 체감도를 개선하여 '어디서나 존엄한 문화적 삶'이 보장되는 균형 발전을 실현함

- (적정 규모 기반의 공간 혁신) GIS 연계 분석을 통해 인구 감소 시대에 최적화된 문화 SOC 재배치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품격 있는 축소'를 통한 행정 효율성과 지역민의 생활권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함
- (관계 인구 기반의 지역 활력 증명) 정주 인구 외에 예술을 매개로 유입되는 '관계 인구'의 활동 현황을 데이터로 입증하여, 문화예술이 지역 소멸의 저지선이자 지역 재생의 핵심 동력임을 통계적으로 확증함

마. 지능형 거버넌스 확립 및 글로벌 데이터 주권 확보

○ 국가 통계의 품질을 국제 표준 이상으로 격상시켜 'K-컬처'의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데이터 리더십과 주권을 확보함

- (범정부 데이터 시너지 창출) 공공과 민간에 산재한 행정 데이터를 표준화된 체계로 통합하는 '지능형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여, 연구자와 산업계가 양질의 마이크로데이터(MD)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생태계를 조성함
- (글로벌 표준 선점 및 AI 거버넌스 주도) 유네스코, OECD 등 국제기구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AI 생성 예술과 상주 외국인 실태 등 미래 지향적 지표를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국제 무대에서 한국 문화 통계의 표준적 권위를 확립함

[표 4-3] 문화예술 신규 통계 개발의 목적 및 기대효과 (요약)

구분	내용
개발 목적	① 정책: EBPM 실현 및 정당성 확보 (데이터 기반 행정)
	② 경제: 가치 실증 및 산업 위상 정립 (다차원 가치 측정)
	③ 복지: 예술 노동 및 안전망 고도화 (특수성·생애주기 반영)
	④ 공간: 지역 소멸 및 생활권 진단 (적정 규모·접근성)
	⑤ 기술: 데이터 주권 및 AI 선도 (글로벌 표준·AI 거버넌스)
개발 기대효과	① 정책 신뢰: 의사결정 과학화 및 자원 배분 최적화
	② 위상 격상: 예술의 생산적 가치 입증 및 민간 투자 견인
	③ 노동 보호: 비가시적 노동 공식화 및 예술인 복지 혁신
	④ 지역 회복: 맞춤형 SOC 배치 및 관계 인구 기반 지역 활력
	⑤ 글로벌 선도: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통합 및 K-컬처 주권 확보

제3절 국가승인통계의 거버넌스와 체계적 이해

1. 국가승인통계의 본질적 정의 및 제도적 가치

가. 법적 근거와 공적 권위의 확립

○ 국가승인통계(National Approved Statistics)는 단순히 수치화된 자료의 집합을 넘어,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및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에 의거하여 국가적 공신력을 부여받은 '제도적 산물'임

○ 이는 국가데이터처장(구 통계청장)이 각 통계작성기관의 조사 설계, 방법론, 공표 체계의 적절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승인함으로써, 해당 데이터가 국가 의사결정의 공식적인 준거가 될 수 있음을 법적으로 보증하는 체계를 의미임

○ 이러한 승인 제도는 데이터의 범람(Data Deluge)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해내는 국가적 필터링 기제로서 작동하며, 무분별한 통계 생성을 억제하고 국가 통계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국가 인프라로서의 통계적 의의

○ 국가승인통계는 현대 민주주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식 기반 인프라'이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 가치를 지님

-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실현
  - 정치적 직관이나 단편적 경험에 의존하던 과거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탈피하여, 엄밀한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정책 설계 및 성과 평가를 가능하게 함
  - 이는 한정된 국가 재원의 배분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 동력임
- 데이터 정합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등 국가 표준 분류 체계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서로 다른 부처나 기관에서 생산된 통계 간의 비교 분석 및 연계(Data Linkage)를 가능하게 함
  - 이는 융복합 정책 수립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임
-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구축
  - 공표된 통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됨
  - 특히 시계열적 안정성(Time-series consistency) 확보를 통해 사회 변화의 궤적을 객관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미래 예측의 정교함을 더함

2. 국가승인통계의 다각적 분류 및 방법론적 특성

가. 중요도에 따른 전략적 분류: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 통계의 국가적 파급력과 기본권적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지정통계(Designated Statistics)
- 국가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지표로서, 통계청장이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통계임
- 응답자에게 응답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강제성을 지니며, 국가 재정 및 복지 정책의 최상위 준거로 활용됨 (* 예: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등)
- 일반통계(General Statistics)
-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로,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특정 분야의 전문적 정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함
- 문화예술 분야의 「예술인 실태조사」나 「문화향유실태조사」 등이 대표적이며, 해당 산업의 정교한 매핑과 진흥책 마련의 기초가 됨

나. 생성 경로에 따른 방법론적 분류

○ 데이터를 획득하는 소스(Source)와 처리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화됨

- 조사통계(Survey-based Statistics)
- 표본 설계에 기초하여 응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정통적 방식임
- 설문지, 면접, 전화, 온라인 조사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며,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강점이 있음
- 보고통계(Administrative Statistics)
- 신고, 인허가, 등록 등 행정 절차 과정에서 축적된 행정 레코드(Administrative Records)를 활용함
- 조사 비용이 저렴하고 응답 부담이 없으며, 전수 데이터에 가까운 높은 정확도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음
- 최근 '데이터 행정'의 강화와 함께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가공통계(Derived/Analytical Statistics)
- 조사통계나 보고통계 등 기초 데이터를 특정 수식이나 모델링을 통해 재해석한 지표임
- 소비자물가지수, 국내총생산(GDP), 그리고 문화예술의 경제적 파급력을 측정하는 문화유발계수 등이 이에 해당하며, 거시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함

3. 국가승인통계의 관리

○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데이터의 생성부터 대외 공표에 이르는 단계를 조사문항(Survey Items), 집계항목(Tabulation Items), 공표항목(Publication Items)의 3단계로 구조화하여 관리함

가. 조사문항 (Survey Items) : 데이터의 원천(Raw Data) 확보

○ 개념

- 조사문항은 통계 작성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실제 조사 대상자(개인, 가구, 기업 등)에게 직접 질문하여 응답을 추출하는 문항을 의미함

○ 성격

- 현장의 실태를 가감 없이 파악하기 위한 기초 원자료(Raw Data) 수집 도구

○ 특징

-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평이한 언어로 설계되며, 분석의 정밀도를 위해 가급적 세분화된 단위를 사용함

○ 예시

- "귀 기업의 지난 1년간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예술 활동 시 주로 이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나. 집계·분석항목 (Tabulation/Analysis Items) : 데이터의 가공 및 가치 창출

○ 개념

- 기존의 '보고문항'을 통계학적 관점에서 정제한 단계로, 수집된 조사문항들을 일정한 기준(연령, 지역, 산업 분류 등)에 따라 분류·결합하여 의미 있는 통계값으로 산출한 항목임

○ 성격

- 단순 응답 데이터를 정책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보(Information)'로 전환하는 과정

○ 특징

- 내부 연구 보고서나 정책 검토 자료의 핵심 본문을 구성하며, 파생 변수(Derived Variables) 생성이나 가중치 적용이 이뤄지는 단계임

○ 예시

- "장르별/매출 규모별 기업 분포 현황", "플랫폼 이용 유형에 따른 예술인 소득 격차 분석“

다. 공표항목 (Publication Items) : 국가 통계의 공식적 대외 선언

○ 개념

- 공표항목은 집계된 결과 중 국가승인통계의 목적에 부합하고 통계청의 공표 표준(KOSIS 등)에 맞추어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로 확정된 최종 지표를 의미함

○ 성격

- 국민, 언론, 정책 기관 등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

○ 특징

- 통계의 시계열 비교 가능성과 타 통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지표 형식을 갖추며, 보도자료 및 국가통계포털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됨

○ 예시

- "대한민국 문화예술 산업의 총 조부가가치(GVA)", "지역별 문화예술 생활SOC 10분 내 도달률"

[표 4-4] 조사-집계-공표 항목 간 비교 및 관계

구분	조사문항 (Input)	집계·분석항목 (Process	공표항목 (Output)
주체/대상	조사 대상자 (응답자)	통계 작성자 (연구진)	통계 이용자 (국민, 정책가)
주요 목적	원천 데이터의 무결성 확보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분석	공식 지표의 대외 확산
데이터 형태	개별 응답(Raw Data)	교차 분석표, 파생 지표	국가표준 공표 지표(Index)
관리 중점	응답 거부율 최소화, 정확성	분류의 적절성, 분석의 유의성	시계열 비교성, 대외 신뢰성
요약	질문	분석·정리된 결과	최종 발표 지표

4. 국가승인통계의 품질보증 프로세스

○ 신규 통계가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획-신청-심사-공표-환류'에 이르는 엄격한 품질 관리 루프를 통과해야 함

가. 전략적 설계 및 개념 정립 (Planning & Design)

○ 가장 핵심적인 단계로, 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수립함

○ 특히 문화예술과 같이 경계가 모호한 분야에서는 '예술가' 또는 '문화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이 이 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함

나. 엄밀한 심사 및 기술적 협의 (Examination & Consultation)

○ 국가데이커처(구 통계청)은 작성기관이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중복성 여부, 표본 설계의 대표성, 조사 문항의 중립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

○ 이 과정에서 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통계적 엄밀성을 보완하며, 최종 승인 시 국가승인번호가 부여되어 법적 지위를 획득함

다. 조사 집행 및 원시자료 정제 (Execution & Cleaning)

○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내검(內檢, Editing) 과정을 거쳐 논리적 오류를 제거함

○ 무응답이나 편향성을 보정하기 위한 가중치(Weighting) 산정과 결과 추정 과정을 통해 데이터의 대표성을 확보함

라. 전주기적 품질진단 및 고도화 (Quality Assurance)

○ 승인 후에도 5년 주기의 정기 품질진단과 매년 실시되는 자체 품질진단을 통해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받음

○ 이는 환경 변화에 따라 통계의 유용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속 가능성 보장 장치임

5. 문화예술 신규 통계 개발의 전략적 쟁점 및 고도화 방향

○ 문화예술 분야는 그 비정형성과 무형적 가치로 인해 일반적인 산업 통계와는 차별화된 고도의 설계 전략이 요구된다.

가. 동태적 추출틀(Sampling Frame)의 혁신

○ 예술 현장의 높은 유동성과 '프리랜서' 중심의 고용 구조로 인해 전통적인 사업자 명부만으로는 모집단을 포착하기 어려움

○ 따라서 행정 데이터(예술활동증명 DB), 협회 데이터,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활동 추적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추출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나. 표준 분류와 현장 특수성의 조화

○ 융복합 예술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 내에 포섭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분류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문화예술 분야의 세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위성 계정(Satellite Account)' 성격의 분류 매핑 체계를 정교화해야 함

○ * 위성 계정(Satellite Account)

- 국가의 기본 경제 통계인 국민계정체계(SNA)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사회적·경제적 관심 영역(문화, 관광, 환경, 보건 등)을 분리하여 상세하게 분석하는 보조 계정임
- 쉽게 비유하자면, 국가 경제라는 전체 지도(SNA)에서 '문화'나 '관광' 같은 특정 구역만 확대하여, 본 지도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세부 지형을 정교하게 그려낸 '특수 목적 지도'와 같음

다.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의 체계적 통제

○ 조사원의 전문성 결여나 응답자의 해석 오류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는 문화예술 통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임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르별 특성이 반영된 '조사 매뉴얼의 표준화'와 '전문 조사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데이터 수집 과정의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함

라. 지속 가능한 시계열 데이터 관리

○ 단발성 조사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생태계의 장기적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패널 조사(Panel Study)나 순환 조사 체계(Rotating System)를 도입하여 정책의 시차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6. 결론: 미래 지향적 국가통계의 비전

○ 국가승인통계는 단순한 숫자의 기록이 아니라, 국가의 과거를 기록하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자산'임

○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통계 고도화는 무형의 가치를 유형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문화 국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임

○ 따라서 향후의 통계 개발은 데이터의 양적 팽창을 넘어, AI 및 빅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한 실시간 지표화(Real-time Indicators)와 정책적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제4절 신규 통계 후보 과제 발굴 및 체계화

1. 현재 국가승인 문화예술 통계의 범위

○ 현재 국가승인 문화예술통계는 참여(수요)·활동(공급)·산업일부부문(공연중심)에 치중되어있고, 노동시장·경제적효과·무역·공공미술·재원·플랫폼·창작생태계 전반은 미흡

[표 4-5] 국가승인 문화예술통계 현황

조사명칭	작성(수행)기관	주요 조사항목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개인의 문화예술 참여율, 활동형태, 향유현황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단체차원의 활동규모, 사업현황
공연예술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산업 규모, 장르별 실적, 관객수, 매출
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의 소득, 고용형태, 근로환경, 복지현황
지역문화현황통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지자체별 문화기반시설, 지역문화정책 현황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해외진출, 국제교류사업, 교류규모
문화다양성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다양성 인식, 수용성, 정책 지원현황

2. 국가승인 문화예술 통계 및 사회· 경제· 산업분야 통계 비교와 시사점

가. 사회· 경제· 산업분야 승인 통계 현황

○ 사회·경제·산업 분야 통계는 계정화·표준화·패널화를 통해 국제비교와 정책평가가 가능하도록 높은 수준의 체계를 확보하고 있음

[표 4-6] 사회·경제·산업 분야 국가승인 통계 현황

구분	경제·산업 부문	사회·노동 부문
통계현황	통계청,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산업연관표, 국민계정, 광공업·서비스업 통계, 무역·투자 통계 등 다수의 국가승인통계를 작성	고용노동부,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사회조사 등을 작성
범위	산업별 생산·부가가치, 사업체 규모, 고용, 수출입, 연구개발 등 산업경제 활동 전반을 정밀 계량.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노동시간, 일자리 안정성 등 노동시장 구조까지 파악
수준	국제표준(UN SNA, ISIC 등)에 부합하는 분류체계 적용 → 경제성·산업경쟁력 분석에	코호트·패널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 → 개인·가구 단위의 추적·분석 가능

나. 문화예술 분야 국가승인 통계의 현황과 한계

○ 사회·경제·산업 분야는 계정화·패널화·국제표준화에 성공했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활동 건수·현황 파악 수준에 머물러 있음

[표 4-7] 사회·경제·산업 분야 국가승인 통계 현황

통계현황	범위	한계
· 총 7종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문화예술활동 현황조사,공연예술실태조사, 예술인실태조사,지역문화현황조사,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문화다양성실태조사)	· 활동 건수, 참여율, 인식·태도 등 활동 중심 지표에 편중	· 계정화 부재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부가가치·고용 효과 산출 불가) · 노동시장 분석 한계 (예술인 고용형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 신유형 노동 반영 부족) · 패널/추적조사 부재 (예술인의 경력 지속성, 직업 안정성 분석 불가) · 국제비교 취약 (유네스코 문화지표체계〔FCS〕와의 연계 부족)

다. 시사점

[표 4-8] 시사점 요약

계정화 필요	노동시장 심층화	패널 기반 조사 도입	국제표준과 연계	정책 성과평가 지표 강화
산업·경제 통계 처럼 문화예술도 산업규모·부가가치·고용효과를 계정화 하여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수치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노동 통계 수준에 맞추어 예술인 노동시장 (프리랜스·플랫폼 노동,계약·소득구조, 사회보험 적용)을 통계화해야 함	장기적 경력·소득 추적이 가능하도록 예술인 직업 지속가능성 패널조사가 필요	UN·UNESCO 지표체계(FCS) 와 KSIC·KSOC 를 매핑하여 국제 비교 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다른 분야처럼 단순 현황이 아닌 성과·효과 평가 가능한 통계로 전환해야 함

라. 문화예술 통계 및 사회·경제·산업 통계 비교

[표 4-9] 문화예술 통계 및 사회·경제·산업 통계 비교

구분	문화예술 분야 국가승인 통계	사회·경제·산업 분야 국가승인 통계	한계 및 시사점
통계 범위	활동 중심 (참여율, 현황, 시설, 태도 등)	산업·경제 전반 (생산·부가가치·고용·무역·투자 등)	문화예술 통계는 경제·산업 기여도 반영 부족
통계 수준	현황 파악 및 활동 지표 위주	계정화·표준화·패널화 체계 확립	문화예술 통계는 국제비교·시간적 추적 불가
분류 체계	제한적(3대 분야 7장르, 부분적 KSIC 연계)	국제표준(UN SNA, ISIC, ILO 기준)과 연계	국제 정합성·비교 가능성 부족
노동시장 분석	예술인실태조사 존재하나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사회보험 적용 등은 미흡	근로형태별, 산업별, 성별·연	예술인 노동시장 구조 반영 부족
조사 방식	횡단면 조사 위주, 단발성 설문 중심	패널조사·코호트·장기추적조사 적극 활용	예술인 경력 지속성·직업 안정성 분석 불가
활용성	정책 참고자료 수준(현황 보고·연구 활용 제한	정책 입안·평가의 핵심 근거 (예산 배분·성과평가 직접 연계)	문화예술 통계는 정책 효과성 평가 근거 부족

3. 신규 통계 개발 후보 과제 발굴 프로세스

■ 공공기관의 통계 개발은 기관의 설립 목적(Mission)과 국가승인통계의 빈틈(Gap)을 연결하는 전략적 과정이며,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1) 법정 업무 수행을 위한 '객관적 근거' 확보 (Mission)

○ 공공기관은 법령에 명시된 고유의 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예를 들어, 문예위의 경우 정책 연구 및 재원 조성과 같은 법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수적임

○ 기관의 미션을 실무적인 성과로 치환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추진력'을 얻는 과정인 셈임

2) 거시 통계가 놓치는 '사각지대' 해소 (Gap)

○ 국가데이터처 등에서 작성하는 기존 국가승인통계는 범용적이고 거시적인 담론을 다루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미시적인 변화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빈틈'이 존재함

- 현행 통계의 한계
  - 기존 통계는 주로 활동 건수 위주로 집계되어 산업적·경제적 지표가 공백 상태인 경우가 많음
- 새로운 현상 반영
  - 플랫폼 창작이나 AI 활용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신유형 노동이나 디지털 참여 행태는 기존 통계 체계로는 포착하기 어려움

○ 이러한 데이터의 공백(Gap)을 찾아내어 메우는 것이야말로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전략적 역할임

3) 자원 배분의 '과학적 정당성' 구축 (Strategic Connection)

○ 기관의 미션과 통계적 빈틈을 연결하는 작업은 결국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략적 판단의 근거가 됨

- 산업적 위상 제고
  - 기초예술을 복지가 아닌 '전략 산업'으로 재정의하기 위한 경제 지표를 구축하여 예산 확보의 논리를 만듦
- 수요자 중심 정책
  - 지역별 생활권 단위의 접근성 지표를 통해 실제 문화 소외 지역에 자원을 실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결국 공공기관의 신규 통계 개발은 단순히 숫자 리스트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Mission)를 증명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모르는 것(Gap)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그 사이를 데이터라는 다리로 연결하는 고도의 정책 설계 과정인 것임

■ 신규 통계 개발 후보 과제 발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진행됨

1) 1단계 : 후보 아이템 도출

구분	내용
Top-down (정책)	국정과제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 등 정부의 데이터 분석 수요
Bottom-up (현장)	예술인, 학계, 유관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데이터 부재 영역
Gap Analysis (공백)	기존 국가승인통계를 전수 조사하여 통계적 사각지대 발굴

2) 2단계 : 기관 고유 목적 사업 부합성 검토

구분	내용
법적 근거	설립 법령(문화예술진흥법 등)에 명시된 사업 지원 여부 확인
영역 차별화	유사 기관 간 중복을 피하기 위해 '공급자/수요자/산업' 기준의 경계 설정

3) 3단계 : 타당성 및 중복성 정밀 심사

구분	내용
법적/기술적 타당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및 모집단(추출틀) 확보 가능성 검토
중복성 회피	기존 통계와 조사 단위·항목이 70% 이상 겹치지 않도록 설계

4) 4단계 : 우선순위 결정

순위	유형	특징 및 전략
1순위	Quick Win	정책적 시급성 높음 + 데이터 확보 용이. 행정데이터 재가공을 통해 즉시 성과 창출
2순위	Strategic	정책적 시급성 높음 + 대규모 예산/시간 소요. 지금 즉시 신규 조사 설계를 시작해야 할 과제
3순위	Reference	장기적 필요성. 현재로서는 효율이 낮아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후순위 과제

4. 신규 통계 개발 후보 과제 발굴

가. 문예위의 법정 업무(설치 목적)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간의 부합성 검토

○ 문예위의 고유 업무인 '예술 지원 및 창작 환경 조성'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강국 실현 및 예술인 복지 강화' 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신규 통계 개발의 강력한 정책적 근거가 됨

[표 4-10] 위원회 법정 업무와 국정과제 부합성 매칭 분석 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정 업무 (법규 제18조 등)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매칭 포인트 및 통계 개발 방향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제1호)	[국정105]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예술 창작 지원 실태 및 장르별 창작 생태계 통계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 융자 (제5호, 제5호의2)	[국정105] 촘촘한 예술인 복지 제공, 예술인 맞춤형 복지금고 조성	예술인 복지 수요, 고용보험 가입률, 생활 안정 자금 수요 분석
장애인 등 소외계층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제8호)	[국정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 [국정105] 장애예술인 기회 확대	장애예술인 활동 실태 및 소외계층 문화 향유 격차 통계
국제 및 남북 문화예술 교류 (제3호, 제4호)	[국정115]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국정104] K-컬처 해외 확산	국가 간 문화 교류 실적 및 남북 문화예술 동질성 회복 지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시설 지원 (제6호, 제10호)	[국정104] 문화로 지역 성장, 거점형 문화시설 조성	지역별 문화 인프라 분포 및 지역 예술 지원 효과 분석

■ 국정과제 연계 신규 통계 후보 아이템 도출 (데이터 분석 기반)

① 예술인 권리 및 복지 지표 (국정105번 연계)

- 정부는 '예술인 맞춤형 복지'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
- 통계 후보 : 예술인 사회안전망 가입 실태조사, 예술인 경력정보 통합관리 지표

② 미래인재 및 청년 예술 기회 지표 (국정89, 105번 연계)

- '청년문화예술패스' 및 '국립예술기관 청년 인턴십' 등의 과제가 명시되어 있음
- 통계 후보 : 청년 예술인 자산 형성 및 창작활동 생존율 통계

③ 디지털·AI 전환 문화 통계 (국정103번 연계)

- 'AI 활용 콘텐츠 산업 혁신'과 '한국문화 학습데이터 축적'이 주요 과제임
- 통계 후보 : 문화예술 분야 AI 활용 실태 및 디지털 저작권 보호 통계

④ 사회적 약자 포용 지표 (국정79, 104번 연계)

- '통합문화이용권 상향' 및 '장애인 생활체육/문화 접근성 개선'이 포함되어 있음
- 통계 후보 : 무장애(Barrier-free) 관광 및 문화시설 인프라 만족도 통계

⑤ 결론 및 제언

- 1순위 과제 : 행정데이터 확보가 용이한 '통합문화이용권(국정104)'이나 '예술인 경력정보(국정105)' 관련 통계는 즉시 추진하여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음
- 2순위 과제 : 'AI 연계 문화 산업(국정103)'이나 '남북 교류(국정115)'와 같이 신규 조사가 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높은 항목은 중기 과제로 설계하여 위원회의 정책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근거로 활용함

나. 예술인·학계·유관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신규 통계 개발 과제

○ 2026. 2. 9(월) ~ 2. 12(목)까지 예술행정 및 공공기관 종사자, 현장 예술인/단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문예연감)』 고도화 및 신규 통계 개발 수요조사'에사 신규 통계 개발과 관련한 수요조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의사결정 지원의 충분성 및 데이터 탐색 실패율

- 현재 공공 통계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에 충분하다는 응답은 16.7%에 불과하여, 고도의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갈증이 심각한 수준임
- 데이터 탐색 실패 사례는 특히 '무역·저작권(72.7%)', '산업규모(64.7%)', '민간재원(63.6%)' 분야의 통계 탐색 실패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경제적 실증 지표의 신규 개발이 시급함

○ 신규 통계 개발 우선순위

- 개발 시급 영역은 '문화예술 산업규모 계정(56.7%)'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비정형/플랫폼 노동 실태(40.0%)', '지역격차/생활SOC 활용도(36.7%)' 순으로 수요가 집중됨
- 이는 예술을 단순히 '현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노동 시장'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함

○ 성공적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 및 연계 필요성

- 전략적 기대효과는 '지원 정책의 예산 확보 및 규모 확대 근거 마련'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가 정책 추진의 강력한 '논리적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타 분야 통계 연계는 예술 통계를 경제성장률, 고용지표 등 타 산업 통계와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3.3%로 조사됨

○ 동 수요조사에서 예술인·학계·유관단체가 요구하는 신규 통계 개발 과제는 다음과 같음

1) 경제적·산업적 가치 및 지식재산권(IP) 실증

- 산업화 지표 활성화 : 공연·전시·축제의 티켓 수입 대비 가동률, 자체 수익 대비 외부 재원 마련 비중(재정 자립도) 등 산업적 관점의 지표 도입
- 지역별 경제 데이터 비교 : 지역별 문화예술 조부가가치(GVA) 및 매출 규모에 대한 데이터 비교 분석 체계 구축

- 저작권 통계 고도화 : 저작권법에 대한 현장 인식, 저작권료 수익 정산 실태, IP 관련 침해 및 분쟁 현황에 대한 국가 통계 마련
- 시장 실태 파악 범위 확대 : 주요 공연장 위주의 통계에서 벗어나 민간 및 소규모 공연장 데이터까지 포괄하여 기초예술 시장 활성화 지원

2) 예술인 노동 실태 및 고용 안전망 진단

- 실질 소득 및 고용 형태 구체화 :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예술활동 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연간 실질 소득' 및 전업·겸업·부업(N잡러)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
- 사회안전망 효과 측정 : 문화예술 투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함께 예술인 안전망 구축이 미치는 영향력 실증

3) 사회적 가치 및 지역 소멸 대응 지표

- 다차원적 사회성 측정 : 문화예술 활동이 국민의 심리적·사회적 안녕에 미치는 성과 지표 개발
- 지역 문화 활력 지표 : 문화지표를 활용한 '소멸지수' 개발 및 접근성 격차에 가중치(이동 비용, 시간, 노력 등)를 반영한 실질 격차 측정
- 미래 세대 참여율 : 초·중·고 학생들의 예술 프로그램 직접 참여 횟수 및 참여율 통계화

4) 통계 인프라 고도화 및 방법론 혁신

- 종단 데이터(Longitudinal Data) 구축 : 문화예술의 장기적 효과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횡단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한 시계열 패널 데이터 구축(증거 기반 정책 EBPM 강화)
- 통계 체계의 표준화 : 신규 개발에 앞서 공공기관 및 지역 문화재단 간 상이한 분류 체계와 장르 정의를 국가 수준에서 표준화하는 작업 선행
- 데이터 거버넌스 효율화 : AI 챗봇 서비스 도입 등 이용자 접근성 제고 및 유의미하지 않은 통계 항목의 과감한 중단과 교체(지속성 판단 프로세스 도입)

5) 장르 특수성 및 생태계 모니터링

- 문학 분야 아카이빙 고도화 : 단행본 출간 전 문예지 발표 작품 현황 누적 및 소급 아카이빙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활용성 제고
- 순수예술 보호 지표 : 비상업적 영역의 쇠퇴를 감시하기 위한 '미니멈 바이탈 라인(최소 기준점)' 기반의 모니터링 항목 개발
- 디지털 및 융복합 대응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융복합 예술 활동 지표의 세분화 및 K-컬처 지원 확대에 따른 순수예술 영향 분석

다. 기관 고유 목적사업(법정사업) 부합성 검토

■ 법률 및 정관에 규정된 문예위 법정 사업 범위 내에서 통계 개발 및 설계가 추진되어야 함

[표 4-11] 법률 및 정관에 규정된 문예위 법정 사업 내역

문화예술진흥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4조(사업)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 · 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 ·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 · 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1.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 개발 및 교육 · 연수 사업이나 활동 3. 민족전통문화의 보존 ·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4.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법 제4조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재단법인과의 협의 ·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의 교류 사업이나 활동 6.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7.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증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8. 문화예술 재원의 확충 및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이나 활동 9. 공공미술(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미술 작품을 설치 ·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진흥을 위한 사업 10.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시설의 설치 · 운영

○ 문화예술 관련 통계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여,문화예술 전반을 포괄하려는 시도는 불가피하게 타 기관의 고유 영역과 충돌 발생

○ 실제로 문화재청, 문화관광연구원, 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이 이미 각기 다른 승인통계와 실태조사를 수행 중

○ 이들의 업무 영역을 문예위가 중복적으로 개발할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승인 과정에서 중복성 문제로 필연적인 제약 발생

○ 따라서 문예위 신규 통계 개발 및 설계의 전제조건은 「문화예술진흥법」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에 근거한 문예위 10대 법정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하여야 함

○ 이는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수되어야 함

[표 4-12] 신규 통계 개발 시 주요 고려사항

법적 정당성	중복성 회피	예산 타당성	기관 정체성	정책 활용성
· 문예위의 고유사업 영역에 근거하여 통계를 개발함으로써, 국가승인통계 체계 내에서 기관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	· 타 기관이 관장하는 통계(예: 콘텐츠산업, 문화재, 국제교류 전반)를 침범하지 않고, · 문예위가 수행해야 할 창작·매개·향수, 예술인 복지, 재원 확충, 공공미술 등 특화 영역에 집중함으로써 효율적 통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국가재정 당국(기재부·통계청 등)은 신규 통계 승인 시 중복 여부와 정책적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함 · 문예위 고유목적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신규 통계라야 예산 타당성이 인정되고, 장기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문예위는 단순히 문화예술 통계의 한 축이 아니라, 예술인 복지·재원 조성·공공미술 등 다른 기관이 다루지 않는 고유 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통계 개발 역시 이 정체성을 뚜렷하게 반영해야 함	· 문예위 고유목적사업 영역에서 생산된 통계는 즉시 문예위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연구, 기금 집행, 사업평가와 연계될 수 있어 현장 활용성과 정책연계성이 극대화됨

○ 문예위 신규 통계 개발은 반드시 문예위 10대 법정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하며, 이는 법적 정당성·중복성 회피·예산 타당성·기관 정체성·정책 활용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전제조건임

○ 법률 및 정관에 규정된 문예위 법정 사업 영역 관련 통계 미비 및 공백 영역은 다음과 같음

[표 4-13] 문예위 법정 사업영역 관련 통계 미비 및 공백 영역

법정 사업	통계 미비 및 공백 영역
① 문화예술 창작·매개·향수	· 기존 통계는 향수(참여율,활동)중심 · 창작 과정,매개(플랫폼·유통),관객 소비 패턴에 대한 세부 통계 미흡
② 정책 연구·교육·연수	· 문화예술 인력 양성 현황,교육/훈련 효과 분석 통계 부재
③ 민족전통문화 보존·계승	· 무형문화유산,전통예술 소비 및 산업화 현황을 측정할 세부 통계 부재
④ 지역문화 진흥	· 시설 현황은 있으나,지역별 예산 투입 대비 성과(ROI),생활권 단위 문화 격차에 대한 통계 미흡
⑤ 남북·국제 교류	· 국제교류 실태조사 있으나 문화예술 무역(수출입),저작권/IP수출 규모를 포괄하는 통계 없음
⑥ 문화예술 기반시설 활성화	· 물리적 시설 현황은 파악되지만,운영 성과,접근성,활용률,민간 협력 모델에 대한 통계 필요
⑦ 예술인 창작환경·복지	· 예술인실태조사 있으나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사회보험 적용률, 직업 지속가능성 세부 통계는 미흡
⑧ 문화예술 재원 확충	· 문예진흥기금 규모 파악은 가능하나, 민간 후원·기부·기업 메세나, 지역문화재단 자체 재원조달 구조 통계는 없음
⑨ 공공미술 진흥	· 설치 현황, 작품 관리 체계, 지역별 투자 규모 등 전용 통계 전무
⑩ 기타 문화예술 진흥	· 디지털 전환, 온라인 플랫폼 유통, AI·NFT 등 신흥 영역의 통계 부재

○ 문예위 법정 사업영역과 비교한 통계 공백을 없애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통계 개발이 필요함

[표 4-14] 문예위 신규 통계 개발 필요 항목

대분류	중분류	주요 조사항목
경제·산업 기반 통계	문화예술 산업규모 산출 통계	기관/사업체의 연간 매출액, 운영비 구조, 고용 인원, 외부 재원
	문화예술 가치 산출 통계	예술 향유에 따른 행복지수, 사회적 신뢰도, 지역 자부심, 지불용의액,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 의료비·사회적 비용 절감 기여도
	민간 재원·후원 통계	기부·스폰서십·기업 메세나 현황
노동시장·인력 통계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예술인 조사	주 활동 분야 및 직무, 플랫폼 활용 여부, 계약 형태, 연간 수입 구조, 사회보험 가입 여부, 노동시간 및 근무형태
	문화예술 교육·연수 이력 및 효과 측정 통계	교육 참여 이력, 교육 제공 주체, 교육·연수 비용 부담 주체, 교육 성과 체감, 교육 이후 활동 영역 변화
	문화예술 직업 지속가능성 패널조사	예술활동 지속 여부, 경력 단계별 수입 구조 및 변동, 주요 일자리 형태, 생활 안정 지표, 예술인 복지제도 이용 경험
문화시설·공간 활용 통계	문화시설 운영성과 통계	접근성, 관람률, 수익구조
	공공미술 통계	작품 설치·운영·예산 집행 현황
지역·전통문화 통계	지역 문화격차 통계	생활권 단위 문화시설 접근성, 참여율, 재정지원 편차
	전통문화 향유·산업화 통계	전통공연, 공예, 무형문화재 관련 산업
디지털·신흥 분야 통계	온라인 문화소비 통계	OTT·웹툰·웹소설·온라인 전시·공연 향유 현황
	AI·NFT등 신기술 활용 문화예술 통계	AI 활용 여부, NFT 발행 및 거래 경험, 디지털 전환,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 저작권·소유권 관련 경험

[표 4-15] 문예위 신규 통계 개발 필요 영역

문예위 법정 사업	기존 국가통계 현황	공백(미비) 영역	신규 개발 필요 통계
① 문화예술 창작·매개·향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공연예술조사	창작 과정·매개 활동 통계 부재, 소비자 구매·지출 패턴 미흡	창작·유통(플랫폼) 구조 조사, 관객 소비패턴·지출 구조 통계
② 정책 연구·교육·연수	없음(단편적 조사 수준)	문화예술 교육·연수 참여자 현황, 효과성 분석 미흡	문화예술 교육·훈련 이력 및 효과 통계, 예술전문인력 양성 현황
③ 민족전통문화 보존·계승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일부(전통문화 향유)	전통문화 산업화, 무형문화재 향유 현황 통계 부재	전통공연·공예·무형문화재 향유 및 산업화 통계
④ 지역문화 진흥	지역문화현황통계	지역별 예산·성과(ROI), 생활권 단위 문화격차 미흡	지역 문화격차 통계, 생활SOC 활용 통계
⑤ 남북·국제 교류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무역(수출입) 규모, 저작권/IP 해외 진출 현황 부재	문화예술 무역·저작권(IP) 수출입 통계
⑥ 문화예술 기반시설 활성화	지역문화현황통계(시설 현황 중심)	시설 운영성과, 이용률, 접근성 통계 부재	문화시설 운영성과·활용률 통계
⑦ 창작환경·복지(예술인)	예술인실태조사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사회보험 적용률, 직업 지속가능성 미흡	예술인 노동시장 조사(플랫폼·프리랜스), 직업 지속가능성 패널조사
⑧ 문화예술 재원 확충	없음(문예진흥기금 일부 파악 가능)	민간 후원·기부, 기업 메세나 통계 전무	민간 후원·기부·기업 메세나 재원 통계
⑨ 공공미술 진흥	없음	공공미술 설치·운영·예산 관리 현황 부재	공공미술 설치·관리·성과 통계
⑩ 기타(디지털·신흥 분야)	없음	온라인 소비, AI·NFT 등 신기술 영역 통계 전무	온라인 문화소비 통계(OTT·웹툰·웹소설 등), AI·NFT 활용 통계

5. 문예위 신규 통계 개발 제안 : 10개 과제

[표 4-16] 문예위 신규 통계 개발 제안 내역 요약

통계명칭	개발 목적	주요 조사대상·항목	조사주기	대표 공표항목
① 예술 산업 현황조사	문화예술 산업규모·경제적 기여도 산출	단체·기관: 매출, 지출, 고용, 재원구조, 투자	매년	산업 총생산액, 고용규모, 민간재원 비중
② 문화예술 가치 측정 통계	예술의 사회적 가치 및 상징적 가치 계량화	예술 향유에 따른 행복지수, 사회적 신뢰도, 지역 자부심, 의료비·사회적 비용 절감 기여도	2년	사회적 가치 화폐 환산액(SROI), 문화적 상징 가치 지수, 예술의 삶의 질 기여도
③ 예술인 노동시장·플랫폼 통계	고용형태·플랫폼 노동·복지 실태 진단	예술인: 고용형태, 소득, 사회보험, 계약, 플랫폼 활동	2년	예술인 평균소득, 사회보험 가입률, 플랫폼 노동 비중
④ 지역별 생활권 문화 접근성 실태조사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와 생활SOC 이용 분석	가구·개인: 시설 이용, 지출 / 지자체: 예산, SOC 현황	3년	지역문화 격차지수, 1인당 문화예산, SOC 이용률
⑤ 공공미술 자산 관리 실효성 실태조사	공공미술 설치·운영 현황 및 효과 측정	지자체·관리기관: 설치 위치, 작품 수, 예산, 관리방식 / 시민: 만족도	2년	설치 건수, 예산규모, 시민만족도 지수
⑥ 디지털 문화예술 참여 실태조사	온라인 소비 및 신기술(AI·NFT) 활용 파악	개인: OTT·웹툰·웹소설 소비, 지출, 신기술 활용	매년	온라인 소비총액, 세대별 소비지표, 디지털전환 지수
⑦ 문화예술 재원 통계	민간 기부·후원·기업메세나 현황 측정	기관·기업·개인 기부자: 금액, 방식, 동기, 효과	2년	민간재원 총규모, 원천별 비중, 메세나 참여율
⑧ 문화예술 교육·연수 효과 통계	교육·훈련 참여 및 효과성 분석	예술인·기관: 참여 이력, 성과(소득·작품·유통), 취업 연계	2년	교육참여율, 사전-사후 성과변화율, 효과지수
⑨ 전통문화 향유·산업화 통계 (무형문화·전통공예·전통공연)	전통공연·공예·무형문화 향유·산업화 현황	국민: 향유·체험, 지출 / 단체·공방: 매출, 고용, 전승, 정책참여	3년	전통문화 향유율, 산업규모, 전승 지속가능성 지수
⑩ 예술인 직업 지속가능성 패널조사	장기 소득·고용·복지 추적, 정책효과 검증	예술인 패널: 소득, 계약, 보험, 건강, 정책참여, 충격·전환	매년	예술인 생존율, 소득이동률, 정책효과 추정치

① 예술 산업 현황 조사

○ 통계명칭 : 「예술 산업 현황 조사」

○ 통계작성목적

- 문학·시각예술·공연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경제적 규모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함
- 콘텐츠산업(KOCCA)과 차별화된 기초예술 고유영역의 산업 지도를 작성하여 정책 설계의 객관적 기초(Raw Data) 제공
- 예술가 및 예술 단체의 노동 형태와 재무 구조 등 산업적 실태를 투명하게 가시화하여 증거 기반 행정(EBPM) 실현

○ 통계작성사항

- 조사문항
  - 기관/단체 기본현황: 설립연도, 업종코드, 조직형태(영리/비영리/사회적기업 등), 지리정보(GIS 연계 주소)
  - 재무 및 매출 실태: 연간 총매출, 장르별 수입원(티켓, 후원, 보조금, 부대사업, 저작권 수익 등), 수입원별 비중
  - 비용 집행 구조: 인건비, 시설운영비, 제작비, 저작권료 지출, 마케팅비 등 항목별 지출액
  - 인적 자원 실태: 고용형태별 인원(정규/계약/프리랜서), 숙련도(경력연수), 예술 외 겸업 현황(N잡러 등)
  - 자산 및 투자 현황: 시설/장비 투자액, 창작 준비(R&D) 비용 지출액, 지식재산권(IP) 보유 건수
- 집계·분석항목
  - 산업 규모 분석: 장르별·업종별 총매출액 및 전년 대비 성장률 추이
  - 비용 구조 진단: 산업 내 투입 비용(제작비, 인건비 등) 비중 및 효율성 분석
  - 재원 건강도 지표: 공공보조금 대비 민간 재원(자체수익+후원)의 자생적 비율 측정
  - 노동 시장 구조: 예술 산업 내 고용 형태별 비중 및 평균 종사 기간 분석
  - 공간적 분포: 지역별 예술 산업 인프라 및 단체 밀집도 분석 (GIS 연계)
- 공표항목
  - 예술 산업 장르별 총생산액 및 종사자 수
  - 예술 단체·기업의 평균 매출 및 재무 건전성 지표
  - 고용 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프리랜서) 인력 분포 현황
  - 민간 후원금 및 저작권 수익 유입 규모

○ 조사기준시점 : 전년도 기준 연간

○ 조사기간 및 주기 : 연간조사(매년 실시), 조사기간 4~6개월

○ 작성방법 및 자료수집체계

- 하이브리드 데이터 수집: 표본조사(예술 단체·기업)와 행정데이터(국세청, 관세청 등) 연계
- 데이터 거버넌스: KOPIS(공연), 예술인복지재단(예술활동증명), 국세청 매출 자료 등 분절된 DB의 통합 연계 스키마 적용
- 데이터 검증: 행정자료를 통한 무응답 및 오응답 보정(Cleaning)을 통해 통계 신뢰도 확보

② 문화예술 가치 측정 통계

○ 통계명칭 : 「문화예술 가치 측정 통계」

○ 통계작성목적

- 문화위성계정(CSA) 등을 통해 예술이 국가 경제(GDP)에 기여하는 실질적 부가가치와 산업적 파급력을 계량화함
- 단순 산업 지표로 환원되지 않는 예술 고유의 사회적 성과(공공 가치) 및 국가 자산 가치(상징 가치) 실증
- 예술가의 비가시적 노동 가치를 화폐화하고, 창작 환경의 리스크 패턴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근거 마련

○ 통계작성사항

- 조사문항
  - 일반국민 및 수혜자 : 주관적 안녕 및 심리 지표, 사회적 자본 및 신뢰, 장소 애착 및 정주 의사, 비시장 가치 측정을 위한 지불용의액
  - 예술가 패널 : 활동 주기별 시간 할당(Time-use), 창작 생태계 리스크, 전문직 역량 및 자긍심, 정책 체감도
  - 정책 및 시설 : 건강 및 사회 비용 데이터, 지역 브랜드 임팩트
- 집계·분석항목
  - 국가 경제 기여도(GVA) 산출: 예술 산업의 실질 부가가치 및 GDP 기여 비중 계량화
  - 산업 간 연관 파급효과 분석: 예술 투입에 따른 타 산업의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 계수 도출
  -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 산출: 예술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화폐 가치 환산 및 투자 효율성 분석
  -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기반 가치 추정: 비시장 영역인 예술의 상징 가치(존재·유산 가치) 경제 규모 추정
  - 예술가 생애주기별 리스크 분석: 경력 단절 요인, 이탈 패턴 및 비가시적 노동의 기회비용 분석
  - 행복지수(QoL) 상관관계 분석: 예술 향유와 주관적 안녕감 및 사회적 신뢰 형성 간의 상관성 분석
- 공표항목
  - 문화예술 국가 경제 기여도(GVA) 및 산업별 유발 효과 보고
  -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 및 상징 가치(CVM) 화폐 환산액
  - 예술가 비가시적 노동 비중 및 활동 지속성(생태계 회복력) 지표
  - 분야별 예술의 사회·경제적 기여 가치 종합 보고서

○ 조사기준시점 : 전년도 기준 연간 (격년 조사로 시계열 추이 및 구조 변화 분석)

○ 조사기간 및 주기 : 격년조사(2주기), 조사기간 6~8개월 (고도의 경제 모델링 및 데이터 연계 포함)

○ 작성방법 및 자료수집체계

- 경제 모델링: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국가데이터처 국민계정(SNA) 연계 및 계량경제학적 분석 적용
- 혼합형 표본조사: 일반국민(향유자) 및 예술인 패널(창작자) 대상 설문·실험·심층 면접
- 빅데이터 연계: 신용카드·통신 행동 데이터와 시범 사업(Pilot Test) 참여군 데이터를 통한 실증 분석

③ 예술인 노동시장·플랫폼 통계

○ 통계명칭 : 「예술인 노동시장 및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 통계작성목적

- 예술인의 고용형태, 플랫폼 활용, 프리랜서 노동 환경, 사회보험 적용률 등 파악
- 창작환경 개선 및 복지정책 수립 근거 마련

○ 통계작성사항

- 조사문항
  - 인적 특성: 연령, 성별, 학력, 전공
  -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플랫폼 기반
  - 근로환경: 평균 근로시간, 프로젝트 수, 근로장소(오프라인/온라인)
  - 소득 현황: 연간 총소득, 예술활동 소득, 비예술 소득
  - 사회보장: 4대보험 가입 여부, 산재보험 적용 여부
  - 계약 현황: 계약방식,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체불 경험
  - 플랫폼 활동: 플랫폼 종류(유튜브, 크라우드펀딩, AI 아트 등), 이용 빈도,
  - 수익 여부
- 집계·분석항목
  - 고용형태별 종사자 비중
  - 예술활동 소득 분포(하위 25%, 중위, 상위 25%)
  - 사회보험 적용률 및 미적용 사유
  - 표준계약서 사용률 및 효과
  - 플랫폼 활동 참여율 및 소득 기여도
- 공표항목
  - 예술인 평균 소득 및 고용형태별 분포
  - 사회보험 가입률
  - 플랫폼 기반 활동 비중 및 소득 규모
  - 계약 안정성 지표(체불율, 표준계약서 활용률

○ 조사기준시점 : 기준연도 상반기(6월)

○ 조사기간 및 주기 : 2년 주기, 조사기간 4개월

○ 작성방법 및 자료수집체계

- 온라인 설문조사 + 심층면접(FGI/IDI) 병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체부 예술인패널DB 연계

④ 지역별 생활권 문화 접근성 실태조사

○ 통계명칭 : 「지역별 생활권 문화 접근성 실태조사」

○ 통계작성목적

- 지역 간 문화 인프라의 '물리적·심리적 접근성' 실태 진단, 지자체 예산 투입 대비 '주민 향유 효과' 검증, 생활권 단위의 '문화 서비스 사각지대' 도출을 통한 맞춤형 자원 배분 근거 마련

○ 통계작성사항

- 조사문항
  - 가구·개인 조사: 최근 1년간 문화시설 이용 행태(횟수, 소요 비용), '이동 수단별 도달 시간', 이용 저해 요인(거리, 시간, 비용 등)
  - 시설 인프라 현황: 시설 규모(좌석 수, 연면적), 장르별 프로그램 운영 실적, '운영 인력 전문성' 및 시설 노후도
  - 지자체 문화 재정: 예산 총액, '인구 대비 문화 예산 지출 비중', 재정 자립도 연계 분석 자료
  - 생활문화 SOC 특성: 유형별(공연·전시·도서관 등) '반경 내 수혜 인구', 시설 내 무장애(Barrier-free) 환경 구축 수준
  - 시·군·구별 '문화 서비스 도달률' - 체감 만족도: 공간 접근 및 이동 편의성, 프로그램 콘텐츠 다양성, 이용 비용의 적정성 ▸ 집계·분석항목 및 이용 격차 지수
  - 생활문화 SOC 유형별 '표준 접근성 지표' (GIS 네트워크 분석 기반)
  - 지역별 '재정 투입 대비 문화 향유 효율성' 분석 (EBPM 연계)
  - 인구 구조 및 거주 형태별 '문화 접근성 다차원 분석'
- 공표항목
  - '지역문화 격차 지수' (전국 평균 및 지역 규모별 비교)
  - 생활문화 SOC 활용 성과 및 '문화 서비스 사각지대 지도(Gap Map)'
  - 1인당 문화 예산 지출 수준 및 '정책 환류 기여도' 평가

○ 조사기준시점 : 조사 대상 연도 12월 31일 기준

○ 조사기간 및 주기 : 3년 주기 (표본 설계 및 본 조사·분석 기간 6개월)

○ 작성방법 및 자료수집체계

- 'GIS(공간정보시스템)' 기반의 도로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실질 접근성 측정
- 행정데이터 연계: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지역문화재단 통계 DB, 문화시설 예매·대관
- 자료 현장 조사: 전국 단위 가구 방문 면접조사 및 시설 운영 현황 실사 병행

⑤ 공공미술 자산 관리 실효성 실태조사

○ 통계명칭 : 「공공미술 자산 관리 실효성 실태조사」

○ 통계작성목적

- 전국 공공미술 자산의 '유지관리 체계'를 정밀 진단하여 정부의 관리 부실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사후 관리의 실효성 분석을 통해 공공미술이 지역에 미치는 '실질적 가치'와 정책 성과를 입증함

○ 통계작성사항

- 조사문항
  - 자산 및 설치 기초 정보: 작품 유형(의무설치분/기획사업분), '소유권 및 관리 책임 주체', 설치 상세 위치(GPS 좌표 포함)
  - 예산 운용 및 지속성: 초기 건립비 대비 '연간 유지보수 예산 확보율', 지자체 및 민간의 예산 분담 구조
  - 유지관리 운영 실태: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 유무, 정기 점검 주기 및 '이행 실적', 관리 대장 보유 여부
  - 작품 보존 및 안전 점검: 작품의 훼손/변색/오염 정도, '구조적 안전 등급',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방치 여부
  - 지역사회 기여도: 장소 자산화 및 도시 미관 개선 효과, 지역 주민의 '작품 인지도 및 선호도'
- 집계·분석항목
  - 지역별·장르별 공공미술 '자산 관리 등급' (우수/보통/부실)
  - 관리 방식별(직영/위탁/공동) 유지보수 효율성 및 '비용 대비 가치 보존율'
  - 설치 후 경과 연수별 '보존 상태 추이' 분석 및 보수 필요성 진단
  - 시민 체감 접근성 및 공공미술 정책 만족도 지표
- 공표항목
  - 전국 공공미술 자산 현황 및 '자산 관리 실효성 지수'
  - 지역별 사후 관리 체계 성과 및 '관리 개선 필요 지역' 도출
  - 공공미술 정책 환류(Feedback) 기여도 및 '중장기 보존 전략' 가이드라인

○ 조사기준시점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 조사기간 및 주기 : 2년 주기, 조사기간 6개월 (전문가 현장 정밀 실사 기간 포함)

○ 작성방법 및 자료수집체계

- 행정데이터 연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데이터(K-Art) 및 지자체 공공미술 사업 결과 자료 통합 분석
- 전문가 현장 실사: 보존 처리 전문가에 의한 '작품 상태 전수 조사' 및 디지털 아카이빙
- 주민 인식 조사: 작품 설치 인근 거주민 및 방문객 대상 표본 대면 조사

⑥ 디지털 문화예술 참여 실태조사

○ 통계명칭 : 「디지털 문화예술 참여 실태조사」

○ 통계작성목적 :

- 디지털 환경에서의 예술 관람 및 창작을 포함한 전반적 '참여 행태' 분석, 신기술 기반의 '능동적 예술 활동' 실태 측정, 범용 콘텐츠 통계와 차별화된 예술 중심의 디지털 전환 지표 구성

○ 통계작성사항 :

- 조사문항
  - 디지털 예술 관람 및 소비: 온라인 실시간 공연 관람, 가상 갤러리 및 VR 전시 이용 빈도
  - 디지털 예술 창작 및 생산: AI 활용 창작 경험, 디지털 드로잉 및 음악 제작 소프트웨어 활용 실태
  - 디지털 지출 구조: 온라인 예술 콘텐츠 유료 결제액, 아티스트 후원 및 소액 기부 현황
  - 신흥 기술 경험: 예술품 NFT 구매 및 소유 경험, 메타버스 기반 예술 커뮤니티 참여 여부
  - 참여 환경 만족도: 디지털 감상의 현장감 구현 수준, 플랫폼 접근성, 디지털 창작 도구의 편의성
- 집계·분석항목
  - 세대별 디지털 예술 '통합 참여율' (관람 및 창작 행위 포함)
  -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예술 저변 확대 및 '창작 진입 장벽 완화' 효과
  - 디지털 전용 활동과 오프라인 예술 활동 간의 상호 보완성 분석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예술 참여의 유료화 비중 및 지속 가능성 진단
- 공표항목
  - '디지털 문화예술 참여 지수' (관람 및 창작 통합 지표)
  - 세대별·지역별 디지털 예술 참여 행태 및 선호 플랫폼 지표
  - 신기술 기반 '디지털 예술 창작 생태계 활성화 정도'
  - 온-오프라인 통합 문화예술 향유 도달률 및 참여 격차

○ 조사기준시점 :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 조사기간 및 주기 : 매년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 반영), 조사기간 3개월

○ 작성방법 및 자료수집체계 :

- 온라인 패널조사 (예술 참여자 및 디지털 창작자 표본 추출)
- 디지털 플랫폼 이용 행태 로그 데이터 분석 및 사업자 협력 자료 수합
- 디지털 예술 창작·향유 분야 전문가 집단 심층 면접(FGI) 병행

⑦ 문화예술 재원(민간 기부·후원·메세나) 통계

○ 통계명칭 : 「문화예술 민간재원·메세나 통계」

○ 통계작성목적

-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재원 구조(기업후원·개인기부·재단지원·협찬·현물)와 추이를 파악하여 공공재원 보완 및 재원 다변화 정책 근거 제공.
- 장르·지역·기관규모별 민간재원 편차와 격차 요인 진단, 민관 매칭펀드·세제개선 등 정책 설계 지원.

○ 통계작성사항

- 조사문항
  - 수혜기관(단체·시설) 기본정보: 법적 지위, 설립연도, 상근인력, 주 장르, 연간 예산 규모
  - 민간재원 유입액: 기업후원(현금/현물/협찬), 개인기부, 재단지원, 크라우드펀딩, 티켓 외 부가수입(굿즈·네이밍권) — 금액·건수·비율
  - 후원 성격: 일회성/다년 협약, 지정기부/일반기부, 목적(창작·교육·보존·시설개선)
  - 유치 채널: 직접모금, 캠페인, 온라인플랫폼, 메세나협회 연계, 매칭펀드 여부
  - 대가·권리: 브랜드 노출, 네이밍권, 초청권, 세제혜택 적용 여부
  - 성과관리: KPI 설정(관객수·접근성·사회가치), 성과보고 주기, 외부평가 참여
  - 위험·장벽: 모금 인력/역량 부족, 규제·세제 이해도, 대기업 편중, 지역 격차
  - 기업·재단(공급자) 측: 연간 문화예산, 배분 기준(ESG/CSR/CSV), 선호장르·지역, 효과인식(브랜드/지역공헌/인재확보), 세제·회계처리(광고·기부 구분)
  - 개인 기부자(패널): 연간 기부액·빈도, 동기, 선호 장르, 세액공제 체감, 충성도/이탈 사유
- 집계·분석항목
  - 재원원천별(기업/개인/재단/현물) 유입 구조와 점유율, 3년 추이
  - 장르·지역·기관규모별 민간재원 단가(기관당·프로젝트당), 집중도(HHI)
  - 다년 협약 비중, 매칭펀드 참여율, 네이밍권 거래 현황
  - 성과관리 체계 보유율(KPI·외부평가)과 모금 성과 상관분석
  - 기업 유형별(대·중견·중소) 지원 방식·동기 차이, 개인기부 세대별 특징
- 공표항목
  - 민간재원 총규모(억원) 및 전년 대비 증감률
  - 원천별 비중(기업/개인/재단/현물 %)과 장르별 민간재원 비중
  - 지역별 1기관당 민간재원 유입액, 지역 격차지수
  - 재원다변화지수(= 원천 다양도 지수; 정의 포함), 다년협약 비중(%)
  - 메세나 참여율(기업 표본 대비), 네이밍권 거래 건수

○ 조사기준시점 : 전년도 회계연도 실적(예: 2025년 실적 → 2026년 조사)

○ 조사기간 및 주기 : 연례 조사, 현지조사·자료수합 4~5개월

○ 작성방법 및 자료수집체계 :

- 표본설계: 장르×지역×기관규모 층화 표본(기관), 기업은 업종·규모별 층화
- 자료원 연계: (동의하에) 공익법인 공시, 후원금 영수증 발급액, 메세나협회 DB, 지자체·재단 보조금 DB
- 수집 방식: 온라인·서면 설문 + 표본심층면접(IDI), 회계자료 증빙 스캔/업로드
- 품질관리: 논리·범위 검증, 중복·이상치 탐지(금액/기관단위), 가중치·보정

⑧ 문화예술 교육·연수 효과 통계

○ 통계명칭 : 「문화예술 교육·연수 참여 및 효과 통계」

○ 통계작성목적

- 예술인·예비예술인·기획/운영인력의 **교육·연수 참여 구조와 효과성(역량·소득·취업·유통·복지 인식)**을 계량화하여 훈련 투자 우선순위와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

○ 통계작성사항

- 조사문항
  - 대상 특성: 장르, 경력, 종사형태, 지역, 학력/전공
  - 교육참여 이력: 최근 24개월 수강 횟수·시간, 과정유형(창작기술/경영·유통/디지털·AI/안전·저작권), 온라인/오프라인, 수강료·지원금
  - 품질·만족: 강사진 역량, 커리큘럼 적합성, 난이도, 실습비율, 네트워킹 기회
  - 효과(자기평가·객관지표): 역량변화(창작·기술·경영·저작권·디지털) 5점척도
  - 성과지표: 수입(전/후), 작품 수·완성도, 계약·유통 채널 수, 플랫폼 매출, 수상·선정, 사회보험 인식·가입 변화
  - 이행·전이: 배운 내용의 현장 적용 빈도, 적용 가로막는 요인(시간·비용·시설·멘토)
  - 기관(공급자) 측: 과정수·수료율, 취업·연계율, 사후코칭, 운영예산, 외부평가 실시
- 집계·분석항목
  - 인구집단별 교육참여율·수료율; 과정유형별 참여구성
  - 사전-사후 결과 비교(소득·유통채널·작품 수) 및 효과지속 기간
  - 프로그램 특성(시간·강사진·실습비율)과 효과 간 상관/회귀
  - 기관 유형별 성과(취업연계율, 사후코칭 여부에 따른 차이)
  - 미참여 사유·장벽 분석(시간/비용/정보 접근)
- 공표항목
  - 교육참여율(%), 수료율(%), 효과지수(역량·성과 복합지수, 정의 포함)
  - 사전-사후 소득증가율(%), 유통채널 증가율(%)
  - 취업·창업 연계율(%), 사후코칭 제공률(%)
  - 미스매치 지수(수요 역량 vs 공급 과정의 불일치 정도)

○ 조사기준시점 : 당해연도 1~12월 참여, 사전(직전 12개월) vs 사후(수료 6~12개월) 비교.

○ 조사기간 및 주기 : 격년(2년) 주기, 수집·연계 4~6개월.

○ 작성방법 및 자료수집체계 :

- 혼합형 설계: 개인 온라인 패널조사 + 교육기관 관리데이터 연계(수료/취업)
- 표본설계: 장르×지역×경력 층화, 기관은 규모×유형 층화
- 사전-사후 매칭: 개인 식별키(동의) 기반 개인 수준 추적, PSM/회귀조정
- 품질관리: 사전/사후 회상편향 보정, 극단치 처리, 장기효과 패널 병행

⑨ 전통문화 향유·산업화 통계(무형문화·전통공예·전통공연)

○ 통계명칭 : 「전통문화 향유 및 산업화 통계」

○ 통계작성목적

- 전통공연·전통공예·무형문화재 전승과 국민 향유·지출·체험, 산업화(매출·고용·수출·관광연계) 실태를 파악하여 보존과 산업 활성화의 균형 정책 설계

○ 통계작성사항

- 조사문항
  - 수요(국민·관광객) 조사
  - 향유/체험 빈도(공연·장터·공방·축제), 동반자, 지출(티켓·체험·구매)
  - 인식·태도: 전통의 현대적 가치·디자인, 진품성, 접근성·가격 장벽
  - 채널: 정보획득 경로(관광·SNS·학교), 온라인 구매/체험 여부
  - 만족·재이용 의향, 장벽(거리·시간·정보·가격)
  - 공급(예능보유자·공방·단체·기관) 조사
  - 기본현황: 장르, 종사자, 전승인력(전수조교·이수자 수/연령), 작업장·공방 수
  - 매출·판로: 현장판매·도소매·온라인·수출, B2B(브랜드 협업·MD), 평균단가
  - 원재료·제작비: 원가 구조, 원재료 가격 변동, 공급망 안정성
  - 전승활동: 전수교육 운영, 수강료, 교육생 유입/이탈, 기록·아카이브
  - 정책참여: 인증(공예품, 지리적표시), 보조금·R&D·디자인 협업, 관광·축제 연계
  - 디지털화: 온라인 전시·판매, SNS·라이브커머스, IP·디자인권 등록
- 집계·분석항목
  - 장르별 향유율·평균 지출, 체험형/관람형 비중
  - 사업체 매출·고용·수출 구조, 판로별 매출 비중, 온라인 전환율
  - 전승지표: 보유자·전수생 평균연령, 이수·이탈률, 전승 교육 수요/공급 격차
  - 관광 연계 매출(축제·체험관), 정책수혜 효과(보조금·인증 보유 vs 미보유 비교)
  - 원재료 가격 변동과 수익성 상관, 디자인·브랜드 협업 효과
- 공표항목
  - 전문화 향유율(%), 1인당 전통문화 지출액(원)
  - 산업 규모(매출·고용·수출), 온라인 판매 비중(%)
  - 전승 지속가능성 지수(전수생 유입·이탈·연령구조 복합지수)
  - 지역 전통문화 활성화 지수(향유·산업·전승·관광 연계 종합)
  - 정책효과 지표(인증·보조금 보유군 vs 미보유군의 매출·수출 격차)

○ 조사기준시점 : 당해연도 기준(경제항목은 전년도 회계연도), 전승지표는 3년 추세 수집

○ 조사기간 및 주기 : 3년 주기(트라이애니얼) 권장, 수집·분석 6개월

○ 작성방법 및 자료수집체계

- 이원 설계: 국민표본(가구·개인) 조사 + 사업체(공방·단체·기관) 조사
- 자료 연계: (동의) 문화재 행정DB, 인증·보조금 DB, 지역축제·관광 통계
- 현장검증: 표본 방문·미스테리 쇼핑(가격·진품성 확인), 사진/좌표 기반 검증
- 품질관리: 다중응답 검증, 경제항목 회계자료 대조, 지역가중·후층화 보정

⑩ 예술인 직업 지속가능성 패널조사

○ 통계명칭 : 「예술인 직업 지속가능성 패널(연례)」

○ 통계작성목적

- 예술인의 소득·고용·건강·복지·경력전환의 장기 추세와 변동성, 정책 개입(지원금·교육·보험)의 인과적 효과를 추적하여 지속가능한 창작생태계 정책 설계

○ 통계작성사항

- 조사문항
  - 기본·경력: 장르, 경력연수, 학력·전공, 창작시간(주), 거주·작업공간 비용
  - 소득구성: 예술소득/비예술소득, 강의/공연/판매/플랫폼/보조금/후원 등 월별 내역
  - 고용형태·계약: 프로젝트 수, 계약기간, 표준계약서 사용, 체불·분쟁 경험
  - 사회보장: 4대보험·산재·고용보험 가입/변경, 근로·산재 특례 인지
  - 건강·웰빙(선택식): 번아웃·스트레스 스케일, 직무만족, 작업-돌봄 부담
  - 훈련·역량: 교육·연수 참여(유/무), 효과 체감, 디지털·AI 활용도
  - 플랫폼·유통: 플랫폼 유형, 노출·수익, 알고리즘 변화 체감
  - 정책·지원: 선정/탈락, 지원금 규모, 행정 부담, 이후 성과 변화
  - 충격·전환: 질병·사고·출산·이주·팬데믹 등 이벤트, 직업 지속 의향, 이탈 사유
  - 분기 다이어리(서브샘플): 월별 소득·근로·작품·판매·지원금 사건 기록
- 집계·분석항목
  - 생존·이탈 분석: 1/3/5년 생존율, 이탈 사유과 특성(생존분석/해저드)
  - 소득 이동성: 소득5분위 전이행렬, 변동성(σ, IQR), 하방위험
  - 보험·복지: 사회보험 유지율/전환율, 보험가입과 소득·건강의 관계
  - 정책효과: 지원금·교육 수혜의 차분-차분(DID) 효과(소득·유통채널·생존)
  - 불평등·격차: 성별·생애주기·지역·장르 간 소득·기회 격차 추세
- 공표항목
  - 예술인 1/3/5년 생존율(%), 연간 이탈률(%)
  - 중위소득 및 변동성 지표, 소득5분위 이동률
  - 사회보험 지속가입률(%), 표준계약서 사용률(%), 체불율(%)
  - 정책효과 추정치(지원금/교육 수혜군 vs 비교군의 연평균 소득증가율 차이)
  - 번아웃·만족지수(선택공표), 직업지속 의향(%)

○ 조사기준시점 : 베이스라인 조사 시점 기준, 이후 연례 파동(wave)으로 동일 참조기간(직전 12개월)·분기 다이어리 병행

○ 조사기간 및 주기 : 연례 패널(매년 1회, 2~3개월 필드), 분기 다이어리(선정 서브샘플)

○ 작성방법 및 자료수집체계

- 패널 구축: 예술인실태조사 참여자(동의자) + 직능단체 협조 층화모집;리프레시 샘플 주기적 편입
- 연계 데이터(동의): 사회보험·세무(요약), 지원사업 수혜 이력, 교육·연수 수료
- 수집 방식: 온라인 설문 + 모바일 다이어리 + 표본 심층면접
- 유지 전략: 소정 인센티브, 리텐션 관리, 파동 간 연락망 업데이트
- 분석: 가중치·탈락(어트리션) 보정, 생존·패널모형 적용, 개인정보·윤리 준수

제5절 5대 신규 통계 과제 확정 및 전략적 가치

1. 과제 선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검증

가. 법적 정당성 및 타 기관 통계와의 중복성 회피 전략

○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신규 통계 과제들이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 근거의 명확성과 기존 통계와의 차별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함

■ 문예위 법정 사업과의 연계성을 통한 법적 정당성 확보

○ 근거 법령 :

-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위원회의 고유 목적 사업과의 부합성을 검토함

○ 논리 구축

- 5대 핵심 신규 통계(산업규모, 무역, 노동, 지역, 재원)는 위원회가 수행하는 창작 지원, 예술인복지, 재원 확충, 지역 문화 진흥 업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필무적 데이터'임을 명시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함

○ 책무성 이행

- 증거 기반 정책(EBPM) 기조에 따라, 공공 재원 투입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것은 위원회의 법적 책무임을 강조하여 통계 생산의 당위성을 강화함

■ 타 기관 통계와의 관할권 중복 방지 및 차별화 전략

○ 중복성 스크리닝

-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 목록' 및 문체부 소관 24종 통계와의 조사 항목(Item) 단위 대조를 통해 모집단 및 지표의 중복 여부를 정밀 진단함

○ 차별화 전략(Scope & Depth)

- 범위의 차별화 : 일반적인 '문화 향유' 통계(문체부)와 달리, 위원회의 통계는 '전문 예술 창작 생태계' 및 '예술 산업 가치사슬'에 집중하여 조사 대상을 특화함

- 심도의 차별화 : 거시적 현황 파악에 그치는 기존 통계와 달리, 부가가치 산출(산업계정), IP 거래액(무역), 플랫 폼 소득(노동) 등 정책 의사결정에 즉시 투입 가능한 미시적·심층적 지표를 설계함

○ 거버넌스 협력

- 통계청 및 관련 유관기관(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통계를 '보완'하거나 '연계'하는 방식으로 관할권 갈등을 사전에 차단함

나. 전문가 자문을 통한 조사 방법론적 타당성 및 예산 효율성 평가

○ 도출된 과제들이 이론적 가설에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조사 가능한 모델인지 검증하기 위해, 통계학자, 정책 전문가, 현장 실무자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의 다단계 검증(Expert Delphi)을 실시함

■ 조사 방법론적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검토

○ 기술적 실현 가능성

- KOPIS(공연), ISBN(문학) 등 행정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료 수집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데이터 스키마 정합성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저해 요인은 없는지 집중 검토함

○ 표본 설계의 과학성

- 신규 통계의 특성에 맞는 적정 표본 규모와 모집단 프레임 확보 가능성을 진단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사 방법론을 확정함

○ 현장 수용성 평가

- 응답자(예술인, 단체 등)의 조사 피로도를 고려하여 설문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 및 조사 UX 개선 방안의 타당성을 점검함

■ 타예산 투입 비용 대비 효용성(ROI) 평가

○ 경제적 효율성 분석

- 전면적인 신규 실태조사 방식보다는 기존 행정 데이터 연계 및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내 특화 모듈 삽입 방식을 우선 검토하여 통계 생산 비용을 최소화함

○ 정책적 효용성 가중치 부여

- 투입되는 예산 대비 해당 데이터가 생성할 정책적 가치(예: 예산 증액 근거 마련, 신규 지원 사업 설계 등)를 점상화하여 과제 추진의 우선순위를 결정함

○ 지속 가능성 검토

- 1회성 조사가 아닌 정기적인 통계 생산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의 안정성을 평가하여, 기관의 중장기 운영 계획과 정렬(Alignment)되는 과제를 최종 선정함

○ 이러한 다각적인 타당성 검증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신규 통계 개발이 가져올 '정책적 실익'과 '행정적 비용' 사이의 최적 균형점을 도출하며, 이는 최종 5대 핵심 과제 선정의 객관적인 필터링 기준으로 작용함

다. 과제 선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검증

[표 4-17] 과제 선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검증 결과

통계명칭	선정	탈락	이유
① 예술산업 현황 조사	○		· 문예위 법정업무 중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및 재원 조성”에 직접적 근거 · 현행 통계는 활동 건수 중심이라 산업·경제 규모 지표는 공백 상태이며, 정교한 국가정책 설계를 위해 필수적임 · 예술을 ‘소비적 복지’가 아닌 ‘생산적 전략 산업’으로 재정의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 확보가 시급함

통계명칭	선정	탈락	이유
② 문화예술 가치 측정 통계	○		· 문예위 법정업무 중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및 재원 조성”에 직접적 근거 · 예술 지원을 '소비'가 아닌 '미래 자산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화폐적 수익률(ROI) 실증 필요 · 시장 가격이 없는 예술의 공공·상징적 가치를 계량화하여 정책의 사회적 타당성 및 예산 확보 근거 마련
③ 예술인 노동시장·플랫폼 통계	○		· 법정업무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과 직결 · 현행 예술인실태조사도 있으나 플랫폼 노동·사회보험 적용·계약 안정성 같은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 반영이 부족
④ 지역별 생활권 문화 접근성 실태조사	○		· 법정업무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수 · 기존 지역문화현황통계는 시설 수·프로그램 중심이라 접근성·격차·SOC 활용 지표가 미비하여 생활권 단위 맞춤형 정책 근거로 중요
⑤ 공공미술 자산 관리 실효성 실태조사	○		· 법정업무인 공공미술 진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별 파편화된 DB를 통합한 국가 차원의 표준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정부의 사후관리 부실 개선 요구에 대응하여 국가승인통계 격상을 통한 정책적 공신력 및 관리 실효성 확보가 요구됨
⑥ 디지털 문화예술 참여 실태조사	○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예술 소비의 중요성이 매우 크며, 범용 콘텐츠산업 통계와 차별화된 '예술적 가치 중심의 디지털 향유 실태' 파악을 위한 위원회 차원의 독자적 지표 구축이 필요함 · 위원회의 법정사업인 '디지털 예술 창작 및 향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통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술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담 조사가 요구됨
⑦ 문화예술 재원 통계	○		· 법정업무 “문화예술 재원의 확충·조성”과 일치 · 현재 승인통계 어디에도 민간 기부·후원·메세나 현황이 없음 · 공공재원 의존도를 낮추고 민관 매칭펀드 설계 위해 필요
⑧ 문화예술 교육·연수 효과 통계		●	· 법정업무에 교육연수가 명시되어 있으나, 현장 수요가 특정기관(예술인력개발원, 예술인복지재단)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고, 이미 개별 사업 성과평가 지표로 수집 가능
⑨ 전통문화 향유·산업화 통계(무형문화·전통공예·전통공연)		●	· 전통문화는 문화재청(무형문화재 통계, 전통공예 산업 조사)와 관할 중복 · 문예위보다는 문화재청·관광공사 연계 과제로 적합
⑩ 예술인 직업 지속가능성 패널조사		●	· 매우 필요하지만, 기존 “예술인실태조사”와 범위·대상이 상당히 겹침 · 패널조사로 확장 시 조사부담·예산 과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단기과업으로는 어려움

2. 최종 7대 신규 통계 과제 선정 결과

○ 본 연구는 10개 후보 과제에 대한 법적 정당성, 중복성, 실현 가능성 및 전문가 자문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미래 정책 대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7대 핵심 신규 통계 과제'를 최종 확정함

○ 선정된 7대 과제는 문화예술의 산업적 가치 입증(경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유통), 예술인 권익 보호(노동), 지역 불균형 해소(복지), 민간 협력 활성화(재원)라는 정책적 핵심 축을 포괄하도록 설계됨

[표 4-18] 최종 선정 7대 신규 통계 과제 및 선정 요약

후보 과제명	정책 연계성	핵심 선정 사유
① 예술 산업 현황 조사	기초예술의 산업적·경제적 위상 제고	· 단순 활동 건수 위주의 기존 통계에서 탈피하여 문화위성계정(CSA) 작성을 위한 매출액, 부가가치(GVA) 등 핵심 경제 지표의 공백 해소 · 예술 상품 및 서비스의 투입-산출 구조와 노동 투입 실태를 분석하여 위원회 법정 업무(정책연구, 재원 조성) 수행을 위한 직접적·객관적 근거 확보 · 국가 경제 내 기초예술의 산업적 기여도를 실증하고 타 산업과의 비교 분석이 가능한 표준 통계 체계 구축
② 문화예술 가치 측정 통계	예술의 다차원적 가치 실증	· 예술 지원을 '사회적 투자'로 재정의하기 위해 SROI(사회적 투자수익률) 및 CVM(가상가치평가)을 활용한 화폐적·상징적 가치 계량화 · 비가시적 노동 가치 등 예술 고유의 정책 효과를 실증하여 공공 지원의 객관적 당위성 확보 및 예술의 사회적 위상 제고
③ 예술인 노동시장 및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예술인 복지 고도화	· 비정형 노동(Gig work) 확산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 창작자의 고용 규모와 근로 조건의 객관적 파악 · 고용·산재보험 가입 실태 및 불공정 계약 사례 계량화를 통한 예술인 사회안전망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신유형 예술 노동자의 법적 지위 보호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
④ 지역별 생활권 문화 접근성 실태조사	지역 균형 발전	· 시설 수 중심의 양적 통계에서 탈피하여 GIS 기반의 실질적 접근성 및 생활권 단위 격차 정밀 진단 · 문화 소외 지역(Dead Zone) 식별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자원 배분 및 생활SOC 최적 입지 선정 근거 확보 · 향유 격차 실증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성과 지표로 활용
⑤ 공공미술 자산 관리 실효성 실태조사	공공적 문화 자산의 가치 보존 및 안전 관리	· 정부의 공공미술 사후관리 부실 개선 요구에 대응하여 국가승인통계 격상을 통한 정책적 공신력 및 관리 실효성 확보 · 법정업무인 '공공미술 진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별 파편화된 DB를 통합한 국가 차원의 표준 관리 체계 구축
⑥ 디지털 문화예술 참여 실태조사	디지털 대전환 및 예술 향유 저변 확대	· 범용 콘텐츠산업 통계와 차별화된 '예술적 가치 중심'의 디지털 참여 행태 및 신기술 활용 창작 실태 파악을 위한 독자 지표 구축 · 법정사업인 '디지털 예술 진흥'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존 통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예술 현장의 디지털 전환 특수성 반영
⑦ 문화예술 재원(민간기부·후원) 통계	재원 구조 다각화	· 공공 지원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분석하고 민간 재원의 자생적 유입 경로를 파악하여 예술 생태계의 건강성 측정 · 특정 회원사 중심의 기존 조사를 넘어 개인 기부와 중소기업 후원을 포괄하는 표준 통계 구축으로 데이터 사각지대 해소 · 세제 혜택 확대 및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된 맞춤형 인센티브 정책 설계를 위한 객관적 근거 확보

3. 과제별 선정 사유 및 전략적 기대 효과

가. 예술 산업 현황 조사

○ 선정 사유

- 현행 국가승인통계가 공연·전시 등 '활동 건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기초예술의 실질적 경제 규모와 산업 구조를 파악하는 지표는 공백 상태임
- 문예위 법정 업무인 정책연구와 재원 조성을 위한 객관적 근거 확보가 시급하며, 예술을 '소비재'가 아닌 '생산적 전략 산업'으로 재정의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가 필수적임

○ 기대 효과

- 기초예술 고유영역의 생산-유통-소비 생태계를 지도로 작성하여 정책 설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예술 산업의 경제적 위상을 격상시킴으로써 민간 투자 견인 및 산업적 자생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함

나. 문화예술 가치 측정 통계

○ 선정 사유

- 예술 지원금을 단순 소모성 경비로 간주하는 시각을 탈피하기 위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예술의 사회적·심미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함
- 비가시적 창작 노동과 사회적 기여도를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학적 모델링(SROI, CVM 등)을 통해 예산 당국과 대국민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임

○ 기대 효과

- 예술 지원을 '사회적 자산 투자'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실현하고, 예술이 국민의 행복과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는 무형의 가치를 지표화함으로써 예산 증액 및 정책 지속성을 위한 강력한 논리적 방패를 구축함

다. 예술인 노동시장 및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 선정 사유

- 비정형·플랫폼 노동이 급증하는 예술 현장의 변화를 기존 통계가 포착하지 못해, 예술인 고용보험이나 복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새로운 노동 구조에 최적화된 데이터 확보가 시급함

○ 기대 효과

- 플랫폼 기반 예술인의 실질 소득과 계약 형태를 파악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함

라. 지역별 생활권 문화 접근성 실태조사

○ 선정 사유

- 시설 수 등 공급자 중심의 양적 통계에서 탈피하여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도달 권역과 생활권 단위의 접근성을 정밀 진단함
- 격자(Grid) 단위 분석으로 문화 소외 지역(Dead Zone)을 명확히 식별하여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자원 배분 및 생활SOC 최적 입지 선정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함
- 지역 간 향유 격차와 인구 유출 간의 상관관계를 데이터로 실증하여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 성과 지표(KPI)로 활용함

○ 기대 효과

- 기초지자체별 접근성 지도(Accessibility Heatmap)를 통해 문화 격차를 시각화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맞춤형 생활SOC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의 객관적 근거를 제공함
- 생활권 단위의 미시적 활용도 지표를 정책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

마. 공공미술 자산 관리 실효성 실태조사

○ 선정 사유

- 법정업무인 '공공미술 진흥'의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별로 파편화된 개별사업 DB를 통합하여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공공미술 자산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됨
- 정부의 공공미술 사후관리 부실 개선 요구에 따라 기존 행정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승인통계 격상을 통한 정밀 실태조사로 정책적 공신력 및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공미술을 단순 시설물이 아닌 지속 관리해야 할 공적 자산으로 규정하여, 노후도 점검 및 안전관리 등 능능동적인 사후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함

○ 기대 효과

- 전국 공공미술 자산의 관리 실태를 전수 진단함으로써 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작품의 훼손 및 방치를 방지하여 도시 미관 개선과 시민 안전을 확보함
- 유지관리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분석하여 재정 투입 대비 가치 보존율을 높이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공공미술 보존 전략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공공미술이 지역에 미치는 실질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계량화하여 정책 환류(Feedback)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인 공공미술 진흥 정책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함

바. 디지털 문화예술 참여 실태조사

○ 선정 사유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예술 소비 및 창작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범용 콘텐츠산업 통계와 차별화된 **'예술적 가치 중심'**의 독자적인 디지털 참여 지표 구축이 필요함.
- 기존 행정 자료가 포착하기 어려운 AI·NFT 등 신기술 활용 창작과 가상공간 내 예술 활동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함.

- 위원회 법정사업인 ‘디지털 예술 진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예술 생태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근거 마련이 요구됨.

○ 기대 효과

- 온라인 실시간 공연 및 VR 전시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향유 도달률을 계량화하여, 온-오프라인 예술 활동 간의 상호 보완성 분석 및 예술 저변 확대 전략 수립에 활용함.
- 일반 국민의 능동적 창작 참여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프로슈머 중심의 디지털 예술 지원 사업을 설계하고, 신기술 기반 예술 창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 지표를 제공함.
- 세대별·지역별 디지털 참여 격차를 진단하여 보편적인 디지털 문화 복지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성공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견인함.

사. 문화예술 재원(민간 기부·후원·메세나) 통계

○ 선정 사유

- 문예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가 과제인 상황에서, 공공 재원 위주의 구조를 민간 재원과 결합하는 '재원 다각화' 전략이 필수적임. 기부와 후원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통계가 부재하여 정책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 기대 효과

- 민간 재원의 유입 경로와 규모를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기업 메세나 및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정책을 정교화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창출함

[표 4-19] 최종 7대 신규 통계 과제별 선정 사유 및 전략적 기대 효과 요약

최종 선정 과제	핵심 선정 사유	전략적 기대 효과
① 예술 산업 현황 조사	· 활동 건수 위주의 지표 공백 해소 및 산업적 위상 정립 필요 · 기초예술을 '소비적 복지'가 아닌 '생산적 전략 산업'으로 재정의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 마련	· (전략 산업화) 기초예술 중심의 생산·유통 구조 가시화로 산업 자생력 강화 · (경제 지표 확보) 매출·고용 등 실질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산업 육성 정책 추진
② 문화예술 가치 측정 통계	· 소모적 복지 논리 탈피 및 투자 효율성(ROI) 실증 요구 · 예술의 사회적 가치 및 비시장적 상징 가치의 화폐화·계량화 필요	· (정책 정당성 고도화) SROI·CVM 등 다차원적 가치 입증을 통한 예산 확보 논리 구축 · (가치 패러다임 전환) 예술 지원의 사회적 환원 성과를 시각화하여 대국민 공감대 형성
③ 예술인 노동시장 및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 플랫폼 창작·긱 노동 등 신유형 노동 급증 · 기존 실태조사로 포착 불가능한 고용 구조 진단	· (사회안전망 정교화) 예술인 고용보험 등 실효적 복지 정책 설계 기초 제공 · (권익 보호) 비정형 노동자의 소득 및 계약 형태 증명을 통한 권익 대변
④ 지역별 생활권 문화 접근성 실태조사	· 시설 수 중심의 양적 통계에서 탈피하여 GIS 기반의 실질적 접근성 및 생활권 단위 격차 정밀 진단 · 문화 소외 지역(Dead Zone) 식별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자원 배분 및 생활 SOC 최적 입지 선정 근거 확보	· (격차 시각화) 접근성 지도를 통한 취약 지역 식별 및 맞춤형 문화 인프라 확충 지원 · (균형 발전) 생활권 미시 지표 반영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 및 지역 소멸 위기 대응
⑤ 공공미술 자산 관리 실효성 실태조사	· 지자체별 파편화된 DB 통합 및 국가 차원의 표준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 정부의 사후관리 부실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공신력 있는 정밀 진단 데이터 확보 필요	· (관리 책임 강화) 작품 훼손·방치 방지 및 안전 관리를 통한 도시 미관 및 시민 안전 확보 · (보존 전략 고도화) 재정 투입 대비 가치 보존율 분석을 통한 현장 중심의 보존 가이드라인 마련
⑥ 디지털 문화예술 참여 실태조사	· 범용 콘텐츠 통계와 차별화된 예술적 가치 중심의 참여 행태 및 신기술 활용 창작 실태 파악 · AI·NFT 등 신기술 기반 예술 활동에 대한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 및 기초 데이터 구축	· (향유 저변 확대) 온-오프라인 예술 활동 간 상호 보완성 분석을 통한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 (생태계 활성화) 프로슈머 및 신기술 창작자 참여 실태 파악을 통한 능동적 예술 생태계 육성
⑦ 문화예술 재원(민간기부·후원) 통계	· 공공 재원 의존도 탈피 및 재원 다각화 시급 · 파편화된 민간 기부 데이터의 통합 관리 요구	· (민간 활력 제고) 기부 인센티브(세제 등) 설계 근거 마련 및 후원 활성화 · (거버넌스 확장) 공공-민간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한 생태계 지속성 확보

4. 증거 기반 문화정책(EBPM)의 이정표 정립

가. 통계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 '단순 현황 보고'에서 '가치 실증'으로

○ 최종 선정된 5대 핵심 과제는 단순히 통계 종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를 넘어, 우리나라 문화예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거의 데이터에 머무는 '단순 현황 보고'에서 정책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가치 실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임

[표 4-20] 기존 통계 체계와 신규 통계 체계의 차이

구분	기존 통계 체계	신규 통계 체계
관점	수혜자 중심의 복지·지원 관점	산업적 생태계 및 자생력 관점
지표	활동 건수, 단순 관람객 수 등	부가가치(GVA), 사회적 수익률(SROI), 지불용의액
효과	사후적 실태 파악 및 나열	사전적 리스크 진단 및 정책 시뮬레이션

나. 정책 연계 및 데이터 거버넌스의 고도화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규 통계들은 문예위(ARKO)의 법정 사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임팩트를 창출할 것임

- 예산 배분의 과학화
  - 예술 산업의 실질적 경제 기여도와 지역별 격차 지표를 연계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객관적 의사결정 알고리즘의 기초를 제공함
- 정책 성과의 가시성 제고
  - 비가시적 노동 가치와 사회적 환원 성과를 화폐화함으로써, 예술가와 일반 국민이 정책의 효용을 피부로 체감하는 '체감형 EBPM'을 실현함
-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 확립
  - 민간 재원의 유입 경로를 투명하게 분석하여, 공공 예산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 기반의 다각화된 재원 모델을 제시함

다. 맺음말 : 문예위의 새로운 50년을 향한 데이터 이정표

○ 본 연구는 신규 통계 개발이 문예위의 법정 사업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리적 토대가 될 것임을 확신함

○ 이는 문예위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를 넘어, 데이터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경제적 영토를 확장하는 우리나라 문화 행정의 사령탑으로 거듭나는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임

제5장

문화예술 신규 통계 세부 설계

제1절 신규 통계 세부 설계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체계

○ 본 장에서는 제4장에서 도출된 5대 핵심 과제 및 전략 과제들을 바탕으로, '증거 기반 문화 정책(EBPM)'을 실현하기 위한 7개 신규 통계의 정밀 설계안을 제시함

○ 이번 설계는 문화예술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닌, 국가 경제와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다차원적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그 가치를 숫자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임

○ 제5장에서 다루는 7개 분야의 설계 방향은 다음과 같은 통합적 관점을 견지함

- 첫째, 경제적 위상의 객관화와 산업 지도 작성임
  - 제1절(예술 산업 현황 조사)과 제2절(문화예술 가치 측정 통계)은 기초예술 분야의 경제적 규모(GVA)와 산업 간 연관 효과, 그리고 비시장적 상징 가치를 계량화하여 예술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실질적 부가가치를 실증함
- 둘째, 예술 노동의 특수성 인정 및 사각지대 해소임
  - 제3절(예술인 노동시장 및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플랫폼 창작과 긱 노동(Gig work) 등 비정형 노동 실태를 포착하여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
- 셋째, 공간 기반의 접근성 강화와 자산 관리 실효성 확보임
  - 제4절(지역별 생활권 문화접근성 실태조사)은 GIS(공간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생활권 단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며, 제5절(공공미술 자산 관리 실효성 실태조사)은 공적 자산으로서의 공공미술 관리 체계를 정밀 점검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
- 넷째, 미래 기술 환경 대응 및 재원의 다각화임
  - 제6절(디지털 문화예술 참여 실태조사)은 AI·NFT 등 신기술이 견인하는 능동적 참여 행태를 분석하며, 제7절(문화예술 재원 통계)은 공공 재원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민간 기부와 메세나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추적함

○ 결국, 본 장에서 제시하는 7개 통계 설계안은 분절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비가시적인 예술의 가치를 가시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능형 데이터 거버넌스'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임

제2절 예술 산업 현황 조사 설계

1. 개요

○ 통계명칭 : 「예술 산업 현황 조사」
○ 통계종류 : 일반통계 및 가공통계 (행정자료와 실태조사의 하이브리드 결합)
○ 개념 정의
  - 문학·시각예술·공연예술 등 기초예술 활동을 수행하는 생산단위(단체·기업 등)가 창출하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산출액, 부가가치, 고용 규모 등을 국민계정체계(SNA) 원칙에 따라 집계한 통계임
○ 개발의 필요성
  - 산업적 실태의 투명한 가시화
    • 예술가 및 단체의 노동 형태와 재무 구조를 데이터로 시각화하여 증거 기반 행정(EBPM)의 토대 마련
  - 독자적 산업 지도 작성
    • 콘텐츠산업(KOCCA)과 차별화된 기초예술 고유영역의 경제적 규모를 파악하여 정책 설계의 객관적 기초(Raw Data) 제공
  - 경제적 위상 객관화
    • 기존 '활동 건수' 중심 통계에서 벗어나 기초예술의 부가가치와 고용 효과를 산출하여 정책적 정당성 확보

2. 법적 근거 및 작성 체계

○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 및 제18조(기금의 용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법정 업무인 '문화예술 진흥 정책 연구' 수행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재원 조성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의 법적 근거임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및 제15조(통계기반정책관리)
    • 신규 통계의 국가 승인을 통한 공신력 확보 및 범정부적 '통계기반 정책관리' 체계와 연계
○ 작성 체계
  - 예술산업 특수분류 체계 적용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연계한 독자적 분류를 통해 타 산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순수 기여도 분리 추출
  - 전주기 가치사슬(Value Chain) 포괄
    • 원천 창작부터 유통, 매개, 최종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경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포함
  - 데이터 정합성 확보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로 전체 규모를 통제하고, 미시 실태조사로 장르별 세부 비중을 안분하는 병행 방식 채택

3. 조사 및 분석 체계

○ 분석 방법론 : 문화위성계정(CSA) 모델 고도화
- 국민계정(SNA)과의 정합성 유지
  • 국가 전체 경제 내 예술의 비중을 정밀 산출하기 위해 SNA 중심 구조 유지
- 공급사용표(SUT) 구축 및 분석
  • 예술 상품 및 서비스의 총공급 규모를 파악하고, 산업 내 중간 소비 및 최종 소비로 배분되는 흐름 추적

○ 자료 수집 및 하이브리드 연계 체계
- 데이터 수집 전략
  • 직접 설문보다 행정 데이터와 국가 승인 통계의 2차 가공 및 연계를 중심으로 설계하여 응답 부담 최소화
- 다층적 데이터 활용
  • 거시(I-O Table), 미시(경제총조사, 사업자 데이터), 보조 지표(예술인 실태조사 등)를 입합적으로 활용
- 데이터 거버넌스 최적화
  • KOPIS, 예술인복지재단, 국세청 등 분절된 DB를 통합 연계하는 스키마 적용

4. 조사 대상 및 범위

○ 조사 대상 : 예술 생태계 내 생산·유통·매개 주체
- 예술 산업 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 기초예술 관련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유통, 판매하는 모든 경제 단위(영리,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와 종사자 전체
- 독립 예술인 및 개인 사업자
  • 조직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 예술 활동을 수행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을 포함하여 데이터 사각지대 해소

○ 조사 범위 : 기초예술 기반의 전주기 생태계
- 장르별 핵심 영역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등 전 장르 포괄
- 가치사슬별 서비스 영역
  • 창작, 전시기획, 공연 제작, 유통, 매개 및 교육 서비스 등 전 영역
- 공간적 데이터 범위
  • 전국 단위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격차 분석을 위한 지리정보(GIS 연계 주소) 필수 수집

5. 상세 조사 및 집계 항목

구분	주요 조사 및 분석 지표	데이터 소스 및 산출 방식
조사문항	① 기관/단체 현황: 설립연도, 업종코드, 조직형태(영리/비영리/사회적기업 등), GIS 정보	설문조사 + 행정자료(KSIC 등) 연계
	② 재무 및 매출: 연간 총매출, 장르별 수입원(티켓, 후원, 보조금, 부대사업, 저작권 수익 등)	사업자 등록 정보 및 실태조사 응답값
	③ 비용 집행: 인건비, 시설운영비, 제작비, 저작권료 지출, 마케팅비 등 항목별 지출액	재무제표 확인 및 항목별 안분 조사
	④ 인적 자원: 고용형태(정규/계약/프리랜서), 숙련도(경력), 예술 외 겸업(N잡러) 현황	고용보험 데이터 및 실태조사 보완
	⑤ 자산 및 투자: 시설/장비 투자액, 창작 준비(R&D) 비용, 지식재산권(IP) 보유 건수	기업활동조사 및 특화 실태조사
집계·분석	① 산업 규모: 장르별·업종별 총매출액 및 전년 대비 성장률 추이 분석	I-O Table 모델링 및 가공 분석
	② 비용 구조: 산업 내 투입 비용(제작비, 인건비 등) 비중 및 효율성 진단	투공급사용표(SUT) 적용 분석
	③ 재원 건강도: 공공보조금 대비 민간 재원(자체수익+후원)의 자생적 비율 측정	투입산출표 기반 재무 건전성 도출
	④ 노동 시장: 예술 산업 내 고용 형태별 비중 및 평균 종사 기간 분석	SNA 기준 노동 투입량 추계
	⑤ 공간 분포: 지역별 예술 산업 인프라 및 단체 밀집도 분석(GIS 연계)	공간 통계(GIS) 분석 기법 적용
공표항목	① 예술 산업 장르별 총생산액(GVA) 및 종사자 수	국가통계 공표
	② 예술 단체·기업의 평균 매출 및 재무 건전성 지표	장르별 비교 지표 제공
	③ 고용 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프리랜서) 인력 분포 현황	노동 시장 실태 리포트
	④ 민간 후원금 및 저작권 수익 유입 규모	민간 재원 활성화 지표

6. 조사 주기 및 방법

○ 조사 주기: 매년 (Annual)

- 시계열 정합성 확보를 위해 1년 주기로 실시하며 최신 현황을 정책에 즉시 반영

○ 조사 방법: 하이브리드(Hybrid) 데이터 수집 체계

- 행정자료 연계 및 검증 : 국세청, 고용부, 통계청 데이터와 KOPIS, 예술인복지재단 DB 통합 연계
- 표준 및 보완 실태조사 : 행정자료로 파악 어려운 세부 항목(R&D 비용, 저작권 수익 등) 정밀 표본조사
- 데이터 거버넌스 : 분절된 DB 간 통합 스키마를 적용하고 무응답/오응답 보정(Cleaning)을 통해 신뢰도 확보

7. 공표 항목 및 활용 방안

○ 주요 공표 항목
- 산업 규모 및 인력 : 장르별 총생산액, 종사자 수, 고용 형태별 분포
- 재무 및 수익 : 평균 매출, 재무 건전성 지표, 민간 후원 및 저작권 수익 규모
- 거시 지표 : 조부가가치(GVA) 총액 및 GDP 대비 비중, 생산/고용유발계수

○ 활용 방안
- 정책 타당성 입증
  • GVA와 고용 창출 효과를 입증하여 예산 증액 및 신규 사업 기획 근거로 활용
- 지역 생태계 진단
  • GIS 분석을 통해 지역 문화 소멸 대응 및 균형 발전 정책 수립
- 민간 시장 활성화
  • 민간 투자사에 신뢰성 있는 시장 데이터를 제공하여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

8. 국가데이터처 승인을 위한 전략적 대응 논리

○ 산업 분류의 정교화 및 배타적 영역 확보
- 논리적 근거
  • 문화예술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독자적인 대분류가 존재하지 않아 기존 통계로는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음
  • 본 조사는 KSIC를 기반으로 기초예술 가치사슬을 재구조화한 예술 산업 특수분류를 적용하여 산업적 실체를 규명함
- 중복 배제의 차별성
  • 정밀한 분류 연계표(Mapping Table)를 구축함으로써, 콘텐츠 산업(KOCCA) 등 인접 산업과의 중복 범위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함
  • 이를 통해 기초예술 영역만의 순수 기여도를 분리 추출하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함
- 가치사슬의 포괄성
  • 창작 단계에 국한되었던 기존 통계와 달리 유통, 매개, 소비 단계의 전주기 경제 활동을 매핑하여 예술 산업 전체의 실태를 빈틈없이 포착함

○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통계적 엄밀성
- 분석 기법의 고도화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I-O Table)를 기초 통계량(Control Total)으로 설정하고, 미시 실태조사 데이터를 통해 장르별 세부 비중을 안분하는 Top-down & Bottom-up 병행 분석 방식을 채택함
- 행정자료 기반의 하이브리드 검증
  • 국세청(매출), 고용노동부(보험), KOPIS(공연실적) 등 검증된 행정 데이터와 실태조사를 결합(Hybrid)하여 표본 오차를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정합성을 극대화함

- 거시 지표와의 비교 가능성
  - 국민계정체계(SNA) 원칙에 입각하여 조부가가치(GVA)를 산출함으로써, GDP 등 국가 거시 경제 지표와 직접 비교가 가능한 수준의 통계적 엄밀성을 확보함

○ 정책적 활용 가치 및 글로벌 정합성
- 정책적 시급성 및 근거 행정(EBPM)
  - 본 통계는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등 국가 차원의 핵심 성과 지표로 직결됨. 또한 예산 배분의 과학화를 위한 증거 기반 정책(EBPM)의 원천 자료(Raw Data)로 활용되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함
-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
  - 유네스코(UNESCO) 및 OECD 문화통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설계됨으로써, 국가 간 문화 산업 규모 비교가 가능한 글로벌 표준 데이터를 생성함
- 경제적 파급 효과의 실증
  - 단순 현황 파악을 넘어 생산·부가가치·고용유발계수를 도출함. 이는 공공 재원 투입의 경제적 타당성을 실증하고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결정적 기초 자료가 됨

【부록】 국가승인통계 승인 신청용 조사항목 상세 기술서

1. 조사항목 구성 개요

○ 본 통계의 항목은 기초예술 생산 단위(기업, 단체, 개인사업자)의 산출액(Output)과 중간투입(Intermediate Consumption)을 정밀 분리하여, 최종적으로 조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됨

○ 모든 항목은 기업 회계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연계 예술산업 특수분류 및 국민계정(SNA) 작성 원칙을 준수함

2. 항목별 상세 기술서 (주요 항목 발췌)

○ 생산 및 매출액 항목 (산출액 도출용)

항목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내용	도입 근거 및 활용 방안	비고
기초예술 본원 상품 매출액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예술 창작 및 실연 활동을 통해 발생한 총수입액	기초예술 산업의 실질적 시장 규모(Market Size) 측정 및 장르별 산출 비중 분석	핵심 지표
예술 서비스 및 IP 매출액	예술 교육, 컨설팅, 저작권료(IP) 및 매개 서비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액	예술 활동의 연쇄적 부가가치 파악 및 지식재산(IP) 산업으로서의 확장성 진단	특화 항목
정부/지자체 보조금	생산 활동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경상 및 제작 보조금 등	시장 가격 기준의 산출액을 기초 가격(Basic Price)으로 보정하여 GDP 기여도 정밀 계산	보정 지표

○ 비용 및 투입 구조 항목 (부가가치 산출용)

항목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내용	도입 근거 및 활용 방안	비고
중간 소비액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원재료비, 제작비, 외부용역비 및 창작 준비(R&D) 비용의 합계	총산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필수 투입 비용 항목	SNA 기준
피용자 보수 (인건비)	임직원, 상근 및 프리랜서 예술가에게 지급된 임금, 상여금 및 사회보험료 등	예술 산업의 소득 창출 기여도 및 비가시적 노동의 가계 소득 환원 효과 측정	부가가치 구성
고정자본 소모	생산에 사용된 공연·전시 시설, 기계, 전용 장비 등의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감소분	순부가가치(NVA) 산출 및 예술 인프라의 재투자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	회계 기준

○ 고용 및 노동 투입 항목 (사회적 기여도)

항목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내용	도입 근거 및 활용 방안	비고
상시 종사자 수	조사 기준 시점의 유급 종사자(정규직 및 1년 이상 장기 계약직) 수	기초예술 분야의 고용 창출 능력 및 공공 지원에 따른 일자리 성과 지표로 활용	고용 지표
비정형/겸업 종사자 비중	전체 인력 중 프리랜서, N잡러(겸업) 등 비정형 노동 인력의 수 및 비중	예술 노동 시장의 특수성(플랫폼·긱 노동 등) 진단 및 고용 안전망 정책 설계 근거	신설 항목

3. 통계적 정합성 및 품질관리 방안 (심사 핵심 기술)

① 분류 체계의 엄밀성

○ 예술산업 특수분류 매핑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산재한 문화예술 활동을 가치사슬별로 재그룹화한 '예술산업 특수분류 연계표'를 적용하여 콘텐츠 산업(KOCCA)과의 중복을 배제함

○ 모집단 정교화

- 국세청 사업자 데이터와 문예위 보유 '문화예술활동 현황 DB', 'KOPIS(공연전산망)'를 연계하여 순수 기초예술 생산 단위만을 특정(Targeting)함으로써 중복 집계를 방지함

② 산출 방식의 과학적 근거

○ 공급사용표(SUT) 기반 추계

- 조사된 미시 데이터(Micro-data)를 한국은행 산업연관표(I-O Table)와 비교·보정하는 'Top-down & Bottom-up' 방식을 채택하여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함

○ 시계열 안정성

- 매년 동일한 회계 및 노동 항목을 조사함으로써 기초예술 산업의 주기 분석(Business Cycle) 및 연도별 성장률 도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③ 비표본오차 및 응답 품질 관리

○ 하이브리드 데이터 검증

- 응답 수치가 국세청 재무제표 및 고용보험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내검(Editing)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분절된 행정 DB 간의 교차 검증을 실시함

○ 응답 유인 제공

- 조사 참여 단체에 '장르 내 재무/인력 위치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고 향후 경영 컨설팅 자료로 활용하게 함

[조사표 초안] 문화예술 산업규모 산출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

1. 조사 설계의 핵심 포인트

○ 목적

- 기초예술(문학·시각·공연 등) 생태계의 가치사슬별 경제 규모 파악 및 문화위성계정(CSA) 작성을 위한 산출액·중간투입 구조 실증

○ 응답 단위

- 결산서(재무제표) 및 인사 자료 확인이 가능한 기업·기관·단체 회계/관리 담당자

○ 특이사항

- 콘텐츠 산업(KOCCA) 등 인접 영역과의 중복을 배제하기 위한 '예술 산업 특수분류' 기반의 매출 비중 분리 및 지역 격차 분석을 위한 지리정보(GIS) 수집

2. 구체적 설문 문항 (Questionnaire)

□ 모듈 A. 기업/단체 일반 현황 (분류 및 지역 분석)

○ A1. 귀사의 주된 예술 활동 분야는 무엇입니까?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다원예술 등 상세 기술)

○ A2. 귀사의 법인 격은 무엇입니까?

① 영리법인 ② 비영리법인(사단/재단)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포함) ④ 개인사업자(예술가 포함)

○ A3. 귀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은 무엇입니까?

○ A4. [지역 정보] 귀사의 주된 창작/활동 거점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도로명 주소 등 GIS 연계용 상세 주소 기재

□ 모듈 B. 예술 상품 및 서비스 매출액 (산출액 도출)

○ B1. 지난 1년간 귀사의 총 매출액(수입액)은 얼마입니까? (VAT 별도 기준)

○ B2. [매출 세분화] 위 매출액 중 다음 항목별 비중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합계 100%)

- 기초예술 본원 상품/서비스 판매: (공연 입장권, 작품 판매, 창작료, 출연료 등)
- 파생 서비스 및 저작권 수익: (교육, 컨설팅, 임대, 지식재산권(IP) 이용료, 로열티 등)
- 비문화예술(기타) 활동: (카페 운영, 타 산업 유통, 단순 부동산 임대 등)

○ B3. [재원 구조] 지난 1년간 발생한 수입 중 다음의 금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 공공 재원: 정부/지자체 보조금 및 지원금
- 민간 재원: 기업 후원금, 기부금, 메세나 지원 등

□ 모듈 C. 중간 투입 비용 (부가가치 산출용)

○ 부가가치(GVA) 산정 공식 = 총산출액 - 중간투입(재료비, 외부 용역비, 창작 준비비 등)

○ C1. 지난 1년간 귀사의 영업비용(판매비와 관리비 포함) 총액은 얼마입니까?

○ C2. [비용 세분화] 영업비용 중 다음의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 일반 중간 투입액: 재료비, 소모품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외부 용역비(제작/유통 위탁 등)
- 창작 준비(R&D) 비용: 창작을 위한 사전 조사, 연습, 기술 개발 등 비가시적 노동 가치 관련 투입액
- 인건비(피용자 보수): 임금,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

- 감가상각비: 공연·전시 시설 및 전문 예술 장비 등의 가치 감소분

□ 모듈 D. 고용 및 노동 형태 (사회적 기여도 및 리스크 진단)

○ D1. 지난 1년간 귀사의 월평균 종사자 수는 총 몇 명입니까? (정규직 및 1년 이상 계약직 포함)

○ D2. [직무별 구분] 위 인원 중 예술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 예술인(창작, 출연 등)은 몇 명입니까?

○ D3. [비상근/프리랜서] 지난 1년간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하여 활용한 외부 예술가/기술진은 총 몇 명입니까?

○ D4. [노동 형태 특수성] 귀사에 종사하는 인력 중 타 업종을 겸업하는 인원(N잡러)의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제3절 문화예술 가치 측정 통계 설계

1. 개요

○ 통계명칭 : 「문화예술 가치 측정 통계」
○ 통계종류 : 일반통계 및 가공통계 (경제 모델링, 행정자료 및 실태조사의 혼합형 결합)
○ 개념 정의
- 문화위성계정(CSA) 등을 통해 예술이 국가 경제(GDP)에 기여하는 실질적 부가가치를 계량화하고,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 및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여 예술의 다차원적 공공·상징 가치를 화폐화한 통계임

○ 개발의 필요성
- 경제적 파급력의 과학적 입증
  • 예술 산업이 창출하는 조부가가치(GVA)와 산업 간 연관 파급효과를 계량화하여 국가 경제 내 예술의 실질적 위상을 객관화함
- 예술 고유의 사회적·공공 가치 실증
  • 단순 시장 지표로 포착되지 않는 예술의 사회적 성과와 국가 자산으로서의 상징 가치를 입증하여 정책 투입의 당당성 확보
- 예술 노동의 가치 재정의 및 리스크 관리
  • 예술가의 비가시적 노동 가치를 화폐화하여 창작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고, 생애주기별 리스크 패턴 분석을 통한 선제적 복지 근거 마련

2. 법적 근거 및 작성 체계

○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제18조(기금의 용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법정 업무인 '문화예술 진흥 정책 연구' 수행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재원 조성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의 법적 근거임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및 제15조(통계기반정책관리)
  • 신규 통계의 국가 승인을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범정부적 '통계기반 정책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함

○ 작성 체계
- 다차원 가치 측정 프레임워크 적용
  • 경제적 기여도(GVA), 사회적 편익(SROI), 비시장 가치(CVM)를 아우르는 통합 측정 체계를 구축하여 예술의 전방위적 가치를 포괄함

- 국민계정체계(SNA) 연계 및 정합성 확보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및 국가데이터처의 국민계정 데이터와 연계하여 거시 경제 지표와의 직접 비교가 가능한 엄밀성 확보
- 실증 기반의 가치 환산 체계
  • 빅데이터(신용카드, 통신 행동 등)와 실험적 표본조사를 결합하여 주관적 만족도를 객관적인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고도화된 안분 방식 채택

3. 조사 및 분석 체계

○ 분석 방법론: 다차원 가치 평가 모델 고도화
- 경제 및 사회적 편익 분석
  • 문화위성계정(CSA)을 통한 GDP 기여도 산출과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 모델을 적용한 예술 지원의 투자 효율성 분석 수행
- 비시장 영역의 경제 규모 추정
  •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여 예술의 존재 가치 및 유산 가치 등 비시장적 상징 가치를 계량화함

○ 자료 수집 및 하이브리드 연계 체계
- 데이터 수집 전략 : 응답 부담을 고려하여 행정 데이터 및 빅데이터 연계를 우선시하되, 심층적인 가치 측정을 위해 예술인 패널 및 국민 표본 조사를 병행함
- 거시 및 행정 데이터 연계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건강 및 사회 비용 데이터, 지역 브랜드 임팩트 지표 등 분절된 DB를 통합 연계하는 스키마 적용
- 혼합형 표본조사 및 빅데이터 활용 : 일반 국민(향유자) 대상 심리 지표 및 지불용의액(WTP) 조사와 예술인 패널 대상 시간 할당(Time-use) 및 리스크 분석 수행

4. 조사 대상 및 범위

○ 조사 대상 : 전국 일반 국민 및 예술가 패널
- 일반 국민 및 예술 수혜자 : 예술 향유에 따른 주관적 안녕, 사회적 신뢰 형성 및 지역 애착도를 측정하기 위한 전국 단위 표본 가구원
- 예술가 패널 및 전문가 : 창작 활동의 시간 배분, 전문직 역량, 생애주기별 리스크 및 정책 체감도를 추적하기 위한 핵심 창작 주체

○ 조사 범위 : 예술의 다차원적 가치 생태계
- 경제적·산업적 범위
  • 예술 산업의 실질 부가가치 및 타 산업(관광, 제조 등)에 미치는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 효과
- 사회적·개인적 범위
  • 예술 향유와 행복지수(QoL) 간 상관관계, 사회적 자본 형성 기여도 및 예술가 노동의 기회비용

5. 상세 조사 및 집계 항목

구분	주요 조사 및 분석 지표	데이터 소스 및 산출 방식
조사문항	① 국민/수혜자: 안녕·심리 지표, 사회적 신뢰, 지불용의액(WTP)	혼합형 표본조사(Online/Mobile Survey) 및 CVM 적용을 위한 가상 시나리오 설문 수행
	② 예술가 패널: 시간 할당(Time-use), 창작 리스크, 정책 체감도	예술인 패널조사 및 생활시간조사(Time-diary) 기법을 통한 비가시적 노동량 측정
	③ 정책/시설: 건강·사회 비용 데이터, 지역 브랜드 임팩트	행정데이터(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및 빅데이터(신용카드·통신) 연계 분석
집계·분석	① 경제 기여: 국가 경제 기여도(GVA) 및 산업 간 연관 파급효과	한국은행 산업연관표(I-O Table) 모델링 및 문화위성계정(CSA) 가공 분석
	② 편익 환산: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 및 비시장 상징 가치 추정	사회적 편익 화폐화 모델(SROI) 적용 및 지불용의액(WTP) 적분을 통한 가치 추계(CVM)
	③ 생태계 진단: 예술가 리스크 패턴 및 비가시적 노동 기회비용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및 계량경제학적 다중회귀분석 적용
공표항목	① 문화예술 국가 경제 기여도(GVA) 및 산업별 유발 효과 보고	국가승인통계 공표 시스템 및 통계 연보 발간
	②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 및 상징 가치(CVM) 화폐 환산액	정책 지표 인포그래픽 및 가치 측정 보고서 공표
	③ 예술가 비가시적 노동 비중 및 활동 지속성 지표	예술인 복지 정책 실태 보고서 연계 공표
	④ 분야별 예술의 사회·경제적 기여 가치 종합 보고서	범정부 증거 기반 정책(EBPM) 원천 자료 제공

6. 조사 주기 및 방법

○ 조사 주기 : 격년 (Biennial)

- 시계열 구조 변화 및 축적 가치 분석
  - 단순 현황 파악을 넘어 문화예술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시계열에 따라 축적되고 변화하는 중장기적 추이를 정밀 분석하기 위해 2년 주기(격년) 조사를 실시함
- 고도화된 모델링 및 분석 내실화
  - 고도의 계량경제학적 분석(SROI, CVM)과 범정부 행정 데이터(SNA, I-O Table 등) 연계 및 가치 추계에 소요되는 기술적 준비와 심층 분석 기간을 고려하여 통계적 엄밀성을 기함

○ 조사 방법 : 다차원 실증 분석 체계 (Multidimensional Empirical Analysis)

- 거시 경제 모델링 및 위성계정 연계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I-O Table) 및 국민계정(SNA) 데이터를 연계하여 예술 산업 투입에 따른 전후방 연관 효과와 국가 경제 기여도를 거시적으로 계량 분석함
- 예술가 패널 기반의 비가시적 노동 실증
  - 전문 예술인 패널을 대상으로 시간사용조사(Time-use) 및 심층 면접(IDI)을 수행하여, 창작 준비

단계 등 기존 통계 사각지대에 놓였던 비가시적 노동의 가치와 기회비용을 실증함

- 빅데이터 연계 및 사회적 편익 상관성 분석
  - 신용카드 결제 및 통신 이동 행태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술 향유가 주관적 안녕감(QoL) 및 소비 패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술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확보함
- 데이터 거버넌스 통합 및 품질 관리
  -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 데이터를 상호 대조하는 내검(Editing) 및 보정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고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함

7. 공표 항목 및 활용 방안

○ 주요 공표 항목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지표
  - 문화예술 조부가가치(GVA) 총액, GDP 대비 비중 및 산업 간 연관 유발 효과 분석 결과
  -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 및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기반 상징 가치 화폐 환산액 지표
- 노동 및 생태계 복원력 지표
  - 예술가 비가시적 노동(창작 준비 등) 비중 및 활동 지속성(생태계 회복력) 지표
  - 예술가 생애주기별 이탈 리스크 패턴 및 경력 유지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 분석 결과
- 국민 안녕 및 사회적 자본 지표
  - 예술 향유와 주관적 안녕감(행복지수, QoL) 및 사회적 신뢰 형성 간 상관계수
  - 지역 브랜드 임팩트 및 정주 의사 제고 등 공동체 차원의 공공 편익 보고서

○ 활용 방안

- 정책 타당성 입증 및 증거 기반 예산 확보
  - 예술 지원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계량화된 화폐 가치로 입증함으로써, 신규 사업 기획 및 예산 심의 시 예산 당국(기재부 등)에 대한 논리적 우위를 점하고 정책 정당성을 확보함
  - 단순 보조금 위주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 기반의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산업 전략 수립 및 지역 생태계 정밀 진단
  - 예술 가치사슬별 취약 지점을 진단하여 장르별·단계별 맞춤형 육성 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함
  - 지리정보(GIS) 데이터와 연계한 '지역 문화 가치 지도'를 구축하여, 문화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정책 거점 선정 및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함
- 학술 연구 지원 및 민간 시장 가치 확산
  -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ESG/메세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도화된 가치 측정 데이터(Market Intelligence)를 제공하여 민간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함
  - 기초예술의 무형 가치와 사회적 성과에 대한 심층 연구를 촉진하고, 예술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함

8. 국가데이터처 승인을 위한 전략적 대응 논리

○ 가치 측정 방법론의 과학적 엄밀성 및 고유 영역 확보

- 논리
  - 문화예술은 기존 표준산업분류(KSIC) 체계 내에서 독자적인 대분류로 존재하지 않아 가치 포착에 한계가 있음
  - 본 조사는 KSIC를 기반으로 기초예술 가치사슬을 재구조화한 '예술 산업 특수분류'를 적용하여, 거시 경제 지표로 포착되지 않는 비시장 영역의 잠재적 가치를 정밀하게 계량화함
- 차별성
  - 단순 매출 합산 방식에서 탈피하여 문화위성계정(CSA),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등 다차원 가치 측정 프레임워크를 가동함
  -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 등 인접 산업과의 중복 범위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기초예술만의 순수 가치 기여도를 분리 추출하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함
- 포괄성
  - 창작자의 비가시적 노동(창작 준비 등)부터 향유자의 주관적 안녕 및 심리적 편익까지, 예술의 생산·유통·소비 전주기적 가치 창출 과정을 매핑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다면적 가치를 빈틈없이 포착함

○ 데이터 정합성 및 실증적 신뢰도 확보

- 분석 기법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I-O Table*와 국민계정(SNA)을 기초 통계량(Control Total)으로 설정하고, 미시적인 패널 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르별 가치 비중을 안분하는 'Top-down & Bottom-up' 병행 분석 방식을 채택하여 통계적 엄밀성을 확보함
- 하이브리드 실증 : 전통적 설문 조사의 주관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내역 및 통신 행동 데이터 등 실증적 빅데이터와 고도화된 패널 조사를 결합(Hybrid)하여 데이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함
- 수치 엄밀성 : 국민계정체계(SNA) 원칙을 준수하여 산출된 조부가가치(GVA)와 사회적 편익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GDP 등 주요 거시 경제 지표와 직접적인 비교 및 통합 분석이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 품질을 구현함

○ 글로벌 정합성 및 정책적 시급성 강조 (Global Standards & Policy Urgency)

- 국제 기준 부합 : 유네스코(UNESCO) 및 OECD 문화통계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여 설계됨으로써, 국가 간 문화 가치 규모 비교 및 글로벌 정책 벤치마킹이 가능한 표준 데이터 세트를 생성함
- 정책적 시급성 : 본 통계는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등 국가 차원의 핵심 성과 지표(KPI)로 직결되며, 예산 배분의 과학화 및 효율화를 위한 증거 기반 정책(EBPM)의 원천 자료(Raw Data)로 즉시 활용 가능한 정책적 시급성을 보유함.
- 파급 효과 실증 : 단순 현황 보고의 수준을 넘어 예술 투입에 따른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 계수를 도출함으로써, 공공 재원 투입의 경제적·사회적 타당성을 실증하고 향후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 기초 자료가 됨

【부록】 국가승인통계 승인 신청용 조사항목 상세 기술서

1. 조사항목 구성 개요

○ 본 통계의 항목은 문화예술이 창출하는 경제적 부가가치(GVA)뿐만 아니라,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 및 비시장적 상징 가치(CVM)를 정밀 측정하여 예술의 다차원적 가치를 계량화하도록 설계됨

○ 모든 항목은 국민계정체계(SNA) 및 문화위성계정(CSA)의 작성 원칙을 준수하며, 계량경제학적 모델링에 필요한 변수를 체계적으로 포착함

2. 항목별 상세 기술서 (주요 항목 발췌)

○ 경제 기여 및 파급효과 항목 (경제적 가치 도출용)

항목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내용	도입 근거 및 활용 방안	비고
문화예술 조부가가치 (GVA)	기초예술 산업의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생산 과정에서 창출된 순 가치	국가 경제(GDP) 기여도 계량화 및 산업적 위상 객관화를 위한 핵심 지표	핵심 지표
산업 간 연관 파급효과	예술 투입에 따른 타 산업(관광, 제조 등)의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 계수	예술 지원의 경제적 연쇄 효과 실증 및 범정부 자원 배분의 근거로 활용	가공 지표
창작 소득 기여액	예술가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계 소득 환원액 및 지역 경제 유입액	예술의 소득 창출 기여도 측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보정 지표

○ 사회적·상징적 가치 항목 (공공 가치 실증용)

항목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내용	도입 근거 및 활용 방안	비고
지불용의액 (WTP)	예술의 보존 및 향유를 위해 개인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상의 최대 금액	비시장 영역인 예술의 상징 가치(존재·유산 가치) 경제 규모 추정	핵심 지표
사회적 투자 수익률 (SROI)	예술 투입에 따른 사회적 편익(건강 증진, 갈등 감소 등)의 화폐 가치 환산액	예술 지원의 투자 효율성 분석 및 소모적 복지 논리 탈피 근거	특화 항목
사회적 자본 및 신뢰도	예술 향유를 통해 형성된 대인 신뢰, 공동체 의식 및 지역 애착도 수준	예술의 사회적 통합 기여도 및 지역 소멸 대응력 측정 지표	신설 항목

○ 생태계 및 노동 가치 항목 (회복력 진단용)

항목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내용	도입 근거 및 활용 방안	비고
비가시적 노동 시간 (Time-use)	창작 준비 등 경제적 보상이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는 필수 활동 시간	예술 노동의 기회비용 산출 및 생태계 회복력 지표 개발의 기초	특화 항목
활동 지속성 지표	예술가 생애주기별 이탈 리스크 패턴 및 경력 유지에 필요한 비용 구조	창작 환경의 지속 가능성 진단 및 고용 안전망 정책 설계 근거	안정 지표
주관적 안녕감 (QoL)	예술 참여 전후의 행복지수 변화 및 심리적 치유 효과에 대한 주관적 평점	예술 향유와 삶의 질 간 상관관계 분석 및 문화 복지 정책 실효성 검증	신설 항목

3. 통계적 정합성 및 품질관리 방안 (심사 핵심 기술)

① 분류 체계의 엄밀성

○ 다차원 가치 매핑 체계 구축

- 경제적 가치(SNA), 사회적 가치(SROI), 상징적 가치(CVM)를 상호 배타적으로 분류하여 중복 계상을 방지하고 기초예술만의 순수 기여도를 추출함

○ 모집단 정교화 및 패널 관리

- 일반 국민(수혜자)과 예술가 패널(공급자)을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행정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조사 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함

② 산출 방식의 과학적 근거

○ 하이브리드 추계 모델 (Hybrid-Method)

- 설문을 통한 미시 데이터(Micro)를 한국은행 산업연관표(I-O₩ Table) 등 거시 데이터와 교차 검증하여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함

○ 시계열 구조 변화 분석

- 격년 주기의 조사를 통해 가치의 축적 및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연도별 성장률 및 가치 변동 추이를 정밀 산출하도록 설계함

③ 비표본오차 및 응답 품질 관리

○ 실증적 빅데이터 검증

- 주관적 응답의 편향성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카드 및 통신 데이터 등 실증적 행태 정보와 대조하는 내검(Editing) 프로그램을 가동함

○ 조사 참여 인센티브 및 환류

- 조사 참여자에게 개인별/장르별 가치 기여 리포트를 환류하여 자발적인 응답 성실도를 제고하고 데이터의 품질을 유지함

[조사표 초안] 문화예쑬 가치 측정을 위한 실태조사

1. 조사 설계의 핵심 포인트

○ 목적

- 문화위성계정(CSA) 기반 경제 기여도 산출 및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통한 예술의 다차원적 가치 실증 및 화폐화

○ 응답 단위

- 일반 국민(예술 수혜자), 전문 예술인 패널(창작자), 문화예술 정책 및 시설 관리 담당자

○ 특이사항

- 비시장 가치 화폐화를 위한 지불용의액(WTP) 측정 및 예술가 비가시적 노동 가치(Time-use) 포착을 위한 시나리오 기반 설문 적용

2. 구체적 설문 문항 (Questionnaire)

□ 모듈 A. 조사 대상자 일반 현황 (특성 및 기반 분석)

○ A1. 귀하의 주된 예술 활동 및 향유 분야는 무엇입니까?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다원예술 등 상세 기술)

○ A2. 귀하의 인적 속성 및 활동 지위는 무엇입니까?
① 일반국민(수혜자) ② 전문 예술인(공급자) ③ 예술 단체/기업 종사자 ④ 정책/시설 관리자

○ A3. 귀하의 주된 거주지 또는 창작/활동 거점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도로명 주소 등 GIS 연계 및 지역 가치 지도 구축용 상세 주소 기재)

□ 모듈 B. 경제 및 사회적 편익 측정 (가치 환산용)

○ B1. [지불용의액(WTP)]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의 기초예술 생태계 보존 및 지속을 위해 연간 최대 얼마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CVM 가상 시나리오 제시 후 응답)

○ B2. [수혜 효과 세분화] 최근 1년간 예술 향유를 통해 얻은 주된 편익의 비중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합계 100%)

- 주관적 즐거움 및 스트레스 해소 (심리적 가치)
- 가족/이웃과의 유대감 강화 (사회적 자본)
- 지역 사회에 대한 자부심 및 애착 형성 (상징적 가치)

○ B3.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 예술 참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었다고 느끼십니까? (5점 척도)

-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따른 의료비 지출 의향 감소
-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타인에 대한 신뢰도 증가

□ 모듈 C. 예술가 노동 및 생태계 리스크 (회복력 진단용)

○ C1. [시간 할당(Time-use)] 지난 1주일간 귀하의 전체 활동 시간 중 다음 항목에 투입된 시간은 각각 얼마입니까?

- 순수 창작 및 실연 활동 시간 (가시적 노동)
- 창작 준비, 연습, 사전 조사 및 연구 시간 (비가시적 노동)
- 예술 활동 지속을 위한 부수적 행정/홍보/네트워크 시간

○ C2. [리스크 구조] 지난 1년간 경제적 사유 또는 창작 환경 악화로 인해 예술 활동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 C3. [기회비용] 만약 예술 활동을 중단하고 타 직종으로 전환한다면, 예상되는 월평균 소득은 현재 소득 대비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모듈 D. 삶의 질 및 사회적 자본 (공공 편익 보고)

○ D1. 귀하의 현재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행복지수, QoL)는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 D2. [사회적 신뢰] 예술 활동(향유/창작) 참여가 낯선 타인이나 지역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 D3. [정주 의사] 거주 지역 내 문화예술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존재가 귀하의 지속적인 거주 의사 및 장소 애착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합니까?

제4절 예술인 노동시장 및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설계

1. 개요

○ 통계명칭 : 「예술인 노동시장 및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 통계종류 : 일반통계 및 가공통계 (행정자료와 실태조사의 하이브리드 결합)
○ 개념 정의
- 예술인의 고용 형태, 플랫폼 기반 창작 활동, 프리랜서 노동 환경 및 사회보장 적용 실태 등을 정밀 진단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노동 환경 내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체계적으로 집계한 통계임
○ 개발의 필요성
- 신유형 예술 노동의 가시화
  • 플랫폼 창작·긱 노동(Gig work) 등 기존 통계 체계로 포착 불가능한 비정형 노동 실태를 데이터로 시택화하여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
- 맞춤형 사회안전망 설계 근거 마련
  •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률, 계약 안정성 지표 등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의 증거 기반 행정(EBPM) 토대 구축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득 구조 진단
  • 유튜브, 크라우드펀딩, AI 아트 등 신흥 플랫폼을 통한 수익 창출 현황을 파악하여 디지털 시대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 방향 제시

2. 법적 근거 및 작성 체계

○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예술인 실태조사) 및 제5조(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 및 복지 증진)
  •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의 법적 근거임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및 제15조(통계기반정책관리)
  • 신규 통계의 국가 승인을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범정부적 '통계기반 정책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함
○ 작성 체계
- 노동 형태별 다차원 분류 체계 적용
  • 정규·비정규직을 넘어 플랫폼 기반, 독립 프리랜서 등 예술 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 분류 체계를 구축하여 기존 노동 통계와의 차별성 확보

- 하이브리드 데이터 연계 및 검증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행정 DB와 미시 실태조사 데이터를 연계하여 응답의 정밀도를 높이고 데이터의 정합성을 극대화함
- 전주기 창작 생태계 포괄
  • 창작 준비 단계의 비가시적 노동부터 플랫폼을 통한 유통·수익 창출 단계에 이르기까지 예술 노동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포함함

3. 조사 및 분석 체계

○ 분석 방법론 : 예술 노동 시장 정밀 진단 모델 고도화
- 소득 및 고용 안전성 다차원 분석
  • 예술 활동 소득과 비예술 소득을 분리 분석하고, 계약 방식별 체불 경험 등 고용 안정성 지표를 결합하여 노동 환경의 질적 수준 정밀 산출
- 플랫폼 기여도 및 영향력 평가
  • 플랫폼 활동이 예술인의 총소득 및 창작 빈도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디지털 생태계의 정책적 시뮬레이션 기초 자료 제공

○ 자료 수집 및 하이브리드 연계 체계
- 데이터 수집 전략
  • 응답 부담 최소화를 위해 복지재단 및 문체부의 기존 패널 DB를 적극 활용하고, 심층 면접(FGI/IDI)을 통해 정량 지표의 한계를 보완함
- 거시 및 행정 데이터 연계 (Macro/Admin Data)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데이터 및 고용노동부의 사회보험 가입 이력을 연계하여 모집단의 정교화 및 기초 통계량 산출
- 미시 및 질적 데이터 (Micro/Qualitative Data)
  •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근로시간, 플랫폼 활동 수익,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상세 노동 실태 데이터 수집
- 데이터 거버넌스 최적화
  • 분절된 예술인 패널 DB와 플랫폼 이용 로그(협력 시) 등을 통합 연계하는 스키마를 적용하여 통계의 정교함 완성

4. 조사 대상 및 범위

○ 조사 대상 : 국내 활동 전체 예술인 및 관련 종사자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및 미완료 활동가
  • 제도권 내 예술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프리랜서 및 독립 예술인 전체를 포함하여 데이터 사각지대 해소
- 신유형 플랫폼 창작자
  • 유튜브, 크라우드펀딩, AI 활용 작가 등 디지털 플랫폼을 주 활동 거점으로 삼는 창작자군 포괄

○ 조사 범위 : 예술 노동 전주기 및 생활 실태

- 인적 및 고용 특성 : 연령, 성별, 전공 등 기본 특성과 정규·계약·프리랜서·플랫폼 등 고용 형태 전 영역
- 근로 환경 및 사회보장 : 평균 근로시간, 온·오프라인 근로장소, 4대 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실태, 표준계약서 활용 및 체불 경험 등
- 소득 및 플랫폼 활동 : 예술 활동 및 비예술 소득 비중, 플랫폼 이용 빈도 및 수익 기여도 등 경제적 구조 전반

5. 상세 조사 및 집계 항목

구분	주요 조사 및 분석 지표	데이터 소스 및 산출 방식
조사문항	① 인적특성: 연령, 성별, 학력, 전공 등 기본 사항	설문조사 + 복지재단 DB 연계
	② 고용·환경: 고용형태, 근로시간, 근로장소, 프로젝트 수	실태조사 응답값 및 패널 DB
	③ 소득·보장: 소득 구조(예술/비예술), 사회보험 가입 여부	행정자료 연계 및 실태조사
	④ 계약·플랫폼: 표준계약서 활용, 플랫폼 종류/수익 여부	정밀 표본 조사 및 심층 면접
집계·분석	① 고용 구조: 고용형태별 비중 및 노동 형태 특수성 진단	데이터 모델링 및 가공 분석
	② 소득 분포: 예술활동 소득 분위별(하위/중위/상위) 분포 분석	통계적 사분위 분석 적용
	③ 플랫폼 효과: 플랫폼 참여율 및 소득 기여도 상관분석	플랫폼 이용 로그 연계 분석
공표항목	① 예술인 평균 소득 및 고용형태별 분포 현황	국가통계 공표
	② 사회보험(고용/산재) 가입률 및 미적용 사유	정책 지표 공표
	③ 플랫폼 기반 활동 비중 및 계약 안정성 지표(체불률 등)	노동 시장 리스크 진단 지표

6. 조사 주기 및 방법

○ 조사 주기 : 2년 주기 (Biennial)

- 시계열 정합성 및 변화 추적
  - 예술인 실태조사(3년)의 공백을 보완하고 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실시

○ 조사 방법 : 하이브리드(Hybrid) 데이터 수집 체계

- 행정자료 연계 및 거버넌스 구축
  - 복지재단 DB 활용: 예술활동증명 데이터 및 고용보험 가입 데이터를 연계하여 응답 부담 최소화 패널 연계: 문체부 예술인 패널 DB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연속성 및 신뢰도 확보
- 표준 및 보완 실태조사
  - 온라인 설문: 전국 단위 예술인 대상 정량 지표 수집심층 면접(FGI/IDI):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 및 계약상의 애로사항 등 정성적 데이터 보완
- 데이터 보정 및 검증
  - 실태조사 응답값과 행정 데이터를 상호 대조하여 통계적 오차를 최소화하고 신뢰도 확보

7. 공표 항목 및 활용 방안

○ 주요 공표 항목

- 고용 및 소득 실태
  - 예술인 평균 소득 및 고용형태별(정규/프리랜서/플랫폼) 분포
  - 사회보험 가입률 및 표준계약서 활용률 현황
- 플랫폼 및 계약 지표
  - 플랫폼 기반 활동 비중 및 소득 규모 추이
  - 계약 안정성 지표(체불율, 부당 계약 경험 등)

○ 활용 방안

-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 정책 설계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방안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디지털 전환 대응 창작 지원 전략 수립
  - 플랫폼 노동의 소득 기여도를 분석하여 신흥 기술(AI 등) 환경에 맞는 창작 지원 사업 기획 및 예산 확보의 근거로 활용
- 공정 계약 환경 조성 및 권익 보호
  -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및 체불 경험 데이터를 통해 공정 거래 가이드라인 수립 및 법률 지원 서비스 강화의 논리적 우위 확보

8. 국가데이터처 승인을 위한 전략적 대응 논리

○ 신유형 노동(Platform/Gig) 포착의 차별성

- 논리
  - 기존 노동 통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플랫폼 기반 예술 활동과 긱 경제(Gig Economy) 노동 실태를 예술 분야 특수성에 맞춰 재구조화함
- 차별성
  - 단순 프리랜서 분류에서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 활용 빈도와 수익 구조를 세분화하여 기초예술 고유의 노동 지도를 완성함

○ 행정 DB 연계를 통한 데이터 정밀도 극대화

- 분석 기법
  - 복지재단 및 예술인 패널 DB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실태조사를 결합하는 'Top-down & Bottom-up' 분석 방식을 채택함
- 신뢰도
  - 검증된 행정 데이터와 실태조사 데이터를 교차 검증(Hybrid)하여 표본 오차를 최소화하고 수치의 엄밀성 확보

○ 정책적 시급성 및 증거 기반 정책(EBPM) 기여

- 시급성
  - 예술인 고용보험 전면 시행 등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이며, 신규 정책 설계를 위한 원천 자료임
- 파급 효과
  - 단순 현황 파악을 넘어 계약 안정성 및 소득 분포 분석을 통해 예술인 권익 보호의 경제적 타당성을 실증하는 기초가 됨

【부록】 국가승인통계 승인 신청용 조사항목 상세 기술서

1. 조사항목 구성 개요

○ 본 통계의 항목은 예술인의 고용 형태와 플랫폼 노동 실태, 사회보장 적용률 등을 정밀 진단하여, 최종적으로 예술 노동 시장의 안정성과 복지 수요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됨

○ 모든 항목은 예술인 복지법, 통계청 표준고용분류 및 사회보장 통계작성 원칙을 준수함

2. 항목별 상세 기술서 (주요 항목 발췌)

○ 인적 및 고용 특성 항목 (구조 분석용)

항목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내용	도입 근거 및 활용 방안	비고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플랫폼 기반 등 예술인의 법적·실질적 종사 지위	예술 노동 시장의 다변화 양상 파악 및 비정형 노동자 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핵심 지표
전공 및 전문성	예술 관련 학위 보유 여부 및 주 활동 예술 장르(문학, 시각, 공연 등)	장르별 인력 수급 불균형 진단 및 전문 예술인 육성 지원 사업의 타겟팅 근거	기초 지표
근로 환경 및 장소	평균 근로시간, 프로젝트 수행 수 및 온·오프라인 활동 비중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택/플랫폼 근로 실태 파악 및 근로 여건 개선 지표로 활용	신설 항목

○ 소득 및 사회보장 항목 (안정성 산출용)

항목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내용	도입 근거 및 활용 방안	비고
예술활동 소득	창작, 실연, 저작권료 등 순수 예술 활동을 통해 발생한 연간 총수입액	예술인 창작 지원금 규모 산정 및 장르별 소득 편차 분석의 핵심 근거	핵심 지표
사회보험 적용률	4대 보험(고용/국민/건강/산재) 가입 여부 및 산재보험 적용 실태	예술인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식별 및 복지 정책 실효성 검증	정책 지표
계약 및 체불 현황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계약 방식 및 소득 체불 경험 여부	공정 예술 생태계 조성 지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근거	안정 지표

○ 플랫폼 활동 항목 (신유형 노동 실태용)

항목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내용	도입 근거 및 활용 방안	비고
플랫폼 수익 구조	유튜브, 크라우드펀딩, AI 아트 플랫폼 등을 통한 수익 발생액 및 비중	디지털 창작 생태계 내 소득 기여도 측정 및 새로운 노동 가치 반영 지표	특화 항목
플랫폼 이용 빈도	창작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 주기 및 시간	예술인의 디지털 역량 파악 및 온라인 활동 지원 사업의 수요 분석 근거	기술 지표

3. 통계적 정합성 및 품질관리 방안 (심사 핵심 기술)

① 분류 체계의 엄밀성

○ 예술 노동 특수분류 매핑

- 기존 표준고용분류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플랫폼 기반 긱 노동(Gig work)과 프리랜서 형태를 예술 분야 특성에 맞춰 재그룹화하여 통계적 사각지대를 해소함

○ 모집단 정교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DB'와 문체부의 '예술인 패널 DB'를 연계하여 실질적 활동 인력만을 특정(Targeting)함으로써 중복과 누락을 방지함

② 산출 방식의 과학적 근거

○ 하이브리드 추계 방식

- 조사된 미시 데이터(Micro-data)를 고용노동부의 사회보험 가입 이력 등 행정 데이터와 비교·보정하는 'Top-down & Bottom-up' 방식을 채택하여 수치의 엄밀성을 확보함

○ 시계열 안정성 확보

- 2년 주기로 동일한 노동 및 소득 항목을 조사함으로써 예술 노동 시장의 변동성 분석 및 정책 도입 전후의 성과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③ 비표본오차 및 응답 품질 관리

○ 다각적 검증 프로그램 가동

- 응답 소득 수치가 행정 자료(소득신고 등)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재확인을 요청하는 '내검(Edit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가 FGI를 통해 데이터의 실효성을 교차 검증함

○ 맞춤형 정보 환류(Feedback)

- 조사 참여 예술인에게 '장르별·경력별 평균 소득 및 복지 위치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성실한 응답을 유도함

[조사표 초안] 예술인 노동시장 및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1. 조사 설계의 핵심 포인트

○ 목적 : 예술인의 고용 형태, 플랫폼 활용, 프리랜서 노동 환경 및 사회보험 적용률 등을 파악하여 창작 환경 개선 및 실효적 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 응답 단위 : 예술인 개인 (예술인복지재단 등록자 및 미등록 독립 예술인 포함)

○ 특이사항

- 기존 실태조사가 포착하기 어려운 '플랫폼 기반 긱 노동(Gig work)' 실태를 구체화하고, 예술 활동과 비예술 활동 간의 소득 구조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정밀 진단

2. 구체적 설문 문항 (Questionnaire)

□ 모듈 A. 응답자 기초 현황 (인적 특성 및 전공)

○ A1. [인적 특성] 귀하의 연령, 성별, 학력 및 예술 관련 전공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 A2. [주 활동 분야] 귀하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 장르는 무엇입니까?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등 상세 기술)

○ A3. [경력 사항] 귀하의 총 예술 활동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모듈 B. 고용 형태 및 근로 환경 (노동 유연성 및 장소)

○ B1. [고용 형태] 귀하의 현재 주된 고용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정규직 ② 계약직(기간제) ③ 프리랜서 ④ 플랫폼 기반 노동 ⑤ 기타

○ B2. [근로 여건] 최근 1년간 예술 활동을 위한 주당 평균 근로 시간과 참여한 프로젝트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B3. [근로 장소] 귀하의 주된 예술 활동 장소는 어디입니까?

□ 모듈 C. 소득 및 사회보장 실태 (경제적 자생력 및 안전망)

○ C1. [소득 구조] 지난 1년간 발생한 귀하의 총소득 중 다음 항목의 금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 예술 활동 소득 : 창작료, 실연료, 저작권 수익, 관련 교육 수입 등
- 비예술 활동 소득 : 예술 외 부수입, 아르바이트 등

○ C2. [사회보험 가입] 현재 귀하는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가입 시 가입 유형 선택)
① 고용보험(일반/예술인 특고) ② 산재보험 ③ 국민연금 ④ 건강보험

○ C3. [미가입 사유] 사회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모듈 D. 플랫폼 활동 및 계약 안정성 (신유형 노동 및 리스크)

○ D1. [플랫폼 활용] 귀하가 예술 활동(창작, 유통, 수익 창출)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유튜브, 크라우드펀딩, NFT 마켓, AI 아트 생성 도구 등 상세 기술)

○ D2. [수익성] 플랫폼 활동을 통해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발생한다면 총소득 내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D3. [계약 안정성] 최근 1년간 예술 활동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셨습니까? 또한 소득 체불이나 불공정 계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D4. [위험 진단] 플랫폼 노동 및 비정형 노동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제5절 지역별 생활권 문화접근성 실태조사 설계

1. 개요

○ 통계명칭 : 「지역별 생활권 문화 접근성 실태조사」
○ 통계종류 : 일반통계 및 가공통계 (GIS 공간분석과 가구 실태조사의 하이브리드 결합)
○ 개념 정의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의 문화 시설 분포와 주민의 실제 이동 경로를 결합하여, 거주지 기준 생활권 내에서의 물리적·심리적 문화 서비스 도달 수준을 정밀 진단하는 통계임

○ 개발의 필요성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지표 전환
  • 단순 시설 수(양적 지표) 중심 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도달 가능성(Accessibility)' 중심의 질적 지표 체계 구축
-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정주 여건 진단
  • 지역 간 문화 격차를 데이터로 가시화하여 생활권 단위의 '문화 소외 지역(Dead Zone)'을 식별하고,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문화 SOC 확충의 과학적 근거 제공
- 증거 기반의 효율적 자원 배분(EBPM)
  • 지자체 예산 투입 대비 주민의 실제 향유 효과를 검증하여,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환류(Feedback) 시스템 구축

2. 법적 근거 및 작성 체계

○ 법적 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지역문화 실태조사) 및 제12조(생활문화의 지원)
  •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수행과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의무에 따른 법적 근거 확보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및 제15조(통계기반정책관리)
  • 문화 서비스 사각지대 도출을 위한 국가 승인 통계로서 공신력을 확보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연계함

○ 작성 체계
- GIS 기반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적용
  • 단순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망과 대중교통 노선을 반영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실질 도달 시간' 중심의 접근성 지표 산출

- 생활권 단위 격자(Grid) 분석
  -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주민의 실질적 생활 범위를 고려한 격자 단위(예: 500m×500m) 분석으로 미시적 사각지대 포착
- 다차원 데이터 정합성 확보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의 예산 데이터와 가구 방문 실태조사 데이터를 연계하여 '재정 투입 - 서비스 공급 - 주민 향유'의 전주기 분석 체계 마련

3. 조사 및 분석 체계

○ 분석 방법론: 생활권 접근성 모델 고도화
- 공간 접근성 지표(SAI) 산출
  - 인구 밀도와 시설별 수용 능력(좌석 수, 면적 등)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지역별 '문화 서비스 공급 적정성'을 정밀 산출함
- 서비스 사각지대(Gap Map) 도출
  - 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 기준 정책적 골든타임(예: 15분) 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을 시각화하여 우선 지원 대상지 선정

○ 자료 수집 및 하이브리드 연계 체계
- 데이터 거버넌스 통합
  - 부처별·기관별로 분절된 시설 DB, 재정 DB, 이용객 데이터를 통합 연계하는 스키마 적용
- 행정 데이터(Admin Data)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지역문화재단 통계 DB, 국가주소정보시스템(GIS) 등을 활용하여 시설 및 예산 현황 확보
- 실태 데이터(Survey Data)
  - 전국 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실제 이동 수단, 소요 시간, 이용 저해 요인 및 심리적 만족도 등 행정자료로 파악 불가능한 질적 데이터 수집

4. 조사 대상 및 범위

○ 조사 대상 : 전국 문화 시설 및 거주 주민
- 문화 인프라 주체 : 전국 공공 및 민간 문화시설(공연장, 전시시설,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과 운영 주체(지자체, 문화재단 등)
- 수요자(주민) 표본 : 전국 17개 시·도 거주 가구 및 개인(표본 설계에 따른 할당 추출)

○ 조사 범위 : 생활권 기반 문화 향유 생태계
- 물리적 범위 : 거주지 중심의 도보권 및 대중교통 이용권 내 생활문화 SOC 전체
- 내용적 범위 : 시설 접근성(물리), 프로그램 다양성(콘텐츠), 운영 인력의 전문성,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수준을 모두 포함

5. 상세 조사 및 집계 항목

구분	주요 조사 및 분석 지표	데이터 소스 및 산출 방식
조사문항	① 인프라 현황: 시설 규모, 노후도, 무장애(Barrier-free) 수준	GIS DB 및 시설 현장 실사
	② 운영 역량: 프로그램 운영 실적, 운영 인력 전문성(예술경영 등)	시설 운영 현황 조사
	③ 가구 행태: 이용 빈도, 이동 수단별 도달 시간, 이용 비용	가구 방문 면접조사
	④ 재정 투입: 지자체 문화 예산, 인구 대비 지출 비중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연계
	⑤ 이용 장벽: 시간 부족, 거리 부담, 콘텐츠 부적합성 등	설문 응답값 분석
집계·분석	① 도달률 분석: 시·군·구별 문화 서비스 도달률 및 격차 지수	GIS 네트워크 모델링
	② 효율성 진단: 재정 투입 대비 주민 향유 효과(ROI) 분석	투입-산출 가공 분석
	③ 다차원 분석: 인구 구조 및 거주 형태별 접근성 편차 추출	복합 데이터 통계 분석
공표항목	① 지역문화 격차 지수 (전국 평균 및 지역별 비교)	국가통계 공표
	② 문화 서비스 사각지대 지도 (Gap Map)	정책용 인포그래픽 제공
	③ 1인당 문화 예산 지출 및 정책 환류 기여도	정책 평가지표 활용

6. 조사 주기 및 방법

○ 조사 주기: 3년 주기 (Triennial)

- 변화 모니터링 및 표본 안정성
  - 도로망 및 SOC 확충 등 공간적 변화 주기를 고려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함으로써 데이터의 시계열 정합성 확보

○ 조사 방법: 하이브리드(Hybrid) 데이터 수집 체계

- GIS 네트워크 분석
  - 국가주소정보시스템과 도로망 데이터를 연계하여 실제 소요 시간 중심의 물리적 접근성 측정
- 전국 단위 가구 방문 면접조사
  - 전문 조사원에 의한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응답의 성실도와 데이터의 정밀도 확보
- 행정 데이터 연계 및 검증
  - e호조(재정) 및 지자체 DB와 조사 결과를 상호 대조하여 데이터 사각지대 보정

7. 공표 항목 및 활용 방안

○ 주요 공표 항목
- 지역문화 격차 지수: 지역 규모 및 행정 구역별 문화 서비스 격차 지표
- 생활문화 SOC 성과: 유형별 이용률 및 지역별 사각지대(Dead Zone) 현황
- 재정 및 정책 지표: 인구 대비 문화 예산 적정성 및 정책 환류 기여도

○ 활용 방안
- 맞춤형 자원 배분 및 입지 선정
  • 사각지대 지도(Gap Map)를 근거로 문화 SOC 신규 건립 및 프로그램 지원의 우선순위 결정
-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KPI 활용
  • 정부의 '지역 소멸 대응 기금' 배분 및 지자체 문화 정책 성과 평가의 핵심 객관 자료로 활용
- 수요 중심의 프로그램 기획
  • 지역별 이용 저해 요인 분석을 통해 시간대별·세대별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8. 국가데이터처 승인을 위한 전략적 대응 논리

○ 측정 기법의 과학화 및 정밀성
- 논리
  • 단순 시설 수 통계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GIS 분석을 통한 '실질 접근성'이라는 과학적 측정 모델 적용
- 차별성
  • 거주지에서 시설까지의 이동 시간을 분 단위로 산출함으로써 통계적 정밀성 확보

○ 행정 데이터와 실태조사의 결합(Hybrid)
- 분석 기법
  • e호조(재정)와 실태조사(체감)를 결합하여 정책 투입과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고도화된 모델 제시
- 신뢰도
  • 거시 데이터로 전체 규모를 통제하고 미시 조사로 실태를 보완하는 체계적 분석 방식 채택

○ 국가 정책(지역 균형 발전)과의 직접적 정합성
- 시급성
  •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생활 밀착형 SOC' 정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승인 통계임을 강조
- 활용성
  • 조사 결과가 지자체 예산 편성 및 국고 보조금 배분의 직접적인 근거(EBPM)가 됨을 명시

【부록】 국가승인통계 승인 신청용 조사항목 상세 기술서

1. 조사항목 구성 개요

○ 본 통계의 항목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정밀 진단하기 위해 공간 접근성 지표(SAI, Spatial Accessibility Index)와 주민 체감 향유도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문화 서비스 사각지대 지도(Gap Map)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됨

○ 모든 항목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의 네트워크 분석 원칙, 지방재정통계 분류 체계 및 문화예술진흥법의 지역문화 실태조사 기준을 준수함

2. 항목별 상세 기술서 (주요 항목 발췌)

○ 인프라 및 공간 정보 항목 (공급 적정성 산출용)

항목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내용	도입 근거 및 활용 방안	비고
시설별 GIS 좌표 및 수용력	문화시설의 정밀 위치(위·경도)와 규모(좌석 수, 연면적) 등 공급량 측정	GIS 네트워크 분석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여 지역별 공급 적정성 도출	핵심 지표
무장애(Barrier-free) 수준	장애인 편의시설, 고령자 접근성 등 시설 내 물리적 접근 제약 해소 정도	단순 도달을 넘어 실질적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취약계층 정책 설계에 활용	특화 항목
시설 운영 인력 전문성	문화예술 전공자 및 예술경영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의 확보 현황	시설의 하드웨어적 접근성과 소프트웨어적 서비스 질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보정 지표

○ 가구 이용 및 체감 접근성 항목 (수요자 체감도 산출용)

항목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내용	도입 근거 및 활용 방안	비고
이동 수단별 도달 시간	거주지에서 주로 이용하는 시설까지의 실제 소요 시간(분 단위)	단순 직선거리가 아닌 실질적 생활권 도달 범위를 측정하여 접근성 지수 고도화	SAI 기준
심리적·경제적 이용 장벽	물리적 거리 외에 시간 부족, 비용 부담, 콘텐츠 부적합성 등 주관적 저해 요인	물리적 인프라 확충 외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정책 방향성 결정 근거	질적 지표
최근 1년 이용 행태	연간 이용 횟수, 동반 인원, 인당 평균 지출 비용 등	접근성 개선이 실제 향유량 및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지 성과 측정	성과 지표

○ 지자체 재정 및 정책 환경 항목 (정책 효율성 산출용)

항목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내용	도입 근거 및 활용 방안	비고
인구 대비 문화 예산	지자체 총예산 중 문화예술 분야 지출 비중 및 주민 1인당 배정액	지역의 정책적 관심도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의 의지 측정	재정 지표
재정 투입 효율성(ROI)	예산 투입량 대비 주민의 시설 이용률 및 만족도 변화 추이	증거 기반 행정(EBPM) 구현을 위해 지역별 문화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진단	분석 항목

3. 통계적 정합성 및 품질관리 방안 (심사 핵심 기술)

① 분류 체계의 엄밀성

○ GIS 네트워크 분석 고도화

- 국가주소정보시스템과 도로망 데이터를 연계하여, 도보 및 대중교통 노선을 반영한 실질 접근성을 산출함으로써 기존 직선거리 방식의 오류를 배제함

○ 생활권 격자(Grid) 매핑

- 행정구역(읍·면·동) 단위를 넘어 주민의 실생활 범위를 반영한 표준 격자 체계를 적용하여 미시적인 서비스 사각지대(Gap)를 특정함

② 산출 방식의 과학적 근거

○ 하이브리드(Hybrid) 데이터 결합

- 행정 데이터(지방재정 e호조)와 미시 실태 데이터(가구 조사)를 비교·보정하는 'Top-down & Bottom-up' 방식을 채택하여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함

○ SAI(공간 접근성 지표) 모델링

- 인구 밀도와 시설 공급량을 결합한 중력 모델(Gravity Model)을 적용하여, 지역별 수급 불균형 정도를 객관적 수치로 도출함

③ 비표본오차 및 응답 품질 관리

○ 공간 정보 교차 검증

- 설문 응답자가 진술한 소요 시간과 GIS 분석을 통해 산출된 예상 시간을 상호 대조하는 내검(Editing)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극대화함

○ 지역별 정책 리포트 환류

- 조사 참여 지자체에 **'우리 지역 문화 접근성 진단 리포트'**를 제공하여 지자체의 자발적인 데이터 현행화와 성실한 응답을 유도함

[조사표 초안] 지역별 생활권 문화 접근성 정밀 실태조사

1. 조사 설계의 핵심 포인트

○ 목적

- 지역 간 문화 인프라의 실질적 도달 권역 분석 및 생활권 단위의 '문화 서비스 사각지대(Dead Zone)' 식별
- 지자체 재정 투입 대비 주민의 향유 효과를 검증하여 증거 기반 행정(EBPM)의 기초 자료 제공

○ 응답 단위

- 가구용 : 전국 시·군·구별 표본 가구 내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시설/기관용 : 지자체 문화예술 담당 공무원 및 공공 문화시설 관리 운영자

○ 특이사항

- 단순 직선거리가 아닌 도로망 네트워크를 반영한 '실질 도달 시간' 측정 및 GIS(지리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정밀 위치 정보 수집

2. 구체적 설문 문항 (Questionnaire)

□ 모듈 A. 가구 일반 현황 및 거주 환경 (생활권 기초 분석)

○ A1. [위치 정보]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세 주소는 어디입니까?
(GIS 연계 및 격자 단위 분석을 위한 도로명 주소 기재)

○ A2. [거주 특성] 현재 해당 지역에서의 총 거주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5년 미만 ③ 5년 이상 ~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 A3. [가구 형태] 귀하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인 가구 ② 단세대 가구(부부 등) ③ 다세대 가구(자녀 포함) ④ 기타(공동 거주 등)

□ 모듈 B. 문화시설 이용 및 이동 행태 (물리적 접근성 측정)

○ B1. [이용 시설] 최근 1년간 귀하가 거주지 인근(생활권)에서 가장 자주 이용한 문화시설은 무엇입니까? (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장르 기재)

○ B2. [이동 수단] 해당 시설 이용 시 주로 사용하는 이동 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도보 ② 자전거 ③ 대중교통(버스/지하철) ④ 자가용 ⑤ 기타

○ B3. [도달 시간] 거주지에서 해당 시설까지 편도로 소요되는 실제 시간은 얼마입니까?
( )분 소요

○ B4. [이용 비용] 해당 시설 1회 이용 시 지출하는 평균 비용(입장료, 교통비 등 포함)은 얼마입니까?
( )원

□ 모듈 C. 이용 저해 요인 및 만족도 (심리적 장벽 및 질적 진단)

○ C1. [접근성 만족도] 거주지 주변 문화시설에 대한 다음 항목별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5점 척도)

- 시설까지의 거리 및 이동 편의성 : ( )점
- 야간 및 주말 이용의 용이성 : ( )점
- 무장애(Barrier-free) 환경 및 편의시설 : ( )점

○ C2. [이용 저해 요인] 평소 문화시설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거리가 너무 멀어서(물리적 거리) ② 시간이 부족해서(운영 시간 미흡)
③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경제적 거리) ④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⑤ 시설이 노후되거나 콘텐츠가 빈약해서

○ C3. [사각지대 체감] 귀하가 거주하는 동네에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모듈 D. [시설/지자체용] 인프라 및 재원 현황 (공급 및 효율성 진단)

○ D1. [시설 명세] 귀 기관(시설)의 주요 하드웨어 현황은 어떠합니까?
- 좌석 수 및 연면적, 준공 연도(노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등

○ D2. [인적 전문성] 시설 운영 인력 중 문화예술/예술경영 전공자 및 전문가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D3. [재정 투입] 지난 1년간 해당 시설 운영(또는 관내 문화 진흥)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기반 경상비 및 사업비 세분화 기재)

제6절 공공미술 자산 관리 실효성 실태조사 설계

1. 개요

○ 통계명칭 : 「공공미술 자산 관리 실효성 실태조사」
○ 통계종류 : 일반통계 및 가공통계 (행정자료와 전문가 현장 정밀 실사의 하이브리드 결합)
○ 개념 정의
- 전국 공공장소에 설치된 공공미술 자산(건축물 미술작품, 공공미술 기획사업 작품 등)의 유지관리 체계와 보존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분석하여 공공미술의 정책적 성과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계량화한 통계임

○ 개발의 필요성
- 정부의 관리 부실 개선 요구 부응
  • 공공미술 설치 후 방치 및 훼손에 따른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데이터로 가시화하여 관리 주체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 자산 관리의 표준화 및 실효성 확보
  • 파편화된 지자체별 관리 데이터를 통합하여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자산 관리 등급'과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수립의 근거 제공
- 정책 성과 입증 및 환류 체계 구축
  • 공공미술이 지역 미관 개선 및 장소 자산화에 미치는 실질적 가치를 실증하여 향후 공공미술 정책의 예산 배분 및 사업 기획의 과학적 기초(Raw Data)로 활용

2. 법적 근거 및 작성 체계

○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및 관련 조례
  • 법정 의무 설치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및 공공미술 진흥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의 법적 근거임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및 제15조(통계기반정책관리)
  • 국가 승인을 통해 통계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범정부적 '공공 자산 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함

○ 작성 체계
- 전주기 자산 관리(Life-cycle Management) 체계 적용
  • 작품의 설치(기획)부터 유지보수, 보존 상태 진단, 노후화에 따른 철거/이전 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포괄함
- 디지털 아카이빙 및 GPS 연계

  - 작품별 정밀 위치 정보(GPS)와 전문가 실사 기반의 디지털 상태 기록을 결합하여 가시적인 자산 관리 DB를 구축함
- 데이터 정합성 확보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데이터(K-Art)와 지자체 행정 DB를 대조하고, 전문가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보존 상태를 검증하는 병행 방식 채택

3. 조사 및 분석 체계

○ 분석 방법론: 자산 관리 실효성 지수(PAM-EI) 모델 고도화
- 비용 대비 가치 보존율 분석 초기 건립비 및 투입된 유지보수 예산 대비 작품의 현재 보존 상태와 시민 만족도를 산출하여 관리의 경제적 효율성 진단
- 구조적 안전 및 보존 상태 평가 보존 처리 전문가의 진단 결과(훼손, 변색, 오염 등)를 기반으로 '구조적 안전 등급'을 도출하여 긴급 보수 필요성 판단

○ 자료 수집 및 하이브리드 연계 체계
- 데이터 수집 전략 행정자료를 통한 기본 정보 수합과 전문가에 의한 정밀 현장 실사를 결합하여 통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함
- 행정 데이터 (Admin Data)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정보(K-Art),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의 예산 데이터, 지자체 관리 대장 연계
- 전문가 현장 실사 (Expert Inspection) 전문 보존 인력에 의한 상태 전수 조사 및 안전 등급 평가,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 병행
- 주민 인식 조사 (Survey Data) 작품 설치 지역 주민 및 방문객 대상 표본 조사를 통해 작품 인지도, 선호도 및 지역 기여도 측정

4. 조사 대상 및 범위

○ 조사 대상 : 전국 설치 공공미술 작품 및 관련 주체
- 대상 작품
  - 법정 의무 설치 미술작품(건축물 미술작품) 및 정부/지자체 기획 공공미술 사업(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전수
- 관리 주체 및 수요자
  - 지자체 관리 부서 및 소유자, 작품 인근 거주민 및 이용객 전체를 포함하여 데이터의 사각지대 해소

○ 조사 범위 : 사후 관리 프로세스 전 영역
- 물리적 범위
  - 전국 단위 작품 설치 장소(GPS 기반) 및 작품 자체의 보존 상태
- 내용적 범위
  - 소유권·관리 책임 주체 확인, 유지보수 예산 확보율, 전문 인력 유무, 정기 점검 이행 실적 및 시민 체감 만족도 포함

5. 상세 조사 및 집계 항목

구분	주요 조사 및 분석 지표	데이터 소스 및 산출 방식
조사문항	① 기초정보: 설치 위치(GPS), 유형(의무/기획), 관리 주체	K-Art DB 및 지자체 행정자료 연계
	② 예산·인력: 건립비 대비 유지보수 예산 확보율, 전담 인력 유무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및 관리자 면접
	③ 관리실태: 정기 점검 주기, 관리 대장 보유 및 이행 실적	지자체 전수 조사 및 자료 검증
	④ 보존상태: 훼손/변색/오염도, 구조적 안전 등급(A~E)	전문가 현장 정밀 실사
	⑤ 지역기여: 주민 인지도, 선호도, 도시 미관 개선 효과	인근 주민 표본 인식 조사
집계·분석	① 관리등급: 지역별·장르별 자산 관리 등급(우수/보통/부실)	다차원 복합 지수 산출
	② 효율성진단: 관리 방식별(직영/위탁) 비용 대비 가치 보존율	상관관계 분석 및 모델링
	③ 상태추이: 설치 경과 연수별 보존 상태 변화 및 보수 시점 진단	시계열 데이터 분석
공표항목	① 자산 관리 실효성 지수 및 전국 현황	국가통계 공표
	② 관리 개선 필요 지역 및 사후 관리 성과 지도	정책용 가시화 데이터 제공
	③ 중장기 보존 전략 가이드라인 및 정책 환류 보고서	정책 활용 리포트 발간

6. 조사 주기 및 방법

○ 조사 주기: 2년 주기 (Biennial)

- 현장 실사의 정밀성 확보전문가 실사 및 보존 상태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고, 작품의 보존 상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실시함
- 정책 적시성 유지지자체의 관리 주기와 연동하여 관리 개선 요구 사항을 적시에 정책에 반영함

○ 조사 방법: 전문가 실사 기반 하이브리드 수집 체계

- 전문가 현장 전수 조사 보존 처리 전문가에 의한 작품 상태 육안 점검 및 안전 진단을 수행하여 데이터의 전문성과 정밀성을 확보함
- 행정 데이터 연계 및 검증 K-Art 시스템 및 지자체 관리 대장과 실사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여 관리 행정의 누락 사례를 발굴함
- 표본 인식 조사 주민 대상 대면 조사를 통해 물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공공미술의 정서적·사회적 성과를 입증함

7. 공표 항목 및 활용 방안

○ 주요 공표 항목

- 전국 공공미술 자산 관리 실효성 지수: 관리 체계의 성숙도와 작품의 보존 수준을 결합한 통합 지표
- 관리 방식별 성과 분석: 직영, 위탁, 공동 관리 등 방식에 따른 유지보수 효율성 비교
- 정책 환류 지표: 공공미술 정책 만족도 및 중장기 보존 전략 이행 성과

○ 활용 방안

- 예산 효율화 및 사후 관리 강화 '자산 관리 등급'에 근거하여 보수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관리 부실 지역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컨설팅 자료로 활용함
- 공공미술 기획 및 선정 기준 고도화 사후 관리의 난이도와 내구성 데이터를 신규 작품 선정 및 기획 단계의 평가 지표로 반영하여 예산 낭비 방지
- 도시 자산화 및 장소 브랜드 구축 최적의 보존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공공미술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기능하게 유도하고 도시 재생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8. 국가데이터처 승인을 위한 전략적 대응 논리

○ 조사 기법의 전문성 및 차별성

- 논리
  - 기존의 단순 행정 집계에서 탈피하여, 보존 전문가의 **'현장 정밀 실사'**를 핵심 작성 방법으로 채택함
- 차별성
  - 단순 건수 파악이 아닌 '작품 상태의 질적 진단'과 '안전 등급'을 산출함으로써 통계적 가치를 극대화함

○ 정책적 시급성 및 사각지대 해소

- 논리
  - 정부의 공공미술 사후 관리 부실 지적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며,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 건축물 미술작품까지 포괄함
- 효과
  - 국가 차원의 통합 자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공공미술의 공적 가치를 실증함 ③ 글로벌 표준 및 정책 환류 체계
- 글로벌 정합성
  - 해외의 '퍼블릭 아트 인벤토리(Public Art Inventory)' 관리 기준과 부합하도록 설계하여 국가 간 관리 수준 비교 가능
- EBPM 구현
  - 조사 결과가 단순 통계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보존 전략'이라는 실제 정책 지침으로 직결되는 증거 기반 행정(EBPM) 모델임을 강조함

【부록】 국가승인통계 승인 신청용 조사항목 상세 기술서

1. 조사항목 구성 개요

○ 본 통계의 항목은 전국 공공미술 자산의 설치 현황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의 실효성(Effectiveness)을 정밀 진단하여, 최종적으로 자산 관리 실효성 지수(PAM-EI)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됨

○ 모든 항목은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규정, 지자체 공공미술 관리 조례 및 전문가 보존 진단 표준 가이드를 준수함

2. 항목별 상세 기술서 (주요 항목 발췌)

○ 자산 및 설치 기초 항목 (현황 및 체계 진단용)

항목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내용	도입 근거 및 활용 방안	비고
소유권 및 관리 책임 주체	해당 작품의 법적 소유권자 및 실질적인 유지관리 책임 기관/부서 명시	관리 부실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적 환류 체계 구축	핵심 지표
설치 상세 위치(GPS)	작품이 설치된 지점의 정밀 좌표(위·경도) 및 주소 정보	디지털 아카이빙 및 지리정보(GIS) 연계를 통한 공간적 자산 관리 지도 구축	기술 지표
전문 인력 확보 현황	관리 조직 내 보존 처리 전문가 또는 전담 예술행정 인력의 유무	사후 관리의 전문성 수준을 파악하고 관리 역량을 계량화하는 기초 자료	역량 지표

○ 예산 및 유지관리 실태 항목 (지속성 및 효율성 분석용)

항목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내용	도입 근거 및 활용 방안	비고
연간 유지보수 예산 확보율	초기 건립비 대비 연간 투입되는 유지관리 및 보수 예산의 비율	비용 대비 가치 보존율을 분석하여 재정 투입의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 진단	효율 지표
정기 점검 이행 실적	최근 2년간 관리 대장에 근거하여 실시된 정기 점검의 횟수 및 내용	실질적인 사후 관리 행정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소홀 리스크 판별	이행 지표
예산 분담 구조	지자체 직접 예산, 민간(소유주) 분담금 등 재원 조달 방식	공공-민간 협력 모델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재원 다각화 정책 설계 근거	재원 지표

○ 보존 상태 및 기여도 항목 (성과 및 가치 측정용)

항목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내용	도입 근거 및 활용 방안	비고
구조적 안전 등급	전문가 실사를 통해 판정한 작품의 구조적 결함 및 전도 위험 등 안전 상태 (A~E등급)	시민 안전 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긴급 보수 대상지 선정의 결정적 근거	안전 지표
작품 보존 상태 점검	변색, 오염, 훼손, 방치 정도 등 시각적·물리적 관리 상태 정밀 진단	설치 후 경과 연수별 보존 상태 추이 분석 및 중장기 보존 전략 수립	상태 지표
지역 주민 선호도	인근 거주민의 작품 인지도 및 장소 자산화(미관 개선 등)에 대한 만족도	공공미술의 사회적·정서적 가치를 실증하여 정책 정당성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	체감 지표

3. 통계적 정합성 및 품질관리 방안 (심사 핵심 기술)

① 분류 체계의 엄밀성

○ 통합 자산 관리 스키마 적용

- 건축물 미술작품(K-Art) 데이터와 지자체 자체 기획사업 DB를 가치사슬별로 재구성한 '공공미술 통합 분류표'를 적용하여 중복 집계 및 누락을 방지함

○ 모집단 정밀 타겟팅

- K-Art 시스템의 설치 신고 데이터와 지자체 사업 결과 보고서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관리 대상이 되는 '전국 공공미술 자산 전체'를 모집단으로 확정함

② 산출 방식의 과학적 근거

○ 전문가 실사 기반 'Top-down & Bottom-up' 분석

- 행정자료(e호조, K-Art)를 통한 거시적 현황 파악(Top-down)과 보존 전문가의 현장 정밀 실사 데이터(Bottom-up)를 교차 분석하여 통계적 신뢰성을 극대화함

○ 시계열 노후도 모델링

- 격년 단위 조사를 통해 설치 시점별 보존 상태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작품별 최적 보수 주기 및 생애주기 관리 비용(LCC) 도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③ 비표본오차 및 응답 품질 관리

○ 디지털 아카이빙 교차 검증

- 현장 실사에서 수집된 디지털 상태 기록(사진, 점검표)이 행정 관리 대장의 수치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내검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데이터의 엄밀성을 확보함

○ 정책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한 협조 유도

- 조사 참여 지자체에 '우리 지역 자산 관리 진단 리포트' 및 '중장기 보존 전략 가이드라인'을 환류하여,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제공을 유도함

[조사표 초안] 공공미술 자산 관리 실효성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1. 조사 설계의 핵심 포인트

○ 목적 : 전국 공공미술 자산의 유지관리 체계 및 보존 상태를 정밀 진단하여 관리 부실 리스크를 식별하고, 사후 관리의 실효성 분석을 통한 정책적 환류(Feedback) 근거 마련

○ 응답 단위 : 지자체 공공미술 담당자, 공공기관 자산 관리 책임자 및 현장 점검 수행 보존 전문가

○ 특이사항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데이터(K-Art)와의 연계를 통한 전수 관리 체계 구축 및 작품별 정밀 위치 정보(GPS/GIS)를 활용한 '공공미술 자산 관리 지도' 구현

2. 구체적 설문 문항 (Questionnaire)

□ 모듈 A. 자산 및 설치 기초 현황 (소유권 및 위치 분석)

○ A1. 해당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건축물 미술작품(법정 의무 설치) ② 공공미술 기획사업(정부/지자체 주도) ③ 기증 및 기타

○ A2. 귀해당 작품의 법적 소유권자 및 실질적 유지관리 책임 주체는 누구입니까?
- 소유권자 : ( ) / 관리책임주체: ( )

○ A3. [지역 정보] 해당 작품이 설치된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로명 주소 및 GPS 위·경도 좌표 기재)

□ 모듈 B. 예산 운용 및 지속성 (재원 및 행정 역량)

○ B1. 해당 작품의 초기 건립(설치) 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 B2. [관리 예산] 최근 1년간 해당 작품의 유지보수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기 점검비, 보존 처리비, 주변 환경 정비비 등 포함)

○ B3. [재원 구조] 유지관리 예산의 주요 재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공공 재원(지자체 예산 등): ( )% / 민간 재원(건축주 분담금 등) : ( )%

□ 모듈 C. 유지관리 및 보존 상태 (실효성 및 안전 진단)

○ 유지관리 실효성 산정 공식
- 관리 실효성 = (유지보수 예산 확보율 × 정기 점검 이행도) / 작품 훼손도

○ C1. [전담 체계] 현재 해당 작품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보존 전문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C2. [점검 실태] 최근 2년간 해당 작품에 대한 정기 점검은 몇 회 실시되었습니까?

○ C3. [안전 및 상태] 전문가 실사 결과, 해당 작품의 현재 상태는 어떠합니까?
- 구조적 안전 등급: ① A(우수) ② B(양호) ③ C(보통) ④ D(미흡) ⑤ E(불량)
- 주요 훼손 유형: ① 변색/윤기 저하 ② 오염/이물질 ③ 물리적 파손/균열 ④ 기타(방치 등)

□ **모듈 D. 지역사회 기여도 및 정책 만족도 (사회적 가치 측정)**

○ D1. 해당 작품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장소 자산화 및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D2. [인식도] 인근 거주 주민들의 해당 작품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D3 [정책 제언] 현재의 공공미술 사후 관리 체계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예산 지원 확대 ② 관리 주체 명확화

③ 전문 점검 인력 확충 ④ 주민 참여형 관리 모델 도입

제7절 디지털 문화예술 참여 실태조사 설계

1. 개요

○ 통계명칭 : 「디지털 문화예술 참여 실태조사」
○ 통계종류 : 일반통계 및 가공통계 (온라인 패널조사와 플랫폼 로그 데이터의 하이브리드 결합)
○ 개념 정의
-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관람 및 창작을 포함한 전반적 '참여 행태'를 분석하고, AI·NFT 등 신흥 기술 기반의 능동적 예술 활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통계임

○ 개발의 필요성
- 디지털 전환 지표의 독자적 구축
  • 범용 정보통신이나 콘텐츠 산업 통계와 차별화된 '예술 가치 중심'의 디지털 전환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설계의 객관적 기초(Raw Data) 제공
- 능동적 예술 참여(Prosumer) 실태 포착
  • 단순 관람을 넘어 AI 창작, 디지털 드로잉 등 일반 국민의 능동적 생산 활동을 데이터화하여 증거 기반 행정(EBPM)의 토대 마련
- 신기술 기반 예술 생태계 대응
  • 메타버스, NFT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이 예술 향유 저변 확대 및 창작 장벽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하여 정책적 정당성 확보

2. 법적 근거 및 작성 체계

○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 및 제39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법정 업무인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 진흥 정책 연구 수행 및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의 근거임
- 「통계법」 제18조 및 제15조
  • 신규 통계의 국가 승인을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범정부적 '통계기반 정책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디지털 예술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작성 체계
- 관람·창작 통합 참여 모델 적용
  • 기존의 수동적 '향유' 개념을 넘어 디지털 공간에서의 '창작'과 '커뮤니티 활동'을 포괄하는 능동적 참여 체계로 재구성함

- 온-오프라인 연계 분석
  - 디지털 전용 예술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예술 생태계 전반의 참여 도달률을 체계적으로 포함함
- 데이터 정합성 확보
  -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주관적 만족도를 파악하고, 플랫폼 이용 로그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 행태를 보정하는 병행 방식을 채택하여 엄밀성 극대화

3. 조사 및 분석 체계

○ 분석 방법론: 디지털 문화예술 참여 지수(D-CAPI) 고도화
- 관람 및 창작 통합 지수 산출
  - 온라인 감상 활동과 디지털 창작 참여도를 결합한 통합 지표를 개발하여 국가 전체 디지털 예술 참여 수준을 정밀 산출함
- 기술 활용 효과 분석
  - 디지털 기술 활용 여부에 따른 예술 저변 확대 효과 및 창작 진입 장벽 완화 정도를 분석하여 산업 간 연관성 규명

○ 자료 수집 및 하이브리드 연계 체계
- 데이터 수집 전략
  -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설문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플랫폼 이용 행태 로그 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심층 면접(FGI)을 연계함
- 미시 데이터(Micro Data)
  -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세대별·지역별 참여 행태, 지출 구조 및 참여 환경 만족도 등 질적 데이터를 수집함
- 보조 및 활동성 지표(Auxiliary Data)
  - 디지털 플랫폼(스트리밍, NFT 마켓 등) 사업자 협력을 통해 수집된 로그 데이터와 전문가 FGI 자료를 활용하여 지표의 정교함 완성

4. 조사 대상 및 범위

○ 조사 대상 : 디지털 환경 내 예술 참여자 및 창작자
- 온라인 예술 이용자 및 프로슈머
  -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예술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AI 등을 활용해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전체를 포함함
- 신흥 기술 경험 집단
  - 메타버스 기반 커뮤니티 활동자 및 NFT 구매·소유 경험자 등 신기술 기반 예술 활동 인력을 포함하여 데이터 사각지대 해소

○ 조사 범위 : 디지털 기반의 전주기 참여 생태계

- 참여 형태별 핵심 영역 :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관람, 가상 갤러리 및 VR 전시 이용 등 관람 영역과 AI 창작, 디지털 드로잉 등 창작 영역 전체를 포괄함
- 경제적 지출 영역 : 예술 콘텐츠 유료 결제액, 아티스트 후원 및 소액 기부 현황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예술 소비의 유료화 비중을 포함함
- 공간적 데이터 범위 : 전국 단위 조사를 통해 지역별 디지털 참여 격차를 분석하고, 플랫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초 지표로 활용함

5. 상세 조사 및 집계 항목

구분	주요 조사 및 분석 지표	데이터 소스 및 산출 방식
조사문항	① 관람·소비 : 실시간 스트리밍, VR 전시 이용 빈도 등	온라인 패널조사 + 로그데이터
	② 창작·생산 : AI 활용 창작, 디지털 드로잉 활용 실태 등	설문조사 및 전문가 FGI 연계
	③ 지출구조 : 콘텐츠 결제액, 아티스트 후원 및 기부 현황	플랫폼 결제 정보 및 실태조사
	④ 신흥기술 : NFT 구매 경험, 메타버스 커뮤니티 참여 여부	패널조사 기반 특화 항목
	⑤ 환경만족 : 현장감 구현 수준, 플랫폼 접근성, 도구 편의성	리커트 척도 기반 실태조사
집계·분석	① 참여율 분석 : 세대별·지역별 디지털 예술 통합 참여율 산출	인구통계학적 가중치 적용
	② 기술효과 : 디지털 활용에 따른 창작 진입 장벽 완화 효과	상관관계 분석 및 가공 분석
	③ 지속성 진단 : 예술 참여의 유료화 비중 및 지불 의향 분석	투입산출 모델링 적용
공표항목	① 디지털 문화예술 참여 지수 (관람+창작 통합)	국가통계 공표
	② 세대별 디지털 예술 참여 행태 및 선호 플랫폼 지표	인포그래픽 리포트 발간
	③ 신기술 기반 디지털 예술 창작 생태계 활성화 정도	정책 활용 지표 제공

6. 조사 주기 및 방법

○ 조사 주기: 매년 (Annual)

- 기술 환경 변화 대응
  - 급격한 신기술 환경 변화와 산업 트렌드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1년 주기의 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의 정시성 확보

○ 조사 방법: 하이브리드(Hybrid) 데이터 수집 체계

- 온라인 패널 및 플랫폼 연계 : 대규모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정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요 디지털 플랫폼 이용 행태 로그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도 보정
- 전문가 집단 심층 면접(FGI) : 신기술 활용 창작자 및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치로 파악하기 어려운 질적 변화와 미래 전망 분석 보완

7. 공표 항목 및 활용 방안

○ 주요 공표 항목
- 참여 지수 및 행태 지표
  • 디지털 문화예술 참여 지수(관람 및 창작 통합 지표)
  • 세대별·지역별 선호 플랫폼 및 디지털 예술 소비 행태
- 생태계 및 도달률 지표
  • 신기술 기반 디지털 예술 창작 생태계 활성화 정도
  • 온-오프라인 통합 문화예술 향유 도달률 및 참여 격차

○ 활용 방안
- 디지털 예술 진흥 정책 수립
  • '디지털 예술 지원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창작 진입 장벽 완화 효과를 바탕으로 프로슈머 맞춤형 지원 정책 설계의 결정적 근거로 활용
- 문화 격차 해소 및 플랫폼 전략
  • 지역별·세대별 디지털 참여 격차(Digital Divide)를 진단하여 보편적 디지털 향유권 확대를 위한 인프라 및 플랫폼 접근성 개선 정책 추진

8. 국가데이터처 승인을 위한 전략적 대응 논리

○ 기존 「지역문화현황」 및 「문화향유실태조사」와의 차별성
- 논리
  • 범용 콘텐츠 산업 통계와 달리 예술적 창의성과 심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예술 중심 디지털 참여'를 정밀 측정함
- 차별성
  • 단순 이용 시간을 넘어 AI 창작 참여 등 예술가적 능동성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여 기초예술 영역만의 순수 기여도를 분리 추출함

○ 능동적 참여자(Prosumer) 실태 포착
- 분석 기법
  • 수동적 소비 중심의 기존 조사 틀에서 벗어나, 신기술을 활용한 '생산적 참여'를 측정할 수 있는 독자적 지표 체계(D-CAPI)를 적용함
- 정합성
  • 전문가 FGI와 플랫폼 로그를 결합하여 행정 데이터가 포착하지 못하는 디지털 예술 활동의 비시장적 가치까지 포괄함

○ 정책적 시급성 및 디지털 대전환 대응
- 정책 정합성
  •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 기조에 맞춰 문화예술 분야의 대응 현황을 진단하는 핵심 지표이며, 예산 배분의 과학화를 위한 증거 기반 정책(EBPM)의 원천 자료로 활용됨

【부록】 국가승인통계 승인 신청용 조사항목 상세 기술서

1. 조사항목 구성 개요

○ 본 통계의 항목은 문화예술 분야로 유입되는 민간재원(기업·개인·재단 등)의 원천별 규모와 후원 성격을 정밀 분리하여, 최종적으로 재원 다변화 지수(HHI-R)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됨

○ 모든 항목은 공익법인 결산 공시 기준, 메세나협회 후원 실적 분류 및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발급 지침 등 관련 법령과 행정 기준을 준수함

2. 항목별 상세 기술서 (주요 항목 발췌)

○ 디지털 예술 관람 및 소비 항목 (향유 실태 도출용)

항목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내용	도입 근거 및 활용 방안	비고
디지털 예술 콘텐츠 이용 빈도	온라인 실시간 공연, 가상 갤러리 및 VR 전시 등 디지털 전용 콘텐츠의 연간 이용 횟수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예술 저변 확대 및 향유 도달률 측정	핵심 지표
유료 결제 및 지출 구조	온라인 예술 콘텐츠 구매, 스트리밍 구독료 및 유료 관람권 결제 총액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예술 소비의 유료화 비중 및 시장 지속 가능성 진단	특화 항목
참여 환경 만족도	디지털 감상의 현장감 구현 수준, 플랫폼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5점 척도)	플랫폼 고도화 및 디지털 문화 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보정 지표

○ 디지털 예술 창작 및 생산 항목 (능동적 참여 산출용)

항목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내용	도입 근거 및 활용 방안	비고
신기술 활용 창작 경험	생성형 AI, 디지털 드로잉 및 음악 제작 SW 등을 활용한 능동적 창작 활동 여부	능동적 참여자(Prosumer) 실태 파악 및 창작 진입 장벽 완화 효과 실증	신설 항목
디지털 창작 도구 활용성	창작 과정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의 숙련도 및 도구의 정책적 기여도	신기술 기반 디지털 예술 창작 생태계 활성화 정도 진단	부가지표 구성
예술가 후원 및 소액 기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아티스트 직접 후원(팬덤 기반 후원 등) 및 기부 횟수	전통적 재원 구조에서 벗어난 민간 재원 유입 경로 및 참여의 능동성 측정	특화 항목

○ 신흥 기술 경험 및 격차 항목 (미래 대응 및 사회적 가치)

항목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내용	도입 근거 및 활용 방안	비고
예술품 NFT 구매 및 소유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NFT의 구매 경험, 소유 개수 및 거래 빈도	신기술 기반 예술 시장의 확장성 및 미래 가치 소비 행태 진단	신설 항목
메타버스 예술 커뮤니티 참여	가상공간 내 예술 관련 커뮤니티 활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 여부	디지털 공간에서의 예술적 사회 신뢰 구축 및 소통 지표로 활용	고용 지표(연계)
온-오프라인 통합 참여격차	거주 지역 및 세대별 디지털 접근성 차이에 따른 향유 도달률 편차	세대별·지역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해소 정책 설계 근거	차 지표

3. 통계적 정합성 및 품질관리 방안 (심사 핵심 기술)

① 분류 체계의 엄밀성

○ 예술 가치 중심의 독자적 매핑

- 방송·통신 중심의 기존 ICT 통계와 차별화하여, 기초예술 장르(문학, 시각, 공연 등)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지점을 특정하여 중복 집계를 방지함

○ 참여 행태의 포괄성 확보

- 수동적 관람에 그치지 않고 AI 창작 등 생산적 활동을 아우르는 통합 참여 지표를 구축하여 디지털 예술 생태계 전체를 포착함

② 산출 방식의 과학적 근거

○ 하이브리드(Hybrid) 데이터 검증

- 온라인 패널 조사의 주관적 응답을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로그 데이터(이용 행태)와 비교·보정하는 'Top-down & Bottom-up' 방식을 채택하여 신뢰성을 확보함

○ 지수화 모델링(D-CAPI)

- 참여 빈도, 지출 규모, 기술 숙련도를 결합한 표준화된 지수를 개발하여 연도별·세대별 성장 추이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③ 비표본오차 및 응답 품질 관리

○ 실시간 내검(Editing) 프로그램 가동

- 응답 수치가 평균적 로그 데이터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날 경우 재확인을 요청하는 논리 검증 시스템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엄밀성을 확보함

○ 전문가 심층 면접(FGI)을 통한 보정

- 정량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기술 창작자 대상 FGI를 병행하여, 수치 이면의 기술적 장벽 및 정책 수요를 심도 있게 분석함

[조사표 초안] 디지털 문화예술 참여 및 능동적 창작 실태조사

1. 조사 설계의 핵심 포인트

○ 목적

- 디지털 환경 내 예술 향유 및 창작을 포함한 '전방위적 참여 행태' 분석 및 디지털 문화예술 참여 지수(D-CAPI) 도출
- AI·NFT 등 신기술이 예술 저변 확대 및 창작 진입 장벽 완화에 미치는 영향 실증

○ 응답 단위

-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중 최근 1년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 경험자(온라인 패널)

○ 특이사항

- 일반적인 OTT·웹툰 등 범용 콘텐츠 소비와 차별화된 '예술적 가치 중심'의 활동 분리 측정 및 온-오프라인 활동 간의 상호 보완성 진단

2. 구체적 설문 문항 (Questionnaire)

□ 모듈 A. 응답자 일반 현황 및 디지털 환경 (분류 및 격차 분석)

○ A1. 귀하의 평소 온-오프라인 통합 문화예술 관심 분야는 무엇입니까?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다원예술 등 장르 선택)

○ A2. 귀하가 디지털 예술 활동 시 주로 사용하는 하드웨어 기기는 무엇입니까?
① 스마트폰/태블릿 ② PC/노트북 ③ VR/AR 헤드셋 ④ 스마트 TV ⑤ 기타

○ A3.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역별 디지털 참여 격차 분석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기재)

□ 모듈 B. 디지털 예술 관람 및 향유 (향유 도달률 도출)

○ B1. 지난 1년간 귀하는 다음의 디지털 예술 콘텐츠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습니까?
- 온라인 실시간 공연 스트리밍(라이브 중계 등) : 연 ( )회
- 가상 갤러리 및 VR/AR 전시 관람 : 연 ( )회
- 메타버스 내 예술 공연/전시 참여 : 연 ( )회

○ B2. [참여 심도] 위 활동 중 귀하가 가장 몰입감이 높았다고 판단하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실시간 소통형(채팅 등) ② 고화질/고음질 감상형 ③ 가상공간 체험형(VR 등)

○ B3. [온-오프 연계] 디지털 예술 관람이 실제 오프라인 현장 방문 의향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① 매우 강화됨 ② 약간 강화됨 ③ 영향 없음 ④ 오히려 현장 방문이 줄어듦

□ 모듈 C. 디지털 창작 및 경제적 지출 (능동적 참여 및 유료화 진단)

○ 참여 지수 산정 공식

D-CAPI = (관람 빈도 + 창작 활동성) x 유료 지출 가중치

○ C1. 지난 1년간 귀하는 디지털 도구 및 신기술을 활용한 창작 경험이 있습니까?

① AI 활용 창작(이미지, 음악 생성 등) ② 디지털 드로잉 및 전문 S/W 활용

③ NFT 예술품 발행 ④ 해당 없음

○ C2. [지출 구조] 지난 1년간 디지털 예술 참여를 위해 지출한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 온라인 콘텐츠 유료 결제/구독료 : 약 ( )원
- 아티스트 직접 후원 및 소액 기부 : 약 ( )원
- 신흥 기술 자산(NFT 등) 구매 비용 : 약 ( )원

□ 모듈 D. 참여 만족도 및 장벽 완화 (사회적 효과 및 지속성 진단)

○ D1. 디지털 환경에서의 예술 참여가 귀하의 예술적 갈증을 얼마나 해소해 주었습니까?

(5점 리커트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

○ D2. [장벽 완화] 디지털 기술 활용이 예술 창작이나 접근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추었다고 보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D3. [환경 평가] 현재 이용 중인 디지털 예술 플랫폼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점은 무엇입니까?

① 현장감/기술적 구현 수준 ② 플랫폼 접근성 및 이용료

③ 콘텐츠의 다양성 ④ 창작 도구의 편의성

제8절 문화예술 재원(민간 기부·후원·메세나) 통계 설계

1. 개요

○ 통계명칭 : 「문화예술 민간재원·메세나 통계」
○ 통계종류 : 일반통계 및 가공통계 (행정자료와 실태조사의 하이브리드 결합)
○ 개념 정의
- 문화예술 분야로 유입되는 민간재원(기업 후원, 개인 기부, 재단 지원, 협찬 및 현물 등)의 유입 구조와 지출 행태를 파악하여, 공공재원과의 상호 보완 관계 및 재원 다변화 수준을 계량화한 통계임

○ 개발의 필요성
- 공공재원 의존도 탈피 및 재원 다변화 유도
  • 공공재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재원의 실태를 투명하게 가시화하여,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원 다각화 정책의 객관적 근거 제공
  • 정책 인센티브 설계의 과학적 기초 마련
  • 민관 매칭펀드 도입, 기부 세제 개선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설계 시, 장르·지역별 재원 편차와 격차 요인을 진단하는 기초 자료(Raw Data)로 활용
- 기업 ESG 및 메세나 활동의 가치 실증
  • 기업의 사회공헌(CSR) 및 가치창출(CSV) 활동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실질적 기여도를 산출하여 민간 후원의 정당성 확보 및 참여 확산 견인

2. 법적 근거 및 작성 체계

○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민간 기부금 및 후원 활성화를 장려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민간 재원 실태 파악의 법적 근거임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및 제15조(통계기반정책관리) 신규 통계의 국가 승인을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범정부 차원의 자원 배분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 작성 체계
- 재원 원천별 다차원 분류 체계 적용
  • 기업, 개인, 재단 등 공급 주체별 유입 경로와 현금·현물·협찬 등 지원 형태를 교차 매핑하여 기초예술만의 민간 재원 지도를 구축함
- 공급-수요 매칭 분석(Supply-Demand Matching)
  • 재원을 제공하는 기업/기부자의 동기와 혜택을 받는 단체의 성과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재원 흐름의 미스매칭(Mismatching) 구간을 포착함

- 데이터 거버넌스 통합
  • 공익법인 공시자료, 메세나협회 DB, 후원금 영수증 발급액 등 분절된 데이터를 통합 연계하여 통계적 엄밀성 극대화

3. 조사 및 분석 체계

○ 분석 방법론 : 재원 다변화 지수(HHI-R) 모델 구축
- 재원 집중도 및 다양성 지수(HHI) 산출
  • 특정 재원(공공 보조금 등)에 대한 의존도를 측정하고, 재원 원천의 다양성 지수를 산출하여 예술단체의 경영 자생력 진단
- 투입-성과 상관관계 분석
  • 민간 재원 유입액과 단체의 KPI(관객 수, 사회적 가치 등) 간의 상관성을 규명하여 민간 후원의 정책 효과성 실증

○ 자료 수집 및 하이브리드 연계 체계
- 거시 데이터(Macro Data)
  • 공익법인 결산 공시자료 및 국세청 기부금 통계를 활용하여 민간 재원 총량 통제(Control Total)
- 미시 데이터(Micro Data)
  • 수혜 기관(단체) 대상 표본조사 및 개인 기부자 패널 조사를 통해 세부 유입 경로와 동기 파악
- 보조 및 유관 DB 연계
  • 메세나협회 후원 실적 DB, 지자체·문화재단 보조금 DB 연계로 데이터의 정교함 완성

4. 조사 대상 및 범위

■ 조사 대상 : 민간 재원 생태계의 공급-수혜 주체
- 수혜 주체 : 전국 문화예술 단체, 시설 및 기관 (법적 지위 무관)
- 공급 주체 : 문화예술 후원 기업(대·중견·중소) 및 관련 공익 재단
- 개인 주체 : 문화예술 분야 정기·일시 기부 참여 개인 패널

■ 조사 범위 : 민간 유입 재원 전체 및 성과 영역
- 재원 범위 : 기업 후원(현금·현물), 개인 기부, 크라우드 펀딩, 티켓 외 부가수입(네이밍권 등)
- 내용 범위 : 유치 채널, 후원 성격(일회성/다년), 세제 혜택 체감도 및 사회적 가치 성과

5. 상세 조사 및 집계 항목

구분	주요 조사 및 분석 지표	데이터 소스 및 산출 방식
조사문항	① 수혜 현황: 기관 정보, 민간재원 유입액, 유치 채널별 비중	설문조사 + 행정자료 연계
	② 후원 특성: 지정/일반 기부 여부, 다년 협약 및 매칭펀드 활용도	실태조사 응답값 분석
	③ 공급자 행태: 기업 ESG/CSR 배분 기준, 선호 장르, 세제 체감도	기업/기부자 패널 조사
	④ 성과 관리: KPI 설정 여부, 성과 보고 주기, 외부 평가 참여도	실태조사 기반 질적 지표
집계·분석	① 재원 구조: 원천별(기업/개인/재단) 점유율 및 3년 추이 분석	다변화 모델링 적용
	② 격차 진단: 지역·장르·규모별 민간 재원 단가 및 집중도(HHI)	층화 분석 및 가공 통계
	③ 상관 분석: 모금 역량(인력 등)과 실제 재원 유입의 인과관계	회귀 분석 및 통계 모델링
공표항목	① 민간 재원 총규모 및 전년 대비 증감률	국가통계 공표
	② 재원 다변화 지수 및 지역별 격차 지수	핵심 정책 지표 공표
	③ 메세나 참여율 및 네이밍권 등 유무형 거래 건수	산업 활력 지표 제공

6. 조사 주기 및 방법

○ 조사 주기 : 매년 (Annual)
- 회계연도 실적과의 연동을 통해 데이터의 시계열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책 적시성 강화

○ 조사 방법 : 하이브리드(Hybrid) 데이터 수집 체계
- 행정자료 연계 : 공익법인 공시, 후원금 영수증 발급 데이터, 보조금 DB 연계로 응답 부담 최소화
- 표준 실태조사 : 온라인·서면 설문 및 회계자료 증빙 스캔 업로드 방식 병행
- 품질관리 : 중복·이상치 탐지 알고리즘 적용 및 가중치 보정으로 통계 신뢰도 확보

7. 공표 항목 및 활용 방안

○ 주요 공표 항목
- 총량 및 구조 : 민간 재원 총규모(억원), 원천별 비중(%), 장르별 비중
- 정책 및 효율 : 지역 격차 지수, 재원 다변화 지수, 메세나 참여율

○ 활용 방안
- 재원 다변화 정책 추진
  - 매칭펀드 규모 산정 및 기부 인센티브(세제 등) 설계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
- 기관 경영 컨설팅
  - 조사 참여단체에 '재원 건강도 분석 리포트'를 환류하여 모금 전략 수립 지원

8. 국가데이터처 승인을 위한 전략적 대응 논리

○ 통계적 사각지대 해소 및 유일성

- 논리
  - 기존 기부 통계는 일반 자선에 치중되어 있으나, 본 조사는 '문화예술'만의 특수성(메세나, 협찬 등)을 포괄함
- 차별성
  -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 네이밍권 등 예술계 고유의 재원 유입 형태를 분리 추출하는 기술적 장치 마련

○ 데이터 정합성 및 정밀성

- 기법 : 공익법인 공시(Macro)와 단체 실태조사(Micro)를 결합한 'Top-down & Bottom-up' 분석으로 수치 엄밀성 확보

○ 증거 기반 행정(EBPM)의 가치

- 시급성 : 공공재원 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을 민간 활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정책 지표임을 강조

【부록】 국가승인통계 승인 신청용 조사항목 상세 기술서

1. 조사항목 구성 개요

○ 본 통계의 항목은 문화예술 분야로 유입되는 민간재원(기업·개인·재단 등)의 원천별 규모와 후원 성격을 정밀 분리하여, 최종적으로 재원 다변화 지수(HHI-R)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됨

○ 모든 항목은 공익법인 결산 공시 기준, 메세나협회 후원 실적 분류 및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발급 지침 등 관련 법령과 행정 기준을 준수함

2. 항목별 상세 기술서 (주요 항목 발췌)

○ 재원 유입 및 구조 항목 (규모 및 다양성 도출용)

항목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내용	도입 근거 및 활용 방안	비고
원천별 민간재원 유입액	기업 후원(현금·현물), 개인 기부, 재단 지원,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유입된 총액	문화예술 민간 재원 시장의 실질 규모 측정 및 재원 다변화 지수 산출 핵심 지표	핵심 지표
네이밍권 등 부가수입	시설 네이밍권 거래, 굿즈 판매, 저작권 활용 수익 등 티켓 외 파생 수입액	예술 활동의 자생적 재원 확보 능력 파악 및 신규 재원 모델의 확장성 진단	특화 항목
현물 및 서비스 협찬액	공연·전시를 위해 기부된 물품(장비 등) 및 서비스(홍보 등)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	현금 외의 실질적 지원 규모를 가치화하여 메세나 활동의 전체 기여도 정밀 계산	보정 지표

○ 후원 성격 및 유치 경로 항목 (지속성 및 역량 분석용)

항목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내용	도입 근거 및 활용 방안	비고
다년 협약 (Multi-year) 비중	단발성 후원이 아닌 2년 이상의 장기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유입된 재원의 비율	예술 단체 경영의 재무 안정성 및 기업-단체 간 거버넌스의 성숙도 측정	지속 지표
매칭펀드 참여 여부	공공-민간 재원이 일정 비율로 결합된 매칭펀드 사업을 통해 유치된 금액	공공 재원의 마중물 효과를 분석하고 민관 협력 정책의 효율성 진단	정책 항목
모금 전담 인력 및 역량	단체 내 모금 전문 인력의 수 및 후원자 관리 시스템(CRM) 보유 여부	재원 유치 성과와 내부 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단체 자생력 강화 지원 근거	역량 지표

○ 공급자 동기 및 정책 인센티브 항목 (공급 및 제도 개선용)

항목명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내용	도입 근거 및 활용 방안	비고
ESG/CSR 연계 비중	기업의 지원금 중 ESG 경영이나 사회공헌(CSR) 전략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비중	기업의 후원 동기를 분석하여 기업 맞춤형 후원 모델 개발 및 홍보 전략 수립	동기 지표
세제 혜택 체감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세액 공제 등 현행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한 수혜자/기부자의 만족도	민간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식별하고 기부 세제 개선 및 정책 인센티브 설계 근거	신설 항목

3. 통계적 정합성 및 품질관리 방안 (심사 핵심 기술)

① 분류 체계의 엄밀성

○ 민간재원 다차원 매핑

- 일반 자선 기부와 차별화된 '문화예술 특화 재원 분류표'를 적용하여 메세나, 협찬, 네이밍권 등 예술계 고유의 유입 형태를 분리 추출함

○ 모집단 정교화

-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데이터와 메세나협회 후원 실적, 위원회의 기부금 통합 DB를 연계하여 공급-수요 양방향 타겟팅을 통해 누락과 중복을 방지함

② 산출 방식의 과학적 근거

○ 다변화 지수(HHI-R) 모델 구축

- 수집된 미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재원 의존도를 측정하는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모델을 적용하여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함

○ 시계열 안정성 확보

- 전년도 회계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항목을 조사함으로써 민간 재원의 유입 추이 분석 및 경기 변동에 따른 민감도 도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③ 비표본오차 및 응답 품질 관리

○ 하이브리드 데이터 검증

- 실태조사 응답액이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 및 법인 결산서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내검 프로그램을 가동함

○ 재무 건전성 리포트 제공

- 조사 참여단체에 장르 및 규모 대비 '재원 건강도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고 향후 모금 전략 자료로 활용하게 함

[조사표 초안] 디지털 문화예술 참여 및 능동적 창작 실태조사

1. 조사 설계의 핵심 포인트

○ 목적

-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재원(기업·개인·재단 등) 유입 구조와 추이를 파악하여 재원 다변화 정책의 객관적 근거 마련
- 민관 매칭펀드 및 세제 개선 등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 제공

○ 응답 단위

- 민간 후원금 및 기부금 수혜 실적이 있는 예술 단체·시설·기관의 재무 또는 모금 담당자

○ 특이사항

- 재원 원천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재원다변화지수(HHI-R)' 산출 및 지역별 후원 격차 분석을 위한 지리정보(GIS) 수집

2. 구체적 설문 문항 (Questionnaire)

□ 모듈 A. 수혜 기관/단체 일반 현황 (분류 및 지역 분석)

○ A1. 귀 기관(단체)의 주된 예술 활동 분야는 무엇입니까?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다원예술 등 상세 기술)

○ A2. 귀 기관(단체)의 법적 지위(법인격)는 무엇입니까?
①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비영리법인(사단/재단) ③ 일반 임의단체 ④ 기타(사회적기업 등)

○ A3. [기관 규모] 귀 기관(단체)의 상근 인력 규모 및 연간 총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A4. [지역 정보] 귀 기관(단체)의 주된 활동 거점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도로명 주소 등 GIS 연계용 상세 주소 기재)

□ 모듈 B. 민간재원 유입 실태 (재원 구조 분석)

○ B1. 지난 1년간 귀 기관(단체)에 유입된 총 민간재원(기부·후원 등) 규모는 얼마입니까?

○ B2. [원천별 세분화] 위 민간재원 중 다음 항목별 비중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합계 100%)

- 기업 후원: (메세나 협찬, 기업 기부금, 현물 지원 등)
- 개인 기부: (정기 후원, 일시 기부, 크라우드 펀딩 등)
- 재단 지원: (민간 문화재단, 기업 출연 재단 등 공공 외 지원금)
- 부가 수익: (네이밍권 거래, 굿즈 판매, 저작권 활용 수익 등

○ B3. [재원 다변화] 귀 기관(단체)의 전체 예산 중 공공 재원(정부 보조금 등)과 민간 재원의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 공공 재원 ( )% : 민간 재원 ( )%

□ 모듈 C. 후원 성격 및 유치 채널 (지속성 및 경로 진단)

○ 재원 다변화 지수 산정 공식 : HHI-R = Σ(각 재원 원천별 점유율)2

○ C1. [지속성] 지난 1년간 유치한 민간 후원 중 2년 이상의 '다년 협약(Multi-year)'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C2. [유치 채널] 민간재원 확보를 위해 주로 활용한 채널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① 직접 모금/캠페인 ② 온라인 플랫폼(크라우드 펀딩 등)
③ 메세나협회 연계 ④ 민관 매칭펀드 사업 참여

○ C3. [인센티브] 귀 기관(단체)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세제 혜택 관련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 모듈 D. 모금 성과 및 리스크 진단 (사회적 기여도 및 장벽)

○ D1. 귀 기관(단체)은 민간 후원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자체 KPI(관객수, 사회가치 등)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D2. [모금 역량] 귀 기관(단체) 내에 기부금 유치 및 후원자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은 몇 명입니까?

○ D3. [위험 요인] 민간재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① 모금 전문 인력/역량 부족 ② 대기업의 특정 지역·장르 편중
③ 복잡한 세제·회계 처리 절차 ④ 홍보 및 브랜드 인지도 부족

○ D4. [정책 수요] 민간 후원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제6장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고도화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제1절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운영 현황 분석

1. 조사의 개요 및 국가승인통계 체계 정립

가. 조사의 목적 및 법적 근거

■ 조사의 목적

○ 우리나라의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 및 발표 활동 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기록함으로써 문화예술 정책 수립의 객관적 기초 자료를 제공함

○ 1976년 창간 이래 지속된 전수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 생태계의 장기적 변천사를 기록하고, 향후 예술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함

■ 법적 근거 및 공신력

○ 국가승인통계 지정

- 2016년(2015년 실적 조사분)부터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국가승인통계(제433001호 / 명칭 :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로 지정됨

○ 품질 관리

- 매년 국가데이터처 품질진단을 통해 통계의 정확성, 적시성, 일관성을 검증받으며, 2021년에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 신뢰도를 확보함

나. 조사 방법론 및 분류 체계의 고도화

■ 조사 대상 및 범위

○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예술 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공연장·전시장 등 전문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까지 포괄함

■ 데이터 수집 체계

○ 행정자료

- 공연장 대관 현황, 출판권 설정 내역 등 공공 및 민간의 행정 자료 전수 수집

○ 매체조사

- 문화예술 전문지, 일간지, 주요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 및 예술 활동 홍보 매체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 현장확인

- 수집된 자료의 중복 제거 및 누락 보완을 위해 직접 조사 및 유선 확인 병행

■ 장르 분류의 현대화(2016년 기점)

○ 기존의 단순 6개 장르 체계에서 탈피하여, 장르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트렌드를 반영한 '혼합/융복합' 장르를 별도 신설함

○ 공연예술 내 창작초연과 재공연의 구분, 시각예술 내 개인전과 단체전의 구분 등 질적 분석이 가능한 세부 지표를 강화함

다. 조사 설계의 방향성

○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는 1976년 창간 이후 예술 현장의 기록이라는 '사료적 기능'과 정책 수립의 '통계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

○ 특히 2016년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기점으로, 주관적 기술(Description) 중심에서 객관적 지표(Indicator) 중심으로 조사 항목이 대폭 재구조화됨

[표 6-1]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2023 기준) 개요

구분		내용
기본정보	작성유형	• 조사통계
	통계종류	• 일반통계
	승인번호	• 433001
	승인일자	• 2016년 12월 13일
	법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제1항 6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 규정에 의거 매년 <문예연감>을 발간함 • 2016년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국가승인 통계(통계명 :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제433001호, 2016.12.14.)를 획득하여 매년 통계결과를 작성 및 보급해야 함 •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응답 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됨
	조사목적	• 국내 연간 문화예술활동의 건수 및 횟수를 분야별·시기별·공간별로 정리하여 문화예술계의 현황과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이슈를 제시 • 문화예술정책 수립의 근거 및 연구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요연혁	• 1977년 : 1976년도 판의 문예연감 첫 발간 • 창간호는 한국학/전통예능/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연예/출판/일반자료로 10개의 분야로 구성 • 1999년 : 문예연감 온라인 서비스 시작 • 2009년 : 분류체계 조정 • 분야별 현황분석 및 개괄총론, 다원예술은 분야특성을 살려 총론에서 개괄, 북한문화 분야도 독립된 카테고리로 설정 • 2016년 : 국가승인통계지정 및 국가통계작성기관으로 승인 • 문학/시각예술/공연예술로 분류체계 조정,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간 ‘융합’, 분야 내 장르 간 ‘혼합’, 세부 장르 간 ‘복합’ 항목을 추가하여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탈장르적 추세 반영 • 2022년 : 통계작성 변경승인

구분		내용
		• 문학 단행본 분류에 중분류2를 추가하여 아동도서의 연령대를 유아, 초등, 중등, 고등으로 세분화 • 시각예술 분야 융합 장르의 분류 세분화 • 시각예술 분야 비대면 문화예술행사 현황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개최 전시 정보 추가 • 시각예술 분야 문화시설 운영 주체별 전시 현황 파악(민간/공공) • 공연예술 분야 융합 장르의 분류 세분화 • 공연예술 분야 비대면 문화예술행사 현황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개최 공연 정보 추가 • 공연예술 분야 문화시설 운영 주체별 전시 현황 파악(민간/공공)
일반특성	조사주기	• 1년
	조사대상 범위	• 국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별 예술활동 현황
	조사대상 지역	• 전국
	조사항목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국악, 양악, 연극, 무용) 3개 분야, 조사항목 64개
	자료수집방법	• 인터넷조사
	조사체계 (위탁,용역포함)	• 조사대상자→조사업체→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사대상기간/ 조사기준시점	• 2023년 전체
	조사실시기간	• 2024년 4월~8월
결과공표	공표주기	• 1년
	공표시기	• 조사기준년도 익년 12월
	공표범위	• 전국
	공표방법	• 보도자료 • 전산망(한국문화예술위원회, KOSIS) • 간행물(문예연감)
조사통계 측정	전수/표본구분	• 전수조사
	모집단	• 국내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별 예술활동 현황
	표본추출틀	• 해당없음
	추출단위	• 해당없음
	조사대상 규모	• 국내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별 예술활동 현황
통계활용	마이크로데이터 보유	• 보유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제공
	행정자료 활용 여부	• 해당없음
	KOSIS 제공 여부	• 제공
	국제기구 제출 여부	• 미제출

구분		내용
	자료 이용시 주의사항	• 본 조사의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문화예술 활동 전체임 • 문화예술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3가지 분류로 구분하고, 시각예술은 회화, 서예, 공예, 조소, 판화, 디자인, 만화, 영상, 사진, 건축, 설치, 행위, 조형, 혼합 장르로, 공연예술은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장르로 구분함 • 본 조사는 2024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됐으며, 자체조사 자료는 행정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와 교차 검증하였으며 자체조사와 행정조사 간 자료의 차이가 있을 경우 문화예술 활동 공간(전시장 및 공연장)에서 제공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반영함 • 문화예술활동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하여 활동 건수 및 횟수를 함께 조사함. 건수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문화예술 전시 또는 공연이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며, 횟수는 얼마나 자주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제공되었는지를 설명함. • 17개 시도별 지역에 따른 문화예술 분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개 시도를 지역 구분의 기준으로 정함 • 단, 세종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도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비교 분석에 한계가 있어 해석에 유의하여야 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구분에서 수도권 지역에는 서울, 인천, 경기가 포함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비수도권으로 구분함. • 도시 규모별 문화예술 분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기준 기초자치단체 목록에 따라 시 단위 78개, 군 단위 82개, 구 단위 69개의 총 229개 도시 규모별 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편의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시 단위에도 포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시 단위에 포함함 • 지역 인구 10만 명당 현황분석 시에는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의 거주자 자료를 기준으로 함 • 혼합 장르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별로 대표적인 장르 외 다른 세부 장르가 혼합된 형태이거나 전시 및 공연에서 동시 진행 또는 결합된 경우임 • 혼합 및 복합 장르 안에서 한 장르가 다른 장르와 어떤 분포로 결합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장르별 결합의 총 발생 건수를 구하였으며, 세 가지 이상의 장르 간 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르별 혼합 및 복합 장르 결합의 발생건수는 전시 혹은 공연 건수와 같지 않음 • 문화시설의 운영주체는 전시장 및 공연장 목록에 표기된 설립 및 운영주체를 바탕으로 분류하였으며, 광장이나 공원 등 정식 전시장이나 공연장이 아닌 공간에서 발생한 문화예술 활동은 운영주체 분석에서 제외함 • 2017년 통계부터 문화예술 활동의 월별 분포는 해당 문화예술 활동이 일어난 모든 월을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며, 2016년 통계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수 있음 • 각 분야별 조사항목 중 상, 행사, 학술행사, 소사 내용은 편람(마이크로데이터)에는 포함되었으나, 통계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본 연감 보고서에서는 제외함 • 본 연감 내의 모든 비율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기재하였으므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문화예술 활동 시계열 분석 (2014~2023)

가. 총괄 활동 추이 및 성장률 분석

■ 양적 성장의 가속화

○ 2014년 36,807건에서 2023년 59,621건으로 10년간 총 62.0%의 성장을 기록함

○ 특히 2016년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조사 체계가 정밀해짐에 따라 통계적 포착 범위가 확대되며 수치상의 비약적 성장이 관찰됨

■ 시기별 성장 패턴

○ 기반 구축기 (2014~2015)

- 연평균 3%대의 안정적 성장세

○ 통계 고도화기 (2016~2019)

-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연평균 약 8.5%의 가파른 성장 기록
- 2019년 57,907건으로 팬데믹 이전 역대 최고치 달성

○ 팬데믹 충격기 (2020)

- 전년 대비 △48% 급감하며 생태계 위축

○ 회복 및 정상화기 (2021~2023)

- 2021년 49.9%, 2022년 22.3%의 반등을 거쳐 2023년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상회함

나. 분야별·장르별 심층 분석

■ 문학(Literature) : 생태계의 기저 안정성 확인

○ 활동 지표

- 단행본 발간 종수를 기준으로 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가장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임

○ 분석 결과

- 2014년 8,639건에서 2023년 14,720건으로 70.4% 증가함
- 특히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전년 대비 3.9% 성장하며 비대면 예술 향유의 핵심 장르임을 입증함

■ 시각예술(Visual Arts) : 창작 주체의 개별화 및 공간 다변화

○ 활동 지표

- 전시 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최근 개인전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

○ 분석 결과

- 2020년 6,379건으로 급감했으나 2023년 16,491건을 기록하며 완전 회복됨
- 2023년 기준 개인전 비중이 전체 전시의 약 60%를 상회하며 창작자의 개별 활동이 강화되는 추세임

■ 공연예술(Performing Arts) : 장르별 불균형과 융복합의 부상

○ 양악(Western Music)

- 전체 문화예술 활동 중 약 23.2%를 점유하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임
- 2023년 13,834건으로 역대 최대치 경신

○ 연극(Theater)

- 장기 공연의 특성상 공연 횟수(Performance Count) 면에서 압도적 지표를 보임
- 2023년 공연 건수는 8,706건이나 공연 횟수는 이를 수십 배 상회함

○ 혼합/융복합(Mixed)

- 2015년 1,108건에서 2023년 2,339건으로 111% 급증하며, 기술 결합형 예술과 탈장르적 창작 활동이 주류 트렌드로 자리 잡음

[표 6-2] 최근 10개년 분야별 문화예술 활동 정밀 추이

(단위: 건)

활동연도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계)	(양악)	(연극)	(혼합)	합계
2014	8,639	13,248	14,920	8,146	4,018	-	36,807
2016	11,785	13,260	21,056	9,907	6,271	1,973	46,101
2018	13,151	15,192	24,719	11,333	7,608	2,773	53,062
2019	13,724	15,256	28,927	12,219	9,693	3,546	57,907
2020	14,267	6,379	9,089	4,629	2,424	874	29,735
2023	14,720	16,491	28,410	13,834	8,706	2,339	59,621

3. 문화예술 활동의 구조적 특징 분석

가. 지역별 활동 분포 및 집중도 분석

○ 수도권 집중화 현상
- 서울과 경기 지역의 활동 비중은 10년간 약 48~51%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음
- 2023년 기준 수도권 비중은 49.6%로, 인구 및 인프라의 집중도가 예술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지역별 회복 탄력성 차이
- 팬데믹 이후 강원, 충남, 전남 등 일부 지역의 활동 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이 관찰됨
- 특히 전남, 광주 등은 전년 대비 5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역 문화 활성화 조짐을 보임

나. 운영 주체별(공공/민간) 활동 비중

○ 민간 자생력 확인 : 전체 전시 및 공연의 약 60% 이상이 민간 운영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예술 생태계의 기저 동력이 민간 영역에 있음을 시사함

○ 공공시설의 역할 : 국공립 시설은 활동 건수 대비 관람객 수용력과 장기 공연 비중이 높아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 중임

4. 문화예술활동조사 연도별 조사항목 변천

1) 기반 조성기 (2014~2015년) : 데이터 집계의 고도화 시기

■ 국가승인통계 지정 전,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을 위해 새로운 지표를 실험적으로 도입한 시기

■ 2014년(2013년 실적) : 예술활동지수(Arts Index) 최초 도입 및 온라인 아카이브 연계

○ 조사항목 변화
- 단순 건수(Quantity) 위주의 집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문화 인프라 대비 활동량을 지수화한 '예술활동지수' 항목을 신설함
- 과거 5개년 주요 지표를 시계열 표와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수록 항목에 포함

○ 분류 체계 : 6개 기본 장르(문학/시각예술/국악/양악/연극/무용) 체계 유지 및 북한 문화예술 동향 별도 수록

○ 특이사항 :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점이 마련됨

■ 2015년 (2014년 실적) : 빅데이터 기반 분석 도입을 통한 분석 기법의 과학화

○ 조사항목 변화
- 빅데이터 분석 지표 : 예술계 주요 이슈 추출을 위한 워드클라우드(Word Cloud) 및 텍스트 마이닝 항목 시범 도입
- 음성 바코드(Voicemon) 도입 :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음성 출력 코드 삽입으로 조사 결과의 향유 범위 확대

○ 방법론 변화
- 행정 자료 수집 외에 매체 모니터링 범위를 온라인 홍보 매체까지 확장
- 기존 행정 자료 수집에 '매체 모니터링'의 비중을 강화하여, 공식 집계에서 누락될 수 있는 민간 소규모 전시/공연 포착 시도

2) 체계 확립기 (2016~2018년) : 국가승인통계 전환 및 표준화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됨에 따라, 조사 항목의 정의를 법적·통계적 기준에 맞춰 전면 개편한 시기

■ 2016년 (2015년 실적) : 조사항목의 전면 재구조화(국가승인통계 제433001호)

○ 분류체계 통합 : 기존 6대 장르를 유지하되, 통계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악/양악/연극/무용을 '공연예술'이라는 상위 범주로 통합 관리하기 시작함

○ 혼합/융복합' 장르 신설 : 특정 장르로 정의하기 어려운 다원예술 및 기술 결합형 활동을 집계하기 위한 항목 신설

○ 세부항목 정교화 : 공연예술 내 '창작초연' 여부, 시각예술 내 '전시 성격(개인/단체)' 항목을 필수 조사 항목으로 지정

■ 2017~2018년 (2016~2017년 실적) : 데이터 안정성 및 세부 변수 강화

○ 조사항목 강화 : 예술 활동의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전시/공연의 '활동 일수'와 '회수' 항목의 검증 절차 강화

○ 분류 체계 : 승인통계 기준에 따른 시계열 비교 항목(전년 대비 증감률) 정례화

○ 방법론 보완 : 통계청의 표준 분류 기준에 맞추어 예술가(개인)와 예술단체(단체)의 창작 주체 분류를 더욱 엄밀하게 적용

다. 분석 심화기 (2019~2020년) : 정책 연계 지표의 확장

■ 통계 데이터를 실제 정책 수립(예: 문화바우처, 예술인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 주체별 변수를 추가한 시기

■ 2019년 (2018년 실적) : 운영주체별 변수 및 공간 분석 도입

○ 신규 항목 추가

- 예술 활동이 일어나는 시설의 '운영 주체(공공/민간)' 항목 추가를 통해 정부 지원 시설과 민간 자생 시설의 활동 비중 차이를 도출함
- 공연장·전시장 외에 대안공간, 도서관, 복합문화공간 등 활동 공간의 성격을 상세 기록

○ 장르별 특화 항목 : 문학 분야에서 발간 주체(출판사/개인) 및 번역서 여부 등 출판 생태계 분석을 위한 세부 변수 고도화

■ 2020년 (2019년 실적) : 보고서 체계 분리 및 전문화

○ 구조 변화 : '국내 활동'과 '북한 문화예술' 조사 항목을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 보고서 체계로 운영

○ 조사항목의 정교화

- 문학 분야의 경우 단순 발간 종수 외에 아동문학, 장르문학 등 세부 하위 장르의 비중 분석항목 강화
- 시각예술 전시 내 '기획 주체'가 공공기관인지 민간 갤러리인지에 따른 활동 양상 분석 지표 강화

라. 위기 대응 및 정상화기 (2021~2024년) : 재난 대응 및 신규 활동 포착

■ 팬데믹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와 엔데믹 이후의 완전한 정상화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조사항목을 유연하게 조정한 시기

■ 2021년 (2020년 실적): 코로나19 특수 변수 및 비대면 지표 도입

○ 신규 항목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전시 취소 건수', '온라인 전환 여부'를 임시 조사항목으로 도입

○ 조사 범위 확장 : 대면 활동 중심의 통계에서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공연 등 비대면 활동을 포착하기 위한 실험적 집계 실시

○ 방법론 : 통계청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획득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세부 양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위 지표 공표

■ 2022~2023년 (2021~2022년 실적) : 통계 품질 고도화 및 품질진단 환류

○ 품질 관리

- 통계청 품질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데이터의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한 '중복 활동 제거 알고리즘' 고도화

○ 조사항목 유지

- 시계열 비교의 안정성을 위해 국가승인통계 기준 항목을 유지하되, 지역별 문화 향유 격차 분석을 위한 '지역별 인구 대비 활동량' 산출 방식 정밀화

○ 특이사항

- 2021년 통계 품질 진단 '우수' 등급 획득에 따른 표준화된 조사 양식 고착화

■ 2024년 (2023년 실적) : 완전 정상화 및 글로벌 위상 지표 검토

○ 조사 항목 변화

- 2019년(팬데믹 이전) 대비 회복률 산출 항목 추가
- 예술 생태계의 활력을 측정하기 위해 신규 창작물에 대한 가중치 분석 시도
- 한국 문학의 세계화(노벨상 등) 트렌드와 관련하여 국내외 활동 연계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 수록

○ 최신 경향 반영 : 엔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창작초연' 및 '지역 축제 연계 활동'에 대한 분석 비중 확대

○ 특이사항 : 한국 문학의 글로벌 성과(노벨상 등)와 맞물려 문학 분야의 해외 번역 및 출판 관련 지표에 대한 정책적 분석 강화

[표 6-3] 연도별 주요 조사항목 변화 일람표

구분	주요 변화 내용	핵심 도입 항목	통계적 의의
2014~2015	데이터 시각화 및 빅데이터 활용	예술활동지수(Arts Index)	지역별 문화 격차 수치화
2016	국가승인통계 지정 (대개편)	융복합 장르, 표준 6대 분류	통계적 공신력 및 표준화 확보
2019	정책 연계 지표 강화	운영주체(공공/민간) 분류	시설 주체별 활동 기여도 분석
2021	팬데믹 위기 대응 지표	온라인 활동, 취소/중단 건수	재난 상황의 예술 생태계 기록
2024	생태계 정상화 및 질적 분석	창작초연 비중, 지역 특화 지표	회복 탄력성 및 질적 성장 확인

제2절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성과 및 개선과제 진단

1. 조사의 성과

가. 국가승인통계로서의 공신력 및 품질 우수성 입증

■ 검증된 데이터 품질

○ 2016년 국가승인통계(제433001호) 지정 이후, 통계청 주관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지속적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함

○ 2025년 품질진단 결과, 통계작성 기획(5/5점), 통계설계(5/5점), 이용자 의견수렴(5/5점) 등 주요 품질 차원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하며 조사 전 과정의 표준화와 객관성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음

■ 대외적 신뢰도 확보

○ 2021년 통계 품질진단 우수기관 선정 및 표창 수여를 통해, 국내 문화예술 통계의 표준(Standard)으로서 정책 수립의 핵심 근거자료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함

나.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 활동 전수 DB 구축 및 시계열 완결성

■ 방대한 데이터 아카이브

○ 1976년부터 50년간 축적된 대한민국 유일의 예술 공급 전수 조사로서, 연간 약 60,000건(2023년 기준 59,621건)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관리함

○ 지난 10년간(2014~2023) 누적 약 47만 건 이상의 창작·발표 실적을 전수 집계하여, 생태계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독보적 시계열 데이터를 보유함

■ 촘촘한 행정 거버넌스 가동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27개 기초지자체, 83개 지역문화재단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데이터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조사 커버리지를 극대화함

다. 데이터 활용성 극대화 및 대국민 서비스 확산

■ 이용 활성화 실적

○ 최근 5개년(2020~2024년) 국가통계포털(KOSIS) 연평균 이용 건수는 23,838건에 달하며, 특히 2024년에는 월평균 약 2,000건 이상의 활발한 데이터 조회가 이루어짐

○ KOSIS 누적 이용 실적(2020~2024년)은 총 117,078건을 기록하여, 문화예술 분야 통계 중 가장 높은 활용도를 입증함

■ 연구 및 정책 기초 자료 제공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제공 건수가 2024년 기준 125건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교육기관(78건) 및 연구기관(59건) 등 전문 연구 영역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음

○ 총 187개 세부 조사 문항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는 '예술활동지수(Arts Index)' 산출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지역 문화 격차 해소 정책의 근거가 됨

라. 조사 방법론의 현대화 및 이용 편의성 혁신

■ 행정 효율성 제고

○ 텍스트 마이닝 및 웹 크롤링 기술 도입을 통해 자료 수집의 자동화 비중을 높였으며, 전용 데이터 입력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 정제(Cleaning) 오류를 획기적으로 낮춤

■ 이용자 접근성 강화

○ 문예연감 통합 사이트를 통해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전 권의 PDF 및 마이크로데이터(Excel)를 무료 개방하여, 데이터의 공공재적 가치를 실현함

[표 6-4] 최근 5개년 주요 성과 지표

구분	2020년	2022년	2024년	비고
KOSIS 이용 건수	24,673	23,229	24,351	연평균 2.4만 건 수준
MDIS 제공 실적	42	21	125	연구 활용도 급증
조사 대상 활동 건수	29,735	54,531	59,621	팬데믹 극복 및 성장
품질진단 등급	우수	우수	우수	국가승인통계 공신력

○ [표 5-3> 성과 지표는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가 단순한 통계 자료를 넘어 국가 문화 정책의 방향타(Compass)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보여줌

○ 특히 2024년 MDIS 활용 건수의 폭발적 증가는 문화예술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단순 조회에서 심층 분석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2. 조사의 문제점 및 한계 진단

가. 조사 설계 및 커버리지의 구조적 한계

■ 물리적 시설 및 제도권 중심의 사각지대 발생

○ 현상

- 공연장·전시장 등 공식 등록된 '공식 시설'의 대관 자료와 행정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 이로 인해 카페, 광장, 대안공간 등 비제도권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독립 예술가들의 실험적 활동이 집계에서 원천 배제됨

○ 문제점

- 실제 예술 생태계의 활력을 절반만 보여주는 과소 추정(Underestimation) 문제가 발생하며, 시설 밖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소외' 현상을 초래함

■ 디지털·온라인 예술활동 포착 불능

○ 현상

- 메타버스, 유튜브, OTT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창작 및 유통 활동에 대한 통계적 집계 체계가 전무함. 오프라인 장소 중심의 기존 조사 설계로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예술적 실천을 포착하기 어려움

○ 문제점

- 예술의 디지털 전환(DX)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국가 통계와 실제 현장 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급성장하는 디지털 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적 대응 공백과 지원 근거 부재로 이어짐

■ 모집단 관리 부실 및 기초 예술 데이터 소외

○ 현상

- 소규모·비영리·풀뿌리 예술 단체의 행정 자료 확보가 극히 제한적이며, 조사 모집단(Master Sample) 리스트의 갱신 주기 지연으로 인해 최신성 유지가 미흡함

○ 문제점

- 기초예술 활동이 통계적으로 '증발'되어 특정 대형 단체나 장르에 편중된 데이터가 생산됨으로써, 지역 기반 소규모 생태계의 건강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불가능함

■ 장르별 조사 방법론의 상호 불일치

○ 현상

- 문학(출판), 시각(전시), 공연 등 분야별로 자료 수집 경로와 절차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하는 표준화된 기준이 미비함
- 특히 온라인 매체 조사와 오프라인 행정 조사의 혼용 과정에서 정합성 문제가 상존함

○ 문제점

- 장르 간 비교 가능성이 현격히 저하되어 문화예술 활동 전체 총량 분석 시 데이터의 동질성(Homogeneity)을 훼손하며, 장르별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

나. 데이터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의 병목 현상

■ 행정 데이터의 비표준화 및 수동 정제 비용 과다

○ 현상

- 지자체 및 문화시설별로 대관 양식과 관리 항목이 통일되지 않아, 매년 수집된 원천 데이터를 엑셀 등으로 일일이 수기 정제하는 '원시적 취합' 방식이 반복되고 있음

○ 문제점

- 방대한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인적 오류(Human Error)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행정 비용의 과다 지출 및 데이터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병목 현상을 유발함

■ 핵심 질적 지표의 판별 오류 및 왜곡

○ 현상

- '창작초연' 여부와 같은 고도의 질적 지표에 대한 행정 기록이 부실하며, 시스템상에서 재공연이나 순회공연을 초연으로 잘못 집계하는 기술적 한계가 상존함

○ 문제점

- 생태계의 창작 활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왜곡됨으로써, 정책 담당자가 잘못된 숫자를 근거로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정책적 판단 오류'와 통계 신뢰도 타격이 발생함

■ 조사 인력의 비전문화에 따른 품질 저하

○ 현상

- 문화예술적 식견이 부족한 단기 조사원들이 투입되어 복잡한 예술 장르를 기계적으로 분류하거나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분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문제점

- 기초 데이터 단계에서부터 누적된 오류는 이후 아무리 정교한 분석을 거치더라도 결과의 왜곡을 피할 수 없게 만들며, 통계 전체의 품격과 전문성을 저하시킴

다. 분류 체계의 시대 부합성 및 대외 연계성 부족

■ 융복합 예술 현상 반영 미흡

○ 현상

- 장르 간 경계가 허물어진 현대 예술의 추세를 무시하고 1970년대 수립된 3대 장르(문학, 시각, 공연) 틀을 유지함에 따라, 융복합 예술이 모두 '혼합'이라는 정체불명의 항목으로 단순 처리됨

○ 문제점

- 현장의 역동성이 통계상으로 소거되어 융복합 예술에 대한 정밀한 지원 규모 산출 및 성과 평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

■ 국가 및 국제 표준 분류 체계와의 불일치

○ 현상

- 유네스코(UNESCO FCS) 기준이나 통계청의 표준 산업(KSIC)·직업(KSCO) 분류와 연계되지 않은 독자적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세부 장르 정의가 모호하고 고립된 데이터 상태를 유지함

○ 문제점

- 우리 문화예술 활동의 국제 비교 분석이 불가하고, 예술이 고용이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입증할 데이터 가공 자체가 원천 차단됨

라. 데이터 거버넌스 및 시스템 연계 미흡

■ 행정 데이터 연계의 폐쇄성 및 수기 취합 반복

○ 현상

- 지자체 시스템, 문화바우처, 전국문화시설총람 등 유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결(API)되지 않고, 담당자들이 엑셀 파일을 주고받으며 수동으로 결합하는 폐쇄적 구조임

○ 문제점

- 데이터 신선도(Freshness)가 급격히 저하되고 행정 비용은 과다하게 발생하며, 실시간 현장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정책의 민첩성(Agility)을 확보하기 어려움

■ 수요-공급 및 거시 경제 지표와의 단절

○ 현상

- 예술의 '공급(활동)' 현황은 조사하나, 이것이 국민의 '수요(관람)'나 경제적 '고용'으로 어떻게 선순환되는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분석할 체계가 없음

○ 문제점

- 정책 투입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문화예술 예산이 국민 행복이나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을 숫자로 입증하는 '증거 기반(Evidence-based)' 기능이 극히 취약함

■ 데이터 분석 컨트롤타워 및 전문 시스템 부재

○ 현상

- 데이터를 수집하여 쌓아두기만 할 뿐, 이를 지능형 대시보드 등으로 시각화하거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전문 인력과 통합 관리 체계가 부재함

○ 문제점

- '수집을 위한 수집'에 머무르는 관행적 행정이 반복되어, 데이터를 활용해 미래를 예측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지능형 통계 행정'으로의 도약이 저지됨

마. 이용자 편의성 및 정책 환류의 한계

■ 공표 시점의 과도한 시차(Time Lag) 발생

○ 현상

- 수집 및 정제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활동 기준 연도와 최종 결과 공표 시점 간에 보통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함.

  * 예) 2026년에 확인하는 데이터는 2024~25년의 현상임

○ 문제점

-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나 사회적 현안에 적기에 대응할 수 없는 '사후 약방문' 식 통계가 되어, 실제 정책 현장에서의 활용 가치가 반감됨

■ 데이터 활용 지원 인프라(코드북 등) 부재

○ 현상

- 연구자가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려 해도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표준화된 '코드북(Codebook)'이나 메타데이터 정보가 부재하거나 불친절함

○ 문제점

- 공공데이터로서의 개방 가치가 훼손되어 데이터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채 서가에 '박제된 기록'으로 전락하며, 민간 및 학계의 다양한 분석 시도를 차단함

■ 정책 성과 측정 및 해석의 일관성 결여

○ 현상

- '단순 건수' 위주의 정량적 집계에만 매몰되어 예술인의 삶이나 국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같은 질적 가치를 측정하지 못하며, 중앙과 지방 간의 지표 해석 기준도 제각각임

○ 문제점

- 통계가 실무적 인사이트를 주지 못하는 '참고용 자료'로 전락하여 지역별 문화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정책 투입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데 한계를 보임

3. 시사점 및 개선 방향

가. 조사 체계 : 시설 중심 집계에서 '예술 활동 중심'으로의 포괄성 혁신

■ 오프라인 사각지대 해소 및 '마이크로 공급망' 포착

○ 현상

- 현행 조사는 대형 시설의 대관 자료에 의존하여, 시설 밖 독립 예술이나 영세 단체의 활동이 통계에서 누락되는 과소 추정(Underestimation) 문제가 지속됨
- 특히 소규모·비영리·풀뿌리 예술 활동의 행정 자료 확보가 어려워 모집단 리스트의 최신성이 결여되어 있음

○ 방향

- 거점 시설 위주의 조사에서 탈피하여, 대안공간·거리예술·팝업전시 등 비제도권 활동을 포착하는 '현장 기반 보완 조사'와 다기관 데이터 연계를 통한 '조사모집단 자동 보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이는 통계적 소외 계층인 풀뿌리 예술가들의 활동을 가시화하여 정책적 포용성을 확보하는 필수 과제임

■ 디지털 전환을 수용하는 '온라인 예술활동' 통계 표준 정립

○ 현상

- 오프라인 장소 중심의 조사 설계로 인해 유튜브, OTT, 메타버스 등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활동이 통계 체계 밖의 사각지대로 방치됨
- 또한 온라인 매체 조사와 오프라인 행정 자료가 혼용되는 과정에서 장르별 조사 방법론이 상이하여 비교 가능성과 일관성이 저하됨

○ 방향

- 온라인 전시·공연, 웹출판 등 비대면 예술 활동에 대한 통계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전용 조사 모듈' 및 '디지털 예술 분류 기준'을 신설해야 함
- 아울러 장르 간 데이터 동질성(Homogeneity) 확보를 위한 통합 분석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함

나. 데이터 품질 : 글로벌·국가 표준 기반의 '정합성 및 신뢰도' 강화

■ 글로벌 및 국가 표준분류 체계와의 '코드 매핑(Mapping)' 구현

○ 현상

- 1970년대 수립된 전통적 분류 틀을 유지하여 현대의 융복합 예술을 '혼합' 항목으로 단순 처리하고 있음
- 또한 유네스코(UNESCO FCS) 및 통계청 표준분류(KSIC/KSCO)와 코드가 연계되지 않은 고립된 상태로, 국제 비교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이 불가능함

○ 방향

- 현행 장르 분류를 글로벌 표준 및 국가 산업·직업 분류와 일치시키는 '표준 코드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다차원 태깅(Tagging)' 기법을 도입하여 융복합 예술의 역동성을 통계적으로 포착해야 함
- 이를 통해 문화예술 통계가 경제·사회 통계와 결합되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입증하는 증거 기반 행정을 실현해야 함

■ AI 기반 지능형 검증 및 '질적 지표' 판별 정밀화

○ 현상

- 지자체 및 시설별 대관 자료 양식의 불일치로 수동 정제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인적 오류가 발생함
- 특히 '창작초연' 등 핵심 질적 지표의 기재가 부실하여 재공연이 초연으로 오집계되는 등 통계적 신뢰도 저하 우려가 상존함

○ 방향

- 지능형 중복 제거 모델과 'AI 기반 자동 판별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정제 비용을 절감하고 정확도를 높여야 함
- 또한 작품 고유 식별 체계(Art-Work ID)와 전문가 검수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질적 지표의 왜곡을 방지하고 정책적 판단 근거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함

■ 조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오류 관리 체계화

○ 현상

- 문화예술 전문 식견이 부족한 단기 조사원의 투입으로 인해 분야 구분 및 에디팅 과정에서 기계적 입력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이러한 기초 데이터 단계에서의 분류 오류 축적은 통계 전체의 품격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됨

○ 방향

- '문화예술 전담 조사원 풀(Pool)'을 구축하고 장르 분류 및 행정 자료 해석에 관한 심화 교육을 정례화해야 함
- 또한 실시간 분류 추천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사원의 주관적 판단 오류를 최소화하는 기술적 보조 장치를 마련해야 함.

다. 데이터 거버넌스 및 시스템 : 연계성 및 예측 행정 역량 강화

■ 행정 데이터 연계 폐쇄성 극복 및 실시간 수집 체계 전환

○ 현상

- 지자체 대관 시스템, 문화바우처, 전국문화시설총람 등 타 사업 데이터와 실시간 API 연계가 미비하여 여전히 수기나 엑셀 취합 방식에 의존함. 이로 인해 데이터 신선도(Freshness)가 저하되고 정책 대응 속도가 지연되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함

○ 방향

- 국가 문화예술 데이터 통합 허브를 구축하고 표준 API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체계로 전환해야 함. 수집-정제-공표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과거의 수치'가 아닌 '실시간 지표'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해야 함

■ 수요-공급 통계 매칭 및 거시 경제 지표와의 융합 분석

○ 현상

- 공급 중심의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와 수요 중심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간 분류 체계가 상이하여 상호 매칭이 불가함
- 또한 고용·기업 통계 등 국가 거시 지표와의 연계 분석이 전무하여 문화예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입증에 한계를 보임

○ 방향

- 공급-수요 통계의 분류 표준을 단일화하고 '문화위성계정(CSA)' 고도화를 통해 거시 경제 지표와의 연계 분석 모델을 표준화해야 함
- 이를 통해 정책 투입에서 국민 행복 및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을 시각화하여 예산 확보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함

■ 데이터 분석 전문 역량 내재화 및 컨트롤타워 구축

○ 현상

-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내부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지표 파편화로 인한 통합적 관리 컨트롤타워가 부재함
- 이로 인해 데이터 수집 자체가 목적이 되는 관행적 행정에 머물러 있어 데이터 기반 예측 행정으로의 진전이 더딤

○ 방향

- '문화예술 데이터 통합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여 지표 관리를 일원화하고, 도메인 지식을 갖춘 데이터 분석 인력을 배치해야 함
- AI 기반 정책 시뮬레이션 기능이 탑재된 지능형 대시보드를 구축하여 현장 맞춤형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함

라. 이용자 서비스 및 정책 환류 : 시의성 및 활용 가치 극대화

■ 시의성(Timeliness) 개선 및 공표 주기 유연화

○ 현상

- 수집·정제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활동 기준 연도와 최종 공표 시점 간 1년 이상의 시차가 상시적으로 발생함. 이는 급변하는 현안에 대응하기 어려운 '사후 약방문' 식 통계가 되어 정책 대응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됨

○ 방향

- 수집-정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공표 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연간 확정치 발표 전 '분기별 잠정치(Flash Estimates)' 속보 공표 제도를 도입하여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극대화해야 함

■ 데이터 개방성 확대 및 활용 지원 인프라 확충

○ 현상

-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성이 미흡하며,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코드북(Codebook)'이 부재하거나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아 이용자의 활용에 한계가 큼
- 이로 인해 통계 데이터가 공공 자산으로서 재가공되지 못한 채 '박제된 기록'에 머무름

○ 방향

- 전문 연구자를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 포털'을 운영하고, 시각화된 디지털 코드북 및 상세 메타데이터를 제공하여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함. 연구 및 비즈니스에 활용 가능한 열린 데이터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함

■ 정책 성과 측정 체계 고도화 및 해석 표준화

○ 현상

- '단순 건수' 위주의 정량적 집계에 치중하여 예술 활동의 질적 성과나 사회적 임팩트를 파악하기 어려움
- 또한 중앙과 지방 간에 동일 지표에 대해 해석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전체의 정책 일관성이 저해됨

○ 방향

- 정량 수치를 넘어 예술인의 삶의 질이나 국민 문화 권리 증진을 측정하는 '질적 성과 지표'를 개발해야 함
- 또한 '표준 정책 해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중앙-지방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정책 현장에 실효성 있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해야 함.

제3절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고도화 비전 및 전략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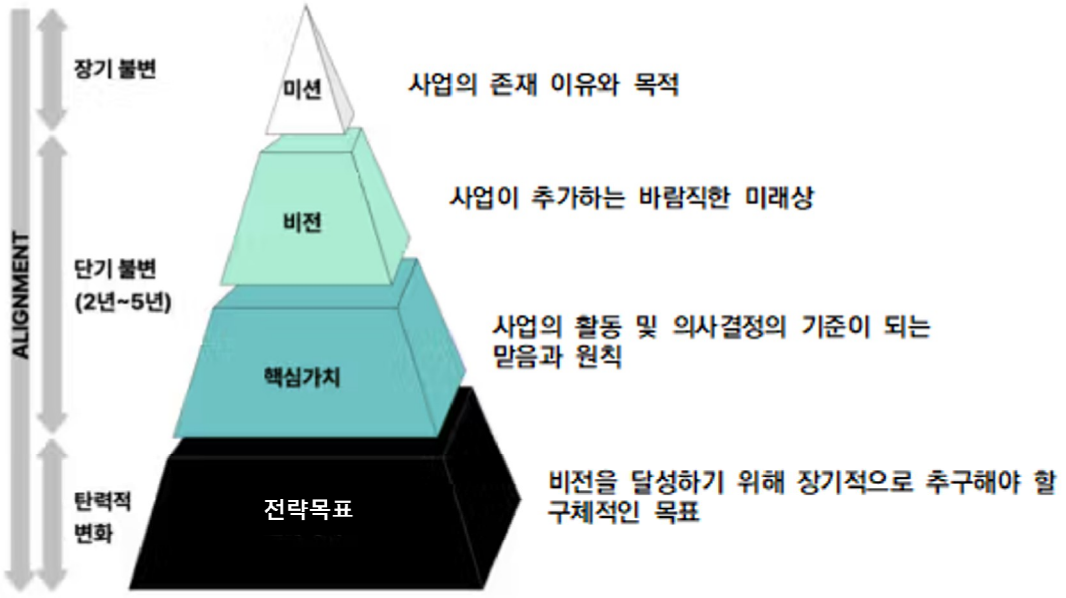
1. 비전 및 전략 체계의 개념

○ 사업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핵심적인 틀

○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이용자가 누릴 이상적인 상태, 궁극적인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 실행 주체(문예위-지자체-주관처)들이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며,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스템

[그림 6-1] 비전 및 전략 체계도



2. 비전 및 전략 체계의 구성

■ 가. 미션 (Mission)

○ 정의

- 사업의 존재 이유(이용자 가치)이자 근본적인 사회적 목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한 선언문
- 사업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존재하는지를 설명

○ 핵심 질문

- 이 사업은 왜 존재하는가?
- 우리가 지원하는 활동의 본질은 무엇인가?
- 이용자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궁극적 편익은 무엇인가?

○ 특징

- 영속성 : 장기적인 관점을 제시
- 포괄성 : 사업의 전반적인 활동 영역을 아우름
- 지향성 :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 제시
- 간결성 :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문장으로 표현

■ 나. 비전 (Vision)

○ 정의

- 사업을 통해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삶과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장기적인 목표이자 꿈
- 사업이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기를 희망하는지를 보여줌

○ 핵심 질문

- 사업이 성공했을 때 이용자의 일상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우리가 만들어갈 더 나은 문화 환경은 어떤 모습인가?

○ 특징

- 미래지향성 : 비교적 장기적으로 유지
- 구체성 :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명확하게 묘사
- 영감성 :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 부여와 열정을 불러일으킴
- 도전성 :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를 담음

■ 핵심가치 (Core Values)

○ 정의

- 사업 운영 및 의사결정의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운영 원칙과 공유 가치

○ 핵심 질문

- 사업 수행 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 협력 기관(거버넌스) 간의 행동 지침은 무엇인가?

○ 특징
- 불변성 : 외부 환경 변화에도 쉽게 변하지 않음
- 내재성 : 조직 문화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음
- 우선순위 :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중요한 가치
- 구체성 :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음

■ 전략목표 (Strategic Goals)
○ 정의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5년간 추구해야 할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
○ 핵심 질문
- 비전 달성을 위해 어떤 운영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가?
- 어떤 영역에서 사업 경쟁력과 정책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가?
○ 특징
- 장기성 : 비교적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함
- 구체성 :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형태로 설정됨
- 방향성 :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
- 연계성 : 비전과 하위 목표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

■ 전략과제 (Strategic Initiatives)
○ 정의
-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주요 활동 또는 프로젝트
- 전략목표를 보다 구체화하여 실행 가능한 단위로 나눈 것
○ 핵심 질문
-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어떤 프로젝트나 활동을 추진해야 하는가?
- 어떤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가?“
○ 특징
- 구체성 : 무엇을, 언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의
- 실행가능성 : 현실적인 자원과 역량을 고려하여 설정
- 목표지향성: 전략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함
- 우선순위 :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 추진과제 (Action Plans / Operational Tasks)
○ 정의
- 전략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 또는 활동
-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핵심 질문
- 전략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어떤 세부적인 활동이 필요한가?

- 각 활동은 누가 담당하고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가?
- 어떤 자원과 예산이 필요한가?

○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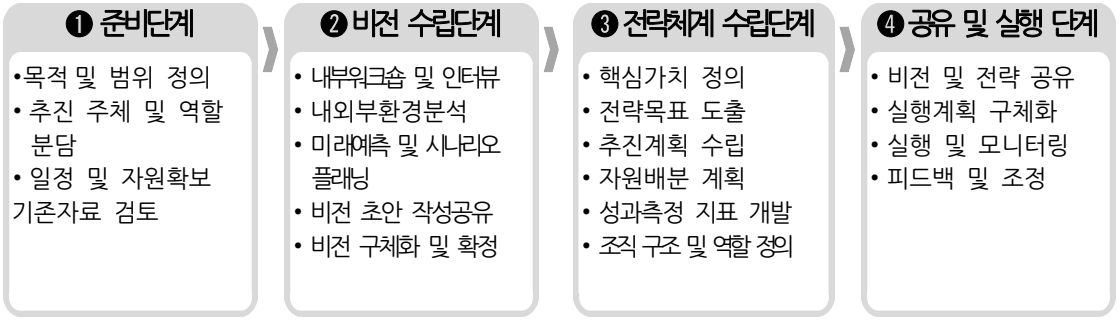
- 세부성 : 매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
- 단기성 :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
- 책임 명확성 : 각 활동별 담당자와 완료 기한이 명확하게 지정
- 자원 배분: 필요한 자원과 예산이 계획에 포함됩니다.

[표 6-5] 비전 및 전략 체계 관련 용어의 이해

구분	정의	핵심질문	특징
미션	· 사업의 존재 이유이자 근본적인 사회적 목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한 선언문	· 이 사업은 왜 존재하는가? · 우리가 세상(이용자)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 영속성 · 포괄성 · 지향성 · 간결성
비전	· 사업이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장기적인 목표	· 사업이 성공했을 때 이용자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 우리가 만들어갈 더 나은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 미래지향성 · 구체성 · 영감성 · 도전성
핵심가치	· 사업의 모든 활동과 의사결정의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믿음과 운영 원칙	·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우리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인도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관계를 맺는가?	· 불변성 · 내재성 · 우선순위 · 구체성
전략목표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 · 일반적으로 3~5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설정되며, 조직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	· 우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 어떤 성과를 장기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 어떤 영역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인가?	· 장기성 · 구체성 · 방향성 · 연계성
전략과제	·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주요 활동 또는 프로젝트 · 전략목표를 보다 구체화하여 실행 가능한 단위로 나눈 것	·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어떤 프로젝트나 활동을 추진해야 하는가? · 어떤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가?"	· 구체성 · 실행가능성 · 목표지향성 · 우선순위
추진과제	· 전략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 또는 활동 ·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전략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어떤 세부적인 활동이 필요한가? · 각 활동은 누가 담당하고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가? · 어떤 자원과 예산이 필요한가?	· 세부성 · 단기성 · 책임 명확성 · 자원배분

3. 비전 및 전략 체계 수립 방법

가. 비전 및 전략 체계 수립 프로세스



나. 주요 단계별 세부 추진방법

1) 준비단계

구분	내용
목적 및 범위 정의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비전 및 전략 체계 수립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함 · 중장기 정책 목표 기간 설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발급~성과) 포함 범위 결정
추진 주체 및 역할 분담	· 사업 총괄 기관(문예위), 지자체 담당자, 지역주관처 실무자 등 참여 범위 결정 · 정책 당국(문체부)의 지지와 현장 전문가 및 외부 위원 참여 확대
일정 및 자원 확보	· 전략 수립 및 거버넌스 의견수렴 일정 계획 수립 · 연구 예산 및 기초 통계 자료(수혜율 등) 확보
기존 자료 검토	· 사업의 추진 역사, 연도별 이용 실적, 강점과 약점, 타 부처 유사 복지 사업 분석

2) 비전 수립 단계

구분	내용
워크숍 및 인터뷰	· 정책 당국, 지자체 실무자, 이용자 패널과 함께 사업의 핵심 가치 및 미래 지향점 논의 ·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파악을 위한 심층 인터뷰(FGI) 실시
외부 환경 분석	· 문화 물가, 디지털 트렌드, 지역 소멸 위기 등 환경 분석을 통해 기회와 위협 요인 파악 · SWOT 분석, PESTEL 분석 기반의 시사점 도출
미래 예측 및 시나리오 플래닝	· 초고령사회 등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각 상황별 사업의 사회적 기여 모습 가시화
비전 초안 작성 및 공유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 비전 초안 작성 및 거버넌스 관계자 피드백 수렴
비전 구체화 및 확정	· 보편적 문화 향유 가치를 반영하여 비전을 명확히 다듬고 최종 정책 목표로 확정

3) 전략 체계 수립 단계

구분	내용
핵심가치 정의	· 사업 운영 및 거버넌스 협력의 기준이 되는 가치(형평성, 상생 등) 명확화
전략 목표 설정	· 확정된 비전 달성을 위한 측정 가능한 장기 목표(Strategic Goals) 설정
전략 과제 도출	·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주요 프로젝트(앱 고도화, 가맹점 확대 등) 도출
추진 계획 수립	· 거버넌스별(중앙/지방) 역할 분담 및 세부 실행 단계(Action Plans) 수립
자원 배분 계획	· 전략 실행에 필요한 국고/지방비 배분 및 전담 인력 확보 계획
성과 측정 지표 개발	· 정책 효능감 및 사회적 가치(SROI)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 성과 지표(KPI) 개발

4) 공유 및 실행 단계

구분	내용
비전 및 전략 공유	· 수립된 체계를 지자체 실무자 전체와 공유하고 이해를 구함 (교육, 설명회 등)
실행 계획 구체화	· 지역별/주관처별 구체적인 지역 맞춤형 실행 계획 수립 및 지역 자원 매칭
실행 및 모니터링	· 계획에 따른 사업 집행 및 수혜율, 만족도 중심의 정기 모니터링 실시
피드백 및 조정	· 현장 애로사항 및 물가 변화에 맞춰 전략 및 실행 계획 유연하게 조정

다. 주요방법론 및 도구

구분	내용
SWOT 분석	·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분석을 통해 사업 역량과 정책 환경을 종합 파악
PESTEL 분석	·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법률적 요인을 분석하여 거시 리스크에 대응
설문 조사 및 인터뷰	· 이용자, 가맹점, 지자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관심사와 의견을 수렴함
시나리오 플래닝	·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함

4. 핵심성공요인

가. 사업 추진 주체의 강력한 실행력과 거버넌스 지지

○ 핵심 의사결정 기구(문체부·문예위)는 국가승인통계로서의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차세대 지능형 통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및 행정적 자원을 확보하며, 유관 공공기관 및 조사 대상 시설 간의 신뢰와 협력을 결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고도화 비전 및 전략 수립 과정에서 통계 당국(통계청)과 총괄 운영 기관의 긴밀한 협의와, 데이터 제공 주체인 지역 문화재단 및 주요 문화시설의 적극적인 지지가 통계 품질 혁신의 필수 요건임

○ 이를 통해 통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증거 기반 정책(EBPM) 수립을 지원하는 일관된 공공 데이터 가치를 창출하는 변화 관리가 가능해짐

나. 통계 생산 주체별 참여와 공감대 형성

○ 중앙부처, 통계 작성 기관, 문화예술 시설 및 현장 예술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고도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데이터 수집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현장 실무자의 참여는 장르별 특수성과 지역별 조사 환경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응답 부담을 낮추면서도 정확도는 높이는 실행 가능한 조사 계획을 만드는 데 필수적임

○ 거버넌스 주체 간의 공감대 형성은 수립된 비전과 전략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내어, 생태계 전체가 하나의 목표(통계적 정합성 확보)를 향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동력임

다. 객관적인 생태계 분석과 현실적인 실행 계획 수립

○ 급변하는 문화예술 향유 환경(디지털·융복합 예술)과 글로벌 통계 표준(UNESCO FCS 등) 등 외부 환경 및 내부의 데이터 수집 역량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고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정확한 현재의 데이터 누락 실태 파악은 미래 통계의 신뢰성을 예측하는 토대를 제공하며, 현실적인 계획은 설정된 비전을 실질적인 모집단 자동 보완과 다차원 태깅 시스템 고도화로 연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라. 명확한 의사소통과 핵심 가치 공유

○ 수립된 고도화 비전과 전략을 지자체, 관계 기관 및 예술계와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국가 통계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함

○ 모든 데이터 제공 주체가 새로운 조사 체계와 코드북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이러한 공유는 거버넌스 전체가 공동의 목표(예술 생태계 가치 증명)를 인지하고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마.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 검토와 유연한 조정

○ 실감형 공연, AI 창작 등 급변하는 예술 생산 트렌드와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조사 항목과 분석 모델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유연하게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함

○ 통계 고도화 전략 수립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 및 환류(Feedback) 프로세스임

○ 정기적인 환류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왜곡 및 누락 지점을 진단하며, 유연한 조정을 통해 변화하는 글로벌 통계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5. SWOT 분석 내용

가. 강점(Strengths) 요인

■ 독보적인 시계열 데이터 및 역사성

○ 1976년 창간 이래 50년간 지속된 전수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 생태계의 장기적 변천사를 기록한 유일무이한 사료임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체력 역할을 수행

■ 국가승인통계로서의 높은 공신력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제433001호)로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의 대외적 신뢰도가 매우 높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함으로써 현장 예술인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조사의 완결성 확보 가능

나. 약점(Weaknesses) 요인

■ 통계 생산의 적시성 부족

○ 현행 수기 기반의 데이터 수집 및 정제 프로세스로 인해 조사 시점과 공표 시점 간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함

○ 급변하는 예술 현장의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데이터의 신선도가 낮음

■ 조사 방식의 행정 효율성 저하

○ 엑셀 기반의 수기 입력 및 개별 시설 대관 기록에 의존하여 조사원의 업무 부담이 크고 데이터 입력 오류의 위험이 상존함

○ 인력 투입 위주의 조사 구조로 인해 고도화된 분석 기술(AI, Big Data 등) 도입 및 적용이 지연됨

다. 기회(Opportunities) 요인

■ 디지털 전환(DX) 기술의 성숙

○ API 연계, SNS 크롤링, 지능형 데이터 정제 기술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하여 조사 체계를 혁신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조성됨

○ '지능형 문화예술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가 통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적기임

■ 증거 기반 정책(EBPM) 요구 강화

○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편성 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 입증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본 조사의 정책적 활용 가치가 더욱 부각됨

○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통계 산출을 통해 국가 간 비교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 확대

라. 위협(Threats) 요인

■ 예술 현장의 조사 피로도 누적

○ 유사한 문화예술 관련 조사의 중복 실시로 인해 조사 대상(시설, 단체)의 응답 거부 및 피로도가 급증하여 데이터 정확도 저하 우려

○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인센티브) 부족

■ 예술 생태계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

○ 실감형 공연, AI 창작, 메타버스 전시 등 전통적 '장르'와 '장소'의 경계를 넘어서는 융복합 활동이 급증하여 기존 분류 체계로는 포착 불가능한 사각지대 발생

○ 기존 통계 체계가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통계의 무용성 논란 제기 가능

[표 6-6] SWOT 분석 요약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 독보적인 시계열 데이터 보유 - 1976년 이후 50년간의 예술 생태계 기록 보유 • 국가승인통계로서의 공신력 - 통계청 승인번호 확보 및 대외적 신뢰도 우수 • 방대한 조사 인프라 및 네트워크 - 문예위 중심의 전국 문화시설 조사망 확보	• 통계 생산의 적시성 부족 - 수기 기반 수집으로 공표까지 1년 이상 시차 발생 • 행정 효율성 및 정확도 저하 - 엑셀 기반 수기 입력에 따른 오류 위험 및 비용 과다 • 데이터 연계 및 통합성 미흡 -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로 인한 파편화된 정보 관리
Opportunity(기회)	**Threat(위기)**
• 디지털 전환(DX) 기술 고도화 - API 연계, SNS 크롤링 등 기술 도입 환경 조성 • 증거 기반 정책(EBPM) 요구 확산 - 객관적 성과 입증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 수요 급증 • 글로벌 통계 표준 도입 가속화 - UNESCO FCS 등 국제 비교가능한 통계 요구	• 현장의 조사 응답 피로도 누적 - 유사 조사 중복에 따른 거부 및 데이터 정확도 저하 • 예술 생산 패러다임의 급변 - 융복합·디지털 예술 등 기존 분류로 포착 불가한 영역 확대 • 통계 무용론 제기 위험 - 실시간 트렌드 반영 실패 시 통계 활용도 급락 우려

마. 전략방향 설정

■ SO 전략 : 강점 활용 기회 선점 (Strengths + Opportunities)

핵심 전략	세부 실행방안	기대효과	추진주체
지능형 통계 플랫폼 구축	API 연계 및 모집단 자동 보완 시스템 도입	조사 적시성 확보 및 행정 비용 절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글로벌 표준 정합성 강화	UNESCO FCS 연계 및 다차원 태깅 체계 확립	국가 통계 공신력 제고 및 국제 비교 가능성 확보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ST 전략 : 강점 활용 위협 극복 (Strengths + Threats)

핵심 전략	세부 실행방안	기대효과	추진주체
분류 체계 현대화	융복합 예술 독립 범주화 및 신규 지표 개발	통계적 사각지대 해소 및 생태계 변화 수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계청
조사 참여 인센티브 강화	조사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리포트 제공 서비스	현장 응답률 제고 및 상호 호혜적 데이터 생태계 구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WO 전략 : 약점 보완 기회 활용 (Weaknesses + Opportunities)

핵심 전략	세부 실행방안	기대효과	추진주체
데이터 수집 채널 다변화	SNS 크롤링 및 예술인 자가 보고 시스템 연동	비제도권 예술 활동 포착 및 데이터 포괄성 확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시간 공표 시스템 도입	데이터 확정 즉시 대시보드 형태의 수시 공표	정책 활용성 극대화 및 데이터 환류 주기 단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WT 전략 : 약점 보완 장애 극복 (Weaknesses + Threats)

핵심 전략	세부 실행방안	기대효과	추진주체
거버넌스 중심 조사 설계	유관 기관(재단, 시설 등) 데이터 연계 거버넌스 구축	중복 조사 방지 및 응답자 부담 획기적 경감	문체부, 지자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데이터 정제 자동화	AI 기반 오류 검증 및 이상치 필터링 기술 적용	통계 수치의 정확도 및 신뢰성 확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 PESTEL 분석

○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정치(P), 경제(E), 사회(S), 기술(T) 등 거시적 환경 요인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설계와 문화예술의 산업적 가치 입증을 위한 통계 인프라 고도화 요구가 전 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특히 급변하는 대외 환경은 단순히 현상을 기록하는 기존의 활동 현황 위주 통계 체계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이 지닌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다층적으로 산출하고 정책적 환류를 가능하게 하는 정교한 신규 통계 모델로의 전환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음

가. 정치적 요인(Politics) : 데이터 기반 행정 및 정책 의사결정 체계의 실질적 강화

■ 증거 기반 정책(EBPM)의 제도적 안착

○ 최근 정부는 국정 운영 전반에서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제도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정책 기획, 예산 편성, 성과 평가의 전 과정에서 통계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책적 압력이 증대되고 있음

■ 문화정책의 책무성 및 성과관리 고도화

○ 공공 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 투입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지원 사업의 단순 실적 보고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수혜 효과와 사회적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고도화된 성과 지표 체계 마련이 필수적임

○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법정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기능함

■ 지역분권 가속화와 문화 자치권 확대

○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중앙 집중식 통계에서 벗어나 기초 지자체 및 생활권 단위의 세밀한 문화 인프라와 향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 특화 통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

나. 경제적 요인(Economy) :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계량화 및 산업 생태계 확장

■ 국민계정(SNA) 수준의 산업 가치 측정

○ 문화예술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직·간접적 부가가치와 고용유발효과를 정밀하게 산출해야 한다는 경제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특히 타 산업과의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매출 규모와 산업적 비중을 계량화하여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K-컬처의 글로벌 확산과 저작권 무역수지 관리

○ 한국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순수 예술 분야의 해외 진출 실태와 저작권 수출입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이는 단순한 국제 교류 건수 집계를 넘어, 'K-Arts'의 국제적 무역수지를 파악하고 전략적인 해외 진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데이터로 활용됨

■ 민간 재원 유입 및 기부 활성화 유도

○ 공공 재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 메세나, 개인 기부 등 민간 재원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통계 체계가 요구됨

○ 민간 재원의 유입 경로와 규모를 데이터로 증명함으로써, 세제 혜택 등 민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설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다. 사회적 요인(Society) : 예술 노동 구조의 변화 및 사회적 포용 가치 확산

■ 예술 노동 시장의 파편화와 비정형 노동 증가

○ 프리랜서, 프로젝트 기반 노동, 플랫폼 창작 등 예술 현장의 노동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기존의 표준 산업·직업 분류 체계로는 포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예술인의 실질적인 소득 구조, 사회보험 가입 실태, 계약의 안정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특화된 노동 통계는 예술인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기반임

■ 문화 향유 패러다임의 개인화 및 질적 전환

○ 국민의 문화 향유 방식이 수동적 관람에서 능동적 창작과 소규모 동호회 활동 등으로 미세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의 거시적 참여율 조사 외에, 생활권 내 SOC 접근성, 문화적 만족도, 삶의 질 개선 효과 등 개인의 삶에 미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 개발이 요구됨

■ 인구 구조 변화와 포용적 문화 복지

○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문화 복지 수요가 증대됨

○ 문화적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정밀한 사회 통계 확보가 정책적 화두로 부상함

라. 기술적 요인(Technology)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데이터 연계 지능화

■ 디지털 플랫폼 기반 예술 활동의 제도적 포섭

○ 비대면 공연, 온라인 전시, 웹 기반 창작물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예술 활동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국가 통계의 범주에 포함하기 위한 개념적·기술적 재정립이 필수적임

○ 이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통계의 포괄 범위를 현대화하고 데이터의 현실 설명력을 높이는 과정임

■ 행정 데이터 연계 및 자동 수집 체계 구축

○ KOPIS(공연), ISBN(문학) 등 기구축된 방대한 행정 DB를 통계 생산과 직접 연계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응답 부담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혁신이 요구됨

○ 산재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연계하는 '데이터 융합' 기술은 통계 생산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 요인임

■ 데이터 주권 및 개방형 거 거버넌스 확립

○ 생산된 통계 정보를 연구자와 현장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데이터(MDIS) 개방과 정책 대시보드 구축 등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해야 함

○ 이는 통계가 단순히 정부의 자료로 머물지 않고, 민간의 창작 활동과 산업적 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마.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구축

■ 문화예술계 ESG 경영 성과 측정 지표 요구 증대

○ 전 산업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에 따라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도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운영에 대한 요구가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시 환경적 기여도를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문화예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임

■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위한 탄소 중립적 활동 데이터 확보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탄소 중립 정책에 발맞춰, 예술 작품의 제작, 운송, 전시/공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이러한 데이터는 친환경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정책 설계와 예술계의 기후 위기 인식 확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탄소 창작·유통 환경으로의 변화

○ 물리적 자원 소모가 큰 오프라인 활동에서 디지털·온라인 방식으로의 전환이 저탄소 예술 활동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디지털 창작과 유통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탄소 저감 등)을 통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정책의 환경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바. 법률적 요인(Legal) : 통계 제도의 법적 정당성 확보 및 데이터 활용 규제 준수

■ 통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 지정 및 품질 관리 강화

○ 신규 개발되는 통계가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표준 매뉴얼에 부합하는 엄격한 품질 관리 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 이는 통계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국가 전체 통계 체계 내에서 문화예술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법적 토대가 됨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통한 행정 데이터 연계 안정성 확보

○ KOPIS, ISBN 등 산재한 행정 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수적임

○ 데이터 연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데이터 융합 통계 생산 체계를 안착시켜야 함

■ 저권법 및 국제 협약에 기반한 무역 통계 생산 근거 마련

○ 「저작권법」에 명시된 권리 관계와 유네스코(UNESCO) 문화통계지표 등 국제 협약의 기준을 준용하여 무역수지 및 저작권 수출입 통계의 체계를 설계해야 함

○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통계 생산을 통해 'K-Arts' 무역 데이터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과 대외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함

■ 결론적으로 PESTEL 분석을 통해 진단한 거시적 환경은 '데이터의 객관성(P)', '가치의 경제성(E)', '현장의 실용성(S)', '수집의 과학성(T)', '생태계의 지속성(E)', '제도의 정당성(L)' 확보를 신규 통계 개발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통계 체계 구축은 향후 우리나라 문화예술 정책의 과학화와 산업적 도약을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임

[표 6-7] PESTEL 분석

정치적(Political) 요인	경제적(Economic) 요인
• 증거 기반 정책(EBPM) 기조 강화 및 데이터 행정 활성화 •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정책 책무성 및 성과 관리 고도화 • 지역문화분권 가속화에 따른 지역 단위 정밀 통계 요구	• 문화예술의 산업적 기여도(SNA) 및 부가가치 측정 수요 증대 • K-컬처 확산에 따른 예술 저작권 무역수지 관리 필요성 • 공공 재원 한계 극복을 위한 민간 재원(메세나·기부) 흐름 파악
사회적(Social) 요인	**기술적(Technological) 요인**
• 예술인 노동시장 다변화(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 • 문화 향유 패러다임 변화(일상 창작 및 생활권 중심) • 인구 구조 변화(고령화·1인 가구)와 포용적 문화 복지 요구	• 디지털 플랫폼 기반 예술 활동의 보편화 및 범주화 필요 • 행정 데이터(KOPIS·ISBN 등) 연계 및 자동 수집 기술 성숙 • 데이터 주권 및 마이크로데이터(MDIS) 개방 거버넌스 확산
환경적(Environmental) 요인	**법률적(Legal) 요인**
• 기후 위기 대응 및 문화예술계 ESG 경영 성과 측정 지표 요구 •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위한 탄소 중립적 활동 데이터 요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탄소 창작·유통 환경으로의 변화	• 통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 지정 및 품질 관리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통한 행정 데이터 연계 안정성 확보 • 저작권법 및 국제 협약에 기반한 무역 통계 생산 근거 마련

[표 6-8] PESTEL 분석 요약

구분	주요 요인	최신 수치·사례	정책·제도 연계	시사점
P (정치)	증거 기반 행정 강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국정 운영 기조(EBPM) 및 성과관리 고도화	통계적 정당성 확보 및 중앙-지방간 데이터 협력 체계 구축
	문화 자치권 확대	지역 소멸 위기 및 지역 간 문화 격차 심화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역 특화 정책	생활권 단위 정밀 통계 구축으로 지역 소멸 대응력 제고
E (경제)	산업적 가치 계량화	국민계정(SNA) 및 부가가치 산출 요구 증대	문화위성계정(CSA) 개발 및 도입 논의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예술의 경제적 위상 정립
	저작권 무역 관리	K-컬처 글로벌 확산 및 저작권 수지 중요성 증대	저작권법 및 국제 무역 통계 기준	K-Arts 무역수지 파악을 통한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
S (사회)	예술 노동 시장 변화	플랫폼 창작 및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 급증	예술인 복지법 및 사회보험 가입 실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 통계로 예술인 복지 실효성 확보
	향유 패러다임 전환	1인 가구 증가 및 능동적·일상적 창작 확산	문화기본법 및 보편적 문화 향유권	사회적 가치 및 삶의 질 측정 중심의 질적 지표 개발
T (기술)	디지털 전환(DX)	비대면 공연, 온라인 전시, AI 창작 보편화	지능형 정보화 전략 및 데이터 댐 구축	통계 포괄 범위 현대화를 통한 데이터 현실 설명력 제고
	데이터 융합·연계	KOPIS, ISBN 등 행정 DB 연계 기술 고도화	데이터 주권 및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자동 수집 체계 전환으로 조사 효율성 및 정합성 혁신
E (환경)	ESG 경영 확산	기후 위기 대응 및 친환경 운영 요구 가중	문화예술계 ESG 가이드라인 및 탄소중립	탄소 중립적 예술 활동 데이터 확보로 지속가능성 평가
	저탄소 창작 환경	디지털 전환을 통한 물리적 자원 소모 절감	국가 탄소 중립 기본 계획	디지털 전환의 환경적 가치 입증 및 정책 정당성 확보
L (법률)	국가승인통계 관리	통계청 품질 진단 및 국가승인통계 지정 절차	통계법 및 국가 통계 품질 관리 표준	공신력 있는 통계 체계 정립 및 중복 조사 방지
	정보 보호 및 권리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및 저작권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저작권법	신뢰 기반 데이터 융합과 글로벌 표준 비교 가능성 확보

7. 비전 및 전략 체계 수립

가. 미션 설정

■ 존재 이유의 재정립

○ 기본적인 도출은『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태동기 목적과 현재 요구되는 시대적 소명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됨

- 과거의 목적 (1976년~) : "창작 및 발표 활동 현황의 기록과 객관적 기초 자료 제공" (수동적 기록자)
- 새로운 미션의 방향 : 단순한 기록을 넘어, 데이터를 통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예술의 가치를 입증'하는 능동적인 엔진으로 역할을 재정립함
- 도출 로직 : 통합문화이용권의 프레임워크에서 미션을 "사업의 존재 이유이자 근본적 목적"으로 정의하듯, 본 조사 역시 "왜 이 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정책 혁신'과 '가치 증명'에서 찾음

■ 환경 변화 및 전략적 요인 분석

○ SWOT 분석 및 PESTEL 분석을 통해 미션의 핵심 키워드들이 추출됨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문화행정” : (S-O 전략 반영)
  - 기존의 수기 기반, 사후 집계 방식(Weakness)을 탈피하여, API 연계와 지능형 수집 체계(Opportunity)를 통해 '과학적 행정'을 뒷받침하겠다는 방법론적 선언임
- “예술 생태계의 가치 증명”: (T-O 전략 반영)
  - 예술 지원 예산에 대한 성과 입증 요구가 강화되는 위협(Threat) 요인을, 한국은행 국민계정(SNA) 연계 및 문화위성계정(CSA) 구축이라는 기회(Opportunity)를 통해 '숫자로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담음

■ 이해관계자 가치 정렬

○ 통합문화이용권 비전 체계에서 강조하는 '이해관계자별 가치'를 미션 문장에 통합함

- 정부/지자체 (Policy Maker)
  - "과학적 문화행정 구현", "정책 혁신 선도" →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받고자 하는 요구 반영
- 예술 현장 (Artist/Ecosystem)
  - "예술 생태계의 가치 증명" → 예술 활동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현장의 목소리 반영
- 국민/사회 (Public)
  - "대한민국 예술 생태계" → 공공데이터로서의 공신력과 포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 권리를 통계적으로 보장함

■ 도출된 미션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문화행정 구현을 통해 대한민국 예술 생태계의 가치를 증명하고 정책 혁신을 선도한다.”

구분	미션	의미
방법론 (How)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문화행정 구현을 통해”	디지털 전환(DX)과 지능형 플랫폼 구축이라는 기술적 수단을 명시
핵심 목적 (What)	“대한민국 예술 생태계의 가치를 증명하고”	통계의 존재 이유인 '입증(Evidence)' 기능을 강조. (예: 융복합 예술, 경제적 부가가치 등)
지향점 (Impact)	“정책 혁신을 선도한다”	문예위가 단순 조사 기관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포

나. 비전 설정

■ 통계의 패러다임 전환

○ 기존의 비전이 ‘정확한 통계 생산’이라는 기능적 목표에 머물렀다면, 새로운 비전은 통계가 정책의 중심이 되는 목적 지향적 목표로 전환함

- AS-IS (과거) : 아날로그식 조사와 사후 기록 위주의 ‘연감(Annals)’
- TO-BE (미래) : 실시간 데이터가 정책을 이끄는 ‘내비게이터(Navigator)’

○ "단순히 숫자를 모으는 기관에서, 데이터를 통해 정책의 미래를 제시하는 기관으로 진화해야 한다" 는 당위성을 비전에 투영함

■ 거시적 환경(PESTEL) 및 내부 역량(SWOT)의 반영

○ 비전의 각 키워드는 앞선 환경 분석 결과(PESTEL)와 내부 진단(SWOT)에서 도출된 핵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함

- 기술적 요인(T)인 AI 및 API 기술 성숙과 내부 약점(W)인 수기 방식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지향점 →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 정치적 요인(P)인 증거 기반 행정(EBPM) 요구와 경제적 요인(E)인 부가가치 산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기능적 지향점 → “정책 성과를 입증하는”

■ 핵심 동인의 전략적 결합

○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동인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문장을 완성함

- 지능형(Intelligent)
  - 단순 수집이 아닌 AI 기반 정제, 자동 모집단 보완 등 고도의 기술력이 담긴 시스템을 의미함
- 데이터 플랫폼(Data Platform)
  - 문예위 내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연구자, 예술가, 정책가가 함께 활용하는 개방형 데이터 생태계를 의미함
- 입증(Proof)
  - 통계가 단순 수치가 아니라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최종 산출물의 가치를 의미함

■ 이해관계자 가치 일치

○ 비전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가 얻게 될 가치를 명확히 하여 공감대를 확보함

- 정부/지자체 : "정책을 세울 때 믿고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가?" → 정책 성과 입증
- 예술계/연구계 : "최신 예술 트렌드를 반영한 정밀한 데이터가 있는가?" → 지능형 플랫폼
- 조사 수행 주체 : "조사 업무가 더 빠르고 정확해지는가?" → 디지털 전환 선도

■ 도출된 비전

-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정책 성과를 입증하는 지능형 문화예술 데이터 플랫폼 구축”

구분	미션	도출 근거	전략적 의미
방법론	디지털 전환 선도	SWOT(약점 보완), PESTEL(기술)	아날로그 조사 체계의 근본적 혁신
수단	지능형 데이터 플랫폼	PESTEL(데이터 개방), 내부 역량	API 기반 자동화 및 거버넌스 통합
목적	정책 성과 입증	PESTEL(정치/경제), 미션 연계	예술의 사회·경제적 기여도 가시화

다. 핵심 가치 설정

■ 글로벌 통계 품질 표준의 내재화

○ 가장 먼저, 국가승인통계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네스코(UNESCO), OECD, 통계청이 제시하는 ‘통계 품질관리 5대 요소’를 원형(Archetype)으로 삼음

- 도출 로직
  -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말아야 할 통계의 본질적 속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제 표준과 정합성을 이루는 4가지 요소를 우리 조사의 성격에 맞게 재정의함
- 연계
  - 문예위의 대표적인 문화향유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수혜자 중심성’을 핵심가치로 삼듯, 본 조사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핵심가치의 뿌리로 설정함

■ SWOT 분석 기반의 문제 해결형 도출

○ 단순한 표준 나열이 아니라, 앞선 SWOT 분석에서 나타난 약점(Weakness)과 위협(Threat)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가치를 도출함

- 포용성 (Coverage)
  - 시설 대관 중심 조사로 인해 디지털·비제도권 예술이 누락되는 '통계적 사각지대' 발견
  - 모든 예술 활동을 빠짐없이 아울러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설정
- 정밀성 (Accuracy)
  - 수기 입력에 따른 오류 가능성과 융복합 예술 분류의 모호함 존재
  - 글로벌 표준(UNESCO FCS)과 다차원 태깅을 통해 오차 없는 정밀한 데이터를 지향

- 연계성 (Linkage)
  •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Silo)로 인한 중복 조사 및 응답 피로도 누적
  • API 연계 및 행정 데이터 통합을 통해 시스템 간의 '연결'을 최우선으로 설정
- 적시성 (Timeliness)
  • 조사 후 공표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시차로 인해 데이터의 정책 활용도 저하
  • 실시간 수집 및 수시 공표 체계를 통해 데이터의 생명력(Freshness)을 유지

■ 전략목표와의 수직적 일치

○ 도출된 핵심가치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목표와 1:1로 대응시킴

■ 도출된 핵심가치 : “포용성(Coverage), 정밀성(Accuracy), 연계성(Linkage), 적시성(Timeliness)”

핵심가치	전략적 지향점	대응하는 전략 목표
포용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통계"	조사 포괄성 강화 및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
정밀성	"틀리지 않는 정확한 통계"	글로벌·국가 표준 기반의 데이터 정합성 혁신
연계성	"서로 연결되어 흐르는 통계"	행정 데이터 연계 및 지능형 수집 체계 구축
적시성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통계"	활용성 고도화 및 적시 공표 서비스 제공

라. 전략목표

■ 비전의 전략적 분해 (Vision Deconstruction)

○ 비전인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정책 성과를 입증하는 지능형 문화예술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4가지 핵심 성공 인자(CSF)를 정의함
-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원천인 '수집 방식'이 지능화되어야 함 (→ 목표 3)
- 정책 성과 입증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품질과 비교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함 (→ 목표 2)
- 지능형 플랫폼이 되려면 누락 없는 '완전한 데이터'가 전제되어야 함 (→ 목표 1)
- 플랫폼의 가치는 사용자가 '원하는 때에 활용'할 수 있어야 완성됨 (→ 목표 4)

■ 핵심가치의 실행 목표화 (Value-to-Goal Mapping)

○ 앞서 도출된 4대 핵심가치(포용성, 정밀성, 연계성, 적시성)가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수직 정렬함
- 포용성 → [목표 1] 조사 포괄성 강화 및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
  • "모든 예술 활동을 아우른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권 밖의 예술과 디지털 영역을 조사 범위에 강제적으로 포함시키는 목표를 설정함
- 정밀성 → [목표 2] 글로벌·국가 표준 기반의 데이터 정합성 혁신
  • "틀리지 않는 데이터"를 위해 단순 검증을 넘어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 표준과 국가 산업 분류를 일치시키는 기술적 목표를 설정함

- 연계성 → [목표 3] 행정 데이터 연계 및 지능형 수집 체계 구축
  - "끊김이 없는 데이터 흐름"을 위해 사람이 아닌 시스템(API)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설정함
- 적시성 → [목표 4] 활용성 고도화 및 적시 공표 서비스
  - "살아있는 데이터"를 위해 수집 즉시 공표하고, 정책 현장에 즉각 환류되는 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함

■ 현장 난제 기반의 해결책 도출 (Problem-Solution Fit)

○ 기존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가 직면한 4대 핵심 난제(Pain Points)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략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함

- 난제 1: "왜 온라인 공연이나 스트리트 아트는 통계에 없나?"
  - 해결: 조사 거버넌스 재정립과 디지털 예술 통계 체계 확립 (목표 1의 과제로 도출)
- 난제 2: "장르 분류가 모호해서 다른 통계와 비교가 안 된다."
  - 해결: 다차원 태깅 및 대외 표준 연계 강화 (목표 2의 과제로 도출)
- 난제 3: "조사 응답하기 너무 힘들고 중복되는 질문이 많다."
  - 해결: 시설 및 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와 지능형 컨트롤타워 구축 (목표 3의 과제로 도출)
- 난제 4: "작년 데이터를 올해 말에나 볼 수 있어 시의성이 떨어진다."
  - 해결: 공표 프로세스 혁신 및 인터랙티브 서비스 제공 (목표 4의 과제로 도출)

■ 도출된 전략목표

- ① 조사 포괄성 강화 및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 (포용성)
- ② 글로벌·국가 표준 기반의 데이터 정합성 혁신 (정밀성)
- ③ 행정 데이터 연계 및 지능형 수집 체계 구축 (연계성)
- ④ 활용성 고도화 및 적시 공표 서비스 (적시성)

전략목표	도출 핵심 로직	기대하는 미래 가치
목표 1 (포용성)	범위의 확장: 시설 중심에서 활동 중심으로	통계적 사각지대가 없는 '완전한 통계'
목표 2 (정밀성)	기준의 글로벌화: 국내용에서 세계 표준으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공신력 있는 통계'
목표 3 (연계성)	방식의 지능화: 수기 조사에서 데이터 연동으로	응답 부담이 최소화된 '효율적인 통계'
목표 4 (적시성)	활용의 극대화: 기록물에서 정책 도구로	정책 현장에서 즉시 쓰이는 '살아있는 통계'

마. 전략과제

■ 전략과제 도출 4단계 프로세스

○ 전략과제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목표와의 정렬(Alignment)과 하위 실행력(Actionability)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필터링 과정을 거침

단계	구분	내용
1단계	전략목표 분해(Cascading)	4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적 요소를 데이터 생애주기별로 세분화함
2단계	현장 격차 분석 (Gap Analysis):	SWOT 분석에서 도출된 '행정 비효율'과 '데이터 사각지대'라는 문제점(AS-IS)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TO-BE)을 도출함
3단계	핵심 성공요인(CSF) 매핑	유네스코 국제표준 준수, API 연계 기술력 등 과제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을 각 과제에 결합함
4단계	실행 우선순위 결정	시급성(적시성 확보)과 파급효과(정책 입증)를 기준으로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에 따른 과제를 배치함

■ 전략목표별 과제 도출 로직 (Mapping Logic)

○ 각 전략과제가 어떠한 근거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로직은 다음과 같음

○ 전략목표 1 : 조사 포괄성 강화 및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

- 도출 배경
  - PESTEL의 사회적 요인(향유 패러다임 변화)과 기술적 요인(디지털 보편화)에 대응하기 위함
- 과제 로직
  - 과제 ① (모집단 정비) : 시설 기반의 낡은 명부를 API와 행정 데이터로 자동 최신화하여 조사의 기초를 다짐
  - 과제 ② (디지털 예술) : 통계에서 누락되었던 온라인·가상 공간의 활동을 독립된 체계로 포섭하여 '완전한 통계'를 지향함

○ 전략목표 2: 글로벌·국가 표준 기반의 데이터 정합성 혁신

- 도출 배경
  - SWOT의 기회 요인(글로벌 표준 도입)을 활용하여 국가승인통계로서의 공신력을 극대화하기 위함
- 과제 로직
  - 과제 ①·② (표준 연계 및 현대화): UNESCO FCS와 KSIC 간의 매핑 불일치 구간을 보정하고 다차원 태깅을 도입하여 융복합 예술의 실체를 정밀하게 규정함
  - 과제 ③ (실무 역량 표준화): 조사원마다 다른 해석 기준을 '표준 매뉴얼'로 단일화하여 데이터 오차를 원천 차단함

○ 전략목표 3: 행정 데이터 연계 및 지능형 수집 체계 구축

- 도출 배경
  - SWOT의 약점 요인(수기 기반 비효율)과 기술적 기회(API 연계)를 결합한 혁신 과제임
- 과제 로직
  - 과제 ① (데이터 통합) : KOPIS(공연), ISBN(문학) 등 산재한 공공 DB를 통합하여 '단일 분류 원칙' 하에 중복을 제거함
  - 과제 ② (정책 연계 분석 모델) : 한국은행 국민계정(SNA) 원칙을 적용한 문화위성계정(CSA) 기반의 분석 모델을 구축하여 경제적 가치를 입증함
  - 과제 ③ (컨트롤타워) : 분산된 데이터 흐름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함

○ 전략목표 4: 활용성 고도화 및 적시 공표 서비스

- 도출 배경
  - PESTEL의 정치적 요인(증거 기반 정책 요구)과 수요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함
- 과제 로직
  - 과제 ① (공표 혁신) : 1년 이상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검증 완료 즉시 공표하는 '속보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함
  - 과제 ②·③ (환류 및 해석 표준화) : 단순 수치 제공을 넘어 정책적 시사점을 포함한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질적 성과(예술적 가치)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정립함

■ 전략과제 설정의 핵심 차별점

○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전략과제들은 기존의 개선안들과 달리 ‘데이터 주권 확보’와 ‘거버넌스 통합’에 방점을 두고 있음

- 수집의 과학화
  - 설문조사 의존도를 낮추고 행정 데이터와 SNS 크롤링 등 다중 매체법을 적극 활용함
- 관리의 정밀화
  - 장르 중심의 덩어리 관리에서 벗어나 속성 단위 관리와 솔티드 해시(Salted Hash) 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연계를 지향함
- 활용의 가치화
  - 통계 수치를 넘어 국가 경제 지표(GDP)와 연동되는 실질적 경제 기여도를 산출하는 데 초점을 맞춤

■ 결론적으로, 11개의 전략과제는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어떤 예술 활동도 통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든 데이터가 정책의 근거가 되는 지능형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바. 전략목표별 전략과제 추진배경 및 필요성, 연계성 분석

1) (전략목표 1) 조사 포괄성 강화 및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

전략과제	추진배경	필요성	관련법률 연계	SWOT 연계	PESTEL 연계	이해관계자 연계	성과지표 예시
① 조사 거버넌스 및 모집단 정비	시설 대관 중심의 명부 관리로 비제도권 활동 누락	실시간 모집단 자동 보완 시스템 구축 필요	「통계법」, 「문화예술진흥법」	W: 모집단 노후화 / O: 행정데이터 연계	P: 과학적 행정 / S: 지역문화 분권	문예위, 지자체, 문화시설	모집단 최신화율, 매칭 성공률
② 디지털 예술 통계 체계 확립	온라인·가상공간 창작 활동의 급증 및 통계 제외	디지털 예술의 독자적 범주화 및 실체 파악 필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T: 사각지대 발생 / O: DX 기술 성숙	T: 플랫폼 창작 확산 / S: 개인화 향유	예술인, IT 플랫폼, 연구계	디지털 예술 포괄률, 신규 지표 개발수

2) (전략목표 2) 글로벌·국가 표준 기반의 데이터 정합성 혁신

전략과제	추진배경	필요성	관련법률 연계	SWOT 연계	PESTEL 연계	이해관계자 연계	성과지표 예시
① 대외 통계 표준 연계 강화	유네스코(FCS) 등 국제 표준과 국내 기준의 차이	국제 비교 가능성 및 데이터 공신력 확보	「통계법」 (표준분류 준수)	O: 글로벌 표준 도입 / W: 연계성 미흡	E: 저작권 무역 / P: 글로벌 경쟁력	통계청, 유네스코, 연구자	표준 매핑 일치율, 글로벌 지표 수
② 분류 체계 현대화 및 검증 고도화	융복합 예술 등 경계가 모호한 신종 장르 출현	다차원 태깅을 통한 정밀 분류 및 검증 필요	「문화예술진흥법」	W: 경직된 분류 / T: 패러다임 변화	T: 기술융합 가속 / S: 노동시장 변화	전문가, 예술단체, 통계청	다차원 태깅 적용률, 분류 오류 감소율
③ 조사 실무 역량의 표준화	조사원 및 지역별 데이터 해석 기준의 상이함	전국 단위 데이터의 일관성 및 정합성 유지	「통계법」 (품질관리)	S: 시계열 데이터 보유 / W: 데이터 편차	P: 성과관리 고도화 / L: 품질관리 강화	조사원, 지역주관처, 문예위	매뉴얼 준수율, 데이터 보정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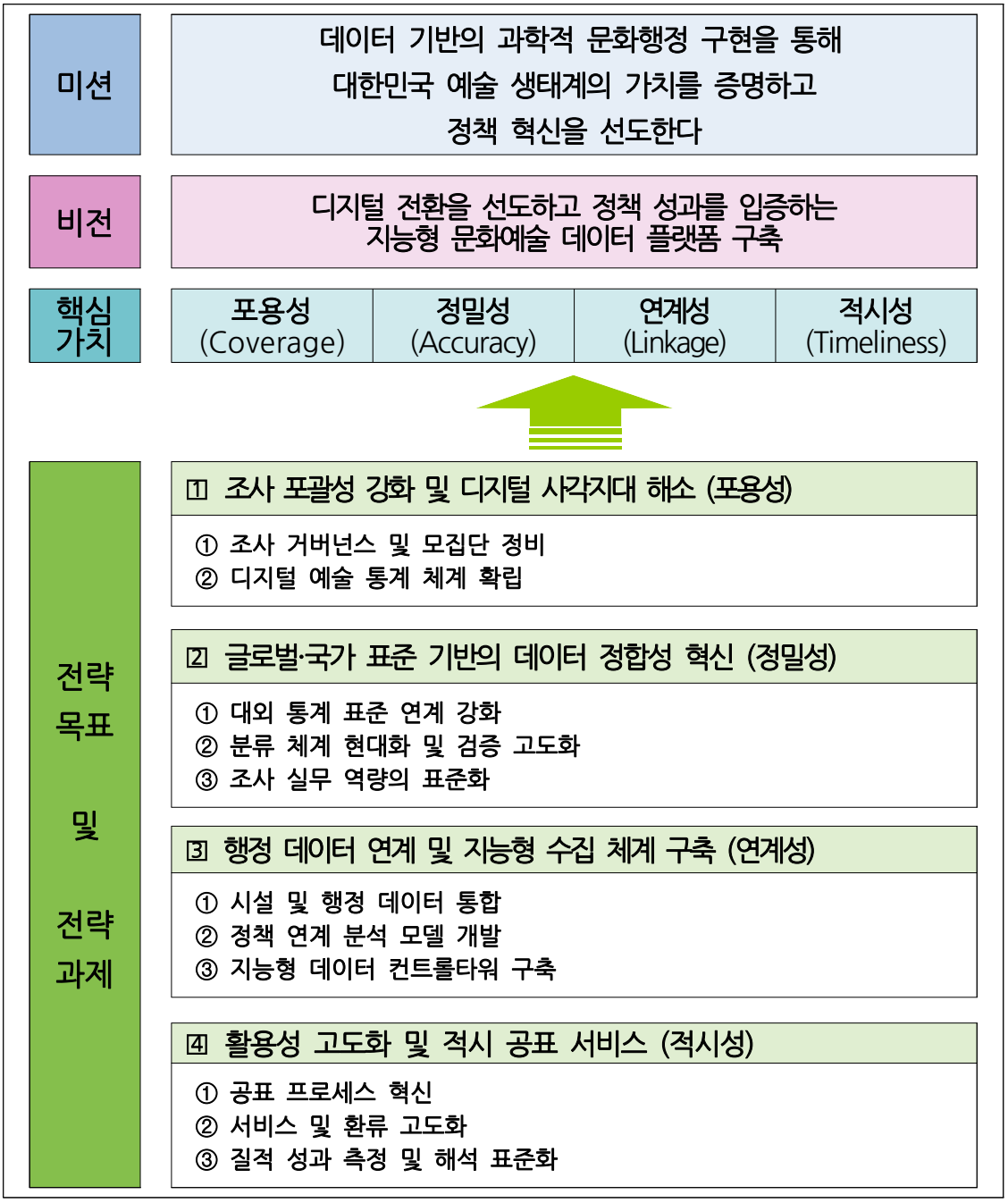
3) (전략목표 3) 행정 데이터 연계 및 지능형 수집 체계 구축

전략과제	추진배경	필요성	관련법률 연계	SWOT 연계	PESTEL 연계	이해관계자 연계	성과지표 예시
① 시설 및 행정 데이터 통합	수기 조사 의존에 따른 응답 부담 및 중복 발생	기관 간 데이터 연계(API)로 효율성 극대화	「데이터 기반 행정법」	W: 행정 비효율 / T: 응답 피로도	T: 자동수집 기술 / P: 데이터 개방	문체부, 유관기관, 카드사	행정데이터 활용률, 응답 시간 단축률
② 정책 연계 분석 모델 개발	단순 현황 집계 중심의 통계 환류 한계 노출	경제적 기여도(CSA) 등 가치 입증 모델 필요	「국가재정법」, 「통계법」	S: 국가승인통계 / O: EBPM 요구	E: 산업적 가치 측정 / P: 예산 타당성	한국은행, 기재부, 문체부	부가가치 산출 건수, 정책 인용 횟수
③ 지능형 데이터 컨트롤타워 구축	파편화된 수집 채널로 인한 통합 관리 미흡	데이터 생애주기별 지능형 통합 관리 필요	「전자정부법」, 「데이터법」	W: 데이터 칸막이 / O: 플랫폼 전환	T: 지능형 거버넌스 / L: 정보 보호	문예위, 운영기관	시스템 가동률, 데이터 무결성 지수

4) (전략목표 4) 활용성 고도화 및 적시 공표 서비스

전략과제	추진배경	필요성	관련법률 연계	SWOT 연계	PESTEL 연계	이해관계자 연계	성과지표 예시
① 공표 프로세스 혁신	조사와 공표 간의 시차(1년 이상)로 시의성 저하	확정 즉시 공표하는 실시간 환류 체계 도입	「공공데이터법」	W: 적시성 부족 / O: 실시간 분석 기술	P: 적시 의사결정 / T: 시각화 기술	정책 담당자, 언론, 일반 국민	공표 주기 단축 일수, 적시성 만족도
② 서비스 및 환류 고도화	공급자 중심의 평면적 데이터 제공 방식 한계	수요자 맞춤형 인터랙티브 데이터 서비스 필요	「문화기본법」	S: 방대한 데이터 / O: 수요자 중심 서비스	S: 정보 접근성 / T: 대시보드 기술	연구자, 예술인, 기획자	플랫폼 재방문율, 데이터 다운로드 수
③ 질적 성과 측정 및 해석 표준화	양적 수치에 치중하여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저평가	예술의 질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해석할 기준 필요	「문화예술진흥법」	T: 통계 무용론 / O: 사회적 가치 확산	S: 삶의 질 개선 / E: ESG 경영 가치	문예위, 사회과학 연구계	질적 지표 개발 수, 가치 해석 건수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비전 및 전략체계도



제4절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고도화 세부 실행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1. 전략 목표 및 세부 추진 과제

■ [전략목표 1] 조사 포괄성 강화 및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

○ 진단 문제점 : 시설 밖 활동 누락, 온라인 예술 집계 불가, 조사모집단 최신성 결여

○ 개 선 방 향 : 시설 중심 집계에서 '예술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여 독립 예술 및 디지털 예술을 포용하는 포괄적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전략과제	추진과제	주요 실행 내용	해결되는 문제점
① 조사 거버넌스 및 모집단 정비	1. 시설 독립형 '현장 기반 보완 조사' 체계 구축	공식 시설 외 카페, 광장, 대안공간 등에서 이루어지는 독립 예술가 및 영세 단체의 활동을 포착하기 위한 지리적 표본조사 및 현장 실사 시스템 마련	[문제점 1] 물리적 시설 및 제도권 중심의 사각지대 공식 시설 위주의 대관 자료 의존으로 인해 비제도권 예술가들이 정책 지원 및 통계에서 소외되는 현상 해결
	2. 다기관 데이터 연계 기반 '동태적 모집단(Dynamic Registry)' 관리	사업자 등록 정보, 예술인 활동 증명 데이터, 민간 플랫폼 정보를 결합하여 조사 모집단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자동 보완 프로세스 수립	[문제점 3] 모집단 관리 및 기초 예술 소외 소규모·비영리 단체의 누락 및 모집단 리스트의 최신성 결여로 인한 통계 대표성 훼손 문제 해소
② 디지털 예술 통계 체계 확립	1. 디지털 예술활동의 통계적 정의 및 범주 표준화	메타버스, 유튜브, OTT 등 온라인 기반 창작 및 유통 활동에 대한 표준 정의를 수립하고, 디지털 예술 전용 조사 모듈 개발	[문제점 2] 디지털·온라인 활동 포착 불능 예술의 디지털 전환(DX)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현장과 데이터 간의 괴리 및 정책 공백 방지
	2. 플랫폼 파트너십 기반 '디지털 데이터 하베스팅(Harvesting)'	주요 디지털 플랫폼과의 API 연계를 통해 비대면 예술 활동의 규모와 파급력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기술적 기반 조성	[문제점 4] 장르별 조사 방법론의 상호 불일치 온-오프라인 자료 혼용 과정에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디지털 창작 데이터의 일관성 확보

■ [전략목표 2] 글로벌·국가 표준 기반의 데이터 정합성 혁신 (정밀성)

○ 진단 문제점 : 낡은 장르 분류 체계로 인한 융복합 예술 포착 미흡, 국가 및 국제 표준 분류와의 불일치로 인한 대외 비교 분석 불가

○ 개 선 방 향 : 글로벌 표준(UNESCO) 및 국가 표준(KSIC/KSCO) 연계를 통해 데이터의 정규화(Normalization) 및 분석의 정밀성 확보

전략과제	추진과제	주요 실행 내용	해결되는 문제점
① 대외 통계 표준 연계 강화	1. UNESCO(FCS) 및 국가 표준분류(KSIC, KSCO) 1:1 매핑 체계 구축	국내 문화예술 분류 코드를 국제 및 국가 표준 산업·직업 분류와 동기화하여 글로벌 비교 가능성 및 경제 지표 연계성 확보	[문제점 9] 국가 및 국제 표준과의 불일치 고립된 코드 사용으로 인한 국제 비교 분석 불가 및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입증 차단 문제 해결
	2. 이종 통계 간 융합 분석 프레임워크 설계	문화예술 데이터가 사회·경제 통계와 물리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세립도(Granularity)를 조정하고 표준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제정	
② 분류 체계 현대화 및 검증 고도화	1. 속성 기반 '다차원 태깅(Multi-dimensional Tagging)' 시스템 도입	단일 장르 분류에서 탈피하여 기술 결합, 장소 특정성 등 작품의 속성을 다각도로 입력하여 융복합 예술의 역동성을 포착	[문제점 8] 융복합 현상 반영 미흡 융복합 예술이 '혼합' 항목으로 단순 처리되어 현장의 역동성이 소거되는 통계적 왜곡 현상 타파
	2. AI 기반 품질 검증 및 작품 고유 식별(Art-Work ID) 적용	과거 50년 축적 데이터와 실시간 대조하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창작초연 여부를 판별하고 중복 데이터를 자동 정제하는 지능형 검증 체계 구현	[문제점 6] 핵심 질적 지표의 판별 오류 재공연이 초연으로 오집계되는 등 정책 판단 근거로서의 신뢰도 타격 및 데이터 왜곡 문제 해결
③ 조사 실무 역량의 표준화	1. '문화예술 전담 조사원' 인증제 및 전문 풀(Pool) 운영	장르 이해도가 높은 전공자 및 경력자를 중심으로 전담 조사원을 육성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화 교육 과정 정례화	[문제점 7] 조사 인력의 비전문화 예술적 식견 부족으로 인한 장르 오분류 및 에디팅 과정에서의 기계적 입력 오류 원천 차단
	2. 지능형 실시간 분류 추천 지원 도구 보급	조사원이 현장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과거 사례와 표준 정의를 바탕으로 장르 및 유형을 추천해 주는 AI 보조 시스템 탑재	

■ [전략목표 3] 행정 데이터 연계 및 지능형 수집 체계 구축 (연계성)

○ 진단 문제점 : 행정 데이터 간 연계 폐쇄성으로 인한 수기 취합 반복 및 시의성 저하, 공급-수요 통계 간 단절로 인한 입체적 분석 불가

○ 개 선 방 향 : 범기관 데이터 실시간 API 연계 및 수요-공급 융합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환류 체계 구현

전략과제	추진과제	주요 실행 내용	해결되는 문제점
① 시설 및 행정 데이터 통합	1. 범기관 실시간 데이터 수집(API) 허브 구축	지자체 대관 시스템, 문화바우처(문화누리카드), 시설총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여 수기 엑셀 취합의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제거	[문제점 10] 행정 데이터 연계 폐쇄성 수기·엑셀 취합의 원시적 행정 반복으로 인한 데이터 신선도 저하 및 정책 대응 속도 지연 문제 해결
	2. 표준 행정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보급	지자체 및 문화시설의 관리 시스템에서 통계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표준 서식 및 인터페이스 배포	[문제점 5] 비표준화된 자료와 정제 비용 과다 기관별 양식 불일치에 따른 수동 정제 과정의 행정력 낭비 및 인적 오류 발생 가능성 해소
② 정책 연계 분석 모델 개발	1. 수요-공급 통합 '가치사슬(Value Chain)' 분석 모델 수립	활동 현황(공급)과 관람 실태(수요) 통계를 일대일 매칭하여 정책 투입이 실제 국민 향유로 이어지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	[문제점 11] 수요-공급 및 거시지표 단절 정책 투입-성과 간 인과관계 파악 불가로 인한 예산 확보의 증거 기반(Evidence-based) 기능 취약성 보완
	2. 문화위성계정(CSA) 고도화 및 거시 지표 결합 분석	문화예술 활동이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GDP)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분석 지표 체계화	[문제점 11] 수요-공급 및 거시지표 단절 문거시 지표 연계 분석을 통한 예술의 사회·경제적 가치 입증 및 예산 확보의 객관적 정당성 강화
③ 지능형 데이터 컨트롤타워 구축	1. '문화예술 데이터 통합 컨트롤타워' 조직 신설	파편화된 지표를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의 생애주기 전반을 총괄하는 전담 운영 체계 마련	[문제점 12] 분석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재 지표 통합 관리 전담 조직 운영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및 예측 행정 체계 구현
	2. AI 기반 정책 시뮬레이션 및 지능형 대시보드 운영	주요 정책 KPI를 실시간 시각화하고, 예산 투입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 성과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문제점 12] 분석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재 '수집을 위한 수집'에 머무르는 관행을 탈피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과학적 정책 수립 기반 마련

■ [전략목표 4] 활용성 고도화 및 적시 공표 서비스 혁신 (적시성)

○ 진단 문제점 : 1년 이상의 공표 시차(Time Lag)로 인한 정책 대응력 저하,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성 미흡 및 질적 성과 측정 지표 부재

○ 개 선 방 향 : 실시간 수집 기반의 속보치 도입 및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개방을 통해 통계의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전략과제	추진과제	주요 실행 내용	해결되는 문제점
① 공표 프로세스 혁신	1. 분기별 '잠정치(Flash Estimates)' 속보 공표제 도입	연간 확정치 발표 전이라도 주요 핵심 지표에 대한 분기별 속보치를 우선 공개하여 급변하는 현안에 대한 정책 민첩성 확보	[문제점 13] 시의성 부족(Time Lag) 조사공표 간 1년 이상의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후 약방문' 식 정책 대응의 한계 극복
	2. End-to-End 자동화 공표 파이프라인 구축	데이터 수집-정제-시각화 리포트 생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공표 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	[문제점 13] 시의성 부족(Time Lag) 전 과정 자동화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한 공표 시차(Time Lag) 해소 및 적시성 있는 정책 환류 체계 구현
② 서비스 및 환류 고도화	1. 사용자 친화적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 제공	전문 용어를 시각화하고 상세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지능형 설명서를 보급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의 분석 편의성 제고	[문제점 14] 활용 지원 인프라(코드북 등) 부재 원자료에 대한 낮은 접근성 및 설명서 부재로 인해 통계 데이터가 '박제된 기록'으로 남는 현상 해결
	2. 전문 연구자용 '오픈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포털' 운영	연구자가 데이터를 자유롭게 재가공하고 분석 결과를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할 수 있는 개방형 연구 지원 환경 조성	[문제점 14] 활용 지원 인프라(코드북 등) 부재 원자료의 접근성 및 개방성 확대를 통해 데이터가 '박제된 기록'으로 남는 현상을 방지하고, 민간·학계의 자유로운 재가공과 분석을 통한 개방형 연구 생태계 조성 및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
③ 질적 성과 측정 및 해석 표준화	1. 문화예술 사회적 임팩트(Impact) 측정 지표 개발	예술인의 삶의 질 개선, 국민 문화권리 증진 등 질적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정책 성과 보고서의 품격 제고	[문제점 15] 정책 성과 측정 및 해석의 차이 단순 건수 위주의 정량 집계에 치중하여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돌파
	2. 중앙-지방 '표준 정책 해석 가이드라인' 제정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통된 기준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표준 해석 지침을 배포하여 정책 일관성 확보	[문제점 15] 정책 성과 측정 및 해석의 차이 기관별 자의적 해석에 따른 정책 일관성 저해를 방지하고 데이터 기반의 공통 의사결정 체계 확립

2. 전략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가. [전략과제 1] 조사 거버넌스 및 모집단 정비

1) (추진과제 1-1) 시설 독립형 현장 기반 보완 조사 체계 구축

■ 추진배경

○ 시설 기반 모집단 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

- 현행 조사는 전국 문화예술 시설의 대관 기록 및 기관 제출 명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시설 밖 카페, 광장, 대안 공간 등 '제3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거리 예술 및 팝업 형태의 비제도권 활동이 모집단에서 원천 누락되는 한계가 있음

○ 통계적 사각지대 발생과 정책 소외

- 물리적 시설 중심의 조사 거버넌스로 인해 독립 예술가 및 영세 단체의 역동적인 활동이 공식 데이터에서 증발(Statistical Evaporation)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예술 생태계와 통계 간의 괴리를 심화시킴

■ 필요성

○ UNESCO FCS 2025 기반의 통계적 포용성 실현

- 유네스코가 천명한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적 측정'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권 밖의 예술 활동을 조사 범위에 강제적으로 포함시키는 '완전한 통계'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데이터 주권 확보를 통한 증거 기반 정책(EBPM) 강화

- 정밀한 현장 기반 모집단은 정책 성과 입증의 출발점이며, 사각지대 없는 예술 지원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과학적 기초 인프라로서 기능함

■ 추진 목적

○ 조사 포괄성(Coverage)의 획기적 확대

- 시설 중심 집계에서 '예술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여 독립 예술 및 거리 예술을 포용하는 포괄적 수집 체계 구현

○ 현장 중심의 지능형 데이터 정합성 확보

- 지리정보 기술과 실사 시스템을 결합하여 비제도권 활동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포착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함

■ 세부 업무 내용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지리정보(GIS) 기반 에어리어 샘플링 (Area Sampling) 체계 가동	① **[활동 밀집도 분석 및 격자 표본 설계]** 전국 단위 예술 활동 히트맵(Heat-map)을 분석하여, 공식 시설 외 자생적 활동이 빈번한 지역을 격자 단위(100m×100m)로 표본 추출하는 공간 통계 모델 도입 1) 활동 밀집도 분석 및 격자 표본 설계 (공간 데이터 레이어링) · (예술 활동 히트맵(Heat-map) 정밀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행정 데이터와 소셜 미디어(SNS) 위치 태그, 카드 매출 데이터 등을 결합하여 공식 시설 외 지역의 자생적 활동 밀집도를 시각화함 · (격자 단위(100m×100m) 표본 추출) 행정 구역 경계와 상관없이 실제 활동이 일어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전국을 100m 단위 그리드로 분할하고, 활동 빈도가 높은 '핫스팟(Hot-spot)'을 통계적 유의미성에 따라 자동 표본 추출하는 공간 통계 알고리즘을 도입함 · (사각지대 자동 식별) 기존 통계에서 누락되었던 카페, 야외 광장, 팝업 공간 등 '비공식 예술 거점'을 추출 후보군에 자동 산입하여 조사 포괄 범위를 극대화함 2) GPS 연동 모바일 조사 시스템 및 실시간 검증 체계 가동 · (위치 기반 조사용 태블릿 앱(App) 개발) 조사원이 추출된 격자(Grid) 구역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조사 항목이 활성화되는 GPS 기반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시스템을 구축함 · (현장 실사 가이드라인 디지털화) 조사원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모호한 예술 실천(예: 게릴라 버스킹, 벽화 실현 등)에 대해 즉각적인 판정 기준을 제시하는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을 앱 내에 탑재함 · (실시간 데이터 무결성 모니터링) 조사원이 입력을 완료하는 즉시 중앙 서버의 GIS 데이터와 대조하여 좌표 오차를 검증하고, 유효한 표본 지역을 벗어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하는 실시간 환류 체계를 운영함 ② **[현장 실사 기반 전수 포착]** 표본 격자 내 비공식 공간(갤러리 카페, 독립서점 등)을 대상으로 실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대관 기록 없는 활동 정보를 직접 수집 1) 공간 POI(Point of Interest) 연동 및 조사 대상지 자동 식별 · (잠재 거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상점가 가맹점 정보, 포털 사이트의 플레이스 데이터, SNS(인스타그램 등) 핫플레이스 태깅 정보를 결합하여 격자 내 '예술 활동 가능 공간(갤러리 카페, 독립서점, 복합문화공간 등)' 리스트를 사전에 추출함 · (스마트 조사 경로 최적화) 추출된 후보지 중 대관 시스템(예: 공간이음 등)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공간'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실사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최적의 실사 경로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배정함 2) 모바일 앱 기반 현장 아카이빙 및 데이터 규격화 · (증빙 기반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수행) 실사원이 공간 운영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 발생한 '대관 기록 없는 활동(자생적 전시, 버스킹, 낭독회 등)'의 일시, 참여자, 관객 규모를 인터뷰하고 앱에 기록함 · (멀티미디어 증빙 및 지오태깅(Geotagging)) 현장의 포스터, 리플렛, 공간 내부 사진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GPS 좌표와 시각 정보가 결합되어 저장되는 '실재성 검증 기능'을 가동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함 · (실시간 데이터 매핑) 수집된 정보는 즉시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의 장르 분류 체계와 대조되어 통계 데이터셋으로 변환되며, 중앙 시스템의 전국 단위 예술 활동 히트맵에 실시간으로 반영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디지털 흔적 (Digital Trace) 하베스팅 및 사전 타겟팅	① **[SNS 및 플랫폼 데이터 크롤링]** 인스타그램 위치 태그, 민간 큐레이션 앱 등의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비제도권 활동의 '잠재적 활동 리스트'를 선제적 확보 1) 다차원 비정형 데이터 수집 엔진 구축 ·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OSINT) 기반 크롤링) 인스타그램의 위치 기반 태그(LBS), 특정 장르 해시태그(#팝업전시, #독립서점북토크 등) 및 민간 공간 공유 플랫폼(스페이스클라우드, 블로그 등)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하는 자동화 봇(Bot)을 가동함 · (민간 큐레이션 API 연동) 예술 전문 큐레이션 앱이나 지역 기반 문화 정보 서비스와의 API 연동을 통해, 국가시스템(NCAS)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자생적 활동의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함 2) AI 기반 데이터 정제 및 예술 실천 판별 · (자연어 처리(NLP) 및 이미지 분석) 수집된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단순 상업 행위(일반 카페 이용 등)와 예술적 실천(전시, 실연, 창작 워크숍 등)을 구분하고, 활동의 신뢰도를 점수화(Scoring)함 · (비제도권 '잠재적 활동 마스터 리스트' 생성) 판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르, 위치, 활동 시기를 구조화하여 조사 후보지 리스트를 생성하며, 이를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의 분류 체계와 1:1로 매핑하여 표준화함 · (공간-활동 매칭 알고리즘 가동) 확보된 디지털 흔적을 GIS 격자 체계 내의 특정 좌표와 결합하여, 현장 실사원이 방문해야 할 '사전 타겟팅 구역'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배정하고 알림을 발송함 ② **[지능형 실사 루트 최적화]** 수집된 디지털 흔적을 기반으로 실사원의 이동 동선을 최적화하여 조사 적시성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 1) AI 기반 동적 경로 생성 알고리즘 도입 (Routing Logic) · (시급성 기반 가중치 설정) 하베스팅된 디지털 흔적 중 '오늘 종료되는 팝업 전시'나 '특정 시간대 버스킹' 등 시간 제약이 큰 활동에 높은 우선순위 가중치를 자동으로 부여함 · (TSP(Traveling Salesperson Problem) 알고리즘 적용) 실사원이 하루에 방문해야 할 다수의 비공식 공간 좌표를 연결하여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는 최적 순회 경로를 생성함 · (교통 정보 실시간 연동) 대중교통 API 및 도로 소통 정보를 연동하여 현장 실사원의 현재 위치에서 다음 조사지까지의 최단 시간 경로를 분 단위로 업데이트함 2) 실시간 필드 매니지먼트 및 조사원 관제 시스템 가동 · (위치 기반 작업 자동 할당) 수집된 디지털 흔적의 좌표와 가장 인접한 조사원에게 푸시 알림으로 조사 과업을 자동 배정(Dispatching)하여 유휴 시간을 최소화함 · (체크인/체크아웃 기반 진행률 모니터링) 조사원이 구역 내 진입 시 GPS 기반으로 자동 체크인되며, 조사 완료 후 데이터 전송 시 다음 최적 경로를 즉시 재계산하여 송출하는 인터랙티브 인터페이스를 제공함 · (성과 및 비용 효율성 대시보드 구축) 이동 거리 대비 수집 데이터 건수, 조사 적시성 달성률(이벤트 종료 전 방문율) 등을 지표화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이를 차기 조사 인력 배치 계획에 환류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비제도권 예술가 전용 셀프 리포팅 시스템 구축	① **[참여형 활동 등록 모듈 개발]** 시설 대관 증빙이 어려운 독립 예술가가 본인의 활동 실적을 직접 등록할 수 있는 모바일 최적화 웹 시스템 구축 1) 참여형 활동 등록 모듈 개발 · (인지 부하를 최소화한 직관적 UI/UX 설계) 시설 대관증 등 공식 서류가 없는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복잡한 서식 대신 사진·영상 업로드 중심의 '간편 등록 위자드(Wizard)' 기능을 제공함 · (대체 증빙 아카이브 시스템) 공식 대관 기록 대신 현장 사진, SNS 홍보물 캡처, 리플렛 파일, 활동 장소의 위치 정보(GPS) 등을 '대안적 활동 증거'로 등록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로드 기능을 구축함 · (용어 순화 및 가이드 제공) '신고', '입증' 등 고압적 행정 용어를 '나의 활동 기록하기', '추억 공유하기' 등 친숙한 표현으로 순화하고,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과 연동하여 자신의 활동 장르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지능형 추천 태그 기능을 제공함 2) AI 기반 실재성 검증 및 통계 승인 로직 탑재 · (데이터 메타데이터 분석) 업로드된 사진·영상의 촬영 일시, 위치 정보(EXIF 데이터)를 시스템이 자동 추출하여 예술가가 입력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1차로 검증하는 실재성 확인 알고리즘을 도입함 · (AI 이미지/텍스트 판별)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등록된 이미지가 실제 전시·공연 장면인지, 홍보물에 예술적 실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데이터의 신뢰도 점수 산출함 · (디지털 활동 증명서 발급 및 연계) 검증이 완료된 리포팅 데이터는 즉시 국가 통계셋으로 확정되며, 해당 예술가에게는 향후 공모 사업 신청 시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한 'QR코드 기반 디지털 활동 확인서'를 자동 발급하여 자발적 참여 유인을 제공함 ② **[AI 기반 데이터 검증]** GPS 위치 인증 및 사진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 허위 등록을 차단하고, 기존 시설 데이터와의 중복 여부를 자동 스크리닝 1) 멀티미디어 메타데이터 기반 실재성 교차 검증 · (디지털 포렌식급 메타데이터 분석) 업로드된 활동 사진 및 영상의 EXIF(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 데이터를 자동 추출하여 촬영 일시, 기기 정보, GPS 좌표의 조작 여부를 1차 검증함 · (위치 정보(Geo-fencing) 일치성 판정) 예술가가 입력한 활동 장소와 사진 내 포함된 GPS 좌표, 그리고 리포팅 시점의 단말기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조하여 허위 등록 시도를 원천 차단함 · (AI 이미지 분석을 통한 콘텐츠 진위 확인)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기술을 활용하여 업로드된 이미지가 실제 전시·공연 장면인지, 혹은 인터넷상의 기존 이미지를 도용한 것인지를 판별하여 데이터의 '현장 실재성'을 확정함 2) 지능형 중복 스크리닝 및 데이터 정합성 최적화 · (범기관 통계 데이터베이스(DB) 실시간 대조) 리포팅된 활동 정보(장소, 시간, 주체)를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전국문화시설총람 등 기존 시설 기반 데이터와 실시간 매핑하여 중복 집계 여부를 자동 스크리닝함 · (유사도 기반 중복 판정 알고리즘) 활동 명칭이나 창작자명이 미세하게 다를 경우에도 텍스트 유사도 분석을 통해 동일 활동 여부를 판별하고, 중복 의심 사례 발생 시 운영자에게 즉시 검토 알림을 발송함 · (신뢰도 스코어링(Trust Scoring) 기반 자동 승인) 검증 결과가 완벽한 데이터는 즉시 통계셋에 자동 산입하며, 증빙이 모호한 경우에만 현장 실사원에게 확인 과업을 배정하는 '단계별 승인 로직'을 운영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함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시스템 구축비	셀프 리포팅 모듈 개발 및 AI 검증 엔진 탑재 (H/W, S/W)	200
공간 분석 연구비	GIS 기반 예술 활동 밀집도 분석 및 표본 격자 설계 용역	120
현장 실사 사업비	전국 5대 권역 보완 조사단 운영 및 현장 검증 실사비	150
데이터 정제비	디지털 흔적 하베스팅 알고리즘 개발 및 데이터 클렌징	30
계		500

■ 5개년(2027~2031) 추진 로드맵

구분	1~2년차 (기반 구축)	3~4년차 (시스템 가동)	5년차 (최적화)
핵심목표	방법론 정립 및 표본 설계	보완 조사 전면 도입	통계 고도화 및 품질 안착
주요과제	• 비제도권 활동 공간 DB 구축 • GIS 기반 에어리어 샘플링 설계	• 전국 단위 현장 보완 조사 실시 • 셀프 리포팅 시스템 런칭	• 비제도권 포괄률 90% 달성 • 국가승인통계 변경 신청 완료

■ 성과관리 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	'31년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제도권 활동 포착률	90% 이상	(보완 조사를 통해 포착된 활동 수 / 외부 플랫폼 추정 활동 수) × 100
데이터 검증 무결성 지수	98% 이상	AI 검증 엔진의 이상치 식별 및 중복 정제 성공률 리포트 분석
예술가 자발적 참여도	1만 건 이상	셀프 리포팅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유효 예술 활동 수

■ 기대효과

○ 통계의 포괄성 완성 및 사각지대 해소

- 시설 대관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거리 예술 및 디지털 활동을 포괄하는 '마스터 모집단(Master Population)'을 완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예술 생태계의 실상을 누락 없이 복제함

○ 증거 기반 정책(EBPM)의 신뢰도 격상

- 무결성이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의 타당성과 예산 투입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고품질 기초 인프라를 제공함

○ 글로벌 통계 리더십 확보

- UNESCO FCS 2025의 선제적 구현을 통해 국제 비교 가능한 공신력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문화 행정의 과학화를 실현함

2) (추진과제 1-2) 다기관 데이터 연계 기반 '동태적 모집단(Dynamic Registry)' 관리

■ 추진배경

○ 데이터 칸막이로 인한 정보의 파편화

-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중앙), 지역문화재단(지역), 국세청/고용노동부(행정) 등이 보유한 예술 활동 정보가 상호 연계되지 않아 모집단의 최신성이 저하되고 중복 조사가 빈번하게 발생함

○ 조사 적시성(Timeliness) 확보의 한계

- 수기 명부에 의존하는 정적 모집단은 급변하는 예술 현장의 동태적 변화를 포착하기 어려워, 조사 공표 시점에는 이미 데이터가 '과거의 기록'으로 전락하는 시차(Time-lag) 문제가 상존함

■ 필요성

○ 지능형 조사체계 가동을 위한 기초 인프라

- 새로 도입하는 '다차원 속성 태깅'이 유효하려면, 조사의 출발점인 모집단이 행정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마스터 모집단(Master Population)' 체계가 선행되어야 함

○ 응답 부담 경감 및 행정 효율화

- 타 부처(서비스업조사 등)의 선진 사례와 같이 행정 데이터를 사전에 연계함으로써, 현장 조사에서는 행정지표 외의 정성적 속성(다차원 태그) 수집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추진 목적

○ 실시간 모집단 업데이트 체계 구축

- 다기관 행정 데이터를 API로 연동하여 예술 단체·활동의 발생과 소멸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동태적 관리 실현

○ 데이터 무결성(Integrity) 확보

- 기관별로 상이한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고 중복을 제거하여 통계적 편향이 없는 클린 모집단 구축

■ 세부 업무 내용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다기관 행정 데이터 API 연계 거버넌스 구축	① **[핵심 데이터셋 연동]** 국세청(사업자 정보), 문예위(지원사업 결과), KOPIS(공연 실적), ISBN(문학 발간) 등 주요 DB와의 실시간 API 연계 프로토콜 설계 1) 핵심 데이터셋 실시간 연동 프로토콜 설계 · (표준 API 게이트웨이(Gateway) 구축) 국세청, 문예위, KOPIS 등 각기 다른 전산 환경을 가진 기관들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집하기 위해 RESTful 기반의 표준 API 규격(JSON/XML)을 정의하고 보안 전송 프로토콜(SSL/TLS)을 설계함 · (OAuth 2.0 기반 통합 인증 체계 도입) 기관 간 데이터 호출 시 보안 및 권한 관리를 위해 표준 인증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데이터 요청 주체와 목적에 따라 접근 권한을 세분화하여 제어하는 'API 권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 (데이터 스키마(Schema) 표준화 및 매핑) 각 기관마다 상이한 항목명과 코드 체계(예: 장르 코드, 시설 코드 등)를 통계적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매핑 테이블'을 생성하여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을 확보함 2) 기관별 맞춤형 데이터 파이프라인(Pipeline) 고도화 · (국세청(NTS) 사업자 상태 실시간 검증)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폐업 여부 및 영리/비영리 속성을 실시간 호출하여, 통계 대상의 현행화 및 모집단 정합성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로직을 구현함 · (문예위 NCAS - KOPIS - ISBN 입체적 연계) 지원사업 결과(NCAS), 공연 실적(KOPIS), 문학 발간 정보(ISBN)를 '작품명' 및 '예술인 식별번호'를 키(Key)값으로 상호 연결하여, 하나의 예술 실천이 지원-제작-유통되는 전 과정을 추적하는 '생애주기형 데이터셋'을 자동 생성함 · (지능형 데이터 동기화 및 오류 자동 환류) 주기적(배치 방식) 또는 실시간 호출을 통해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기관 간 데이터 불일치) 발생 시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을 발송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상시 유지함 ② **[지역재단 데이터 허브화]** 전국 17개 광역재단 및 주요 기초재단의 지원사업 수혜 데이터를 표준 규격으로 통합 수집하는 연계망 구축 1) 전국 문화예술 지원사업 표준 데이터 스키마(Schema) 정의 및 배포 · (표준 데이터 규격 수립) 17개 광역재단 및 주요 기초재단별로 상이한 지원사업 관리 항목(장르 분류, 사업 유형, 수혜자 정보 등)을 분석하여 국가 표준 통계와 상호 호환되는 '문화예술 지원 표준 데이터셋 규격'을 정의함 · (공통 식별자(Unique ID) 체계 도입) 기관 간 수혜자 중복 여부를 정밀하게 판별하기 위해 예술인 식별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공통 키(Key) 값을 설정하고, 데이터 입력 단계에서 표준 규격을 강제하는 기술 지침을 배포함 · (데이터 매핑 가이드 제공) 자체 전산망을 보유한 재단을 위해 기존 데이터 항목을 표준 규격으로 자동 전환하기 위한 '표준 매핑 테이블(Mapping Table)' 및 시스템 연계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원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2) 클라우드 기반 '전국 지역문화 데이터 허브(Hub)' 플랫폼 구축 · (통합 수집 파이프라인(Data Pipeline) 설계) 각 지역재단 전산망과 중앙 허브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API 기반 실시간 연계망 또는 대용량 데이터 자동 전송을 위한 배치(Batch) 수집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함 · (데이터 정제 및 무결성 검증 자동화) 수집된 데이터의 오류(오기입, 중복 등)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정제(Cleaning)하는 자동화 로직을 가동하여, 전국 단위 수혜 통계의 무결성을 상시 확보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보안 관리) 수혜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암호화하거나 비식별 처리(Masking)하는 보안 게이트웨이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유통 환경을 조성함 3)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성과 환류 체계 운영 · (소규모 재단 대상 맞춤형 기술 지원) 전산 인력이 부족한 기초재단을 위해 데이터 추출 및 전송을 돕는 '표준 연계 모듈'을 개발하여 무상 배포하고,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온·오프라인 헬프데스크를 상설 운영함 · (지역별 통계 분석 대시보드 제공) 수집된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각 재단이 해당 지역의 지원 현황을 전국 평균과 실시간 비교·분석할 수 있는 통계 서비스를 역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재단의 자발적 참여 유인을 강화함 ·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 및 표준 업데이트) 데이터 연계 기준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광역재단 실무자로 구성된 '문화예술 데이터 거버넌스 협의체'를 운영하고, 신규 예술 실천 유형 발생 시 표준 스키마를 즉시 업데이트함
솔티드 해시(Salted Hash) 기반 비식별 매칭 기술 적용	① **[개인정보 보호 최적화]** 기관 간 데이터 연계 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단방향 암호화 기술인 솔티드 해시를 적용하여 비식별 상태에서의 개체 매칭(Record Linkage) 수행 1) [개인정보 보호 최적화] 고강도 단방향 암호화 및 토큰화(Tokenization) 체계 구축 · (SHA-256 기반 솔티드 해시 알고리즘 도입)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 식별 정보에 무작위 데이터인 '솔트(Salt)'를 추가하여 단방향 암호화를 수행함으로써,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는 고유 해시값(Token)을 생성함- 가변형 솔트(Dynamic Salt) 관리 정책 수립: 유출 시에도 레인보우 테이블(Rainbow Table) 공격 등을 통한 역산이 불가능하도록 기관별·기간별로 상이한 솔트 값을 생성·관리하는 보안 키 관리 시스템(KMS)을 가동함 · (데이터 마스킹 및 비식별화 엔진 설계) 결합 전단계에서 민감 정보를 자동 마스킹 처리하고, 통계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식별 키값만 남기는 '데이터 클렌징 모듈'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원천 차단함 2) [데이터 결합 무결성 확보] 비복호화 기반 지능형 개체 매칭(Record Linkage) 엔진 가동 · (비복호화 상태의 개체 결합 로직(PPRL) 설계) 원본 데이터를 복구(복호화)하지 않고도 해시값의 일치 여부만으로 기관 간 데이터를 1:1로 매칭하는 '보안 기반 기록 결합(Privacy-Preserving Record Linkage)' 아키텍처를 구현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 (다중 키 기반 매칭 정확도 고도화) 단일 해시값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성명·해시, 생년월일·해시 등 다차원 결합 키를 생성하고, 데이터 불일치 시에도 통계적 유사성을 분석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정하는 지능형 스코어링 알고리즘을 적용함 · (보안 가상 결합 존(Security Zone) 운영) 각 기관의 해시 데이터가 안전하게 교차되는 격리된 가상 분석 환경을 조성하고, 분석 완료 후 매핑 결과만 남기고 원본 해시값은 자동으로 파기하는 '휘발성 데이터 연계 프로토콜'을 가동함 ② **[중복 제거 및 클렌징]** 동일 활동에 대한 기관별 중복 기록을 AI 기반 매칭 알고리즘으로 단일화하여 모집단의 정확도 제고 1) AI 기반 확률적 레코드 결합(Probabilistic Record Linkage) 엔진 가동 · (다중 키 기반 확률적 매칭 알고리즘 적용) 솔티드 해시 처리된 식별자(성명, 생년월일 등) 외에도 활동 일시, 장소 코드, 장르 등 비민감 속성값을 결합하여,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동일 활동일 확률을 계산하는 지능형 매칭 엔진을 구축함 · (차단 및 인덱싱 기술 최적화) 대규모 행정 데이터 연계 시 연산 부하를 줄이기 위해, 지역·기간 등 공통 속성으로 후보군을 1차 그룹화(Blocking)한 후 정밀 매칭을 수행함으로써 중복 탐지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확보함 · (머신러닝 기반 오매칭 학습 및 보정) 초기 매칭 결과 중 모호한 사례(유사한 명칭의 다른 공연 등)를 AI가 학습하여 매칭 임계치(Threshold)를 실시간으로 조정함으로써, 과잉 통합이나 중복 누락을 방지함 2) 데이터 클렌징 및 단일 소스(Single Source of Truth) 생성 · (골든 레코드(Golden Record) 생성 로직 구축) 동일 활동으로 판명된 다기관 데이터 중 정보의 최신성, 출처의 공신력(예: 국세청 > 재단), 데이터 완성도를 기준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값을 선택하여 단일화된 대표 레코드를 생성함 · (데이터 표준화 및 정규화) 기관별로 상이한 텍스트 형식(예: '예술의 전당' vs '예술의전당')과 단위 체계를 표준 용어 정의서 및 DIC(Digital Interactive Codebook) 규격에 맞춰 강제로 정제하여 통계 분석이 가능한 정형 데이터셋으로 변환함 · (결측치 자동 보정 및 이력 관리) 매칭 과정에서 특정 기관 데이터에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타 기관의 연결된 데이터를 호출하여 빈칸을 자동 채움(Imputation)하고, 데이터의 원천과 정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계보(Lineage) 관리 기능을 가동함 3) 통계 모집단 확정 및 무결성 환류 체계 운영 · (모집단 정합성 최종 검증) 정제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장르별·지역별 총계가 과거 시계열 데이터나 타 공인 통계와 비교하여 비정상적인 편차를 보이지 않는지 자동 검증하는 대시보드를 구축함 · (중복 제거 성과 지표 관리) 중복 제거 전후의 데이터 규모 변화와 매칭 정확도를 수치화하여 보고하고, 정제 과정에서 발견된 기관별 데이터 오류 유형을 해당 기관 API 관리자에게 피드백하여 원천 데이터의 품질 개선을 유도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속성 태깅 연계를 위한 ‘지능형 모집단 카드’ 생성	① **[기초 속성 자동 자동 매핑]** 행정 데이터에서 추출된 정보(매출, 고용, 장소 등)를 다차원 속성 체계에 맞춰 1차 자동 태깅 1) 기초 속성 다차원 자동 매핑 및 ETL(추출·변환·적재) 프로세스 가동 · (행정 데이터 기반 변수 추출) 국세청(매출·고용), 문예위(NCAS 지원이력), 지역재단 데이터 등에서 개별 예술 주체의 핵심 식별 정보와 활동 변수를 실시간 추출하여 '개체별 통합 프로필(마스터 카드)'의 기초를 형성함 · (Rule-based 자동 태깅 엔진 구축) 추출된 원천 데이터(예: 업종코드, 매출 규모, 주소지)를 표준 분류 체계와 대조하여 장르(Domain), 지역(GIS 격자), 운영 형태(영리/비영리), 규모(매출/인력) 등 다차원 속성 체계에 1차 자동 매칭함 · (공간-산업 속성 융합 매핑) 주소지 정보를 GIS 좌표 및 100m×100m 격자 데이터와 연동하여, 해당 개체가 속한 '예술 활동 밀집도' 및 '지역적 특성' 속성을 모집단 카드에 자동으로 부여함 2) 지능형 데이터 정제 및 속성 보정 알고리즘 적용 · (비정형 데이터 속성 추론) 행정 데이터상 장르가 모호한 경우(예: 기타 서비스업), 해당 주체의 활동명이나 과거 지원사업 실적 텍스트를 AI 자연어 처리(NLP)로 분석하여 실제 수행 장르를 추적·보정하는 지능형 분류 로직을 가동함 · (데이터 결측치 자동 추정 및 태깅) 고용 인원이나 매출 등 일부 행정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유사 장르 및 규모를 가진 개체들의 통계적 평균값을 활용하여 속성값을 추정(Imputation)하고, 데이터의 '신뢰 수준' 태그를 병기하여 모집단의 완성도를 제고함 · (동적 속성 업데이트 체계 운영) API를 통해 유입되는 최신 행정 정보를 기반으로 카드의 속성 태그를 실시간 갱신(Real-time Sync)하고, 속성 변경 이력(로그)을 관리하여 예술 생태계의 변동성을 추적할 수 있는 시계열 기반을 마련함 ② **[조사 대상 선별 최적화]** 보완 조사가 필요한 타겟(비제도권 등)을 실시간 모집단에서 자동으로 식별하여 조사원에게 할당하는 지능형 워크플로우 가동 1) AI 기반 사각지대 자동 식별 및 조사 우선순위 스코어링 · (비제도권 활동 타겟팅 알고리즘 가동) ‘지능형 모집단 카드’ 내 속성 중 제도권 데이터(NCAS, KOPIS 등)와 매칭되지 않는 ‘디지털 흔적’ 및 ‘비공식 공간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출하여 보완 조사 후보군을 자동 형성함 · (조사 시급성 및 가치 평가) 활동의 종료 시점(팝업 전시, 공연일 등), 지리적 희소성, 데이터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하여 조사 우선순위 점수를 산출하고, 예산과 인력 범위 내에서 최적의 조사 대상 규모를 시스템이 제안함 · (모집단 정합성 자동 필터링) 기존 통계와의 중복 가능성이 높거나 예술적 실천 성격이 낮은 노이즈 데이터를 AI가 사전 스크리닝하여 현장 실사원의 불필요한 방문을 최소화함 2) 실시간 지능형 과업 할당 및 스마트 디스패칭 · (GPS 기반 위치 맞춤형 자동 배정) 실사원의 현재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반경 500m 내외의 신규 조사 타겟 발생 시 해당 실사원에게 과업을 자동으로 푸시(Push) 알림으로 전송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 (조사원 숙련도 기반 과업 매칭) 장르별 전문성이 필요한 조사(예: 미디어아트, 다원예술 등)의 경우, 해당 분야 조사 이력이 풍부하거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실사원에게 우선 할당하는 지능형 매칭 로직을 적용함 · (실시간 동선 최적화 엔진 연동) 신규 과업 할당 시 기존에 배정된 실무 경로를 재계산하여 최단 거리로 동선을 재구성하고, 예상 소요 시간을 실사원과 관리자 대시보드에 실시간 송출함 3) 인터랙티브 현장 피드백 및 모집단 카드 자동 환류 · (현장 상황 기반 동적 워크플로우) 실사원이 현장 방문 시 활동이 취소되었거나 장소가 폐쇄된 경우, 즉시 앱에서 '상태값'을 변경하면 시스템이 해당 구역 내 차순위 조사지를 즉각 추천하여 조사 공백을 방지함 ·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및 카드 업데이트) 현장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수집된 상세 속성 정보가 '지능형 모집단 카드'에 실시간 반영되며, 검증 완료된 데이터는 즉시 국가 통계 모집단으로 확정되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운영함 · (조사 품질 관리(QC) 모니터링) 수집된 데이터의 위치 정보와 입력 시간을 분석하여 부실 조사 징후를 실시간 탐지하고, 필요 시 인근의 다른 실사원에게 재검증 과업을 자동 생성하는 자기 정정(Self-correction) 체계를 가동함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데이터 연계 구축비	주요 기관(국세청, KOPIS 등) API 연계망 및 보안 게이트웨이 구축	300
비식별 매칭 엔진 개발	솔티드 해시 기반 개체 매칭 및 AI 중복 정제 알고리즘 개발	150
표준화 및 거버넌스	지역재단 데이터 연계 표준화 컨설팅 및 MOU 체결 지원	50
계		500

■ 5개년(2027~2031) 추진 로드맵

구분	1~2년차 (거버넌스 정립)	3~4년차 (시스템 가동)	5년차 (동기화 완성)
핵심목표	연계 기관 확정 및 기술 설계	실시간 모집단 시스템 런칭	동태적 모집단 체계 안착
주요과제	• 행정데이터 연계 MOU 및 표준화 • 비식별 매칭 프로토콜 설계	• API 기반 동태적 모집단 구축 • 조사체계와 시스템 연동	• 모집단 일치율 98% 달성 • 지능형 모집단 관리 상시화

■ 성과관리 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	‘31년 목표치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모집단 데이터 무결성	98% 이상	(AI 클렌징 후 유효 데이터 수 / 총 연계 데이터 수) × 100
데이터 연계 기관 수	50개소 이상	실시간 API 연동이 완료된 공공·민간 기관의 누적 수
조사 시차(Time-lag) 단축	6개월 이내	모집단 확정 시점부터 조사 공표까지 소요되는 기간 측정

■ 기대효과

○ 지능형 조사체계 가동을 위한 혁신의 기술적 토대 마련

- 행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급됨으로써 ‘다차원 속성 태깅’과 ‘지능형 수집’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을 완성함

○ 국가 통계로서의 공신력 격상

- 타 부처(서비스업조사) 수준의 행정 데이터 연계 체계를 갖춤으로써, 문화예술 통계의 모집단 편향을 제거하고 정책 예산 확보를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로서의 위상을 확립함

○ 기관 간 협력 시너지 극대화

-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UNESCO FCS 2025가 지향하는 ‘문화 생태계 전반의 관측 능력’을 확보함

나. [전략과제 2] 디지털 예술 통계 체계 확립

1) (추진과제 2-1) 디지털 예술활동의 통계적 정의 및 범주 표준화

■ 추진배경

○ 전통적 장르 분류와 디지털 예술 간의 괴리

- 현행 문학, 미술, 공연 등 6대 장르 중심 분류는 기술 융합형 예술(AI, VR, NFT 등)과 플랫폼 기반 창작물을 수용하지 못해, 디지털 영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예술 활동이 통계적으로 '증발(Evaporation)'하는 현상이 지속됨

○ 국제 표준(UNESCO FCS 2025) 대응 미흡

- 유네스코는 최신 지침을 통해 '디지털 문화 영역(Digital Cultural Sphere)'의 측정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 문화예술 통계는 여전히 물리적 시설과 아날로그 실적 집계에 머물러 있어 국제 비교 가능성이 결여됨

■ 필요성

○ '디지털 속성 태깅'을 위한 개념적 토대

- 지능형 조사 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디지털 예술로 간주하고 어떠한 코드값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 디지털 코드북(Digital Codebook)'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 디지털 예술 생태계의 정책적 가시성 확보

- 표준화된 정의와 범주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디지털 예술가에 대한 고용, 매출, 저작권 등 경제적 가치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디지털 예술 지원 정책 설계가 가능해짐

■ 추진 목적

○ 국가 표준 디지털 예술 통계 분류 체계 확립

- UNESCO FCS 2025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연계한 디지털 예술활동의 통계적 정의 및 다차원 분류 범주 수립

○ 데이터 호환성 및 정책 활용도 극대화

- 부처 간(문체부, 과기부 등), 기관 간 데이터가 상호 유동할 수 있는 표준 매핑 가이드를 제공함

■ 세부 업무 내용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디지털 예술활동의 통계적 정의 및 유형화 연구	① **[개념 재정립]** 창작, 유통, 향유 전 과정에서 기술이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을 '디지털 예술'로 정의하고, 기술 개입 정도에 따른 유형화(Born-digital vs Digitized) 수행 1) 기술 개입 본질성 기반의 '디지털 예술' 통계적 정의 수립 · (예술-기술 융합 프로세스 분석) 창작(생성형 AI 등), 유통(NFT, 플랫폼), 향유(VR/AR, 메타버스) 등 가치사슬 전반에서 기술이 단순 수단(Tool)을 넘어 예술적 실천의 본질적 요소로 작용하는 범위를 정밀 규정함 · (글로벌 표준 정합성 검토) UNESCO FCS 2025 개편안의 '디지털 실천' 지침과 OECD의 디지털 경제 측정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국제적으로 호환가능한 한국형 디지털 예술 통계 정의를 도출함 · (델파이(Delphi) 조사를 통한 전문가 합의) 기술 미학 전문가, 통계 전문가, 현장 예술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통계 사각지대에 있는 신생 장르(웹소설, 알고리즘 아트 등)의 포함 여부 및 경계 지표를 확정함 2) 기술 개입 정도에 따른 이분법적 유형화(Typology) 및 지표 설계 · (본태적 디지털 예술(Born-digital Art) 분류) 기획 단계부터 디지털 환경에서만 존재 가능한 예술(코드 아트, 가상 세계 실천 등)을 정의하고, 이를 별도 핵심 영역으로 독립화하는 분류 체계를 설계함 · (디지털화된 예술(Digitized/Digitally-enabled Art) 분류) 아날로그 기반 예술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확장되거나 유통 방식이 변모한 사례(온라인 실황 중계, 디지털 아카이브 등)를 구분하여, 기술이 예술의 '형태'와 '도달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 · (유형별 통계 측정 속성(Attribute) 태깅) 각 유형에 최적화된 측정 단위(예: 스트리밍 건수, NFT 발행량, 가상 공간 체류 시간 등)를 정의하고, 이를 '지능형 모집단 카드'의 핵심 속성값으로 연동하여 데이터 구조화를 지원함 ② **[글로벌 매핑]** UNESCO FCS 2025의 '디지털 창의 영역'과 WIPO의 저작권 통계 범주를 통합 분석하여 국제 표준과 호환되는 국내 표준 정의 도출 1) UNESCO-WIPO 국제 표준 지표 크로스워킹(Cross-walking) 분석 · (UNESCO FCS 2025 '디지털 창의 영역' 정밀 분석) 유네스코의 차세대 문화통계 프레임워크에서 정의하는 디지털 실천(Digital Practice)의 범위와 온라인 플랫폼 내 창작·유통 지표를 국내 예술 분류 체계와 1:1로 매핑함 · (WIPO 저작권 통계 범주 연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저작권 기반 산업 분류와 디지털 자산(NFT, 스마트 컨트랙트 등)의 권리 관계를 분석하여, 경제적 가치 측정이 가능한 통계적 속성값을 도출함 · (글로벌 지표 간 상호운용성 검토) 유네스코의 '문화적 가치'와 WIPO의 '경제적 권리'라는 두 축을 통합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하면서도 국내 법령(문화예술진흥법 등)과 충돌하지 않는 통합 매핑 테이블을 설계함 2) 한국형 디지털 예술 표준 분류 체계(K-DASC) 초안 개발 · (다차원 속성 기반 정의 도출) 국제 표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창작 주체, 매체(Media), 유통 경로, 상호작용성 등을 포괄하는 '한국형 디지털 예술 통계 표준 정의'를 명문화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 (국가표준산업분류(KSIC) 및 특수분류 연계) 도출된 정의가 국가 통계 체계 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KSIC-10 및 문화예술산업 특수분류와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신규 세분류(Sub-category) 신설 필요성을 검증함 ·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DIC) 연동) 정의된 유형들을 앞서 개발한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에 탑재하여, 현장 실사원이 디지털 예술 활동을 판별할 때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정 로직을 구축함 3) 표준안 타당성 검증 및 행정 데이터 연계 프로토콜 확정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검토) 디지털 예술가, 저작권 법학자, 통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표준화 위원회'를 운영하여, 도출된 표준 정의의 현장 수용성과 통계적 엄밀성을 최종 검증함 · (다기관 데이터 연계 키(Key)값 매칭) 표준 정의에 따라 국세청, 문예위, KOPIS 등 각 기관의 데이터 중 어떤 항목을 '디지털 예술'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자동 필터링 규칙(Rule-set)을 확정함 · (중장기 통계 고도화 로드맵 수립) 국제 표준의 변화에 따라 국내 정의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환류 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예술 통계가 글로벌 표준의 '참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근거를 마련함
다차원 디지털 속성(Attribute) 분류 체계 설계	① **[속성 분류(Taxonomy) 구축]** 조사표 개편과 연동하여 기술 속성(AI, XR, 블록체인), 플랫폼 속성(메타버스, OTT, SNS), 경제 속성(NFT 매출, 유료 구독) 등 다차원 태깅 항목 설계 1) 다차원 디지털 예술 속성 분류(Taxonomy) 정의 및 매핑 · (기술-플랫폼-경제 중심의 3차원 속성 체계 설계) 인공지능(AI), 실감기술(XR), 블록체인 등 기술 속성과 메타버스, OTT, SNS 등 플랫폼 속성, 그리고 NFT 매출 및 유료 구독 등 경제 속성을 상호 교차 분석할 수 있는 다차원 태깅 아키텍처를 구축함 · (속성별 세부 지표 및 측정 단위 표준화) 기술의 본질적 개입 여부(Born-digital vs Digitized)와 플랫폼 내 활동 방식, 경제적 가치 실현 모델에 따른 통계적 측정 단위를 정의하여 데이터의 정합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함 ·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DIC) 연동형 판정 로직 설계: 특정 예술 활동의 비정형 데이터(텍스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당 활동이 어떤 디지털 속성에 해당하는지 시스템이 자동 추천하거나 실사원이 즉각 판정할 수 있는 지능형 가이드라인을 구현함 2) 조사표 개편 연동 및 지능형 태깅 가이드라인 개발 · (국가 통계 조사표와의 정합성 설계) 도출된 다차원 속성 항목을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및 관련 국가 통계의 문항 구조와 1:1로 매핑하여, 조사 결과가 기술 및 경제 속성별로 즉시 통계화될 수 있도록 조사표 구조를 고도화함 · (지능형 모집단 카드와의 속성 동기화) 하베스팅된 행정 데이터 및 디지털 흔적에서 추출된 개별 예술 주체와 활동에 대해 다차원 속성을 자동 태깅하고, 이를 통해 장르 중심 분류에서 벗어난 '융복합 디지털 예술 생태계' 마스터 데이터셋을 생성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 (속성 기반 통계 분석 및 시각화 모듈 구축) 기술·플랫폼·경제 속성별 활동 밀집도와 가치 창출 규모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 대시보드를 연동하여, 정책 결정자가 디지털 예술의 변화 양상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 ② **[디지털 코드북 제작]** 각 장르별(문학, 시각, 공연 등) 디지털 전환 양상을 코드화하여, 어떤 융복합 활동도 통계적으로 고립되지 않는 유연한 매핑 구조 설계 1) 장르별 디지털 전환 패턴 코드화 및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 (장르 특화 디지털 실천 정의) 문학(웹소설,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시각(AI 생성 예술, NFT, VR 전시), 공연(메타버스 실황, 모션 캡처 공연) 등 각 장르에서 나타나는 기술 융합 양상을 표준 코드로 정의함 · (디지털 전환 단계별 가중치 설계) 단순 디지털 기록(Digitized)부터 기술이 창작의 본질인 형태(Born-digital)까지 기술 개입의 깊이를 단계별로 부호화하여, 통계 분석 시 기술의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현장 밀착형 지능형 코드북(DIC) 앱(App) 구현) 조사원이 현장에서 접하는 모호한 활동에 대해 키워드를 입력하면, AI가 최적의 디지털 속성과 장르 코드를 추천하는 인터랙티브 검색 엔진을 탑재하여 조사 편의성을 극대화함 2) 융복합 활동 포착을 위한 유연한 다중 매핑(Multi-labeling) 구조 설계 · (비고립형 속성 태깅 체계 도입) 특정 활동이 문학이자 공연일 수 있는 융복합 실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활동에 여러 장르 및 기술 속성을 중복 부여할 수 있는 ‘멀티 라벨 태깅(Multi-label Tagging)’ 아키텍처를 구축함 · (유연한 데이터 가중치 배분 로직) 융복합 활동의 주된 속성과 부차적 속성의 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통계 산출 시 특정 장르로 편중되거나 누락되는 ‘통계적 고립’ 현상을 원천 방지함 · (신규 융합 실천 자동 분류 및 학습) 기존 코드북에 정의되지 않은 신규 형태의 예술 실천이 발견될 경우, 이를 ‘미분류 속성’으로 별도 관리하고 주기적인 전문가 검토를 통해 새로운 표준 코드로 자동 업데이트하는 환류 시스템을 운영함 3) 통계 생산 연동 및 생태계 지도(Mapping) 시각화 · (속성 기반 자동 통계 생성 파이프라인) 수집된 디지털 속성값이 국가 통계의 장르별·기술별 집계표로 자동 변환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연동하여, 조사 종료와 동시에 디지털 예술 현황 분석 리포트가 생성되도록 함 · (다차원 예술 생태계 인터랙티브 맵 제공) 장르와 기술, 경제적 속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시각화하여, 정책 결정자가 어떤 지점에서 예술적 융합이 활발히 일어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예술 생태계 대시보드’를 구축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범부처 통계 호환성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① **[분류 정합성 검증]** 통계청 표준분류와 과기부 ICT 실태조사 분류와의 교차 분석을 통해 중복을 제거하고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표준 연계표' 작성 1) 통계청-과기부 분류 체계 교차 분석 및 정합성 검증 (Cross-walking) · (다부처 분류 기준 통합 분석)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특수분류체계와 과기부의 ICT 실태조사 분류 항목을 1:1로 대조하여, '디지털 예술' 영역에서의 용어 불일치 및 정의의 차이를 전수 조사함 · (중복 및 사각지대 식별: 동일한 활동이 부처별로 다르게 집계되는 중복 항목을 제거하고, 기술 융합으로 인해 어느 부처의 분류에도 속하지 않는 '신규 융복합 예술 실천' 항목을 발굴하여 공통 분류 후보군으로 관리함 · (데이터 연계용 '표준 연계표(Mapping Table)' 작성) 서로 다른 분류 코드를 사용하는 기관 간의 데이터를 자동 변환할 수 있도록 하위 세분류 단위까지 정밀 매칭한 표준 연계 테이블을 설계하여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함 2) 범부처 공통 통계 지침 및 기술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 (표준 메타데이터 정의서 배포) 각 부처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통일된 규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목명, 데이터 형식, 코드 체계 등을 표준화한 '문화예술-ICT 통합 메타데이터 정의서'를 제작하여 유관 기관에 배포함 · (데이터 연계 프로토콜(Protocol) 가이드 제공) 기관 간 API 연계나 데이터 교환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규격과 보안 인증 절차를 명시한 기술 가이드를 마련함 · (정기적 분류 업데이트 환류 체계 구축)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매년 신규 디지털 예술 유형을 표준 연계표에 업데이트하고, 부처 간 이견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통계 표준화 협의체' 운영 지침을 수립함 ② **[조사 지침 고도화]** 실사원이 현장에서 디지털 활동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구체적 판정 기준(Decision Tree) 및 사례집 개발 1) 디지털 예술 실천 판정 로직(Decision Tree) 설계 및 표준화 · (단계별 의사결정 알고리즘(Decision Tree) 수립) "기술이 예술적 메시지의 본질인가?", "디지털 플랫폼이 유통의 유일한 경로인가?" 등 실사원이 예/아니오(Yes/No)로 답변하며 기술 개입 정도(Born-digital vs Digitized)를 즉각 판정할 수 있는 표준 로직을 설계함 · (판정 기준의 계층화: 단순 장비 활용(기존 예술) → 기술 융합(디지털화된 예술) → 기술 기반 창작(본태적 디지털 예술)으로 이어지는 3단계 판정 지표를 설정하여, 조사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통계적 객관성을 확보함 ·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DIC) 앱 내 탑재) 수립된 판정 로직을 모바일 조사 시스템 내 챗봇 또는 인터랙티브 가이드 형태로 탑재하여, 실사원이 현장에서 키워드 입력만으로 표준 분류 코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장르별·기술 유형별 표준 실사 사례집 발간 · (시나리오 기반 사례 구성) 문학(웹소설/AI 창작), 시각(NFT/VR 전시), 공연(메타버스/실감 음향) 등 장르별 대표 사례와 경계선상에 있는 모호한 활동(예: 단순 온라인 아카이브 vs 온라인 전용 실연)에 대한 비교 분석 사례를 풍부하게 수록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 (멀티미디어 증빙 가이드 수록) 각 사례별로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필수 증빙 항목(스크린샷, URL, GPS 인증 사진 등)을 예시와 함께 제시하여, 실사원이 현장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제공함 · (행정 용어 순화 및 시각화) 예시 파일의 '이지 모드' 기조를 반영하여, 어려운 기술 용어와 통계 분류 개념을 일러스트와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고 현장 용어 위주로 해설한 '현장 실사 포켓 매뉴얼'을 제작함 3) 실사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실시간 현장 지원 체계 운영 · (디지털 예술 실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규 통계 정의와 판정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사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예술 실천 유형별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한 모의 판정 테스트(Test-bed)를 수행함 · (실시간 '디지털 헬프데스크' 가동) 현장에서 판정이 극히 어려운 신규 융복합 활동이 발견될 경우, 실사원이 즉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여 중앙 전문가 팀으로부터 판정 결과와 속성 태그를 실시간으로 환류받는 긴급 지원 체계를 운영함 · (조사 지침 환류 및 업데이트) 현장에서 수집된 '미분류 사례'들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사례집과 Decision Tree에 반영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지속 진화형 조사 지침'을 유지함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학술 연구비	UNESCO-KSIC 연계 표준 분류 모델 개발 연구 용역	120
디지털 코드북 개발비	장르별 디지털 속성 태깅 가이드 및 DB 코드 체계 설계	80
전문가 델파이 조사	예술 현장 및 기술 전문가(AI, XR 등) 대상 범주 적절성 검증	40
표준 가이드 제작/배포	부처 연계 표준 매핑 가이드라인 발간 및 설명회	30
계		270

■ 5개년(2027~2031) 추진 로드맵

구분	1~2년차 (표준화)	3~4년차 (현장 적용)	5년차 (제도화)
핵심목표	표준 정의 및 코드북 완성	조사 체계 시범 적용	국가승인통계 분류 개편
주요과제	• 디지털 예술 통계 정의 수립 • 다차원 속성 분류 체계 설계	• 개편 조사표 내 디지털 속성 적용 • 타 부처 데이터와의 연계 테스트	• 국가데이터처 표준분류 반영 추진 • 글로벌 표준(UNESCO) 제안

■ 성과관리 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	'31년 목표치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디지털 통계 정합성 지수	100%	UNESCO FCS 2025 핵심 지표와의 매핑 및 부합 여부 검증
디지털 예술활동 포착률 증가	300% 이상	(기존 방식 포착 활동 수 vs 개편 속성 태깅 기반 포착 활동 수) 비교
타 부처 통계 호환성	상호 연계 가능	과기부, 중기부 등 관련 통계와의 코드 매핑 완료율 및 데이터 교환 실적

■ 기대효과

○ 디지털 예술의 정책적 실체화

- 그동안 기타(etc.) 항목에 머물렀던 디지털·기술 융합 예술을 국가 표준 통계의 주류로 편입시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문화예술 예산 배정과 지원 체계 수립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함

○ 지능형 조사 체계의 논리적 완성

- '다차원 속성 태깅'이 단순한 나열을 넘어 통계적 권위를 갖게 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임

○ 글로벌 통계 주권 확보

- 유네스코 최신 기준을 선제적으로 수용하여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디지털 문화 통계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국제 통계 담론에서 리더십을 발휘함

2) (추진과제 2-2) 플랫폼 파트너십 기반 '디지털 데이터 하베스팅(Harvesting)'

■ 추진배경

○ 민간 플랫폼 중심의 예술 생태계 재편

- 현대 예술 활동의 상당 부분은 국공립 시설이 아닌 SNS(인스타그램 등), 예매 플랫폼(인터파크, 예스24), 취향 기반 큐레이션 앱(데이트립, 아트맵)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유통·소비되고 있으나, 공공 통계와의 연계 부재로 대규모 데이터 유실이 발생함

○ 비제도권 활동의 포착 한계

- 거리 예술, 팝업 전시 등 비제도권 활동은 공식 행정 기록 대신 민간 플랫폼에 '디지털 흔적'으로 존재하며, 이를 수집하지 못할 경우 생태계의 절반 이상이 통계적으로 누락되는 결과 초래

■ 필요성

○ '지능형 수집 체계'의 핵심 동력

- '다차원 속성 태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모집단을 보완하는 '데이터 하베스팅(Data Harvesting)' 기술 도입이 필수적임

○ 조사 비용 절감 및 적시성(Timeliness) 극대화

-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는 수기 조사 대신, 플랫폼 데이터를 통해 활동 여부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조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통계 공표 시차를 단축할 수 있음

■ 추진 목적

○ 민간-공공 데이터 거버넌스(G2B) 구축

- 주요 민간 플랫폼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예술 활동 데이터의 상시적 공유 체계 확립

○ 비제도권 예술 활동의 가시성 확보

- 흩어진 디지털 흔적을 통합하여 공식 통계망에 포착되지 않는 예술 활동의 규모와 분포를 정밀 분석함

■ 세부 업무 내용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민간 데이터 얼라이언스(Data Alliance) 구축	①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티켓 예매처, 전시 큐레이션 앱, 예술가 커뮤니티 등 주요 플랫폼사와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 추진 및 데이터 제공 인센티브 설계 1)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및 데이터 공유 거버넌스 수립 · (민간 플랫폼 타겟팅 및 MOU 체결) 티켓 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 등), 전시 큐레이션 앱(아트맵, 데이트립 등), 예술가 커뮤니티(방구석예술가 등)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데이터 상생 협약'을 추진하여 비제도권 활동 데이터 수집의 교두보를 마련함 · (데이터 공유 표준 계약(SDA) 가이드라인 수립)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면서도 통계적 목적으로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소유권, 활용 한계 등을 명시한 표준 계약 모델을 설계하여 민간 기업의 법적 리스크 우려를 해소함 · (민·관 합동 '문화예술 데이터 협의회' 운영) 정기적인 기술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플랫폼의 데이터 스키마와 문예위 통계 체계 간의 정합성을 논의하고, 신규 예술 트렌드(팝업 전시, 게릴라 공연 등)를 통계 항목에 즉각 반영하는 현장 환류 체계를 가동함 2) 참여 플랫폼 대상 다각적 인센티브 및 상생 모델 설계 · (데이터 교환(Data-for-Insight) 프로그램 가동) 민간이 제공한 로데이터(Raw Data)를 문예위가 보유한 국가 통계 및 타 기관 행정 데이터와 결합·분석하여, 해당 기업에 시장 분석 리포트나 타겟 마케팅용 인사이트 데이터를 역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바우처' 제도를 운영함 · (공공데이터 프리미엄 API 우선 접근권 부여)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에 한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이나 공공 공연예술 정보 등 문예위가 관리하는 양질의 공공 데이터를 정제된 형태로 우선 제공하여 민간 서비스의 고도화를 지원함 · (ESG 경영 인증 및 브랜드 홍보 지원) 문예위 공식 파트너로서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기여 기업'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위원회 발행 보고서 및 보도자료에 협력 사례를 노출하여 기업의 사회적 가치(ESG) 이미지를 제고함 ② **[공공-민간 연계 표준 프로토콜 설계]** 민간의 비정형 데이터를 공공 통계 규격으로 변환하기 위한 표준 API 명세서 및 연계 가이드라인 개발 1) 비정형 데이터 변환 전용 표준 API 명세서 개발 (API Specification) · (RESTful 기반 표준 송수신 규격 설계) 민간 플랫폼(티켓처, SNS 등)과 문예위 시스템 간 데이터 동기화를 위해 JSON/XML 형식의 표준 API 명세서를 정의하고,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스트리밍 및 배치(Batch) 처리 규격을 설계함 · (비정형-정형 데이터 스키마(Schema) 매핑) 민간의 '해시태그', '위치 태그', '이미지 텍스트' 등 비정형 속성을 국가 통계의 '장르', '장소', '활동 주체' 코드로 자동 변환하기 위한 데이터 필드 매핑 테이블을 구축함 · (보안 및 인증 프로토콜 적용) 민간 기업의 데이터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OAuth 2.0 기반의 인증 체계와 SSL/TLS 암호화 전송 구간을 설정하여 데이터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함 2) 데이터 정규화 및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연계 가이드라인 수립 · (지능형 ETL(추출·변환·적재) 프로세스 정의) 민간의 상이한 데이터 형식(Raw Data)을 문예위의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DIC)' 규격에 맞춰 정제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단계별 자동 변환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플랫폼별 맞춤형 연계 모듈 제공) 인스타그램(SNS), 인터파크(티켓), 소규모 커뮤니티 등 플랫폼별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 개발자가 문예위 시스템에 쉽게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도록 '샘플 코드'와 '개발자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함 · (데이터 무결성 검증 로직 탑재) 전송된 민간 데이터가 실제 예술 활동인지, 혹은 상업적 광고인지 시스템이 1차로 판별할 수 있는 '유효성 검증(Validation) 규칙'을 프로토콜 내에 탑재하여 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함
지능형 데이터 하베스팅 (Harvesting) 엔진 개발	① **[웹/앱 크롤링 및 스크래핑 고도화]** 파트너십 미체결 영역의 공개된 활동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지능형 크롤러 개발 및 소셜 미디어 위치 기반 활동 데이터 하베스팅 실시 1) OSINT 기반 분산 크롤링 및 스크래핑 고도화 · (자율형 지능형 크롤러(Intelligent Crawler) 개발) 고정된 URL뿐만 아니라 검색 엔진 및 소셜 미디어(SNS)의 동적 페이지(JavaScript 기반)를 스스로 탐색하여 비제도권 예술 활동(예: 게릴라 공연, 팝업 전시 등) 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스크래핑 엔진을 구축함 · (안정적 수집을 위한 분산 IP 및 세션 관리) 타 플랫폼의 차단(Blocking)을 회피하기 위해 분산 서버 환경을 구축하고, 주기적인 크롤링 정책(Politeness Policy)을 설정하여 데이터 수집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 · (비제도권 타겟 사이트 발굴 및 등록) 예술가들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 지역별 문화 소식 블로그, 독립 예술 플랫폼 등 파트너십 미체결 영역의 '데이터 원천(Source)'을 목록화하고 자동 수집 대상에 편입함 2) 소셜 미디어 위치 기반(LBS) 활동 데이터 하베스팅 및 좌표화 · (SNS 위치 정보(Geotag) 정밀 추출) 인스타그램, 트위터(X) 등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활동 이미지와 텍스트 내의 위치 태그 및 지오태깅(Geotagging) 정보를 하베스팅하여 실제 활동이 일어난 지리적 좌표를 추출함 · (활동 성격 판별 및 장르 자동 태깅 수집된 게시물의 텍스트를 자연어 처리(NLP)로 분석하여 단순 일상 기록과 예술적 실천을 구분하고, 이를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DIC)'의 분류 체계에 맞춰 장르 및 활동 유형을 자동 태깅함 · (GIS 격자 체계(100m×100m) 매핑) 추출된 좌표 정보를 전국 단위 공간 통계 모델에 투영하여, 공식 시설 외 지역에서의 예술 활동 빈도를 히트맵(Heat-map)으로 시각화하고 모집단 보정 자원으로 활용함 ② **[비식별 데이터 융합 기술 적용]** 수집된 데이터의 중복 제거를 위해 솔티드 해시(Salted Hash)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행정 데이터와 안전하게 매칭 1) 솔티드 해시(Salted Hash) 기반 비식별 연계 체계 구축 (Privacy-Preserving Linkage) · (고강도 단방향 암호화 적용) 하베스팅된 데이터와 기존 행정 데이터(NCAS, KOPIS 등)의 결합 키(성명, 연락처 등)에 SHA-256 이상의 솔티드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원본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는 비식별 상태의 결합 토큰(Token)을 생성함 · (가변형 솔트(Salt) 및 키 관리 정책 수립) 외부 유출 시에도 역산이 불가능하도록 기관별·데이터셋별로 고유한 솔트 값을 부여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보안 키 관리 시스템(KMS)'을 연동하여 데이터 유통의 안전성을 극대화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 (비식별 데이터 결합 프로토콜 설계) 하베스팅 엔진 내에 비식별화 모듈을 탑재하여, 데이터 수집 즉시 개인정보를 마스킹하고 통계적 매칭에 필요한 해시값만 남기는 '선제적 비식별화(Privacy-by-Design)'를 실현함 2) AI 기반 이종 데이터 중복 제거 및 지능형 레코드 매칭 · (비복호화 기반 개체 매칭(PPRL) 엔진 가동) 암호화된 해시값 간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여 외부 수집 데이터와 내부 행정 데이터 간의 동일인/동일 활동 여부를 판별하고, 중복된 기록을 자동으로 스크리닝하는 지능형 매칭 로직을 구현함 · (확률적 데이터 결합 및 오류 보정) 해시값 외에도 활동 장소, 시기, 장르 등 비민감 속성을 결합하여 매칭 정확도를 산출하며, 미세한 정보 차이로 인한 중복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AI 기반의 확률적 매칭(Probabilistic Matching) 알고리즘을 적용함 · (단일 진실 공급원(Single Source of Truth) 생성) 중복으로 판명된 데이터 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출처(공공 행정 데이터 우선)를 기준으로 정보를 단일화하고, 하베스팅으로 보완된 신규 속성(SNS 반응, 위치 기반 빈도 등)을 병합하여 '통합 모집단 레코드'를 완성함
속성 태깅 자동화를 위한 데이터 가공	① [AI 기반 속성 추출] 하베스팅된 비정형 텍스트(공연/전시 상세 설명)를 자연어 처리(NLP)로 분석하여 다차원 속성(디지털, 융복합 등)을 자동 태깅 1) AI 기반 비정형 데이터 정규화 및 개체명 인식(NER) 엔진 가동 · (자연어 전처리 및 토큰화(Tokenization)) 하베스팅된 공연·전시의 시놉시스, 기획 의도, 아티스트 노트 등 비정형 텍스트에서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고, 예술적 실천의 핵심 단위를 추출하는 정규화 공정을 수행함 · (예술-기술 개체명 인식(NER) 모델 적용) 텍스트 내에 포함된 기술적 요소(AI, VR, XR, 메타버스 등), 참여 인력, 장소, 장르 관련 키워드를 지능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DIC)'의 표준 용어와 매핑함 · (맥락 분석 기반 속성 추론) 단순 키워드 매칭을 넘어, 문맥 파악을 통해 기술이 창작의 '본질'로 쓰였는지 단순 '수단'으로 쓰였는지를 판별하는 딥러닝 기반의 맥락 분석 로직을 적용함 2) 다차원 속성 자동 태깅 및 신뢰도 기반 분류 · (지능형 다중 라벨링(Multi-labeling) 수행) 하나의 예술 활동이 가진 복합적 성격을 포착하기 위해 기술 속성(Born-digital 등), 플랫폼 속성(OTT, SNS 등), 경제 속성(NFT 등)을 동시에 부여하는 다차원 자동 태깅 시스템을 운영함 · (속성별 신뢰도 스코어링(Confidence Scoring)) AI가 추출한 각 태그의 정확도를 확률값으로 산출하고, 임계치(Threshold) 미달 항목은 별도의 '검토 필요' 리스트로 분류하여 통계 전문 인력의 2차 검증을 유도하는 '하이브리드 검증 체계'를 가동함 · (지능형 모집단 카드 자동 환류) 태깅이 완료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지능형 모집단 카드'의 속성 필드에 자동 입력되며, 이를 통해 별도의 수기 입력 없이도 디지털/융복합 예술 생태계의 실시간 통계 산출 기반을 마련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② [모집단 보완 모듈 연동] 공식 시설 데이터에 없는 신규 활동을 식별하여 동태적 모집단(Master Population)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파이프라인 구축 1) 비제도권 활동 자동 식별 및 중복 필터링 엔진 가동 · (행정 데이터 연동 교차 검증)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등 공식 시설 기반 데이터와 하베스팅된 비정형 활동 정보를 실시간 대조하여, 공식 기록에 없는 '자생적 예술 활동'을 자동 식별함 · (지능형 중복 필터링(De-duplication)) 활동 장소, 시간, 주체 등의 속성 유사도를 분석하여 이미 모집단에 포함된 개체와의 중복 여부를 판별하고, 신규 개체(New Entity)만을 선별하여 모집단 보완 대상으로 분류함 2) 동태적 모집단(Master Population) 실시간 업데이트 파이프라인 구축 · (자동화 인입(Ingestion) 프로세스 가동) 식별된 신규 활동 정보를 API 기반 파이프라인을 통해 동태적 모집단 DB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각 데이터에 고유 식별 번호(UID)를 자동 부여하여 체계적 관리를 수행함 · (모집단 현행화 및 워크플로우 연동) 새롭게 추가된 활동 데이터가 즉시 '지능형 모집단 카드'로 생성되도록 시스템을 연동하며, 데이터의 결측치 여부에 따라 즉시 통계에 산입하거나 '보완 조사 과업'으로 자동 배정하는 실시간 환류 체계를 운영함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데이터 구매 및 제휴비	민간 플랫폼 유료 데이터 구매 및 파트너십 운영 지원금	250
하베스팅 엔진 개발비	AI 기반 크롤러, NLP 분석 엔진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300
보안 및 클라우드	대용량 데이터 적재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및 보안 체계 구축	100
데이터 정제 용역비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의 검증 및 표준 코드 매핑 작업 인건비	150
계		800

■ 5개년(2027~2031) 추진 로드맵

구분	1~2년차 (거버넌스)	3~4년차 (수집 가동)	5년차 (최적화)
핵심목표	플랫폼 제휴 및 기술 설계	전방위적 하베스팅 실시	지능형 플랫폼 완전 통합
주요과제	• 주요 플랫폼 파트너십 체결 • 하베스팅 프로토콜 설계	• 데이터 자동 수집 엔진 가동 • 속성 태깅 자동화 연동	• 민간 데이터 비중 40% 달성 • 실시간 예술 활동 지도 구현

■ 성과관리 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	'31년 목표치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데이터 하베스팅 포괄률	95% 이상	(하베스팅을 통해 확인된 활동 수 / 외부 플랫폼 전체 활동 수) × 100
데이터 연계 파트너십 수	30개사 이상	데이터 공유 협약이 완료되고 실제 API 연동 중인 민간 업체 수
자동 태깅 정확도	90% 이상	AI가 자동 부여한 속성 태그와 전문가 검증 결과 간의 일치도

■ 기대효과

○ 통계의 완전성(Completeness) 달성

- 공공 데이터의 한계를 넘어 민간 플랫폼의 생생한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비제도권과 디지털 예술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예술 전수 데이터' 체계를 완성함.

○ 조사 혁신의 실질적 구현

- '지능형 수집 및 다차원 태깅'이 대규모 민간 데이터를 만나 정책 성과 입증의 핵심 도구로 기능함

○ 민간 예술 산업의 동반 성장

- 공공의 표준 데이터가 민간 플랫폼에 환류됨으로써 민간 데이터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 데이터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유도함

다. [전략과제 3] 대외 통계 표준 연계 강화

1) (추진과제 3-1) UNESCO(FCS) 및 국가 표준분류(KSIC, KSCO) 1:1 매핑 체계 구축

■ 추진배경

○ 예술 통계의 폐쇄적 고립성

- 현행 문화예술 통계는 자체적인 장르 분류 체계에 갇혀 있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나 표준직업분류(KSCO)와 상호 호환되지 않음
- 이로 인해 예술 활동이 국가 전체 경제(SNA)나 고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글로벌 통계 정합성 결여

- UNESCO의 문화통계 프레임워크(FCS 2025)와 국내 분류 간의 연계 체계가 부재하여, 우리나라 예술 생태계의 성과를 국제 사회에 공신력 있게 보고하거나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

■ 필요성

○ '속성 태깅'의 가치 환산 엔진

- '다차원 속성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로 치환되기 위해서는, 각 속성값이 KSIC(산업) 및 KSCO(직업) 코드와 1:1로 매핑되어야 하며, 이는 예술을 '소비'가 아닌 '생산'의 관점에서 재정의하는 필수 공정임

○ 데이터 기반의 정책 정당성 확보

- 국가 표준 분류와의 매핑을 통해 예술 분야 예산 투입이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통계청 승인 통계 수준의 신뢰도로 입증할 수 있음

■ 추진 목적

○ 표준 분류 간 매핑 테이블(Cross-walk) 확립

- UNESCO FCS, KSIC, KSCO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1:1 매핑 체계를 구축하여 통계적 칸막이 해소

○ 예술 통계의 경제적·사회적 위상 객관화

- 국가 표준 지표 체계 내에서 문화예술의 기여도를 정밀하게 산출할 수 있는 분석 기반 마련

■ 세부 업무 내용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UNESCO FCS 2025 대응 글로벌 매핑 모델 설계	① **[국제 표준 동기화]** UNESCO FCS 2025의 문화 영역(Domains) 및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를 국내 예술 장르 및 속성 체계와 1:1 매칭 1) UNESCO FCS 2025 문화 영역(Domains) 기반 크로스워킹 · (글로벌-국내 장르 매핑 테이블 구축) 유네스코 FCS 2025의 6대 핵심 영역(A~F) 및 신규 '디지털 창의 영역'과 국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문화예술산업 특수분류 장르 코드를 1:1로 대조하여 상호운용성이 확보된 통합 매핑 테이블을 설계함 · (디지털 특화 도메인 정밀 동기화) FCS 2025에서 강조하는 '본태적 디지털(Born-digital)' 활동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예술 실천이 국내 통계 모집단 내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네스코 정의와 국내 '지능형 모집단 카드' 속성을 기술적으로 동기화함 · (범부처 통계 정합성 검토) 매핑된 도메인이 통계청 및 유관 부처(과기부, 문체부 등)의 기존 분류 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범부처 통계 호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데이터 연계 규격을 확정함 2)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 기반의 다차원 데이터 속성 매칭 · (5단계 가치사슬 지표 정규화) 창작(Creation) → 제작(Production) → 유통(Dissemination) → 전시/실연(Exhibition/Reception) → 소비(Consumption)로 이어지는 유네스코 표준 가치사슬 단계별로 국내 행정 데이터(NCAS, KOPIS, 매출 등)의 속성값을 배분함 · (디지털 가치사슬 속성 태깅 로직 설계) 온라인 스트리밍(유통), 메타버스 전시(실연), NFT 판매(소비)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가치사슬 단계를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DIC)'에 반영하고, 이를 유네스코 가치사슬 코드와 자동 매핑함 · (국제 비교용 메타데이터 스키마(Schema) 정의) 수집된 모든 예술 실천 데이터가 유네스코의 국가별 데이터 보고 규격(Data Reporting Format)으로 자동 변환되도록, 데이터 필드 단위의 표준 메타데이터 명세서를 작성하고 시스템 연계 프로토콜을 수립함 ② **[글로벌 비교 지표 도출]** OECD, 유네스코 등 주요 국제기구 보고 시 요구되는 지표를 우리 통계에서 즉각 추출할 수 있는 매핑 알고리즘 설계 1) 국제기구 보고용 지표 체계 및 크로스워킹(Cross-walking) 테이블 구축 · (글로벌 핵심 지표 추출) UNESCO FCS 2025의 '디지털 창의성' 지표와 OECD의 '문화 및 여유' 섹션 등 주요 국제기구가 정기적으로 요구하는 핵심 지표(예: 디지털 예술 참여율, 문화 분야 고용 비중 등)를 전수 분석하여 목록화함 · (데이터 항목 간 1:1 매핑 알고리즘 설계) 국내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개별 문항 및 행정 데이터(NCAS, KOPIS 등)의 속성값을 국제 표준 지표 규격으로 자동 변환하기 위한 논리적 매핑 규칙(Mapping Rule)을 수립함 · (상호운용성 검증) 매핑된 지표가 국가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국제기구의 최신 보고 지침(Metadata Definition)을 충족하는지 기술적으로 검토함 2) 지능형 데이터 변환 및 즉각 추출(Instant Extraction) 엔진 개발 · (자동 지표 산출 알고리즘 구현) 매핑 테이블을 기반으로 원천 데이터(Raw Data)를 국제기구 요구 양식(Reporting Template)으로 자동 집계·연산하는 ETL(추출·변환·적재) 자동화 엔진을 가동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파이프라인 구축) 국내 통계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글로벌 비교 지표값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실시간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대외 기관의 상시 데이터 요청에 '즉각 추출'로 대응함 · (다국어·다양식 리포팅 모듈 탑재) 추출된 데이터를 영문 지표명으로 자동 변환하고, 국제기구별로 상이한 데이터 제출 규격(CSV, SDMX, API 등)으로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유연한 리포팅 기능을 제공함 3) 지표 정합성 모니터링 및 품질 관리(QA) 체계 운영 · (시계열 데이터 일관성 검증 로직) 새롭게 산출된 글로벌 지표값이 과거 보고된 시계열 데이터와 비교하여 비정상적인 오차를 보이지 않는지 자동 탐지하고, 편차 발생 시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을 발송하는 경보 시스템을 운영함 · (국가 간 비교 정합성 시뮬레이션) 산출된 한국의 지표를 타 주요국(EU, 미국 등)의 유사 통계와 사전 시뮬레이션 대조하여, 우리 통계의 국제적 위상과 데이터 신뢰도를 검증하는 '글로벌 벤치마킹 대시보드'를 가동함
국가 표준 산업(KSIC)·직업(KSCO) 연계 체계 구축	① **[코드 단위 정밀 매핑]** 다차원 속성(Attribute) 항목을 KSIC 5단위(세세분류) 및 KSCO 4단위와 연결하는 '표준 연계표' 작성 1) 다차원 속성-국가표준분류 크로스워킹(Cross-walking) 및 연계표 작성 · (KSIC 5단위(세세분류) 정밀 매핑) 하베스팅 및 속성 태깅을 통해 정의된 신규 예술 활동(예: AI 생성 예술, 메타버스 공연 등)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10)의 최하위 단위인 5단위 코드와 1:1 또는 1:N으로 정밀 매칭함 · (KSCO 4단위(단위분류) 직업군 연계) 독립 예술가 및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활동 특성을 한국표준직업분류(KSCO-7)의 4단위 코드와 연결하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유관 부처 데이터와 호환 가능한 '예술직무 표준 연계표'를 설계함 · (예외적·융합적 실천의 표준 코드 배분 로직 수립) 단일 코드로 분류가 불가능한 복합 속성 활동(예: NFT 시각예술+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 주된 활동 비중(매출, 투입 시간 등)에 따라 주·부 코드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가중치 산정 모델을 개발함 2) 지능형 모집단 카드 연동형 자동 코드 부여 엔진 구축 · (분류 알고리즘 고도화) 앞서 설계한 '지능형 모집단 카드'의 다차원 속성(AI, XR, 플랫폼 등) 태그가 입력되면, 이를 표준 연계표와 대조하여 적합한 KSIC 및 KSCO 코드를 실시간으로 자동 제안하는 지능형 추천 엔진을 가동함 · (국가 통계 정합성 검증 모듈 탑재) 자동 매핑된 코드가 통계청의 특수분류체계(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등)와 상충하지 않는지 기술적으로 스크리닝하고, 분류 불능 사례 발생 시 전문가 검토 단계로 자동 이관하는 워크플로우를 운영함 · (표준 연계 메타데이터 배포) 구축된 연계표를 API 규격으로 표준화하여 국세청, 문예위, 지역재단 등 데이터 연계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범부처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의 산업·직업 통계가 산출되도록 상호운용성을 확보함 ② **[경제 가치 산출 로직 개발]** 예술 활동 데이터를 한국은행 국민계정(SNA) 산출 원칙과 연동하기 위한 산업연관표 기반의 가중치 모델 설계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1) 한국은행 국민계정(SNA) 정합성 기반 '문화예술 위성계정' 매핑 · (SNA 생산 경계(Production Boundary) 설정) 디지털·비제도권 예술 활동 중 경제적 가치 창출이 인정되는 범위를 한국은행 국민계정 체계에 맞춰 정의하고, 시장 생산(매출)과 비시장 생산(자원봉사, 자생적 실천 등)의 측정 기준을 수립함 · (산업연관표(I-O Table) 부문 분류 연계)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다차원 속성 데이터를 산업연관표의 소분류(78개) 및 기초부문(381개) 코드와 1:1로 매핑하여, 각 활동이 국가 경제 전체의 중간투입 및 최종수요에 미치는 경로를 설계함 · (부가가치율 및 유발계수 적용 로직 설계) 장르별·활동 유형별 표준 부가가치율과 생산/고용 유발계수를 산출 모델에 탑재하여, 개별 활동 데이터가 입력되면 즉시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자동 계산되는 알고리즘을 구축함 2) 비제도권·디지털 활동의 경제 가치 추정 가중치 모델 개발 · (시장가격 등가법(Market Price Equivalent) 적용) 직접적인 매출 확인이 어려운 비제도권 활동(예: 자생적 버스킹, 무료 전시 등)의 경제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유사한 제도권 활동의 시장 가격을 가중치로 부여하는 보정 모델을 설계함 · (디지털 흔적 기반 가치 환산 가중치 설계) SNS 노출수, 스트리밍 건수, 메타버스 체류 시간 등 하베스팅된 디지털 속성 데이터를 광고 단가 및 저작권료 수익 모델과 연동하여, 디지털 예술의 실질적 경제 가치로 환산하는 전용 계수를 개발함 · (동태적 모집단 카드 연동형 자동 산출 엔진 구현) '지능형 모집단 카드'에 기록된 속성(장소, 인원, 기술 등)에 따라 최적의 경제 가치 산출 가중치가 자동 선택되어, 활동 1건당 생성되는 부가가치액(GVA)을 실시간으로 도출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함 3) 통계적 무결성 검증 및 국가 통계 승인 가이드라인 수립 · (한국은행 데이터 대조 및 편차 보정) 산출된 결과값이 한국은행의 실제 산업연관표 및 지역내총생산(GRDP) 데이터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고, 과대/과소 추정 방지를 위한 상시 보정 루틴(Calibration)을 운영함 · (경제 가치 시각화 및 정책 리포팅 대시보드 구축) 기술 속성별, 지역 격차별 경제 기여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를 제공하여, 문예위 지원사업의 경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차기 사업 예산 편성의 근거로 활용함
지능형 코드 변환 엔진 및 디지털 코드북 탑재	① **[자동 코드 변환 시스템]** 조사원이 속성을 태깅하면, 배후에서 KSIC/KSCO/FCS 코드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지능형 변환 엔진 개발 1) 속성 기반 다중 표준 코드 자동 매핑 엔진(ICCE) 구축 · (실시간 크로스워킹(Cross-walking) 로직 구현) 다차원 속성(예: AI 생성, 메타버스 유통 등)이 입력되는 즉시, 배후의 지능형 엔진이 이를 KSIC(5단위), KSCO(4단위), UNESCO FCS 2025 코드로 1:1 또는 1:N 자동 변환함 · (하이브리드 판정 알고리즘 적용) 단일 코드로 분류가 어려운 융복합 활동에 대해, 태깅된 속성 조합의 빈도와 중요도를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주(Primary) 코드'와 '부(Secondary) 코드'를 추천하는 지능형 판정 로직을 가동함 · (코드 가중치 산정 모델(Weighting Model) 탑재) 활동의 성격에 따라 각 표준 코드별 기여도를 수치화하며, 복합적인 경우 아래와 같은 가중치 산정식을 적용하여 통계적 정합성을 확보함 $$\text{Code Score} = \sum_{i=1}^{n} (\text{Attribute}_i \times \text{Weight}_i)$$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2) 시스템 무결성 검증 및 표준 업데이트 자동화 · (코드 일관성 자동 검증) 변환된 코드 조합이 통계청의 산업·직업 분류 원칙이나 유네스코의 가치사슬 구조와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 실시간으로 스크리닝하고, 오류 감지 시 조사원에게 즉시 보정 가이드를 제시함 · (국가 표준 DB 실시간 동기화) 통계청(KSIC/KSCO) 및 국제기구(UNESCO/OECD)의 분류 체계가 개편될 경우, 변환 엔진 내 매핑 테이블이 즉각 업데이트되도록 Open API 기반의 동기화 파이프라인을 운영함 · (전환 이력(Lineage) 관리 및 학습 체계) 속성 태깅 결과와 최종 부여된 코드 간의 연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엔진이 스스로 매핑 정확도를 높여가는 머신러닝 기반의 '지속 진화형 분류 모델'을 구축함 ② **[데이터 통합 관리 DB 구축]** 매핑 정보를 담은 '디지털 코드북'을 지능형 플랫폼에 탑재하여 부처 간 데이터 교환 시 표준 규격으로 활용 1) 전사적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MDR) 및 표준 매핑 DB 구축 · (문화예술 표준 메타데이터 명세화) 각 장르별 속성, 기술 코드, 경제 지표 등 모든 데이터 항목의 정의와 규격을 표준화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를 구축하여 데이터 해석의 단일화를 실현함 · (지능형 코드북 기반 관계형 DB 설계)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DIC)'의 매핑 정보가 실시간으로 쿼리(Query)될 수 있도록 장르-기술-산업-직업 간의 복합 관계를 구조화한 고성능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를 설계함 · (데이터 무결성 지수(DCI) 관리 모델 탑재) 입력된 데이터와 표준 코드 간의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리적 검증식을 적용하여 데이터 품질을 상시 모니터링함 $$DCI = \left(\frac{\sum_{i=1}^{n} (V_{input,i} \leftrightarrow V_{standard,i})}{n} \right) \times 100$$ 2) 부처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연계 인터페이스(API) 고도화 · (공공-민간 통합 API 게이트웨이(Gateway) 운영) 통계청, 과기부, 국세청 등 유관 부처와 민간 얼라이언스가 문예위의 '표준 규격'을 호출하여 자사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고확장성 API 환경을 제공함 · (표준 규격 변환 레이어 구축) 각 기관이 보유한 상이한 데이터 형식(Legacy Data)을 전송하면, DB 내의 매핑 로직을 거쳐 즉시 국가 표준 코드로 치환해 송출하는 지능형 변환 레이어를 가동함 ·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이력 및 무결성 증명) 부처 간 데이터 교환 이력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데이터의 출처(Lineage)를 관리하고, 보안이 강화된 노드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통계 유통 환경을 조성함 3) 데이터 거버넌스 및 생애주기 관리(LVM) 체계 수립 · (지속 진화형 코드 업데이트 워크플로우) 신규 예술 기술이나 장르가 등장할 경우 전문가 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DB 내 매핑 정보를 즉각 갱신하고, 모든 연계 기관에 변경된 규격을 실시간 배포(Push)하는 환류 체계를 운영함 · (데이터 거버넌스 대시보드 구현) 부처별 데이터 연계 현황, 코드 변환 정확도, 수집된 모집단의 정합성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행정 관리자용 지능형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구축함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표준 매핑 연구비	UNESCO FCS - KSIC - KSCO 간 1:1 매핑 테이블 개발 용역	150
경제 파급효과 산출 연구	산업연관분류 연계 및 부가가치 산출 산식 개발	80
변환 엔진 개발비	디지털 코드북 DB 구축 및 지능형 코드 매핑 알고리즘 개발	120
전문가 검증 및 델파이	통계청, 한국은행, 학계 전문가 대상 매핑 적절성 검증	50
계		400

■ 5개년(2027~2031) 추진 로드맵

구분	1~2년차(설계 및 매핑)	3~4년차(시스템 연동)	5년차(최적화)
핵심목표	표준 매핑 테이블 완성	지능형 조사 체계 적용	국가 표준 지표 공식화
주요과제	• UNESCO/KSIC/KSCO 매핑 연구 • 디지털 코드북 설계	• 지능형 플랫폼 내 변환 엔진 탑재 • 데이터 연계 파일럿 테스트	• 문화위성계정(CSA) 연동 • 국제기구 데이터 보고 자동화

■ 성과관리 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	'31년 목표치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표준분류 매핑률	100%	(매핑이 완료된 예술 속성 수 / 전체 예술 속성 수) × 100
데이터 호환성 지수	'매우 높음'	국가데이터처 및 한국은행과의 데이터 교차 검증 시 일치율 평가
국제 보고 적시성	실시간 추출	UNESCO 등 국제기구 요구 데이터의 자동 추출 및 제출 가능 여부

■ 기대효과

○ 예술의 경제적 가치 입증(SNA 연계)

-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예술 산업의 GDP 기여도와 고용 창출 효과를 국가 표준 방식으로 입증함으로써, '예산 소비 분야'가 아닌 '가치 생산 분야'로서의 정책적 위상을 정립함.

○ 제4장 조사의 확장성 극대화

- 제4장의 '다차원 속성 태깅'이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국가 전체 통계 네트워크와 동기화되는 '살아있는 데이터'로 진화함

○ 통계적 주권 및 글로벌 리더십 확보

- 국제 표준(UNESCO)과 국내 표준(통계청)을 완벽히 매핑한 선진 사례를 제시하여, 글로벌 문화 통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함

2) (추진과제 3-2) 이종(異種) 통계 간 융합 분석 프레임워크 설계

■ 추진배경

○ 예술 통계의 '수직적 고립(Data Silo)' 문제

- 현재 문화예술 통계는 독자적인 조사 체계 내에서만 분석되어, 예술 활동이 국민의 삶의 질(복지), 지역 경제 활성화(경제), 고용 창출(노동)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단편적 지표 중심의 성과 보고 관행

- 건수나 횟수 중심의 산출(Output) 지표에 치중되어 있어, 사회적 문제 해결이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같은 결과(Outcome) 중심의 융합 지표 생산 능력이 결여됨

■ 필요성

○ '속성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 치환

- 태깅된 디지털, 융복합, 사회적 가치 속성을 복지패널, 경제총조사 등과 결합하여 예술의 다차원적 기여도를 입증하는 '융합 분석 엔진'이 필요함

○ 증거 기반 정책(EBPM)의 고도화

- 예술 지원의 정당성을 단순한 '지원 필요성'이 아닌, '타 분야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이라는 과학적 데이터로 입증함으로써 정책 예산 확보의 논리적 우위를 점함

■ 추진 목적

○ 이종 데이터 간 결합 표준 매커니즘 확립

- 문화예술 데이터와 행정·경제·사회 통계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융합 프레임워크 설계

○ 예술 가치 입증용 다차원 분석 모델 개발

- 성향점수매칭(PSM), 이중차분법(DiD) 등 고급 통계 기법을 적용한 정책 성과 분석 기반 마련

■ 세부 업무 내용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이종 데이터 결합을 위한 가상 매칭 체계 설계	① **[마이크로데이터 결합 가이드라인]** 속성 데이터와 타 분야(한국복지패널, 경제총조사 등) 간의 결합을 위한 공통 식별자 및 솔티드 해시(Salted Hash) 기반 매칭 프로토콜 정의 1) 솔티드 해시(Salted Hash) 기반 고보안 마이크로데이터 연계 프로토콜 정의 · (다중 식별자 기반 연계 키(Linkage Key) 생성 가이드 수립)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등 산재한 식별 정보를 조합하여 개별 데이터셋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공통 연계 키' 생성 로직을 설계함 · (기관 맞춤형 가변 솔트(Dynamic Salt) 정책 적용) 기관별로 상이한 무작위 값(Salt)을 부여한 후 단방향 암호화(SHA-256)를 수행하여, 데이터 결합 과정에서 원본 식별자가 노출되거나 역산되는 위험을 원천 차단함 · (비식별 결합 지침(PPRL) 표준화) 암호화된 상태에서 해시값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개체를 매칭하는 '보안 기반 기록 결합(Privacy-Preserving Record Linkage)' 기술 규격을 정의하여 데이터 3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2) 타 분야 마이크로데이터(복지·경제 등) 연계용 가상 스키마(Schema) 설계 · (범분야 공통 속성 매핑 테이블 구축) 문화예술 속성 데이터와 한국복지패널(가구 소득, 삶의 질 등), 경제총조사(산업 규모, 고용 등) 간의 교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항목 간의 논리적 연결 고리(가상 스키마)를 구축함 · (가상 결합 존(Virtual Data Room) 운영 프로토콜 설계) 원본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이전하지 않고, 독립된 가상 환경에서 결합 및 분석을 수행한 후 결과값(통계치)만 반출하는 '가상 매칭 워크플로우'를 정의하여 데이터 주권을 보호함 · (데이터 무결성 및 매칭 품질 검증 로직 탑재) 이종 데이터 결합 시 발생하는 오매칭(False Match)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합 결과의 신뢰 수준을 자동 산출하고 보정하는 '지능형 매칭 품질 관리(QA)' 프로세스를 가동함 ② **[데이터 레이크(Data Lake) 아키텍처 설계]** 정형(설문)과 비정형(행정) 데이터를 통합 처리하여 분석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 ETL(추출-변환-적재) 프로세스 설계 1) 하이브리드 데이터 수집(Ingestion) 및 레이크(Lake) 저장 체계 구축 · (다중 소스 데이터 인입 파이프라인 설계) 정형 데이터(CSV, SQL 등)와 비정형 데이터(SNS 텍스트, 이미지, 행정 문서 등)를 실시간 또는 배치(Batch) 방식으로 수집하여, 원본 형태 그대로 저장하는 'Raw Data Zone(Bronze)'을 구축함 · (변경 데이터 캡처(CDC) 기술 적용) 행정 데이터(NCAS, KOPIS 등)의 실시간 변동 사항을 감지하여 레이크에 즉시 반영함으로써, 모집단 정보의 최신성을 상시 유지하는 동기화 체계를 가동함 · (확장형 스토리지 아키텍처 설계) 데이터 규모 급증에 대비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 저장 구조를 채택하고, 데이터의 생애주기(Hot/Cold Data)에 따른 효율적 저장 관리 정책을 수립함 2) 지능형 데이터 변환(Transform) 및 정규화 프로세스 고도화 · (비정형 데이터의 구조화(Refining)) 하베스팅된 비정형 텍스트를 자연어 처리(NLP) 엔진으로 분석하여, 제4장에서 정의한 '다차원 속성 태그'를 부여하고 분석 가능한 정형 테이블 형태(Silver Zone)로 변환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DIC) 기반 자동 매핑) 변환된 데이터를 표준 코드북 규격에 맞게 정제하고, 결측치를 보정하거나 중복을 제거하여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이터 클렌징 모듈'을 가동함 · (솔티드 해시(Salted Hash) 기반 비식별 결합 수행) 결합이 필요한 이종 데이터 간에 암호화된 토큰을 생성하여, 개인정보 노출 없이 개체 간 매칭을 수행하는 보안 결합 공정을 ETL 파이프라인 내에 자동화함 3) 분석용 데이터 마트(Data Mart)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목적별 분석 데이터셋(Gold Zone) 생성) 정책 결정, 학술 연구, 글로벌 보고(UNESCO/OECD) 등 각 용도에 최적화된 형태로 가공된 최종 데이터셋을 생성하여 즉각적인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 (데이터 계보(Data Lineage) 관리) 원천 데이터가 어떤 변환 과정을 거쳐 최종 통계치가 되었는지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여, 통계 결과의 투명성과 재현성(Reproducibility)을 확보함 ·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및 카탈로그 운영) 수집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실시간 점검하고,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데이터 카탈로그'를 제공함
사회·경제적 성과 분석 지표 및 모형 개발	① [문화적 웰빙(Well-being) 측정 모델] 예술 향유 속성과 복지 데이터(우울감, 삶의 만족도 등)를 연계한 인과관계 분석 알고리즘 개발 1) 이종 데이터 연계 기반 '예술-복지' 통합 분석 데이터셋 구축 · (마이크로데이터 결합 및 정제) 문예위의 '지능형 모집단 카드'(예술 향유 속성)와 한국복지패널, 사회조사 등 공신력 있는 복지 데이터(우울감, 고립감, 삶의 만족도 등)를 솔티드 해시 기반으로 결합함 · (향유 속성별 가중치(Feature Weighting) 설계) 단순 관람 여부를 넘어 디지털 향유, 직접 창작, 커뮤니티 활동 등 예술 활동의 '깊이'와 '빈도'에 따른 독립 변수를 정교화함 · (통계적 노이즈 제거 및 통제 변수 설정) 소득 수준, 거주 지역, 연령 등 웰빙에 영향을 주는 외생 변수를 식별하고, 예술의 순수 효과만을 추출하기 위한 통제 변수 세트를 구성함 2) AI 기반 인과관계 분석 알고리즘 및 예측 모델 개발 · (인과추론(Causal Inference) 모델 적용) 단순 상관관계 분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PSM) 및 이중차분법(DID)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예술 활동 전후의 웰빙 변화량을 정밀 측정함 · (성과 측정 수식 모델링) 예술 참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한계 효용을 산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분석 모델을 수립함 $$\Delta \text{Well-being} = \beta_1(\text{Art_Attribute}) + \sum \beta$$ · (딥러닝 기반 웰빙 예측 엔진 구축) 특정 예술 활동군(예: 디지털 미디어아트 체험 등)이 특정 취약 계층의 우울감 감소에 기여하는 정도를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가동함 3) 문화적 웰빙 지수(CWI) 지표화 및 정책 환류 체계 운영 · (표준 문화적 웰빙 지수(CWI) 산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및 지역 단위의 문화적 안녕 수준을 점수화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 통계의 보조 지표로 제안함 · (데이터 기반 맞춤형 문화 복지 큐레이션) 웰빙 지수가 낮은 계층이나 지역을 실시간 식별하여, 효과가 입증된 특정 예술 프로그램을 우선 배분하는 '지능형 정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연동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②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모델]** 예술 활동 속성과 지역 매출 데이터(카드 승인액 등)를 융합하여 예술 활동의 지역 경제 기여도를 산출하는 회귀 분석 프레임워크 구축 1) 예술-상권 데이터 융합 및 공간 단위(GIS) 데이터셋 정교화 · (이종 데이터 공간 결합) '지능형 모집단 카드'의 활동 좌표(LBS)를 중심으로 반경 500m~1km 내의 카드 매출 데이터(업종별 승인액), 유동 인구 데이터, 행정 구역별 사업체 현황을 공간 결합(Spatial Join)함 · (비제도권 활동의 경제적 가중치 설정)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소규모 팝업이나 버스킹 등의 활동이 주변 상권 매출 변화에 미치는 '집객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전처리 공정을 수행함 · (시계열 상권 대조군(Control Group) 설정) 예술 활동이 발생한 시점과 발생하지 않은 동일 조건의 시기(또는 유사 지역)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순수 예술 활동에 의한 매출 증분(Increment)을 추출함 2) 다차원 회귀 분석 프레임워크 및 경제 기여도 산출 로직 설계 ·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s Model) 기반 회귀 분석) 지역적 특성과 시기적 변수를 통제하고 예술 활동의 속성(장르, 규모, 기술 개입도 등)이 주변 매출(Y)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적용함 $$\text{Sales}_{it} = \alpha + \beta(\text{Art_Activity}_{it}) + \gamma(X_{it}) + \mu_i$$ · (매출 유발 계수 및 부가가치 창출액 도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 활동 1건당 주변 상권 매출 유발액'과 '방문객 1인당 지역 내 소비 지출 기여도'를 산출하여 지역 경제 기여도를 정량화함 · (디지털-융복합 예술 특화 분석) 메타버스나 온·오프라인 병행 전시 등 디지털 속성이 강한 활동이 지역 내 물리적 소비에 미치는 보완/대체 효과를 별도 분석함 3) 지역별 경제 파급효과 시각화 및 정책 의사결정 지원 · (인터랙티브 지역 경제 히트맵(Heat-map) 구현) 전국 단위 GIS 기반 대시보드를 통해 지역별 예술 활동의 경제 기여도를 시각화하고, 문화예술 지원이 부족하면서도 경제 파급력이 높은 '전략적 투자 지역'을 추천함 · (공공-민간 상생 모델 성과 지표화) 예술 활동을 통한 상권 활성화 성과를 지표화하여, 향후 지자체나 민간 기업(카드사, 플랫폼사 등)과의 공동 협력 사업이나 예산 매칭의 근거 자료로 활용함
지능형 융합 분석 대시보드 및 리포팅 설계	① **[시각화 분석 모듈]** 속성별로 사회·경제적 성과를 즉각 시각화(Heat-map, Network Analysis)하는 대시보드 인터페이스 설계 1) 속성 기반 실시간 공간·속성 히트맵(Heat-map) 모듈 설계 · (다차원 공간·성과 융합 시각화) '지능형 모집단 카드'의 활동 좌표를 중심으로, 카드 매출(경제) 및 문화 복지 자수(사회) 데이터를 공간 결합하여 격자 단위(100m×100m)의 실시간 히트맵으로 구현함 · (지능형 속성 필터링 및 레이어링) 기술(AI, XR), 플랫폼(메타버스), 경제(NFT) 등 제4장의 다차원 속성별로 사회·경제적 성과 밀집도를 선택적으로 시각화하고, 행정 구역 및 상권 레이어와 중첩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함 · (성과 변화 시계열 시뮬레이션) 과거 활동 데이터와 현재 성과 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특정 기간의 예술 활동이 지역 경제 및 웰빙에 미친 영향을 시계열 히트맵으로 재생(Play-back)하고 미래 성과를 예측 시뮬레이션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2) 융복합 생태계 지능형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모듈 설계 · (장르-기술-성과 간 복합 관계 시각화)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DIC)'의 속성 태그(노드)와 활동 간의 연계성(엣지)을 분석하여, 어떤 장르와 기술이 융합될 때 가장 높은 사회·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지 입체적인 네트워크 그래프로 구현함 · (핵심 노드 및 영향력 분석)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성이 높은 기술이나 장르를 식별하고, 특정 기술(예: 생성형 AI) 도입이 전체 예술 생태계의 융복합 구조와 성과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유동적인 그래프 변화로 시각화함 · (가중치 기반 연결 강도 시각화) 활동 빈도, 경제적 규모, 사회적 웰빙 기여도 등 분석 목적에 따라 네트워크 엣지의 굵기를 동적으로 변화시켜, 핵심적인 성과 경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도록 설계함 3) 반응형 융합 성과 대시보드 인터페이스(UI/UX) 최적화 · (사용자 중심 인터랙티브 UI 설계) 정책 결정자, 연구자 등 사용자별 관심 지표(CWI, 매출 유발 등)를 중심으로 대시보드 레이아웃을 개인화하고, 시각화 요소를 클릭 시 마이크로데이터 단위까지 드릴다운(Drill-down)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함 · (모바일/태블릿 호환 스마트 리포팅) 현장이나 이동 중에도 실시간 성과 데이터를 확인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며, 분석 결과를 PDF/PPT 형식의 자동화된 리포트로 출력하는 기능을 탑재함 ② **[자동 분석 보고서(Auto-Reporting)]** 수집된 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해진 분석 알고리즘에 따라 정책 시사점을 자동 도출하는 시스템 로직 개발 1) 알고리즘 기반 지능형 시사점 도출 엔진(Inference Engine) 구축 · (성과 임계치 기반 자동 진단 로직) 문화적 웰빙 지수(CWI)나 지역 경제 기여도가 설정된 목표치 대비 급등·급감할 경우, 이를 정책적 '이상 징후'로 식별하고 원인 분석 알고리즘을 즉각 가동함 · (비교 분석 기반 상대적 강점·약점 도출) 타 지역 또는 과거 시계열 데이터와 현재 성과를 자동 대조하여, 해당 사업이나 지역의 독특한 성공 요인 및 보완 필요 사항을 수치적 근거와 함께 추출함 · (정책 시나리오 가중치 모델링) 문예위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KPI(예: 디지털 전환율, 청년 예술가 참여도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 결과가 정책 우선순위에 맞게 해석되도록 하는 판단 로직을 탑재함 2) 생성형 AI 및 자연어 생성(NLG) 기술 기반 보고서 자동화 · (텍스트 기반 정책 요약문 생성) 분석된 수치와 도출된 시사점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변환하는 NLG(Natural Language Generation) 엔진을 연동하여, "A 지역은 B 기술 도입으로 인해 전년 대비 상권 매출이 15% 상승했으나, C 계층의 문화 웰빙은 정체됨"과 같은 요약 리포트를 자동 생성함 · (맞춤형 리포트 템플릿 엔진 개발) 국회 보고용, 예산 편성용, 대국민 홍보용 등 각 수신처의 목적에 맞는 보고서 구조를 사전 정의하고,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최신 지표가 반영된 완결형 보고서(PPT, PDF)를 즉시 출력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 (인터랙티브 인사이트 주석(Annotation) 기능) 대시보드 상의 그래프나 표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데이터가 의미하는 정책적 함의를 팝업 형태로 즉각 제시하여 사용자의 데이터 해석 인지 부하를 최소화함 3) 지능형 정책 추천 및 환류 시스템 연동 · (데이터 기반 사업 최적화 제안) 분석 결과 특정 유형의 활동(예: 비제도권 팝업 전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게 나타날 경우, 해당 유형의 지원 예산을 증액하거나 사업 모델을 확산하라는 '정책 제언'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시함 · (실시간 성과 경보 및 모니터링 체계) 주요 지표의 하락이 감지될 경우 실무자에게 즉각적인 알림(Push)과 함께 대응 방안이 담긴 '긴급 분석 리포트'를 자동 발송하는 선제적 모니터링 루틴을 가동함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프레임워크 설계 연구비	이종 데이터 매핑 및 융합 분석 모델 개발 학술 용역	180
데이터 결합 시스템 구축	솔티드 해시 기반 결합 엔진 및 클라우드 데이터 레이크 구축	350
패널 데이터 연계비	타 부처(복지부, 통계청 등) 마이크로데이터 연계 및 구매 비용	100
고급 통계 분석 자문	인과관계 추정 및 구조방정식(SEM) 모델 검증 전문가 자문	70
계		**700**

■ 5개년(2027~2031) 추진 로드맵

구분	1~2년차 (설계 및 연계)	3~4년차 (모델 가동)	5년차 (예측·환류)
핵심목표	융합 프로토콜 및 지표 설계	사회·경제적 성과 시범 분석	AI 기반 정책 예측 시스템 완성
주요과제	• 이종 데이터 매칭 기술 설계 • 문화적 웰빙 지표 체계 확립	• 복지패널 연계 실증 분석 • 예술-경제 융합 대시보드 구축	• 정책 시뮬레이션 모델 고도화 • 글로벌 융합 통계 보고서 발간

■ 성과관리 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	'31년 목표치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이종 데이터 연계 항목 수	50개 이상	문화예술 데이터와 매핑이 완료된 외부 통계 항목(Variable)의 수
분석 결과의 신뢰도(p-value)	0.05 미만	융합 분석 모델의 인과관계 통계적 유의성 확보율
정책 반영 기여도	10건 이상	융합 분석 결과가 실제 문예위 사업 계획 및 예산 확보에 활용된 사례 수

■ 기대효과

○ 예술의 '다차원적 가치' 데이터 증명

- 정교한 속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술이 어떻게 사회적 웰빙을 높이고 경제적 활력을 만드는지 숫자로 증명하여 예술 지원의 사회적 합당성을 확보함

○ 통계의 적시성 및 활용성 극대화

- 사후 통계 작성을 넘어, 이종 데이터 융합 분석을 통해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를 즉각 모니터링하고 미래 정책 수요를 예측하는 '지능형 행정'의 기반을 마련함

○ 글로벌 선도 사례 창출

- UNESCO FCS 2025가 지향하는 '다양한 문화 영역 간의 상호작용 분석'을 세계 최고 수준의 IT·데이터 기술로 구현하여 국제 문화 통계 담론을 주도함

라. [전략과제 4] 분류 체계 현대화 및 검증 고도화

1) (추진과제 4-1) 속성 기반 '다차원 태깅(Multi-dimensional Tagging)' 시스템 도입

■ 추진배경

○ 전통적 장르 분류의 독점적(Exclusive) 분류 한계

- 현행 조사 체계는 하나의 활동에 하나의 장르만을 부여하는 방식이어 장르 간 경계가 모호한 '다원예술'이나 '융복합 프로젝트'가 특정 장르로 강제 귀속되거나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어 데이터의 왜곡과 휘발이 발생함

○ 현대 예술의 복합적 속성 포착 능력 결여

- 디지털 기술, 사회적 메시지, 장소 특정적 성격 등 현대 예술 활동이 내포한 다차원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필드가 부재하여 정책 수요 분석에 한계를 보임

■ 필요성

○ 조사 체계 혁신의 핵심 메커니즘

- '지능형 조사'의 본질은 활동을 칸막이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구성 요소(DNA)를 태깅하는 것임
- 이는 UNESCO FCS 2025가 제안하는 문화 영역의 유연한 확장을 국내 통계에 이식하는 필수 공정임

○ 데이터 활용의 유연성 및 분석 고도화 확보

- 속성 기반 태깅은 데이터의 재조합을 가능케 함. 예를 들어 '미술' 장르 중 '디지털 기술' 속성과 '기후위기 대응' 속성이 태깅된 활동만 즉각 추출하는 등 다차원적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함

■ 추진 목적

○ 조사 포괄성(Coverage)의 획기적 확대

- 시설 중심 집계에서 '예술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여 독립 예술 및 거리 예술을 포용하는 포괄적 수집 체계 구현

○ 객체 중심의 다차원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 단일 분류(Classification) 시스템에서 속성 기반 태깅(Tagging)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데이터의 밀도와 유연성 극대화

○ 지능형 자동 태깅을 통한 데이터 무결성 확보

- 응답자의 주관적 선택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활동 정보를 분석하여 객관적 속성을 부여하는 기술적 정합성 구현

■ 세부 업무 내용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다차원 속성 분류(Taxonomy) 및 코드 체계 수립	① [속성 디렉토리 설계] 기술(AI, XR), 장소(가상, 유휴공간), 사회적 가치(웰빙, 환경), 유통(OTT, NFT) 등 4대 영역 중심의 태그 리스트 구축 1) 4대 핵심 영역 중심의 다차원 속성 디렉토리(Tag Directory) 구축 · (기술(Technology) 속성 체계화) 생성형 AI, 알고리즘 아트, 실감기술(VR/AR/MR/XR), 홀로그램 등 기술의 개입 방식과 본질적 역할을 구분하는 세부 태그 리스트를 설계함 · (공간/장소(Place) 속성 고도화) 메타버스·플랫폼 등 '가상 공간'과 유휴시설·팝업스토어·거리 등 '비전형/유휴 공간' 활동을 식별하기 위한 장소 기반 속성 코드를 정의함 ·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지표 연계) 예술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웰빙), 기후위기 대응(친환경/업사이클링), 지역 소멸 방지 등 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치 중심 태깅 항목을 수립함 · (유통/경제(Distribution) 모델 분류) OTT 스트리밍, NFT 발행, 구독 경제, 크라우드 펀딩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수익 모델과 유통 경로를 포괄하는 경제 속성 체계를 구축함 2) 지능형 속성 위계 및 메타데이터 표준 정의 · (속성 간 계층 구조 설계) 대분류(4대 영역)-중분류(세부 기술/공간 등)-소분류(개별 태그)로 이어지는 위계적 텍소노미를 설계하여 데이터 검색 및 집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속성별 정의서 및 판정 매뉴얼 작성) 각 태그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원이 현장에서 오판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판정 기준과 핵심 키워드를 매칭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DIC) 기초 데이터 연동) 설계된 속성 디렉토리를 코드북 시스템에 탑재하여, 하베스팅된 데이터나 현장 조사 데이터에 즉각적으로 태그가 부여될 수 있는 데이터 스키마(Schema)를 확정함 ② [UNESCO-KSIC 연계 표준화] 각 태그가 국제 표준(FCS) 및 국가 표준(KSIC)과 상거 호환되도록 디지털 코드북 내 매핑 값 설정 1) 국제-국가 표준 분류 기반의 크로스워킹(Cross-walking) 아키텍처 설계 · (UNESCO FCS 2025 디지털 도메인 동기화) 유네스코의 신규 '디지털 창의 영역'과 국내 속성 태그(AI, XR, NFT 등)를 1:1 매핑하여, 국내 통계가 국제 비교 지표로 즉각 변환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수립함 · (KSIC-KSCO 정밀 매칭 테이블 구축)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5단위 및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4단위와 각 속성 태그를 연결하여, 비제도권 활동 데이터가 국가 행정 데이터와 결합될 수 있는 연계 코드를 부여함 · (다중 표준 수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스키마(Schema) 설계) 하나의 속성 태그가 여러 표준 코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다차원 매핑 스키마를 정의하고, 데이터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함 2)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DIC) 내 지능형 매핑 로직 구현 · (속성 기반 자동 코드 할당 엔진 개발) 조사원이 현장에서 특정 속성(예: 메타버스 내 창작 활동)을 태깅하면, 배후에서 유네스코 코드와 KSIC 코드가 자동으로 할당되는 지능형 변환 로직을 탑재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 (유연한 매핑 값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 국제기구나 통계청의 표준 분류가 개편될 경우, 원천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고도 매핑 테이블만 갱신하여 통계의 시계열성을 유지하는 '유연한 매핑 아키텍처'를 가동함 · (코드 일관성 검증 및 예외 처리 모듈 운영) 표준 분류에 명확히 매칭되지 않는 융복합 신기술 속성에 대해 '유사 코드 배분' 또는 '전문가 검토(Manual Review)' 플래그를 자동 생성하여 통계 무결성을 방어함
지능형 자동 태깅 (Auto-Tagging) 엔진 개발	① [자연어 처리(NLP) 기반 속성 추출] 공연/전시 설명문, 기획서 등 텍스트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해당 활동의 주요 속성을 자동으로 제안하는 알고리즘 개발 1) 예술 전문 텍스트 전처리 및 개체명 인식(NER) 모델 고도화 · (문화예술 특화 토큰화(Tokenization)) 공연 시놉시스, 전시 기획서 등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예술 전문 용어와 신기술 명칭(예: 프로젝션 맵핑, 제너레이티브 아트 등)을 정확히 분리해내는 전처리 엔진을 구축함 · (예술-기술 개체명 인식(NER)) 텍스트 내에서 '활동 주체(예술가)', '기술 요소(AI, VR)', '장소(메타버스, 유휴공간)', '장르' 등을 지능적으로 식별하고 분류하는 학습 모델을 가동함 · (텍스트 정규화 및 노이즈 제거) 불필요한 수식어나 광고성 문구를 배제하고, 통계적 가치가 있는 핵심 키워드만을 정제하는 데이터 클렌징 알고리즘을 적용함 2) 맥락 분석 기반 다차원 속성 추론 및 제안 알고리즘 설계 · (의미론적 유사도(Semantic Similarity) 분석) 추출된 키워드가 '다차원 속성 분류(Taxonomy)' 내 어떤 태그와 가장 밀접한지 벡터 임베딩 기술을 통해 계산하고 최적의 태그를 추천함 · (활동 성격 판별 로직 적용) 단순 키워드 매칭을 넘어, 문맥을 분석하여 해당 기술이 단순 관람 도구인지, 창작의 핵심 요소(Born-digital 등)인지를 판별하는 딥러닝 기반의 맥락 추론 로직을 구현함 · (자동 태깅 제안 인터페이스 연동) 조사원이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하베스팅된 데이터가 인입될 때, 시스템이 상위 3~5개의 후보 태그를 신뢰도(Confidence Score)와 함께 제시하여 선택을 돕는 'Human-in-the-loop' 체계를 설계함 ② [다중 속성 매칭 알고리즘] 하나의 활동에 Primary Genre(기존 장르)와 다수의 Secondary Attributes(신규 속성)를 입체적으로 결합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1) 하이브리드 데이터 스키마 기반의 다중 라벨링(Multi-labeling) 로직 구현 · (Primary-Secondary 계층적 구조화) 기존의 단일 장르(Primary Genre) 분류를 유지하면서, 기술·공간·가치·유통 등 다차원 속성(Secondary Attributes)을 무제한으로 중복 매칭할 수 있는 유연한 데이터 스키마를 설계함 · (속성 간 논리적 연관성 가중치 설정) 주 장르와 부가 속성 간의 결합 강도를 분석하여 통계적 기여도를 산출하는 가중치 매트릭스를 적용함 ·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파이프라인) NLP 엔진이 추출한 속성 후보군을 최종 확정하는 즉시, 이를 KSIC(국가산업)·UNESCO(국제표준) 코드와 실시간으로 매핑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데이터 흐름을 구축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2) 지능형 모집단 카드 자동 생성 및 무결성 검증 · (지능형 모집단 카드(Intelligent Population Card) 자동 기입) 매칭된 다중 속성 정보가 개별 예술 활동의 디지털 명세서인 '지능형 모집단 카드' 내 해당 필드에 자동 인입되어, 동태적 모집단(Master Population)을 실시간으로 구성하도록 시스템화함 · (데이터 정합성 자동 스크리닝) 장르와 속성 간의 논리적 모순(예: 고전 공연에 엉뚱한 기술 속성 매칭 등)을 실시간 감지하여 오류를 방지하는 '논리적 정합성 검증 엔진'을 탑재함 · (확률적 매칭기반 데이터 보정) 속성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활동에 대해 유사 개체의 패턴을 기반으로 최적의 속성을 추천하고, 통계적 편향을 최소화하는 보정 알고리즘을 운영함
태깅 기반 지능형 조사표 (e-Questionnaire) 구현	① [적응형 설문 인터페이스 설계] 응답자가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관련 속성 태그가 동적으로 활성화되는 사용자 친화적 스마트 조사 환경 구축 1) 응답 기반 적응형 로직 및 동적 UI 설계 · (조건부 문항 활성화 엔진 구축) 응답자가 '공연' 장르를 선택하면 '실감기술(XR)', '온라인 스트리밍' 등 관련 속성 태그가 나타나고, '시각' 선택 시 'NFT', '메타버스 전시' 태그가 활성화되는 분기 로직을 설계함 · (다차원 속성 클러스터 태깅 UI 구현) 4대 영역(기술, 장소, 가치, 유통)별로 태그를 그룹화하여 시각적으로 배치하고, 클릭 한 번으로 다중 선택이 가능한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함 · (실시간 응답 보정 인터랙션) 응답자가 선택한 태그 간에 논리적 모순이 발생할 경우(예: '오프라인 단독' 선택 후 'OTT 송출' 태그 중복 선택 등), 즉시 안내 팝업을 통해 수정을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로직을 탑재함 2) 입력 부하 저감을 위한 지능형 자동 완성 및 추천 모듈 탑재 · (NLP 기반 속성 자동 제안) 활동 명칭이나 개요를 짧게 입력하면 앞서 개발한 '자동 태깅 엔진'이 배후에서 작동하여 가장 적절한 속성 태그 3~5개를 상단에 우선 추천함 · (컨텍스트 헬프(Contextual Help) 시스템) 각 태그 위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터치할 경우,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DIC)'**에 정의된 쉬운 설명과 예시 이미지가 즉각 표출되어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임 · (개인화된 문항 레이아웃 최적화) 과거 응답 이력이 있는 예술가/단체가 로그인할 경우, 기존 활동 패턴을 분석하여 자주 사용하는 태그를 우선 배치하는 맞춤형 조사 환경을 제공함 ② [데이터 검증 로직 탑재] 선택된 장르와 태깅된 속성 간의 논리적 모순(Logical Conflict)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데이터 입력 오류 원천 차단 1) 장르-속성 간 크로스 체크 논리 엔진 구축 · (상호 배타적/필수적 속성 규칙 정의) 특정 장르 선택 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거나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속성 조합을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DIC)' 기반으로 설정함 (예: '전통 연희' 장르에 'Born-digital' 속성 선택 시 기술적 구현 근거 입력 요구) · (논리적 모순(Logical Conflict) 실시간 감지) 응답자가 태그를 선택하는 즉시 배후의 엔진이 기존 입력값과의 정합성을 계산하여, 모순이 발견될 경우 즉시 플래그(Flag)를 생성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 (데이터 무결성 지수(DCI) 실시간 계산) 입력된 정보의 완결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수치화하여 조사표 상단에 표시함으로써, 응답자가 스스로 데이터 품질을 인지하도록 유도함 2) 지능형 경고(Warning) 및 즉각 보정 인터랙션 설계 · (소프트/하드 밸리데이션(Validation) 차등 적용) 명백한 오류(하드)는 다음 문항 이동을 제한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모호한 조합(소프트)은 "입력하신 속성이 장르 특성과 상이합니다. 다시 확인하시겠습니까?"와 같은 맞춤형 가이드를 제시함 · (오류 원인 및 가이드 자동 생성) 단순히 '오류'라고 알리는 대신, 시스템이 모순의 원인을 분석하여 "현재 선택하신 '메타버스 전시'는 유통 채널 속성에서 '온라인' 태그가 수반되어야 합니다"와 같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함 · (응답 이력 기반 이상치(Outlier) 탐지) 과거 유사 활동 데이터의 패턴과 현저히 동떨어진 속성이 입력될 경우, 이를 지능적으로 식별하여 재확인을 요청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루틴을 가동함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속성 체계 연구비	다차원 속성 정의 및 글로벌 표준 매핑 연구 용역	120
AI 태깅 엔진 개발비	텍스트 분석 기반 속성 자동 추출 NLP 모델 및 알고리즘 개발	250
시스템 통합 구축비	지능형 조사 플랫폼 내 다차원 태깅 모듈 및 DB 아키텍처 구축	300
파일럿 테스트 및 검증	신규 태깅 시스템 적용성 검토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 실사	80
계		**750**

■ 5개년(2027~2031) 추진 로드맵

구분	1~2년차 (설계 및 모델링	3~4년차 (시스템 가동)	5년차 (최적화 및 정착)
핵심목표	**다차원 속성 체계 확립**	**지능형 태깅 플랫폼 런칭**	**태깅 데이터 기반 정책 환류**
주요과제	• 속성 분류 체계(Taxonomy) 구축 • 자동 태깅 알고리즘 설계	• 조사 시스템 내 태깅 모듈 탑재 • 전수 조사 대상 시범 적용	• 다원예술 등 융복합 통계 공식화 • 글로벌 표준 보고서 자동 생성

■ 성과관리 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	'31년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속성 태깅 포괄률	100%	(다차원 속성이 부여된 예술 활동 수 / 전체 조사 활동 수) × 100
자동 태깅 정확도(F1-Score)	0.90 이상	AI 자동 태깅 결과와 전문가 수동 검증 결과 간의 일치도 측정
데이터 분석 활용도	500% 향상	기존 단일 분류 대비 속성 조합을 통한 신규 지표 생산 건수 비교

■ 기대효과

○ 다원예술 및 융복합 활동의 데이터 실체화

- 장르라는 고정된 틀에 갇혀 보이지 않았던 다원예술과 신기술 융합 활동을 속성 단위로 포착함으로써 예술 현장의 실상을 100% 반영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통계 구현

○ 정밀한 맞춤형 예술 지원 정책 수립

- "어떤 장르를 지원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속성(AI, 지역사회 결합 등)을 가진 활동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여 정책의 효율성 극대화

○ 글로벌 통계 패러다임 선도

- UNESCO FCS 2025의 핵심 철학을 가장 앞선 데이터 기술로 구현함으로써, 전 세계 문화예술 통계의 표준을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계기 마련

2) (추진과제 4-2) AI 기반 품질 검증 및 작품 고유 식별(Art-Work ID) 적용

■ 추진배경

○ 통계적 중복 산정(Double Counting)의 구조적 문제

- 동일한 공연이나 전시가 여러 시설 혹은 플랫폼에서 포착될 경우, 이를 단일 활동으로 식별할 기준이 부재하여 통계 수치가 과다 계상되는 오류가 반복됨

○ 데이터 파편화로 인한 이력 관리 불능

- 작품이 창작되어 여러 지역이나 공간으로 유통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고유 식별 체계가 없어, 예술 작품의 장기적 성과나 사회적 확산 경로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함

■ 필요성

○ '지능형 수집 체계'의 품질 필터

- 행정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Harvesting)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AI 품질 게이트' 도입이 필수적임

○ 데이터 자산화 및 가치 추적을 위한 기반

- 모든 예술 활동에 Art-Work ID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문화위성계정(CSA) 수립이나 예술가 권리 보호를 위한 데이터 자산 관리의 기초 인프라를 마련해야 함

■ 추진 목적

○ 지능형 데이터 클렌징(Cleansing) 및 검증 체계 확립

-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오류를 자동 수정하고 무결성을 확보함

○ 국가 수준의 예술 작품 고유 식별 체계(Art-Work ID) 표준화

- 작품별 고유 ID 부여를 통해 데이터 간 연결성을 확보하고 생애주기 기반의 동태적 분석 환경 구축

■ 세부 업무 내용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AI 기반 실시간 데이터 품질 검증(QC) 엔진 개발	① [데이터 무결성 자동 검증] 입력된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의 논리적 오류, 누락, 중복 여부를 AI가 실시간으로 판별하는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알고리즘 구축 1) 멀티모달(Text+Image) 교차 무결성 검증 엔진 가동 · (비전-언어 모델(VLM) 기반 정합성 체크) 업로드된 포스터/사진 내의 텍스트(OCR 추출값)와 입력된 활동 설명문 간의 일시, 장소, 장르 정보가 일치하는지 AI가 실시간으로 대조하여 모순을 발견함 · (이미지 품질 및 유효성 자동 판별) 입력된 이미지가 실제 예술 활동 증빙인지, 혹은 무관한 이미지나 저화질/오류 파일인지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으로 판별하여 부적격 데이터를 즉시 필터링함 · (필수 속성 누락 및 문맥 결측치 탐지) 다차원 속성 체계에 비추어, 활동의 성격을 규명하는 핵심 정보(기술 종류, 유통 방식 등)가 설명문 내에 누락되었는지 문맥 분석을 통해 식별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2) 지능형 데이터 중복 탐지 및 유사도 분석 · (임베딩(Embedding) 기반 고차원 중복 체크) 텍스트의 자구적 일치를 넘어, 의미론적 유사도(Semantic Similarity) 분석을 통해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활동으로 의심되는 레코드를 실시간으로 탐지함 · (공간-시간 근접성 기반 개체 매칭) 동일 장소, 동일 시점에 발생한 서로 다른 출처의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하여, 중복 등록 가능성이 높은 개체에 대해 통합 권고(Merge Suggestion)를 생성함 · (데이터 품질 지수(DQS) 실시간 산출) 무결성, 완결성, 유일성을 종합하여 각 데이터 레코드의 품질 점수를 산출하고, 임계치 미달 시 전송을 차단하거나 보완을 요청함 ② [이상치(Outlier) 필터링] 통계적 범위를 벗어나는 수치나 부적절한 데이터를 사전 차단하여 통계의 신뢰도 확보 1) 다차원 벤치마킹 기반의 수치형 이상치 탐지 로직 · (동적 참조 그룹(Reference Group) 생성) 장르(공연/시각 등), 규모(좌석수/공간 면적), 지역(서울/지방) 등 3개 변수를 조합한 유사 활동군을 자동 생성하여 비교 기준값을 실시간 산출함 · (하이브리드 임계치 판정) 정규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에는 Modified Z-score를, 비정형 분포에는 IQR(사분위수) 방식을 병행 적용하여 '극단적 이상치'를 소수점 단위로 식별함 · (시간 가변적 임계값) 축제 시즌이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6개월 단위로 임계치를 자동 보정하는 Moving Window 로직을 탑재함 2) 머신러닝 기반 '맥락적 이상치(Anomaly)' 탐지 알고리즘 · (Isolation Forest 기반 고차원 상관관계 분석) 단일 수치는 정상이지만 ' 관객 수 대비 티켓 매출액'의 비율이 상식 밖인 경우(예: 관객 10명인데 매출 1억 원)를 잡아내는 비지도 학습 기반 이상 탐지 엔진 가동 · (비예술 데이터 클렌징(NLP Filter)) 하베스팅된 데이터 중 텍스트 분석을 통해 상업적 광고(학원 홍보, 중고 거래)나 예술과 무관한 게시물을 95% 이상의 확률로 사전 차단하는 Binary Classification 모델 적용 3) 행정적 무결성 확보를 위한 '화이트리스트' 및 '사후 검증' 프로세스 · (지능형 경고 시스템) 이상치 발견 시 단순히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필드를 '검토 필요(Pending)' 상태로 즉시 변경하고 조사원 대시보드에 빨간색 플래그를 게시함 · (예외 사례 학습 루틴) 전문가가 "이는 기부금이 포함된 실제 매출임"이라고 확정한 특이 사례는 시스템이 '정상'으로 재학습하여, 향후 유사한 혁신적 예술 모델을 오판하지 않도록 엔진 고도화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작품 고유 식별(Art-Work ID) 체계 설계 및 표준화	① [ID 아키텍처 설계] 장르, 연도, 창작자, 매체 속성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Art-Work ID(예: AW-2026-MUS-001) 생성 규칙 수립 및 표준화 1) 데이터 속성 내포형 세그먼트(Segment) 구조 설계 · (ID 모듈화) 총 20자 내외의 가변형 구조로, [식별자]-[연도]-[장르]-[창작자 해시]-[매체]-[순번]의 세그먼트로 구성함 · (세그먼트 정의: 1. Prefix (2자): AW(Art-Work) 고정 2. Year (4자): 창작 또는 등록 연도 (예: 2026) 3. Genre (3자): 제4장 속성 분류와 연동된 표준 코드 (예: VIS 시각, PER 공연, LIT 문학) 4. Creator Hash (4자): 창작자 고유번호의 Salted Hash 일부값을 사용하여 중복 방지 및 보안성 확보 5. Media/Tech (2자): DP(Digital+Physical), VO(Virtual Only), PO(Physical Only) 등 유통 매체 속성 반영 6. Serial (5자): 연도/장르별 고유 순번 2) 지능형 ID 생성 알고리즘 및 유효성 검증(Checksum) 로직 구축 · (충돌 방지 알고리즘): 대량의 하베스팅 데이터 유입 시 ID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생성 시점에 UUID(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기반의 검증 레이어를 가동함 · (데이터 무결성 검증용 Checksum 탑재) 입력 오류 방지를 위해 ID 마지막 자리에 룬(Luhn) 알고리즘을 응용한 체크섬 비트를 포함함 $$Checksum = 10 - (\sum_{i=1}^{n} f(digit_i) \pmod{10}$$ · (버전 관리 접미사) 수정/보완된 작품의 경우 AW...-001_V2와 같이 이력을 관리하는 계층 구조를 적용함 3) 글로벌 표준(ISWC, ISRC)과의 상호 연계(Cross-referencing) 체계 · (표준 식별자 매핑 테이블 구축) 음악의 ISWC, 도서의 ISBN, 영상의 ISRC 등 기존 국제 표준 식별자가 있는 경우, AWID와 1:1로 매칭되는 '식별자 브릿지 DB'를 설계함 ·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MDR) 연동) AWID 호출 시 작품의 다차원 속성(제4장 내용)이 즉각 호출되도록 API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함 ② [글로벌 표준 연계] ISBN(도서), ISRC(음원) 등 기존 식별 체계와 호환되는 메타데이터 매핑 구조 설계 1) 범분야 식별자 크로스워킹(Cross-walking) 레지스트리 구축 · (식별자 브릿지(Bridge) DB 설계) AWID를 마스터 키로 하여, 작품 성격에 따라 부여된 기존 식별자들(ISBN, ISRC, ISWC, ISCC, DOI 등)을 1:N으로 연결하는 참조 테이블을 구축함 · (중복 개체 식별 알고리즘)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집된 동일 작품이 각기 다른 식별자를 가졌을 경우(예: 동일 도서의 ISBN과 AWID), 메타데이터 유사도 분석을 통해 동일 개체로 판정하고 통합 관리하는 로직을 가동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2) 국제 표준 메타데이터 스키마 호환성 확보 · (표준 메타데이터 매핑 레이어 설계) Dublin Core(범용), LIDO(박물관/전시), ONIX(도서) 등 국제 메타데이터 표준과 AWID 속성 간의 데이터 필드 매핑 규칙을 수립함 · (하이브리드 메타데이터 명세화) 글로벌 공통 필수 항목(창작자, 제목 등)과 문예위 특화 속성(기술/사회적 가치 속성)을 결합한 '문예위형 확장 스키마'를 정의함 3) 실시간 외부 식별자 유효성 검증 API 연동 · (외부 데이터 동기화 파이프라인) 국립중앙도서관(ISBN),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ISRC) 등 유관 기관 시스템과 API를 연동하여, 입력된 외부 식별자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고 최신 메타데이터를 자동 하베스팅함 · (식별자 무결성 검사(Checksum Validation)) ISBN-13 등 외부 식별자의 규칙 준수 여부를 배후에서 자동 체크하여 데이터 오입력을 방지함
이미지·텍스트 매칭 기반 중복 식별 기술 적용	① [AI 비전 기반 중복 판별] 전시 포스터나 공연 실황 사진 등의 시각 정보를 AI가 대조하여, 서로 다른 소스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동일 작품으로 매칭 1) 시각적 특징 추출 및 임베딩(Embedding) 모델 구축 · (예술 이미지 특화 전처리 파이프라인) 수집된 이미지(포스터, 사진 등)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해상도를 표준화하며, 핵심 객체(텍스트 영역, 주요 시각 요소)를 중심으로 크롭(Crop) 및 정규화(Normalization)하는 전처리 엔진을 구축함 · (딥러닝 기반 특징 추출 모델 가동) 사전 학습된 비전 모델(예: ResNet, EfficientNet, 또는 CLIP의 Vision Encoder)을 문화예술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Fine-tuning)하여, 이미지의 고차원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저차원 벡터공간(Vector Space)의 **'임베딩(Embedding)'**으로 변환함 2) 대용량 벡터 유사도 검색 및 하이브리드 판정 로직 설계 · (초고속 유사도 검색 엔진(Annoy/FAISS) 탑재) 수백만 건의 모집단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인입되는 이미지 임베딩 간의 거리(Cosine Similarity 또는 Euclidean Distance)를 측정하기 위한 대용량 벡터 검색 인프라를 구축함 · (포스터-실황 사진 다중 매칭 알고리즘) '포스터 대 포스터'뿐만 아니라, '포스터 내 핵심 그래픽 요소'와 '공연 실황 사진 내 무대 이미지' 간의 부분적 유사도를 분석하여 중복 가능성을 도출하는 다각도 판정 로직을 적용함 3) 최종 개체 매칭(Entity Resolution) 및 품질 관리(QC) 워크플로우 연동 · (확률적 중복 판정 및 화이트리스트 관리) 유사도 점수가 임계치(예: 0.95 이상)를 넘을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동일 작품으로 통합(Auto-Merge)하고, 모호한 구간(0.8~0.95)은 '검토 필요(Pending)' 상태로 전문가 대시보드에 이관함 · (멀티모달 교차 검증 파이프라인) 비전 엔진이 찾아낸 중복 후보군에 대해, 앞서 설계한 [자연어 처리(NLP)] 엔진이 텍스트(장소, 일시, 제목 등)의 유사도를 한 번 더 교차 검증하는 '하이브리드 중복 판정' 체계를 완성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② [개체명 인식(NER) 기반 매칭] 작품명, 출연진, 장소 등이 상이하게 표기된 경우에도 동일 개체임을 인식하는 지능형 매칭 엔진 탑재 1) 문화예술 특화 개체명 인식(NER) 및 속성 추출 · (예술 도메인 NER 모델 최적화) 공연/전시 텍스트에서 인물(PER), 장소(LOC), 작품명(AFW), 단체(ORG), 시간(DAT) 등 핵심 개체를 90% 이상의 정확도로 추출하는 Transformer 기반(RoBERTa 등) 모델을 가동함 · (비정형 텍스트 정규화) 추출된 개체 중 '예술의 전당', '예술의전당', 'SAC' 등을 표준 명칭으로 치환하거나, 날짜 형식을 표준 ISO 규격으로 통일하는 전처리 레이어를 운영함 2) 확률적 개체 매칭 알고리즘 설계 · (차단 기반 연산 최적화)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전수 비교하는 대신, '개최 연도'나 '지역' 등 공통 속성을 기반으로 후보군을 묶어 연산 부하를 최소화하는 인덱싱 기법을 적용함 · (다중 유사도 점수(Multi-Similarity Score) 산출) 단순 자구 일치가 아닌, 아래와 같은 알고리즘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속성별 유사도 점수를 계산함* Jaro-Winkler: 인명, 작품명 등 짧은 텍스트의 오타 및 표기 편차 분석 * Levenshtein Distance : 장소명 등의 편집 거리 측정 * Semantic Embedding : 문맥적 의미가 동일한 경우(예: '가상 전시' vs '메타버스 아트쇼')의 유사도 측정 3) 가중치 기반 최종 개체 통합 로직 · (속성별 가중치(W) 기반 통합 점수(S) 도출) 작품명, 출연진, 장소, 일시 등 각 속성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 합산을 통해 최종 동일성 여부를 판정함 · (동적 임계치 관리) 수집 출처의 신뢰도에 따라 매칭 임계치를 유동적으로 조절하여, 행정 데이터 간에는 엄격하게, 웹 하베스팅 데이터 간에는 유연하게 매칭함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AI 엔진 개발비	이미지·텍스트 매칭 및 품질 검증 AI 모델 학습 및 알고리즘 개발	350
ID 시스템 구축비	Art-Work ID 생성 엔진 및 중앙 관리 DB 구축 (H/W, S/W)	250
식별 체계 표준화 연구	국내외 식별 체계 연계 및 메타데이터 표준화 학술 용역	100
데이터 정제 실사	AI 검증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전문가 수동 검증 및 보정	100
계		**800**

■ 5개년(2027~2031) 추진 로드맵

구분	1~2년차 (기술 설계)	3~4년차 (시스템 연동)	5년차 (표준 확산)
핵심목표	검증 알고리즘 및 ID 표준 수립	지능형 품질 관리 시스템 가동	범국가적 예술 식별 표준 안착
주요과제	• AI 품질 검증 모델 설계 • Art-Work ID 표준안 마련	• 조사 시스템 내 AI 엔진 탑재 • 전수 데이터 대상 ID 부여 시작	• 중복률 0% 지향 데이터 클렌징 • 유관 기관(저작권위 등) ID 공유

■ 성과관리 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	**'31년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통계 중복 제거율	100%	(AI 시스템이 찾아낸 중복 개체 수 / 전체 데이터 중복 추정치) × 100
데이터 QC 자동화율	90% 이상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최종 검증한 데이터 수 / 전체 데이터 수) × 100
Art-Work ID 발급률	100%	(ID가 부여된 유효 예술 활동 수 / 전수 조사 활동 수) × 100

■ 기대효과

○ 통계적 엄밀성 확보 및 중복 오류 원천 차단

- AI 기반의 정밀한 필터링과 고유 ID 적용을 통해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국가 승인 통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킴
- 작품 중심의 종단적(Longitudinal) 분석 실현
- 개별 작품의 확산 경로와 생애주기별 성과를 추적 가능하게 함으로써, '스타 작품'의 탄생과 유통 구조에 대한 과학적 분석 지원
- '지능형 수집 체계'의 완결성 입증
-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본 과제를 통해 정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므로 본 과제는 전체 전략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마지막 퍼즐임

마. [전략과제 5] 조사 실무 역량의 표준화

1) (추진과제 5-1) '문화예술 전담 조사원' 인증제 및 전문 풀(Pool) 운영

■ 추진배경

○ 조사 인력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데이터 왜곡

- 현재 통계 실사는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의 일반 조사원에 의존하고 있어, 현대 예술의 복잡한 양상(융복합, 다원예술 등)을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는 곧 데이터 품질 저하로 직결됨

○ 현장 소통 부재 및 응답 거부감 심화

- 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조사원의 방문은 예술가 및 단체의 조사 피로도를 높이고, 불성실한 응답이나 조사 거부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됨

■ 필요성

○ '지능형 조사 체계'를 운용할 전문 요원 확보

- '다차원 속성 태깅'은 예술적 전문 식견이 요구되는 작업이므로 AI가 1차 태깅한 데이터를 최종 검증하고 보정할 수 있는 '에듀테크(Edu-tech)' 기반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임

○ 통계의 공신력 및 현장 수용성 제고

- '인증받은 전문가'가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통계의 권위를 세우고, 예술가와의 전문적 소통을 통해 데이터의 심층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확보해야 함

■ 추진 목적

○ 문화예술 통계 실사 인력의 전문화 및 정예화

- 인증제 도입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사원을 육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 지속 가능한 데이터 품질 관리(QC) 거버넌스 구축

- 전문 풀(Pool) 운영을 통해 일회성 조사가 아닌,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상시적 통계 모니터링 체계 확립

■ 세부 업무 내용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문화예술 전담 조사원’ 인증 프로그램 개발	① [표준 교육 커리큘럼 설계] UNESCO FCS 2025, 다차원 속성 분류, 예술 장르별 특성, 실사 기법 등을 포함한 전문 교육과정 개발 1) UNESCO FCS 2025 및 국가 분류 체계(KSIC/KSCO) 숙달 · 유네스코의 새로운 ‘디지털 창의 영역과 가치사슬(Creation-Production-Distribution-Consumption) 구조 학습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직업분류(KSCO)와의 연계 원칙 및 크로스워킹 로직 이해 2) 4대 영역(기술, 장소, 가치, 유통) 중심의 속성 분류 체계 학습 · 정의한 AI, XR, 메타버스, NFT 등 신기술 속성별 판정 기준 및 태깅 방법론 실습 · 예술의 사회적 가치(웰빙, 환경 등)를 데이터화하는 객관적 지표 해석 및 적용 기법 3) 전통 장르와 신생 융복합 예술의 경계 분석 · 기초예술(문학, 공연, 시각 등)의 고유 특성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사례 분석 · 비제도권 예술 활동(팝업, 버스킹, 커뮤니티 아트 등)의 식별 및 모집단 포함 기준 학습 4) 스마트 조사표(e-Questionnaire) 및 자동 태깅 엔진 운용 · AI 기반 자동 태깅 제안값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Human-in-the-loop’ 의사결정 프로세스 실습 · 모바일 GPS 연동 및 이미지·텍스트 QC 엔진을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무결성 검증 기법 5) 개인정보 보호 및 예술인 권익 보호 · 데이터 3법에 따른 비식별 처리 원칙과 솔티드 해시(Salted Hash) 기반의 보안 연계 프로토콜 이해 ·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존중하는 현장 인터뷰 매너 및 데이터 활용의 공정성 교육 ② [역량 인증 평가 도입] 교육 이수 후 필기 및 실무 테스트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검증받은 인력에게 ‘문예위 공식 조사원 인증’ 부여 1) 필기 테스트 (Knowledge Check) : 표준 지식 및 윤리 의식 검증 · (국제 표준 숙지) UNESCO FCS 2025의 6대 가치사슬 및 디지털 도메인 분류 원칙에 대한 이해도 측정 · (속성 분류 체계(Taxonomy)) 제4장의 4대 영역 속성별 정의 및 태깅 가이드라인에 대한 객관식/단답형 평가 · (법규 및 보안) 개인정보보호법(비식별 조치 등) 및 통계법 준수 사항에 대한 필수 문항 구성 (과락제 적용) 2) 실무 테스트 (Skill Simulation) : 지능형 조사 시스템 운용 능력 검증 · (e-Questionnaire 숙련도) 적응형 조사표를 활용하여 복합적인 예술 활동 사례를 제한 시간 내에 정확히 입력하는 시뮬레이션 수행 · (Auto-Tagging 검수 역량) AI 엔진이 제안한 태그 중 오류를 찾아내고, 최적의 속성으로 보정하는 ‘지능형 판정’ 실기 평가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 (데이터 QC 대응) 시스템이 제시하는 논리적 모순(Flag) 메시지를 해석하고 즉각적인 현장 보정을 수행하는 역량 측정 3) 인증 부여 및 등급 관리 : '문예위 공식 조사원' 자격 부여 및 모니터링 · (인증서 발급) 평가 합격자에게 블록체인 기반의 위변조 불가능한 디지털 인증서 부여 및 활동 권한 승인 · (등급제 운영) 활동 경력과 데이터 무결성 지수(DQS) 성과를 연동하여 '주니어-시니어-마스터'로 이어지는 전문 조사원 경력 관리 체계 구축 · (정기 보수 교육) 통계 기준 개편 및 신기술 등장 시 인증 유지를 위한 필수 보수 교육 및 재인증(Renewal) 프로세스 가동
지능형 전문 풀(Pool) 관리 시스템(LMS) 구축	① [조사원 이력 관리 시스템] 인증 조사원의 전공, 경력, 지역, 과거 조사 실적 및 품질 점수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과제별 최적 인력 매칭 `1) 다차원 프로파일링 기반의 인적 자원 마스터 데이터 설계 · (역량 인벤토리(Inventory) 구축) 전공(미술, 공연 등), 실무 경력(전시 기획, 현장 실사 등), 활동 가능 지역(GPS 기반) 및 보유 자격(문예위 인증 등급)을 체계적으로 DB화함 · (장르별 전문성 가중치 부여) 특정 장르(예: 디지털 융복합, 비제도권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과거 경력과 인증 시험 성적을 결합하여 지표화하고 이를 검색 필터로 구현함 2) 속성 기반 지능형 인력 매칭(Task-Member Matching) 엔진 · (가중치 기반 추천 로직 개발) 신규 과제의 속성(예: '성북구 지역', '미디어아트', '심층 인터뷰')을 입력하면, DB 내에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상위 인력을 추천하는 엔진 가동 · (가용성 및 효율성 최적화) 조사원의 현재 업무 부하(Workload)와 활동 거점을 고려하여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고 조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풀을 제시함 ② [에듀테크 기반 상시 교육] 신규 예술 트렌드나 조사 지침 변경 시 모바일을 통해 상시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LMS) 운영 1) 마이크로 러닝(Micro-learning) 기반 모바일 학습 환경 설계 · (숏폼(Short-form) 교육 콘텐츠 최적화) 신규 조사 지침이나 특정 기술 속성(예: '생성형 AI 예술의 판정 기준')을 5분 내외의 짧은 영상과 퀴즈로 구성하여 이동 중에도 상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현함 · (반응형 웹 및 앱 인터페이스) 스마트폰, 태블릿 등 기기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지침을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는 모바일 퍼스트(Mobile-first) UI/UX를 제공함 2) 지능형 학습 큐레이션 및 푸시(Push) 알림 시스템 · (맞춤형 교육 과정 추천) 조사원의 주 전공(예: 공연예술)이나 과거 실사 중 발생한 오류 유형을 AI가 분석하여, 보완이 필요한 특정 교육 모듈을 자동으로 추천함 · (지침 변경 실시간 전파) 조사 지침이 업데이트되거나 새로운 예술 장르가 모집단에 추가될 경우, 관련 교육 이수 전에는 조사표 입력이 제한되도록 설정하는 '강제 학습 푸시' 로직을 가동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현장 밀착형 '품질 검증관' 제도 운영	① [현장 데이터 검증 로직] 전담 조사원이 수집한 데이터를 AI 검증 엔진과 교차 확인하고, 불일치 발생 시 전문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재확인하는 2심제 검증 체계 가동 1) AI 조사원 데이터 교차 확인(Cross-Check) 엔진 운영 · (불일치 지수(DI) 실시간 산출) 조사원이 입력한 텍스트/이미지와 AI QC 엔진(제6장 내용)이 하베스팅/분석한 데이터 간의 일치도를 계산하여 '불일치 지수(Discrepancy Index)'를 도출함 · (트리거링(Triggering) 로직) DI 점수가 임계치(예: 0.3 이상)를 초과하거나, 필수 속성(기술, 장르 등)에서 논리적 모순이 발견될 경우 시스템이 즉시 **'검수 대상(Audit-Required)'**으로 분류함 2) 품질 검증관(Quality Controller) 현장 재확인 프로토콜 · (정밀 타격형 현장 실사) 시스템이 분류한 검수 대상 데이터에 대해, 인증 등급 '마스터' 이상의 전담 검증관을 배정하여 실제 예술 활동 현장이나 증빙 서류를 직접 재확인함 · (심층 인터뷰 및 속성 보정) 단순 수치 정정을 넘어, AI나 1차 조사원이 놓친 '예술적 맥락'과 '속성 태깅의 적절성'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최종 판정하고 데이터를 확정함 3) 2심제 기반 데이터 확정 및 피드백 루프 구축 · (최종 승인 프로세스) 1차 조사원과 품질 검증관의 의견이 일치할 때만 데이터를 모집단 카드로 이관하며, 상충 시 관리자 승인을 거치는 엄격한 확정 절차를 수행함 · (조사원 역량 환류) 검증관에 의해 수정된 빈도와 유형을 분석하여 해당 조사원의 품질 점수(DQS)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겟형 보수 교육(LMS)을 자동 연동함 ② [예술가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배포] 예술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여 응답률 및 응답 품질 극대화 1) 현장 특화형 시나리오 기반 대응 로직(Scripting) 개발 · (상황별 표준 대응 스크립트) 응답 거부(개인정보 우려), 조사 이해도 부족(예술적 가치 간과 우려), 바쁜 일정 등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10대 거절 시나리오별 설득 로직 구축 · (예술 도메인 특화 언어 활용) 행정 편의적 용어 대신 '창작 생태계', '예술적 실천', '문화적 기여' 등 예술가에게 친숙한 용어로 통계의 목적을 재정의하는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수립 2) 예술가-검증관 간 '신뢰 형성(Rapport)' 프로토콜 설계 · (데이터 가치 공유 툴킷) "작성하신 데이터가 어떻게 예술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되는지"를 시각화하여 설명하는 리플렛 및 디지털 자료 제공 · (공감 기반 검증 기법) 수치상의 불일치를 지적할 때, 예술가의 창작 의도나 현장 상황을 먼저 청취한 후 데이터 보정을 제안하는 '경청-분석-제안' 3단계 인터뷰 기법 도입 3) 분쟁 관리 및 데이터 보안 소명 프로세스 가동 · (갈등 중재 가이드라인)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대립이나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 검증관용 심리 방어 및 상황 통제 매뉴얼 탑재 · (투명한 정보 처리 고지) 수집된 정보가 앞서 설계한 Art-Work ID 및 Salted Hash를 통해 어떻게 비식별화되어 보호되는지 현장에서 즉각 시연할 수 있는 보안 소명 매뉴얼 제공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인증제 설계 및 연구	전문 조사원 역량 모델링 및 인증 시험 문제 은행 개발	100
LMS 플랫폼 구축	조사원 DB 관리 및 온라인 교육 시스템 개발 (H/W, S/W)	150
교육 및 실습 운영비	권역별 대면 교육, 실습 세미나 및 인증서 발급 비용	100
품질 관리 인센티브	고품질 데이터 생산 조사원 대상 성과급 및 전문직 수당	50
계		400

■ 5개년(2027~2031) 추진 로드맵

구분	1~2년차 (제도 설계)	3~4년차 (인증제 시행)	5년차 (완전 정예화)
핵심목표	인증 기준 및 교육 과정 개발	전문 조사원 1,000명 육성	전담 조사원 100% 투입 체계
주요과제	• 교육 커리큘럼 및 LMS 구축 • 인증 평가지표 설계	• 권역별 인증 교육 및 평가 • 전문 풀(Pool) 가동 및 실사 투입	• 국가승인통계 실사 전담제 시행 • 글로벌 표준 교육 허브화

■ 성과관리 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	'31년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전담 조사원 실사 비중	100%	(인증 조사원이 수행한 조사 건수 / 전체 조사 건수) × 100
실사 데이터 무결성 지수	98% 이상	(전문 조사원 수집 데이터 중 검증 통과 데이터 수 / 전체 수집 데이터 수) × 100
조사 대상자 만족도	90점 이상	조사 완료 후 예술가/단체 대상 조사원 전문성 및 태도 만족도 설문

■ 기대효과

○ 데이터 무결성(Integrity)의 인적 담보

- '다차원 속성 태깅'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확보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수준을 비약적으로 제고함

○ 현장 친화적 조사 거버넌스 확립

- 예술계 생태계를 이해하는 조사원을 통해 현장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보다 깊이 있는 정성적 데이터를 확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

○ 문화예술 통계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

-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예술 데이터 전문가'라는 새로운 전문 직역을 창출하여 문화예술 전공자들의 사회적 진출 경로를 확장함

2) (추진과제 5-2) 지능형 실시간 분류 추천 지원 도구 보급

■ 추진배경

○ 다차원 태깅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입력 난이도 증대

- 새로 도입하는 속성 기반 태깅은 기존 단일 장르 선택 방식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조사원의 숙련도에 따라 동일한 활동에 서로 다른 태그를 부여하는 '분류 불일치' 발생 가능성 상존.

○ 실시간 검증 체계 부재

- 조사 완료 후 사후 정제(Data Cleaning) 단계에서 오류를 수정할 경우, 현장 확인이 불가능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이 훼손되거나 추가 행정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함

■ 필요성

○ '지능형 조사'의 실무적 구현

- AI가 조사표 입력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개입하여 최적의 속성을 추천(Recommendation)함으로써, 조사원의 인지적 부하를 줄이고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무결성(Integrity)'을 확보해야 함

○ 통계 데이터의 상향 표준화(Up-ward Standardization)

- 초보 조사원도 전문가 수준의 태깅을 수행할 수 있도록 AI 지원 도구를 보급하여, 전수 조사 데이터 전체의 질적 수준을 균일하게 유지함

■ 추진 목적

○ AI 기반 실시간 분류 추천 엔진 개발

-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활용하여 활동 명칭 및 설명글로부터 UNESCO FCS 및 다차원 속성값을 추출하여 추천하는 지능형 도구 구축

○ 조사 생산성 및 정합성 극대화

- 실시간 추천 및 오류 체크 기능을 통해 현장 실사 시간을 단축하고 조사 결과의 통계적 정합성을 제고함

■ 세부 업무 내용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LLM 기반 문화예술 속성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	① [문맥 기반 태깅 추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하여 활동 설명 내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디지털 코드북과 매칭하여 상위 3개의 추천 속성 제시 1) LLM 기반 예술-기술 융합 개체 및 맥락 추출(Contextual Extraction)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최적화) 단순 요약을 넘어, 텍스트 내에서 '구현 기술(AI, XR 등)', '공간적 특성(메타버스, 유휴공간)', '사회적 가치(웰빙, 환경)' 등 4대 핵심 영역의 개체를 추출하는 Zero-shot/Few-shot 프롬프트 구조를 설계함 · (의미론적 추론) 직접적인 단어 언급이 없더라도 문맥상(예: "관객이 가상 세계를 유영하며...") 기술적 속성(VR/상호작용)을 유추해내는 딥러닝 기반 맥락 파악 로직을 가동함 2) RAG(검색 증강 생성) 기반 디지털 코드북 매핑 기술 적용 · (코드북 벡터 임베딩) 디지털 코드북의 각 속성 정의와 예시 데이터를 고차원 벡터로 변환하여 벡터 데이터베이스(Vector DB)에 구축함 · (의미론적 유사도 매칭) 추출된 핵심 문맥과 코드북 내 속성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닌 표준 태그를 실시간으로 탐색함 3) 지능형 상위 3개 속성 제안 및 신뢰도(Confidence) 산출 · (Top-K Ranking 알고리즘) 매핑된 속성 중 유사도 점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를 선별하고, 각 추천 태그가 원문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신뢰도 점수(Confidence Score)를 함께 제시함 · (설명 가능한 AI(XAI) 기능 탑재) 왜 이 태그가 추천되었는지 해당 문구(예: "본문 중 '실시간 렌더링' 기반의 표현이 XR 속성에 해당함")를 하이라이트하여 조사원의 판단을 지원함 ② [기술·장르 매핑 최적화] 특정 기술(예: XR, 메타버스) 언급 시 관련 디지털 예술 속성 및 KSIC 연계 코드를 즉각 제안하는 추천 로직 탑재 1) 기술-예술 속성 간 온톨로지(Ontology) 기반 추론 엔진 구축 · (기술-속성 연관 그래프 설계) 'XR' 언급 시 '실감형 콘텐츠', '상호작용성', '가상 전시' 등 다차원 속성들과의 상관관계를 정의한 지식 그래프를 LLM에 학습시킴 · (컨텍스트 기반 기술 성격 판별) 동일한 'AI' 기술이라도 '창작 도구'로 쓰였는지 '큐레이션'에 쓰였는지를 문맥으로 판별하여 서로 다른 속성 태그를 매칭함 2) 디지털 코드북(DIC) 기반 KSIC/UNESCO 표준 코드 자동 매핑 · (실시간 코드 크로스워킹) 선택된 디지털 예술 속성이 국가 통계(KSIC) 및 국제 표준(UNESCO FCS)의 어떤 분류 코드와 매핑되는지 즉각 산출하는 룩업(Look-up) 엔진 가동 · (다중 코드 추천 알고리즘: 복복합 활동의 경우, 주 장르와 기술 속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통계적 적합성을 가진 상위 코드셋을 확률 기반으로 제시함 3) 지능형 코드 제안 인터페이스 및 근거 제시 · (즉각 제안 UI 구현) 조사원이 텍스트를 입력하는 도중 기술 키워드가 감지되면, 우측 패널에 관련 속성 태그와 표준 코드를 '추천 칩(Chip)' 형태로 즉시 팝업함 · (매핑 근거 명시) "해당 활동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 활동이므로 KSIC 71531(예술 전문 디자인업)과 연계될 가능성이 85%입니다"와 같은 논리적 근거를 함께 제공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적응형 지능형 조사 인터페이스 (Smart UI/UX) 보급	① [실시간 추천 위젯 구현] 모바일 및 웹 조사표 작성 중 텍스트를 입력하면 우측에 추천 속성과 근거가 팝업으로 노출되는 사용자 친화적 UI 보급 1) 텍스트 감지 기반 동적 추천 위젯(Dynamic Suggestion Widget) 개발 · (실시간 스트리밍 매칭) 응답자가 설명문(시놉시스, 기획서 등)을 타이핑하는 즉시, 배후의 LLM 엔진이 키워드를 가로채어 최적의 속성 태그를 우측 플로팅 위젯에 팝업함 · (컨텍스트 하이라이팅) 추천된 태그와 관련된 본문 내 핵심 문구(예: "VR 기기 활용")를 형광펜 효과로 강조하여, 추천의 맥락을 시각적으로 즉각 인지하게 함 2) 설명 가능한 AI(XAI) 기반 추천 근거(Rationale) 패널 설계 · (지능형 근거 제시) 단순히 태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메타버스 내 공연' 문구를 근거로 '가상 공간' 속성을 92% 확률로 추천합니다"와 같은 논리적 설명을 툴팁(Tooltip) 형태로 노출함 · (코드북 연동 상세 가이드) 추천 위젯 내 '상세 보기' 클릭 시,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DIC)의 해당 정의와 유사 사례(Best Practice)를 즉시 호출하여 판단을 지원함 3) 반응형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최적화(Mobile & Web) · (모바일 터치 최적화) 현장 실사 중인 조사원이 스마트폰으로 입력할 때, 엄지손가락 범위 내에서 추천 태그를 선택(One-tap tagging)할 수 있는 하단 슬라이드 업(Slide-up) UI를 제공함 · (개인화된 대시보드 연동) 조사원별 주로 사용하는 장르나 기술 속성을 학습하여, 해당 인력에게 최적화된 위젯 레이아웃과 우선 추천 순위를 배정하는 맞춤형 UX를 가동함 ② [논리 체크 자동화] 선택된 장르와 입력된 내용 간 모순 발생 시(예: 장르는 문학이나 속성은 무용 공연 선택 등) 경고 알림 및 수정 제안 기능 작동 1) 상호 배타적/필수적 조합 규칙(Rule-base) 엔진 탑재 · (DIC 기반 제약 조건 설정)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DIC)에 정의된 장르별 허용 속성 매트릭스를 시스템에 내재화함 (예: '문학' 장르 선택 시 '무용 무대 장치' 속성 선택 불가 로직) · (교차 검증 엔진 가동) 선택된 상위 장르(G)와 하위 다차원 속성(A) 집합 간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경우 즉시 플래그(Flag)를 생성함 2) 실시간 하드/소프트 밸리데이션(Validation) 및 경고 UI · 단계별 경고 시스템 1. Hard Error (차단): 명백한 논리적 모순 시 다음 문항 이동을 제한하고 즉각 수정을 요구함 2. Soft Warning (권고): 가능성은 낮으나 성립할 수 있는 조합(예: 시각예술 속성의 공연) 시 "특이 사례입니까?"라는 확인 팝업 노출 · (시각적 강조) 모순이 발생한 입력 필드를 붉은색 보더(Border)로 강조하고, 해당 항목 옆에 느낌표 아이콘을 띄워 인지력을 높임 3) 지능형 오류 원인 분석 및 최적 수정안 제안 · (수정 가이드 자동 생성) "현재 장르가 '문학'으로 설정되어 있어 '무용' 관련 속성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장르를 '공연'으로 변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속성을 '문학 행사'로 수정하시겠습니까?"와 같은 구체적 해결책 제시 · (NLP 연동 문맥 재검증) 텍스트 설명문 내용을 분석하여, 장르 선택이 잘못되었는지 속성 선택이 잘못되었는지 AI가 판단하여 가장 확률 높은 수정 방향(Confidence-based Suggestion)을 우선 추천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현장 피드백 연계형 AI 학습 루프 구축	① [조사원 피드백 수집] AI 추천 결과에 대해 전문 조사원이 수정한 내역을 데이터화하여 추천 엔진의 정확도를 높이는 지속적 학습(Continual Learning) 체계 가동 1) 조사원 수정 행위 로그(Log)의 정밀 데이터화 · (수정 이력 추적) AI가 제안한 상위 3개 속성 중 조사원이 무엇을 채택했는지, 혹은 제안 외의 다른 태그를 직접 입력했는지를 초 단위 로그로 기록함 · (거부 사유 데이터셋 구축) 단순 수정에 그치지 않고 "장르적 특수성 미반영", "신기술 용어 오인식" 등 수정 사유를 선택하게 하여 AI가 자신의 '오답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레이블링 데이터를 확보함 2)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 기반 데이터 선별 및 정제 · (불확실성 샘플링) AI가 추천 신뢰도(Confidence)가 낮았던 데이터 중 조사원이 대폭 수정한 케이스를 '우선 학습 대상'으로 자동 분류함 · (고품질 학습 데이터셋 생성) 마스터 등급 조사원이 최종 확정한 데이터를 AI의 새로운 표준 정답지로 전환하여 학습용 데이터 저장소(Feature Store)에 적재함 3) 점진적 가중치 업데이트 및 모델 재학습 · (인증 조사원 가중치 기반 학습) 품질 점수(DQS)가 높은 숙련된 조사원의 수정 내역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전문성 가중치 학습' 로직을 적용함 · (온라인 학습 파이프라인) 전체 모델을 다시 만드는 대신, 새로 유입된 피드백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미세 조정하는 증분 학습(Incremental Learning)을 통해 엔진의 정확도를 실시간으로 보정함 ② [예외 사례 관리] 추천이 어려운 신규 융복합 형태 발견 시 중앙 통계 품질 관리팀으로 실시간 전송되어 표준 코드북 업데이트에 반영 1) 저신뢰도 및 미분류 개체 자동 식별 로직 가동 · (임계치 기반 트리거링) LLM 추천 엔진의 신뢰도 지수(Confidence Score)가 극히 낮거나(< 0.4), 추출된 키워드가 기존 코드북의 어떤 범주와도 매핑되지 않는 '미식별 활동'을 실시간 포착함 · (긴급 에스컬레이션 파이프라인: 현장 조사원이 '신규 유형'으로 플래그를 설정하거나 시스템이 이상치로 판단한 데이터를 중앙 통계 품질 관리팀(CQM) 대시보드로 즉각 전송함 2) 중앙 품질 관리팀(CQM) 기반 전문가 정밀 심의 · (다차원 정밀 분석) 관리팀의 예술·기술 전문가들이 전송된 예외 사례의 기획서, 실황 이미지, 기술 구현 방식을 분석하여 이것이 일시적 현상인지, 새로운 통계 범주(Category)로 정의될 가치가 있는지 심의함 · (임시 코드 부여) 표준 개편 전까지 통계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사례에 대한 임시 속성 코드를 발급하고 조사 현장에 즉시 하달함 ③ 표준 디지털 코드북(DIC) 업데이트 및 전역 배포 · (온톨로지 확장) 심의 결과에 따라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DIC)의 계층 구조를 수정하거나 신규 속성을 추가함 · (AI 재학습 및 시스템 동기화) 업데이트된 코드북을 기반으로 AI 추천 엔진을 재학습시키고, 모든 조사원의 스마트 UI 위젯에 변경된 지침과 추천 로직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OTA)함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AI 엔진 개발비	문화예술 특화 NLP 알고리즘 개발 및 LLM 튜닝 비용	300
시스템 통합 및 UI 개발	스마트 조사 플랫폼 내 실시간 추천 위젯 및 API 연동 구축	200
디지털 코드북 연동	표준 분류 체계와 AI 엔진 간 매핑 DB 동기화	50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전담 조사원 대상 AI 도구 활용법 교육 및 현장 적용 가이드 제작	50
계		600

■ 5개년(2027~2031) 추진 로드맵

구분	1~2년차 (기술 개발)	3~4년차 (현장 보급)	5년차 (고도화)
핵심목표	추천 알고리즘 및 UI 프로토타입 개발	전수조사 대상 AI 지원 도구 적용	자가 학습형 지능형 도구 완성
주요과제	• 문화예술 특화 NLP 모델 설계 • 스마트 조사 UI 시연 버전 구축	• 전체 조사원 대상 모바일 도구 배포 • AI 추천 정확도 1차 검증	• 전문가 피드백 기반 엔진 고도화 • 다국어 버전(국제 표준 보고용) 개발

■ 성과관리 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	'31년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AI 추천 채택률	85% 이상	(AI가 추천한 속성을 조사원이 그대로 수용한 건수 / 전체 추천 건수) × 100
조사 1건당 소요 시간	20% 단축	(지원 도구 도입 전 평균 조사 시간 - 도입 후 조사 시간) / 도입 전 시간
데이터 분류 일치도	95% 이상	서로 다른 조사원이 동일 활동을 입력할 때 부여하는 속성값의 일치 확률

■ 기대효과

○ 조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

- AI 지원 도구를 통해 조사원의 숙련도 격차를 해소하고, '다차원 속성 태깅'의 정확도를 국가 승인 통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함

○ 행정 효율성 및 비용 절감

- 현장에서 데이터 오류를 실시간으로 교정함으로써 사후 검증 비용을 최소화하고 통계 공표 시차(Time-Lag)를 획기적으로 단축함

○ 스마트 문화행정의 선도 모델 제시

- AI 기술을 통계 실사 과정에 직접 도입한 선진 사례로서, UNESCO 등 국제기구에 대한민국의 통계 수집 지능화 성과를 홍보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함

바. [전략과제 6] 시설 및 행정 데이터 통합

1) (추진과제 6-1) 범기관 실시간 데이터 수집(API) 허브 구축

■ 추진배경

○ 데이터 사일로(Data Silo)로 인한 국가 통계의 파편화

- 현재 문화예술 관련 데이터는 문예위(중앙), 지역재단(지역), 국세청(행정), 민간 플랫폼(시장) 등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를 실시간으로 통합 수집할 수 있는 기술적 접점(Gateway)이 부재함

○ 수기 및 사후 수집 방식의 시의성 한계

- 기존의 연 단위 배치(Batch) 수집 방식은 데이터의 최신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이는 정책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통계적 적시성(Timeliness) 결여의 원인이 됨

■ 필요성

○ '지능형 수집 체계'의 기술적 관문

- '실시간 조사 및 속성 태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데이터를 표준화된 규격으로 자동 흡수하는 표준 API 허브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 통계 생산의 자동화 및 행정 비용의 혁신적 절감

- 부처 및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자동화함으로써, 중복 조사를 방지하고 통계 생산 과정에서의 인적 오류와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함

■ 추진 목적

○ 국가 문화예술 데이터 표준 연계 망(Hub) 구축

- 공공과 민간의 이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가공·배포하는 지능형 데이터 허브 구현

○ 데이터 무결성 기반의 마스터 모집단 상시 현행화

- 실시간 API 연동을 통해 예술 활동의 발생부터 종료까지 전 생애주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동태적 모집단 체계 완성

■ 세부 업무 내용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표준 API 게이트웨이 및 연계 아키텍처 설계	① [표준 프로토콜 수립] RESTful API, GraphQL 등 최신 웹 기술 기반의 표준 데이터 송수신 규격(Standard Protocol) 정의 및 기관별 커스텀 커넥터 설계 1)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RESTful & GraphQL) 규격 정의 · (RESTful API 표준화) 자원 기반(Resource-oriented) 엔드포인트를 설계하고, JSON 형식의 표준 데이터 스키마를 정의하여 범용적인 데이터 연동성을 확보함 · (GraphQL 기반 정밀 쿼리 최적화) 작품-창작자-장소 등 복잡한 관계형 데이터 조회 시, 필요한 필드만 선택적으로 호출(Over-fetching 방지)할 수 있는 유연한 쿼리 레이어를 구축함- API 명세 자동화: Swagger/OpenAPI 3.0을 활용하여 외부 기관 개발자가 즉시 연동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실시간 업데이트 명세 시스템 구축 2) 기관별 맞춤형 '커스텀 커넥터(Custom Connector)' 설계 · (어댑터 패턴 적용) 구형 시스템(Legacy)을 사용하는 기관의 XML/CSV 데이터를 우리 시스템의 표준 JSON-LD(Linked Data)로 실시간 변환하는 기관별 전용 커넥터를 개발함 · (지능형 하베스팅 스케줄러) 기관별 서버 부하를 고려하여 데이터 갱신 주기(실시간/배치)를 동적으로 조절하는 큐잉(Queueing) 엔진을 탑재함 ③ 안정적 연계 거버넌스를 위한 트래픽 제어 및 보안 · (API 게이트웨이 통합 관리) 모든 외부 호출에 대해 인증(OAuth 2.0), 인가, 할당량 제한(Rate Limiting)을 일괄 적용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방어함 · (연계 가동률(A) 모니터링) 각 기관과의 연결 상태를 실시간 체크하고, 장애 발생 시 즉시 백업 경로로 전환하는 Fail-over 로직 가동 ② [데이터 스키마 표준화] 유네스코(FCS 2025) 및 다차원 속성 태깅 체계에 맞춘 표준 데이터 스키마 및 매핑 테이블 구축 1) UNESCO FCS 2025 연계형 하이브리드 메타데이터 스키마 설계 · (글로벌 표준 레이어) UNESCO FCS 2025의 6대 가치사슬(창작-생산-보급-유통-전시-교육)과 디지털 도메인을 수용하는 핵심 필드(Core Fields)를 정의함 · (다차원 속성 레이어) 기술(AI/XR), 공간(메타버스/유휴공간), 사회적 가치(웰빙/환경) 속성을 수용하는 확장 필드를 설계하여 JSON-LD(Linked Data) 형식으로 구조화함 2) 이기종 데이터 간 크로스워킹(Cross-walking) 매핑 테이블 구축 · (표준 코드 매핑 로직) 외부 기관의 기존 분류(예: 도서 ISBN 분류, 음원 ISRC 분류)를 우리 시스템의 Art-Work ID 속성 및 KSIC 코드로 1:1 또는 1:N 매핑하는 전환 테이블을 생성함 · (속성 가중치 기반 변환 엔진) 출처별로 상이한 데이터 정밀도를 고려하여, 외부 데이터를 표준 스키마로 변환 시 데이터 신뢰도(DQS)를 자동으로 차등 부여하는 로직을 탑재함 3) 시맨틱(Semantic) 데이터 사전 및 온톨로지 관리 · (표준 용어 사전(Taxonomy) 관리) 동일한 의미의 서로 다른 용어들을 하나의 표준 개념(Concept)으로 묶어 관리하는 데이터 사전을 구축하여 API 연동 시 용어 혼선을 방지함 · (스키마 거버넌스 자동화)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의 변경이나 신규 예술 속성 발생 시, 전체 시스템의 API 스키마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연계 기관에 통보하는 버전 관리(Versioning) 체계를 운영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ETL(추출·변환·적재) 구축	①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 Kafka 등 대용량 분산 메시징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만 건의 실시간 활동 데이터를 지연 없이 허브로 흡수하는 파이프라인 구축 1) 분산 메시징 플랫폼(Apache Kafka/Pulsar) 클러스터 설계 · (고가용성 토픽 구조화) 장르별, 기관별, 데이터 성격(정형/비정형)별로 메시지 토픽을 세분화하여 데이터 병목 현상을 방지함 · (브로커(Broker) 및 파티셔닝(Partitioning) 최적화) 초당 수만 건의 데이터 유입 시에도 데이터 손실 없이 병렬 처리가 가능하도록 멀티 브로커 및 파티션 분산 전략을 수립함- 주키퍼(Zookeeper)/KRaft 기반 관리: 클러스터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Fail-over)되는 안정적 운영 환경을 구축함 2) 멀티 소스 데이터 프로듀서 및 수집 에이전트 개발 · (소스별 맞춤형 인입 로직) 공공 API, SNS 하베스팅 엔진, 스마트 조사표(Smart UI) 등 다양한 출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Kafka 프로듀서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어댑터를 가동함 · (데이터 직렬화 표준화) 전송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Avro 또는 Protobuf 형식을 적용하여 데이터 크기를 최소화하고 스키마 호환성을 유지함 3) 실시간 스트림 처리 레이어 가동 · (KsqlDB/Kafka Streams 기반 전처리) 데이터가 저장소에 담기기 전, 실시간으로 결측치를 체크하거나 중복 데이터를 1차 필터링하는 '인-플라이트(In-flight)' 처리를 수행함 · (실시간 처리 성능(T) 및 지연 시간(L) 모니터링) 시스템의 처리 능력을 아래 지표로 상시 관리하여 무지연(Zero-latency) 환경을 유지함 ② [자동 정제 및 변환] 수집된 원시 데이터(Raw Data)를 제4장의 디지털 코드북에 따라 표준 코드로 자동 변환하고 비식별화(솔티드 해시) 처리하는 지능형 ETL 프로세스 가동 1) 원천 데이터 자동 정제(Data Cleaning) 및 정규화 · (결측치 및 노이즈 제거) 수집된 데이터 중 필수 항목(일시, 장소 등)이 누락되었거나 중복된 레코드를 AI 필터로 1차 스크리닝함 · (포맷 표준화) 각기 다른 날짜 형식, 주소 체계, 기관별 명칭 등을 우리 시스템의 표준 규격으로 자동 통일하는 데이터 정규화(Normalization) 수행 ② 디지털 코드북(DIC) 기반 지능형 속성 변환 · (코드북 연동 자동 태깅) 텍스트 분석(NLP) 결과와 제4장 디지털 코드북을 대조하여, 'XR 전시' → '기술속성:실감형', '문학 팝업' → '공간속성:비제도권' 등으로 표준 코드를 자동 매핑함 · (통계 분류 자동 할당) 변환된 속성을 바탕으로 국가 통계(KSIC) 및 유네스코(FCS) 코드를 하이브리드로 생성하여 적재함 ③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보안 처리 · (솔티드 해시(Salted Hash) 적용) 예술가 성명, 연락처 등 민감정보를 고유의 '솔트(Salt)'값과 결합하여 해싱함으로써, 원본 추측이 불가능하면서도 동일 인물 여부는 식별 가능한 **가상 식별자(Virtual ID)**를 생성함 · (민감 데이터 마스킹) 주소지의 상세 지번이나 상세 생년월일 등을 통계 분석에 필요한 수준(예: 시·군·구 단위, 연령대)으로 범주화(Generalization) 처리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범기관 데이터 통합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관리	① [데이터 헬스체크 대시보드] 기관별 데이터 연계 상태, 트래픽, 수집 에러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품질 이상 시 즉각 알림을 발송하는 관제 시스템 운영 1) 기관별 연계 가동성 및 성능 실시간 모니터링 · (엔드포인트(Endpoint) 상태 감시) 각 연계 기관 API의 활성화 상태와 응답 시간(Latency)을 초 단위로 체크하여 시각화함 · (트래픽 부하 분석)실시간 데이터 유입량과 서버 자원(CPU/RAM) 점유율을 분석하여, 병목 현상 발생 시 유입 속도를 조절하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로직을 가동함 2) 지능형 품질 이상 탐지 및 자동 경보(Alerting) 시스템 · (데이터 변동성 체크) 평소보다 급격히 적거나 많은 데이터가 유입될 경우(예: 평시 100건 → 0건 또는 10,000건), 데이터 오염으로 판단하여 즉각 관리자에게 푸시 알림을 발송함 · (데이터 무결성(Integrity) 지수 산출) 유입 데이터의 결측치 비율, 스키마 불일치율 등을 종합하여 기관별 '데이터 건강 점수(Health Score)'를 실시간 계산함 3) 통합 관제 대시보드(Single Pane of Glass) 구현 · (지리 정보 시스템(GIS) 연동) 전국 지도를 기반으로 어느 지역, 어느 기관에서 데이터가 원활히 수집되고 있는지 시각적 직관성을 극대화한 UI 제공 · (장애 이력 및 품질 통계 리포트) 기관별 장애 빈도, 평균 복구 시간(MTTR), 데이터 정확도 추이를 주/월간 단위로 자동 생성하여 거버넌스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함 ② [권한 및 보안 관리] 기관별 데이터 접근 권한을 세분화(Role-based Access Control)하고,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이력 관리(Audit Trail) 적용 1) 역할 기반 접근 제어(RBAC) 및 세밀한 권한(Granular Access) 설계 · (기관별 역할 계층화) '데이터 제공기관', '분석 연구진', '운영 관리자', '일반 사용자' 등 역할별로 데이터 접근 범위(Read, Write, Update, Delete)를 엄격히 분리함 · (객체 수준(Object-level) 보안) 단순 시스템 접속 권한을 넘어, 특정 장르나 특정 지역 데이터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 행(Row) 및 열(Column) 단위의 보안 필터링을 적용함 2) 블록체인 기반 불변적 이력 관리(Immutable Audit Trail) 구축 ·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기반 로깅) 모든 데이터 접근, 수정, 반출 이력을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하여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신뢰의 기록'을 생성함 ·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연동) 데이터 활용 목적이 사전에 정의된 규약에 부합할 때만 데이터가 해제(Decryption)되는 자동화된 거버넌스 로직을 탑재함 · (무결성 검증 로직) 각 트랜잭션은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포함하여 체인화됨 3) 데이터 주권 보호 및 소유권 증명(Data Sovereignty) 강화 · (기관별 데이터 영토권 보장) 데이터가 통합 허브에 모이더라도, 원천 소유권은 제공 기관에 있음을 증명하는 디지털 인장(Digital Seal)을 모든 레코드에 부여함 · (실시간 보안 위협 탐지(IDS)) 비정상적인 대량 데이터 조회나 권한 외 접근 시도를 AI가 탐지하여 즉각 해당 계정을 잠금 처리하는 자동 방어 시스템 가동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허브 시스템 구축비	API 게이트웨이, 메시징 큐, 서버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400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발	지능형 ETL 엔진 및 실시간 데이터 변환 알고리즘 개발	150
보안 및 비식별화 솔루션	솔티드 해시 연동 및 접근 제어 보안 시스템 도입	100
연계 표준화 컨설팅	범기관 데이터 스키마 표준화 및 API 명세서 제작	50
계		700

■ 5개년(2027~2031) 추진 로드맵

구분	1~2년차 (설계 및 연계)	3~4년차 (허브 가동)	5년차 (지능형 고도화)
핵심목표	표준 규격 수립 및 주요 기관 연계	실시간 데이터 허브 런칭	AI 기반 자동 연계 최적화
주요과제	• 표준 API 명세서 및 거버넌스 수립 • 국세청, KOPIS 등 핵심 DB 연계	• 전용 API 허브 플랫폼 구축 • 조사 시스템과 실시간 동기화	• 민간 플랫폼 연계 확대(30개사 이상) • 데이터 자동 매핑 AI 고도화

■ 성과관리 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	'31년 목표치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율	99% 이상	(실시간 API로 수집된 데이터 수 / 전체 수집 대상 데이터 수) × 100
데이터 연계 지연 시간(Latency)	5분 이내	원천 데이터 발생 시점부터 허브 적재 완료 시점까지의 평균 소요 시간
API 허브 가용성	99.9% 이상	시스템 연간 가동 시간 및 무장애 운영 리포트 분석

■ 기대효과

○ 통계 생산 패러다임의 혁명적 전환

- 사후 수집에서 '실시간 자동 흡수' 체계로 전환하여, 혁신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술적 혈관을 완성함

○ 정책 대응의 민첩성 확보

-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던 통계 공표 주기를 분기 혹은 월 단위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예술 생태계 현안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즉각적 정책 환류 달성

○ 글로벌 통계 표준의 기술적 선도

- UNESCO FCS 2025를 실제 실시간 API 허브로 구현한 세계 최초의 사례를 제시하여, 문화예술 통계의 디지털 전환(DX) 리더십 확보

2) (추진과제 6-2) 표준 행정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보급

■ 추진배경

○ 데이터 전송 규격의 비표준화로 인한 연계 비용 증대

- 현재 유관기관 및 지역재단 간 데이터 송수신 시 엑셀(Excel), CSV, 수기 명부 등 서로 다른 포맷을 사용함에 따라, 수집 허브에서의 데이터 파싱(Parsing) 및 정제 과정에 과도한 행정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데이터 전송 과정의 보안 및 무결성 취약

- 표준화된 전송 프로토콜 부재로 인해 전송 중 데이터 누락이나 변조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 데이터 처리 시 보안 사고의 위험이 상존함.

■ 필요성

○ '지능형 수집 체계'의 데이터 고속도로 개통

- 실시간 지능형 조사가 가능하려면, 원천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들이 동일한 규격으로 데이터를 밀어 넣어주는 '표준 인터페이스(Standard Interface)' 보급이 필수적임

○ 행정 데이터 연계의 확장성 확보

- 표준 프로토콜이 보급되면 신규 연계 기관이 추가될 때마다 별도의 개발 없이 즉시 시스템 연결이 가능해져, 전국 단위의 마스터 모집단 구축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

■ 추진 목적

○ 문화예술 행정 데이터 표준 전송 규격(Art-Protocol) 확립

- 데이터 구조(Schema), 전송 방식(REST API 등), 보안 규약을 표준화하여 기관 간 데이터 호환성 극대화

○ 연계 기관의 기술적 장벽 제거 및 보급 확산

- 표준 가이드라인과 기술 지원 도구(SDK)를 배포하여 유관 기관이 손쉽게 데이터 연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세부 업무 내용

<table>
<tr><th>세부 과제</th><th>실행 업무 내용</th></tr>
<tr><td>표준 데이터 스키마 및 메타데이터 정의</td><td>
① [표준 데이터 구조 설계] 다차원 속성 태깅에 최적화된 JSON/XML 기반의 표준 데이터 스키마 설계 (활동명, 장소, 일시, 참여 속성 등 필수 필드 정의)
· 표준 데이터 구조 명세
<table>
<tr><th>필드 그룹</th><th>세부 필드명 (Technical Key)</th><th>데이터 타입</th><th>설명 및 제약 조건</th></tr>
<tr><td>1. 고유식별자</td><td>awid (Art-Work ID)</td><td>String</td><td>[필수] 앞서 설계한 하이브리드형 고유 번호 (PK)</td></tr>
<tr><td rowspan="2">2. 기본 활동 정보</td><td>activity_name</td><td>String</td><td>[필수] 활동(작품/공연/전시)의 공식 명칭</td></tr>
<tr><td>activity_type</td><td>Enum</td><td>활동 유형 (창작, 발표, 향유, 교육 등 6단계)</td></tr>
<tr><td rowspan="2">3. 일시 및 장소</td><td>event_schedule</td><td>Object</td><td>시작/종료일시 및 반복 주기 (ISO 8601 규격)</td></tr>
<tr><td>location_info</td><td>Object</td><td>시설명, 주소, GPS 좌표 및 공간 속성 코드</td></tr>
<tr><td>4. 다차원 속성</td><td>md_attributes</td><td>Array</td><td>[핵심] 기술(AI/XR), 사회적 가치 등 4대 영역 태그</td></tr>
<tr><td>5. 참여 주체</td><td>participants</td><td>Array</td><td>창작자, 기획자, 단체 정보 및 역할 코드</td></tr>
<tr><td rowspan="2">6. 시스템 메타</td><td>source_id</td><td>String</td><td>데이터 출처 (공공 API, 하베스팅, 조사원 입력 등)</td></tr>
<tr><td>dqs_score</td><td>Float</td><td>데이터 무결성 점수 (실시간 계산값)</td></tr>
</table>
· 표준 데이터 스키마 예시 (JSON-LD)]
<pre>
{
  "@context": "https://pms.arko.or.kr/context.jsonld",
  "awid": "AW-2026-PER-H4A1-PO-00001",
  "activity_info": {
    "name": "2026 로봇과 무용의 만남: 메타 댄스",
    "genre_code": "PER_01",
    "description": "실시간 렌더링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무용 공연"
  },
  "event_schedule": {
    "start_datetime": "2026-05-01T19:30:00Z",
    "end_datetime": "2026-05-01T21:00:00Z",
    "venue_name":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md_attributes": [
    {"domain": "TECH", "code": "T001", "label": "AI/로보틱스"},
    {"domain": "SPACE", "code": "S005", "label": "물리공간"},
    {"domain": "VALUE", "code": "V002", "label": "기술혁신"}
  ],
</pre>
</td></tr>
</table>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pre>"system_meta": {
	"created_at": "2026-03-23T12:00:00Z",
	"dqs_score": 0.98
	}
	}</pre>
	② [공통 코드북 매핑] 유네스코(FCS 2025) 및 국가 표준분류(KSIC) 코드를 전송 규격 내에 기본 탑재하여 별도의 변환 과정 없는 데이터 수신 체계 구축
	1) 국제·국가 표준 코드 임베디드 스키마(Embedded Schema) 설계
	· (통합 코드 헤더(Header) 구축) 데이터 전송 규격(JSON/XML) 내에 unesco_code, ksic_code, arko_attr_code 필드를 필수 값으로 지정하여, 수신 단계에서 즉시 분류가 완료되도록 설계함
	· (하이브리드 코드 체계) 단일 코드로 설명이 어려운 융복합 활동의 경우, 주 장르와 부 장르 코드를 결합한 멀티 태그(Multi-tag) 형식을 지원하여 데이터의 입체성을 확보함
	2) 실시간 크로스워킹(Cross-walking) 자동화 로직 탑재
	· (지능형 코드 변환 엔진) 외부 기관의 레거시(Legacy) 코드가 유입될 경우, 사전 정의된 매핑 테이블(Mapping Table)을 통해 실시간으로 표준 코드로 치환하는 룩업(Look-up) 프로세스를 가동함
	· (확률적 매핑 엔진) 정확한 코드가 없는 신생 기술 예술의 경우, 키워드 유사도를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코드를 확률적으로 추천하고 매핑 신뢰도(P{match})를 기록함
	3) 무변환 데이터 수집(Zero-ETL) 파이프라인 구축
	· (스키마 일치성 자동 검증) 수신된 데이터의 코드가 표준 코드북의 유효 범위 내에 있는지 인입 시점에 즉시 체크(Gatekeeping)하여, 규격 외 오류 데이터의 유입을 원천 차단함
	· (기관별 커스텀 매핑 프로파일 관리) 연계 기관별로 서로 다른 분류 체계(예: 도서관의 KDC, 음원 사이트의 자체 분류)를 우리 시스템의 표준으로 자동 번역하는 기관 전용 어댑터(Adapter)를 구축하여 송신측의 시스템 수정 부담을 최소화함
	· (실시간 코드 동기화(Sync)) 국가 표준분류(KSIC)나 유네스코(FCS) 기준이 개정될 경우, 연계된 모든 기관의 API 수신 규격에 변경된 코드가 즉각 반영되도록 하는 마스터 데이터 관리(MDM) 기능을 수행함

보안 강화형 전송 프로토콜 (Security Protocol) 수립	① [종단 간 암호화 기술 적용] 데이터 전송 시 TLS 1.3 이상의 암호화 통신 준수 및 API 키 기반의 인증 체계(OAuth 2.0) 표준화 1) TLS 1.3 기반 차세대 암호화 통신 적용 · (최신 보안 프로토콜 준수)핸드쉐이크 과정을 간소화하여 지연 시간(Latency)을 줄이면서도, 보안성이 취약한 과거 알고리즘을 배제한 TLS 1.3을 표준으로 채택함 · (PFS(Perfect Forward Secrecy) 보장) 세션마다 고유한 암호화 키를 생성하여, 설령 장기 보관 중인 서버 키가 유출되더라도 과거의 통신 내용은 해독할 수 없도록 설계함 · (0-RTT 모드 활용: 재접속 시 암호화 오버헤드를 최소화하여 대용량 실시간 하베스팅 효율을 극대화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2) OAuth 2.0 기반의 다계층 인증 및 인가 표준화 · (인가 코드 승인 방식(Authorization Code Flow)) 연계 기관의 시스템이 우리 서버에 직접 비밀번호를 전달하지 않고, 안전한 '토큰(Token)' 기반으로 권한을 위임받는 표준 프로세스를 구축함 · (JWT(JSON Web Token) 활용) 전송되는 토큰 내에 사용자 권한, 유효기간, 발행 기관 정보를 암호화하여 담음으로써 매번 DB를 조회하지 않고도 유효성을 즉각 검증함 ② [무결성 검증 로직 구현] 전송된 데이터의 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체크섬(Checksum) 및 디지털 서명 기술을 프로토콜 내 기본 사양으로 채택 1) 고해상도 해시 체크섬(Hash Checksum) 자동 생성 · (SHA-256/3 기반 메시지 다이제스트) 데이터 송신 직전, 원본 데이터 전체를 SHA-256 이상의 고성능 해시 알고리즘으로 계산하여 고유의 '데이터 지문(Checksum)'을 생성함 · (페이로드(Payload) 검증 로직) 수신 측에서 데이터를 받자마자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해시값을 재산출하여, 송신 측이 보낸 값과 일치하는지 비트(Bit) 단위로 대조함 2) PKI 기반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 및 부인 방지 · (공개키 기반 구조(PKI) 적용) 연계 기관의 개인키(Private Key)로 해시값을 암호화하여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고, 우리 시스템의 공개키(Public Key)로 이를 복호화하여 데이터의 출처와 진본성을 동시에 증명함 · (ECDSA(타원곡선 전자서명) 채택) RSA 대비 짧은 키 길이로도 동등한 보안성을 제공하며, 대용량 실시간 하베스팅 시 연산 부하를 최소화함 3) 자동 폐기 및 재전송(Reject & Retry) 워크플로우 · (무결성 실패 즉시 차단) 체크섬이나 서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데이터를 '오염 데이터'로 간주하여 DB 적재를 즉시 차단하고 시스템 로그에 '보안 경보(Security Alert)'를 기록함 · (지능형 재전송 요청) 전송 오류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송신측에 해당 패킷의 재전송을 자동 요청하는 ARQ(Automatic Repeat Request) 로직을 가동함
기관 배포용 표준 연계 가이드 및 SDK 개발·보급	① [기술 지원 킷(SDK) 배포] 각 기관 시스템(Java, Python 등)에서 표준 프로토콜에 맞춰 데이터를 즉시 전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보급 1) 멀티 플랫폼(Java, Python) 라이브러리 패키징 · (Java/Spring SDK)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널리 쓰이는 Spring Boot 스타터 라이브러리 형태로 배포하여 Dependency 추가만으로 연계 준비 완료 · (Python SDK) 데이터 수집 및 AI 연구 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Python 환경을 위해 pip 설치 가능한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여 빠른 프로토타이핑 지원 2) 지능형 보안 및 인증 오토메이션 모듈 탑재 · (OAuth 2.0 토큰 관리 자동화) Access Token의 발급, 갱신(Refresh), 만료 체크를 SDK 내부에서 자동 처리하여 개발자가 인증 로직을 직접 구현할 필요가 없게 함 · (보안 전송(TLS 1.3) 강제) 라이브러리 수준에서 하위 보안 프로토콜을 차단하고 최신 암호화 통신을 강제 적용하여 데이터 이동 경로의 안전을 보장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3) 로컬 데이터 밸리데이션(Local Validation) 엔진 · (사전 규격 검증)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 우리가 설계한 표준 데이터 스키마(JSON-LD)에 맞는지 로컬에서 즉시 확인하여 규격 오류 발생 시 상세 가이드를 출력함 · (재시도 및 큐잉 로직) 네트워크 장애 시 지수 백오프(Exponential Backoff) 알고리즘 기반으로 재전송을 시도하여 데이터 누락을 원천 차단함 ② [연계 기술 가이드라인 발간] 데이터 담당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단계별 연계 매뉴얼 및 에러 대응 코드북 배포 1) 5-Step 'Quick-Start' 연계 가이드 제작 · (비주얼 워크플로우 제시) [권한 신청 → API 키 발급 → SDK 설치 → 데이터 매핑 → 전송 테스트]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인포그래픽으로 도식화함 · (코드 스니펫(Code Snippet) 제공) Java, Python 등 주요 언어별로 '복사-붙여넣기'만 하면 바로 작동하는 표준 예제 코드를 포함하여 개발 공수를 최소화함 · (환경별 설정 가이드) 기관별 방화벽 정책이나 네트워크 환경에 따른 Proxy 설정 등 현장의 특수한 상황별 해결책 제시 2) 표준 에러 대응 코드북(Error Codebook) 정의 · (직관적 에러 분류) HTTP 표준 코드를 기반으로 우리 시스템만의 세부 에러 코드(Internal Error Code)를 정의하여 문제 원인을 즉각 파악하게 함 * 4001 : 스키마 미준수 (장르 코드 오기입 등) * 4002: 인증 토큰 만료 * 5001 : 우리측 수신 서버 일시 장애 · (조치 방법(Troubleshooting) 명시) 단순히 "에러 발생"이 아니라 "해당 필드의 데이터 타입을 String에서 Integer로 변경하십시오"와 같은 즉각적 해결책을 매칭함 3) 대화형 기술 지원 포털(Dev Portal) 운영 · (실시간 API 플레이그라운드) 별도의 코딩 없이 웹상에서 직접 데이터를 전송해보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Sand-box) 제공 · (FAQ 및 기술 Q&A 데이터베이스)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 질문을 AI 챗봇과 연동하여 24시간 실시간 기술 지원 체계 구축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표준 스키마 설계비	데이터 항목 정의 및 국제 표준(UNESCO) 매핑 연구 용역	100
SDK 및 지원 도구 개발	기관별 맞춤형 연계 모듈(SDK) 및 표준 API 샘플 개발	150
보안 프로토콜 검증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전송 암호화 솔루션 최적화	50
기술 지원 및 교육비	권역별 데이터 담당자 설명회 및 기술 지원 콜센터 운영	50
계		350

■ 5개년(2027~2031) 추진 로드맵

구분	1~2년차 (표준 수립)	3~4년차 (보급 확산)	5년차 (최적화)
핵심목표	표준 프로토콜 설계 및 SDK 개발	주요 거점 기관 대상 프로토콜 보급	전국 단위 표준 연계망 완성
주요과제	• 표준 데이터 스키마 정의 • 연계 SDK 및 가이드 제작	• 17개 시도 지역재단 프로토콜 적용 • 기술 지원 전담반 운영	• 신규 연계 기관 자동 온보딩 체계 • 프로토콜 버전 고도화(V2.0)

■ 성과관리 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	'31년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표준 프로토콜 준수율	100%	(표준 규격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관 수 / 전체 연계 기관 수) × 100
연계 소요 시간 단축률	50% 이상	(도입 전 평균 연계 소요 기간 - 도입 후 소요 기간) / 도입 전 기간
데이터 전송 오류율	0.1% 이하	(전송 중 발생한 데이터 깨짐/누락 건수 / 전체 전송 건수) × 100

■ 기대효과

○ 데이터 연계의 고속화 및 안정성 확보

- 표준화된 언어(Protocol)를 통해 '지능형 수집'이 전국 단위에서 끊김 없이(Seamless) 작동할 수 있는 기술적 질서를 확립함

○ 행정 비용의 획기적 절감

- 매번 반복되던 데이터 변환 및 정제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문예위와 유관기관 간의 데이터 행정 효율을 극대화함

○ 국가 문화예술 데이터 표준 리더십 강화

- 파편화된 문화 행정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표준 모델을 제시하여, 향후 문화 데이터 댐(Data Dam)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사. [전략과제 7] 정책 연계 분석 모델 개발

1) (추진과제 7-1) 수요·공급 통합 '가치 사슬(Value-Chain)' 분석 모델 수립

■ 추진배경

○ 수요와 공급 통계의 단절(Data Disconnect)

- 현재 예술 통계는 공급 측면(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과 수요 측면(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이 별개로 생산되어, 특정 장르나 속성의 공급이 어떻게 수요로 전이되고 가치를 창출하는지 분석하는 '가치 사슬' 추적이 불가능함

○ 산출물 중심의 단편적 분석 한계

- 건수, 횟수 등 공급자 위주의 외연적 수치에만 매몰되어, 예술 활동이 창작-제작-유통-참여-확산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어떠한 부가가치를 형성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모델이 부재함

■ 필요성

○ '가치사슬 조사항목'의 분석적 구현

- 조사항목(창작단계, 유통경로 등)을 분석 단위로 활용하여, 투입(Input) 대비 성과(Outcome)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통합 분석 엔진' 구축이 필수적임

○ UNESCO FCS 2025 '문화 사이클(Culture Cycle)' 실현

- 유네스코가 제안한 창작에서 향유까지의 선순환 구조를 데이터 기반의 분석 모델로 구현함으로써, 예술 생태계의 병목 구간을 진단하고 최적의 정책 개입 지점(Policy Intervention Point)을 발굴해야 함

■ 추진 목적

○ 수요-공급 통합 데이터 결합 프레임워크 구축

- 공급 데이터(활동 속성)와 수요 데이터(참여 특성)를 가치사슬 상에서 1:1로 매칭하는 통합 모델 수립

○ 지능형 가치사슬 맵(Value Chain Map) 개발

- 예술 활동의 생애주기별 성과를 가시화하고 정책 투입의 효과성을 정밀 시뮬레이션하는 기반 마련

■ 세부 업무 내용

<table>
<tr><th>세부 과제</th><th>실행 업무 내용</th></tr>
<tr><td>UNESCO FCS 기반 통합 가치사슬 모델 설계</td><td>
① [5단계 문화 사이클 표준화] 창작(Creation) → 제작(Production) → 유통(Distribution) → 전시/공연(Exhibition) → 참여/소비(Participation)의 전 과정을 다차원 속성 태깅과 연계하여 표준 분석 모듈 설계
· 통합 가치사슬 및 분석 모듈 명세
<table>
<tr><th>가치사슬 단계 (UNESCO FCS)</th><th>핵심 정의 및 분석 범위</th><th>다차원 속성 연계 포인트 (Tagging Link)</th></tr>
<tr><td>① 창작 (Creation)</td><td>예술적 아이디어의 발현, 저작권 발생, 기초 예술 활동</td><td>[기술] 생성형 AI 보조, 디지털 저작권(NFT)
[가치] 창작의 자율성, 예술적 혁신성</td></tr>
<tr><td>② 제작 (Production)</td><td>작품의 실체화, 복제, 인쇄, 녹음, 디지털 콘텐츠화</td><td>[기술] 가상 스튜디오, 실시간 렌더링(XR)
[공간] 메이커스페이스, 공유 오피스</td></tr>
<tr><td>③ 유통 (Distribution)</td><td>도소매, 플랫폼 업로드, 마케팅, 수출입 활동</td><td>[기술] 블록체인 기반 배급, 알고리즘 큐레이션
[공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메타버스 상점</td></tr>
<tr><td>④ 전시/공연 (Exhibition)</td><td>관객과의 만남, 축제, 도서관/박물관 서비스</td><td>[공간] 유휴공간 재생, 팝업 스토어, 디지털 트윈
[가치] 지역 문화 활성화, 공간의 재발견</td></tr>
<tr><td>⑤ 참여/소비 (Participation)</td><td>관람, 구매, 교육 향유, 자발적 창작 활동</td><td>[가치] 정서적 웰빙, 탄소 저감 관람(ESG)
[기술] 상호작용성(Interactive), 개인화 경험</td></tr>
</table>
② [수요-공급 연계 지표 개발] 특정 속성(예: 융복합)의 공급량이 국민의 문화적 웰빙 및 소비 성향에 미치는 탄력성을 측정하는 가중치 모델 개발
1) 속성 기반 수요-공급 데이터 통합 매칭
· (공급 데이터(Supply)) 지능형 허브로 수집된 다차원 속성별 활동량(건수, 예산, 참여 작가 수 등)을 실시간 집계함
· (수요 데이터(Demand)) 국민문화예술향유실태조사,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 SNS 언급량 등에서 추출된 웰빙 지수와 소비 패턴을 동일 속성(예: '융복합')으로 매핑함
2) 문화적 웰빙 탄력성(Cultural Well-being Elasticity) 측정 엔진
· (탄력성 산출) 특정 속성(예: XR 기반 예술)의 공급이 1% 증가할 때, 관련 국민 행복도나 향유 만족도가 몇 % 변화하는지 상관계수를 산출함- 한계 효용 분석: 특정 지역이나 장르에서 공급이 과잉되거나 부족한 지점을 찾아내어, 추가 공급 시의 효율성을 예측함
3) 정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동적 가중치(Dynamic Weighting) 모델
· (가치 기반 가중치 부여) 탄력성 지수가 높으면서 사회적 가치(ESG, 지역 활성화 등)가 큰 속성에 높은 정책 가중치를 자동 부여함
· (수요 예측 시뮬레이션) "내년도 융복합 예산을 10% 증액할 경우 국민 웰빙 지수는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별 예측 결과 제시
</td></tr>
</table>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다차원 속성 기반 '수요-공급 동적 매칭(Matching)'	① [개체 중심 통합 분석] Art-Work ID를 활용하여 동일 작품/활동이 창작 단계에서 참여 단계까지 어떻게 이동하며 가치가 증폭되는지 추적하는 종단적(Longitudinal) 매칭 기술 적용 1) Art-Work ID 기반 데이터 스레딩(Threading) 기술 적용 · (생애주기 자동 연결) 창작 지원 단계의 '기획서', 제작 단계의 '결과보고서', 유통 단계의 '티켓 데이터' 등 분산된 데이터를 Art-Work ID를 키(Key)로 실시간 결합함 · (속성 변이(Mutation) 추적) 기획 당시의 다차원 속성(예: '비대면')이 실제 공연 단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거나 변경되었는지 이력을 관리함 2) 단계별 가치 증폭(Value Amplification) 측정 모델 가동 · (부가가치 전이 분석) 각 단계(창작→제작→유통→전시→참여)를 거칠 때마다 투입 예산 대비 산출(관객 수, 리뷰 수, SNS 언급량 등)이 얼마나 증폭되었는지 측정함 ② [비정형 데이터 융합 분석] 공급 측면의 기획 의도와 수요 측면의 관람 후기(SNS, 하베스팅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NLP)로 비교 분석하여 가치 전달의 정합성 검증 1) 공급-수요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 (공급 데이터 추출) Art-Work ID로 연결된 사업 기획서, 작가 노트 내 핵심 키워드 및 의도(Intent) 추출 · (수요 데이터 하베스팅) SNS(Instagram, X), 블로그, 예매 사이트 후기 등에서 해당 작품과 관련된 비정형 텍스트 수집 및 클렌징 2) LLM 기반 의미론적 유사도(Semantic Similarity) 분석 · (임베딩(Embedding) 벡터화) 기획 의도 문장과 관람 후기 문장을 고차원 벡터 공간으로 변환하여 의미적 거리를 계산함 · (속성 일치도 판별) 기획자가 설정한 다차원 속성 태그(예: #ESG)가 후기 텍스트(예: "환경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됨")에서 얼마나 언급되는지 매칭함 3) 가치 전달 정합성 지수(Value Alignment Score) 산출 · (정합성 지수(AS) 계산) 기획 의도와 관객 반응의 일치율을 정량화하여 정책 환류 지표로 활용함 · (감성 분석 병행) 단순 일치도를 넘어, 전달된 가치가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는지 부정적으로 반응했는지의 정서적 정밀도 측정
가치사슬 성과 시각화 및 정책 시뮬레이터 구축	① [지능형 가치사슬 대시보드] 장르별, 지역별, 속성별 가치사슬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중심의 대시보드 구현 1) 산키 다이어그램(Sankey Diagram) 기반 가치 흐름 시각화 【산키 다이어그램(Sankey Diagram)】 ·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여주는 유량(Flow) 차트로서 단순히 수치를 막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이동 경로와 그 양(Volume)을 화살표의 '굵기'로 표현하는 것이 핵심 · 기존의 막대그래프나 파이차트는 '결과'만 보여주지만, 산키 다이어그램은 '과정'을 보여줌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 (생태계 흐름 추적) 창작 → 제작 → 유통 → 전시 → 참여로 이어지는 단계별 데이터 이동량과 속성 전이 과정을 유동적인 선의 굵기로 표현함 · (속성별 필터링) 특정 기술(예: XR)이나 가치 속성을 선택하면, 해당 속성을 가진 활동들이 가치사슬의 어느 단계에서 가장 활발히 전개되는지 실시간 하이라이팅함 2) GIS(지리정보시스템) 연동 지역별·속성별 히트맵(Heatmap) · (공간적 수급 진단) 전국 지도를 기반으로 장르별·속성별 공급 밀집도와 수요 탄력성을 중첩하여 시각화함 · (지역 가치사슬 분석) 특정 지역 내에서 가치사슬의 전 과정이 완결되는지, 혹은 외부 유입에 의존하는지 '지역 완결성 지수'를 색상 농도로 표기함 3) 실시간 품질 지수 및 성과 지표 대시보드 · (데이터 무결성(DQS) 모니터링) 수집되는 데이터의 실시간 신뢰도 점수와 정제 현황을 대시보드 상단에 배치하여 통계적 권위를 상시 노출함 · (동적 핵심성과지표) '문화적 웰빙 탄력성'이나 '가치 증폭 계수' 등의 복합 지표를 게이지(Gauge) 차트로 실시간 시각화함 ② [정책 효과 예측 모델링] 특정 구간(예: 유통단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경우, 최종 수요(참여율)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예측하는 AI 기반 정책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탑재 1) 인과관계 머신러닝(Causal ML) 기반 파급 효과 분석 · (인과지도(Causal Map) 학습) 과거 10년간의 지원 사업 예산 데이터와 가치사슬 단계별 성과 데이터를 학습하여, 각 단계 간의 인과적 영향력(Weight)을 산출함 · (전이 탄력성 모델링) 유통 단계의 성과가 전시/공연 단계로 전이되는 '전달 계수'를 도출하여, 특정 구간의 변화가 전체 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함 2) 몬테카를로(Monte Carlo) 기반 'What-if'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 (가상 예산 투입 실험) "유통 단계 예산 20% 증액", "비제도권 속성 지원 확대" 등 가상의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하면, 수만 번의 반복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대 성과(참여율 증분)의 범위를 예측함 · (신뢰 구간 제시) 단순 수치가 아닌, 예측값의 상·하한선을 함께 제시하여 정책 결정의 리스크를 최소화함 3) 성과 최적화(Optimization) 기반 자원 배분 권고 로직 · (목표 역추적 알고리즘) "참여율 5% 향상"이라는 목표치를 입력하면, AI가 가치사슬 중 어느 구간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Best ROI) 역으로 제안함 · (한계 효용 분석) 특정 구간에 예산을 계속 투입할 때 효과가 둔화되는 지점(Diminishing Returns)을 찾아내어,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 제공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모델 설계 연구비	수요-공급 통합 가치사슬 분석 알고리즘 및 지표 개발 용역	150
데이터 통합 가공비	활동현황조사(공급)와 향수실태조사(수요) 간 마이크로데이터 매핑	100
분석 시스템 구축비	가치사슬 시각화 대시보드 및 AI 시뮬레이터 개발 (H/W, S/W)	350
데이터 구매 및 정제	민간 예매 플랫폼 및 SNS 참여 데이터(하베스팅) 연계 및 정제	100
계		700

■ 5개년(2027~2031) 추진 로드맵

구분	1~2년차 (모델 정립)	3~4년차 (시스템 가동)	5년차 (예측·최적화)
핵심목표	가치사슬 표준 모델 및 지표 설계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지능형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완성
주요과제	• 수요-공급 연계 프레임워크 구축 • 가치사슬 단계별 KPI 설정	• 데이터 기반 전수 분석 • 가치사슬 시각화 대시보드 런칭	• AI 기반 정책 시뮬레이션 고도화 • 생태계 병목 구간 진단 및 정책 권고

■ 성과관리 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	'31년 목표치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가치사슬 추적 정밀도	90% 이상	(가치사슬 전 단계 데이터가 매칭된 활동 수 / 전체 활동 수) × 100
분석 결과의 정책 활용률	15건 이상	본 모델의 분석 결과가 반영된 신규 사업 기획 또는 기존 사업 개편 건수
데이터 결합 완성도	상호 운용 가능	수요-공급 마이크로데이터 간 코드 일치율 및 결합 로그 분석

■ 기대효과

○ 통계 기반의 '예술 생태계 진단' 체계 확립

- 공급의 과잉이나 수요의 정체 구간을 데이터로 즉각 식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돕는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 조사 혁신의 성과 가시화

- 태깅된 고밀도 데이터가 단순 현황판을 넘어 '가치 증명서'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예술 지원의 사회적·경제적 ROI(투자 대비 성과)를 입증함

○ 글로벌 선도적 분석 모델 제시

- UNESCO FCS의 철학을 실제 데이터 분석 모델로 구현한 전 세계 유일의 사례로서, 국제 문화통계 컨퍼런스 등에서 대한민국의 정책 기술력을 과시함

2) (추진과제 7-2) 문화위성계정(CSA) 고도화 및 거시 지표 결합 분석

■ 추진배경

○ 국가 경제 기여도 측정의 한계

- 현행 예술 통계는 산업 분류상의 모호성으로 인해 국가 전체 경제 체계(SNA) 내에서 문화예술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와 고용 효과를 독립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문화위성계정(CSA)의 정교함 부족

- 기존의 CSA 연구는 단편적인 산업 분류에 의존하여, 디지털 예술, 융복합 활동, 비제도권 활동 등 신규 생태계의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필요성

○ '속성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실체화

- '다차원 속성 태깅' 결과값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I-O Table)의 투입-산출 구조와 매핑함으로써, 예술 지원 예산이 타 산업(관광, IT, 제조 등)에 미치는 전후방 연쇄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함

○ 증거 기반 정책(EBPM)의 대정부 설득력 강화

- 예술을 단순 '비용'이나 '시혜적 복지'가 아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 자산'으로 재정의하여 기재부 등 예산 당국과의 협상에서 객관적 우위를 점함

■ 추진 목적

○ 지능형 문화위성계정(Smart CSA) 모델 구축

- 고밀도 속성 데이터와 거시 경제 지표를 결합하여 문화예술의 경제적 기여도를 정밀 산출함

○ 거시-미시 데이터 통합 분석 체계 확립

- 국가 전체 경제 지표(GDP, 고용)와 개별 예술 활동(Micro-data)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분석 프레임워크 수립

■ 세부 업무 내용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속성 기반 문화산업 분류 체계(Taxonomy) 정교화	① [산업분류 매핑 고도화] 다차원 속성(디지털, 장소, 기술 등)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유네스코(FCS 2025) 경제 영역과 1:1로 재매핑하여 CSA의 포괄 범위 확대 1) 속성-산업분류 간 다대다(N:M) 매핑 테이블 구축 · (속성별 산업 연관성 정의) 특정 기술(예: XR, 블록체인)이나 장소(예: 유휴공간) 속성이 KSIC의 어떤 산업군(예: 582, 715, 901)과 경제적으로 연결되는지 정의함 · (UNESCO FCS 2025 경제 영역 동기화) 유네스코가 새롭게 정의한 '디지털 창조 산업' 및 '공유 문화 가치' 도메인과 우리 시스템의 속성 태그를 1:1로 매핑하여 글로벌 호환성 확보 2) 문화위성회계(CSA) 포괄 범위 확장 및 필터링 로직 · (비제도권 활동의 경제적 가치 포착) 과거 '기타'로 분류되던 융복합 활동을 속성 기반으로 재분석하여 CSA의 '창작-생산'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가중치 모델 적용 · (산업간 경계 모호성 해소) 하나의 활동이 예술이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 속성 가중치에 따라 산업별 기여도를 배분하는 정밀 분석 엔진 가동 3) 실시간 분류 체계 업데이트 및 이력 관리 · (동적 분류 엔진(Dynamic Taxonomy Engine)) 신기술 예술 등장 시 고정된 코드가 아닌 속성 조합으로 산업적 정체성을 자동 부여함 · (국가 표준분류(KSIC) 개정 연동) 통계청의 분류 체계 변경 시, 매핑 테이블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어 과거 데이터와의 시계열 단절을 방지하는 버전 관리 수 ② [비시장 경제 가치 산출] 공공 예술 및 자원봉사 등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예술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대체 비용법 모델 설계 1)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의 노동 가치 환산 · (직무별 유사 임금 매칭) 예술 자원봉사자의 활동 내용을 분석하여, 시장 내 유사 전문직(예: 큐레이터, 무대 기술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그림자 가격(Shadow Price) 체계 수립 · (다차원 숙련도 가중치) 활동가의 전문성 수준과 투입 시간을 결합하여 실질적인 노동 대체 비용을 산출함 2) 공공 예술 및 무상 향유 서비스의 기회비용 산출 · (시장 대체 서비스 단가 적용) 무료 거리 공연이나 공공 벽화 등 무상 제공된 예술 서비스가 유료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의 가상 가격(Proxy Price)을 도출함 · (사용 가치 분석) 해당 예술 활동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 정부나 지자체가 지불해야 했을 사회적 비용(치안 유지비 감소, 정서 케어 비용 등)을 역산하여 가치에 합산함 3) 다차원 속성 연계형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가산 · (공익적 기여도 가중치) 속성 중 '웰빙', '지역 활성화' 태그가 부착된 활동에 대해 경제적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 프리미엄으로 가산함 · (활동 지속성 계수 반영)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공동체와 결합된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누적된 신뢰 자산(Social Capital)을 가치 증폭 요인으로 반영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거시 지표 결합 기반 생산성 및 고용 파급효과 분석	① [산업연관분류 연계 분석] 데이터를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와 결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장르별·속성별로 산출 1) 미시-거시 데이터 크로스워킹(Cross-walking) 및 매핑 · (속성 기반 부문 매칭) Art-Work ID에 부여된 속성(예: 실감형 기술)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부문 분류(예: 582 소프트웨어 개발, 901 문화 및 기타 서비스)와 정밀하게 연결함 · (최종수요 벡터(Y) 구성) 지원 예산, 관람 지출액, 기업 투자액 등 수집된 데이터를 산업연관 분석이 가능한 최종수요 형태로 재구조화함 2) 레온티에프 역행렬($(I-A)^{-1}$) 기반 유발계수 산출 · (생산유발효과) 특정 속성 예술 활동의 수요가 1원 발생할 때,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의 크기를 산출함 · (부가가치유발효과) 해당 활동이 국가 전체의 GDP(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속성별로 비교 분석함 · (취업/고용유발효과) 단위 생산(10억 원 등) 당 투입되는 인력과 그로 인해 파급되는 타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출함 3) 속성별 파급효과 변별력 분석 및 가중치 보정 · (속성별 생산성 비교) '전통 예술' 대비 '기술 융복합 예술'이 가지는 산업 간 전방·후방 연쇄효과(Linkage Effect)의 차이를 정량화함 · (동적 분석 모델 가동)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업데이트되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실시간 API로 연동, 가장 최신의 경제 파급효과를 산출함 ② [거시 지표 결합 모델링] 소비자물가지수(CPI), 지역내총생산(GRDP) 등 거시 지표와 예술 활동 속성 간의 시차 상관관계(Time-lag Analysis) 분석 모델 구축 1) 거시 경제 지표 DB 실시간 연동 및 매핑 · (국가 통계 연계) 통계청(KOSIS)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지역내총생산(GRDP), 고용률 등 핵심 거시 지표를 API로 상시 수집함 · (속성별 가중치 결합) 지역별 예술 활동 공급량과 해당 지역의 GRDP 변화를 동일 시계열 선상에 배치하여 분석 준비를 마침 2) 시차 상관관계(Cross-correlation) 및 인과성 분석 · (리드-래그(Lead-Lag) 식별) 예술 투자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시차(Time-lag), 혹은 경기 불황이 예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임계점(Tipping Point)을 주/월 단위로 산출함 ·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특정 속성(예: 지역 축제)의 증가가 실제 지역 소비 증진의 원인인지, 아니면 경기 회복의 결과인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함 3) 시차 반영 경기 변동 대응 시뮬레이션 · (CPI 연동 수요 예측) 물가 상승이 예술 향유 수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몇 개월 뒤에 본격화되는지 예측하여 선제적 지원 정책 수립 지원 · (지역 경제 파급 경로 시각화) 특정 지역의 예술 거점 구축이 주변 상권(GRDP 기여분)에 미치는 파급 효과의 확산 속도를 시계열로 분석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지능형 CSA 대시보드 및 정책 시뮬레이터 개발	① [경제적 가치 시각화] 문화예술이 국가 GDP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지능형 CSA 대시보드 구현 1) 실시간 CSA(문화위성회계) 경제 지표 산출 및 시각화 · (실시간 GDP 기여율) 현재 수집된 예술 활동 데이터와 산업별 가중치를 결합하여, 전체 GDP 중 문화예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실시간 미터(Meter) 차트로 표기함 · (시계열 성장 곡선) 분기별/연도별 문화산업 부가가치 창출액 추이를 거시 경제 지표와 비교하여 시각화함 2) 지역별 GRDP 기여도 및 경제 거점 히트맵(Heatmap) · (지역 경제 파급력 진단) 특정 지역(예: 종로구) 내 예술 활동이 해당 지역 GRDP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지역 경제 기여 지수'로 산출하여 지도상에 표시함 · (산업 클러스터 분석) 예술 활동이 밀집된 지역 주변의 상권 활성화 및 관련 산업(서비스, 숙박 등)으로의 경제적 전이 효과를 시각적 흐름으로 표현함 3) 다차원 속성별 경제 기여 필터링(Drill-down) · (속성 기반 경제 분석) '디지털', '융복합', '공간재생' 등 위원님께서 정의하신 다차원 속성별로 필터링하여, 어떤 속성의 활동이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비교 분석 뷰 제공 · (투자 대비 성과(ROI) 가시화) 투입된 정책 예산 대비 창출된 경제적 가치(CSA 기반)를 장르별/지역별로 순위화하여 제시함 ② [예산 투입 효과 시뮬레이션] 특정 예술 분야 예산 증액 시, 국가 전체 부가가치 및 일자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가변 분석(Sensitivity Analysis) 도구 탑재 1`) 다차원 예산-성과 탄력성(Elasticity) 엔진 구축 · (가변 요소 설정) 장르별 지원금, 인프라 투자비, 홍보 예산 등 투입 변수를 슬라이더(Slider) 형태로 조절 가능한 인터페이스 제공 · (민감도 분석) 특정 예산이 1% 변할 때 부가가치유발액(V)과 고용유발인원(L)이 반응하는 민감도를 속성별로 산출함 2) AI 기반 경제 파급효과 예측 시나리오 가동 ·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외부 경기 변동(CPI, GRDP 등)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수만 번의 가상 실험을 수행, 성과 발생의 확률적 범위를 제시함 · (고용 창출 경로 추적) 예산 투입이 직접 고용(예술인)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IT, 서비스, 관광 등)의 간접 고용으로 전이되는 경로를 시각화함 3) 정책 최적화(Optimization) 및 예산 배분 권고 · (한계 효용 분석) 예산을 계속 늘려도 성과 증폭이 둔화되는 지점(Saturation Point)을 찾아내어, 자원의 최적 배분점을 AI가 자동 권고함 · (목표 역산 시뮬레이션) "취업유발효과 1,000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입력하면, 어느 분야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역으로 제안함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학술 연구비	CSA 고도화 및 산업연관표 매핑 알고리즘 개발 연구 용역	200
거시 데이터 연계비	한국은행(SNA), 통계청(거시지표) 마이크로데이터 연계 및 활용비	120
분석 시스템 구축비	지능형 CSA 대시보드 및 경제 효과 시뮬레이터 개발	300
전문가 자문 및 검증	경제학자 및 통계 전문가 대상 산출 모델 적정성 검증	80
계		700

■ 5개년(2027~2031) 추진 로드맵

구분	1~2년차 (모델 설계	3~4년차 (시스템 구현)	5년차 (국가 표준화)
핵심목표	CSA 표준분류 및 지표 수립	거시 데이터 결합 및 분석 가동	문화위성계정 공식 통계화
주요과제	• 속성-KSIC 매핑 테이블 구축 • 산업연관분류 연계 모델 설계	• 지능형 CSA 분석 플랫폼 런칭 • 지역별 경제 파급효과 실증 분석	• 한국은행 SNA 체계 공식 연동 추진 • UNESCO 글로벌 CSA 표준 제안

■ 성과관리 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	'31년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SNA 데이터 정합성	95% 이상	(CSA로 산출된 부가가치 합계 / 국민계정상 관련 부문 합계)의 일치도
경제 효과 산출 신뢰도	'매우 높음'	통계청 및 한국은행 등 전문 기관의 외부 검증 결과
정책 예산 확보 기여도	20% 이상 증가	CSA 데이터를 근거로 확보된 전년 대비 신규/증액 예산 규모

■ 기대효과

○ 문화예술의 '경제적 정당성' 확보

- 정밀 데이터를 통해 예술이 단순 소비재가 아닌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임을 숫자로 입증하여 정책적 위상을 강화함

○ 자원 배분의 과학적 최적화

- 어떤 속성의 예술 활동이 고용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지 분석하여,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과적인 곳에 투입하는 '전략적 투자' 실현

○ 글로벌 통계 리더십 완성

- UNESCO FCS 2025가 권고하는 문화위성계정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데이터 기술로 구현함으로써, 전 세계 문화 통계의 표준 모델을 제시함

아. [전략과제 8] 지능형 데이터 컨트롤타워 구축

1) (추진과제 8-1) '문화예술 데이터 통합 컨트롤타워' 조직 신설

■ 추진배경

○ 데이터 거버넌스의 파편화 및 전문성 부재

- 현재 문화예술 통계는 조사, 분석, 시스템 관리 기능이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어 전략적 통합 관리가 어려우며,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전문적 품질 관리 체계가 미흡함

○ 지능형 통계 체계 가동을 위한 전담 동력 필요

- API 허브, AI 자동 태깅, 실시간 하베스팅 등 고도의 기술적 공정은 기존의 행정 지원 인력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며, 전담 기술 조직의 뒷받침이 필수적임

■ 필요성

○ 범정부 데이터 협력의 공식 창구 확보

-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국세청 등 유관 부처와 행정 데이터를 상시 협의하고, UNESCO 등 국제기구의 통계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표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함.

○ 데이터 선순환 구조의 컨트롤링

- 수집(Harvesting)부터 정제(AI QC), 분석(가치사슬), 환류(CSA)에 이르는 전 과정의 파이프라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통계 전략 사령부'로서 기능해야 함

■ 추진 목적

○ 문화예술 데이터 통합 관리 전담 조직 신설

- 데이터 기획, 수집, 분석, 개방을 총괄하는 문예위 직속 컨트롤타워 구축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고도화

- 통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정책 수립 및 예산 배분의 근거로 전환되는 프로세스 정립

■ 세부 업무 내용

<table>
<tr><th>세부 과제</th><th>실행 업무 내용</th></tr>
<tr><td>‘문화예술 데이터 전략 센터(가칭)’ 조직 구성</td><td>
① [전문 인력 확보] 통계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정책 분석관으로 구성된 정규 조직 신설 (데이터기획팀, 품질관리팀, 정책분석팀 등)
· 조직 체계 및 팀별 직무 명세
<table>
<tr><th>팀명</th><th>주요 역할</th><th>핵심 전문 인력 구성</th></tr>
<tr><td>데이터기획팀
(The Architects)</td><td>· 센터 운영 전략 및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
· 유네스코/통계청 등 대외 협력 및 코드 표준화
· 법·제도 개선 및 개인정보 보안 정책 총괄</td><td>정책 분석관,
법률 전문가,
국제 문화교류 전문가</td></tr>
<tr><td>품질관리팀
(The Guardians)</td><td>· 지능형 ETL 및 실시간 하베스팅 모니터링
· 표준 데이터 스키마 관리 및 데이터 헬스체크
· 비식별화(솔티드 해시) 및 데이터 무결성 검증</td><td>데이터 엔지니어,
품질 관리 전문가,
보안 솔루션 전문가</td></tr>
<tr><td>정책분석팀
(The Strategists)</td><td>· CSA(문화위성회계) 기반 경제 파급효과 분석
· AI 정책 시뮬레이터 운영 및 가변 분석 수행
· 수요-공급 동적 매칭 및 가치사슬 성과 도출</td><td>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통계 전문가, 경제학 박사(I-O 분석 전문)</td></tr>
</table>
② [운영 거버넌스 정립]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이터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계 표준 및 데이터 개방 수위 결정
· 데이터 심의 위원회(DDC) 구성 및 운영 명세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위원회 구성</td><td>[하이브리드 전문가 그룹] (7~9인 내외)
· 내부: 데이터 전략 센터장, 정책 분석팀장
· 외부: 통계청/유네스코 자문관, 데이터 전문 변호사(개인정보 보호), 문화예술 현장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td></tr>
<tr><td>핵심 의결 과제</td><td>① 통계 표준 및 코드북 확정
· UNESCO FCS 2025 기반의 우리 시스템 표준 코드를 최종 승인하고 개정 사항을 심의함
② 데이터 개방 등급(Tier) 결정
· 수집된 데이터를 어떤 범위까지 대외 공개할지 3단계 등급제로 분류하여 의결함
③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
· 솔티드 해시 처리된 데이터가 개인을 재식별할 위험은 없는지 보안 안정성을 최종 검토함</td></tr>
<tr><td>운영 프로세스</td><td>① 정기 심의(분기별)
· 데이터 품질 지수(DQS) 및 거시 경제 분석 결과 공유
② 수시 심의
· 신규 외부 기관 연계 또는 대규모 데이터 개방 요청 시 소집</td></tr>
</table>
· 데이터 개방 수위 결정 모델 : 심의 위원회는 다음 기준에 따라 데이터의 유통 범위를 결정하여 데이터 주권을 보호함
<table>
<tr><th>등급</th><th>개방 범위</th><th>대상 데이터 예시</th><th>접근 권한</th></tr>
<tr><td>Tier 1
(Public)</td><td>전면 개방</td><td>장르별 관객 수 추이, 지역별 공연 횟수 등 가공된 통계</td><td>일반 시민
(Open API)</td></tr>
<tr><td>Tier 2
(Shared)</td><td>제한적 개방</td><td>비식별화된 예술인 활동 이력, 상세 소비 패턴 연구용 데이터</td><td>학계 및 공공 연구기관</td></tr>
<tr><td>Tier 3
(Secure)</td><td>폐쇄 운영</td><td>예술인 개인 식별 정보, 기관별 민감 예산 집행 내역</td><td>위원회 내부 권한자</td></tr>
</table>
</td></tr>
</table>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지능형 데이터 품질 관리(QC) 센터 운영	① [실시간 데이터 관제] API 허브와 하베스팅 엔진을 통해 들어오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치 발생 시 즉각 대응 1) API 허브 기반 연계 데이터 실시간 검역(Validation) · (스키마 적합성 즉시 판별) 외부 기관 API로부터 유입되는 데이터가 우리 시스템의 표준 스키마 및 디지털 코드북에 부합하는지 인입 시점에 즉시 체크함 · (필수 필드 누락 방지) Art-Work ID, 장르 코드, 일시 등 필수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해당 레코드를 격리(Sandbox)하고 송신 기관에 즉시 재전송 알림을 발송함 2) 하베스팅 엔진 기반 이상치(Outlier) 실시간 탐지 · (AI 기반 데이터 노이즈 필터링: 비정형 데이터 수집 시 발생하는 중복 데이터, 광고성 텍스트, 비정상적 수치(예: 관객 수 1억 명 등)를 **머신러닝 알고리즘(Isolation Forest)**으로 실시간 포착함 · (시계열 변동성 모니터링: 평소 유입량 대비 급격한 증감(Surge or Drop) 발생 시, 이를 데이터 품질 이상 징후로 판단하여 관제 시스템에 경보를 송출함 3) 자동 대응 및 정정(Auto-Remediation) 프로세스 가동 · (저품질 데이터 자동 격리) 무결성 점수가 기준치 미만인 데이터는 마스터 DB 적재를 차단하고 '품질 관리 대기 영역(Staging Area)'으로 자동 분류함 · (품질 사고 즉시 대응 포털) 이상 발생 시 담당 정책 분석관과 연계 기관 담당자에게 슬랙(Slack) 또는 SMS로 즉각 알림을 발송하고 대응 이력을 기록함 ② [Art-Work ID 마스터 관리] 전국 단위로 발급되는 작품 고유 식별 코드의 중복을 방지하고 표준화된 코드북을 상시 업데이트하는 '코드 뱅크' 역할 수행 1) 실시간 ID 발급 및 충돌 방지(Collision Control) · (중앙 집중형 ID 레지스트리) 전국 연계 기관이 실시간으로 고유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중앙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여 번호 중복을 물리적으로 차단함 · (결합 키(Composite Key) 생성 로직) 장르, 연도, 지역, 기관 코드를 조합한 뒤 해시(Hash) 처리를 더해, 데이터가 수집 경로에 상관없이 고유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함 2) 표준 코드북(Standard Codebook) 버전 관리 및 배포 · (코드 뱅크(Code Bank) 시스템 운영) 유네스코(FCS 2025) 및 국가 통계 분류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이를 우리 시스템의 코드와 동기화하고 변경 이력(History)을 관리함 · (동적 코드북 배포) 수정된 코드가 API를 통해 연계 기관의 SDK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배포 파이프라인을 가동함 3) 유령 데이터(Shadow Data) 및 중복 개체 정제 · (지능형 유사도 매칭) ID가 달라도 활동명, 일시, 장소가 95% 이상 일치하는 경우 이를 '동일 활동'으로 판별하여 마스터 ID 하위로 통합(Deduping) 처리함 · (데이터 가계도(Lineage) 관리) 원천 데이터의 변경 과정을 추적하여, ID가 생성된 시점부터 최종 분석 단계까지의 모든 수정 이력을 '코드 뱅크'에 기록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국가 및 국제 통계 표준화(UNESCO Focal Point)	① [UNESCO 대응 총괄] UNESCO FCS 2025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가 데이터 매핑 및 영문 리포트 발간 자동화 프로세스 관리 1) 글로벌 표준 매핑 및 크로스워킹(Cross-walking) · (FCS 2025 가이드라인 준수) 국내의 5단계 문화 사이클 데이터를 유네스코의 '문화 도메인(Cultural Domains)' 및 '횡단 테마(Transversal Themes)'와 1:1로 정밀 매핑함 · (속성 코드 글로벌 표준화) 다차원 속성(디지털, 융복합 등)을 국제 표준 산업/직업 분류(ISIC, ISCO)와 연동하여 글로벌 호환성 확보 2) LLM 기반 영문 리포트 자동 생성 파이프라인(G-Repo) · (지능형 영문 번역 및 맥락 최적화) 분석 모델에서 도출된 결과값과 인사이트를 유네스코 보고서 특유의 정책 언어(Global Policy Language)로 자동 초안 작성함 · (데이터 시각화 글로벌 템플릿 적용) 전 세계 어디서든 가독성이 확보되도록 국제 표준 인포그래픽 규격에 맞춘 차트와 그래프 자동 삽입 3) 실시간 국가 순위(Global Ranking) 시뮬레이션 · (국가별 비교 분석) 유네스코가 보유한 타국 데이터와 우리 데이터를 실시간 비교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과 정책적 우위 지점을 자동 도출함 · (공표 전 무결성 검증) 대외 발표 전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과 보안 사항을 최종 체크하는 자동화된 검역 단계 가동 ② [부처 간 데이터 협의] 국가데이터처 승인 통계 관리 및 한국은행 CSA 고도화를 위한 기관 간 데이터 협력 거버넌스 전담 수행 1) 국가데이터처 승인 통계 규격 관리 · (승인 통계 지정 및 사후 관리) 우리 센터의 모집단 DB와 분석 모델이 국가승인 통계 규격에 부합하도록 표준 항목을 관리하고, 매년 국가데이터처의 품질 평가에 대응함 · (데이터 개방 및 공유 협약(MOU) 체결) 문체부, 과기부, 행안부 등 유관 부처 데이터가 우리 API 허브로 실시간 유입될 수 있도록 행정적 근거 수립 2) 한국은행 CSA(문화위성회계) 고도화 기술 협력 · (미시-거시 연계 프로토콜 구축) Art-Work ID 기반의 미시 데이터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고속 데이터 도로'를 개설함 · (신규 경제 지표 공동 개발) 기존 CSA에서 누락되었던 '비시장 가치'나 '디지털 융복합 가치'를 한국은행과 공동 연구하여 국가 통계 지표로 공식화함 3) 부처 합동 데이터 심의 위원회 운영 사무국 역할 · (범정부 데이터 칸막이 해소) 부처 간 데이터 충돌이나 중복 수집 문제를 조정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표준 분류 체계 개정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함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조직 운영비	데이터 전략 센터 전문 인력 인건비 및 운영 경비	1,000
데이터 센터 인프라	통합 관제 센터 구축 및 대형 대시보드 월(Wall) 설치	300
거버넌스 활성화	데이터 심의 위원회 운영 및 국제 협력 컨퍼런스 개최	100
외부 전문 용역	고난도 데이터 마이닝 및 예측 모델링 외부 전문가 자문	100
계		1,500

■ 5개년(2027~2031) 추진 로드맵

구분	1~2년차 (조직 런칭)	3~4년차 (기능 내실화)	5년차 (국가 센터 도약)
핵심목표	전담 조직 신설 및 인프라 구축	지능형 관제 시스템 전면 가동	국가 문화예술 데이터 허브 등극
주요과제	• 데이터 전략 센터 설립 인가 • 통합 대시보드 관제실 구축	• 지능형 시스템 운영 총괄 • 부처 간 데이터 연계망 완성	• UNESCO 지정 국가 통계 거점 • AI 기반 정책 예측 서비스 상시화

■ 성과관리 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	'31년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데이터 행정 처리 속도	50% 단축	(도입 전 데이터 연계/추출 소요 시간 - 도입 후 소요 시간) / 도입 전 시간
국제 통계 부합 지수	100%	UNESCO FCS 2025 지표와의 1:1 매핑 및 데이터 보고 완료율
정책 반영률(Evidence-based)	30% 이상	문예위 전체 정책 결정 중 본 센터의 분석 보고서가 활용된 비중

■ 기대효과

○ 통계 행정의 '중추신경계' 확보

- 모든 혁신 과제가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진화할 수 있는 직제적 보장과 전문적 동력을 확보함

○ 데이터 기반의 문예위 위상 강화

- 단순 지원금 배정 기관을 넘어, 대한민국 문화예술 생태계의 현황을 가장 정밀하게 읽어내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이터 기반 지능형 기관'으로 도약함

○ 글로벌 통계 리더십 완성

-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아시아 최고의 문화예술 데이터 허브로서, 통계 기술과 정책 분석 모델을 수출하는 국가적 자산으로 성장함

2) (추진과제 8-2) AI 기반 정책 시뮬레이션 및 지능형 대시보드 운영

■ 추진배경

○ 사후 보고 중심의 정적 통계 한계

- 현재 문화예술 통계는 과거의 활동을 집계하여 보고하는 '사후 확정치' 중심이어 급변하는 예술 현안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며, 정책 변화가 생태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사전에 가늠할 기술적 수단이 부재함

○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는 의사결정 관행

- 데이터의 시각적 가시성(Visibility)이 낮아 정책 결정자가 복잡한 통계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는 과학적 근거보다는 경험적 판단에 의존하는 행정 관행을 고착화함

■ 필요성

○ 증거 기반 정책(EBPM)의 기술적 완성

- 생성되는 고밀도 속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약(What-if)'의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이 필수적임

○ 정책 결정의 적시성 및 투명성 제고

- 실시간 지능형 대시보드를 통해 데이터 수집과 동시에 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 추진 목적

○ AI 기반 정책 성과 예측 모델 개발

- 예산 투입, 제도 변화 등 정책 변수 변화에 따른 예술 생태계의 반응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는 지능형 엔진 구축

○ 정책 결정자용 지능형 대시보드(Decision Support Dashboard) 구현

- 복잡한 융합 분석 결과를 인포그래픽과 인터랙티브 차트로 시각화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함

■ 세부 업무 내용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AI 기반 정책 시뮬레이션 엔진(Digital Twin) 개발	① [시나리오 기반 예측 모델링] 예산 배정액, 지원 대상 속성 변화 등 정책 변수를 입력하면 가치사슬 모델에 따라 예상 성과(고용, 매출, 참여율 등)를 도출하는 AI 엔진 구축 1) 멀티 파라미터(Multi-parameter) 정책 변수 입력 인터페이스 · (예산 배정(Budgeting)) 장르별, 가치사슬 단계별 예산 투입액 설정 · (속성 가중치(Attribute Weighting)) '디지털', '지역거점', '비제도권' 등 특정 속성 중심의 가중 지원 시나리오 설정 · (외부 변수 반영) 금리, 물가(CPI), 인구 구조 변화 등 거시 경제 변수의 변동 폭 설정 2) 가치사슬 연쇄 반응(Chain Reaction) 시뮬레이션 · (단계별 전이 분석) 창작 지원 예산 증액이 제작과 유통을 거쳐 최종 '참여' 단계에 도달하기까지의 시차(Time-lag)와 증폭 계수 계산 · (병목 구간 예측) 특정 단계(예: 유통)의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정체되는 구간을 사전에 탐지함 3) 다차원 성과 지표(KPI) 예측 산출 · (경제적 성과) 매출액 증가분, 부가가치 유발액, 신규 창업 수 예측 · (사회·문화적 성과) 취업유발효과(고용), 국민 문화 향유율,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 지수 산출 · (지속 가능성) 일회성 소비가 아닌 생태계의 자생적 선순환 확률 도출 ② [인과관계 추론 알고리즘] 머신러닝 기반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특정 정책 지원이 생태계 내 어떤 속성(디지털 전환 등)의 확산을 유도하는지 예측 1) 더블 머신러닝(Double ML) 기반 정책 효과 분리 · (교란 요인 제거) 경기 변동, 지역적 특성 등 정책 외적인 변수들을 AI가 스스로 학습하여 제거하고, 순수한 정책 지원의 효과만을 정밀하게 추출함 · (반사실(Counterfactual) 생성) "만약 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예술 단체의 디지털 전환율은 어떠했을까?"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정책의 기여도를 산출함 2) 속성 전파(Attribute Diffusion) 경로 분석 · (가치사슬 내 확산 추적) '창작' 단계에 투입된 디지털 지원이 '제작'과 '전시' 단계를 거치며 어떻게 생태계 전체의 속성값(예: XR 활용도)을 높이는지 인과 지도로 시각화함 · (임계점 탐지) 디지털 전환 속성이 생태계 전체로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책 투입량과 시점을 예측함 3) 조건부 평균 처치 효과(CATE) 분석 · (대상별 맞춤형 효과 예측) 모든 단체가 아닌, 어떤 특성(장르, 규모, 지역 등)을 가진 그룹에 지원했을 때 '디지털 전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지 개별적 효과 크기를 산출함 · (정책 최적 수혜 그룹 타겟팅) 예산 투입 대비 속성 확산 효율이 가장 높은 잠재적 그룹을 AI가 우선순위로 추천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정책 결정자용 실시간 지능형 대시보드 구축	① [다차원 시각화 인터페이스] 속성 태깅 데이터를 지역별, 장르별, 가치사슬별로 실시간 매핑하는 공간 기반(GIS) 및 네트워크 대시보드 구현 1) 공간 정보(GIS) 기반 지역별 수급 불균형 히트맵 · (공간적 격차 가시화) 전국 단위 지도를 기반으로 장르별·속성별 공급 밀집도와 실시간 수요(참여율, SNS 반응 등)를 중첩하여 '문화 소외 지역' 및 '공급 과잉 지역'을 색상으로 즉각 식별함 · (마이크로 로케이션 분석) 특정 지역(구 단위 이하)을 클릭 시 해당 지역 내 가치사슬별 활동 현황과 인프라 접근성을 정밀 표기함 2) 다차원 네트워크 및 산키(Sankey) 가치사슬 뷰 · (생태계 흐름 추적) 창작 → 제작 → 유통 → 전시 → 참여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의 흐름을 네트워크 그래프로 구현하여, 각 단계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증폭되거나 정체되는지 실시간 흐름(Flow)으로 보여줌 · (속성 태깅 필터링) '디지털 융복합' 또는 'ESG' 태그 선택 시 해당 속성을 가진 활동들만 하이라이팅되어 생태계 내 확산 경로를 시각적으로 추적함 3) 정책 성과 실시간 대시보드 · (핵심 KPI 게이지) 국가 GDP 기여도(CSA), 고용 유발 인원, 탄력성 지수 등 핵심 지표를 계기판 형태로 배치하여 정책 목표 대비 현재 달성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함 · (이상 징후 알림) 특정 장르의 공급이 급감하거나 참여율이 임계점 이하로 떨어질 경우 대시보드상에 붉은색 경고등과 함께 원인 분석 팝업 노출 ② [이상징후 알림(Alert) 시스템] 특정 분야의 활동량이 급감하거나 지표상의 이상치가 발견될 경우 정책 담당자에게 즉각 알림을 발송하는 지능형 모니터링 탑재 1) 다층적 이상치(Outlier) 탐지 엔진 가동 · (임계치 기반) 과거 5년 평균 대비 활동량이 특정 비율(예: -30%) 이하로 급감할 때 즉각 포착 · (AI 기반 패턴 분석) 숫자는 정상범위이나 특정 장르·지역에서 '공급-수요 불일치'가 심화되는 비정형 패턴을 Isolation Forest 알고리즘으로 탐지 2) 맥락 인지형(Context-aware) 알림 로직 · (계절성 변동 구분) 명절, 기상 상황, 방학 등 매년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하락은 알림에서 제외하여 '알람 피로도(Alarm Fatigue)'를 방지함 · (심각도 등급화) 주의(Blue) → 경계(Yellow) → 심각(Red) 3단계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통지 대상과 대응 매뉴얼을 차등화함 3) 지능형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및 리포팅 · (실시간 푸시 알림) 이상징후 발생 시 직급별 맞춤형 Push 메시지 및 대시보드 팝업 송출 · (원인 분석 리포트 자동 생성) 알림과 동시에 "해당 지역 폐업 시설 증가", "소비 탄력성 저하" 등 예상 원인을 LLM이 초안으로 작성하여 함께 보고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AI 기반 정책 권고(Recommendation) 시스템 운영	① [데이터 기반 시사점 자동 도출] 분석된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식별하고 최적의 예산 배분 안을 AI가 제안하는 '정책 어드바이저' 모듈 개발 1) 생성형 AI 기반 정책 시사점(Insight) 자동 요약 · (데이터 서술형 번역) 복잡한 다차원 통계 결과(GIS, 가치사슬 분석 등)를 정책 결정자가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 형태의 '핵심 요약 보고서'로 자동 변환함 · (이상 증폭/하락 원인 추론) 특정 지표 변동 시, 연관된 속성 데이터를 결합 분석하여 그 근거(예: "지역 축제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의 상관관계")를 함께 제시함 2) 정책 사각지대(Blind Spot) 탐지 알고리즘 · (소외 영역 자동 발굴) 장르·지역·수혜층 데이터의 교차 분석을 통해, 지원 예산이 한 번도 닿지 않았거나 수요 대비 공급이 현저히 낮은 '문화적 고립 구역'을 지도상에 자동 핀포인팅함 · (미지원 속성 식별) 최신 기술(예: 생성형 AI 예술)이나 사회적 가치(ESG) 속성이 결여된 장르를 찾아내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권고함 3) 다목적 최적화(Multi-objective Optimization) 예산 배분 제안 · (목표별 예산 시나리오 추천) '고용 극대화', '지역 격차 해소', '국제 경쟁력 강화' 등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AI가 예산 배분 비율을 가변적으로 제안함 · (한계 가치 분석 기반 자원 할당) 추가 1억 원을 투입했을 때 가장 높은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VCE)를 낼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군을 우선순위로 추천함 ② [리포트 자동 생성] 대시보드 상의 실시간 지표를 분석 보고서 형태로 자동 변환하여 정책 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송출 1) LLM 기반 데이터 내러티브(Narrative) 자동 생성 · (수치-언어-변환 엔진) 대시보드상의 복합 지표(가치사슬, CSA, 인과관계 등)를 분석하여 "전월 대비 15% 상승"과 같은 단순 사실을 넘어 **"유통 단계의 병목 현상 완화로 인한 고용 탄력성 개선"**과 같은 정책적 문장으로 자동 기술함 · (시각화 개체 자동 삽입) 텍스트 설명에 가장 적합한 차트(산키, 히트맵 등)를 AI가 판단하여 보고서 내에 적재적소에 배치함 2) 수신자 맞춤형 멀티 레이아웃(Multi-layout) 지원 · (결정자용(Executive Summary)) 1페이지 분량의 핵심 KPI 및 정책 권고안 중심 요약본 · (실무자용(Operational Report)) 상세 데이터 테이블, 이상치 발생 이력, 기술적 품질 점수(DQS)를 포함한 심층 분석 · (대외 공표용(Public Briefing)) 인포그래픽 중심의 가독성 높은 보도자료 형태 자동 생성 3) 지능형 스케줄링 및 긴급 보고 시스템 · (정기 송출 파이프라인) 일간(핵심 지표), 주간(변동성 분석), 월간(종합 성과) 단위로 지정된 채널(이메일, 메신저, 태블릿 앱)에 자동 배달 · (임계치 기반 수시 보고) 앞서 설계한 '이상징후 알림'과 연동하여, 위기 징후 포착 시 즉각적인 '긴급 현안 분석 보고서'를 생성하여 송출함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AI 예측 모델 개발비	시나리오 분석 엔진 및 머신러닝 기반 예측 알고리즘 개발	400
지능형 대시보드 구축	인터랙티브 시각화 인터페이스 및 UI/UX 설계 (H/W, S/W)	300
시스템 통합 및 인프라	데이터 수집 허브 및 융합 분석 프레임워크와의 데이터 연동	150
운영 및 고도화	시뮬레이션 정확도 검증 및 사용자 피드백 반영 고도화	50
계		900

■ 5개년(2027~2031) 추진 로드맵

구분	1~2년차 (기반 구축)	3~4년차 (시스템 가동)	5년차 (예측 행정 완성)
핵심목표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설계	지능형 대시보드 런칭	AI 정책 자동 분석 체계 완성
주요과제	• 정책 변수 및 성과 지표 매핑 • 예측 모델링 프로토타입 개발	• 실시간 데이터 연동 대시보드 구현 • 주요 사업 대상 시뮬레이션 적용	• AI 정책 권고 서비스 상시화 • 국가 문화예술 전략 지도 완성

■ 성과관리 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	'31년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정책 예측 정확도	90% 이상	(AI 시뮬레이션 예측치 / 실제 정책 시행 후 결과치) × 100
대시보드 정책 활용도	'매우 높음'	주요 의사결정 회의 시 대시보드 활용 횟수 및 의사결정 반영률
데이터 기반 행정 만족도	90점 이상	정책 담당자 대상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효율성 및 편의성 설문

■ 기대효과

○ 과학적·선제적 문화 행정 실현

- 사후 약방문 식의 통계 활용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미래 예측을 통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조사 혁신의 성과 가시화

- 정교한 데이터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살아있는 정책 도구'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예술 통계의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을 확실히 입증함

○ 국제적 정책 선도 모델 제시

- AI와 데이터 시각화 기술을 문화 행정에 전면 도입한 선진 사례로서, UNESCO FCS 2025를 넘어선 '지능형 문화 국가'의 표본을 제시함

자. [전략과제 9] 공표 프로세스 혁신

1) (추진과제 9-1) 분기별 '잠정치(Flash Estimates)' 속보 공표제 도입

■ 추진배경

○ 심각한 통계 공표 시차(Time Lag)

- 현행 조사는 연간 단위 실사 후 정제 과정을 거쳐 익년 말에 공표됨에 따라, 실제 활동 시점과 통계 확인 시점 사이에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함.
-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외부 환경 변화 시 정책 대응력을 무력화하는 원인이 됨

○ 사후 약방문 식 정책 결정의 한계

- 통계가 확정되었을 때는 이미 생태계의 상황이 변해 있어, 데이터 기반의 적기(Just-in-Time) 정책 지원 및 예산 투입이 불가능한 구조적 모순이 존재함

■ 필요성

○ '실시간 수집'의 정책적 가치 실현

- 구축한 API 허브와 하베스팅 엔진을 통해 축적되는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정치 발표 전이라도 생태계의 흐름을 보여주는 '속보치'를 제공해야 함

○ 정책 민첩성 확보

- 분기별 잠정치를 통해 예술 활동의 증감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지능형 행정 구현이 필요함

■ 추진 목적

○ 국내 문화예술 분야 최초의 잠정치 공표 체계 확립

- 분기별 핵심 지표(활동 건수, 참여 인원 등)에 대한 속보 공표제를 도입하여 통계의 시의성 확보

○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정책 환류 시스템 가동

- 속보치를 근거로 분기별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차기 분기 예산 및 사업 계획에 즉각 반영

■ 세부 업무 내용

<table>
<tr><th>세부 과제</th><th>실행 업무 내용</th></tr>
<tr><td>분기별 잠정치
(Flash Estimates)
산출 모델 설계</td><td>
① [핵심 속보 지표 선정] 속성 데이터 중 정책 민감도가 높은 항목(장르별 활동 건수, 디지털 전환율 등)을 속보 지표로 정의
· 핵심 속보 지표 선정 및 정의 명세
<table>
<tr><th>지표 범주</th><th>핵심 속보 지표
(Flash Indicators)</th><th>선정 사유 및 정책 민감도</th></tr>
<tr><td>공급/활동</td><td>장르별 실시간 활동 건수(Activity Count)</td><td>· KOPIS 및 연계 API를 통해 수집되는 공연·전시 개막 건수
· 예술 생태계의 기초 체력 및 공급 활력 즉시 파악 가능</td></tr>
<tr><td>소비/수요</td><td>통합문화이용권 및 관람권 매출 지수</td><td>· 문화누리카드 집행액 및 주요 예매처 매출 추이
· 경기 변동에 따른 국민의 예술 향유 탄력성 실시간 측정</td></tr>
<tr><td>디지털 전환</td><td>온라인/실감형 콘텐츠 제작 비중</td><td>· 속성 태깅 데이터 중 '디지털', 'OTT', 'XR' 관련 비중
· 예술의 미래 대응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td></tr>
<tr><td>고용/인력</td><td>예술인 복지법 기반 신규 경력 증명 수</td><td>· 신규 예술인 활동 증명 및 고용보험 가입 추이
· 창작 생태계로의 신규 인력 유입 속도 측정</td></tr>
</table>
② [통계적 추정 알고리즘 개발] 일부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 분기 성과를 예측하는 시계열 모델 및 가중치 산식 설계
1) 시계열 하이브리드 예측 모델(Hybrid Forecasting) 엔진
· (통계적 베이스라인) 과거 5개년 분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RIMA 모델을 통해 기초적인 계절성(Seasonality) 및 추세(Trend) 산출
· (실시간 보정) 해당 분기 초기 1~2개월의 실시간 속보 지표 유입 시, 딥러닝(LSTM/GRU) 엔진이 기존 추세와의 괴리를 계산하여 예측치를 실시간 수정함
2) 데이터 소스별 신뢰도 가중치(Confidence Weighting) 설계
· (품질 연동형 가중치)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의 무결성 점수(DQS)가 높을수록 가중치를 부여함
· (상관성 가중치) 과거 확정치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던 데이터 소스(예: 대형 예매처 데이터)에 더 높은 비중을 할당하여 예측 정밀도를 확보함
3)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반 오차 범위(Confidence Interval) 산출
· (확률적 구간 예측) 단일 수치가 아닌, "95% 확률로 00억 ~ 00억 사이"와 같은 구간 예측값을 제시하여 정책 결정의 리스크를 관리함
· (이상 변동 감지) 예측 모델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 유입 시, 이를 단순 변동이 아닌 '정책적 특이 사항'으로 분류하여 별도 보고함
</td></tr>
</table>

<table>
<tr><th>세부 과제</th><th>실행 업무 내용</th></tr>
<tr><td>End-to-End 자동화 공표 파이프라인 구축</td><td>
① [데이터 처리 자동화] 수집-정제-분석-시각화 리포트 생성까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원스톱 자동화 파이프라인(MLOps) 구축
· E2E 자동화 파이프라인 및 MLOps 명세
<table>
<tr><th>단계</th><th>실행 업무내용</th><th>적용 기술 및 도구</th></tr>
<tr><td>① 실시간 수집 및 자동 정제 (Ingestion & ETL)</td><td>· 이벤트 기반 스트리밍: 데이터 유입 즉시 표준 스키마로 변환하고 Art-Work ID를 자동 매핑함
· 셀프 힐링(Self-healing) QC: 결측치나 오류 발견 시 AI가 유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보정하거나 격리함</td><td>Kafka, Spark Streaming, AI-Data Cleansing</td></tr>
<tr><td>② 지능형 분석 및 모델 추론 (Auto-ML/Analysis)</td><td>· MLOps 기반 모델 관리: 인과추론 및 시뮬레이션 모델을 실시간 데이터로 재학습(Retraining)하여 예측 정밀도를 상시 유지함
· 피처 자동 추출: 새로운 예술 속성이 발견되면 자동으로 변수(Feature)로 등록하고 가치사슬 모델에 반영함</td><td>Kubeflow, MLflow, Scikit-learn</td></tr>
<tr><td>③ 생성형 시각화 및 리포트 생성 (NLG & Viz)</td><td>· 자동 렌더링: 분석 결과를 대시보드 테마에 맞춰 GIS 히트맵, 산키 다이어그램 등으로 즉각 시각화함
· NLG(자연어 생성): LLM이 시각화 데이터를 해석하여 정책 시사점이 포함된 텍스트 보고서를 자동 작성함</td><td>GPT-4o API, Plotly, D3.js</td></tr>
<tr><td>④ 자동 공표 및 배포 (Deployment & CI/CD)</td><td>· 워크플로우 스케줄링: 분기별 잠정치 또는 정기 보고서를 정해진 시간에 웹, 모바일, 이메일로 자동 송출함
· 버전 관리: 공표된 모든 데이터와 보고서의 이력을 관리하여 투명성 확보</td><td>Airflow, Docker, Kubernetes</td></tr>
</table>
② [표준 속보 리포트 템플릿 개발] 정책 결정자가 즉각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대시보드 형태의 분기별 속보 보고서(Quarterly Arts Flash) 양식 표준화
· 표준 속보 리포트 템플릿 명세
<table>
<tr><th>리포트 섹션</th><th>포함 내용</th><th>시각화 방식</th></tr>
<tr><td>① Vitality Index (생태계 활력 지수)</td><td>- 당해 분기 종합 활력 점수 및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4대 핵심 지표(공급, 수요, 고용, 디지털) 요약</td><td>빅 넘버(Big Number) 및 계기판 차트</td></tr>
<tr><td>② Strategic Heatmap (공간 기반 전략지도)</td><td>- 지역별 예술 활동 밀집도 및 수급 불균형 지역 표시
- 지원 예산 대비 성과(VCE) 상위/하위 지역 특정</td><td>GIS 히트맵 (Heatmap)</td></tr>
<tr><td>③ Value Chain Flow (가치사슬 흐름도)</td><td>- 창작에서 향유까지 데이터의 흐름과 병목 구간 시각화
- 특정 속성(예: 비제도권)의 가치사슬 전이 속도</td><td>산키 다이어그램 (Sankey)</td></tr>
<tr><td>④ AI Policy Insight (지능형 시사점)</td><td>- 이상징후 발생 원인에 대한 AI의 짧고 명확한 해석
- 다음 분기 예산 배분 조정 제안 및 기대 효과</td><td>LLM 생성 텍스트 (Bullet Points)</td></tr>
</table>
</td></tr>
</table>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잠정치-확정치 간 정합성 검증 및 환류	① [사후 오차 분석] 분기별 잠정치와 익년 확정치 간의 오차를 분석하여 추정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피드백 루프 운영 1) 데이터 정합성 매칭 및 오차 정량화 · (레코드 단위 매칭) 과거에 예측했던 분기별 잠정 레코드와 실제 확정된 행정 데이터를 Art-Work ID 기반으로 1:1 매칭함 · (오차 지표 산출) 평균 절대 퍼센트 오차(MAPE), 루트 평균 제곱 오차(RMSE) 등 전문 통계 지표를 통해 예측의 정확도를 수치화함 2) 오차 원인 심층 진단 · (속성별 편향 탐지) 특정 장르(예: 공연),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정책 속성(예: 디지털 전환)에서 유독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지 편향(Bias) 요인을 분석함 · (외부 변수 영향 평가) 금리 급등, 재난 발생 등 예측 시점에 고려하지 못했던 외부 충격이 오차에 미친 영향력을 분리해냄 3) 알고리즘 자동 튜닝 및 가중치 업데이트 · (Recursive Learning) 분석된 오차 데이터를 학습 엔진에 재투입하여 시계열 모델의 파라미터를 자동 조정함 · (신뢰도 가중치 재배분) 오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이터 소스의 가중치는 낮추고, 확정치와 상관관계가 높은 소스의 가중치를 높이는 '동적 가중치 최적화' 수행 ② [대외 공신력 확보] 잠정치의 한계와 활용 범위를 명시한 통계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부하여 통계적 혼란 방지 및 신뢰도 확보 1) 잠정치 이용 가이드라인(Flash Usage Manual) 제작 · (활용 한계 명시) "본 잠정치는 속보성을 위한 추정치이며, 확정치와 ±N%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서문에 명기함 · (권장 활용 범위 정의) 정책 기획의 기초 자료로는 적극 권장하되, 법적 예산 확정이나 정밀한 학술 분석 시에는 확정치를 기다릴 것을 안내함 2) 불확실성 시각화 및 투명성 공시 · (신뢰구간 표기 의무화) 대시보드와 리포트 내 모든 잠정치에 '오차 막대(Error Bar)'를 병기하여 숫자의 유동성을 시각적으로 인지시킴 · (추정 방법론 공개) 어떤 알고리즘과 어떤 가중치를 사용해 잠정치를 도출했는지 기술 명세서(Technical Notes)를 공개하여 분석의 투명성 확보 3) 이용자 교육 및 소통 창구(Data Helpdesk) 운영 · (데이터 세미나 개최) 정책 담당자 및 언론사를 대상으로 잠정치의 올바른 해석법에 대한 정기 브리핑 실시 · (정정 공고 프로세스) 잠정치와 확정치 사이의 중대한 괴리 발견 시, 즉각적인 사유 분석과 함께 '정정 공지'를 발령하는 정직한 피드백 체계 가동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잠정치 모델 개발비	시계열 예측 알고리즘 및 잠정치 산출 통계 모델링 용역	150
공표 자동화 시스템	수집-분석-리포트 자동 생성 파이프라인(ETL) 구축	250
품질 검증 및 고도화	잠정치 오차 분석 및 알고리즘 튜닝 전문가 자문	50
대시보드 운영비	실시간 속보치 표출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비	50
계		500

■ 5개년(2027~2031) 추진 로드맵

구분	1~2년차 (모델 설계)	3~4년차 (시범 공표)	5년차 (정례 공표)
핵심목표	잠정치 산출 알고리즘 개발	주요 지표 대상 분기별 속보 시행	국가 승인 통계 속보제 안착
주요과제	• 속보 지표 정의 및 추정 모델링 • 자동화 파이프라인 구축	• 1분기 잠정치 시범 공표 실시 • 잠정치-확정치 정합성 테스트	• 전 장르 대상 분기별 속보 정례화 • 실시간 정책 반영 프로세스 가동

■ 성과관리 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	'31년 목표치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공표 시차(Time Lag) 단축	75% 감소	(기존 12개월 이상 → 속보치 기준 3개월 이내)로 단축된 기간 측정
잠정치-확정치 일치도	95% 이상	{1 - (확정치-잠정치) / 확정치)} x 100
정책 활용 적시성 만족도	90점 이상	정책 담당자 대상 속보치의 정책 결정 기여도 설문 조사

■ 기대효과

○ 통계의 적시성 혁명 및 정책 민첩성 확보

- 1년 이상 걸리던 데이터 확인 주기를 3개월 단위로 단축하여, 생태계 변화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행정(Responsive Administration)'을 구현함

○ '지능형 엔진'의 효용성 극대화

- 실시간 수집 인프라가 단순한 데이터 적재를 넘어 정책 결정의 '실전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예산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함

○ 글로벌 통계 리더십 강화

- OECD 수준의 잠정치 공표제를 문화예술 통계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통계가 빠른 문화 강국으로 각인시킴

2) (추진과제 9-2) End-to-End 자동화 공표 파이프라인 구축

■ 추진배경

○ 분절된 통계 생산 프로세스로 인한 비효율

- 데이터 수집, 정제, 분석, 시각화, 보고서 작성이 각기 다른 도구와 인력에 의해 단절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전체 공정에서의 데이터 유실 및 인적 오류(Human Error)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

○ 고비용·저효율의 공표 구조

- 매 조사 주기마다 반복되는 수기 정제 및 수동 분석 작업은 막대한 행정 예산과 시간을 소요하게 하며, 이는 통계 공표 시차(Time Lag)를 고착화하는 근본 원인이 됨

■ 필요성

○ '적시성 혁신'의 기술적 완성

- '잠정치 공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집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리포트로 출력되는 '엔드-투-엔드(End-to-End) 파이프라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데이터 거버넌스의 신뢰성 확보

- 전 과정을 자동화 파이프라인(Data Pipeline) 내에서 처리함으로써 데이터의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의적인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여 국가 통계로서의 엄밀성을 확보해야 함

■ 추진 목적

○ 원스톱 지능형 통계 생산 체계 구현

- 데이터 유입부터 공표 리포트 생성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통계 생산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

○ 데이터 기반의 상시 리포팅 서비스 제공

- 정기 공표 외에도 정책 결정자가 필요할 때 즉시 최신 통계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 On-demand 환경 구축

■ 세부 업무 내용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데이터 레이크(Data Lake) 구축	① [데이터 통합 적재] API 허브 및 하베스팅 엔진을 통해 수집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표준 규격으로 통합 저장하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레이크 구축 1) 멀티 티어(Multi-tier) 데이터 저장 아키텍처 · (Bronze Zone (Raw)) API 및 하베스팅 엔진에서 유입된 날것의 데이터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데이터 유실 방지 · (Silver Zone (Refined)) Art-Work ID 매핑, 중복 제거, 표준화가 완료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적재 · (Gold Zone (Curated)) 정책 시뮬레이터와 대시보드에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요약·가공된 분석용 데이터셋 구성 2) 정형·비정형 하이브리드 통합 저장 체계 · (구조화 데이터(Structured)) 공연 예매 현황, 예산 집행 내역 등 표 형태의 데이터를 고성능 클라우드 DB에 최적화 저장 ·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예술가 인터뷰, SNS 반응, 포스터 이미지 등 대용량 파일을 객체 스토리지(Object Storage)에 저장하고 메타데이터로 연결함 3) 클라우드 기반 무한 확장성(Scalability) 확보 · (Serverless 아키텍처) 데이터 유입량이 급증하는 시기(예: 축제 시즌)에 맞춰 저장 및 연산 자원이 자동으로 확장(Auto-scaling)되는 환경 구축 · (데이터 거버넌스 자동화) 데이터의 생애주기에 따라 오래된 데이터는 저비용 저장소로 자동 이동(Tiering)시켜 운영 비용 최적화 ② [실시간 데이터 변환(ETL)] 유입된 원시 데이터를 다차원 속성 코드로 자동 변환하고 정제하는 지능형 ETL 프로세스 설계 1) AI 기반 의미론적 코드 매핑 · (자연어 처리(NLP) 엔진) 사업명이나 개요 텍스트를 분석하여 UNESCO FCS 2025 및 위원회 표준 코드북의 속성(예: '비제도권', '실감형')을 자동 추출 및 태깅함 · (실시간 코드 변환) 연계 기관마다 다른 제각각의 코드 체계를 우리 시스템의 Art-Work ID 기반 표준 코드로 실시간 치환함 2) 실시간 데이터 정제 및 결합 · (중복 데이터 자동 병합) 서로 다른 소스에서 들어온 동일 예술 활동(예: KOPIS 예매 데이터와 포털 검색 데이터)을 AI가 판별하여 하나의 레코드로 통합함 · (결측치 지능형 보정) 누락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 과거 유사 활동의 패턴이나 외부 거시 지표를 바탕으로 가장 확률 높은 값을 제안하거나 보정함 3) 동적 스키마 관리 · (신규 장르 자동 감지)기존 코드북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활동(예: AI 협업 아트 등)이 감지되면, 이를 '미분류 속성'으로 격리하고 운영자에게 코드북 업데이트 알림을 전송함 · (버전별 정합성 유지) 코드북이 업데이트되어도 과거 데이터와의 통계적 연속성이 깨지지 않도록 변환 로직의 이력(Lineage)을 관리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자동 분석 및 시각화 엔진(BI 연동) 개발	① [분석 로직 자동화] 가치사슬 및 융합 분석 모델을 알고리즘화하여, 데이터 유입과 동시에 주요 지표(KPI)를 자동 산출 1) 가치사슬 단계별 지표(Chain-KPI) 자동 계산 · (창작~참여 전주기 분석) 유입된 데이터의 Art-Work ID를 식별하여 창작 단계의 투입이 생산, 유통을 거쳐 최종 '향유/참여'에 도달하는 전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추적함 · (병목 구간 자동 탐지) 각 단계별 전환율을 계산하여 성과가 정체되는 특정 지점(예: 유통 인프라 부족 등)을 실시간으로 도출함 2) 다차원 융복합 지수(Convergence Index) 산출 · (속성 간 연계 분석) '디지털', '전통', '기술 융합' 등 태깅된 속성값들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계산함 · (융복합 기여도 측정) 단순 장르 지원 대비 기술 융복합 지원이 고용이나 매출에 미치는 순기여도를 자동 산출함 3) 통계적 무결성 자동 검증 · (이상치(Outlier) 즉시 여과) 수집된 데이터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극단값을 알고리즘이 스스로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정함 · (표본 오차 실시간 계산)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에 따른 신뢰 수준과 표본 오차를 분석 지표 옆에 실시간으로 병기함 ② [인터랙티브 시각화 인터페이스] 분석된 지표를 정책 결정자용 대시보드와 대외 공표용 인포그래픽으로 실시간 자동 변환하여 연동 ▪ 정책 결정자용 지능형 대시보드 1) 실시간 정책 지표 관제 모듈 · (Executive Summary View) 가치사슬 효율성(VCE), 예산 대비 성과, 장르별 활력 지수 등 핵심 KPI를 단일 화면에 대시보드화함 · (Drill-down 기능) 특정 지표 클릭 시 '지역별 → 장르별 → 사업 속성별'로 데이터를 세분화하여 원인을 즉각 추적할 수 있는 심층 탐색 환경 구축 2) 시나리오 비교 인터페이스 · (Side-by-Side 분석) 앞서 설계한 '디지털 트윈'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현재의 실측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대조하여 정책 수정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대외 공표용 자동 인포그래픽 (External) 1) 데이터 기반 스토리텔링 자동 생성 · (Dynamic Infographic) 분석 결과에 맞춰 차트, 지도, 픽토그램이 실시간 반영되는 반응형 웹 페이지 형태의 통계 공표 시스템 구축 · (소셜 미디어 최적화) 주요 통계 수치를 카드뉴스나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로 자동 렌더링하여 배포 편의성 확보 2) 사용자 중심 데이터 시각화 커스터마이징 · (시민 참여형 인터페이스) 국민들이 직접 거주 지역이나 관심 장르를 선택하여 맞춤형 문화예술 통계를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기능 탑재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AI 기반 ‘Auto-Reporting’ 시스템 구현	① [보고서 자동 생성 모듈]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된 통계 수치를 서술형 문장으로 변환하고, 표준 보고서 템플릿에 맞춘 정기/속보 보고서를 자동 출력 1) 데이터-투-텍스트(Data-to-Text) 전환 엔진 · (핵심 변동 사항 요약) 유입된 통계 수치 중 전월/전년 대비 유의미한 변화(이상치, 급증/급감 등)를 AI가 즉각 포착하여 서술형 문장으로 초안 작성 · (정책적 맥락 해석) 단순 수치 나열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율 상승으로 인한 창작 생태계의 비대면 확장세 뚜렷"과 같은 '인사이트 중심'의 문장 생성 2) 표준 보고서 템플릿 지능형 매핑 · (용도별 맞춤형 양식 적용) 정기 보고서(상세 분석형), 속보 보고서(요약 관제형), 대외 공표용(인포그래픽 결합형) 등 사전에 정의된 템플릿에 데이터와 문장을 자동 배치 · (다이나믹 레이아웃) 데이터의 양과 중요도에 따라 차트와 텍스트의 배치를 AI가 최적으로 조정하여 가독성 극대화 3) 다국어 및 정책 전문 용어 최적화 · (UNESCO 대응 영문 리포트 자동화) 우리 위원회의 성과를 유네스코 표준 용어(Policy Language)로 번역하여 영문 속보 리포트 즉시 발행 · (국내 문화행정 전문 용어 학습) '예술인 복지', '통합문화이용권' 등 한국 특유의 정책 용어를 맥락에 맞게 정확히 사용하도록 미세 조정 ② [데이터 이력 관리(Lineage)] 수집부터 공표까지 데이터가 변환된 경로를 시각화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상시 검증하는 관리 체계 탑재 1) 전주기 데이터 흐름 시각화 · (데이터 지도 구현)특정 보고서의 수치가 KOPIS(공연), 문화누리카드(소비), 혹은 공공 API 중 어디서 기원했는지 그 뿌리부터 최종 출력까지의 경로를 대시보드상에 그래프로 시각화함 · (변환 이력 추적) "Raw Data → 정제(ETL) → 가중치 적용 → AI 분석"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에서 데이터의 형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로그를 남기고 즉각 확인 가능하게 함 2) 실시간 데이터 정합성 체크 · (체크섬(Checksum) 자동 검증) 데이터가 한 단계 이동할 때마다 입력값과 출력값의 총합이나 개수를 대조하여 누락이나 변조 여부를 0.1초 단위로 자동 확인 · (임계치 기반 논리 검증) 과거 데이터 추이와 비교하여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예: 갑작스러운 1,000% 증폭 등) 유입 시 즉각 파이프라인을 차단하고 격리함 3) 감사 및 버전 관리 · (수정 이력 아카이브) 데이터나 분석 알고리즘의 파라미터가 수정된 경우 '누가, 언제, 왜' 수정했는지 모든 이력을 기록하여 사후 추적성을 확보함 · (시점 복구(Point-in-time) 기능) 특정 시점의 보고서가 어떤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스냅샷을 찍어 보관함으로써, 과거 통계와의 비교 분석 시 정합성을 보장함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파이프라인 구축비	클라우드 데이터 레이크 및 지능형 ETL 시스템 구축 (S/W, H/W)	400
분석/시각화 개발비	자동 분석 알고리즘 및 BI 대시보드 인터페이스 개발	200
AI 리포팅 엔진 개발	생성형 AI 기반 보고서 자동 초안 생성 및 검증 모듈 개발	150
보안 및 이력 관리	데이터 이력 추적 시스템 및 보안 게이트웨이 구축	50
계		**800**

■ 5개년(2027~2031) 추진 로드맵

구분	1~2년차 (설계 및 인프라)	3~4년차 (시스템 구축)	5년차 (최적화)
핵심목표	파이프라인 설계 및 데이터 레이크 구축	원스톱 자동 공표 시스템 런칭	지능형 자동 리포팅 체계 안착
주요과제	• 데이터 표준 스키마 및 ETL 설계 •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조성	• 자동 분석 및 시각화 모듈 탑재 • 분기별 잠정치 공표 연동 테스트	• AI 자동 보고서 생성률 90% 달성 • 대외 공표 서비스 실시간화

■ 성과관리 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	'31년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공표 리포트 생성 속도	90% 단축	(도입 전 보고서 작성 소요 시간 - 도입 후 자동 생성 시간) / 도입 전 시간
데이터 처리 자동화율	95% 이상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 처리된 데이터 항목 수 / 전체 항목 수) × 100
데이터 무결성 지수	100%	데이터 수집-공표 간 값의 일치 여부 및 이력 추적 성공률

■ 기대효과

○ 통계 행정의 디지털 전환(DX) 완성

- 수기 작업에 의존하던 기존의 아날로그식 공표 체계를 완전 자동화된 디지털 파이프라인으로 전환하여 '문화행정 지능화'의 표본을 제시함

○ 통계 적시성 및 대국민 서비스 혁신

- 공표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국민과 정책 결정자에게 '살아있는 통계'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의 사회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함

○ 글로벌 표준 리더십 확보

- UNESCO FCS 2025를 실제 자동화 기술로 구현한 선진 사례로서, 국제 문화 통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적·정책적 위상을 공고히 함

차. [전략과제 10] 서비스 및 환류 고도화

1) (추진과제 10-1) 사용자 친화적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 제공

■ 추진배경

○ 분류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진입 장벽

- 다차원 속성 및 가치사슬 분류는 전통적 장르 분류보다 훨씬 세밀하고 방대함에 따라 조사원이 적절한 코드를 찾는 데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오분류(Misclassification)를 범할 위험이 큼

○ 정적인 매뉴얼의 한계

- 기존의 책자나 PDF 형태의 코드북은 검색이 불편하고, 특히 기술 융합형 예술이나 비제도권 활동과 같은 신규 사례를 시각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정보 전달력에 한계가 있음

■ 필요성

○ '지능형 조사'의 사용자 가이드

- '분류 추천 지원 도구'가 AI의 제안이라면, 본 과제는 조사원이 스스로 판단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돕는 '지능형 백과사전'임

○ 데이터 이용자의 분석 편의성 제고

- 실무자뿐만 아니라 학계, 정책 입안자 등 데이터 수요자들이 각 속성 태그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이터 소통 창구'가 필수적임

■ 추진 목적

○ 웹 기반 인터랙티브 검색 엔진 구축

- 분류 코드, 용어 정의, 사례, 연계 표준(UNESCO, KSIC)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제공

○ 시각적 예시(Case-based) 중심의 가이드 강화

- 텍스트 위주의 설명을 넘어 사진, 영상, 도식 등을 활용하여 복잡한 예술 활동 속성을 직관적으로 이해시킴

■ 세부 업무 내용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지능형 용어 사전 및 검색 엔진 구축	① [동적 검색 시스템] 키워드 입력 시 관련 속성, 정의, 상·하위 개념을 실시간으로 나열하는 시맨틱(Semantic) 검색 기능 구현 1) 벡터 기반 시맨틱 검색(Vector-based Search) 엔진 · (의미론적 이해) 단순 키워드 매칭이 아닌,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하여 유사한 맥락의 결과 도출(예: '비제도권' 검색 시 '인디', '거리예술', '언더그라운드' 등 관련 개념 자동 포함) · (다국어 매핑) 유네스코(UNESCO) 표준 용어와 국내 정책 용어를 1:1로 매핑하여 영문/국문 혼용 검색 시에도 동일한 통계 결과 도출 2) 지능형 계층 구조(Taxonomy) 자동 나열 · (상·하위 개념 매핑) 검색어 입력 시 해당 단어의 상위 카테고리(예: 예술 장르)와 하위 세부 항목(예: 현대무용, 발레 등)을 계층형으로 실시간 시각화 · (속성 태깅 연동) 해당 용어와 결합된 다차원 속성(디지털, 융복합 등)을 필터 형태로 즉시 제시하여 검색 범위를 정밀하게 좁힐 수 있도록 지원 3) 실시간 자동 완성 및 지식 요약 · (컨텍스트 자동 완성) 위원회 내부의 최신 정책 트렌드와 연구 보고서 빈출 단어를 우선순위로 하는 자동 완성 기능 제공 · (용어 정의 즉시 노출) 검색창 내에서 해당 용어의 법적·통계적 정의를 팝업 형태로 즉시 노출하여 용어 사용의 혼선 방지 ② [다차원 크로스워크(Cross-walk) 시각화] 특정 코드를 클릭하면 UNESCO FCS, KSIC, KSCO 등 연계된 국가/국제 표준 코드를 즉각 보여주는 매핑 맵 구현 1) 인터랙티브 코드 노드(Node) 인터페이스 · (중심 코드 활성화) 우리 위원회의 특정 속성 코드(예: 디지털 융복합 예술)를 클릭 시, 화면 중앙에 해당 노드가 배치되고 관련 표준들이 방사형으로 나열됨 · (다차원 계층 구조 시각화) UNESCO FCS 2025, KSIC(산업), KSCO(직업) 등 각 표준 체계가 서로 다른 색상의 레이어로 구분되어 한눈에 파악 가능한 인터페이스 구축 2) 1:N / N:M 매핑 로직 및 가중치 표기 · (다중 매핑 경로 추적) 하나의 내부 코드가 여러 외부 코드와 연결될 경우(1:N), 각 연결선(Link)의 두께나 투명도로 '매칭 강도'나 '정합성 확률'을 시각적으로 표현 · (상세 속성 팝업) 연결된 표준 코드 클릭 시 해당 표준의 정의, 최신 개정 이력, 매핑 근거 데이터를 툴팁(Tooltip) 형태로 즉각 제공 3) 실시간 코드 변환 시뮬레이션 · (데이터 변환 미리보기) 특정 표준(예: KSIC)으로 데이터를 변환했을 때 예상되는 통계 수치 변화를 즉석에서 계산하여 그래프로 제시 · (글로벌 정합성 검증) 현재 우리 데이터셋이 유네스코 보고 규격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실시간 정합성 점수를 산출하여 미흡한 구간을 하이라이팅함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시각적 예술 활동 사례 라이브러리 제작	① [속성별 레퍼런스 구축] 융복합, 디지털, 사회적 가치 등 모호한 속성에 대해 실제 공연/전시 사례(이미지, 영상 링크 포함)를 매칭하여 판정 기준 구체화 1) 3대 핵심 속성(Digital·Convergence·Social) 시각 맵핑 · (디지털(Digital)) 단순 온라인 중계를 넘어 XR, 메타버스, 생성형 AI 활용 공연/전시의 층위별(Level 1~5) 이미지 및 영상 링크 매칭 · (융복합(Convergence)) 기술 간 결합(예: 로봇+무용), 장르 간 결합(예: 국악+재즈)의 실제 성공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 적재 ·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기후 위기, 장애인 접근성(배리어프리), 지역 재생 등 주제별 대표 작품의 아카이브 구축 2)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 판정 가이드라인 수립 · (판정 지표 구체화) "이 이미지가 포함되면 융복합으로 간주함"과 같은 시각적 체크리스트 제공 · (유사 사례 비교 분석) 겉보기에는 비슷하나 속성이 다른 사례(예: 단순 디지털 기록 vs 디지털 창작)를 대조군으로 배치하여 혼선 방지 3) 인터랙티브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 구현 · (속성 검색 및 미리보기) 특정 속성 키워드 입력 시 관련 공연/전시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속성 태깅 내역이 팝업으로 노출되는 UI 구축 · (연동형 업데이트) 지원 사업 선정 결과 중 '우수 사례'로 꼽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라이브러리에 자동 편입시키는 순환 구조 설계 ② [가상 시나리오 가이드] "카페에서 열리는 미디어아트 전시는 어떤 속성을 갖는가?"와 같은 복합 사례별 태깅 표준 가이드 제공 1) 다차원 복합 시나리오 정의 (Scenario Definition) · (공간-장르 융합형) 카페, 시장, 병원 등 비예술 공간에서의 전문 예술 활동 판정 기준 수립 (예: '카페 미디어아트' → 공간: 상업, 장르: 디지털, 속성: 대중접점형) · (기술-매체 전이형: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이 단순 기록물인지, '디지털 창작물'인지 구분하는 하한선(Threshold) 설정 2) 우선순위 기반 태깅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 설계 · (단계별 필터링) 1단계(전문성 유무) → 2단계(주된 목적: 수익 vs 공익) → 3단계(매체 특성) 순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도 구축 · (다중 태깅 규칙) 하나의 사례에 여러 속성이 겹칠 때, 주(Primary) 속성과 부(Secondary) 속성을 부여하는 가중치 기준 마련 3) 경계선 사례 판정 기준 강화 · (상업 vs 예술 경계) 기업 홍보용 팝업 스토어 내 예술 전시를 '지원 대상 통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거절/승인 사례(Bad/Good Case) 제시 · (참여 vs 관람 경계)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에서 관객의 행위를 '창작'으로 볼 것인지 '향유'로 볼 것인지에 대한 통계적 정의 명확화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사용자 참여형 위키(Wiki) 및 업데이트 체계	① [오픈 위키 시스템] 현장 조사원이 발견한 신규 예술 형태나 분류 애매 사례를 등록하고 전문가가 답변하는 양방향 지식 공유 환경 조성 1) 현장 기반 사례 등록 인터페이스 · (실시간 업로드) 현장 조사원이 모바일 앱을 통해 발견한 신규 예술 형태의 사진, 영상, 활동 개요를 즉시 등록 · (애매 사례 태깅) 기존 분류 체계로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와 의문점을 구조화된 양식으로 입력 2) 전문가 검증 및 답변(Expert Peer-Review) 워크플로우 · (자동 알림 시스템) 특정 전공 분야의 신규 사례 등록 시 해당 분야 전문가 그룹에게 즉각 검증 요청 발송 · (심층 토론 게시판) 전문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각자의 근거와 유네스코(UNESCO)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논의하는 스레드형 토론장 운영 3) 지식 그래프 기반 연관어 맵 구축 · (시맨틱 연결) 등록된 사례를 중심 키워드로 하여 상·하위 개념 및 유사 예술 형태를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지식 맵 생성 · (사례 기반 사전) 확정된 판정 결과는 '표준 용어 사전'의 실질적인 예시로 자동 편입되어 교육 자료로 활용 ② [실시간 동기화] ‘디지털 코드북’ DB와 연동하여, 분류 기준 변경 시 대시보드와 조사 시스템에 즉각 반영되는 자동 업데이트 체계 탑재 1) 트리거 기반 디지털 코드북(Digital Codebook) 연동 · (자동 승인 및 반영) 전문가 위키에서 최종 승인된 신규 분류 코드나 정의가 마스터 DB인 '디지털 코드북'에 입력되는 순간, 연동된 모든 시스템에 업데이트 신호(Webhook)를 발송함 · (API 기반 스키마 업데이트: 별도의 프로그램 수정 없이, 조사 시스템의 입력 양식과 대시보드의 필터 항목이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변경됨 2) 하이브리드 업데이트 모듈 · (조사 단말기 즉시 갱신) 현장 조사원이 앱을 실행할 때마다 최신 코드북 버전을 체크하여 자동 다운로드함 · (오프라인 작업 보장) 네트워크 불안정 시에도 로컬에 저장된 최신 코드로 조사하고, 접속 시 데이터 정합성을 체크하여 서버와 동기화함 3) 통계적 시점 관리 및 버전 컨트롤 · (시점별 통계 산출) 분류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데이터를 각각 분리하여 조회하거나, 신규 기준에 맞춰 과거 데이터를 소급 재분류(Re-classification)하는 기능 지원 · (이력 추적) 특정 코드가 언제, 어떤 전문가의 의견으로, 왜 수정되었는지 모든 변경 이력을 코드북 내에 아카이브함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플랫폼 개발비	웹/모바일 인터랙티브 코드북 시스템 및 검색 엔진 개발	150
콘텐츠 제작비	장르별·속성별 시각적 사례(사진, 인포그래픽) 라이브러리 구축	100
DB 연동 및 표준화	스템 API 연동 및 표준 분류 매핑 데이터 정제	50
홍보 및 교육비	코드북 활용법 가이드 배포 및 사용자 교육 세미나 운영	50
계		**350**

■ 5개년(2027~2031) 추진 로드맵

구분	1~2년차 (설계 및 구축)	3~4년차 (서비스 고도화)	5년차 (지능형 안착)
핵심목표	디지털 코드북 아키텍처 설계	인터랙티브 검색 및 사례 서비스	지능형 정책 가이드로 진화
주요과제	• 표준 용어 정의 및 DB 구축 • 웹 플랫폼 UI/UX 설계	• 시각적 사례 라이브러리 확대 • 조사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	• AI 기반 용어 추천 기능 결합 • 대국민 데이터 서비스 통합

■ 성과관리 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	'31년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분류 코드 검색 성공률	95% 이상	(검색을 통해 정확한 코드를 찾아낸 비율) 사용자 로그 분석 및 설문
사용자 만족도(CSAT)	90점 이상	조사원 및 데이터 이용자 대상 시스템 편의성 및 유용성 평가
콘텐츠 업데이트 빈도	분기별 1회 이상	신규 예술 사례 및 분류 기준 업데이트 이력 관리 리포트

■ 기대효과

○ 데이터 생산 및 이용의 '상향 표준화'

- 조사원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분류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다차원 속성 태그' 데이터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임

○ 조사 교육 비용 및 행정 소모전 절감

- 두꺼운 매뉴얼 교육 대신 디지털 코드북을 통한 상시 자습 체계를 구축하여 조사원 교육 비용과 분류 관련 문의 대응 행정력을 절감함

○ 글로벌 통계 문해력 선도

- UNESCO FCS 2025 가이드라인을 가장 쉽고 명확하게 디지털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문화예술 통계의 이용자 친화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림

2) (추진과제 10-2) 전문 연구자용 '오픈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포털' 운영

■ 추진배경

○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성 및 개방성 미흡

- 현재 문화예술 통계는 가공된 요약표(Table) 중심으로 제공되어, 전문 연구자들이 개별 단위 데이터(Raw-data)를 직접 분석하여 심층적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데이터 사일로(Silo)로 인한 융합 연구의 어려움

-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행정 데이터 등이 분산 관리되고 있어, 연구자가 여러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행정 절차와 시간이 소요됨

■ 필요성

○ '고밀도 데이터'의 학술적·정책적 가치 극대화

- 생성된 다차원 속성 데이터와 가치사슬 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고준위 정책 분석 결과물을 양산해야 함.

○ 증거 기반 정책(EBPM) 생태계 조성

- 연구자들이 포털을 통해 상시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환류하는 '데이터 선순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문화 행정의 과학화를 달성해야 함

■ 추진 목적

○ 지능형 마이크로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

- 연구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검색, 결합,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포털 운영.

○ 데이터 보안과 개방의 균형 확보

- 비식별 조치가 완료된 안전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연구 자율성을 동시에 충족함

■ 세부 업무 내용

<table>
<tr><th>세부 과제</th><th>실행 업무 내용</th></tr>
<tr><td>클라우드 기반 원격 분석 환경(RDC) 구축</td><td>① [가상 분석 서버 제공] 연구자가 자신의 PC에서 포털에 접속하여 고사양의 통계 소프트웨어(SPSS, R, Python 등)를 활용할 수 있는 원격 분석 환경(Remote Data Center) 운영
<table>
<tr><th>구분</th><th>실행 업무 내용</th><th>적용 기술 및 도구</th></tr>
<tr><td>고성능 VDI(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구축</td><td>· 탄력적 자원 할당: 연구 모델의 복잡도에 따라 CPU, RAM, GPU 자원을 유동적으로 배분하는 클라우드 기반 가상 머신(VM) 제공
· 무설치 접속 환경: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즉시 분석 환경에 진입하는 HTML5 기반 게이트웨이 구축</td><td>AWS WorkSpaces, Azure Virtual Desktop</td></tr>
<tr><td>통계 및 AI 분석 소프트웨어 스택 구성</td><td>· 표준 분석 툴셋: 전통적 통계 도구(SPSS, SAS, Stata)부터 최신 오픈소스 환경(R-Studio, Jupyter Lab/Python)까지 완비
· 라이브러리 매니지먼트: 연구 목적에 맞는 최신 라이브러리(Tensorflow, PyTorch 등)를 사전에 패키징하여 즉각적인 연구 수행 지원</td><td>SPSS, R, Python, Conda Environment</td></tr>
<tr><td>격리된 데이터 샌드박스 (Sandbox) 운영</td><td>· 외부 유출 차단: 가상 서버 내에서의 인터넷 접속, 파일 복사, 캡처 기능을 원천 차단하여 데이터 보안을 강화함
· 내부 데이터 매핑: 분석용으로 정제된 마스터 DB(Gold Zone)를 가상 서버에 읽기 전용(Read-only)으로 즉각 마운트하여 분석 속도 극대화</td><td>Air-gapped VDI, Data Vault</td></tr>
</table>
② [데이터 반출 제어] 분석 결과값만 반출 가능하도록 통제하는 보안 게이트웨이 구축으로 마이크로데이터 유출 원천 차단
1) 결과물 전용 반출 게이트웨이(Export Gateway) 구축
· (단방향 파일 전송) 분석 환경(RDC)에서 외부로의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사전 승인된 특정 경로(보안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만 결과 파일 전송 허용
· (매체 및 클립보드 통제) 가상 서버와 연구자 PC 간의 복사·붙여넣기, 캡처, 이동식 저장장치(USB) 인식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DLP 솔루션 적용
2) 지능형 개인정보 스캐닝 및 마스킹
· (자동 검출 엔진) 반출 요청된 파일(Excel, PDF, CSV 등) 내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혹은 특정 예술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식별자가 포함되었는지 AI가 전수 조사함
· (임계치 기반 거부) 행수(Row count)가 너무 적어 특정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소규모 집단 통계'의 경우, 통계적 비밀 보호 원칙에 따라 반출을 자동 거부함
3) 다단계 반출 승인 워크플로우
· (AI 1차 검수 → 관리자 2차 승인) AI가 무결성을 확인한 파일에 대해 데이터 관리자가 최종적으로 정책적·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워크플로우 운영
· (반출 이력 워터마킹) 모든 반출 파일에는 요청자 정보, 승인 일시, 위변조 방지용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사후 추적성 확보</td></tr>
</table>

<table>
<tr><th>세부 과제</th><th>실행 업무 내용</th></tr>
<tr><td>지능형 데이터
카탈로그 및 큐레이션
서비스</td><td>① [시맨틱 데이터 검색] 디지털 코드북과 연동하여, 장르·속성·가치사슬 단계별로 필요한 데이터셋을 즉각 찾아주는 지능형 카탈로그 서비스 제공
1) 다차원 속성 태깅 기반 카탈로그
· (자동 메타데이터 추출) 유입되는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 장르, 속성(디지털, 융복합 등), 가치사슬 단계(창작~향유)를 AI가 자동으로 태깅하여 카탈로그화함
· (코드북 동기화) 위키(Wiki) 등을 통해 업데이트된 최신 분류 기준이 카탈로그 검색 필터에 실시간 반영되는 구조 구축
2) 맥락 중심 시맨틱 검색 엔진
· (의도 기반 검색)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서양음악 분야의 창작 단계 데이터"와 같은 문장형 검색 시, 관련 데이터셋을 우선순위별로 나열
· (연관 데이터셋 추천) 특정 데이터 검색 시, 함께 분석하면 좋은 유관 데이터(예: 공연 예매 + 예술인 복지 데이터)를 추천하는 큐레이션 기능 제공
3) 가시성 기반 데이터 미리보기
· (즉각적 프로파일링) 검색된 데이터셋을 클릭하기 전, 해당 데이터의 결측치 비율, 성별/연령별 분포, 시계열 추이 등을 요약 그래프로 즉시 제시
· (샘플링 데이터 제공) 연구자가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소량의 샘플 데이터를 가상 환경(RDC)과 연동하여 미리보기 지원

② [추천 데이터셋] ‘청년 예술가 실태 분석’, ‘기술 융합 성과 분석’ 등 주요 정책 테마별로 미리 결합된 표준 분석 데이터셋 제공
<table>
<tr><th>정책 테마</th><th>포함된 결합 데이터셋</th><th>분석 가능한 핵심 인사이트</th></tr>
<tr><td>청년 예술가 실태 분석</td><td>예술인 경력정보(신진) + 창작 지원금 수혜 이력 + 통합문화이용권 소비 패턴 + 고용보험 가입 현황</td><td>청년 예술가의 진입 장벽 식별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로 맞춤형 지원' 설계</td></tr>
<tr><td>기술 융합 성과 분석</td><td>융복합 지원 사업 데이터 + KOPIS(디지털 공연) 매출 + SNS 기술 언급량 + 실감형 콘텐츠 만족도 조사</td><td>기술 도입이 예술적 성취 및 관객 확장(매출)에 미치는 '순기여도' 및 투자 대비 성과(ROI) 측정</td></tr>
<tr><td>지역 문화 격차 해소</td><td>지역별 문화시설 분포(GIS) + 인구 통계 + 지역별 수혜자 분포 + 지자체별 문화 예산 데이터</td><td>인프라 부족 지역과 향유 소외 지역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문화 자치' 우선 지원 지역 도정</td></tr>
<tr><td>예술의 사회적 가치</td><td>배리어프리 공연 데이터 + 노인/장애인 향유 데이터 + 기후 위기 관련 창작 활동 + 사회적 기업 매출</td><td>예술이 사회 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SROI)' 정량화</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세부 과제</th><th>실행 업무 내용</th></tr>
<tr><td>비식별화
(Anonymization)
자동화
파이프라인 적용</td><td>① [실시간 비식별 처리] 솔티드 해시(Salted Hash) 및 K-익명성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요청한 데이터셋을 실시간으로 비식별화하여 제공하는 파이프라인 가동

<table>
<tr><th>세부과제</th><th>실행 업무내용</th><th>적용 기술 및 도구</th></tr>
<tr><td>솔티드 해시
(Salted Hash)
기반 고유식별자
암호화</td><td>· 비가역적 치환: 예술인 성명, 주민번호 등 고유 식별자에 무작위 문자열(Salt)을 추가하여 해싱함으로써, 원본을 추측할 수 없도록 철저히 격리함
· 연계성 유지: 동일 인물에 대해 항상 같은 해시값이 생성되도록 관리하여, 비식별 상태에서도 여러 데이터셋 간의 패널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td><td>SHA-256/384,
Key
Management
System (KMS)</td></tr>
<tr><td>지능형 K-익명성
(K-Anonymity)
가공 엔진</td><td>· 그룹화(Generalization):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희귀 속성(예: 99세 예술인 → 90대)을 범주화하여 동일 속성군을 최소 k명 이상으로 구성함
· L-다양성 및 T-근접성 보강: 민감 정보(지원금 액수 등)가 특정 그룹 내에 편중되지 않도록 통계적으로 분산시켜 재식별 위험을 원천 차단함</td><td>ARX
(Anonymization
Tool),
Python-PyARX</td></tr>
<tr><td>실시간 온디맨드
(On-demand)
파이프라인</td><td>· 자동 추출 및 변환: 연구자가 포털에서 필요한 변수를 선택하면, 파이프라인이 즉각 가동되어 비식별 처리가 완료된 '연구용 데이터셋'을 가상 서버(RDC)에 적재함
· 품질 손실 최소화: 보안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통계적 유의성(Utility)이 훼손되지 않도록 변수별 최적의 비식별화 강도를 자동 조절함</td><td>Apache Airflow,
Spark ETL</td></tr>
</table>

② [데이터 무결성 유지] 비식별 처리 후에도 통계적 유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데이터 품질을 상시 검증하는 알고리즘 탑재

1) 정보 손실률(Information Loss) 실시간 측정

· (일반화 오차 분석) 성별, 연령 등을 범주화(예: 23세 → 20대)할 때 발생하는 정보의 구체성 손실을 수치화함

· (데이터 유용성 지표(Utility Score)) 비식별 처리 전후의 데이터 가치를 비교하여,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밀도가 유지되는지 자동으로 체크함

2) 통계적 분포 유사성 검증

· (확률 분포 대조) 원본 데이터와 비식별 데이터의 평균, 분산, 상관계수 등 주요 통계적 특성이 일치하는지 검증함

· (교차 검증) 비식별화된 데이터로 회귀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수행했을 때, 원본 데이터와 동일한 정책적 결론이 도출되는지 가상 테스트 수행

3) 동적 유용성 최적화

· (적응형 비식별 임계치 설정) 특정 연구 목적(예: 정밀 정책 시뮬레이션)에 따라 보안 등급은 유지하되, 통계적 왜곡을 최소화하도록 비식별화 강도를 알고리즘이 스스로 미세 조정함

· (품질 미달 시 재공정(Feedback Loop)) 유용성 점수가 임계치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해당 데이터셋의 비식별화 방식을 즉각 변경하거나 연구자에게 데이터의 한계를 자동 공지함</td></tr>
</table>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포털 시스템 개발비	데이터 카탈로그, 검색 엔진 및 연구 지원 UI/UX 개발	300
원격 분석 인프라 구축	클라우드 가상 서버(VDI) 및 보안 분석 환경 구축	400
데이터 정제 및 가공	마이크로데이터 표준화, 비식별화 파이프라인 및 메타데이터 구축	150
운영 및 보안 관리	포털 운영 인력 및 정보보호 인증(ISMS) 유지 비용	100
		950

■ 5개년(2027~2031) 추진 로드맵

구분	1~2년차 (시스템 구축)	3~4년차 (서비스 고도화)	5년차 (생태계 활성화)
핵심목표	통합 포털 및 분석 환경 구축	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및 연계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의 허브화
주요과제	• 마이크로데이터 표준 스키마 설계 • 클라우드 분석 환경 런칭	• 행정 데이터-설문 데이터 결합 서비스 • 연구자용 지능형 API 배포	• 연간 100건 이상의 심층 분석 보고서 생산 • 글로벌 연구 데이터 허브 연동

■ 성과관리 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	'31년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데이터 개방 지수	100%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한 마이크로데이터 항목 수 / 전체 생산 항목 수) × 100
포털 이용 연구자 수	2,000명 이상	연간 포털 회원 가입 및 분석 환경(RDC) 이용 실적(Log)
2차 연구 성과물 건수	300건 이상	본 포털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된 논문, 학술 보고서, 정책 제언서 누계

■ 기대효과

○ 문화예술 통계의 사회적 활용도 획기적 제고

- 정밀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예술 현장의 사각지대와 미래 트렌드를 민간 연구자들이 발굴하도록 지원함

○ 정책 결정의 과학적 기반(Evidence) 강화

- 포털을 통해 양산된 전문적인 연구 결과물들이 문예위의 신규 사업 기획과 예산 확보의 강력한 객관적 근거로 활용됨

○ 국제 수준의 데이터 개방성 달성

- UNESCO FCS 2025가 지향하는 '데이터 민주주의'를 실천하여, 대한민국을 전 세계 문화 통계 연구자들이 가장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국가로 선포함

카. [전략과제 11] 질적 성과 측정 및 해석 표준화

1) (추진과제 11-1) 문화예술 사회적 임팩트(Impact) 측정 지표 개발

■ 추진배경

○ 예술 지원의 당위성 위기

- 예술 지원의 성과를 단순 산출물(공연 건수, 관람객 수)이나 경제적 효과(생산유발액)로만 설명할 경우, 예술 본연의 가치인 '사회적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예산 확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음

○ 측정 도구의 부재

- 예술 활동이 고립감 해소, 지역 소멸 대응, 환경 보호 인식 제고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Impact)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와 방법론이 부재함

■ 필요성

○ '사회적 가치 속성'의 정량적 치환

- 태깅된 '사회적 메시지', '공동체 결합', '치유/복지' 등의 속성 데이터가 실제 사회적 변화(Impact)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입증하는 성과 논리 모델(Logic Model)이 필수적임

○ UNESCO FCS 2025의 '문화적 웰빙' 지표 선제적 대응

- 국제적으로 강조되는 문화의 사회적 영향력 측정 트렌드에 발맞추어, 대한민국만의 특화된 K-Art Social Impact 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의 질적 고도화를 달성해야 함.

■ 추진 목적

○ 다차원 사회적 임팩트 측정 프레임워크 구축

- 예술 활동의 사회적 기여도를 웰빙, 공동체, 환경, 미래 가치 등 4대 영역으로 구조화하여 측정함

○ 증거 기반의 가치 증명 체계 확립

- SROI(사회적 투자 수익률) 및 삶의 질 지표를 결합하여 예술 지원의 '사회적 합당성'을 숫자로 증명함

■ 세부 업무 내용

<table>
<tr><th>세부 과제</th><th>실행 업무 내용</th></tr>
<tr><td>예술의 사회적 가치 논리 모델 (Theory of Change) 설계</td><td>
① [변화 경로 도식화] 지원 예산 투입(Input) → 속성 기반 활동(Output) → 사회적 인식 변화(Outcome) → 장기적 사회 변동(Impact)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 모델 수립
<table>
<tr><th>단계</th><th>구성요소</th><th>데이터 연동 및 매핑</th></tr>
<tr><td>투입
(Input)</td><td>정책 자원 및 기반 자산
· 정부·문예위 지원 예산
· 전문 행정 인력 및 창작 시설
· 예술인 복지 및 교육 자원</td><td>예산 집행 시스템 데이터
·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 국공립 문화시설 인프라 DB</td></tr>
<tr><td>활동
(Output)</td><td>속성 기반 예술 활동 (Art-Work ID)
· 배리어프리,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적 가치' 태깅 활동
· 디지털·융복합 기술 적용 창작물
· 지역 공동체 결합형 전시/공연</td><td>Art-Work ID 기반 활동량
· 다차원 속성 코드(Digital, Social 등)
· KOPIS 및 현장 조사 데이터</td></tr>
<tr><td>성과
(Outcome)</td><td>수혜자 및 공동체의 변화
·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 및 자존감 향상
· 타인에 대한 공감도 및 사회적 신뢰 증진
· 지역 활력 및 문화적 다양성 확대</td><td>만족도 및 정서 변화 서베이
· 통합문화이용권 소비 이력 분석
· SNS 및 미디어 반응(Sentiment)</td></tr>
<tr><td>임팩트
(Impact)</td><td>장기적 사회 변동 및 경제 가치
· 국가 사회적 비용(의료비, 치안비 등) 절감
· 문화예술 기반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창조 산업 성장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td><td>거시 통계(국가데이터처 연계)
·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산출
· UNESCO 문화 가치 지표 연동</td></tr>
</table>
② [사회적 가치 분류 체계 확정] 웰빙(정신건강), 공동체(사회통합), 장소성(지역활력), 지속가능성(기후대응) 등 4대 대영역 지표 개발
<table>
<tr><th>영역</th><th>정의 및 정책 목표</th><th>핵심 측정 지표</th></tr>
<tr><td>웰빙
(Well-being)</td><td>개인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서적 회복력 강화</td><td>· 주관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변화 지수
· 예술 활동 후 스트레스·고립감 감소 수치
· 심리적 회복력(Resilience) 개선 정도</td></tr>
<tr><td>공동체
(Community)</td><td>사회적 자본 형성 및 포용적 통합 실현</td><td>· 사회적 신뢰도 및 타인에 대한 공감도 증진
· 문화적 다양성 수용도 및 갈등 완화 지수
· 소외계층 참여율 및 배리어프리 실천율</td></tr>
<tr><td>장소성
(Placemaking)</td><td>지역의 매력 자산화 및 로컬 활력 제고</td><td>· 지역에 대한 애착도 및 정주 의향 변화
· 예술 기반 생활 인구 유입 및 로컬 브랜딩 기여
· 유휴 공간의 문화적 재생 성과 및 활성화 지수</td></tr>
<tr><td>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td><td>기후 위기 대응 및 미래 세대 가치 보전</td><td>· 예술 활동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저감 노력
· 시민들의 기후/환경 인식 변화 및 행동 전이
·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유산 보전 및 교육 성과</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세부 과제</th><th>실행 업무 내용</th></tr>
<tr><td>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 및
가치 화폐화 분석</td><td>① [SROI 측정 모델 적용] 예술 활동에 투입된 비용 1원당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산식 개발

<table><tr><th>단계</th><th>주요 업무 내용</th><th>데이터 및 알고리즘 적용</th></tr><tr><td>이해관계자 분석</td><td>수혜자(예술인, 관객) 및 지역사회의 변화 범위 설정</td><td>Art-Work ID 기반 수혜자 그룹핑</td></tr><tr><td>성과(Outcome) 매핑</td><td>4대 대영역(웰빙, 공동체 등)의 변화 실태 파악</td><td>만족도 및 정서 변화 데이터 연동</td></tr><tr><td>재무적 대용치 설정</td><td>변화의 가치를 대체할 시장 가격(Proxy) 발굴</td><td>화폐화 라이브러리 매칭</td></tr><tr><td>임팩트 산출</td><td>사장분(Deadweight), 기여분, 대체분을 제외한 순수 성과 도출</td><td>통계적 보정 알고리즘 적용</td></tr><tr><td>SROI 지수 계산</td><td>총 사회적 편익을 총 투입 비용으로 나누어 산출</td><td>SROI 산식 자동 계산</td></tr><tr><td>사후 검증</td><td>결과의 신뢰도 및 민감도 분석 수행</td><td>오차 분석 및 피드백 루프 가동</td></tr></table>
② [행정 데이터 연계 검증] 속성 데이터와 건강보험 데이터(우울증 치료 등), 범죄율 데이터 등을 연계하여 예술 향유와 사회적 비용 절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table><tr><th>연계 대상 기관</th><th>연계 행정 데이터</th><th>예술 데이터와의 연동 분석</th></tr><tr><td>국민건강보험공단</td><t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진료 내역
· 항우울제 등 약제 처방 통계</td><td>[정신건강 비용 절감] 예술 향유 빈도에 따른 정신건강 진료비 지출 감소 상관관계 도출</td></tr><tr><td>경찰청/법무부</td><td>· 지역별 5대 범죄 발생률
· 청소년 비행 및 재범률 데이터</td><td>[공동체 안전망 구축] 문화예술 인프라 밀집도와 지역 범죄율 저감 간의 인과관계 검증</td></tr><tr><td>지자체/행안부</td><td>· 주민등록 인구 및 유동 인구 데이터
· 지역별 자살률 및 고독사 통계</td><td>[지역 소멸 대응] 예술 활동이 지역에 대한 정주 의향 및 사회적 고립도 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td></tr><tr><td>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td><td>· 가계 소비 지출 패턴
· 지역별 서비스업 생산 지수</td><td>[경제 선순환 구조] 예술 소비가 인근 상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승수 효과 산출</td></tr></table></td></tr>
<tr><td>지능형 사회적 임팩트
대시보드 및
성과 인증제</td><td>① [임팩트 가시화] 특정 프로젝트나 정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인포그래픽으로 즉각 시각화하는 대시보드 구현
1) 실시간 임팩트 인포그래픽 생성
- (성과 요약 카드): 특정 사업(예: 통합문화이용권) 선택 시, SROI 지수, 웰빙 증진 효과, 지역 활력 기여도를 아이콘과 핵심 지표로 즉각 요약
- (비교 분석 뷰) 사업 전후(Ex-ante/Ex-post)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바 차트나 영역형 차트로 대조하여 정책 효용성 강조
2) 지리정보(GIS) 기반 임팩트 맵
- (지역별 가치 분포) 전국 지도를 기반으로 어느 지역에서 사회적 가치(공동체 회복, 장소성 등)가 가장 활발히 창출되고 있는지 열지도(Heatmap)로 시각화
- (소외지역 매핑) 예술 지원이 시급한 사각지대와 실제 지원 성과가 발생한 지점을 오버레이하여 차기 사업 우선순위 결정 지원</td></tr>
</table>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3) 정성적 스토리텔링 결합 모듈 - (데이터+미디어) 수치 데이터 옆에 해당 프로젝트의 현장 사진, 수혜자 인터뷰 영상, AI가 요약한 핵심 성공 사례(Best Practice)를 병렬 배치하여 데이터에 '온기'를 더함 ② [사회적 가치 인증 마크 부여] 높은 사회적 임팩트를 기록한 예술 활동에 대해 '사회적 기여 인증'을 부여하여 민간 후원 및 ESG 투자 연계 지원 1) 데이터 기반 인증 등급제 - (SROI 기반 등급 산출) 앞서 설계한 SROI 및 SVS 지수를 기준으로 상위 그룹에 '그린(환경)', '블루(웰빙)', '퍼플(공동체)' 등 영역별 인증 마크 부여 - (실시간 인증 갱신) 프로젝트 종료 후 최종 데이터 검증이 완료되는 즉시 디지털 인증서(Digital Badge) 자동 발급 2) 블록체인 기반 성과 증명 - (무결성 보장) 인증 마크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후원 기업이나 기부자가 해당 예술 활동의 실제 성과를 투명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 (디지털 배지) 예술가나 단체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사회적 기여도를 공인받을 수 있는 인터랙티브 배지 제공 3) ESG 기업 매칭 플랫폼 연동 - (기업 맞춤형 추천) 기업의 ESG 전략(예: 탄소중립, 지역 상생)과 가장 부합하는 인증 예술 프로젝트를 AI가 매칭하여 후원 및 협업 기회 제공 - (공시 자료 지원) 후원 기업이 자사의 ESG 보고서에 즉시 인용할 수 있도록, 해당 예술 활동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수치를 표준 양식으로 자동 출력 지원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지표 개발 연구비	사회적 임팩트 측정 지표 및 SROI 분석 알고리즘 개발 용역	200
데이터 결합 및 조사비	사회적 가치 실증을 위한 패널 조사 및 타 부처 행정 데이터 연계	150
임팩트 대시보드 구축	시스템과 연동된 사회적 가치 시각화 모듈 개발	200
전문가 검증 및 사례 연구	지표 타당성 검토(델파이 조사) 및 분야별 우수 사례 실증 분석	100
계		650

■ 5개년(2027~2031) 추진 로드맵

구분	1~2년차 (지표 수립)	3~4년차 (실증 분석)	5년차 (표준 확산)
핵심목표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 설계	주요 사업 대상 임팩트 시범 측정	범국가적 예술 가치 인증제 시행
주요과제	• 영역별 KPI 및 측정 산식 개발 • 속성 데이터-지표 매핑	• SROI 기반 성과 보고서 발간 • 지역별 사회적 기여 지도 제작	• 예술 지원 사업 성과 평가 전면 도입 • 민간 기업 ESG 연계 플랫폼 구축

■ 성과관리 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	'31년 목표치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사회적 임팩트 측정 포괄률	80% 이상	(임팩트 측정이 완료된 주요 지원 사업 수 / 전체 지원 사업 수) × 100
예술의 사회적 가치 지수	전년 대비 상승	개발된 통합 임팩트 지수의 연도별 비교 및 통계적 유의성 확보
ESG 연계 투자 유치 건수	50건 이상	본 지표를 근거로 기업의 사회공헌(ESG) 기금을 유치한 예술 프로젝트 수

■ 기대효과

○ 예술 지원의 '사회적 명분' 선진화

- 예술을 단순한 유희가 아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기제'로 재정의하여, 대국민 설득력과 국가 예산 확보의 논리적 무결성을 완성함

○ ESG 경영 시대의 예술-기업 상생 모델 제시

-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자본이 예술 생태계로 유입되는 '임팩트 투자'의 길을 개척함

○ 데이터 가치의 질적 도약

- 태깅된 데이터가 단순히 '무엇을 했는가'를 넘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를 설명하는 고차원 지능형 데이터로 진화함

2) (추진과제 11-2) 중앙-지방 '표준 정책 해석 가이드라인' 제정

■ 추진배경

○ 기관별 정책 해석의 파편화

- 동일한 문화예술 사업이라 하더라도 중앙(문예위)과 17개 시·도 지역문화재단의 분류 기준 및 성과 측정 방식이 상이하여, 국가 전체 통계 합산 시 데이터의 정합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상존함

○ 지방 분권화에 따른 데이터 격차 발생

- 지역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만의 독자적인 분류 체계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마스터 모집단' 구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필요성

○ 다차원 속성 태깅'의 현장 수용성 확보

- 세밀한 분류 체계가 현장에서 오차 없이 작동하려면,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단일한 해석 기준'과 '공통 가이드라인' 보급이 필수적임

○ 행정 데이터 연계의 질적 표준화

- 전송 프로토콜이 데이터의 '그릇'을 맞추는 작업이라면, 본 과제는 그 속에 담길 '내용물(해석)'의 규격을 맞추어 국가 통계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 작업임

■ 추진 목적

○ 중앙-지방 간 표준 정책 분류 및 해석 기준 정립

- 문화예술 사업 및 통계 항목에 대한 범기관적 합의안을 도출하고 가이드라인으로 명문화함

○ 상시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해석 오류 최소화

- 정책 변화에 따른 신규 사례 발생 시 중앙과 지방이 실시간으로 해석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 구축

■ 세부 업무 내용

<table>
<tr><th>세부 과제</th><th>실행 업무 내용</th></tr>
<tr><td>표준 정책 분류 및 항목별 해석 매뉴얼 제작</td><td>① [공통 용어 사전 정의] 장르, 대상, 속성(디지털, 융복합 등)에 대한 중앙-지방 통합 정의안 마련
<table>
<tr><th>대분류</th><th>표준 정의 및 통합안</th><th>비고 (통합 가이드라인)</th></tr>
<tr><td>장르
(Genre)</td><td>전통 장르 + 신규 융합 장르 통합 분류
• 문학, 시각예술 등 기존 10대 장르 정의 재정립
• 다원예술, 스트리트 아트 등 경계 장르의 판정 기준 명문화</td><td>UNESCO FCS와의 호환성 확보</td></tr>
<tr><td>대상
(Target)</td><td>수혜 대상의 다차원적 세분화
• 전문 예술인, 예비 예술인, 생활 예술인 등 역량별 분류
• 아동/청소년, 노인, 다문화 등 정책 수혜 계층의 표준 정의</td><td>복지부·여가부 데이터 연계 고려</td></tr>
<tr><td>속성
(Attribute)</td><td>디지털 및 융복합 속성 단계별 규정
• 디지털: 단순 홍보(Lv.1)부터 가상공간 창작(Lv.5)까지 정의
• 융복합: 기술 결합형과 장르 결합형의 명확한 구분 기준 마련</td><td>활동 사례 라이브러리와 연동</td></tr>
<tr><td>가치사슬
(Value Chain)</td><td>창작-유통-향유의 전주기 프로세스 정의
• 각 단계별 투입과 산출물에 대한 용어 통일 (예: 공연 횟수 vs 관람객 수의 집계 기준 통일)</td><td>중앙-지방 데이터 통합의 핵심</td></tr>
</table>
② [사례 중심 판정 가이드] 지역별 특수 사업들이 다차원 속성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정 기준 및 예시(Q&A) 수록
<table>
<tr><th>주요 사례 유형</th><th>현장 실무자 질의</th><th>표준 판정 및 속성 매핑</th></tr>
<tr><td>상업·생활 결합형</td><td>Q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과 협업한 미디어 파사드 전시는 예술인가요, 홍보인가요?</td><td>A : [예술 활동 인정] 전문 예술가(Art-Work ID)가 주도하고 창작 요소가 포함되었다면 '시각예술'로 분류하되, 속성은 '디지털'과 '장소성'으로 이중 매핑함</td></tr>
<tr><td>비전형 공간형</td><td>Q : 지역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인디밴드 공연도 통계 모집단에 포함되나요?</td><td>A : [조건부 포함] 공간이 비예술시설이라 하더라도, 공연의 전문성과 공공 지원 여부에 따라 판정. 속성은 '일상 속 예술' 및 '민간 협력형'으로 분류</td></tr>
<tr><td>기술 융복합형</td><td>Q : 기존 연극을 단순히 VR로 촬영해 배포한 것은 '융복합'인가요?</td><td>A : [디지털 전환(DX) 판정] 새로운 예술적 형식이 결합되지 않은 단순 기록물은 '융복합'이 아닌 '디지털(Lv.2)' 속성으로만 제한적 매핑</td></tr>
<tr><td>사회적 가치형</td><td>Q : 지역 소멸 위기 마을에서 노인들과 함께 그린 벽화는 '시각예술'인가요, '복지'인가요?</td><td>A : [사회적 가치 특화] 장르는 '시각예술'로 분류하되, 가치사슬 상 '공동체(사회통합)'와 '웰빙' 지표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td></tr>
</table></td></tr>
<tr><td>중앙-지방 정책 데이터협의체 (Council) 운영</td><td>① [정례 협의 채널 가동] 문예위와 지역문화재단 실무진이 참여하는 데이터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해석 쟁점 조정
1) 중앙-지방 데이터 표준화 위원회(K-Art Data Board) 발족
- (조직 구성) 문예위 데이터 전략팀 + 17개 광역 문화재단 실무 팀장 + 통계·예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상설 위원회 운영
- (의사결정 구조) 데이터 표준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여, 합의된 기준이 전국에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 권위 확보
2) 분기별 해석 쟁점 조정 및 코드북 업데이트
- (쟁점 조정 회의) 매 분기 말, 현장에서 접수된 '분류 애매 사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동 판정 및 해석 지침 확정</td></tr>
</table>

<table>
<tr><th>세부 과제</th><th>실행 업무 내용</th></tr>
<tr><td></td><td>- (디지털 코드북 즉시 반영)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앞서 설계한 '실시간 동기화 체계'를 통해 전국의 조사 시스템에 즉각 배포
3) 지역별 데이터 품질 관리(Data Quality Audit) 협업
- (품질 교차 검증) 지역별로 수집된 데이터의 정합성을 위원회가 공동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오염이 심한 영역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 마련
- (우수 협력 기관 인센티브) 표준 가이드라인을 가장 잘 준수하고 정교한 데이터를 제공한 지역 재단에 대해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우선순위 부여

② [해석 충돌 조정 프로세스] 기관 간 데이터 분류 의견이 다를 경우, 데이터 컨트롤타워가 최종 해석을 내려주는 중재 절차 확립
<table><tr><th>단계</th><th>프로세스 명칭</th><th>실행내용</th></tr><tr><td>1단계</td><td>충돌 접수 및 유형화</td><td>• Conflict Flag: 지역 재단에서 표준 가이드라인과 현장 실무 간 괴리 발생 시 '조정 요청서' 자동 발송
• 유형 분류: 장르 경계 모호, 수혜 대상 중복, 가치사슬 단계 해석 차이 등으로 자동 분류</td></tr><tr><td>2단계</td><td>기술 검토 및 사례 대조</td><td>• 유사 판례 검색: 앞서 구축한 '시각적 라이브러리' 및 '전문가 위키' 내 유사 사례를 AI가 즉각 대조
• 초안 권고: 시스템이 표준 가이드에 기반한 1차 해석 초안을 생성하여 양측에 공유</td></tr><tr><td>3단계</td><td>분과위원회 심의</td><td>• 전문가 개입: 기술 검토로 해결되지 않는 고난도 사안은 '데이터 표준화 위원회' 내 해당 장르 분과에서 심의
• 온라인 청문: 필요 시 해당 지역 실무자와 중앙 담당자의 화상 의견 청취 프로세스 가동</td></tr><tr><td>4단계</td><td>최종 해석 확정 및 공표</td><td>• Binding Decision: 데이터 컨트롤타워(문예위)의 최종 해석 확정 및 '공식 판결문' 발행
• 전파: 확정된 해석은 디지털 코드북에 즉시 업데이트되어 전국 시스템에 동기화</td></tr></table></td></tr>
<tr><td>디지털 가이드라인 배포 및 온/오프라인 교육</td><td>① [인터랙티브 가이드 보급] '디지털 코드북' 내에 중앙-지방 협의 내용을 실시간 반영하여 현장에서 즉각 참조 가능하도록 구현
1) 하이퍼링크 기반 인터랙티브 인덱싱
- (입체적 검색) 특정 용어(예: 융복합) 클릭 시, 즉각적으로 관련 정의, 판정 사례(Q&A), 시각적 레퍼런스 영상이 팝업으로 연동됨
- (맥락 기반 가이드) 조사 시스템의 입력 필드 옆에 '도움말' 아이콘을 배치하여, 해당 항목 작성 시 주의사항을 즉시 확인 가능하게 구현
2) 실시간 협의 결과 푸시(Push) 업데이트
- (Council 연동) '중앙-지방 데이터 협의체'에서 확정된 새로운 판례나 기준이 시스템에 입력되는 순간, 전국 사용자의 디지털 가이드라인에 '최신 업데이트' 알림과 함께 반영
- (변경 이력 하이라이트) 개정된 부분만을 별도로 표시하여, 숙련된 조사원들이 바뀐 기준을 즉시 인지하도록 지원
3) 현장 밀착형 모바일 최적화 UI/UX
- (현장 반응형 설계) 공연장, 전시장 등 조명이 어둡거나 이동이 잦은 환경에서도 가독성이 높은 다크모드 및 음성 검색(STT) 기능 탑재
- (오프라인 캐싱) 통신이 불안정한 지하 공간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핵심 데이터를 기기에 사전 저장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적용</td></tr>
</table>

세부 과제	실행 업무 내용
	② [권역별 순회 교육] 지역재단 통계 담당자 대상 표준 가이드라인 숙지 교육 및 현장 의견 수렴 1) 5대 권역별 클러스터 교육 - (권역별 맞춤 운영) 수도권, 충청·강원, 호남, 영남, 제주 등 5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거점 도시 순회 교육 실시 - (표준 가이드라인 전파) 새롭게 수립된 '디지털 코드북' 및 '사례 중심 판정 매뉴얼'의 핵심 내용과 변경 사항 집중 교육 2) 디지털 도구 활용 실습 - (인터랙티브 가이드 실습) 태블릿 및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디지털 코드북'을 검색하고 판정하는 실무 시뮬레이션 수행 - (데이터 입력 무결성 교육) 오차 없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조사 시스템 입력 요령 및 오류 데이터 검출 프로세스 실습 3) 현장 의견 수렴 및 쟁점 발굴 - (타운홀 미팅) 지역별 특화 사업 분류 시 발생하는 현장의 실무적 난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집중 토론 세션 운영 - (정책 건의 채널 구축: 수집된 의견을 '데이터 표준화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상정하여 차기 가이드라인 개정에 반영하는 체계 마련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가이드라인 개발비	중앙-지방 공동 연구 및 표준 매뉴얼 제작 용역	150
협의체 운영비	지역별 분과위원회 운영 및 데이터 거버넌스 워크숍 개최	100
교육 및 컨설팅	권역별 순회 설명회 및 지역재단 맞춤형 데이터 진단 지원	100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의 시각화 및 디지털 코드북 연계 콘텐츠 개발	50
계		**400**

■ 5개년(2027~2031) 추진 로드맵

구분	1~2년차 (기준 수립)	3~4년차 (확산 및 적용)	5년차 (정착 및 고도화)
핵심목표	표준 가이드라인 초안 제정	전국 지역재단 가이드라인 배포	중앙-지방 통합 해석 체계 완성
주요과제	• 중앙-지방 데이터 협의체 구성 • 공통 용어 및 분류 기준 확립	• 권역별 설명회 및 현장 적용 • 디지털 코드북 연계 및 보급	• 해석 오류 피드백 시스템 가동 • 글로벌 표준(UNESCO) 연계 강화

■ 성과관리 지표(KPI)

핵심성과지표(KPI)	'31년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가이드라인 채택 기관 수	100%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제출하는 지역재단 수 / 전체 연계 기관 수) × 100
기관 간 분류 일치도	95% 이상	동일한 사례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동일한 속성을 부여하는지 교차 검증
해석 관련 문의 감소율	50% 이상	가이드라인 도입 전후 통계 분류 관련 유선/공문 질의 건수 비교

■ 기대효과

○ 국가 문화예술 통계의 '신뢰할 수 있는 단일 출처(Single Source of Truth)' 완성

- 중앙과 지방이 같은 언어로 소통함으로써, 통계의 왜곡을 방지하고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정교한 마스터 데이터를 확보함

○ 지역 문화 정책의 객관적 비교 및 분석 지원

- 동일한 기준에 근거한 데이터를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정확히 진단하고, 지자체별 문화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문화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현장 실무자들의 모호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적 혼선을 제거하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문화 행정 문화를 지역 단위까지 확산시킴

3. 소요 예산(안)

가. 향후 5개년(2027~2031) 소요 예산(안)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추진과제)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27	'28	'29	'30	'31	계
〔전략목표 1〕 조사 포괄성 강화 및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	360	550	665	285	190	2,050
① 조사 거버넌스 및 모집단 정비						
1. 시설 독립형 '현장 기반 보완 조사' 체계 구축	75	125	175	75	50	500
2. 다기관 데이터 연계 기반 '동태적 모집단 (Dynamic Registry)' 관리	90	150	210	90	60	600
② 디지털 예술 통계 체계 확립						
1. 디지털 예술활동의 통계적 정의 및 범주 표준화	75	75	0	0	0	150
2. 플랫폼 파트너십 기반 '디지털 데이터 하베스팅(Harvesting)'	120	200	280	120	80	800
[전략목표2] 글로벌·국가 표준 기반의 데이터 정합성 혁신	562	887	1,136	487	328	3,400
③ 대외 통계 표준 연계 강화						
1. UNESCO(FCS) 및 국가 표준분류(KSIC, KSCO) 1:1 매핑 체계 구축	75	75	0	0	0	150
2. 이종 통계 간 융합 분석 프레임워크 설계	105	175	244	105	71	700
④ 분류 체계 현대화 및 검증 고도화						
1. 속성 기반 '다차원 태깅(Multi-dimensional Tagging)' 시스템 도입	112	187	262	112	77	750
2. AI 기반 품질 검증 및 작품 고유 식별(Art-Work ID) 적용	12	200	280	120	80	800
⑤조사 실무 역량의 표준화						
1. '문화예술 전담 조사원' 인증제 및 전문 풀(Pool) 운영	60	100	140	60	40	400
2. 지능형 실시간 분류 추천 지원 도구 보급	90	150	210	90	60	600
[전략목표 3] 행정 데이터 연계 및 지능형 수집 체계 구축	802	1,137	1,465	802	640	4,850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추진과제)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27	'28	'29	'30	'31	계
⑥ 시설 및 행정 데이터 통합						
1. 범기관 실시간 데이터 수집(API) 허브 구축	105	175	244	105	71	700
2. 표준 행정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보급	52	87	122	85	37	350
⑦ 정책 연계 분석 모델 개발2						
1. 수요-공급 통합 '가치 사슬(Value Chain)' 분석 모델 수립	105	175	244	105	71	700
2. 문화위성계정(CSA) 고도화 및 거시 지표 결합 분석	105	175	244	105	71	700
⑧ 지능형 데이터 컨트롤타워 구축						
1. '문화예술 데이터 통합 컨트롤타워' 조직 신설	300	300	300	300	300	1,500
2. AI 기반 정책 시뮬레이션 및 지능형 대시보드 운영	135	225	315	135	90	900
[전략목표 4] 활용성 고도화 및 적시 공표 서비스 혁신	686	1,011	1,136	486	331	3,650
⑨ 공표 프로세스 혁신						
1. 분기별 '잠정치(Flash Estimates)' 속보 공표제 도입	75	125	175	75	50	500
2. End-to-End 자동화 공표 파이프라인 구축	120	200	280	120	80	800
⑩ 서비스 및 환류 고도화						
1. 사용자 친화적 '디지털 인터랙티브 코드북' 제공	52	87	122	52	37	350
2. 전문 연구자용 '오픈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포털' 운영	142	237	332	142	97	950
⑪질적 성과 측정 및 해석 표준화						
1. 문화예술 사회적 임팩트(Impact) 측정 지표 개발	97	162	227	97	67	650
2. 중앙-지방 '표준 정책 해석 가이드라인' 제정	200	200	0	0	0	400
계	2,410	3,585	4,406	2,060	1,489	13,950

나. 예산 산정 근거 및 필요성

1) 통계 생산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 '단순 조사' → '지능형 인프라'

○ 투자 대 비용의 관점
- 현재의 예산(약 1.7억 원)은 매년 반복되는 소모성 실사 인건비와 설문 관리비 등 운영 비용에 국한되어 있음
- 반면, 본 로드맵의 예산은 AI 엔진, 실시간 API 수집 허브, 데이터 레이크 등 향후 10년 이상의 통계 품질을 책임질 자본 형성적 투자를 포함함

○ 인프라 구축의 필연성
- 지능형 수집 체계가 구축되면 매년 수작업으로 투입되던 막대한 행정 인력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통계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옴

2) 데이터 적시성(Timeliness) 확보를 위한 기술적 고도화

○ 과거 기록에서 실시간 지표로
- 현재의 저예산 구조로는 '1년 전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음
- 분기별 '잠정치(Flash Estimates)'와 실시간 대시보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자동 수집 및 정제 처리를 위한 End-to-End 자동화 파이프라인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초기 시스템 개발비가 산정되었음

○ 행정 효율 극대화
- 현재 1.7억 원의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범기관 행정 데이터 연계와 AI 자동 품질 검증 시스템은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로, 이는 조사 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는 보험적 성격을 띰

3) 국가 문화예술 데이터 컨트롤타워로서의 주도권 확보

○ 이니셔티브 강화
- 문예위가 국가 문화예술 통계의 표준을 정립하고 타 부처(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등)와의 데이터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 플랫폼과 행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적 사양이 뒷받침되어야 함

○ 범정부 예산 연계
- 본 예산 규모는 단순 통계 조사 비목이 아닌 '국가 디지털 전환(DX)' 및 'AI 확산 사업' 등 범정부 정보화 예산과 연계 가능한 규모로 설계되었음
- 이는 문예위 예산 내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데이터 댐 구축 사업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4) 글로벌 표준(UNESCO FCS 2025) 및 가치 입증 모델 수립

○ 국제 표준 부합
- 유네스코의 최신 권고안에 따른 다차원 속성 태깅과 가치 사슬 분석은 고도의 전문적 분석 기법과 시스템 매핑이 요구됨

○ 정책 정당성 증명
- CSA(문화위성계정) 고도화와 사회적 임팩트 측정 지표 개발은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을 넘어, 예술 지원 예산의 경제적·사회적 수익률(ROI)을 기획예산처 등 예산 당국에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향후 문예위 전체 예산 파이를 키우는 전략적 투자의 성격을 가짐

5) 단계별 추진을 통한 예산 리스크 관리

○ 본 예산안은 5개년에 걸쳐 [설계 → 구축 → 고도화 → 안착]의 단계를 거치도록 분배되었음

○ 초기에는 표준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저예산 고효율 과제를 배치하고, 중기에 집중적인 시스템 투자를 수행한 후, 후기에는 운영 중심의 안정화 예산으로 전환하여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음

제5절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고도화 전략의 현실적 검증 및 실행 동력 분석

1.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정책 환경

○ 본 연구가 제안한 모든 모듈과 모델들을 한꺼번에, 또 완벽하게 가동하고 있는 단일 기관은 아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나, 본 연구가 제안하는 지능형 데이터 체계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허상이거나 '미래의 상상'이 아닌 '현재의 기술'로 이미 증명된 모델들임

○ 각 구성 요소들은 이미 세계 곳곳의 선진 기관들이 '생존'을 위해 실제로 도입하여 검증하고 있는 최신 표준들이며, 세계 주요 선진국은 문화예술의 가치(value)를 데이터로 증명하기 위해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제안한 모델들은 완전히 새로운 발명품이라기보다, 세계 각국의 '데이터 선진국'들이 이미 부분적으로 실행하며 성과를 내고있는 현실의 조각들을 문예위(ARKO)의 맥락에 맞게 통합한 것임

2.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자산의 결합

가. 해외 문화예술 분야 : 데이터 사이언스와 정책의 결합

○ 문화 선진국들은 이미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핵심 모듈들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단순 통계를 넘어 '데이터 과학'을 정책의 핵심 도구로 삼고 있고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구분	국가/기관	핵심 혁신 사례	정책적 시사점
경제 가치 산출 (CSA)	미국 NEA & BEA	[예술 및 문화 생산 위성 계정(ACPSA)] 운영. 미 연방 경제분석국(BEA)과 협력하여 예술이 미국 GDP에 미치는 기여도(4.3%, 약 1조 달러)를 산업별로 정밀 산출하여 의회 예산 증액의 핵심 근거로 활용함	문화예술은 소비가 아닌 '국가 성장 동력'임을 입증
표준화된 평가	호주 Creative Australia	[Culture Counts] 플랫폼 도입 예술가와 관객의 반응을 표준화된 지표로 수집하여, 지원 사업이 '예술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얼마나 창출했는지 데이터로 시각화하여 보고함	보이지 않는 '질적 가치의 수량화' 가능성 확인

구분	국가/기관	핵심 혁신 사례	정책적 시사점
빅데이터 하베스팅 및 NLP	영국 PEC (Policy & Evidence Centre) / DCMS (문화디지털 미디어스포츠부)	[웹 스크레이핑 기반 산업 분류] 실시 기존 산업 분류(SIC)가 포착하지 못하는 소규모 크리에이티브 기업들을 구글 맵스나 SNS 데이터를 하베스팅하여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책 지도로 만듦	'데이터 하베스팅'을 통한 통계 사각지대 해소의 실효성 증명
정책 시뮬레이션	싱가포르 MCCY	[공공 예술 시설 시뮬레이션] 가동 도시 전체의 디지털 트윈 데이터와 인구 통계를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 센터를 건립할 때 어느 지역에 지어야 참여율이 가장 높을지 AI로 시뮬레이션함	예산 투입 전 '디지털 실험'을 통한 행정 낭비 최소화
디지털 가치사슬 및 CSA	캐나다 통계청 & Canada Council	[문화 및 유산 위성 계정(CHSA)] 고도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창작-유통-소비 전주기의 부가가치를 정밀 측정하며, 특히 예술가들의 '디지털 플랫폼 수익'과 '가상 창작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위성 계정에 반영함	디지털 환경에서의 예술인 실태 및 창작 생태계 변화를 정량화하여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 수립의 근거 마련
글로벌 통계 표준화	UNESCO UIS (통계국)	[문화통계 프레임워크(FCS)] 글로벌 표준 수립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예술 분류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디지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교역 지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데이터 정합성 확보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을 통해 국가별 정책 성과의 객관적 비교를 가능케 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 기여도를 데이터로 증명

나. 국내 사회·경제·산업 등 타 분야 사례

○ 문화예술 분야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일 뿐,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산업 현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설계 모델들이 이미 '국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

분야	기관/시스템	요약	세부 내용
경제·재정 분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머신러닝 기반 정책 효과 분석	·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때 이미 머신러닝을 도입하고 있음 · 특히 '노인 자살 예방 사업' 등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고위험군을 AI로 식별하여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실현 중임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dBrain+)	머신러닝 기반 정책 효과 분석	· 국가 예산 집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 재정 데이터의 확장성과 정책 환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음
사회·복지 분야	보건복지부 & 지자체	AI 기반 사각지대 발굴	· 단전, 단수 등 34종의 행정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내는 시스템을 상시 가동 중임 * 예: 부산진구 AI 고독사 예방 서비스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 사각지대 탐지 엔진'의 완벽한 선행 모델임
산업·도시 행정 분야	세종시/서울시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	· 도시 전체를 가상 공간에 복제하고, 재난 발생이나 교통 정책 변화 시 발생할 파급효과를 AI로 사전 시뮬레이션한 후 실제 정책에 반영함 · 이는 우리가 설계한 '정책 디지털 트윈'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음을 시사함

다. 국내 인프라 진단 : 한국형 마스터플랜이 '지금' 가능한 이유

○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환경과 더불어, 본 시스템의 '연료'가 될 정밀한 기초 데이터(Raw Data)를 이미 행정망 내에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

■ 독보적인 원천 데이터군

○ KOPIS(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실시간 예매 데이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260만 건 소비 이력,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등은 해외 선진국조차 부러워하는 정교한 모집단 자산임

- KOPIS (공연예술통합전산망) :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실시간 공연 예매 데이터 허브임. 민간 예매처의 데이터를 실시간 API로 수집하여 공연 시장의 혈류를 파악하는 이 시스템은, 우리가 설계한 '유통-전시' 단계의 핵심 엔진이 이미 존재함을 증명함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빅데이터 : 약 260만 명의 저소득층이 어디에서, 어떤 장르의 예술을 소비하는지 1원 단위까지 추적 가능한 데이터이며, 이를 통해 수요-공급 탄력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음
- 신한/BC카드 문화 소비 지도 : 국내 카드사들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특정 축제나 전시 기간 주변 상권의 매출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음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 예술인들의 활동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으로, 우리가 설계한 Art-Work ID와 연계될 경우 창작자의 생애주기 분석이 즉각 가능해짐

○ 기술적 성숙도

- 2026년 현재, 본 보고서가 제안한 인과추론 알고리즘과 LLM 기반 리포팅 시스템은 검증된 상용화 단계에 있으며, 대규모 서버 구축 없이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즉각 도입이 가능함

○ 행정적 시급성

- 국가데이터처의 출범과 한국은행 CSA 고도화 요구 등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통합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본 계획의 실행은 선택이 아닌 기관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될 것임

3. 문예위(ARKO)가 지금 이 고도화 전략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당위성

■ 독보적인 행정 데이터 자산(K-Data Assets)의 보유

○ 해외 사례와의 차별성 :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은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인해 표본 기반의 추정 모델(Estimation)에 의존하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행정망을 보유하고 있음

○ 데이터 완결성 확보 : KOPIS(공연예술통합전산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예술인 패스 등을 통해 창작-유통-향유 전 과정의 정밀한 기초 데이터(Raw Data)가 이미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있음

○ 시사점 : 사후 추정이 아닌 '실시간 실측'이 가능한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어, 이를 꿰어내는 전략만으로도 즉각적인 정책 혁신이 가능함

■ 기술적 임계점 도달 및 분석 효율의 혁명

○ 지능형 알고리즘의 상용화 : 2026년 현재, 생성형 AI와 인과추론(Causal Inference) 알고리즘은 행정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성숙함

○ 분석 시차의 제로화 : 과거 수십 명의 통계 전문가가 1년 이상 매달려야 했던 복잡한 상관관계 분석과 정책 시뮬레이션을, 이제는 잘 설계된 인공지능(AI) 엔진이 단 몇 분 만에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조성됨

○ 행정 효율 극대화 : 데이터 정제 및 분석에 소요되던 행정력을 '정책 기획'과 '현장 소통' 등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임

■ '데이터 섬'을 잇는 정책 거버넌스의 완성

○ 데이터 사일로(Silo) 해소 : 현재 각 기관과 시스템별로 고립되어 존재하는 강력한 '데이터 섬'들을 표준화된 거버넌스로 연결하는 작업임

○ 정책 고속도로 구축 : 본 고도화 전략은 뜬구름 잡는 담론이 아니라, 산재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예술 현장과 정책 결정자를 잇는 '문화 행정의 고속도로'를 놓는 실천적 과업임

○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 이를 통해 예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실시간으로 보장하는 지능형 예술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

4. 단계적 실행 로드맵 : '이상'을 '현실'로 바꾸는 3-Step 전략

○ 본 계획은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가는 단계적 빌드업(Build-up) 과정을 거침

○ 가장 먼저 'Art-Work ID'라는 표준의 주춧돌을 놓아 단 6개월 만에 국내 최초의 '가치사슬 통합 지도'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로드맵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됨

- 단기(기반 정비/6개월 내 가능) : 기존 KOPIS 및 문화누리 데이터를 Art-Work ID로 결합하여 ' 데이터 사각지대' 즉시 식별
- 중기(지능화/1년 내 가능) :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정책 시뮬레이터 가동 및 예산 배분 최적화 모델 적용
- 장기(표준화/2년 내 완성) : 유네스코(UNESCO) 및 한국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K-문화통계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공인

5. 결론 : 문예위(ARKO)의 미래 정체성

○ '사후 기록'에서 '미래 예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본 실행 계획은 단순히 신기술을 행정에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문예위를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데이터 종가(宗家)' 재정립하는 전략적 과정임
- 그동안 파편화되어 존재하던 예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과거를 기록하는 장부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지능형 내비게이션으로 행정의 질적 수준을 고도화함

○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공신력 및 위상 강화

- 우리는 이미 KOPIS, 문화누리카드 등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풍부하고 정밀한 재료(Raw Data)를 보유하고 있음
- 본 마스터플랜은 산재한 데이터 섬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예술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숫자로 증명함으로써 대한민국 문화예술 정책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설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지도가 될 것임

○ 현장 중심의 실천적 디지털 행정 구현

- 본 고도화 전략은 이론에 그치는 담론이 아니라, 다차원 속성 태깅과 같은 실무적 혁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생동감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지향함
- 이를 통해 문예위는 데이터로 예술가와 국민을 잇고, 문화예술이 국가 생존의 핵심 동력임을 입증하는 미래형 데이터 컨트롤타워로서 그 소명을 완수하고자 함
-

제7장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조사체계 혁신을 위한 단기 실행 전략

제1절 조사 체계 혁신의 당위성과 전략적 과제 도출

1. 전략 수립의 배경 및 목적

■ 기존 조사체계의 한계와 근본적 '체질 개선' 필요

○ 현행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는 매년 약 1.7억 원 규모의 경직된 예산 안에서 시설 중심 조사, 1년 이상의 공표 시차, 디지털 예술 포착 불능 등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음

○ 제6장의 '현황조사 고도화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이 단순 담론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조사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실무 혁신 엔진'을 설계하는 것이 본 장의 핵심 목적임

○ 행정적 낭비는 줄이고 통계의 가치는 극대화하는 10대 핵심 혁신과제를 상술함

■ 문예위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실무적 병기(兵器) 마련

○ 단순히 통계 수치를 보정하는 수준을 넘어, 문예위가 단기적으로 국가 문화예술 데이터의 '생산 및 해석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적 근거를 구축함

○ 본 장의 과제들은 향후 예산 당국(문체부, 기획예산처)과의 협의 시, "왜 추가 예산이 필요한가"와 "투자 대비 어떤 성과(ROI)가 나는가"를 증명하는 논리적 방어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2. 혁신 과제 도출 및 분류

가. 과제 도출 근거 : 4대 핵심 병목 구간 해소

■ 현행 조사의 신뢰도와 활용성을 저하시키는 4가지 결정적 요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함

○ 포괄성(Coverage) : 시설 밖 '숨은 활동'을 어떻게 공식 데이터로 복원할 것인가?

○ 정밀성(Accuracy) : AI와 전문 인력을 통해 어떻게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할 것인가?

○ 표준화(Standardization) : 어떻게 국가·국제 표준과 연계하여 예술의 가치를 입증할 것인가?

○ 시의성(Timeliness) : '과거의 기록'인 통계를 어떻게 '현재의 정책 지침'으로 바꿀 것인가?

나. 과제 선별 원칙 : 실행 가능성(Feasibility) 최우선

○ 문예위의 현재 예산 상황과 행정력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의욕이나 희망'만이 아닌 단기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과제 위주로 압축 선별함

○ 다수의 예비 과제를 검토하여 중복 항목을 정리하고, 실무 파급력이 가장 큰 10대 핵심과제를 최종 선정함

다. 과제 분류의 근거 : 신뢰의 토대와 혁신의 비전

○ 본 단기 혁신 전략은 국가통계로서의 '기초 체력 회복'과 미래 데이터 시장의 '컨트롤타워 도약'이라는 투-트랙(Two-track) 접근 방식을 취함

분류	과제명	그룹 과제 목표
1그룹	핵심 내실화 과제	국가데이터 품질진단 및 유네스코 등 외부의 개선 요구에 즉각 대응하고, 통계의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생존 과제.
2그룹	전략적 고도화 과제	단순 조사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예술 행정 혁신을 주도하고, 문예위가 대한민국 예술 데이터의 종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승부 과제

○ 그룹별 과제 선정 논리 및 특징

분류	과제명	선정 논리	주요 특징	
1그룹	핵심 내실화 (기초 품질 및 표준화 중심)	국가 통계 정기 품질진단의 지적 사항을 해소하고, 데이터의 적시성 및 국제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효율성	불필요한 항목을 정리하고 행정 DB를 연동하여 조사 피로도를 줄이는 실무적 개선 지향
			정합성	시설 총람 등 타 부처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통계 간 불일치를 해결하고 통계의 신뢰성 확보 기초 구축
			준거성	유네스코 등 글로벌 표준과 국가 통계 품질 기준 충
2그룹	전략적 고도화 (기술 융합 및 거버넌스 확장 중심)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기존 조사가 포착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비제도권/디지털)'를 공식 데이터 영역으로 편입	혁신성	다차원 태깅, AI 검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의 질적 깊이 상승
			확장성	카페, 대안공간 등 시설 밖 활동과 SNS 상의 동태적 흐름까지 포괄하여 통계의 영토를 물리적 공간 너머로 확장
			연속성	[Art-Work ID] 도입 등을 통해 작품별 생애주기를 추적하는 등 데이터에 '시간적 연속성'과 '개별 정체성'을 부여하여 고도의 분석 가치 창출

3. 최종 선정된 10대 핵심 개선과제 리스트

분류	과제명	핵심 목표
1그룹 (핵심 내실화)	1. 조사 대상의 '문화예술활동' 정의 부합성 평가 및 재정비	조사의 신뢰성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2. 조사항목 적정성 검토 및 조정	불필요 항목 삭제 및 장르별 필수 항목 신설
	3. 조사모집단 고도화	다원·온라인·디지털 예술 등 개념 혼란 해소
	4. 조사항목 수집방법 개선	행정 데이터 자동 동기화와 디지털 동태 포착
	5. 전국문화시설 총람 연계 분석 도입	인구/도시 규모별 지역 연계 분석 강화
	6. UNESCO/국가 표준 1:1 매핑	통계 호환성 및 국제 비교 가능성 확보
2그룹 (전략적 고도화)	1. 다차원 속성 태깅 시스템 도입	기술/장소/사회적 가치 중복 태깅 구현
	2. 웹 기반 예술 동태(Dynamics) 수집	SNS/플랫폼/가상공간 데이터를 통한 현장 검증
	3. 비제도권 시설 편입 방법론 적용	카페, 대안공간 등 시설 밖 활동 포착
	4. AI 품질 검증 및 Art-Work ID	데이터 정합성 자동 확보 및 작품별 식별

제2절 조사체계 혁신을 위한 단기 실행 전략

1. [1그룹] 핵심 내실화 과제 (6개 과제)

가. 조사대상의 '문화예술활동' 정의 부합성 평가 및 재정비

1)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조사항목

○ 문학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며, 시각 및 공연예술은 행정조사 자료와 매체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수집함

○ 분석 대상 제외 항목

- 각 분야의 상, 행사, 학술행사, 소사 항목은 수집되어 『문예연감』 내 「편람」에는 수록되지만, 정량적 통계분석 대상(전국 현황 분석 등)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 융합 장르 분류

-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타 장르와 결합된 경우를 위해 대분류에 '융합' 항목을 별도로 두어 상세히 관리하고 있음

분야	장르(조사대상)	세부 조사항목
문학	① 단행본	대분류(국내/번역), 중분류1(일반/아동), 중분류2(연령별), 소분류(대표장르), 서명, 저자(작가, 삽화, 역자 등), 언어, 출판사, 발행지역, 혼합장르 여부, 비고
	② 한국문학 외국어 번역도서	서명(번역), 서명(원제), 저자, 역자, 번역어, 출판국, 출판사, 장르, 출처, 비고
	③ 문학 잡지	청구기호, 잡지명, 호, 발행자, 발행일자, 발행형태(월간, 계간 등), 대표장르, 수록 편수, 비고
	④ 문학 상	시상명, 회차, 일자, 수상자, 수상작, 주최, 비고
	⑤ 문학 행사 / 학술행사	행사명, 회차, 시작일, 종료일, 주최, 장소, 행사내용, 비고
	⑥ 문학 소사	일자, 내ㄴ용, 비고
시각예술	① 시각예술 활동	대분류, 중분류(개인/단체), 소분류(장르), 전시명 1, 전시명 2, 시작일, 종료일, 전시 기간, 주최, 지역 1, 지역 2, 도시규모, 전시장 1, 전시장 2, 전시장 운영주체, 행사명, 작가명/단체명, 참여작가 수, 국적, 비고
	② 시각예술 잡지	구분, 장르, 잡지명, 호, 발행자, 발행일자, 발행형태, 신간/폐간, 비고
	③ 시각예술 상	시상명, 회차, 일자, 수상자, 수상작, 주최, 비고
	④ 시각예술 전시행사 / 학술행사	행사명, 회차, 시작일, 종료일, 주최, 장소, 행사내용, 비고
	⑤ 시각예술 소사	일자, 내용, 비고

분야	장르(조사대상)	세부 조사항목
공연예술	① 공연예술 활동	대분류, 중분류(초연/재공연), 소분류1(장르), 소분류2(세부장르), 공연명 1, 공연명 2, 단체명, 참여작가 수, 시작일, 종료일, 공연기간, 공연횟수, 주최, 지역 1, 지역 2, 등록 공연장 1, 등록 공연장 2, 미등록 공연장 1, 미등록 공연장 2, 공연시설 외(장소명), 실외공연장 여부, 공연장 운영주체, 행사명, 비고
	② 공연예술 잡지	구분, 장르, 잡지명, 호, 발행자, 발행일자, 발행형태, 신간/폐간, 비고
	③ 공연예술 상	시상명, 회차, 일자, 수상자, 수상작, 주최, 비고
	④ 공연예술 공연행사 / 학술행사	행사명, 회차, 시작일, 종료일, 주최, 장소, 행사내용, 비고
	⑤ 공연예술 소사	일자, 내용, 비고

2) 조사대상의 '문화예술활동'의 정의 검토 배경 및 필요성

○ 우리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없이 거론되며, 본 현황 조사의 실제 대상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定義, definition)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

○ 실제 통계 설계에서 가장 원론적이면서도 가장 뼈아픈 지점이 바로 그 정의의 문제이며, 특히 조사의 성격이 '현황조사'인 만큼,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 정의가 곧 통계의 경계선이 됨

○ 특히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의와 현재 현황조사의 조사항목들이 그 정의에 부합하는지 정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용어를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통계의 생명인 신뢰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직결되기 때문임

3) 조사대상들이 실제 예술활동의 본질을 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

① 통계적 순도(純度) 확보

○ 현재 조사 체계는 단행본 발간, 전시, 공연과 같은 핵심 활동뿐만 아니라 상(시상), 행사, 소사(小史, 줄여서 간략하게 기록한 역사) 등 주변적 현상이 혼재되어 있음

○ 이를 '활동'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으면 전체 통계치가 부풀려지는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엇이 '진짜 활동'인지 정의를 명확히 해야 통계의 거품을 걷어내고 실체를 볼 수 있음

② 데이터 결합 및 국제 비교 가능성

○ 이번 연구의 주요과제인 UNESCO FCS(유네스코 문화통계 프레임워크)나 국가표준분류(KSIC/KSCO)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정의가 필수임

○ 정의가 흔들리면 타 기관의 데이터(카드 매출, 인구 통계 등)와 결합할 때 '기준점'이 사라져 분석 자체가 불가능해짐

③ 증거 기반 정책(EBPM)의 정당성

○ 국가 예산은 '현상'이 아니라 '실질적 활동'에 투입되어야 함

○ 조사항목 중 상(Awards)은 활동의 결과이지 생산 행위가 아님에도 이를 활동 건수에 포함하면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가 왜곡될 수 있

○ 따라서 정의 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의 논리적 근거를 탄탄히 해야 함

④ 효율성 및 응답 부담 경감

○ 현재 문학 16개, 시각 21개, 공연 28개 등 항목 수가 방대함

○ 특히 통계적 가치가 낮은 소사(小史) 같은 항목을 정의 단계에서 걸러내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조사의 집중도를 높여 데이터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4) '문화예술활동'의 정의 원칙

① 법적·제도적 정의

○ 가장 일차적인 준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임

- (법적 범위)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만화 등 인간의 정신적·심미적 창조물의 총체.
- (통계적 적용) 법에서 명시한 장르 내에서 발생하는 '창작, 실연(實演), 전시, 출판'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활동으로 규정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 · 무용 · 연극 · 뮤지컬 · 연예 · 국악 ·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② 통계적 운용 정의

○ 현황조사라는 통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예술'을 '측정 가능한 활동'으로 치환해야 하며, 이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전문성 Professionalism) 단순한 개인적 취미 활동이 아닌, 공공성이나 전문성을 띤 창작자/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
- (공개성 Publicness) 불특정 다수(관객/독자)에게 공개되거나 유통되는 활동 (폐쇄적인 연습이나 습작은 제외)
- (실현성 Manifestation) 공연의 '개막', 전시의 '개최', 도서의 '발행' 등 결과물이 물리적 혹은 디지털 형태로 실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③ 유네스코(UNESCO) FCS 기반의 확장된 정의

○ 활동의 전주기화(全週期化) : 공연/전시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유네스코가 제안한 '창작-생산-보급-향유'의 순환 과정 전반을 활동의 범주로 봄

[UNESCO FCS의 핵심 철학 : 문화 사이클(Culture Cycle)]

▶ UNESCO FCS(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유네스코 문화통계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가 문화예술의 크기를 잴 때 사용하는 공통의 자(Scale)'임

▶ 이 프레임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를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 과정으로 본다는 점

▲ 창작(Creation) : 예술가의 아이디어가 작품이 되는 단계 (예: 작곡, 집필)
▲ 생산(Production) : 작품이 상품이 되는 단계 (예: 음반 제작, 출판)
▲ 보급(Dissemination) : 상품이 시장에 나가는 단계 (예: 유통, 마케팅)
▲ 전시/수행(Exhibition/Reception) : 관객이 만나는 단계 (예: 공연 개최, 전시)
▲ 교육/사회화(Education/Participation) : 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단계 (예: 예술 교육)

○ UNESCO 문화 순환 주기 분석

- 문학

순환 단계 (Cycle Stage)	문학 분야 주요 활동 (Key Activities)	핵심 데이터 소스 (Data Sources)
1. 창작 (Creation)	소설·시·수필 집필, 시나리오 구상, 웹소설 연재 시작	예술인 실태조사, 웹소설 플랫폼 작가 등록 현황
2. 생산 (Production)	편집 및 교정, 북 디자인, 전자책(e-book) 제작/변환	ISBN/CIP(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 매출 통계
3. 보급 (Dissemination)	서점 유통, 플랫폼 프로모션(MD 추천 등), 해외 번역 출판	출판유통통합시스템, 웹 플랫폼 API, 저작권 수출 실적
4. 향유/수용 (Reception)	온·오프라인 독서, 도서관 대출, 웹소설 유료 결제/조회	예술활동현황조사(문학), 도서관 빅데이터(도서관 정보나루)
5. 교육/참여 (Education)	문학 창작 교육, 비평 활동, 독서 토론회, 팬덤 커뮤니티	아르떼(Arte) 교육 통계, 문학상 시상 내역, SNS 버즈량

- 시각예술

순환 단계 (Cycle Stage)	시각예술 주요 활동 (Key Activities)	핵심 데이터 소스 (Data Sources)
1. 창작 (Creation)	아이디어 구상, 스케치, 사진 촬영, 조각/설치 설계	예술인 실태조사,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kawfartist.kr)
2. 생산 (Production)	스튜디오 작업, 재료 구매, 판화 찍기, 디지털 렌더링	레지던시 입주 현황, 미술 재료 시장 통계, 어시스턴트 고용
3. 보급 (Dissemination)	화랑(갤러리) 전속 계약, 아트페어 출품, 경매 상장	미술시장실태조사, 아트 플랫폼 거래 데이터, 경매 결과
4. 전시/수행 (Exhibition)	미술관/대안공간 전시, 비엔날레 참여, 온라인/NFT 전시	예술활동현황조사(시각), 미술관 관람객 통계, SNS 해시태그
5. 교육/참여 (Education)	도슨트 프로그램, 미술 비평, 작품 소장(컬렉팅), 실기 교육	박물관·미술관 주관 교육 통계, 비평지 발행 건수, 문화누리카드 결제

- 공연예술

순환 단계 (Cycle Stage)	공연예술 주요 활동 (Key Activities)	핵심 데이터 소스 (Data Sources)
1. 창작 (Creation)	희곡 집필, 안무 고안, 작곡, 연출 계획 수립	저작권 등록 현황, 예술인 실태조사(창작 활동 여부)
2. 생산 (Production)	연습 및 리허설, 무대/의상 제작, 음향/조명 디자인	연습실 대관 현황, 제작사 재무제표, 지원금 집행 내역
3. 보급 (Dissemination)	마케팅, 티켓 판매, OTT/플랫폼 유통 계약	KOPIS(결제 데이터), 홍보 대행사 리포트, API
4. 전시/수행 (Exhibition)	본 공연 개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축제 참여	예술활동현황조사, 플랫폼 조회수, 공연장 가동률
5. 교육/참여 (Education)	문화예술교육, 관객과의 대화, 비평, 팬덤 활동	아르떼(Arte) 교육 통계, SNS 언급량, 관객 만족도 조사

○ 매체의 확장 필요

- 종이책뿐만 아니라 웹 연재,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온라인 스트리밍 공간에서의 행위도 문화예술활동의 정의에 포함됨

■ '문화예술활동'의 정의

○ '문화예술활동이란?' **"전문성을 가진 창작 주체가 심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창작·실연·전시·유통] 과정의 총체로서, 공공에 공개되거나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오프라인 및 디지털 기반의 예술적 실천]"**을 의미함

5-1) 조사대상별 '문화예술활동' 정의 부합성 평가 결과

○ '문화예술활동'을 "전문성을 가진 창작 주체가 심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창작·실연·전시·유통] 과정의 총체로서, 공공에 공개되거나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오프라인 및 디지털 기반의 예술적 실천]"으로 정의한 후, 현재 조사대상이 정의에 부합하는지 다음과 같이 평가함

분야	조사대상	법적/제도적 정의 (문예진흥법 등)	통계적 운용 정의 (전문성/공개성)	UNESCO FCS (5단계 순환 주기)	종합 평가 결과
문학	① 단행본	최상	최상	생산/보급	**핵심 활동**. 현행 유지 및 온라인 출판(웹소설) 포괄 필요
	② 번역도서	상	상	보급/확산	**핵심 활동**. 한국 문학의 글로벌 확장성 측정에 필수적임
	③ 잡지	상	중	보급/참여	**준 핵심 활동**. 담론 형성 활동이나, 창작물 자체와는 층위가 다름
	④ 상(Awards)	하	최하	(성과/보상)	**부적합 제외 유지**. 활동의 '결과'이지 '활동'이 아님. 생태계 지표로 분리
	⑤ 행사	중	하	참여/교육	**신규 포함**. 단순 기념행사는 제외, 전문적 문학 행사 위주 정비
	⑥ 학술행사	중	상	참여/교육	**신규 포함**. 비평 및 학술 활동으로서의 전문성 인정됨
	⑦ 소사(小史)	최하	최하	(역사/기록)	**부적합 제외 유지**. 공연 횟수가 아닌 시상 건수는 생태계 외적 지표임
시각예술	① 시각예술 활동	최상	최상	전시/수행	**핵심 활동**. 전시 형태의 다양화(팝업, 디지털 등) 반영 필요
	② 잡지	상	중	보급/참여	**준 핵심 활동**. 비평 및 정보 유통 채널로서 의미 있음
	③ 상(Awards)	하	최하	(성과/보상)	**부적합 제외 유지**. 시상식 건수를 예술 활동 건수에 합산하는 것은 오류임
	④ 행사	중	하	참여/교육	**신규 포함**. 축제 내 부대행사 등과의 중복 집계 주의 필요
	⑤ 학술행사	중	상	참여/교육	**신규 포함**. 미술 이론 및 담론 생산 활동으로 가치 있음
	⑥ 소사小史)	최하	최하	(역사/기록)	**부적합 제외 유지**. 통계적 수치화가 불가능한 나열식 기록임

분야	조사대상	법적/제도적 정의 (문예진흥법 등)	통계적 운용 정의 (전문성/공개성)	UNESCO FCS (5단계 순환 주기)	종합 평가 결과
공연예술	① **공연예술 활동**	최상	최상	전시/수행	**핵심 활동**. KOPIS 연계를 통한 데이터 정밀도 제고 필
	② **잡지**	상	중	보급/참여	**준 핵심 활동**. 공연 정보 및 비평 활동 지표
	③ **상(Awards)**	하	최하	(성과/보상)	**부적합 제외 유지**. 공연 횟수가 아닌 시상 건수는 생태계 외적 지표임
	④ **행사**	중	하	참여/교육	**신규 포함**. 단순 이벤트와 전문 공연 행사의 엄격한 구분 필요
	⑤ **학술행사**	중	상	참여/교육	**신규 포함**. 공연 이론 및 정책 학술 활동으로 가치 있음
	⑥ **소사(小史)**	최하	최하	(역사/기록)	**부적합 제외 유지**. 통계표에 '내용, 비고'로 남는 데이터는 분석 가치 낮음

5-2) 조사대상별 '문화예술활동' 정의 부합성 평가 사유

가) 단행본, 활동, 잡지 : 문화예술활동 부합 / 핵심 활동

■ 단행본(번역도서), 시각(공연)예술 활동 : 창작의 최종 결과물로서 생태계의 존재 이유

○ 예술 생태계의 모든 에너지는 결국 이 '핵심 활동'을 위해 투입됨

○ 문학 : 단행본, 번역도서

- 문학 작가의 모든 창작 에너지가 응축되어 세상에 나오는 최종 결정체임
- 단행본 발간 종수는 해당 장르의 생산력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임

○ 시각예술/공연예술 : 활동(전시/공연)

- 시각예술은 '전시'를 통해, 공연예술은 '실연'을 통해 관객과 만남
- 이 활동이 멈추는 것은 생태계의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아, 이를 '핵심'으로 두는 것은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측정하겠다는 의지임

■ 잡지(Magazine) : 예술의 지성적 인프라 및 아카이브

○ 담론의 광장

- 잡지는 단순한 정보지가 아니라, 신진 작가의 '데뷔 무대'이자 전문가들의 '비평 공간임
- 잡지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장르 내에서 끊임없이 지적 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임

○ 시계열적 기록

- 단행본이나 일회성 공연은 파편화되기 쉽지만,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는 생태계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기록함
- 잡지 발간 현황은 해당 장르의 '지속가능성'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됨

■ 장르별 핵심 활동의 구체적 당위성

① 문학: 단행본과 번역도서 (창작과 확산)

- 단행본 : 문학 생태계의 '씨앗'이자 '열매'임
- 번역도서 : 2026년 고도화 전략에서 번역도서가 핵심인 이유는 'K-문학의 글로벌 위상' 때문임. 국내 창작을 넘어 우리 문학이 세계와 어떻게 호흡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국가 통계로서 매우 중요한 책무임

② 시각예술 : 시각예술활동 (현장성과 장소성)

- 시각예술 활동작품 그 자체보다 '어디서, 어떻게 보여지는가'라는 현장성이 핵심임
- 2026년 개편안에서 비전형 공간이나 디지털 전시까지 아우르는 '활동'을 핵심으로 둔 이유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미술이 대중과 만나는 방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임

③ 공연예술 : 공연예술활동 (생동감과 경제적 파급력)

- 공연예술은 '실시간성(實時間性)'이 본질임
- 무대 위에서 예술가와 관객이 만나는 그 순간의 활동이 곧 생태계의 총량이며, 공연 활동은 대관, 티켓 판매, 스태프 고용 등 가장 활발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므로 정책 분석의 최우선 순

위가 됨

■ 논리적 요약 : 왜 이것들이 '핵심'인가?
○ 직접성 (Directness) : 예술가의 창작 의지가 가감 없이 투영된 결과물인가? (예 : 책, 공연, 전시)
○ 전문성 (Professionalism) : 전문가 집단의 비평과 담론이 형성되는 구조인가? (예 : 잡지, 학술활동)
○ 지속성 (Sustainability) : 이 활동이 멈추었을 때 장르 전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가?

■ 결언
○ 통계에서 '핵심'을 정의하는 것은 정책의 '타겟'을 정하는 일임
○ 잡다한 행사나 시상식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작가가 책을 내고, 예술가가 무대에 서고, 비평가가 잡지에서 담론을 형성하는 이 바로 이 조사대상을 조사하는 목적임

나) 상(Award/Prize) : 문화예술활동 부적합 / 제외 유지

■ 문화예술활동 부적합 및 현황조사 제외 유지 사유
① '맥박(Activity)'과 '흔적(Result)'의 논리적 구분
○ 예술 통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는 일'과 '받는 상'을 섞어버리는 것임
- 활동(Activity)은 '동사' : 글을 쓰고, 전시를 열고, 무대에 오르는 것은 에너지가 투입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이는 생태계의 공급 능력을 보여줌
- 상(Prize)은 '형용사' : 상은 이미 완료된 활동에 대해 외부에서 부여한 '평가'이자 '결과'임

○ 논리적 결론 : 시상식을 활동 건수에 넣는 것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달린 '거리(활동)'를 측정하는 표에 그가 받은 '트로피 개수(결과)'를 합산하는 것과 같아 데이터의 성격 자체를 왜곡함

② 통계적 '착시 현상'과 중복 집계의 오류 (Double Counting)
○ 시상식을 포함할 경우, 데이터는 심각하게 부풀려지는 '통계적 거품'이 발생함
- '1+1=1'의 오류로서 어떤 뛰어난 연극 한 편이 10회의 공연을 하고 큰 상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정상 통계는 "공연 활동 1건 (10회 실연)", 오류 통계는 "공연 활동 1건 + 시상식 1건 = 총 2건의 활동"
- 시상식은 독립적인 예술적 창작 행위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활동을 기념하는 '부수적 행사'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생태계가 실제보다 더 활발한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정책 판단을 흐리게 함

③ 지표의 '시차'와 '계계(Silo)' 문제
○ 상은 보통 활동이 일어난 시점보다 늦게 주어지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에 혼란을 줌
○ 시점의 불일치
- 2025년에 창작된 작품이 2026년에 상을 받는 경우가 많음
- 2026년 통계에 시상식을 넣으면, 정작 2026년에 일어난 '실제 창작 에너지'가 아닌 과거의 그림자를 측정하게 됨

○ 외부 지표의 특성
- 상은 예술계 내부의 자생적 활동이라기보다, 재단이나 지자체 등 '외부 기관의 행정적 결정'에 가까움
- 이는 '예술 생태계 지표'가 아닌 '정책 보상 지표'로 별도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타당함

④ 글로벌 표준과의 정합성 (International Standards)
○ UNESCO 및 OECD의 관점
- 국제 문화 통계 가이드라인에서는 예술 활동을 '창작(Creation)'과 '실연(Performance/Exhibition)'으로 정의함
○ 해외 사례
- 영국의 DCMS나 캐나다 예술위원회(Canada Council)도 상은 '성과 보고(Impact Report)'에는 활용할지언정, 국가 '활동조사(Activity Survey)'의 모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 이는 상은 '영향력'의 영역이지 '활동'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임

■ 결언
○ 시상식 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예술가들이 더 많이 창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상은 '결과'일 뿐임
○ 현황조사는 '결과'를 칭찬하는 장부가 아니라,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이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상은 활동 통계에서 걷어내는 것이 타당함

다) 행사 : 문화예술활동 적합 / 신규 포함

■ '활동'에 부합하는 행사를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 변화된 생태계의 포착 : 요즘 젊은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갤러리나 공연장보다 '팝업 행사'나 '플랫폼 연계 행사'를 통해 대중과 만나며, 이를 '행사'라는 이유로 통계에서 모두 제외하면 실제 예술 생태계의 역동성을 놓치게 될 수 있음
○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 : 문예연감의 방대한 데이터 중 '예술적 가치'가 있는 부분만을 필터링하여 현황조사로 가져오는 데이터 브릿지(Data Bridge)를 구축하는 과정임
○ 정책 타겟팅의 정교화 : 단순 기념행사에 투입되는 자원과 실제 창작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을 구분함으로써, 문예위가 어떤 '활동'에 예산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함

■ 행사 신규 포함을 위한 정비 방안 검토
① 문학 : 단순 기념행사 제외, 전문 문학 행사 위주 정비 ['의식(Ritual)'과 '창작(Creation)'의 구분]
○ 현상의 문제
- 과거에는 특정 작가의 서거 주기 추도식이나 문학비 제막식 같은 '기념식'도 문학 활동으로 집계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는 예술적 행위라기보다는 행정적 의제에 가까움
○ 정비의 목적
- 문학 통계는 작가와 독자가 만나 '문학적 담론'을 형성하거나 '작품'을 향유하는 역동성을 측정해야 함

○ 상세 설명

- 단순 기념행사를 제외하고 작가와의 대화, 낭독회, 문학 전시 위주로 정비하는 이유는, 문학 생태계의 실제 작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임
- 그래야만 "대한민국 문학 창작 환경이 살아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② 시각예술 : 축제 내 부대행사 등과의 중복 집계 주의 [통계의 '착시 현상(Inflation)' 방지]

○ 현상의 문제

- 지역 축제에 가면 벼룩시장 옆에 작게 걸린 사진 몇 점, 체험 부스 안의 장식물 등이 모두 '미술 전시'로 잡히는 경우가 허다함

○ 중복 집계의 위험

- 하나의 축제 데이터가 이미 잡혀 있는데, 그 안의 부대행사를 별도의 전시 활동으로 또 집계하면 활동 건수가 부풀려지는(Double Counting) 오류가 발생함

○ 상세 설명

- 시각예술은 '기획의 독립성'이 중요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장식물과 독립적인 큐레이팅이 들어간 전시는 구분되어야 함
- 그래야만 시각예술가들의 전문적 전시 기회가 실제로 얼마나 확보되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음

③ 공연예술 : 단순 이벤트와 전문 공연 행사의 엄격한 구분 ['예술적 가치'와 '수단적 기능'의 분리]

○ 현상의 문제

- 개막식 축하 공연, 홍보를 위한 길거리 버스킹, 배경음악으로 쓰이는 연주 등은 공연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행사를 빛내기 위한 '수단'임

○ 전문 공연의 기준

- 반면, 관객이 오직 그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이고, 예술가가 창작 의도를 가지고 무대를 꾸미는 것은 '독립적 전문 공연'임

○ 상세 설명

- 단순 이벤트 성격의 공연을 제외하는 이유는, 공연예술 정책의 수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함임
- 단순 이벤트 지표가 섞이면 공연 시장이 활황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전문 예술인들의 고립을 방지하지 못하는 정책적 패착을 낳을 수 있음

■ 행사의 조사대상 신규 포함 방안

○ 문예연감이 기록의 완결성을 위해 '모든 발생 건수'를 전수 조사한다면, 현황조사는 정책적 지원 가치가 있는 '유효한 활동'을 가려내어 분석해야 함

○ 행사의 '활동' 전환 및 분석 항목 포함 전략

구분	제외 대상 (행정적·부수적)	포함 대상 (예술적·전문적)	2026년 분석 반영 방향
문학	기념비 제막식, 단순 추도식, 작가 문중 모임 등 **행정적·의식적 행사**	작가와의 대화, 낭독회, 문학 전시, 북토크 등 **독자와의 접점이 있는 활동**	[전문 문학 행사] 섹션 신설 및 담론 형성 여부 분석
시각예술	지역 축제 내 단순 장식, 플리마켓 부설 전시 등 **수단적 행사**	팝업 스토어 전시, 유휴 공간 프로젝트, 독립 큐레이팅 전시 등 **기획성이 담긴 활동**	[비전형 공간 활동] 속성 태깅을 통한 공간의 확장성 분석
공연예술	개막식 축하 공연, 단순 이벤트 버스킹, 배경음악 연주 등 **부대적 행사**	특정 창작 의도를 가진 전문 공연, 기술 융합 실연, 유료 스트리밍 공연 등 **예술적 실연 활동**	[전문 공연 행사] 항목으로 정밀 분석 및 이벤트성 데이터 필터링

① 시각예술 : [비전형 공간 활동] 분석 방법

- 전통적인 예술 공간인 '미술관'이나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말함
  - 해당 장소 : 카페, 팝업 스토어, 공원, 버려진 공장(유휴 공간), 길거리 등
  - 분석 의도 : 최근 젊은 예술가들이나 실험적인 예술이 정식 전시장 밖에서 대중과 만나는 '일상 예술'의 흐름을 데이터로 정확히 포착하기 위함

② 공연예술 : [전문 공연 행사] 정밀 분석 방법

○ 전문 공연 행사 (Professional Performance Event)

- 기존 통계에서 '공연'으로 뭉뚱그려졌던 데이터 중, 예술적 전문성과 독립적인 목적성을 가진 활동만을 따로 떼어내어 분석한다는 뜻임
- 배경
  - 과거에는 지역 축제의 개막식 축하 공연, 단순 홍보용 버스킹, 행정 기념식의 식전 행사 등도 모두 '공연' 건수로 집계되었음
  - 이로 인해 통계 숫자는 많지만 정작 전문 예술인들의 활동 실태는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했음
- 분석 방식
  - 제외 : 다른 행사의 '들러리'가 되는 부대행사나 이벤트성 공연
  - 포함 : 관객이 그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이고, 예술가가 창작 의도를 가지고 무대를 주도하는 독립적 공연
- 의도 : "우리나라에서 전문 공연 예술가들이 실제로 몇 회의 공연 기회를 얻고 있는가?"라는 정책적 질문에 정확한 숫자로 답하기 위함

라) 학술행사 : 문화예술활동 적합 / 신규 포함

■ 예술 가치사슬의 완성 : '생산'을 넘어 '가치 부여'로

○ 예술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석되고 수용될 때 비로소 그 생명력을 얻으며, 학술행사는 바로 그 '가치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함

○ 작품은 '텍스트', 학술은 '콘텍스트'

- 작가가 만든 작품이 하나의 '점'이라면, 학술행사는 그 점들을 연결해 시대적 의미라는 '선'과 '면'을 만드는 작업임

○ 사회적 공인 과정

- 비평과 학술적 논의가 없는 예술은 단순한 개인의 취미 활동과 구분하기 어려움
- 학술행사를 통해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거칠 때, 비로소 국가가 지원하고 보존해야 할 '공적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됨

■ 장르별 심층 논리 : 학술 활동이 창작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

① 문학 : 비평은 창작의 거울이자 지표

○ 논리 : 문학 작품은 출판되는 순간 독자에게 던져지지만, 그 작품의 문학사적 위치를 정립하는 것은 비평가와 연구자들의 몫임

○ 상세 설명

- 학술행사(작가론, 작품 비평 세미나 등)는 작가에게는 창작의 방향을 제시하는 피드백 장치이며, 독자에게는 작품을 깊이 있게 읽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따라서 학술 활동을 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학의 '머리(사고)'를 떼어놓고 '몸통(출판 건수)'만 보겠다는 것과 같음

② 시각예술 : 이론은 작품의 국제적 경쟁력을 결정함

○ 논리 : 현대 미술에서 담론(Discourse)은 작품의 가격과 전시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

○ 상세 설명

- 20세기 초 현대미술의 출발을 알린 마르셀 뒤샹의 변기가 예술이 된 것은 그것이 놓인 '학술적 맥락' 때문임
- 심포지엄과 작가 대담은 우리 작가들의 작품을 국제적인 예술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임
- 학술 활동 데이터가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미술계의 '이론적 기초 체력'이 강하다는 뜻이며, 이는 곧 K-아트의 글로벌 경쟁력 지표가 됨

③ 공연예술 : 학술은 휘발되는 무대를 '역사'로 기록함

○ 논리 : 공연은 막이 내리면 사라지지만, 학술적 분석은 그 공연을 '영원한 기록'으로 남김

○ 상세 설명

- 공연 정책 포럼이나 관객 분석 학술대회는 일회성 공연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정책적 자산으로 바꿈
- 이를 통해 예술 행정은 "작년에 몇 명 왔다"는 단순 집계를 넘어, "어떤 장르에 어떤 관객층이 반응하며, 이것이 지역 공동체에 어떤 정서적 치유를 주었는가"라는 전략적 통찰을 얻게 됨

■ 글로벌 스탠다드와 데이터 행정의 과학화

○ UNESCO 및 해외 선진국의 관점

- 유네스코(UNESCO) 문화통계 프레임워크(FCS)
  - 예술을 단순 생산물로 보지 않고 '창작-제작-유통-전문 서비스'의 순환 구조로 정의함
  - 학술 활동은 여기서 [전문 서비스] 범주의 핵심 지표로, 생태계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필수 항목임
- 시사점 : 학술행사를 통계에 넣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을 맞추는 것이며, 문예위의 조사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수준 높은 통계'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임

○ 데이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근거

- 단순히 "공연이 1,000건 열렸다"는 지표보다 "공연 1,000건 중 비평과 학술적 논의가 병행된 활동이 20%다"라는 지표가 훨씬 강력함
- 학술 활동 데이터는 문예위가 추진하는 사업의 질적 성과를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되며, 이는 예산 당국(기획예산처 등)을 설득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됨

■ 유형별 세부 구분 가이드라인

① 학술행사 : 이론적 가치와 전문 담론의 유무 : '단순 회의'와 '예술 학술'을 엄격히 구분

구분		내역	내용
포함	분석 대상 활동	심포지엄/컨퍼런스	특정 장르의 미래 방향이나 역사적 의미를 학술적으로 고찰하는 경우
		비평가/작가 대담	작품의 내면 세계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관객과 공유하는 세션
		정책 포럼	예술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전문 행사
제외	행정적 행사	사업 설명회	지원금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단순 행정 절차
		이사회/운영위원회	기관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정기 회의
		친목 모임	문인회·협회의 단순 야유회나 신년회 등

② 문학/시각/공연 학술행사: '들러리 행사인가, 주인공 활동인가' 여부

분야	포함 (전문적 예술 활동)	제외 (단순 이벤트 및 행정 행사)
문학	작가론 세미나, 작품 낭독회, 문학 전시, 북토크(심층 비평 포함)	출판기념회(단순 홍보), 문학비 제막식, 작가 추도식, 백일장(단순 경연)
시각예술	큐레이팅된 팝업 전시, 아티스트 토크, 이론 강연	축제 부설 장터 전시, 벼룩시장, 체험 부스 내 장식, 단순 공모전 시상식
공연예술	렉처 콘서트(해설 포함), 워크숍 공연, 쇼케이스	개막식 축하 공연, 홍보용 버스킹, 배경음악(BGM) 연주, VIP 리셉션 식전 행사

■ 'YES/NO' 판별 체크리스트

- Q1. 해당 행사에 전문 비평가나 이론가가 참여하여 발제/토론을 진행했는가? (YES 시 학술 활동 포함 가능성 높음)

- Q2. 해당 활동이 없더라도 메인 행사(예: 축제 개막식)가 진행되는 데 지장이 없는가? (YES 시 독립적 예술 활동으로 인정)
- Q3. 활동의 결과물이 보고서, 논문집, 비평문 등의 기록물로 남았는가? (YES 시 전문성 인정)

마) 소사(小史) : 문화예술활동 부적합 / 제외 유지

■ '맥박(Activity)'과 '일기(Narrative)'의 성격 차이

○ 통계는 '동력'을 조사 측정
- 현황조사의 목적은 예술가가 얼마나 창작하고 국민이 얼마나 향유했는지 그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며, 공연 횟수나 전시 건수는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는 직접적인 증거임

○ 소사는 '사건'을 기재
- 사는 "누가 취임했다", "어떤 기념식이 열렸다", "무슨 상이 수여됐다"와 같은 단편적인 사실들의 나열이며, 이는 예술 활동의 결과물이나 과정이라기보다, 예술 주변에서 일어난 '상황적 정보'에 해당함

○ 논리적 결론
- 소사는 생태계의 맥박을 보여주는 '내적 동력 지표'가 아닌, 주변 환경을 기록한 '외적 서사 지표'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수치화의 불가능성 : 나열식 기록의 한계

○ 비교 불가능성
- 통계의 생명은 '비교'와 '합산'임

  * "전년 대비 공연이 10% 늘었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데이터가 규격화되어야 함

○ 나열식의 함정
- 소사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서술형 데이터임

  * "A 단체의 창립 20주년"과 "B 교수의 정년퇴임"을 어떻게 합산하여 그래프로 그리겠습니까?

○ 상세 설명
- 소사 데이터는 각기 다른 고유한 사연을 담고 있어 하나로 묶어 평균을 내거나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함
- 이를 통계표에 억지로 넣는 것은 분석이 불가능한 '죽은 데이터'를 쌓아두는 것과 같음

■ 분석 가치의 부재 : 비고란에 머무는 데이터

○ 데이터의 위계
- 정책 결정에 쓰이는 핵심 데이터는 '장르', '지역', '횟수'처럼 명확한 카테고리로 분류되어야 함

○ '비고'의 한계
- 소사는 대부분 통계표의 끝부분에 '내용'이나 '비고'라는 이름의 텍스트로 남게 되며, 이러한 데이터는 기계가 읽기도 어렵고, 분석가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도출해내기도 매우 힘듦

○ 실무적 관점
- 문예위 실무진이 예산 당국을 설득할 때 "올해 소사 데이터가 작년보다 50건 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음
- 이는 내용이 파편화되어 있어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s)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임

■ '연감'과 '조사'의 역할 분담

- 문예연감의 역할
- 소사는 기록물로서 매우 가치 있어 문예연감의 기록 영역에는 충실히 남겨두어야 함
- 소사는 소중한 우리 예술계의 기록이지만, 통계학적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잡음(Noise)'에 가까움

○ 현황조사의 역할

- 국가승인통계인 현황조사에서는 오직 분석 가능한 '유효한 활동 데이터'만 남겨야 통계의 정밀도가 올라감
- 현황조사는 예술의 양적·질적 변화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도구여야 하므로, 서사적인 소사 기록은 문예연감의 고유 영역으로 환원하고, 통계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여 지표의 순도를 확보해야 함

6) '문화예술활동' 정의 부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사대상 재정비

○ 문화예술활동이란 "전문성을 가진 창작 주체가 심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창작·실연·전시·유통] 과정의 총체로서, 공공에 공개되거나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오프라인 및 디지털 기반의 예술적 실천]"으로 정의에 부합하도록 조사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전면 재정비함

분야	조사대상	법적/제도적 정의 (문예진흥법 등)	통계적 운용 정의 (전문성/공개성)	UNESCO FCS (5단계 순환 주기)	조사대상	
					현행	변경
문학	① 단행본	최상	최상	생산/보급	○	○
	② 번역도서	상	상	보급/확산	○	○
	③ 잡지	상	중	보급/참여	○	○
	④ 상(Awards)	하	최하	(성과/보상)	X	X
	⑤ 행사	중	하	참여/교육	X	○
	⑥ 학술행사	중	상	참여/교육	X	○
	⑦ 소사(小史)	최하	최하	(역사/기록)	X	X
시각예술	① 시각예술 활동	최상	최상	전시/수행	○	○
	② 잡지	상	중	보급/참여	○	○
	③ 상(Awards)	하	최하	(성과/보상)	X	X
	④ 행사	중	하	참여/교육	X	○
	⑤ 학술행사	중	상	참여/교육	X	○
	⑥ 소사(小史)	최하	최하	(역사/기록)	X	X
공연예술	① 공연예술 활동	최상	최상	전시/수행	○	○
	② 잡지	상	중	보급/참여	○	○
	③ 상(Awards)	하	최하	(성과/보상)	X	X
	④ 행사	중	하	참여/교육	X	○
	⑤ 학술행사	중	상	참여/교육	X	○
	⑥ 소사(小史)	최하	최하	(역사/기록)	X	X

나. 조사항목 적정성 검토 및 조정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관행적 항목 유지에 따른 행정 비효율 및 응답 피로도 누적

- 1970년대 수립된 전통 장르 중심의 항목이 정책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조사 대상자의 응답 거부율 상승 및 데이터 정제 비용 증가 초래
- 수집되는 데이터 중 실제 정책 수립이나 학술 연구에 활용되지 않는 '휴면 지표'가 다수 존재하여 통계의 실효성 저하

○ 수집 체계의 고착화로 인한 데이터 사각지대 발생

- 수기 및 설문 중심의 수동적 자료 수집 방식에 의존함에 따라 공표 시차가 1년 이상 발생하는 등 데이터의 적시성 확보에 한계 노출
- 특히 디지털 예술, 융복합 활동 등 신규 영역을 단일 장르(기타, 혼합 등)로 처리함에 따라 실제 예술 생태계의 역동성이 데이터상에서 왜곡되거나 증발함

○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표 추가 검토 및 체계 내실화

- 국가데이터처의 개선 과제인 '통계 활용도를 위한 지표 추가 검토'를 반영하여, 단순 현황 집계를 넘어 정책적 의사결정에 실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신규 지표 발굴 필요
- 예술 현장의 다변화된 창작·향유 양상을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는 지표 고도화를 통해 국가승인통계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예술 정책 수립 및 환류 체계 강화

[표 7-1] 2025년 문화예술활동조사 202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개선과제

단계	개선과제	실행방법	기대효과	관련 품질차원
단기	조사 이해를 위한 설명 자료 보완	간행물이나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를 위한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와 KOPIS 차이점 설명	통계 이용자들의 혼동 방지	명확성
중기	모집단 리스트 개편 및 범위 재설정 검토	민간 영역을 포함하도록 모집단 보완 검토	통계값의 대표성 확보	정확성
	통계 활용도를 위한 지표 추가 검토	**통계 지표 추가 검토**	**통계 이용자들의 활용도 제고**	**관련성**
	트렌드에 맞는 간행물 내 시각화 자료 보완	간행물 내 시각화 자료 보완	통계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	명확성
장기	분류체계 재분류화 검토	현행 통계 분류나 융합 분야 등에 대한 재분류 검토	통계조사개선	정확성

※ 한국통계진흥원, 국가데이터처(2025. 12)
※ 단기 : 1년 이하, 중기 : 1~2년, 장기 : 2~5년

2) 추진 목적

○ 조사항목의 신규 전문 활동 영역 반영

- 전문 예술 행사 및 학술·담론 행사 등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편입하여 통계의 정책적 분석 가치 극대화
- 단순 현황 집계 위주의 항목 구성을 정책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지표 중심으로 재편하여 데이터의 행정적 유용성 확보

○ 온라인·디지털 예술 포착 및 다차원 태깅(Multi-dimensional Tagging) 도입

- 온라인 및 디지털 예술 활동을 정식 조사 범주로 신설하여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창작 양상을 체계적으로 포착하고, 단일 장르 분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차원 태깅 방식을 도입하여 융복합 활동의 실체를 정밀하게 데이터화
- 고정된 분류 체계에서 벗어나 공간, 매체, 참여 주체 등 다각도의 속성 정보를 매핑함으로써 예술 생태계의 복합적인 역동성을 데이터상에서 무결성 있게 구현

○ 지능형 수집 체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적시성 및 신뢰도 확보

- 항목별 특성에 최적화된 자료 수집 경로(행정 DB 연동, API 연계 등)를 설계하여 공표 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수기 입력에 따른 오류를 원천 차단하여 데이터의 무결성 확보
- 디지털 예술, 융복합 활동 등 신규 영역에 대한 정교한 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술 생태계의 역동성을 있는 그대로 포착

○ 증거 기반(Evidence-based) 예술 정책 수립 지원 및 환류 체계 강화

- 파편화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통계 결과가 창작 지원 및 예술 정책 설계에 즉각 반영되는 선순환 환류 구조 정착
- 예술 현장의 실태를 정밀하게 투영하는 고도화된 데이터 체계를 통해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중장기 예술 정책 수립의 토대 마련

3) 세부 실행 방안

가) 장르별 조사대상 및 항목의 전략적 재편

○ 조사 대상의 과감한 삭제 및 신규 편입

- [문학] ISBN 등 공공 DB와 중복되는 기초 서지 사항은 삭제하고, 전자책(E-book), 웹소설, 해외 번역 실적 등을 필수 대상으로 편입
- [시각/공연] 단순 시설 관리 항목은 삭제하되, 창작초연 여부, 온라인 전시·공연 실적 등 정책적 가치가 높은 항목 신설

○ 장르별 세부 조사항목 적정성 진단

- 정책 활용도 기반의 30개 항목 정밀 진단 후, 저효율 지표는 통폐합하고 작가 참여 형태 및 유료 관객 비중 등 성과 중심 항목으로 교체

나) 항목별 최적 데이터 수집(Collection) 체계 구축

○ 수집 경로 다변화 및 하이브리드 방식 도입

- 전수 설문 방식에서 탈피하여 ISBN, KOPIS, 행정 데이터 자동 연동 및 예술가 '셀프 리포팅' 등 항목 특성에 최적화된 수집 방법 매칭

○ 실시간 논리 검증 시스템 적용

-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장르와 활동 성격 간 모순을 필터링하는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입력 오류를 원천 차단하고 정제 기간 단축

다) 다차원 속성 태깅(Multi-dimensional Tagging) 시스템 도입

○ 입체적 데이터 분류 구조 설계

- 단일 장르 분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AI/XR) / 장소 / 사회적 가치] 등 현대 예술의 복합적 속성을 중복 태깅하는 지능형 분류 체계 구축

○ 융복합 예술 분석 모델링

- 수집된 개별 활동에 다차원 코드를 부여하여 융복합 예술의 장르 간 상관관계 및 파급효과를 과학적으로 산출하는 기반 마련기반 마련

4)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세부 조사항목별 적정성 검토 및 정비 내용

분야	장르(조사대상)	세부 조사 항목		정비 의견	정비 의견 및 고도화 방안
문학	① 단행본	대분류	국내도서, 번역도서	유지	창작과 번역의 층위를 구분하는 기초 지표로 유지함
		중분류1	일반도서, 아동도서	유지	독자층에 따른 유통 시장 구분을 위해 유지함
		중분류2	(중분류1의 아동도서만 해당)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변경	통계청 표준 분류와 연계하여 세대별 구분을 간소화함
		소분류	시, 소설, 수필/산문, 평론/인문연구서, 희곡/시나리오, 기타	유지	시, 소설, 수필 등 핵심 장르 데이터로 유지함
		서명	단행본 표제	유지	단행본 식별을 위한 필수 항목임.
		저자	단행본 작가, 삽화가/사진가, 역자(번역도서의 경우), 해설자, 편집자	유지	단행본 식별을 위한 필수 항목임.
		언어	언어(번역도서의 경우)	유지	단행본 식별을 위한 필수 항목임.
		출판사	단행본 출판사명	유지	단행본 식별을 위한 필수 항목임.
		발행지역	단행본 발행지역(광역자치단체 기준 출판사 소재지)	유지	단행본 식별을 위한 필수 항목임.
		혼합장르 여부	혼합장르 여부(대표장르 외 다른 장르와 혼합일 경우)	변경	단순 여부 확인에서 [다차원 속성 태깅]으로 전환하여 융복합 창작 실태를 정밀하게 포착함
		비고	미 작성 기타 내용	유지	기타 특이사항 기록을 위해 유지함
		플랫폼/연재 여부	웹소설, 웹툰 플랫폼 연재 및 유료 구독 서비스 활용 여부	신설	웹소설 및 유료 플랫폼 연재 등 [온라인 예술] 범주의 실전 창작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신설함
		창작자 전문성 속성	예술인 패스, 전문 활동 이력 등 작가의 전문성 구분 지표	신설	예술인 패스 등과 연계하여 창작자의 전문 활동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설함
	② 한국문학 외국어 번역도서	서명(번역)	번역도서명(번역도서명으로 기재)	유지	한국 문학의 글로벌 확산 경로 추적을 위해 필수 유지함
		서명(원제)	번역도서명(국문도서명으로 기재)	유지	한국 문학의 글로벌 확산 경로 추적을 위해 필수 유지함
		저자	원작 저자	유지	한국 문학의 글로벌 확산 경로 추적을 위해 필수 유지함
		역자	번역자	유지	한국 문학의 글로벌 확산 경로 추적을 위해 필수 유지함
		번역어	번역 언어	유지	한국 문학의 글로벌 확산 경로 추적을 위해 필수 유지함
		출판국	출판 국가	유지	K-문학의 국가별 유통 현황 및 장르 선호도 분석을 위해 유지함
		출판사	출판사	유지	K-문학의 국가별 유통 현황 및 장르 선호도 분석을 위해 유지함

분야	장르(조사대상)	세부 조사 항목		정비 의견	정비 의견 및 고도화 방안
		장르	시, 소설, 수필/산문, 평론/인문연구서, 희곡/시나리오, 기타	유지	K-문학의 국가별 유통 현황 및 장르 선호도 분석을 위해 유지함
		출처	대산문화재단, 한국문학번역원	유지	K-문학의 국가별 유통 현황 및 장르 선호도 분석을 위해 유지함
		비고	미 작성 기타 내용	유지	기타 특이사항 기록을 위해 유지함
	③ 문학 잡지	청구기호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유지	잡지 식별을 위한 필수 지표임
		잡지명	작품수록 잡지명	유지	잡지 식별을 위한 필수 지표임.
		호	잡지 발행 호수	유지	잡지 식별을 위한 필수 지표임.
		발행자	잡지 발행자	유지	잡지를 통한 담론 형성 활동의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지함
		발행일자	잡지 발행일자	유지	잡지를 통한 담론 형성 활동의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지함
		발행형태	격년간, 연간, 반연간, 연3회간, 계간, 격월간, 월간, 비정형	유지	잡지를 통한 담론 형성 활동의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지함
		신간/폐간	신간/폐간 여부	유지	문학 생태계의 기초 인프라인 잡지의 생멸 및 전문성 파악을 위해 유지함
		대표장르	시, 소설, 수필/산문, 평론/인문연구서, 희곡/시나리오, 기타, 혼합	유지	문학 생태계의 기초 인프라인 잡지의 생멸 및 전문성 파악을 위해 유지함
		수록 편수	장르별 수록 작품 편수	유지	문학 생태계의 기초 인프라인 잡지의 생멸 및 전문성 파악을 위해 유지함
		비고	미 작성 기타 내용	유지	기타 특이사항 기록을 위해 유지함
	④ 전문 문학 행사	행사명	낭독회, 작가와의 대화, 북토크 등 전문 행사 명칭	신설	단순 기념식을 제외한 작가와의 대화, 낭독회 등 전문 활동 식별을 위해 신설함
		회차	해당 행사의 개최 횟수	신설	신설 및 지속 여부를 식별함
		시작일	행사 시작일	신설	단순 기념식을 제외한 작가와의 대화, 낭독회 등 전문 활동 식별을 위해 신설함
		종료일	행사 종료일	신설	단순 기념식을 제외한 작가와의 대화, 낭독회 등 전문 활동 식별을 위해 신설함
		행사기간	행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단순 기념식을 제외한 작가와의 대화, 낭독회 등 전문 활동 식별을 위해 신설함

분야	장르(조사대상)	세부 조사 항목		정비 의견	정비 의견 및 고도화 방안
		주최	주최로 명시된 기관이나 단체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주관	주관으로 명시된 기관이나 단체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장소	행사가 개최된 물리적 공간 명칭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참여 전문가	평론가, 모더레이터 등 전문 인력 참여 여부 및 성명	신설	[전문성 필터] 단순 이벤트와 전문 활동을 구분하는 핵심 항목으로, 참여 전문가의 성명을 기재함
		행사 성격	비평/낭독/전시 등	신설	문학 활동의 다변화된 양상을 유형별로 분석하기 위함
		공간 속성	전형/비전형	신설	[비전형 공간 활동] 서점, 카페, 공공장소 등 공간의 확장성을 포착함
	⑤ 문학 학술행사	행사명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 학술 행사 명칭	신설	문학 이론 정립 및 비평 담론 형성을 위한 전문 학술 활동을 별도 관리함
		주제	해당 학술 행사에서 다루는 미학적/정책적 핵심 의제	신설	문학 이론 정립 및 비평 담론 형성을 위한 전문 학술 활동을 별도 관리함
		회차	해당 행사의 개최 횟수	신설	신설 및 지속 여부를 식별함
		시작일	행사 시작일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종료일	행사 종료일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행사기간	행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주최	주최로 명시된 기관이나 단체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주관	주관으로 명시된 기관이나 단체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장소	행사가 개최된 물리적 공간 명칭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참여 전문가	참여한 발제자, 토론자,연구자, 비평가, 작가 등의 명단	신설	[전문성 필터] 핵심 항목으로, 학술적 권위와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함
		행사 성격	비평/낭독/전시 등	신설	문학 활동의 다변화된 양상을 유형별로 분석하기 위함
		결과물 형태	자료집, 비평문, 학술지 수록 등 기록물 형태	신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빙하기 위한 항목임
시각예술	① 시각예술 활동	대분류	시각예술, 융합(+공연예술), 융합(+문학), 융합(+공연예술, 문학)	유지	시각예술의 기초 분류 체계 및 창작 주체 규모 파악을 위해 유지함
		중분류	개인전, 단체전	유지	시각예술의 기초 분류 체계 및 창작 주체 규모 파악을 위해 유지함
		소분류(장르)	회화, 서예, 공예, 조소, 판화, 디자인, 만화, 영상, 사진, 건축, 설치, 행위, 조형, 혼합, 기타	유지	시각예술의 기초 분류 체계 및 창작 주체 규모 파악을 위해 유지함

분야	장르(조사대상)	세부 조사 항목		정비 의견	정비 의견 및 고도화 방안
		전시명 1	개인전-작가명, 단체전-단체명 또는 전시명	유지	고유 활동 식별을 위해 유지함
		전시명 2	부제나 소제, 행사명	유지	고유 활동 식별을 위해 유지함
		시작일	전시 시작일	유지	활동의 시점과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지함
		종료일	전시 종료일	유지	활동의 시점과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지함
		전시 기간	전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2023년만 반영)	유지	활동의 시점과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지함
		주최	포스터나 공식 자료상의 주최로 명시된 기관이나 단체	유지	활동 주체 및 지역별 격차 분석을 위해 유지함.
		지역 1	광역자치단체 기준	유지	활동 주체 및 지역별 격차 분석을 위해 유지함.
		지역 2	기초자치단체 기준	유지	활동 주체 및 지역별 격차 분석을 위해 유지함.
		도시 규모	구 단위, 군 단위, 시 단위	유지	활동 주체 및 지역별 격차 분석을 위해 유지함.
		전시장 1	공식 전시장소명	유지	활동 장소 분석을 위해 필수 유지함.
		전시장 2	세부 전시장소명 (예: 한가람미술관 1전시실일 경우 한가람미술관은 전시장1, 1전시실은 전시장2)	유지	활동 장소 분석을 위해 필수 유지함.
		전시장 운영주체	공공, 민간	유지	활동 장소 분석을 위해 필수 유지함.
		행사명	페스티벌이나 행사 내 포함된 전시일 경우 표기	유지	창작 환경 및 참여자 특성 분석을 위해 유지함
		작가명/단체명	참여작가 및 참여단체	유지	창작 환경 및 참여자 특성 분석을 위해 유지함
		참여작가 수	참여작가 수 정보가 있을 경우 표기	유지	창작 환경 및 참여자 특성 분석을 위해 유지함
		국적	외국작가 전시 참여시 국적 기록	유지	창작 환경 및 참여자 특성 분석을 위해 유지함
		비고	기타 전시 관련 사항	유지	창작 환경 및 참여자 특성 분석을 위해 유지함
		전시 공간 속성	유휴공간, 팝업, 카페, 공공장소 등 공간 성격 태깅	신설	[비전형 공간 활동] 팝업, 카페, 공공장소 등 전통적 시설 외 공간의 확장성을 포착함
		디지털 전시 여부	VR, 메타버스, 온라인 뷰잉룸 등 디지털 구현 여부	신설	[온라인 예술] 가상 갤러리, 메타버스 전시 등 디지털 전환 실태를 별도 분석하기 위해 신설함

분야	장르(조사대상)	세부 조사 항목		정비 의견	정비 의견 및 고도화 방안
	② 시각예술 잡지	구분	시각예술, 융합(+공연예술)	유지	잡지 식별을 위한 필수 지표임
		장르	회화, 서예, 공예, 조소, 판화, 디자인, 만화, 영상, 사진, 건축, 설치, 행위, 조형, 혼합, 기타	유지	잡지 식별을 위한 필수 지표임
		잡지명	작품수록 잡지명	유지	잡지 식별을 위한 필수 지표임
		호	잡지 발행 호수	유지	잡지 식별을 위한 필수 지표임
		발행자	잡지 발행자	유지	잡지를 통한 담론 형성 활동의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지함
		발행일자	잡지 발행일자	유지	잡지를 통한 담론 형성 활동의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지함
		발행형태	격년간, 연간, 반연간, 연3회간, 계간, 격월간, 월간, 비정형	유지	잡지를 통한 담론 형성 활동의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지함
		신간/폐간	신간/폐간 여부	유지	시각예술 생태계의 기초 인프라인 잡지의 생멸 및 전문성 파악을 위해 유지함
		비고	미작성 기타 내용	유지	기타 특이사항 기록을 위해 유지함
	③ 전문 시각예술 행사	행사명	팝업 전시, 유휴공간 프로젝트, 독립 큐레이팅 전시 등 행사명	신설	축제 부대행사가 아닌 독립적 기획(팝업, 프로젝트 등)을 포착하기 위해 신설함
		회차	해당 행사의 개최 횟수	신설	신설 및 지속 여부를 식별함
		시작일	행사 시작일	신설	축제 부대행사가 아닌 독립적 기획(팝업, 프로젝트 등)을 포착하기 위해 신설함
		종료일	행사 종료일	신설	축제 부대행사가 아닌 독립적 기획(팝업, 프로젝트 등)을 포착하기 위해 신설함
		행사기간	행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신설	축제 부대행사가 아닌 독립적 기획(팝업, 프로젝트 등)을 포착하기 위해 신설함
		주최	주최로 명시된 기관이나 단체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주관	주관으로 명시된 기관이나 단체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장소	행사가 개최된 물리적 공간 명칭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참여 전문가	비평가 등	신설	[전문성 필터] 단순 이벤트와 전문 활동을 구분하는 핵심 항목으로, 참여 전문가의 성명을 기재함

분야	장르(조사대상)	세부 조사 항목		정비 의견	정비 의견 및 고도화 방안
		행사 성격	팝업 전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아카이브 전시, 커뮤니티 아트, 독립 큐레이팅 프로젝트 등	신설	활동의 다변화된 양상을 유형별로 분석하기 위함
		공간 속성	유휴/대안/상업 등	신설	[비전형 공간 활동] 전형적 미술관 외 현장에서의 시각예술 실천 양상을 분석함
	④ 시각예술 학술행사	행사명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아티스트 토크 등 시각예술 이론 정립 및 비평 담론 형성을 위한 전문 학술 활동 명칭	신설	[현장 비평 활동] 이론 세미나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아티스트 토크 등을 포함함
		주제	학술행사의 핵심 미학적 의제, 작가론, 비평 담론 또는 예술 정책적 현안의 제목 및 주요 내용	신설	[현장 비평 활동] 이론 세미나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아티스트 토크 등을 포함함
		회차	해당 행사의 개최 횟수	신설	신설 및 지속 여부를 식별함
		시작일	행사 시작일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종료일	행사 종료일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행사기간	행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주최	주최로 명시된 기관이나 단체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주관	주관으로 명시된 기관이나 단체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장소	행사가 개최된 물리적 공간 명칭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참여 전문가	발제자, 토론자, 비평가, 연구자	신설	[전문성 필터] 핵심 항목으로, 학술적 권위와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함
		행사 성격	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전문 비평가 참여 아티스트 토크, 라운드 테이블 등	신설	활동의 다변화된 양상을 유형별로 분석하기 위함
		결과물 형태	자료집, 비평문	신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빙하기 위한 항목임
공연예술	① 공연예술 활동	대분류	공연예술, 융합(+시각예술), 융합(+문학), 융합(+시각예술, 문학)	유지	공연예술 정체성 및 상세 장르 분류를 위해 유지함
		중분류	창작초연, 재공연	유지	공연예술 정체성 및 상세 장르 분류를 위해 유지함
		소분류1(장르)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4)	유지	공연예술 정체성 및 상세 장르 분류를 위해 유지함
		소분류2(세부장르),	국악 : 기악, 성악, 합창, 연희, 복합, 기타	유지	공연예술 정체성 및 상세 장르 분류를 위해 유지함

분야	장르(조사대상)	세부 조사 항목		정비 의견	정비 의견 및 고도화 방안
			양악 : 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복합, 기타 연극 : 연극, 뮤지컬, 복합, 기타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복합, 기타		
		공연명 1	공식 공연명	유지	공연예술 정체성 및 상세 장르 분류를 위해 유지함
		공연명 2	부제나 소제, 행사명	유지	공연예술 정체성 및 상세 장르 분류를 위해 유지함
		단체명	공연단체명(극단, 무용단, 오케스트라, 실내악단 등). 없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출연자 기재	유지	공연예술 정체성 및 상세 장르 분류를 위해 유지함
		참여작가 수	참여작가 수 정보가 있을 경우 표기	유지	공연예술 정체성 및 상세 장르 분류를 위해 유지함
		시작일	공연 시작일	유지	공연의 양적 실적을 파악하는 핵심 지표임
		종료일	공연 종료일	유지	공연의 양적 실적을 파악하는 핵심 지표임
		공연기간	공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2023년만 반영)	유지	공연의 양적 실적을 파악하는 핵심 지표임
		공연 횟수	총 공연 횟수	유지	공연의 양적 실적을 파악하는 핵심 지표임
		주최	포스터나 공식 자료상의 주최로 명시된 기관이나 단체	신설	공연 시설 및 주체별 기여도 파악을 위해 유지함
		지역 1	광역자치단체 기준	신설	공연 시설 및 주체별 기여도 파악을 위해 유지함
		지역 2	기초자치단체 기준	신설	공연 시설 및 주체별 기여도 파악을 위해 유지함
		등록 공연장 1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공연장의 공식 공연장명	신설	공연 시설 및 주체별 기여도 파악을 위해 유지함
		등록 공연장 2	등록 공연장의 세부 공연장명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인 경우 예술의전당은 공연장1, 콘서트홀은 공연장2)	신설	공연 시설 및 주체별 기여도 파악을 위해 유지함
		미등록 공연장 1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공연장이 아닌 공연장의 공식 공연장명	신설	공연 시설 및 주체별 기여도 파악을 위해 유지함
		미등록 공연장 2	미등록 공연장의 세부 공연장명	신설	공연 시설 및 주체별 기여도 파악을 위해 유지함
		공연시설 외(장소명)	공연시설이 아닌 곳에서 공연했을 경우, 해당 장소명	신설	공연 시설 및 주체별 기여도 파악을 위해 유지함
		실외공연장 여부	실외공연장 여부	신설	공연 시설 및 주체별 기여도 파악을 위해 유지함
		공연장 운영주체	공공, 민간	신설	공연 시설 및 주체별 기여도 파악을 위해 유지함
		행사명	페스티벌, 경연대회, 축제, 연극제, 음악제,	신설	비전형 공간 활동 및 페스티벌 부대 공연 여부 식별을 위해 유지함

분야	장르(조사대상)	세부 조사 항목		정비 의견	정비 의견 및 고도화 방안
			무용제 등 표시		
		비고	미 작성 기타 내용	신설	기타 특이사항 기록을 위해 유지함
		스트리밍 실적	온라인 생중계, OTT 송출 등 디지털 실연 실적	신설	[온라인 예술] OTT 송출 및 유료 스트리밍 등 디지털 실연 활동을 신규 포착함
	② 공연예술 잡지	구분	공연예술, 융합(+시각예술)	유지	잡지 식별을 위한 필수 지표임
		장르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유지	잡지 식별을 위한 필수 지표임
		잡지명	작품수록 잡지명	유지	잡지 식별을 위한 필수 지표임
		호	잡지 발행 호수	유지	잡지 식별을 위한 필수 지표임
		발행자	잡지 발행자	유지	잡지를 통한 담론 형성 활동의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지함
		발행일자	잡지 발행일자	유지	잡지를 통한 담론 형성 활동의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지함
		발행형태	격년간, 연간, 반연간, 연3회간, 계간, 격월간, 월간, 비정형	유지	잡지를 통한 담론 형성 활동의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지함
		신간/폐간	신간/폐간 여부	유지	공연예술 생태계의 기초 인프라인 잡지의 생멸 및 전문성 파악을 위해 유지함
		비고	미작성 기타 내용	유지	기타 특이사항 기록을 위해 유지함
	② 전문 공연예술 행사	행사명	창작 쇼케이스, 렉처 콘서트 등 전문 기획 유형	신설	개막식 등 들러리 공연을 제외한 전문적 창작 의도가 담긴 행사 위주로 신설함
		회차	해당 행사의 개최 횟수	신설	개막식 등 들러리 공연을 제외한 전문적 창작 의도가 담긴 행사 위주로 신설함
		시작일	행사 시작일	신설	개막식 등 들러리 공연을 제외한 전문적 창작 의도가 담긴 행사 위주로 신설함
		종료일	행사 종료일	신설	개막식 등 들러리 공연을 제외한 전문적 창작 의도가 담긴 행사 위주로 신설함
		행사기간	행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신설	개막식 등 들러리 공연을 제외한 전문적 창작 의도가 담긴 행사 위주로 신설함
		주최	주최로 명시된 기관이나 단체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분야	장르(조사대상)	세부 조사 항목		정비 의견	정비 의견 및 고도화 방안
		주관	주관으로 명시된 기관이나 단체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장소	행사가 개최된 물리적 공간 명칭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참여 전문가	비평가 등	신설	[전문성 필터] 단순 이벤트와 전문 활동을 구분하는 핵심 항목으로, 참여 전문가의 성명을 기재함
		행사 성격	창작 쇼케이스, 렉처 콘서트 등 전문 기획 유형	신설	활동의 다변화된 양상을 유형별로 분석하기 위함
		공간 속성	실내/실외/비전형	신설	장소의 제약 없이 이루어지는 현대 공연의 유연한 실연 형태를 포착함
	④ 공연예술 학술행사	행사명	공연예술의 미학적 분석, 비평적 담론 형성 및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학술 활동의 공식 명칭	신설	공연 정책, 미학 분석 등 생태계 지속성을 위한 지적 활동을 별도 관리함
		주제	학술행사에서 다루는 핵심 미학적 의제, 공연 이론, 비평 담론 또는 예술 정책적 현안의 제목 및 주요 내용	신설	공연 정책, 미학 분석 등 생태계 지속성을 위한 지적 활동을 별도 관리함
		회차	해당 행사의 개최 횟수	신설	신설 및 지속 여부를 식별함
		시작일	행사 시작일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종료일	행사 종료일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행사기간	행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주최	주최로 명시된 기관이나 단체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주관	주관으로 명시된 기관이나 단체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장소	행사가 개최된 물리적 공간 명칭	신설	활동 주체의 전문성 및 지역별 분포 분석을 위해 필수 기재함
		참여 전문가	발제자, 토론자, 평론가, 드라마투르그 등	신설	[전문성 필터] 핵심 항목으로, 학술적 권위와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함
		행사 성격	학술대회/심포지엄, 정책 포럼/세미나, 전문 비평 담론, 렉처 콘서트/워크숍, 라운드 테이블 등	신설	활동의 다변화된 양상을 유형별로 분석하기 위함
		결과물 형태	자료집, 비평문, 녹취, 기사 등	신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빙하기 위한 항목임

다. 조사모집단 고도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기관 지원금 DB 중심 모집단의 '제도권 편향성' 탈피 필요

- 현재 모집단은 공공 지원금 수혜 이력 및 국공립 시설 대관 기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전문 예술가 및 신진 단체가 통계에서 누계(Under-reporting)되는 구조적 한계 노출
- 특히 문학, 시각예술 분야에서 개인 창작자 및 소규모 동인(Group) 활동의 포착률이 낮아 실제 창작 생태계 규모가 과소 추정되는 데이터 왜곡 발생

○ 데이터 연계 미흡에 따른 모집단 현행화(Update) 시차 발생

- KOPIS(공연), ISBN(문학),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예술활동증명) 등 유관 행정 데이터와의 실시간 연계 체계 부재로 모집단 명부의 시의성 결여
- 매년 조사 직전 수행되는 일회성 모집단 정제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 자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파편화로 인해 동일 주체에 대한 중복 오류 및 식별 실패 사례 상존

○ 디지털 전환 및 공간 다변화에 따른 '활동 사각지대' 급증

- 웹소설, 웹툰, 디지털 아트 등 온라인 플랫폼 기반 창작 활동과 카페, 독립서점, 유휴공간 등 **[비전형 공간]에서의 예술적 실천이 통계적 모집단 프레임워크(Sampling Frame) 외부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임

○ 국가데이터처 개선과제 반영을 통한 통계 거버넌스 강화

- 국가데이터처의 핵심 개선과제인 '모집단 리스트 개편 및 범위 재설정 검토'를 반영하여, 급변하는 예술 환경을 포괄할 수 있는 통계적 표집 틀(Sampling Frame)의 전면적인 재설계 및 고도화 필요
- '민간 영역을 포함하도록 모집단 보완 검토' 지침에 의거하여, 공공 지원의 범주를 넘어 민간 자생적 예술 생태계 전반을 통계권 내로 수용함으로써 국가승인통계로서의 포괄적 대표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

[표 7-1] 2025년 문화예술활동조사 202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개선과제

단계	개선과제	실행방법	기대효과	관련 품질차원
단기	조사 이해를 위한 설명 자료 보완	간행물이나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를 위한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와 KOPIS 차이점 설명	통계 이용자들의 혼동 방지	명확성
중기	모집단 리스트 개편 및 범위 재설정 검토	민간 영역을 포함하도록 모집단 보완 검토	통계값의 대표성 확보	정확성
	통계 활용도를 위한 지표 추가 검토	**통계 지표 추가 검토**	**통계 이용자들의 활용도 제고**	**관련성**
	트렌드에 맞는 간행물 내 시각화 자료 보완	간행물 내 시각화 자료 보완	통계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	명확성
장기	분류체계 재분류화 검토	현행 통계 분류나 융합 분야 등에 대한 재분류 검토	통계조사개선	정확성

※ 한국통계진흥원, 국가데이터처(2025. 12)
※ 단기 : 1년 이하, 중기 : 1~2년, 장기 : 2~5년

2) 추진 목적

○ 예술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동태적 모집단(Dynamic Registry)’ 구축
-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누락 없는 예술 활동가 및 단체 명부를 확보하고, 국가데이터처의 권고에 부합하는 사각지대 없는 통계 기반 마련

○ 조사 항목의 전략적 슬림화 및 데이터 정합성 제고
- 국가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춘 모집단 범위 재설정을 통해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정비하고, 민간 영역의 신규 활동 지표를 편입하여 통계의 정책 민감도 및 분석 가치 극대화

○ 지능형 수집 체계로의 전환 및 증거 기반 행정 체계 완성
- 항목별 특성에 최적화된 자료 수집 경로를 설계하여 공표 시차를 단축하고, 정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르별·지역별 맞춤형 정책 타겟팅 기반 마련

3) 세부 실행 방안

가) 표준 식별자 기반의 다기관 유관 DB 통합 매핑

○ 행정 데이터 하이브리드 연계 및 통합 명부 작성
- 문예위 지원금 DB, KOPIS(공연), ISBN/ISSN(문학), 예술활동증명 DB(경력정보시스템) 등 산재한 공공 DB를 [표준 예술가 ID/기관 코드] 기반으로 통합
- 특히 문학 분야의 경우 ISBN 발행 이력과 연계하여 '1인 출판' 및 '독립 출판' 창작자를 모집단에 직접 편입하고, 공연 분야는 KOPIS의 실연 이력을 바탕으로 활동 주기를 분석하여 상시 활동 주체를 선별

○ 지능형 데이터 클리닝 및 중복 제거(De-duplication) 알고리즘 적용
- 기관별로 상이한 주체 명칭 및 주소지 정보를 표준화하고, AI 기반 유사도 매칭 기술을 활용하여 동일 주체의 중복 입력을 원천 차단하는 고도화된 정제 프로세스 가동

나) [전문성 필터] 기반의 모집단 정밀 검증 체계 도입

○ 다차원 전문성 판별 지표(Professionalism Marker) 적용
- 모집단에 포함된 주체가 **[전문 활동 주체]**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예술인 패스 보유 여부', '최근 3년 내 전문 행사/학술행사 참여 이력', '비평/자료집 등 결과물 보유 여부' 등을 교차 검증

○ 장르별 핵심 주체 명부(Core List) 고도화
- 장르별 협·단체 명부와 공공 DB를 비교 분석하여, 실질적인 담론 형성 능력을 갖춘 전문 단체 및 학술 모임을 모집단의 핵심 층위(Strata)로 설정

다) 비제도권 및 디지털 영역 포착을 위한 '추적 경로' 개발

○ [비전형 공간] 기반의 에어리어 샘플링(Area Sampling) 강화
- 공식 시설 외 독립서점, 대안공간, 아트숍, 북카페 등 자생적 예술 활동 거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기반 모집단'에서 '활동 거점 기반 모집단'으로 프레임워크 확장

○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활동 흔적(Digital Trace) 연계

- 웹소설 플랫폼(문피아, 카카오페이지 등) 및 시각예술 포트폴리오 사이트, 공연 스트리밍 플랫폼의 활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잠재적 모집단 리스트에 자동 추가하는 알고리즘 개발

라) 모집단 상시 현행화 및 공동 관리 거버넌스 운영

○ 이벤트 기반의 동태적 업데이트(Dynamic Update) 시스템 설계

- 1년 주기의 단절된 모집단 추출이 아닌, ISBN 발급, KOPIS 공연 등록, 지원금 신청 등 활동 이벤트 발생 시 즉각 모집단에 반영되는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

○ 중앙-지방 문화재단 간 모집단 공유 클라우드 구축

- 문예위와 지역문화재단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모집단 정보를 표준 규격에 맞춰 공유하고, 지역 단위의 미시적 활동 정보가 중앙 모집단에 즉각 피드백되는 협력형 관리 매뉴얼 배포

4)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비고
시스템 API 연동비	문체부, KOPIS, 국립중앙도서관 등 유관기관 API 개발 및 연동	30	인프라 구축
비제도권 현장조사비	비전형 공간(독립서점, 대안공간 등) 및 활동가 전수 조사 용역	45	사각지대 해소
데이터 정제 및 검증비	중복 제거 알고리즘 고도화 및 전문성 필터링 검증 용역	25	데이터 무결성
지침서 및 거버넌스 운영	모집단 관리 매뉴얼 제작 및 지역 문화재단 협의체 운영	10	지속가능성 확보
계		110	

* 최첨단 데이터 행정 기반의 모집단 관리 체계 구현

5) 기대효과

○ 예술 생태계 실태 파악의 정확성 확보 및 통계적 공신력 제고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모집단 프레임을 통해 고질적인 과소 추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예술 정책의 객관적·과학적 신뢰도 확보

○ 행정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조사 효율성 극대화

- 자동화된 모집단 관리로 매년 반복되는 단순 반복형 행정 업무를 80% 이상 절감하고, 실무진의 역량을 데이터 심층 분석 및 정책 기획 중심으로 전환

○ 증거 기반의 정밀한 [초개인화] 예술 정책 수립 지원

- 장르, 지역, 공간 속성별로 세분화된 모집단 정보를 바탕으로 소수 장르나 특정 지역에 최적화된 맞춤형 지원 모델 설계 및 정책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라. 조사항목 수집방법 개선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수동적 자료 수집에 따른 행정 효율 저하 및 오류 누적
- 현재 조사원이 개별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수기로 데이터를 확인·입력하는 방식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입력 과정에서의 휴먼 에러(Human Error) 발생 가능성 상존
- 조사 대상 기관의 응답 거부 및 비협조 시 데이터 공백이 발생하며, 수집된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별도의 정제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는 비효율적 구조임

○ 데이터 파편화로 인한 통계의 적시성 및 신뢰도 한계
- 각 장르별(KOPIS, ISBN 등) 핵심 데이터가 유관 기관에 산재해 있으나, 실시간 연동 체계 부재로 인해 조사 시점과 공표 시점 간의 시차가 발생하여 정책 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어려움
- 기관별 데이터 정의와 분류 체계가 상이하여 동일한 활동에 대해서도 통계 수치가 불일치하는 등 국가승인통계로서의 대외적 신뢰도 이슈 제기

○ 고부가가치 '사각지대' 포착을 위한 조사 인력 재배치 필요
- 단순 반복적인 기초 데이터 수집 업무는 자동화하고,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독립 출판, 카페 공연, 스트리밍 예술 등 기존 행정 시스템이 포착하지 못하는 [비전형·비제도권] 활동을 발굴하는 데 집중시켜야 함

2) 추진 목적

○ 조사 업무의 80% 자동화를 통한 '지능형 수집 체계' 구축
- 15개 내외 핵심 유관 기관 서버와 문예위 시스템을 API로 실시간 연결하여, 기초 항목(서명, 공연명, 장소 등)의 약 70~80%를 자동 동기화(Synchronization)함

○ 데이터의 '단일 진실 공급원(Single Source of Truth)' 확보
- 유관 기관의 검증된 행정 데이터를 직접 수혈받아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통계 간 정합성을 일치시켜 국가 예술 데이터의 공신력 강화

○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 예술 활동 포착' 체계 완성
- 행정 DB 연동으로 확보된 여력을 활용하여 디지털·융복합 및 비제도권 활동 등 데이터 사각지대를 정밀 조사함으로써 예술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 도모

【단일 진실 공급원(Single Source of Truth】

▸ 핵심 개념

· 특정한 데이터(예: 작품명, 통계 수치, 인적 사항 등)가 여러 부서나 기관에 흩어져 있을 때, 정보가 서로 다르면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게 됨

· "이 데이터만큼은 반드시 이 출처를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공인된 하나의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정해두는 것임

▸ 왜 필요한가?

- (데이터 불일치 방지) A 기관의 통계와 B 기관의 통계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혼란을 막아줌
- (중복 업무 제거) 각기 다른 곳에서 데이터를 따로 수집하고 수정할 필요 없이, 공인된 하나의 데이터만 관리하면 됨
- (신뢰도 확보) 외부로 데이터를 공표할 때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수치가 일치하므로 데이터의 공신력이 높아집니다.

▸ 쉬운 비유

- 여러 사람이 각자 자신의 손목시계를 보고 시간을 말하면 조금씩 오차가 생기지만, 광장에 있는 하나의 '표준 시계'만 보고 시간을 맞추기로 약속하면 모두가 정확히 똑같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임
- 결국 이 개념은 여러 출처에서 오는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이 데이터가 진짜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점을 만드는 것을 의미함
- 이는 특히 공공 데이터나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됨

3) 세부 실행 방안

가) 장르별 유관 DB 실시간 API 연동 체계 구축

■ [문학 분야] 출판 및 유통 생태계 전수 연동

연동 대상 기관	시스템 및 사이트명	연동 항목 (점검표 기준)	비고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 서지정보시스템	서명, 저자, 역자, 출판사, 발행일, 언어, 발행형태	문학 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데이터 소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KPIPA 출판산업정보시스템	장르 분류, 전자책 유통 여부, 출판사 상세 정보	단행본의 시장 유통 데이터 보완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 디지털 도서관(LTI)	번역서명, 번역어, 출판국, 현지 유통 실적	해외 번역도서 항목의 유일한 전문 데이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시스템	창작자(저자) 식별 정보, 저작물 등록 일자	저자의 전문성 및 창작 시점 검증용
주요 웹소설 플랫폼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시리즈 등	(신설) 웹소설 연재작, 작가명, 유통 플랫폼	[디지털 실천] 포착을 위한 웹 크롤링/연동 대상

■ [시각예술 분야] 전시 및 시장 데이터 전수 연동

연동 대상 기관	시스템 및 사이트명	연동 항목 (점검표 기준)	비고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전시명, 참여작가, 작품 장르, 거래 정보	시각예술 유통 및 시장 가치 측정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시설총람 / 문화포털	전시장명, 전시장 주소, 시설 유형	전국 박물관/미술관 인프라 데이터 연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정보시스템 (M-NET)	국공립 전시 기록, 작가 정보, 전시 기간	국가 핵심 시각예술 활동 데이터 동기화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사립미술관 통합 사이트	사립 미술관 전시 일정 및 참여 작가	공공 DB에서 누락되기 쉬운 사립 기관 활동
네이버/인스타그램	지도 및 SNS 데이터	(신설) 팝업 전시, 대안공간 활동 흔적	[비제도권] 활동 포착을 위한 하베스팅 대상

■ [공연예술 분야] 실연 및 유통 데이터 전수 연동

연동 대상 기관	시스템 및 사이트명	연동 항목 (점검표 기준)	비고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KOPIS)	공연명, 공연장, 기간, 횟수, 예매율, 제작진	실연 활동의 'Golden Standard' 데이터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예술인 활동 DB	실연 주체(배우, 무용가 등)의 활동 이력	창작 주체의 전문성 및 참여 현황 검증
국립극장/예술의전당	자체 공연 관리 시스템	제작 초연 여부, 상세 프로그램북 데이터	고도화된 작품 속성(초연 등) 정보 확보
유튜브/VIMEO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신설) 온라인 상연, 디지털 실연 조회수	[디지털 실천] 온라인 공연 지표 수집

■ [공통 인프라] 행정 및 지리 데이터 전수 연동

연동 대상 기관	시스템 및 사이트명	연동 항목 (점검표 기준)	비고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지방행정데이터	상세 주소, 행정동 코드, 도시 규모 분류	지역 통계 자동 치환의 핵심 인프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KOSIS/SGIS)	인구 감소 지역 여부, 세대별 인구 분포	표준 연령 분류 및 지역 소멸 테마 분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인 고유 식별값, 예술활동증명 상태	[전문성] 판정을 위한 필수 연동 시스템
전국 지자체	시·도별 문화재단/포털	지역 축제 정보, 지역 특화 문화 행사	중앙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지역 밀착 활동

나) 전략적 파트너십 기반의 '데이터 환류(Feedback)' 모델 운영

○ 일방향 수집에서 '쌍방향 데이터 선순환(Virtuous Cycle)' 체계로의 전환
- 유관 기관에 단순히 데이터를 요청하는 시혜적 관계를 넘어, 문예위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검증·정제된 '고품질 현장 데이터'를 원천 데이터 보유 기관에 역으로 제공하는 상호 호혜적 모델 구축
- 이를 통해 행정 데이터의 오류를 정정하고 최신성을 확보하는 '데이터 상호 보정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공공 부문 전반의 데이터 신뢰도 상향 평준화 도모

○ 기관별 페인 포인트(Pain Point) 해결을 위한 '맞춤형 환류 서비스' 제공
- (국립중앙도서관 - ISBN) 단순 서지 정보로 등록된 도서 데이터에 대해 문예위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세부 장르 재분류' 및 '작가의 실제 활동 이력' 정보를 환류하여 국가 도서 DB의 정책적 활용 가치 제고
  • 협의 대상 : 한국문헌번호센터
  • 핵심 데이터 : 단행본 및 잡지 서지 정보 (제목, 저자, 발행일 등)
- (예술경영지원센터 - KOPIS)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대안공간 공연이나 카페 공연 등의 '비제도권 실연 데이터'를 문예위가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KOPIS의 통계적 포괄성(Coverage) 사각지대 해소 지원
  • 협의 대상 : 공연예술정보팀
  • 핵심 데이터 : 공연 실연 정보, 공연장 시설 정보, 예매 실적
- (문체부 - 문화시설 총람): 시설 명부상에 존재하나 운영이 중단되었거나, 반대로 새롭게 부상하는 '비전형 예술 공간'의 운영 실태와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국가 시설 통계의 정확도 최신화
  • 협의 대상 : 문화정책과 또는 정보화담당관
  • 핵심 데이터 : 전국 문화시설 표준 코드 및 인프라 상세 정보

○ 국가 예술 데이터의 '단일 진실 공급원(SSOT)' 공동 구축 및 거버넌스 운영
- 각 기관이 파편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문예위의 통합 모집단 관리 체계와 연동하여, 어떤 기관에서 조회하더라도 동일하고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있는 '국가 예술 데이터 표준' 확립
- 정기적인 '데이터 품질 협의회' 운영을 통해 기관 간 데이터 비정합성(Inconsistency) 발생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공동으로 데이터를 정제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정착

○ [데이터 환류 로직] 현장 조사 기반의 데이터 품질 고도화 프로세스
- (Step 1 : 연동) 유관 기관 행정 DB로부터 기초 데이터 실시간 수집
- (Step 2 : 검증) 문예위 전문 조사원의 현장 조사 및 다차원 태깅을 통한 데이터 정밀 검증
- (Step 3 : 정제) 오류 수정, 누락 정보 보완, 전문성 판별 등 고부가가치 정보 추가
- (Step 4 : 환류) 정제된 고품질 데이터를 API를 통해 원천 기관에 실시간 피드백하여 DB 최신화 지원

4)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API 연동 개발비	15개 내외 유관 기관 인터페이스 구축 및 서버 동기화 로직 개발	40
데이터 매핑 연구비	장르별 상이한 데이터 표준 식별자(ISBN, KOPIS ID 등) 통합 설계	20
지능형 크롤러 개발	웹소설, SNS 등 비제도권 데이터 수집을 위한 맞춤형 수집기 개발	15
계		75

* 최첨단 데이터 행정 기반의 모집단 관리 체계 구현

5) 기대효과

○ 조사 행정의 초효율화 및 고정 비용 절감
- 기초 데이터 수집의 80% 자동화로 조사원의 단순 반복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투입 예산 대비 데이터 수집량 및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향상

○ 데이터 기반의 적시성 있는 예술 정책 수립 지원
- 연 단위의 단절된 조사가 아닌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 급변하는 예술 현장의 위기 및 기회 요인에 즉각 대응 가능

○ 사각지대 포착을 통한 예술 생태계 가치 재발견
- 행정 시스템 밖의 독립 예술, 디지털 창작 등 새로운 예술적 실천을 공식 통계권으로 포섭함으로써 지원 정책의 수혜 범위를 과학적으로 확대

마. 전국문화시설 총람 연계 분석 도입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예술 인프라(공급)와 실제 활동(수요) 간의 데이터 단절 해소
- 문체부의 '전국문화시설 총람'(하드웨어)과 문예위의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소프트웨어)가 이원화되어 관리됨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문화시설이 실제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부재
- 문예위 입장에서는 조사의 기초가 되는 '장소 정보'를 총람의 표준 데이터와 연동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시설명 오기 및 주소 부정확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해야 함

○ 시설 가동률 및 지역별 '예술 활동 밀도' 파악의 시급성
- 단순 시설 유무를 넘어, 해당 공간에서 실제 예술 활동이 일어나는 빈도와 질적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통합 지표가 부재함. 이는 '건물은 있으나 활동은 없는' 이른바 문화적 공동화(空洞化) 지역을 포착하지 못하는 정책적 사각지대 초래
-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 상황에서 시설 인프라 대비 예술 활동의 비중을 분석하여, '시설 건립' 위주의 행정에서 '활동 지원' 위주의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패러다임 전환 절실

○ 국가데이터처 지침 및 개선과제 이행과 데이터 거버넌스 주도
- 국가데이터처의 '공공 데이터 간 연계 분석 및 활용도 제고' 지침에 부합하는 선도적 모델로서, 부처(문체부)와 공공기관(문예위)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물고 고부가가치 융합 통계를 생산하여 예술 정책의 공신력 강화

[표 7-1] 2025년 문화예술활동조사 202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개선과제

단계	개선과제	실행방법	기대효과	관련 품질차원
단기	조사 이해를 위한 설명 자료 보완	간행물이나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를 위한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와 KOPIS 차이점 설명	통계 이용자들의 혼동 방지	명확성
중기	모집단 리스트 개편 및 범위 재설정 검토	민간 영역을 포함하도록 모집단 보완 검토	통계값의 대표성 확보	정확성
	통계 활용도를 위한 지표 추가 검토	**통계 지표 추가 검토**	**통계 이용자들의 활용도 제고**	**관련성**
	트렌드에 맞는 간행물 내 시각화 자료 보완	간행물 내 시각화 자료 보완	통계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	명확성
장기	분류체계 재분류화 검토	현행 통계 분류나 융합 분야 등에 대한 재분류 검토	통계조사개선	정확성

※ 한국통계진흥원, 국가데이터처(2025. 12)
※ 단기 : 1년 이하, 중기 : 1~2년, 장기 : 2~5년

2) 추진 목적

○ [입체적 진단] 인프라-활동 연계 기반의 전방위 예술 생태계 분석 체계 구축
- 하드웨어(시설 스펙)와 소프트웨어(공연·전시 실적)를 결합하여 지역별 예술 향유 여건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공간의 규모와 성격에 최적화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정밀 분석

○ [과학적 타겟팅]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예술 정책 설계 및 예산 배분
- 도시 규모, 인구 구조 등 거시 지표와 연계하여 '예술 소외 지역'을 데이터로 증명하고, 인프라 효율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전략적 순회 공연/전시 지원 등 정밀한 정책 처방 도출

○ [데이터 품질 혁신] 시설 표준 코드를 활용한 조사 모집단 및 장소 데이터의 무결성 확보
- 문체부 시설 총람의 표준 식별자(ID)를 문예위 조사 시스템에 이식하여 데이터 정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국가 예술 데이터의 표준화 선도

3) 세부 실행 방안

가) [연동 단계] 총람-현황조사 간 '공통 장소 식별자(Common Place ID)' 체계 구축

○ 표준 시설 코드 기반의 데이터 매핑 및 정규화
- 문체부 『전국문화시설총람』의 고유 시설 코드와 문예위 현황조사의 장소 필드를 1:1로 동기화하는 [공통 장소 식별자] 부여.
- 시설명 오타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데이터 파편화를 방지하기 위해 AI 기반 텍스트 매칭 및 주소지 기반 좌표 매핑 수행

○ 시설-활동 융합 분석용 통합 데이터 마트(Data Mart) 설계
- 시설의 물리적 정보(좌석 수, 무대 면적, 설립 주체, 전문 인력 수 등)와 활동의 창작 정보(장르, 초연 여부, 관객 수, 티켓 매출 등)를 결합한 입체적 분석 테이블 구축

나) [분석 단계] 지역·도시 규모별 '공간 효율성' 및 '예술 밀도' 분석 지표 도입

○ 시설 활용 효율성 지표 개발
- 시설 규모 대비 활동 집적도 : 공연장 좌석 수 또는 전시장 면적 대비 연간 활동 건수 산출
- 장르-공간 적합도 분석 : 시설의 전문 장르와 실제 무대에 올라가는 장르 간의 일치도 분석을 통해 공간 운영의 전문성 평가

○ 거시지표(인구/도시규모) 연계 다차원 분석
- 통계청의 인구 감소 지역 여부 및 행안부의 도시 유형 분류를 적용하여 [인구 대비 예술 활동 지수] 도출. 이를 통해 지역 규모별 예술 향유 격차를 정량적으로 증명

다) [시각화 단계]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문화예술 활동 지도' 구축

○ 인터랙티브 대시보드 및 문화 사각지대 히트맵(Heatmap) 제공
- 지리정보와 연계하여 특정 지역의 시설 분포 대비 활동량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시각적으로 구현
- 정책 담당자가 한눈에 '집중 지원 필요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 시계열 시설-활동 추이 분석 리포트 자동화

- 신규 시설 건립 전후의 지역 예술 활동 변화량을 추적 분석하여, 인프라 투자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 효과를 데이터 리포트로 자동 생성

4)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비고
데이터 표준화/매핑비	총람-현황조사 데이터 정제 및 고유 ID 매핑 용역	30	데이터 정합성 확보
분석 모델 개발비	공간 효율성 지표 및 인구 연계 분석 알고리즘 설계	25	지표 고도화
GIS 시각화 구축비	인터랙티브 대시보드 및 지역별 활동 지도 개발	20	정책 활용도 제고
계		**75**	

* 인프라와 활동을 잇는 입체적 데이터 행정 기반 마련

5) 기대효과

○ 인프라 투자와 예술 활동 간의 인과관계 규명을 통한 정책 신뢰도 제고

- 시설 건립 예산 투입이 실제 예술 활동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는지를 데이터로 입증함으로써, 최적의 문화 시설 배치 및 운영 전략 수립 지원

○ 데이터에 기반한 '초정밀' 지역 맞춤형 문화 재생 전략 강화

- 인구 소멸 지역 등 특수 지역의 예술 활동 추이를 정밀 분석하여, 단순 시설 확충이 아닌 '활동 콘텐츠 수혈' 중심의 타겟팅 정책 수립 근거 마련

○ 국가 예술 통계의 분석적 깊이 및 학술·정책적 활용 가치 극대화

- 단순 건수 집계를 넘어 공간(시설)과 맥락(지역/인구)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하여, 연구자 및 정책가들에게 최상의 인사이트 제공

바. UNESCO/국가 표준 1:1 맵핑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예술 통계의 폐쇄성 및 외부 데이터 연계 한계
- 문예위 고유의 장르 분류 체계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와 호환되지 않아 예술 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부가가치, 고용 등) 산출에 제약
- 타 부처 데이터(관광, 산업, 고용 등)와의 융합 분석이 불가능하여 정책의 외연 확장 및 예산 확보 논리 개발에 한계 노출

○ 글로벌 통계 정합성 확보 및 국가 위상 제고 필요
- UNESCO FCS 2025 등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문화 영역 분류 기준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한국 문화예술 통계의 국제 비교 신뢰도 저하
-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통계 생산 체계를 통해 'K-컬처'의 양적·질적 위상을 객관적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절실

2) 추진 목적

○ 통계의 개방성 및 상호 호용성(Interoperability) 확보
- 문예위 장르 코드를 국가 및 글로벌 표준 분류와 1:1로 매핑하여 다각도의 융복합 분석이 가능한 '통계 연계 표준 테이블' 구축

○ 예술 가치 입증의 과학화 및 데이터 주권 강화
- 거시 경제 지표와의 연동을 통해 예술 지원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국가 문화예술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의 전문성 입증

3) 세부 실행 방안

가) UNESCO FCS 2025 기반 글로벌 매핑 체계 구축

○ 국제 표준 지표 매칭 및 동기화

- UNESCO FCS 2025가 정의한 문화 영역(Domain) 및 가치 사슬과 문예위 조사항목 간의 1:1 정합성 분석 및 코드 매핑
- 국제 비교가 가능한 핵심 지표(Key Indicators)를 도출하여 글로벌 통계 보고서 발간 기반 마련

○ 디지털·융복합 영역의 국제 기준 반영

- 유네스코의 디지털 문화 측정 가이드를 적용하여 국내 신기술 예술 활동의 글로벌 분류 정합성 확보

나) 국가 표준분류(KSIC, KSCO) 연계 표준 테이블 개발

○ 산업-직업-장르 통합 매핑 테이블 설계

- 문예위 활동 데이터를 한국표준산업분류(산업군) 및 한국표준직업분류(예술인 직종)와 연계하는 다차원 매핑 매트릭스 구축
- 문화위성계정(CSA) 고도화와 연계하여 예술 활동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산출 알고리즘 개발

○ 부처 간 데이터 연계 프로토콜 수립

- 통계청, 한국은행 등 유관 기관과 매핑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상호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인터페이스(Interface) 기준 마련

다) 매핑 기반 분석 모델링 및 활용 가이드 배포

○ 다각도 융복합 분석 대시보드 설계

- 매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도시규모별 예술 활동의 경제적 영향력을 시각화하는 분석 모델 개발

○ 표준 매핑 매뉴얼 및 정책 활용 가이드 제작

- 중앙-지방 문화재단 실무자가 통계 연계 시 즉시 참조할 수 있는 표준 매핑 가이드북 배포 및 교육 실시

4) UNESCO FCS 2025 -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문예연감) 표준 매핑 테이블

가) 매핑 전략 및 기준

○ 전통의 현대적 계승 : 문학, 미술, 공연 등 기존 5대 장르 분류를 유네스코의 6대 핵심 영역(Domain)에 정밀 매칭함

○ 데이터 호환성 확보 : 국가표준산업분류(KSIC-10) 코드를 매개체로 활용하여, 국내 행정 데이터와 국제 통계 간의 자동 변환 로직을 마련함

○ 사각지대 진단 : 매핑 과정에서 유네스코 표준에는 존재하나 기존 조사에서는 누락된 '디지털 실천' 및 '사회적 권리' 영역을 식별함

나) UNESCO FCS 2025 -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문예연감) 전수 매핑

UNESCO FCS 2025 영역 (Domain)	현황조사 대상 장르/항목 (문예연감 기준)	국가표준산업분류 (KSIC-10) 연계	매핑 논리 및 주요 측정 단위 (Data Unit)
Domain 1. 유산 및 정체성 (Heritage & Identity)	국악, 축제, 전통미술	90124(국악 단체) 911(사적지 운영)	전통 예술의 실연 및 무형 유산의 현대적 재해석 활동 집계 * 측정 단위: 공연/전시 건수
Domain 2. 공연 및 실연예술 (Arts & Performances)	음악, 무용, 연극, 다원예술	90121(연극), 90122(무용) 90123(음악)	무대 기반의 실연 활동 및 창작초연/재공연 구분 집계 * 측정 단위: 공연 건수, 예매수(KOPIS)
Domain 3. 시각예술 및 공예 (Visual Arts & Crafts)	미술, 사진, 서예	9011(자활 예술가) 90221(박물관/미술관)	회화, 조각, 설치 등 시각적 저작물의 전시 활동 집계 * 측정 단위: 전시 건수, 참여 작가 수
Domain 4. 서적 및 출판 (Books & Press)	문학(시, 소설, 수필 등)	581(출판업) 912(도서관 운영)	서사 및 비평 중심의 텍스트 저작물 발행 실태 * 측정 단위: 단행본 종수(ISBN), 발행 부수
Domain 5. 디지털 및 상호작용 미디어 (Digital & Interactive)	미디어아트, 웹소설/웹툰	582(S/W 출판) 631(온라인 정보)	기존 조사의 '다원예술' 중 기술 융합 실천 및 온라인 전용 활동 * 측정 단위: 스트리밍/연재 기록
Domain 6. 디자인 및 창조 서비스 (Creative Services)	건축(예술적), 공예, 디자인	721(건축 설계) 732(전문 디자인)	예술과 실용의 경계에 있는 창조적 서비스 활동 * 측정 단위: 설계/디자인 프로젝트 건수

다) UNESCO FCS 2025 수평적 지표(Transversal Theme) 매핑

○ 기존 조사가 단순 건수 집계에 머물렀다면, UNESCO FCS 2025는 활동의 '속성'을 물으므로 이를 기존 조사 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한 매핑 지침임

○ 사회적 포용성 및 다양성 (Social Inclusion & Diversity)

- 현황조사 적용: 조사 항목 내 '장애인 예술', '다문화/소수자 예술' 태그 신설
- 매핑 논리: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보호 협약(2005) 이행 지표와 연계

○ 예술인의 지위 및 노동 권리 (Status of the Artist)
- 현황조사 적용: 창작 주체의 '예술활동증명' 보유 여부 및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연계
- 매핑 논리: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안(1980/2022) 반영

○ 디지털 전환과 주권 (Digital Transformation)
- 현황조사 적용: 기존 오프라인 전시/공연의 '디지털 동시 송출' 및 'NFT/AI 활용' 여부 태깅
- 매핑 논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 보호 지침 반영

라) 매핑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갖는 4가지 핵심적인 의미

○ 예산 확보를 위한 '강력한 논리적 방패'
- 가장 실무적인 이유는 기획예산처 등 예산 당국을 설득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임
- 논리 : "우리가 이 조사를 새로 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니라, 유네스코가 2025년부터 전 세계 국가에 요구하는 글로벌 표준 지표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 효과 : 국내용 데이터는 '기관의 사업비' 정도로 취급받기 쉽지만, 국제 표준 매핑이 완료된 데이터는 '국가적 책무를 위한 필수 데이터'로 격상되어 예산 삭감의 방어 기제로 작용함

○ 한국 문화예술의 글로벌 위치 파악 (Global Benchmarking)
- 우리나라의 기초예술 지원 예산이나 창작 활동 규모가 세계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됨
- 의미 : 유네스코 FCS라는 '공통의 자(ruler)'로 측정해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문화 강국과 우리를 1:1로 비교할 수 있음
- 활용 : "한국의 디지털 예술 참여도는 유네스코 기준 상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식의 국가적 성과 보고(Soft Power 증명)가 가능해짐

○ 데이터 사각지대(Blind Spot)의 발굴과 선점
- 유네스코 FCS 2025는 디지털 플랫폼, 기후 위기,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 등을 새로운 지표로 제시함
- 의미 : 국내 기준에만 매몰되면 웹소설, 메타버스 전시, 혹은 예술인의 '창작 준비 시간' 같은 가치를 놓치기 쉬움
- 효과 : 국제 표준을 따라 매핑하다 보면 "아, 우리가 그동안 이 부분은 데이터가 없었구나"라는 점을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 신규 통계 개발과 같은 혁신적인 과제를 도출할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

○ 파편화된 국내 데이터의 '통합 언어'
- 현재 문체부, 문예위, 예술경영지원센터, 저작권위원회 등 각 기관의 데이터 분류가 조금씩 다름
- 의미 : 유네스코 표준이라는 '상위 체계'를 기준으로 매핑하면, 국내의 파편화된 데이터들이 하나의 줄기로 정렬됨
- 효과 :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 문화예술 데이터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마스터키 역할을 하게 됨

5)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연구 용역비	UNESCO 및 국가 표준분류 정합성 분석 및 매핑 테이블 설계	40
데이터 컨설팅비	통계청, 한국은행 등 통계 전문가 기술 자문 및 검증	15
가이드라인 제작비	표준 매핑 매뉴얼 제작 및 디지털 라이브러리 구축	10
계		65

* 행정적 협업과 학술 연구 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

6) 기대효과

○ 글로벌 지표의 정합성

- 본 조사는 UNESCO FCS 2025 개편안을 선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한국의 기초예술 활동 통계가 국제기구(UNESCO, OECD)의 비교 지표로 즉시 채택될 수 있는 공신력을 확보함"이라는 논리를 강화할 수 있음

○ 데이터 칸막이 해소

- 유네스코 도메인을 기준으로 국내의 파편화된 장르 분류(문예위, 예경지원, 출판진흥원 등)를 하나로 묶어주는 '통계적 통합 언어'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미래 정책 수요 선점

- 매핑 과정에서 도출된 '디지털 실천' 및 '예술인 권익' 항목은 향후 현황조사가 단순 기록을 넘어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로 진화해야 함을 역설하는 강력한 근거가 됨

2. [2그룹] 전략적 고도화 과제 (4개 과제)

가. 다차원 속성 태깅 시스템 도입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단일 장르 분류 체계의 한계 및 데이터 왜곡 발생
- 현대 예술의 융복합화로 인해 한 장르로 규정하기 어려운 활동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조사는 '기타' 또는 단일 장르 선택 방식을 유지하여 데이터의 휘발성 심화
- 융복합 예술이 '혼합' 장르로 일괄 분류됨에 따라 각 예술 장르가 다른 산업(기술, 관광 등)이나 사회적 가치와 결합하여 창출하는 시너지를 파악하기 어려움

○ 데이터의 입체적 분석 및 정책 활용도 저하
- 활동의 표면적 수치(건수) 집계에 치중하여 해당 활동이 내포한 기술적 혁신성, 사회적 기여도(기후변화, 지역소생 등) 등을 계량화할 수 있는 속성 정보 부재
- 정책 입안자가 특정 기술(예: AI)이 적용된 예술 활동의 추이나 특정 공간(예: 유휴공간) 기반 활동의 확산 정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불능

2) 추진 목적

○ 지능형 다차원 속성 태깅(Multi-dimensional Tagging) 체계 확립
- 예술 활동의 장르, 기술, 공간, 가치 속성을 중복 부여할 수 있는 유연한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여 통계의 정밀도 및 분석 가치 극대화

○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예술 생태계 지도(Map) 구현
- 속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융복합 예술의 실체를 가시화하고, 속성별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 제공

3) 세부 실행 방안

가) 다차원 속성 분류 체계(Taxonomy) 및 태깅 가이드 설계

○ 행정 중복 항목 제거

- ISBN(문학), KOPIS(공연) 등 공공 DB와 중복되는 기초 서지 사항 및 시설 정보는 외부 DB 연동으로 대체하고 설문 항목에서는 삭제함

○ 4대 핵심 속성 레이어(Layer) 정의

- [장르 레이어] 전통적 6대 장르 기반 주 장르 및 부 장르 지정
- [기술 레이어] AI, XR,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적용 기술 속성 분류
- [공간 레이어] 대안공간, 디지털 플랫폼, 공공장소 등 활동 장소 속성 부여
- [가치 레이어] 기후위기, 치유, 공동체, 다양성 등 사회적 가치 속성 태깅

○ 표준 태깅 매뉴얼 및 데이터 사전 구축

- 각 속성별 정의와 태깅 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 가이드를 제작하여 조사원 및 데이터 입력자의 자의적 판단 배제

나) 지능형 다차원 태깅 플랫폼 및 알고리즘 개발

○ 사용자 참여형 태깅 인터페이스 구축

- 셀프 리포팅 시스템과 연계하여 예술가가 직접 본인 활동의 속성을 태깅할 수 있는 직관적인 UI/UX 설계

○ AI 기반 자동 태깅(Auto-Tagging) 엔진 도입

- 활동명, 포스터, 상세 설명 등 비정형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하여 적정 속성값을 자동 추천하는 AI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

다) 태깅 데이터 기반 입체 분석 모델 및 시각화 서비스

○ 융복합 예술 상관관계 분석 모델링

- 태깅된 속성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특정 기술과 장르의 결합 추이, 특정 가치가 투영된 예술 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산출하는 모델 개발

○ 속성 기반 인터랙티브 대시보드 운영

- 이용자가 원하는 속성(예: '메타버스' + '치유' + '시각예술')을 조합하여 실시간으로 통계를 추출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지능형 포털 서비스 제공

4)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분류 체계 설계	다차원 속성 레이어 설계 및 태깅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50
시스템 개발비	다차원 태깅 DB 구조 설계 및 추천 알고리즘 개발	120
콘텐츠 고도화	시각화 대시보드 구축 및 인터랙티브 UI 개발	60
운영 및 교육	태깅 시스템 이용자 교육 및 사례 아카이빙	20
계		250

* 행정적 협업과 학술 연구 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

5) 기대효과

○ 현대 예술의 융복합적 가치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증명
- 단일 장르 분류로 누락되던 예술 활동의 다면적 가치를 숫자로 복원하여 예술 지원의 정당성 확보

○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 설계 및 타겟팅 지원 강화
- 기술, 가치 등 속성별 통계를 통해 급변하는 예술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설계 가능

○ 문화예술통계의 메타데이터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지능형 태깅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문화예술 데이터의 수준을 글로벌 선도 단계로 격상

【참고 : 다차원 태깅(Tagging) 방식】

○ 다차원 태깅(Multi-dimensional Tagging) 방식이란 하나의 데이터를 단 하나의 카테고리에만 가두는 기존의 '단일 분류(Single Classification)'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가 가진 여러 가지 속성을 다양한 관점(차원)에서 복수의 키워드(태그)로 기록하는 데이터 분류 체계임

○ 문화예술 통계의 현대화 과정에서 이 방식이 핵심적으로 제안되는 이유는 최근의 예술 활동이 특정 장르나 형식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융복합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1. 전통적 분류 vs 다차원 태깅 방식 비교

구분	전통적 분류 (Hierarchical)	다차원 태깅 (Networked)
구조	트리 구조 (폴더식)	네트워크 구조 (태그식)
선택	단일 선택 (Exclusive)	복수 선택 (Overlapping)
예시	공연예술' 폴더 안의 '연극'	#공연예술 #연극 #미디어아트 #온라인생중계
한계	융복합 예술을 한 곳에만 넣어야 함	데이터의 다면적 가치를 모두 포착 가능

2. 문화예술 통계에서의 다차원(Dimensions) 구성 예시

예를 들어 'VR 기술을 활용한 현대무용 온라인 공연'이라는 데이터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차원의 태그를 동시에 부여합니다.

○ 제1차원: 장르(Genre) 태그
- 무용, 공연예술(기본 장르 정체성 파악)

○ 제2차원: 매체/기술(Media/Tech) 태그
- 온라인, VR(가상현실), 실시간 스트리밍(디지털 전환 정도 파악)

○ 제3차원: 공간/장소(Space) 태그
- 대안공간, 메타버스, 비시설(모집단 포괄성 확인)

○ 제4차원: 표준 코드(Standard Code) 매핑 태그
- KSIC : 90110(자창예술가), UNESCO : Visual Arts/Performance (통계적 호환성 확보)

3. 이 방식이 필요한 이유 (기대 효과)

○ 융복합·다원예술의 정밀한 포착
- "이것은 연극인가, 미디어아트인가?"라는 소모적인 논쟁 대신,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기록하여 통계적 누락을 방지함

○ 통계 간의 '통번역' 가능 (Interoperability)
- 하나의 데이터를 두고 '문화예술 장르별'로 집계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경제 표준 분류

(KSIC)'나 '글로벌 표준(FCS)' 기준으로 즉시 재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음

○ 입체적 정책 설계

- "온라인 활동이면서 동시에 시각예술 분야인 활동"과 같이 세밀한 타겟팅이 가능해지고, 증거 기반 정책(EBPM) 수립이 용이해짐

4. 요약

○ 다차원 태깅은 데이터를 '어느 칸에 넣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어떤 이름표(Tag)들을 붙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식임

○ 이를 통해 복잡해진 현대 예술 생태계를 숫자로 더 정확하게 번역해낼 수 있는 유연한 통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나. 웹 기반 예술 동태(Dynamics) 수집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예술 현장의 '디지털 전이' 가속화 및 기존 조사 방식의 한계 노출
- 독립 예술가들의 창작 실천(전시, 공연, 팝업 등)이 공공 대관 시스템을 벗어나 SNS(인스타그램 등)와 민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시설·지원금 DB 중심의 기존 수집 방식으로는 생태계의 약 30~40%에 달하는 '디지털 휘발성 활동' 포착이 불가함
- 현행 사후 설문 조사는 응답자의 기억 왜곡 및 누락 가능성이 상존하며, 조사 거부 시 데이터 자체가 소멸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님

○ 데이터 기반 행정(Data-driven Admin)으로의 국가 정책 기조 변화
- 국가데이터처의 '공공-민간 데이터 융합을 통한 통계 고도화' 지침에 의거하여, 비정형 데이터(웹/SNS)를 공식 통계의 보완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시점임

○ 조사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구조 타파를 위한 혁신 요구
- 매년 수만 건의 데이터를 수기(Manual)로 확인·검증하는 데 투입되는 막대한 행정 비용을 지능형 자동화 체계로 전환하여, 한정된 예산을 고부가가치 분석 업무로 재배치해야 함

2) 추진 목적

○ [포괄성 확보] '능동적 활동 포착'을 통한 예술 모집단 외연의 획기적 확장
- 온라인상에 산재한 예술 활동 관련 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여, 행정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규 활동 주체와 비제도권 예술 현장을 통계권 내로 무결성 있게 수용

○ [신뢰성 강화]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 기반의 통계 무결성 검증
- 활동 발생 시점에 남겨진 포스터, 게시물, 언론 보도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여 설문 응답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교차 검증함으로써 국가승인통계로서의 공신력 극대화

○ [정책 선도] 동태적 트렌드 분석을 통한 '증거 기반' 예술 정책 수립 지원
- 새롭게 부상하는 융복합 장르나 기술 결합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예술 현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 제공

3) 세부 실행 방안

가) 실시간 예술 동태 수집(Capturing) 지능형 인프라 구축

○ 다차원 웹 크롤링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수립
- 인스타그램(해시태그),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 주요 SNS와 '아트허브', '네오룩' 등 장르별 특화 플랫폼을 대상으로 활동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맞춤형 크롤러 가동

- 장르별 핵심 키워드와 장소 정보가 결합된 데이터를 추출하여, 조사원이 즉각 검증할 수 있는 [잠재 활동 리스트] 자동 생성 및 DB화

○ 위치 지능(Location Intelligence) 기반의 활동 핫스팟(Hot-spot) 시각화

- 태깅된 위치 데이터를 GIS(지리정보시스템)와 연계 분석하여, 공식 공연장/전시장 외에 예술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신규 거점(대안공간, 북카페 등)을 발굴하고 지도로 구현

나) AI 기반 비정형 데이터 정제 및 '전문성 필터' 적용

○ 지능형 자연어 처리(NLP) 및 시각 지능(Computer Vision) 분석

- 수집된 텍스트 중 홍보글, 관람 후기, 단순 뉴스 등을 AI가 자동 분류하고, 실제 창작 활동 여부를 판별하는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 도입
- 포스터 및 활동 사진 이미지 분석을 통해 전시/공연의 기간, 참여 작가, 주최 정보 등을 텍스트 데이터로 자동 변환하는 OCR 기술 적용

○ 활동 일치성 교차 검증 및 신규 주체 식별

- 추출된 데이터를 기존 시설 대관 및 지원금 DB와 대조하여 중복되지 않은 '순수 신규 활동'을 추출하고, 이를 전문 예술인/단체 여부를 가려내는 **[전문성 판별 로직]**과 연결

다) 수집 데이터 기반의 분석 고도화 및 정책 환류

○ 디지털 증거 기반의 통계 보정 및 품질 관리

- 설문 응답의 공백이나 모호한 지점(예: 창작초연 여부 등)을 수집된 디지털 증거(프로그램북, 상세 홍보물 등)를 통해 보완하여 데이터의 정밀도 향상

○ 이머징 트렌드(Emerging Trend) 리포트 발간 자동화

- 수집된 동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장르별 활동 변화 추이 및 신규 기술 활용 현황을 분석하여 실시간 정책 대시보드 및 리포트 생성

4)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비고
AI 수집 시스템 개발	맞춤형 크롤러 및 API 연계 엔진 구축	40	초기 인프라 구축
지능형 필터링 로직 설계	NLP 및 이미지 분석 알고리즘 개발·학습	30	전문성 판별 핵심
클라우드 및 인프라 운영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 저장 및 분석 서버 운영	15	연간 유지 보수
데이터 정제 용역	AI 판별 결과 최종 검수 및 모집단 현행화	15	품질 최종 검증
계		**100**	

* 과학적 데이터 행정 기반의 수집 패러다임 전환

5) 기대효과

○ [비용 절감] 데이터 정제 및 조사 행정 비용의 70% 절감
- 수동으로 수행하던 기초 자료 확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던 데이터 정제 용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동일 예산 대비 조사 대상 범위를 3배 이상 확대 가능

○ [품질 혁신] 통계의 포괄 범위(Coverage) 및 정확도 비약적 향상
- 기존 조사에서 누락되던 연간 약 5,000~10,000건의 비제도권 예술 활동을 신규 포착하여, 대한민국 예술 생태계의 실제 규모를 100%에 가깝게 복원

○ [정책 효율] '증거 기반' 정책 타겟팅을 통한 예산 집행의 최적화
- 동태 데이터를 통해 발굴된 신규 활동 거점이나 소외 지역에 대한 정밀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산 투입 대비 정책 수혜 체감도 극대화

다. 비제도권 시설 편입 방법론 적용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시설 중심 조사의 한계 및 데이터 과소 추정
- 현행 조사가 등록 공연장, 전시장 등 '제도권 시설' 대관 기록에 의존함에 따라 카페, 대안공간, 창고 등 비공식 공간에서의 활동이 대거 누락됨
- 독립 예술가 및 신진 작가들의 실험적 활동이 주로 일어나는 비제도권 공간의 소외로 인해 예술 생태계의 역동성 반영 미흡

○ 예술 향유 공간의 다변화 추세 반영 필요
- 복합문화공간, 독립서점, 야외 광장 등 일상 공간이 예술의 주요 생산·소비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이를 포착할 표준 방법론 부재
- 제도권 밖 활동의 데이터화를 통해 예술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예술 지원 체계 구축의 근거 마련 절실

2) 추진 목적

○ 조사 범위(Coverage)의 획기적 확대를 통한 생태계 실상 복원
- 공식 시설 외 거점을 통계 모집단에 편입하여 '보이지 않는 예술 활동'을 수치로 가시화

○ 현장 밀착형 에어리어 샘플링(Area Sampling) 체계 정착
- 지역별 예술 활동 핫스팟(Hot-spot)을 발굴하고 시범 실사를 통해 비제도권 활동의 표준 측정 모델 확립

3) 세부 실행 방안

가) 비제도권 예술 거점 정의 및 조사 모집단 확장

○ 행정 중복 항목 제거
- ISBN(문학), KOPIS(공연) 등 공공 DB와 중복되는 기초 서지 사항 및 시설 정보는 외부 DB 연동으로 대체하고 설문 항목에서는 삭제함

○ 불필요한 세분화 지표 통합
- (문학) 단행본의 중분류1(일반/아동), 중분류2(연령별) 등 출판 통계에서 확인가능한 항목을 간소화함
- (시각/공연) 개별 전시/공연의 상세 주소보다는 '도시 규모' 및 '지역' 정보로 통합하여 통계적 유의미성 확보에 집중함

○ 단순 기록성 항목 폐지
- '비고'나 '소사(小史)' 등 정량 분석이 불가능한 서술형 항목을 삭제하고 정형 데이터 체계로 전환함

나) 에어리어 샘플링(Area Sampling) 및 표본 실사 수행

○ 핵심 표본 구역(Special Districts) 선정

- 홍대, 성수동, 을지로 등 비제도권 예술 활동이 밀집된 지역을 '특별 표본 구역'으로 지정하여 분기별 활동 현황 전수 실사

○ 시설 외 활동 측정 방법론 고도화

- 시설 관리자가 없는 야외 공간이나 일시적 장소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해 '예술가 셀프 리포팅' 및 'SNS 체크인'을 연동한 보완 조사 실시

다) 비제도권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통계 편입

○ 활동 증빙 가이드라인 제정

- 팸플릿, 포스터, SNS 인증샷 등 공식 대관 증빙이 없는 활동에 대한 대체 증빙 기준을 수립하여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 현행 통계(문예연감) 내 별도 섹션 구성 및 분석

- 제도권 활동과 비제도권 활동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공간의 특성에 따른 예술 활동의 질적 차이와 파급효과 도출

4)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현장 실사비	특별 표본구역(핫스팟) 중심의 비제도권 시설 전수 실사 및 대면 조사	40
데이터 수집 용역	민간 공간 공유 플랫폼 및 SNS 데이터 크롤링을 통한 거점 확보	25
매뉴얼 및 지침	비제도권 활동 증빙 기준 수립 및 조사 지침 제작	15
계		**80**

* 지역 기반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사 효율성 극대화

5) 기대효과

○ 예술 생태계의 총량 측정 정밀화 및 정책 정당성 확보

- 제도권 밖의 방대한 활동을 데이터화하여 실제 대한민국 예술 활동의 규모를 현실적으로 복원

○ 청년·독립 예술가 지원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

- 특정 공간에 소속되지 않은 자유 활동가들의 실제 거점을 파악하여 맞춤형 공간 지원 및 창작 지원 정책 설계 가능

○ 문화예술 통계의 포괄성 측면에서 글로벌 선도 모델 구축

- 비제도권 활동을 체계적으로 통계에 반영함으로써 유네스코 등 국제 사회에 혁신적 통계 모델 제시

라. AI 품질 검증 및 Art-Work ID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데이터 중복 집계 및 인적 오류에 의한 신뢰도 저하
- 동일한 공연이나 전시가 주최측, 시설측, 예매처 등 서로 다른 경로로 중복 수집될 경우 이를 가려낼 정교한 필터링 체계가 부족하여 통계 수치가 과대 계상되는 현상 발생함
- 조사원의 수기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타, 명칭 혼용 등으로 인해 동일 작품을 서로 다른 활동으로 인식하는 등 정제 단계에서 막대한 행정력 낭비 초량함

○ 작품의 생애주기 추적 및 성과 분석 기능 부재
- 개별 작품에 대한 고유 식별 체계가 없어 특정 작품이 연도별로 어떻게 재공연되는지, 지역을 옮겨가며 어떻게 확산되는지 등의 롱기튜디널(Longitudinal) 분석 불가능함
- 창작초연과 재공연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예술 지원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 확보 절실함

2) 추진 목적

○ AI 기반 자동 검증 체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오류 제로(Zero)화
- 데이터 수집과 동시에 중복과 오류를 잡아내는 지능형 검증 엔진을 도입하여 통계 정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무결성 확보함

○ 국가 표준 '문화예술 작품 식별(Art-Work ID) 시스템' 정착
- 모든 예술 활동의 최소 단위인 '작품'에 고유 ID를 부여하여 창작부터 유통, 향유에 이르는 전 과정의 데이터 연계 기반 마련함

3) 세부 실행 방안

가) AI 기반 실시간 데이터 품질 검증(Quality Assurance) 엔진 개발

○ 딥러닝 기반 중복 데이터 필터링 알고리즘 구축
- 자연어 처리(NLP) 및 시각 지능(Vision) 기술을 활용하여 활동명, 포스터 이미지, 출연진 정보를 교차 분석함으로써 명칭이 조금씩 다른 중복 활동을 자동 식별 및 병합함

○ 실시간 논리 체크 및 오입력 경고 시스템 도입
- 데이터 입력 단계에서 과거 DB 및 표준 속성과 대조하여 장르 오분류, 시기적 불일치 등 논리적 오류 발생 시 즉각적으로 경고를 발송하는 지능형 인터페이스 구현함

나) 문화예술 작품 고유 식별번호(Art-Work ID) 체계 설계

○ 작품별 고유 식별자(Unique ID) 생성 로직 수립

- 장르 코드, 창작 연도, 주체 식별자 등이 조합된 표준 ID 체계를 설계하여 도서의 ISBN과 유사한 형태의 전국 단위 작품 식별 체계 구축함

○ 작품 생애주기 DB(Art-Work Life-cycle DB) 구축

- 생성된 ID를 기반으로 해당 작품의 초연 정보, 재공연 이력, 수상 경력 등을 누적 관리하여 작품의 시장 생명력과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함

다) 문화예술 작품 고유 식별번호(Art-Work ID) 체계 설계

○ 조사 시스템 내 'Art-Work ID' 자동 발급 프로세스 통합

- 신규 활동 조사 시 기존 ID를 검색하고, 없을 경우 새로운 ID를 즉시 발급하는 원스톱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모집단의 연속성 확보함

○ 유관 기관(KOPIS, KOBIS 등)과의 ID 호환 및 공유

- 문체부 및 관련 기관의 기존 시스템과 ID 체계를 공유하여 부처 간 데이터 연계 시 별도의 정제 과정 없이 즉시 융합 분석이 가능한 환경 조성함

4) 다기관 데이터 통합용 '고유 식별자(CA-ID)' 및 거버넌스 체계 검토

가) 전략적 배경: '데이터 사일로(Data Silo)'에서 '예술 생태계 통합 분석'으로

○ 현재 문화예술 통계는 기관별로 분절(分節)되어 있어, 예술인이 지원금을 받고(문예위), 수익을 창출하고(국세청), 해외에 작품을 수출하는(관세청) 전주기적 생애주기(Life-cycle) 분석이 불가능함

○ 본 연구는 이러한 파편화된 행정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 간 매핑이 가능한 CA-ID(Cultural Arts-ID) 체계를 제안함

나) CA-ID 기술적 설계 : 12자리 비식별 결합 키(Linking Key)

○ CA-ID 구조 가설 (12-Digit Structure)

- 데이터의 식별력과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변적 속성 조합을 검토함

• [1~2자리] 도메인/장르 코드 → UNESCO FCS 기반 대분류 • [3~4자리] 지역 코드 → 활동 발생지 기준 통계청 표준 시도 코드 • [5~8자리] 연계용 가명화 해시(Hash) → 식별 정보(성명+생년월일 등)를 솔티드 해시(Salted Hash) 처리한 후 추출된 고유값 • [9~12자리] 일련번호 및 검증 코드 → 데이터 무결성 확인용

○ 비식별화 및 결합 로직

- 결합 방식 :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을 통한 제3자 결합 방식 준용
  -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기관이나 기업)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전문 주체를 의미. 주요 기관으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삼성SDS, SK주식회사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 기관들이 지정되어 있음
- 매칭 모델
  - 주체 단위(Person Level) : 예술인 개인의 소득 및 활동 이력 추적
  - 활동 단위(Event Level) : 특정 프로젝트(공연/전시)를 중심으로 투입 재원과 산출 성과 매칭

다)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및 거버넌스 전략

○ 데이터 연계 거버넌스 (Inter-agency Governance)

- 협의체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국세청, 관세청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구축
- 데이터 표준화 : 부처별로 상이한 데이터 스키마(Schema)를 CA-ID를 중심으로 표준화하는 '데이터 브릿지(Data Bridge)' 가이드라인 수립

○ 법적·기술적 보안 장치

- 법적 준거성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의거한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 목적의 결합 근거 명확화
- 기술적 보호 : 데이터 결합 후 원본 식별 정보를 파기하고, 분석 결과에 대한 재식별 위험성 검토(K-익명성, L-다양성 등) 프로세스 의무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4)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항목	내역	금액
시스템 개발비	AI 검증 엔진 및 Art-Work ID 발급 플랫폼 구축	150
알고리즘 고도화	데이터 중복 제거 및 이미지 매칭 알고리즘 학습/개발	100
표준화 연구비	작품 식별 체계 표준안 제정 및 부처 간 협의	30
인프라 및 유지보수	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
계		300

5) 기대효과

○ 통계 데이터의 완벽한 신뢰성 확보 및 대외 공신력 강화
- AI 기술을 통한 정밀 검증으로 중복 집계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국가 통계로서의 독보적 권위 확립함

○ 예술 작품 중심의 심층 성과 분석 및 지원 정책 고도화
- 작품의 재공연율, 확산 경로 등을 추적하여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작품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 지원함

○ 문화예술 데이터의 초연결성 실현
- 표준화된 작품 ID를 매개로 공공과 민간의 산재한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생태계 구축함

【참고 : 12자리 비식별 결합 키(CA-ID)】

○ 12자리 비식별 결합 키(CA-ID, Cultural Arts-ID)는 여러 기관에 파편화되어 있는 문화예술 관련 데이터를 개인정보 침해 없이 통계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설계된 표준화된 연계 키(Linking Key)를 의미함

> * CA-ID : Cultural Arts-ID
> - 직역하면 '문화예술 식별자' 또는 '문화예술 고유번호'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 - 이는 여러 기관에 파편화되어 있는 문화예술 데이터를 개인정보 침해 없이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해 설계된 '문화예술 분야 표준 연계 키'를 뜻함
> - 12자리 구조를 통해 국세청, 관세청, 문예위 등 서로 다른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와 예술인의 활동 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데이터 도구임

○ 현재 문화예술 통계는 국세청(매출), 관세청(수출입), 공연예술통합전산망(공연실적) 등 기관별로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어 입체적인 분석이 어려움

○ CA-ID는 이러한 데이터 '사일로(Silo)' 현상을 해결하고 증거 기반 정책(EBPM)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 기술 도구임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CA-ID(Cultural Arts-ID)는 문화예술 활동의 생산-유통-소비 전주기 데이터를 개인정보 침해 없이 연계하기 위해 설계된 본 연구 고유의 비식별 결합 키(Linking Key) 체계를 의미함

1. CA-ID의 12자리 구조(안)

○ 데이터의 무결성과 범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보가 압축된 12자리 가변형 구조로 설계됨

- [1~2자리] 분야/장르 코드: L(문학), V(시각), P(공연) 등 장르 식별
- [3~4자리] 지역 코드: 통계청 표준 시도 코드 (예: 11-서울, 26-부산 등)
- [5~6자리] 발생 연도: 해당 활동이 일어난 연도의 끝자리 (예: 26)
- [7~9자리] 시설/단체 고유번호: 전국문화시설 총람 및 단체 고유 번호 기반 식 별
- [10~12자리] 일련번호: 해당 조건 내에서 부여되는 순차적 번호

2. '비식별 결합'의 원리

○ 이 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식별정보(PII)를 직접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임

○ 비식별화
- 활동 주체(예술가/단체)의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특정 속성(장르, 지역 등)의 조합으로 치환하여 새로운 키를 생성함

○ 데이터 매칭
- 서로 다른 DB에서 동일한 CA-ID를 가진 데이터를 찾아 연결함

- 예를 들어, CA-ID 'P-11-26-045-001'이라는 공연이 KOPIS에서는 '관객 수' 데이터를, 국세청에서는 '매출액' 데이터를 가져와 하나의 분석 테이블로 합쳐짐

3. 다른 식별 체계와의 차별성

구분	CA-ID (제안)	기존 사업자/주민번호	ISBN / KOPIS ID
목적	통계적 데이터 결합	행정 관리 및 본인 확인	개별 상품/시설 관리
특성	비식별화된 연계 키	민감한 개인정보 포함	장르별 파편화됨
역할	이종 데이터 간의 교량	단일 기관 내 식별	특정 플랫폼 내 식별

4. 다른 분야의 예시

1) 연구·학술 분야: ORCID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 의미 :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임
   - 활용 : 동명이인 연구자를 구분하고, 소속 기관이 바뀌어도 해당 연구자의 모든 논문과 프로젝트 이력을 하나로 잇는 데이터 다리 역할을 함

2) 금융·법인 분야: LEI (Legal Entity Identifier)
   - 의미 : 글로벌 금융 거래에 참여하는 법인에게 부여되는 20자리의 고유번호임
   - 활용 : "이 회사가 그 회사가 맞나?"를 확인하여 금융 사기를 방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거래 관계를 추적하는 표준 식별자로 사용

3) 의료·보건 분야: UPID (Unique Patient Identifier)
   - 의미 : 환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임
   - 활용 : 서로 다른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의 과거 병력과 투약 기록을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해 사용됨. CA-ID처럼 비식별화(Anonymization) 기술이 가장 민감하게 적용되는 분야이기도 함

4) 콘텐츠·저작권 분야 : ISRC & ISBN

○ ISRC (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 음반 및 뮤직비디오에 부여되는 국제 표준 코드

○ 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 도서에 부여되는 국제 표준 식별 번호

○ 연계성 : 이들은 '상품'에 붙는 ID라면, 본 연구가 제안하는 CA-ID는 이 상품들이 만들어지는 '활동'과 '예술가'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5. 의미

○ 금융의 LEI나 연구 분야의 ORCID처럼, 문화예술 분야도 기관별로 흩어진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잇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데이터 표준 이름표가 필요함

○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CA-ID(Cultural Arts-ID)로 명명하여 체계화하고자 함

6. 도입 시 기대 효과

○ 입체적 생태계 분석 : 한 명의 예술가가 창작(현황조사)부터 수익(국세청), 해외진출(관세청)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중복 집계 방지 : 여러 기관이 동일한 활동을 각자 집계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중복을 제거하여 통계의 정확도를 높임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실명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고 비식별 키만으로 데이터를 결합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통계 분석이 가능함

7. 결론

○ CA-ID는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그 활동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했는지"를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융합해 찾아내는 통계적 혈맥과 같은 역할을 함

○ 이를 통해 더욱 정교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 설계가 가능해짐

제8장

정책 활용 및 제도화 로드맵

제1절 신규 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추진 전략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5대 신규 통계와 현황조사 개선안이 실질적인 정책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지정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 국가데이터처의 품질 진단 기준을 충족하고 조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함

1. 통계청 승인 신청 절차 및 단계별 실행 로드맵

○ 신규 통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준비-승인-확산'의 3단계로 구성된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함

○ 특히 국가데이터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중복성 검토 및 통계 기술적 타당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관건임

[표 8-1] 신규 통계 국가승인 및 제도화 단계별 로드맵

단계	추진시기	주요 추진 과제	핵심 목표
1단계 (단기)	2027년	· 통계청 승인 신청 및 정합성 협의 · 핵심 1~2개 과제 파일럿 조사 실시 · 통계 작성 표준 매뉴얼 제작	국가승인 획득
2단계 (중기)	2028~ 2029년	· 5대 신규 통계 전면 생산 체계 가동 · 행정 데이터 자동 연계 시스템 구축 · 시계열 데이터 품질 관리 및 보정	통계 생산 안정화
3단계 (장기)	2030년~	· 국가계정(SNA) 및 거시지표 연계 분석 · 마이크로데이터(MDIS) 대국민 개방 · 정책 성과평가(KPI) 공식 지표 활용	정책 환류 극대화

■ 단기 전략 : 승인 기반 구축 및 협력 체계 강화

○ 국가데이터기술 협의

- 연구 보고서에 제시된 5대 설계안을 바탕으로 통계청 담당 부서와 모집단 프레임, 조사 항목의 적절성을 사전 협의하여 승인 반려 리스크를 최소화함

○ 작성 지침 표준화

- 조사 인력의 숙련도에 상관없이 균일한 품질의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통계 작성 표준 지침서'를 배포함

■ 중·장기 전략: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및 정책 연계

○ 데이터 허브 구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관세청, 국세청, 저작권 신탁단체 등)과의 데이터 연계 거버넌스를 공고히 하여 수집 비용을 절감함

○ BPM 활용 고도화

- 생산된 통계를 문예진흥기금 배분 모델 및 지역문화 지원 정책 설계의 핵심 근거로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함

2. 파일럿 조사 실시 및 결과 환류를 통한 안정화 방안

○ 신규 설계된 통계가 실제 현장에서 의도한 대로 수집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정식 승인 전 파일럿 조사(Pilot Study)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환류(Feedback)하는 안정화 과정을 거침

■ 파일럿 조사의 실행 전략

○ 표본의 대표성 검증 : 5대 과제 중 시급성이 높은 '산업규모 계정'과 '예술인 노동시장' 통계를 중심으로 소규모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설계된 모집단 프레임의 적절성을 검토함

○ 데이터 수집 경로 테스트 : KOPIS나 ISBN 등 행정 데이터 연계 스키마가 정상 작동하는지, 데이터 매칭 과정에서 누락이나 중복 발생률은 어느 정도인지 기술적으로 점검함

■ 결과 환류 및 설계 보완 방안

○ 항목 정교화 : 파일럿 조사 결과, 응답 거부율이 높거나 해석이 모호한 항목을 재정의하여 조사 도구의 현장 수용성을 높임

○ 품질 진단 기반 고도화 : 파일럿 데이터를 통계청 품질 진단 가이드라인에 대조하여, 오차 한계 및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종 표본 크기와 조사 방법을 확정함

○ 예산 최적화 : 실제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정밀 측정하여, 정식 조사 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최적의 운영 비용 모델을 산출함

■ 이러한 단계적 추진 전략과 철저한 파일럿 검증은 신규 통계가 국가 통계로서의 '대외적 신뢰도'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

3. 국가승인통계 승인을 위한 전략적 조사체계 구축 및 심사 대응

가. 국가데이터 승인 심사의 핵심 메커니즘 이해

○ 국가데이터 승인 심사(통계법 제18조)의 목적은 '중복 조사의 방지'와 '통계 품질의 표준화'에 있음
○ 승인을 위해서는 단순히 "필요하다"는 주장을 넘어, 조사 설계의 전 과정이 통계학적 근거(Statistical Soundness) 위에 구축되었음을 증명해야 함

나. 단계별 조사체계 구성 전략

■ 모집단 확정과 추출틀(Sampling Frame)의 정교화
○ 심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항은 "조사 대상이 누구이며, 이들을 어떻게 대표성 있게 뽑았는가?"임
○ Targeting :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과 조사 모집단(Survey Population)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해야 함
○ Frame Construction
- 문화예술계의 경우 사업자 등록 기반이 취약하므로, 행정 데이터(예술활동증명 등) + 협·단체 명부 + 관련 DB를 결합한 복합 추출틀을 제시해야 함
- 이 과정에서 각 DB의 중복을 어떻게 제거(De-duplication)했는지 기술하는 것이 핵심임

■ 표본 설계의 과학적 근거 제시
○ Stratification (층화) : 장르별, 지역별, 활동 경력별 등으로 층화하여 표본을 배분(Allocation)해야 함
- 이때 각 층(Strata) 내의 변동성을 고려한 '네이만 배분(Neyman Allocation)' 등을 적용하면 전문성을 인정받기 쉬움
○ Sample Size : 단순히 "많은 것이 좋다"가 아니라, 허용 오차(Margin of Error)와 신뢰 수준을 바탕으로 산출된 적정 표본 수임을 통계적 수식으로 제시해야 함

■ 조사 문항의 타당성 및 응답 부담 관리
○ Standardization : 통계청이 권고하는 표준 문항(인구통계적 특성 등)을 가급적 준수해야 함
○ Burden Reduction : 통계청은 '응답자 부담'에 민감하여 조사 문항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승인이 거절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순환 조사(Rotating System)나 핵심 문항-부가 문항(Core-Module) 분리 설계를 제안하는 것이 전략적임

■ 실사와 품질 관리(Fieldwork & QC) 시스템
○ Field Protocol : 조사원 교육, 현장 지도(Supervision),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명문화해야 함
○ Editing Rules : 수집된 데이터의 논리적 오류를 검증하는 내검(Editing) 규칙과 무응답 보정

(Imputation) 방법론을 사전에 확립해야 함

■ 결과 공표 및 데이터 개방 계획

○ Dissemination : 통계가 공표된 이후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어떻게 서비스될 것인지, 마이크로데이터(MD) 제공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향후 관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다. 통계청 승인 통과를 위한 4대 핵심 성공 전략

구분	전략 내용	심사 대응 포인트
차별성 입증	기존 승인통계와의 중복성 검토	기존 통계로 알 수 없는 '고유한 지표'가 무엇인지 비교표로 제시
분류 정합성	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 준수	문화예술의 특수성으로 분류가 다를 경우, '연계표(Mapping Table)' 제시
예산 확보	지속가능한 조사 예산 증빙	1회성 조사가 아닌 정기적 통계 생산이 가능한 예산 구조 확보
전문성 강조	통계 전문가 참여 확인	설계 과정에 통계학 교수나 전문 연구기관이 참여했음을 명시

라. 심사 시 주요 유의사항 및 실패 사례 분석

○ "우리 분야는 특수하다"는 논리의 한계
- 심사관은 문화예술의 감수성보다 '통계적 보편성'을 우선시함
- "문화계는 특수해서 일반적인 표본 추출이 어렵다"는 식의 접근은 불승인의 지름길임
- 특수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특수성을 어떻게 통계적으로 통제(Control)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예: 스노우볼 샘플링 보정법 등)을 함께 가져가야 함

○ 조사 항목의 과욕 (Response Burden)
- 정부 부처나 연구진의 욕심으로 문항이 50~100개에 달하는 경우가 많음
-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은 이를 응답 품질 저하의 주범으로 봄
- '반드시 필요한 지표'와 '참고용 지표'를 엄격히 구분하고, 설문 소요 시간(평균 15~20분 이내 권장)을 시뮬레이션하여 제시하도록 함

○ 비표본오차 관리 대책 부재
- 국가데이터처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원 편향'이나 '응답 거절'에 대한 대책을 눈여겨봄
- 거절 시 대체 표본 선정 원칙(Substitution Policy)이 명확하지 않으면 통계의 신뢰성이 무너짐

○ 행정 데이터 활용 미흡
- 최근 국가데이터처는 '조사 최소화, 행정 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지향함

- 직접 조사하는 항목 중 행정 레코드(예: 고용보험 가입 여부, 예술활동증명 현황 등)로 대체 가능한 것이 있다면, 왜 행정 데이터를 쓰지 않고 직접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반드시 준비해야 함

○ 정책적 제언: 승인 이후의 '지속 가능한 관리'

- 승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국가승인통계가 된 이후에는 매년 '자체 품질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5년마다 '정기 품질진단'을 받아야 함
- 조사체계를 구성할 때부터 이러한 사후 관리 체계를 전담할 '통계 전담 거버넌스' 구축 계획을 보고서 말미에 담는다면, 심사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

4. 국가승인통계 승인을 위한 조사항목 설계 및 최적화 전략

가. 조사항목 설계의 기본 원칙 : "Minimalism with Maximum Utility"

○ 국가승인통계 심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려 사유는 '과도한 응답 부담'과 '기존 통계와의 중복성'임
○ 따라서 항목 설계의 대전제는 최소한의 질문으로 최대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있음
  - 포괄성 :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변수가 누락되지 않아야 함
  - 상호배타성 : 각 항목 간의 의미가 중복되지 않고 독립적이어야 함
  - 비교가능성 : 타 통계나 과거 데이터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용어와 척도를 사용해야 함

나. 전략적 조사항목의 계층적 구조화

○ 조사항목은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층적으로 구조화해야 함

■ 공통 기초 항목
○ 응답자의 기본 특성을 파악하는 항목으로, 국가통계의 표준 분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
○ 개인 : 연령(생년월일), 성별, 거주지(시군구), 교육정도, 종사상 지위 등
○ 기관/기업 : 조직 형태(법인, 개인 등), 소재지, 종사자 수, 설립 연도, 주력 업종(KSIC 기준)
○ 심사 포인트 : "왜 이 기본 정보가 필요한가?"에 대해 층화 분석(Stratification) 및 가중치 산정을 위한 필수 값임을 명시해야 함

■ 핵심 정책 지표
○ 해당 통계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핵심 항목임
○ 현황 및 실태 : 활동 영역, 참여 횟수, 매출/소득 규모, 투입 비용 등
○ 성과 및 효과 : 만족도, 정책 수혜 여부, 경제적 부가가치 등
○ 심사 포인트 : 각 지표가 어떤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되는지 매핑(Mapping)된 결과물을 제시해야 함

■ 환경 변화 대응 항목

○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통계의 시의성을 확보하는 항목임

○ 디지털 전환 : 온라인 예술활동 여부, 플랫폼 활용 실태, AI 도입 현황 등

○ 노동 구조 : 프리랜서 계약 형태, 플랫폼 노동 비중, 4대 보험 가입 실태 등

○ 심사 포인트 : 기존 통계로는 포착할 수 없는 신규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했는지 논리를 강화해야 함

다. 통계청 심사 통과를 위한 3대 고도화 기술

1) 표준 문항 및 분류 체계의 준용 (Standardization)

○ 국가데이터처는 독자적인 문항 설계보다 검증된 표준을 선호함

○ 표준 분류 활용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를 기본으로 하되, 문화예술 특수성을 위해 '특수분류 연계표'를 부록으로 제출함

○ 검증된 척도 : 주관적 인식 조사 시 '5점 리커트 척도' 등 국가데이터처가 권고하는 표준 척도를 사용하고, 설문 문항의 어투 또한 '통계조사 설문지 작성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2) 조사 항목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명확화

○ 모호한 용어는 데이터의 왜곡을 초래함

○ 예를 들어, '예술 활동'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최근 1년간 수익을 목적으로 행한 창작, 실연, 기술 지원 활동"과 같이 구체적 기간과 범위를 한정해야 함

○ 유의사항 : 문항 옆에 반드시 용어 설명을 배치하여 조사원과 응답자의 해석 차이를 최소화하는 설계가 필요함

3) 응답 부담(Response Burden) 제어 및 로직 최적화

○ 필터링 질문(Skip Logic) : 불필요한 응답을 줄이기 위한 정교한 스킵 로직을 설계해야 함
*예 : "지난 1년간 온라인 활동이 없는 경우 문항 10~15번은 생략"

○ 대리 지표(Proxy Variables) 활용 : 응답자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수치(예: 정확한 연 매출액)는 구간 선택형이나 비중(%) 조사로 전환하여 응답 피로도를 낮춰야 함

라. 문화예술 분야 신규 개발 시 특수 유의사항

○ 문화예술 통계는 타 분야보다 '비정형성'이 강하므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함

■ 융복합 영역의 처리

○ 장르 간 경계가 모호한 활동(예: 미디어아트, 융복합 공연)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Primary Activity 중심 등)을 제시해야 함

■ 비금전적 가치의 계량화

○ 문화적 만족도나 사회적 기여도 등 무형의 가치를 조사할 경우, 기존의 학술적 검증을 거친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등의 방법론을 항목 설계에 녹여내야 함

■ 행정 데이터와의 연계성

○ 조사 항목 중 일부는 '예술활동증명 DB'나 'KOPIS(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로 대체하거나 대조할 예정임을 명시하면 통계의 신뢰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제2절 데이터 거버넌스 및 개방 활성화

1. 부처 및 기관 간 데이터 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 신규 개발된 5대 통계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데이터 정합성 유지를 위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 및 공공·민간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문화예술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가. 지속 가능한 통계 생산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 체계

○ (가칭) 문화예술 통계 협의체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주요 데이터 보유 기관(국세청, 관세청, 저작권 신탁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운영함. 이를 통해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하고, 중복 조사를 방지하며 통계 항목의 표준화를 추진함

○ 데이터 공유 및 연계 표준 협약(MoU) 체결
- 행정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관 간 데이터 제공 범위, 주기, 보안 대책을 명시한 법적·제약적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 특히 KOPIS(공연), ISBN(문학) 등 핵심 DB 운영 주체와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 프로세스를 정례화함

○ 민·관 데이터 파트너십(PPP) 확대
- 유튜브, 네이버, 웹소설 플랫폼 등 민간 빅데이터 보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예술 활동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공 통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상생형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함

나. 데이터 품질 관리 및 표준화 거버넌스

○ 표준 메타데이터 관리
- 각 기관별로 상이한 데이터 규격을 통합하기 위해 '문화예술 데이터 표준 용어 사전'을 배포하고, 모든 연계 데이터가 동일한 산업 분류(특수분류체계) 내에서 작동하도록 관리함

○ 데이터 환류 시스템 구축
- 통계 분석 결과를 데이터 제공 기관에 다시 공유하여 각 기관의 정책 수립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데이터 제공의 유인책을 강화하고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

2. 정책 KPI 대시보드 구축 및 마이크로데이터(MDIS) 활용성 제고

○ 통계의 가치는 활용에서 결정됨. 생산된 통계가 정책 현장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연구자와 현장 예술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고도화함

가. 정책 KPI 대시보드(Policy Dashboard) 구축

○ 실시간 정책 모니터링
- 5대 신규 통계 지표를 시각화한 '문예위 정책 대시보드'를 구축함. 예산 투입 대비 예술인 고용 효과, 지역별 SOC 활용도, 재원 유입 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여 정책적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임

○ 성과 지표(KPI)와의 연계
- 위원회의 법정 사업성과를 대시보드상에서 데이터로 자동 산출하게 함으로써, 국회·기재부 등 대외 기관에 대한 정책 설명력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의 예산 편성 체계를 확립함

○ 사용자 맞춤형 뷰(View) 제공
- 정책 담당자용(심층 분석), 예술인용(시장 동향), 일반인용(향유 지도) 등으로 시각화 모듈을 세분화하여 데이터의 가시성을 극대화함

나. 마이크로데이터(MDIS) 개방 및 활용성 제고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연계
- 원자료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청 MDIS 시스템을 통해 개방함. 이를 통해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심층적인 학술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함

○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 지원
- 현장 예술가와 단체들이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시장을 분석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데이터 피드백 창구 운영
- 데이터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신규 조사 항목 설계나 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에 반영하는 개방형 거버넌스를 실천함

○ 결론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와 개방 활성화는 '데이터의 사유화'에서 '데이터의 공유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임

○ 이는 문화예술 통계가 대한민국 문화 행정의 과학화를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로 안착하는 최종 단계가 될 것임

제9장

정책 제언

제1절 서론

○ 본 연구는 1976년 창간 이래 약 50년 동안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지표 역할을 수행해 온 '문화예술 활동현황조사(문예연감)'의 시계열적 성과를 계승하고, 급변하는 예술 생태계를 포착하기 위해 도출된 7대 신규 통계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향후 10년을 전망하는 국가 문화예술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는 단순히 수치를 집계하는 조직을 넘어, 문화예술의 가치를 숫자의 언어로 번역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예술가에게는 권익을, 국민에게는 고른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국가적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허브'로서의 리더십을 확보해야 함

○ 특히 증거 기반 정책(EBPM)이 강조되는 현대 행정 환경에서, 기초예술 분야의 데이터 사각지대(Gap)를 해소하고 예산 확보의 정당성을 실증하기 위해 [창작·실연·전시·유통] 가치사슬을 관통하는 지능형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50년의 통계 자산을 결합하여, 기존 조사의 내실화와 함께 미래 정책 수요를 견인할 7대 신규 통계(산업현황, 가치측정, 노동시장, 지역접근성, 공공미술, 디지털참여, 민간재원)를 중심으로 한 정책 로드맵을 제안함

제2절 정책 제언

1. 주요 추진방향

○ 예술적 실천 중심의 통계 정의 및 법적 기반 재정립
- 문화예술활동을 오프라인 및 디지털 기반의 예술적 실천으로 재정의하고, 문화예술진흥법 내에 통계 생산의 법적 책무를 명문화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 문화위성계정(CSA) 도입을 통한 기초예술의 경제적 위상 실증
- 예술을 '소비적 복지'에서 '생산적 전략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경제(GDP) 기여도를 계량화하는 '거시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강화함

○ 데이터 기반의 예산 안정화 및 조사 전달체계 혁신
- 단순 항목 나열식 예산 배정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가치와 조사 난이도를 반영한 예산 모델을 도입하고, 범정부 데이터 연동을 통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함

○ 디지털 전환 및 지능형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 AI 분석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생산과 정책 집행 현장 간의 환류(Feedback)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함

2. 주요 정책 과제 및 실행 방안

○ 본 연구의 정책 제언은 단순히 개별 운영 개선과제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수립한 미션·비전·핵심가치·전략목표 체계를 정책 전반의 상위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모든 정책 과제와 실행 방안을 이에 체계적으로 연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본질적 고도화 및 데이터 무결성 확보
- (정의 기반 항목 슬림화) 활동의 '과정'이 아닌 사후 보상(상)이나 과거 기록(소사) 항목을 조사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고, 전문 예술 주체의 실질적 활동 건수 위주로 항목을 약 25% 슬림화하여 데이터 순도를 높여야 함
- (범정부 API 연동 체계 구축) 국립중앙도서관(ISBN/ISSN), 예술경영지원센터(KOPIS), 전국문화시설총람 등 유관 기관 서버와 실시간 API를 연계하여 기초 정보를 자동 수집함으로써 조사원의 수기 입력 오류를 원천 차단하고 조사 공수를 획기적으로 절감해야 함
- (다차원 속성 태깅 도입) 단순 건수 집계를 넘어 [신기술 접목], [사회적 가치(기후위기/장애인)], [공간 혁신] 등의 속성을 데이터에 태깅하여 정책 표적성을 강화함

○ 기초예술의 산업적 위상 정립을 위한 「예술 산업 및 가치 측정 통계」 개발

- (예술 산업 현황 조사) 국민계정체계(SNA)와 연계하여 기초예술 분야의 총산출액, 총부가가치(GVA), 고용유발효과를 정밀 계량화함으로써 예술 분야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실질적 규모를 가시화해야 함
- (비시장적 가치 실증) 시장 가격으로 환산되지 않는 예술의 공공적·상징적 가치를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및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 모델을 통해 화폐 가치로 증명하여 예산 당국을 설득하는 강력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해야 함

○ 예술 노동 시장의 다변화 대응을 위한 「노동시장 및 플랫폼 실태조사」 추진

- (플랫폼 노동 포착) 웹툰, 웹소설 등 플랫폼 기반 창작자와 긱 노동(Gig work) 비중이 높은 예술 노동자의 실질 소득 및 계약 형태를 파악하여 고용 보험 등 사회안전망 설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야 함
- (가려진 노동의 가치 제도화) 작품 생산을 위한 연습, 연구, 창작 준비 등 '비가시적 노동 시간(Time-use)'을 데이터화하여 예술인 노동 권익 보호 및 표준 계약 기준 마련의 근거로 삼아야 함

○ 지역 격차 해소 및 공공 자산 관리를 위한 「공간 기반 실태조사」 고도화

- (GIS 기반 문화접근성 진단) 단순 시설 수 집계가 아닌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생활권 단위의 '문화 소외 지역(Dead Zone)'을 정밀 식별하고, 지역 균형 지원 지표(Index)를 개발하여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함
- (공공미술 자산 실효성 관리) 전국에 산재한 공공미술 작품의 보존 상태와 시민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단순 설치를 넘어선 사후 관리와 보존 전략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 미래 환경 대응을 위한 「디지털 참여 및 민간재원 통계」 체계 마련

- (디지털 참여 지수 개발) AI 창작 등 능동적 프로슈머의 예술 활동을 포착하는 디지털 참여 실태조사를 통해 온-오프라인 예술 활동의 상호 보완성을 분석하고 디지털 전환 전략의 기초를 마련해야 함
- (민간재원 다변화 추적) 기업 메세나, 개인 기부, 크라우드 펀딩 등 파편화된 민간 재원의 흐름을 통합 관리하고, 재원 구조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지수(HHI-R 등)를 통해 공공 재원 의존도 탈피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데이터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및 환류 체계 구축

- (지능형 데이터 뱅크) 보고서 중심의 통계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자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공·분석할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의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의 융합 분석을 장려해야 함
- (성과관리 및 환류 제도화) 조사 결과와 정책 성과 지표(KPI)를 연동하여 통계가 단순 실적이 아닌 비전 달성을 점검하는 도구로 기능하게 하고, 조사 응답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Privacy by Design' 보안 체계를 확립해야 함

제3절 결론

○ 본 연구는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반세기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되, 그동안의 실무적 난제들을 기술적 혁신(API, AI)과 신규 통계 개발로 해결하는 '데이터 중심 예술 행정의 뉴 패러다임'을 제시함

○ 제안된 7대 신규 통계와 지능형 거버넌스 혁신안은 단순히 데이터의 양적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국가 문화 정책의 생산 주권과 해석 리더십을 동시에 확보하여 예산 및 정책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결정적 동력이 될 것임

○ 향후 본 제언이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실무에 적용되어 데이터로 예술의 가치를 증명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실현함으로써, 대한민국 문화 정책이 직관을 넘어 과학적 증거(Evidence) 위에 안착하기를 기대함

참고문헌

1. 고정민(2010), 「주요국가 문화예술통계 실태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국가통계위원회(2023),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3. 국가통계위원회(2023),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 관계부처 합동
4. 권태일(2016), 『문화관광 통계 체계 개선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 권태일 김상태 송철재 송호준 전진영(2023), 『문화체육관광 통계 생산·활용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 김두만·임준규(2015), 『국가통계 승인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통계청.
7. 김소혜(2021), 신규 통계지표 발굴을 위한 통계 프레임워크 : 식약처 적용 사례, 통계연구.
8. 김수경·이충희(2019), 『문화관광 통계 관리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9. 라도삼·박민진·백선혜·신인철(2019),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체계 구축 기본방향과 과제』, 서울연구원
10. 문화체육관광부(2024), 『문화체육관광부 월간 동향 2024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11.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센터(2015), 『종합문화통계 생산을 위한 통계 연계방안 연구』, 진한엠앤비
12. 안인자(2002), 문화예술 통계자료의 체계적 생산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13. 양예원·전진영·정종은·유상희·하누리(2021), 『문화예술산업 특수분류체계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4. 예술경영지원센터(2023), 『예술산업 특수분류 개선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
15. 유재훈(2023), 『2022년 오락·문화비 지출현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6. 이재열(2014),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개발 : 총괄체계」, 통계개발원.
17. 전진영·김수경·오서경(2025), 『문화체육관광 통계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4), 『예술산업 기업 동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2024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 한국창조산업연구소(2010), 『주요국가 문화예술통계 실태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1. 한준(2017), 「여가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진단연구」, 통계개발원.
22. 통계법
23. 통계법 시행령
24. 통계법 시행규칙
25.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계관리 규정

27. UNESCO (1986). The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Statistical Commission and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SCO,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Third Joint meeting on Cultural Statistics, 17-20 March 1986. CES/AC/44/11. 13 February 1986.
28.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09).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ics, Montreal, UIS.
29.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25).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ics I, II, Montreal, UIS.
30.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https://www.kopis.or.kr
31.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
32. 문화셈터 https://stat.mcst.go.kr
3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데이터광장, https://www.culture.go.kr/data
34.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ISBN/ISSN), https://seoji.nl.go.kr
35. 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
3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https://www.arko.or.kr

〈부록 1〉 신규 통계작성 승인사항 명세서 (7종통합)

1. 예술 산업 및 가치 측정

○ 통계명: 예술 산업 현황 조사 (Arts Industry Status Survey)
○ 작성 목적: 기초예술 가치사슬 전반의 경제적 규모(산출액, 부가가치, 고용 등)를 국민계정체계(SNA) 원칙에 따라 산출하여 예술 산업의 정책적 위상을 객관화함
○ 작성 대상(모집단): 전국 기초예술 생산 단위(기업, 단체, 개인사업자) 및 관련 서비스 사업체 전수
○ 조사 방법: 행정자료(국세청 사업자등록 정보, 고용부 고용보험 데이터) 연계 및 보완적 표본 실태조사(CATI/CAPI)
○ 조사 항목: 매출액 구조, 장르별 총산출, 부가가치액, 종사자 수, 중간투입 및 산출 구조
○ 조사 주기/시기: 연간 (매년 6월~8월 실시)
○ 결과 공표: 국가통계포털(KOSIS)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매년 12월)

2. 문화예술 가치 측정 통계

○ 통계명: 문화예술 가치 측정 통계 (Arts Value Measurement Statistics)
○ 작성 목적: 예술의 경제적 기여도 외에 사회적 편익(SROI) 및 비시장 가치(CVM)를 화폐 단위로 계량화하여 정책 예산 투입의 타당성 및 공공 가치를 실증함
○ 작성 대상(모집단):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수혜자) 및 예술 분야 전문가(공급자) 패널
○ 조사 방법: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기반 설문 조사 및 계량경제 모델링 분석
○ 조사 항목: 예술 향유 지불용의액(WTP), 주관적 행복감, 사회적 자본 형성 기여도,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 조사 주기/시기: 연간 (매년 7월~9월 실시)
○ 결과 공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및 KOSIS (매년 12월)

3. 예술인 노동시장 및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 통계명: 예술인 노동시장 및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 작성 목적: 디지털 플랫폼 창작 및 긱 노동(Gig work) 등 급변하는 예술 노동 형태를 포착하여 예술인 사회안전망 및 고용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 작성 대상(모집단):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및 주요 디지털 창작 플랫폼 활동 예술인
○ 조사 방법: 예술인복지재단 행정 DB 기반 전수 분석 및 표본 온라인 설문(CAWI)
○ 조사 항목: 플랫폼 창작 수익, 고용 형태(프리랜서 등), 계약 체결 실태, 사회보험 가입 현황, 노동 시간
○ 조사 주기/시기: 연간 (매년 5월~7월 실시)
○ 결과 공표: 보도자료 배포 및 문화예술통계포털(KOSIS 연계) 공표 (매년 11월)

4. 지역별 생활권 문화 접근성 실태조사

○ 통계명: 지역별 생활권 문화 접근성 실태조사
○ 작성 목적: 거주지 기준 문화시설 도달 시간을 분석하여 '문화 소외 지역'을 도출하고, 지역별 문화 SOC 확충 및 균형 발전 정책의 근거를 마련함
○ 작성 대상(모집단): 전국 공공·민간 문화시설 전수 및 전국 2만 가구 표본
○ 조사 방법: GIS(지리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분석 및 가구 방문 면접 조사
○ 조사 항목: 시설별 실제 도달 시간(이동 수단별), 공간 접근성 지수(SAI), 시설 이용 만족도, 지역별 문화 격차 지수
○ 조사 주기/시기: 연간 (매년 8월~10월 실시)
○ 결과 공표: 지역별 문화지수 지도 시각화 및 KOSIS 공표 (익년 1월)

5. 공공미술 자산 관리 실효성 실태조사

○ 통계명: 공공미술 자산 관리 실효성 실태조사
○ 작성 목적: 건축물 미술작품 등 공공미술 자산의 유지보수 상태를 정밀 진단하여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사후 관리 체계의 법적 실효성을 제고함
○ 작성 대상(모집단): 법정 의무 설치된 전국 공공미술 작품 및 지자체 소유 미술 자산
○ 조사 방법: 전문 인력에 의한 현장 정밀 안전 진단 및 K-Art DB 행정자료 분석
○ 조사 항목: 작품 보존 등급(A~E), 구조적 안전성, 유지보수 예산 편성 현황, 자산 관리 책임 주체 명확성
○ 조사 주기/시기: 연간 (순기별 표본 실사, 4월~10월)
○ 결과 공표: 공공미술 자산 관리 보고서 발간 및 통계 DB 구축 (매년 12월)

6. 디지털 문화예술 참여 실태조사

○ 통계명: 디지털 문화예술 참여 실태조사
○ 작성 목적: AI, 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술 창작 및 능동적 참여 실태를 측정하여 디지털 예술 진흥 정책 및 미래 인재 양성 계획의 기초로 활용함
○ 작성 대상(모집단): 온라인 예술 활동 경험자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창작자 패널
○ 조사 방법: 주요 플랫폼 로그 데이터 분석 지원 및 온라인 설문 조사(CAWI)
○ 조사 항목: 디지털 참여 지수(D-CAPI), 신기술 활용 창작 빈도, 디지털 예술 콘텐츠 지출액, 가상 공간 활동 시간
○ 조사 주기/시기: 연간 (매년 9월~11월 실시)
○ 결과 공표: 디지털 예술 트렌드 리포트 및 KOSIS 공표 (익년 2월)

7. 문화예술 민간재원·메세나 통계

○ 통계명: 문화예술 민간재원·메세나 통계
○ 작성 목적: 기업 후원, 개인 기부 등 민간 재원 유입 구조를 가시화하여 공공 재원 의존도를 탈피하고 예술 생태계의 재원 다변화 전략을 수립함
○ 작성 대상(모집단): 전국 문화예술 수혜 단체(NPO 포함) 및 기부 참여 기업/개인
○ 조사 방법: 공익법인 공시자료(국세청) 연계 분석 및 후원 주체 대상 실태조사
○ 조사 항목: 기부금 총액, 기업 메세나 유형(협찬, 기부 등), ESG 연계 비중, 개인 소액 기부 참여율
○ 조사 주기/시기: 연간 (매년 5월~7월 실시)
○ 결과 공표: 메세나 활동 현황 보고서 및 KOSIS 게재 (매년 11월)

〈부록 2〉 문화예술분야 분류 체계용어 정의서

1. 개요

○ 본 정의서는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데이터 일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조사 항목별 개념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사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향후 공공데이터 연계 및 국제 비교 통계 산출 시 표준 지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핵심 공통 및 전략 용어 정의

용어명 (국/영문)	정의 (Definition)	포함 및 제외 범위 (Inclusion/Exclusion)	비고
다차원 속성 태깅 (Multi-dimensional Tagging)	단일 장르 분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술 활동의 공간, 매체, 참여 주체, 융복합 여부 등 다중 속성을 동시에 부여하는 방식	**(포함)** 융복합 창작 실태 포착을 위한 장르 간 혼합 여부 매핑 **(제외)** 단순 대표 장르 1개만 지정하는 방식	고도화 핵심 과제
온라인 예술 (Digital/Online Arts)	초기 기획 단계부터 디지털 플랫폼 유통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상 공간에서 구현된 창작 및 실연 활동	**(포함)** 웹소설 연재, VR/메타버스 전시, OTT 송출 및 온라인 생중계 실연 **(제외)** 오프라인 활동의 단순 기록물 업로드	신설 지표
비전형 예술 공간 (Non-standard Spaces)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시설 외에 자생적으로 예술 활동이 실현되는 민간 및 공공의 대안적 거점	**(포함)** 카페, 독립서점, 아트숍, 유휴공간, 거리 및 공공장소 등 **(제외)** 예술적 의도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일반 매장	모집단 고도화 반영
전문성 필터 (Professionalism Filter)	단순 취미·이벤트성 행사와 전문 예술 활동을 구분하기 위해 전문가 참여 여부와 결과물의 지적 자산 가치를 검증하는 기준	**(포함)** 평론가/연구자 참여 행사, 학술지/비평문 등의 기록물 산출물 보유 활동 **(제외)** 단순 기념식, 학원 발표회, 비전문가 위주의 취미 활동	공신력 확보 지표

3. 장르별 세부 활동 용어 정의

분야	용어	정의 및 기준
문학	단행본	ISBN을 부여받아 독립된 권으로 간행되는 저작물 (판정 기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의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인쇄 도서 및 전자책(E-book)을 포함함 (제외) 비매품(자료집, 홍보물), 단순 증쇄본, 개인 소장용 출판, 정기간행물
	번역도서	한국 문학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되어 해외 현지에서 출판된 도서. 한국문학번역원 등 공인 기관의 증빙이 필요함
	문학 잡지	ISSN을 부여받은 문학 전문 정기간행물. 수록된 작품수와 비평 담론의 양을 활동 지표로 삼음
	웹소설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연재되거나 유통되는 서사 중심의 문학 창작물 (포함) 플랫폼 연재작, 웹소설 기반 전자책 (제외) 개인 블로그의 단순 일기성 게시글
	플랫폼 연재	웹소설 및 웹툰 플랫폼을 통해 유료 구독 서비스나 연재 방식을 활용하여 유통되는 디지털 문학 창작 활동을 의미함
	전문 문학 행사	단순 기념식을 제외하고 작가와의 대화, 낭독회, 북토크 등 예술적 전문성이 식별되는 활동에 한정함
	전문 학술행사	예술적 담론 형성 및 비평적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학술적 실천 (포함) 세미나, 컨퍼런스, 비평 워크숍 (제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교육·강좌
	학술적 결과물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적 자산으로서 가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집, 비평문, 학술지 수록 형태의 기록물을 포함함
시각예술	전시	시각예술 작품을 특정 공간에 진열하여 관람에 제공하는 행위 (개인전) 작가 1인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실천 (기획/단체전) 특정 주제 하에 2인 이상의 작가가 참여하는 실천 (제외) 갤러리 상설 판매전(단순 재고 전시), 학원 및 교육기관의 졸업 전시회, 공공장소의 단순 시설물 설치
	디지털 전시	가상 갤러리, 메타버스 전시, 온라인 뷰잉룸 등 디지털로 구현된 전시 형태를 별도 분석하기 위한 범주임
	독립적 기획 행사	축제 부대행사가 아닌 팝업 전시, 유휴공간 프로젝트, 독립 큐레이팅 등 독자적인 기획 의도를 가진 전시 활동을 포함함
	현장 비평 활동	이론 세미나뿐만 아니라 전문 비평가가 참여하는 아티스트 토크, 라운드 테이블 등 담론 형성을 위한 학술 활동을 별도 관리함
공연예술	실연	음악, 무용, 연극 등 예술적 기량을 무대나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선보이는 행위
	회차	동일 장소에서 동일 작품이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공연된 횟수. (※중복 집계의 기본 단위)
	창작초연	국내에서 최초로 제작되어 대중에게 공식 발표된 작품의 실연
	디지털 실연	온라인 생중계, OTT 송출 등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실연 실적을 새롭게 포착함
	비전형 실연 형태	장소의 제약 없이 실내·외 및 비전형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현대 공연의 유연한 형태를 포착하며, 실외공연장 여부를 별도로 식별함
	전문 기획 유형	개막식 등 부대 공연을 제외하고 창작 쇼케이스, 렉처 콘서트 등 전문적인 창작 의도가 명확히 담긴 행사를 의미함

4. 공간 및 장소 분류 기준

용어	정의 및 기준
등록 공연장/전시장	문화체육관광부 시설 총람에 등록된 공식 국공립 및 민간 시설
미등록 공간	등록 시설은 아니나 예술 활동이 상시/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실내외 장소 (예: 미등록 공연장, 팝업 스토어 등
공간 속성 태깅	전형(전문 시설), 유휴공간, 대안공간, 상업

문화예술
신규 통계개발
사전연구

발행인 : 정병국
발행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전화 061-900-2100, 2200
팩스 061-900-2362
홈페이지 www.arko.or.kr

인쇄일 : 2026.05.15.
발행일 : 2026.05.15.